東西大學校 孔子學院 · 大韓中國學會

2018年度 秋季 學術大會

“중국학 연구의 현황과 발전방향 탐색”

【일 시】 2018年 11月 24日 (13:00~18:30)

【장 소】 釜山外國語大學校

【주 최】 東西大學校 孔子學院 · 大韓中國學會

【주 관】 釜山外國語大學校

목 차

• 식순안내 ····· 3

• 오시는길 ····· 8

【특별 분과】

1. 중국,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커리큘럼, 플랫폼, 그리고 리터러시 / **박지현** ····· 11
2. 린리밍(林禮明)의『阿Q後傳』속의 '식인' 주제 읽기 / **배도임** ····· 21
3. 야스이 솟켄(安井息軒)의 그리스도교 비판 연구 — 「辨妄」을 중심으로 / **최정섭** ····· 31
4. 胡適의 편찬의식 연구 —『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을 중심으로 / **한지연** ····· 39
5. 포스트혁명시대 중국의 항미원조 기억 서사
   — 영화 <나의 전쟁>(2016)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한담** ····· 49
6. 류이창(刘以鬯)『술꾼(酒徒)』에 나타난 홍콩 도시 공간 인식 / **정중석** ····· 55
7. '중앙1호문건'과 향촌진흥전략 독해 / **이화진** ····· 69

【중국어학 분과】

1. 중국학으로서의 언어학에 대하여 / **박찬욱** ····· 75
2. 뇌친화적 한자수업이 초등 학습자의 한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이미지텔링 연상법 활용을 중심으로 / **신승란** ····· 83
3. 중국어 '比'에 대한 경동사 가설 검토 — 한중 차등비교구문 대조를 중심으로 / **유효단** ····· 91
4. 新HSK의 화제범주와 항목 분석
   — 新HSK 4~6급(듣기, 독해)를 중심으로 / **박경송·위수광·임춘영** ····· 103
5. 한중 차등 비교문에서의 '更'과 '还'의 비교분석 / **이은민** ····· 117
6. "一日教师"活动应用于汉语课的教学模式实践研究 — 以汉语会话课实例为中心 / **조소군** ····· 125
7. 미추(美醜)의 대립관념에서 본 '美'의 의미 범주 / **김정필** ····· 135

【중국문학 분과】

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장자의 리더십 / **김송희** ····· 139
2. 《朝鮮王朝實錄》中的苏轼纪事特征 / **안희진** ····· (현장 배부)
3. 寒山詩의 주요 이미지에 관한 고찰 / **정원호** ····· 147

4. 郑郑《笺》兴意的探讨 / **오만종·조혜진** ····· 161
5. 中国80后诗歌浅析 / **우샤오팡** ····· 175
6. 『紅樓夢』을 통해 본 작가의 人性論 / **최병규** ····· 181
7. 《高麗史》引孟子言初探 / **胡倩茹** ····· 189
8. 오례를 통한 『시경』의 시 연구 / **송진열** ····· 195

【중국사회과학 분과】

1.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상표권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 **초연·차경자** ····· 205
2. 시진핑 정부 해양 전략의 목표와 의미 / **김지예** ····· 215
3. 선전: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과기원 / **이중희** ····· 219
4. "一带一路""与东北亚地区：中国的视角及政策转型 / **张暮辉** ····· 231
5. 중국 외교 3.0: 시진핑 시기의 지속과 변화 / **리단** ····· 241
6. 韩国对朝奥运外交对朝鲜半岛局势的影响 / **두보** ····· 257
7. 중국에서 '사영경제 퇴장론' 풍파와 '국진민퇴' 논쟁에 대한 고찰 / **서석흥** ····· (현장 배부)
8. 한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공세 외교 동인 / **김진용** ····· 263
9. 构建人类命运共同体与东北亚区域合作 / **赵立新** ····· (현장 배부)

【중국문화 분과】

1. 왕차오(王超) 감독 연구 — 悲劇 삼부작을 중심으로 / **박민수** ····· 275
2.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전 마오쩌둥의 문화 사상과 정책 / **김형열** ····· 283
3. 太极拳的动作特点与中国传统文化的关系 / **靳晔珅** ····· 291
4. 中国魏晋时期海洋意象初探 / **晁亚若·김창경** ····· 295
5. 魯認『錦溪日記』에 나타난 16세기말 韓中 士人들의 역사인식 / **박영환** ····· 307
6. 중국 초국경 유수(留守)청소년의 문제에 관한 연구
— 칭다오 라이시시의 재한 노무자의 자녀를 중심으로 / **위하·장소박·왕연초** ····· 315
7. 显灵验传说与18-19世纪的台湾移民社会——以开漳圣王为例 / **王梓** ····· 323

식 순 안 내

제1부 개회식
(13:00~14:30)

▶ 개회식 (트리니티홀 D110) 13:00~14:30

■ **사회 : 김현태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부경대)**

▢ **등 록** 13:00~13:30

▢ **개 회 식** 13:30~14:30

- ■ **개 회 사** 김창경 (대한중국학회 회장)
- ■ **축 사** 정태업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일중 대학장)
- ■ **환 영 사** 김영기 (동서대학교 공자학원 원장)
- ■ **윤리교육** 서석흥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위원장)
  ※ 전체 학회 회원 대상 연구윤리교육

제2부 학술발표회
(14:30~17:50)

【중간휴식】 16:00~16:20

▶ 특별 분과 (트리니티홀 D314) 14:30~17:50

■ **사회 : 이보고 (부경대) / 서광덕 (부경대)**

▢ 1. 중국,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커리큘럼, 플랫폼, 그리고 리터러시

- 발표 : 박지현 (서울대)
- 토론 : 이보고 (부경대)

▢ 2. 린리밍(林禮明)의『阿Q後傳』속의 '식인' 주제 읽기
- 발표 : 배도임 (한국외대)
- 토론 : 안승웅 (부산대)

▢ 3. 야스이 솟켄(安井息軒)의 그리스도교 비판 연구 — 「辨妄」을 중심으로
- 발표 : 최정섭 (연세대)
- 토론 : 서광덕 (부경대)

▢ 4. 胡適의 편찬의식 연구 —『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을 중심으로
- 발표 : 한지연 (중앙대)
- 토론 : 이강인 (부산외대)

▢ 5. 포스트혁명시대 중국의 항미원조 기억 서사
— 영화 <나의 전쟁>(2016)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발표 : 한 담 (전남대)
- 토론 : 유미경 (부산대)

▢ 6. 류이창(刘以鬯)『술꾼(酒徒)』에 나타난 홍콩 도시 공간 인식
- 발표 : 정중석 (한국외대)
- 토론 : 필문수 (부산대)

▢ 7. '중앙1호문건'과 향촌진흥전략 독해
- 발표 : 이화진 (서울대)
- 토론 : 권경선 (해양대)

▶ 중국어학 분과 (트리니티홀 D319) 14:30~17:50

■ **사회 : 이은화 (인제대) / 김명자 (동의과학대)**

▢ 1. 중국학으로서의 언어학에 대하여
- 발표 : 박찬욱 (서울여대)
- 토론 : 김영찬 (동의대)

▢ 2. 뇌친화적 한자수업이 초등 학습자의 한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이미지텔링 연상법 활용을 중심으로
- 발표 : 신승란 (창원대)
- 토론 : 곽현숙 (부경대)

▢ 3. 중국어 "比"에 대한 경동사 가설 검토 — 한중 차등비교구문 대조를 중심으로
- 발표 : 유효단 (부산대 박사과정)
- 토론 : 왕녕박 (가야대)

▢ 4. 新HSK의 화제범주와 항목 분석 — 新HSK 4~6급(듣기, 독해)를 중심으로
- 발표 : 위수광 (창신대)
- 토론 : 오현주 (울산대)

▢ 5. 한중 차등 비교문에서의 '更'과 '还'의 비교분석
- 발표 : 이은민 (부산외대)
- 토론 : 김정훈 (경남대)

▢ 6. 韩国大学生"一日教师"活动应用于汉语课的教学模式实践研究
—— 以汉语会话课实例为中心
- 발표 : 조소군 (부산외대)
- 토론 : 이길연 (창신대)

▢ 7. 미추(美醜)의 대립관념에서 본 '美'의 의미 범주
- 발표 : 김정필 (경상대)
- 토론 : 진광호 (부산외대)

▶ 중국문학 분과 (트리니티홀 D332) 14:30~17:50

■ **사회 : 강경구 (동의대) / 정원호 (동의과학대)**

▢ 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장자의 리더십
- 발표 : 김송희 (LAMI 인문과 예술 경영연구소)
- 토론 : 김창경 (부경대)

▢ 2. 《朝鮮王朝實錄》中的苏轼纪事特征
- 발표 : 안희진 (단국대)
- 토론 : 정태업 (부산외대)

▢ 3. 寒山詩의 주요 이미지에 관한 고찰
- 발표 : 정원호 (동의과학대)
- 토론 : 이경민 (동아대)

▢ 4. 郑郑《笺》兴意的探讨
- 발표 : 오만종·조혜진 (전남대)
- 토론 : 안희진 (단국대)

▢ 5. 中国80后诗歌浅析
- 발표 : 우샤오팡 (동아대)
- 토론 : 예동근 (부경대)

▢ 6. 『紅樓夢』을 통해 본 작가의 人性論
- 발표 : 최병규 (안동대)
- 토론 : 유미경 (부산대)

▢ 7. 《高麗史》引孟子言初探
- 발표 : 胡倩茹 (台灣銘傳大學)
- 토론 : 강경구 (동의대)

▢ 8. 오례를 통한 『시경』의 시 연구
- 발표 : 송진열 (동서대)
- 토론 : 정원호 (동의과학대)

▶ 중국사회과학 분과 (트리니티홀 D334) 14:30~17:50

■ **사회 : 손상범 (영남대) / 서석흥 (부경대)**

▢ 1.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상표권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 발표 : 초 연·차경자 (한국해양대)
- 토론 : 김형근 (신라대)

▢ 2. 시진핑 정부 해양 전략의 목표와 의미
- 발표 : 김지예 (부산외대)
- 토론 : 손상범 (영남대)

▢ 3. 선전: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과기원
- 발표 : 이중희 (부경대)
- 토론 : 이찬우 (창원대)

▢ 4. "一带一路""与东北亚地区：中国的视角及政策转型
- 발표 : 张暮辉 (부산대)
- 토론 : 리 단 (부경대)

▢ 5. 중국 외교 3.0: 시진핑 시기의 지속과 변화
- 발표 : 리 단 (부경대)
- 토론 : 김동하 (부산외대)

▢ 6. 韩国对朝奥运外交对朝鲜半岛局势的影响
- 발표 : 두 보 (신라대)
- 토론 : 김진용 (경남대)

▢ 7. 중국에서 '사영경제 퇴장론' 풍파와 '국진민퇴' 논쟁에 대한 고찰
- 발표 : 서석흥 (부경대)
- 토론 : 김경환 (부산대)

▢ 8. 한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공세 외교 동인
- 발표 : 김진용 (경남대)
- 토론 : 김지예 (부산외대)

▢ 9. 构建人类命运共同体与东北亚区域合作
- 발표 : 赵立新 (중국 연변대)
- 토론 : 박재진 (동서대)

▶ 중국문화 분과 (트리니티홀 D336) 14:30~17:50

■ **사회 : 예동근 (부경대) / 박민수 (부산외대)**

▢ 1. 왕차오(王超) 감독 연구 — 悲劇 삼부작을 중심으로
- 발표 : 박민수 (부산외대)
- 토론 : 임춘영 (동아대)

▢ 2.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전 마오쩌둥의 문화 사상과 정책
- 발표 : 김형열 (동의대)
- 토론 : 전경선 (부산대)

▢ 3. 太极拳的动作特点与中国传统文化的关系
- 발표 : 靳晔珅 (부경대 박사생)
- 토론 : 판 제 (부경대)

▢ 4. 中国魏晋时期海洋意象初探
- 발표 : 晁亚若 (동서대) · 김창경 (부경대)
- 토론 : 김경아 (동의대)

▢ 5. 魯認『錦溪日記』에 나타난 韓·中 士人들의 역사인식
- 발표 : 박영환 (동국대)
- 토론 : 오만종 (전남대)

▢ 4. 중국 초국경 유수(留守)청소년의 문제에 관한 연구
— 칭다오 라이시시의 재한 노무자의 자녀를 중심으로
- 발표 : 위 하 (부경대 박사생)
- 토론 : 동국대 박사생 토론

▢ 7. 显灵验传说与18-19世纪的台湾移民社会 —— 以开漳圣王为例
- 발표 : 王 梓 (동국대 박사생)
- 토론 : 부경대 박사생 토론

제3부 총회 및 폐막식
(17:50~18:30)

▶ 총회 및 폐막식 (트리니티홀 D110) 17:50~18:30

■ **사회 : 김현태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부경대)**

▢ **총 회** 17:50~18:30

▢ **폐 막 식** 18:30

- **학술상 수여** 하영삼 (한국한자연구소 소장)
- **결산보고** 김현태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 **차기회장 선출** 김창경 (대한중국학회 회장)
- **폐회사** 김창경 (대한중국학회 회장)

▢ **리 셉 션** 18:30~

- TNT 대패삼겹살 (구. 윤삼겹)
  부산시 금정구 남산로 36 (금정구 남산동 334-30) ☏ 010-2225-6502

오 시 는 길

☞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광역시 금샘로 485번길 65)

○ **지하철**

• **1호선** : 남산역에서 하차 후 3번과 5번 출구 사이 새우리남산병원 앞에서 셔틀버스 이용

• **1호선** : 구서역에서 하차 후 2번 출구 앞에서 마을버스 3번 이용

○ **버스**

• **3번 (마을버스)** : 구서역↔롯데캐슬정문↔부산외대↔남산역↔부산외대↔구서역

☞ 학술대회장 : 부산외국어대학교 트리니티홀

☞ 리셉션 장소 : TNT 대패삼겹살 (구. 윤삼겹)

- 연락처 : 010-2225-6502
-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남산로 36 (금정구 남산동 334-30)

【메 모】

【특별 분과】 발표 ①

중국,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커리큘럼, 플랫폼, 그리고 리터러시

박지현 (서울대 기초교육원)

【목 차】

1. '중국'을 가르친다는 것
2. 상상과 오독의 기원과 구조
3. 실사구시적 이해를 위한 차이나리터러시
4. 커리큘럼과 플랫폼

1. '중국'을 가르친다는 것

이 글은 중국 교육에 관한 것이다. 과거 중국어문학과에서 '중국'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다. 인적·물적 및 정보의 교류가 제한적이던 시절, 중국에 대한 이해는 주로 어문 텍스트를 매개로 해 이뤄졌다. 중국인과 언어 문자 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일차적인 학과 교육의 목표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빠르게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1]은 글로벌 시장경제체제 속 세계사회를 한층 더 긴밀하고 빠르고 복잡하고 전면적인 관계로 축소시켰다. 더구나 통신매체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전개는 국경을 초월한 인적·물적 및 정보 교류의 확산과 심화를 촉진시켰다. 지금은 매일 같이 중국에 관한 기사와 뉴스가 쏟아지고 어디서나 중국에 관한 사진과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다.

문제는 포털과 플랫폼에 유통되는 수많은 중국 관련 정보들이 그것이 생산되고 가공되고 편집되고 공유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적절한 번역과 해석을 결여한 채 분절된 탈맥락적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차이나리터러시가 아직 많은 부문에서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리터러시의 부재는 대상에 대한 상상과 오독을 낳는다. 상상과 오독은 대상을 타자화하며 생기는 '자아인식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선 일정한 의미가 있다.[2] 그 대상이 자아인식의 '거울' 기능을 하는 경계 밖 존재에서, 실제 내 삶의 확장 속에 어느 순간 경계를 허물고 들어온 터전의 일부가 되는 순간, 그것은 치명적 오류 내지 결함이 된다.

1)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8.6.3)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2012년 이후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약화의 배경으로 보호무역 기조 강화, 아시아 주요국의 내수중심 경제구조로의 변화, 선진국 및 신흥국간 생산비용 격차 축소 등을 지적했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28/view.do?nttId=10044948&menuNo=200434

2) 차태근은 19세기 전반 광둥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동아시아 지식생산 네트워크로서 《차이니스 레포지터리》(1832년 5월호~1851년 12월호)의 역할과 의미를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형성된 동아시아의 서구적 표상이 동아시아의 자기 표상, 심지어 오늘날 우리들의 자기 표상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고 '동아시아인의 자기인식 방식은 마치 누군가에 의해 액자화된 거울 이미지를 통해 자기를 인식하는, 타자에게 자기를 일치시켜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민정기·심혜영 엮음, 《동서양의 경계에서 중국을 읽다– 19세기 잡지 《차이니스 레포지터리》에 나타난 '너'와 '우리'》, 새물결, 2018, pp.31-54.) 나는 '타자에게 자기를 일치시키는 동아시아인의 자기인식 방식'이 본원적인 것이라기보다 19-20세기에 출현한 급진적 근대화 과정의 한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중국 표상은 그런 의미에서 흥미롭다. 여전히 근대 서구가 형성한 동아시아 표상의 자장 속에 있으면서 중국을 타자화하는 자기인식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더구나 프랫의 이른바 '접촉지대'란 개념(《제국의 시선-여행기와 문화 횡단》, 김남혁 역, 현실문화, 2015)이나 19세기 전반 동아시아 표상의 시좌(視座)로서 광둥과 같은 특정한 물리적 공간이 부재한 상태에서 표상의 형성과 분절과 표류는 다른 메커니즘적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중국에 있지 않아도 매일 쏟아지는 기사와 뉴스와 사진과 동영상을 접할 수 있는 지금은 도처가 '접촉지대'다.

21세기 한국 사회에 사는 우리 또는 내게, '중국'은 타자화의 순기능이 발현하는 경계 밖 존재인가, 내가 내 주변의 사람과 이웃을 이해하며 공생하듯(싸우거나 협력하면서) 올바른 '문법 독해'로 파악하고 살아야 하는 터전 내 요소인가. 내 삶의 방향이 이끄는 경계지움이 어디냐에 따라 '중국'에 대한 상상과 오독은 자아인식의 공간 또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선택이나 판단의 크고 작은 결함이 되기도 할 것이다. 내 삶의 방향은 내향인가, 외향인가. 수렴인가, 확산인가. 엄밀히 말해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개의 방향은 공존한다. 삶은 끊임없이 자기를 인식하고 외부를 향해 확장해가는 과정이다. 그 '원'의 크기와 색깔에 개인차가 있을 뿐이다.

2. 상상과 오독의 기원과 구조

1) 인식 주체 혹은 대상으로서 '국가'

동시대 이웃 국가인 '중국'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나는 중국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 그럼 중국을 '아는 것'인가? 나는 중국인 친구가 있고 그와 종종 대화를 나눈다. 그럼 중국을 '아는 것'인가? 나는 중국을 다녀오거나 살아본 적이 있다. 그럼 중국을 '아는 것'인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중국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중국인은 중국을 아는가? 한국인은 어떤가? 한국인은 한국을 아는가?

일반적으로 한국인인 우리가 '한국을 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과 산다. 둘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셋째, 미디어의 내용을 이해한다. 넷째, 경제 활동을 한다. 다섯째, 정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 알기'의 정도 혹은 능력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갖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쓴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연령, 성별, 지역, 경험, 교육, 직업, 성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개개인이 알고 있는 '한국'의 내용과 크기와 성격은 매우 다르다.

다시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가 알고 있다, 혹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은 실재하는가? 우리가 열심히 평생에 걸쳐 우리가 사는 '한국'을 배우고 익히면, 우리는 전체 한국을 알 수 있는가? 대체 '한국'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한국을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된다. '한국'은 인식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중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라는 대화를 주고받는다.

근대 이후 국민국가체제 속 '국가'는 자기정체성의 가장 확장된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세계 속 '국가'는 하나의 사회일 뿐이다. 비록 '국경'이란 경계에 의해 명확한 '내외'의 구분이 있고[3], '애국'이란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력한 '피아'의 구분이 있지만, 현실세계 속 '국가'는 수많은 '나'들이 모인 공동체의 한 단위일 뿐이다. 그럼에도 국민국가체제 속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국가'를 인식할 때 현실 속 '사회'라는 사실을 종종 망각하고 확장된 자아, 즉 '민족(nation)'의 현현체로 받아들인다.[4]

마치 축구장에서 한-일 경기가 벌어질 때 선수와 관중의 개인성(Individuality)은 사라지고 혼연일체 하나의 팀이 돼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 주권 규범에 입각한 현대 국제사회 속 국가는 현대 국가 속 개인처럼, 국제법상 평등한 모든 권리의무의 주체이긴 하다. 현실의 국가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개인들이 모인 하나의 '사회'지만, 국제사회 속 국가는 축구 경기장에서의 '한국'처럼 동질화된 집단으로서 하나의 단일한 개성적 주체로

3) 오늘날 국제사회의 문제를 국가사유의 한계와 세계사유의 부재로 지적하면서, 세계를 척도로 삼아 세계문제를 해결할 세계사유, 즉 세계제도로서 천하체계를 소환한 자오팅양(赵汀阳)은 천하체계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무외(無外)의 법칙'을 제시했다. 자오팅양, 『천하체계: 21세기 중국의 세계 인식』, 길, 2010.

4) 장윤미는 〈중국의 국가통합과 중화민족〉이라는 서울대 강연(2018년 11월 2일)에서 '네이션'을 '시민적·영토적' 민족과 '인종적·계보적' 민족으로 구분했다. 이 같은 구분에서 한국은 두 민족 개념이 결합된 단일한 '민족국가(nation state)'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통일한국이 논의될 때 그 공동체는 '인종적·계보적' 민족 개념으로 하나의 공동체라 할 수 있지만, '시민적·영토적' 민족 개념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긴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훨씬 더 곤혹스럽다. '중화민족'은 이미 근대 이전 유목민족(이민족)이라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문화정체성의 한족을 중심으로 강한 '인종적·계보적' 민족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민족을 끌어안아야 하고, '시민적·영토적' 민족 개념으로 구분되는 이질적 정치공동체의 홍콩민족과 타이완민족을 끌어안아야 한다.

전화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국가로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첫째, 덩치만 큰 강대국으로 미국 등 서구 선진 국가에 비해 모든 면에서 후진적이다. 둘째, 자기밖에 모르는 강대국으로 주변 국가에 대해 틈만 나면 '갑질'을 일삼는다. 이는 특히 근현대 역사 속 중국에 대한 한국적 '상상'의 결과물이다.[5] 첫 번째 이미지는 19세기 이래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간 전근대의 화신, 20세기 후반 현대화의 과정에서 한국보다 뒤처진 가난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두 번째 이미지는 전근대 중국적 세계질서(조공체제)에 대한 근대적 해석으로서 '중화주의'와 '사대주의'라는 관습화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2) 차이의 틀로서 공간 혹은 시간

리터러시를 필요로 하는 '차이'는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일찍이 《사기(史記)》 〈흉노열전(匈奴列傳)〉에도 재현된바 있는 유목문화와 정주문화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자연환경과 지리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근대 이후 이러한 공간의 차이는 흔히 시간의 차이로 전화되어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소설가 위화(余华, 1960년생)는 〈우리는 거대한 차이 속에 살고 있다〉라는 제목의 한 수필에서[6] 1990년대 후반 중국중앙방송(CCTV)이 6월 1일 어린이날을 맞아 중국 각지의 아이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베이징의 한 남자아이는 장난감이 아닌 진짜 보잉 비행기를 받고 싶다고 하고, 서북 지역의 한 여자아이는 수줍게 흰 운동화를 갖고 싶다고 말한 에피소드를 들어, 이 둘은 같은 시대를 살지만 그들 꿈의 차이는 오늘날의 유럽과 400년 전 유럽의 차이만큼이나 비현실적이라 부조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위화는 개혁개방 40년이 유럽인이라면 400년에 걸쳐 겪었을 급진적 변화였으며, 이후 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공간을 시간 개념으로 전화하는 레토릭을 사용했다. 시간의 차이는 공간의 차이보다 훨씬 더 부조리하다. '현재'에 존재하는 '과거'라니! 그것은 이미 사라져 실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의 실존이다. 중국의 급진은 그 부조리한 '현재' 속 '과거'를 지우기 위해 진행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는 결국 동시대적 공간의 차이다. 유목민의 생존이 정주민 없이 지속될 수 없었듯이, 베이징 남자아이의 꿈은 서북 지역 여자아이의 꿈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꿈의 차이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중국 인식은 공간의 차이보다 시간의 차이라는 틀 속에서 접근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걸어온 과거 어느 시점에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늘 글로벌 체제 속 공간의 차이를 구현하고 있을 뿐이다. 베이징 남자아이와 서북 지역 여자아이의 꿈이 보여주듯, 그 공간의 차이는 중국 내에도 존재하고 한국 내에도 존재한다. '나'의 공간은 어느 지점에 어느 위상으로 위치해 있는가. 중국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 이해, 아니 '나'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도 공간의 사유 즉 세계사유가 필요하며 차이나리터러시는 그것의 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3. 실사구시적 이해를 위한 차이나리터러시

1) 제국성 국가와 '문명 기제'

◇ '제국성 국가'인 중국에 대해 한국 학생들이 독해 오류를 범하는 첫 번째 관문은 '규모의 비대칭성'[7]이

5) 모든 '상상'에는 사실과 허구가 섞여있다. 이 같은 '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진실은 숨겨진 자아의 시선이다.

6) 위화, 이욱연 역, 《우리는 거대한 차이 속에 살고 있다》, 문학동네, 2016, p.11~13. 원제: 我们生活在巨大的差距里(北京十月文艺出版社, 2015)

7) 중국의 제국성은 국경의 규모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은 동서로 대략 5,000㎞, 남북으로 5,500㎞의 거리를 갖고 있으며 국경선의 길이만 2만 2천㎞에 달한다. 육상으로만 14개국(동쪽에서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북한-러시아-몽골-카자흐스

다. 인구로 약 28배, 국토 면적으로 약 96배에 해당하는 초대형 국가를 한국의 규모 감각으로 접근해 파악하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설정이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는 상주인구 2,170만, 면적 16,410㎢의 직할시(2017년 기준)로, 인구 면에서 서울+경기도(986만+1,287만=2,273만)와 비슷하고, 면적 면에서 서울+경기도(605+10,175=10,780㎢)보다 훨씬 크며 강원도(16,873㎢)와 비슷한 크기임을 알 수 있다. 23개 성 가운데 인구 규모로 1위인 광둥(广东)성은 상주인구 1억 1169만, 면적 179,700㎢로(2017년 기준), 인구로는 세계 12위권 국가에 해당하며 면적으로도 남한과 북한을 합친 한반도 면적의 81%에 해당한다. 2017년 총 GDP가 8조 9879억 위안(한화 약 1528조 원)에 이르니[8] 경제 규모에서도 한국(2017년 GDP 1730조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34개에 이르는 중국의 성급 행정구(23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는 인구나 면적, GDP 규모로 봤을 때, 각기 하나의 '국가'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단 각 행정구 사이의 경제 격차는 세계 13~14위권에서 100위권까지 커다란 차이로 존재한다.

◇ 문법1) 문명기제: 러시아를 제외한 동·서유럽의 면적에 그 두 배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국, 그 제국적 영토와 인구와 문화와 역사를 하나의 국가사회로 만들어주는 다양한 문명 기제를 살펴보고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 ex) '斯文'과 '天下爲公'. 중국은 과연 '국가'인가?

2) 중화인민공화국과 '역사 기제'

◇ 진한(秦漢) 제국 이래로 중국은 통일과 분열을 지속했다. 지루하고 동어반복으로 보이는 왕조교체가 2천년간 지속되다가 마침내 19세기 중반 아편전쟁으로 시작된 서구문명과의 충돌로 전근대의 왕조 체제가 붕괴되고 20세기 혁명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섰다는 게 일반적인 중국사의 스토리다. 그러나 미조구치 유조 등은 『중국 제국을 움직인 네 가지 힘』(글항아리, 2012)이란 책[9]에서 단조로운 왕조 교체사로 보이는 중국 역사에 네 번의 커다란 변동기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것이 어떤 변혁을 가져왔는지 설명했다. 논의의 핵심은 역사를 단순히 왕조교체로 구획하거나 황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의 변동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람들의 변화' 즉 사회체제의 변화로 읽어내려 했다는 점이다. 사실 진한 제국 이래 2천년간 중국 사회가 왕조만 교체되고, 아무런 질적 변화 없이 전근대의 연속이었다는 '상상'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21세기 현재 중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에 대해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도시화'다. 중국은 이제야 진정한 도시사회, 공업화사회로 접어들었다.[10] 2011년 50%를 넘어 2020년 60%를 바라보는 도시화율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토지와 유리된 수억 명의 도시 중산층을 양산한다. 이것이 향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 문법2) 역사기제: 1840년 아편전쟁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 제국 해체와 분열의 100년, 1911년 신해혁명부터 2010년 G2 국가가 되기까지 급진과 굴기(崛起)의 100년 과정을 살펴보고 전통시기 문명제국의 중국이 20세기 국민국가로 전화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네팔-부탄-미얀마-라오스-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계 최다 접경국을 지닌 나라다. 이 같은 규모의 비대칭성은 관계 및 인식의 비대칭성으로 이어진다. 백영서는 2013년 쑨거(孙歌)와의 대담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과소 관심, 한국은 중국에 대해 과잉 관심'이라는 표현을 쓴바 있다. 백영서·쑨거, 〈비대칭적 한중관계와 동아시아 연대〉, 《창작과 비평》, 2013년 여름호(제41권 제2호, 통권 160호), 2013.6, pp.177~178.

8) http://www.8pu.com/gdp/china_gdp.html

9) 제1변동기는 진한 제국의 성립에 이르는 과정으로, 여기에서 이후 2천년을 이어진 중앙집권적 왕조체제가 탄생했다. 제2변동기는 당송(唐宋) 시기로, 문벌·귀족 사회에서 과거관료제 사회로의 거대한 전환이 이뤄졌다. 제3변동기는 명말청초(明末淸初) 시기로, 신사(紳士)라 불리는 계층이 민중의 리더로서 지방의 사회질서를 주체적으로 담당하기 시작했다. 제4변동기는 청말민국(民國) 시기로, 지방 사민(士民)의 힘이 점점 커져 자위무력의 조직이 생겨나고 마침내 신해혁명으로 왕조체제 자체를 와해시켰다. 원서: 『中國思想史』(도쿄대학출판부, 2007).

10)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중국의 도시화율은 12.5%였다. 사회주의 30년인 1978년, 개혁개방 직전의 도시화율 역시 17.9%에 불과했다. 여전히 인구 10중 8명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3) 중국특색사회주의와 '체제 기제'

◇ '하필왈리(何必曰利)'에서 맹자가 양혜왕을 '이로움'에서 '인의(仁義)'로 이끌며 설득하는 논리는 '큰 이로움(大利)', '먼 이로움(遠利)'으로서의 인의다. 중국의 정치·사상·문화·종교에 있어 '공리주의'는 거대한 원리처럼 보인다. 20-21세기 중국의 국민국가 형성과 발전에 있어 하나의 이념이었던 '사회주의'는 중국 문명과 역사에 내재된 실용의 DNA를 여실히 보여준다. 혁명의 과정, 건국의 과정, 경제건설의 과정에서 이 이념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보편의 민주주의와 '중국식 민주', 사회주의 혹은 보편의 시장주의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항과 착종이 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모델 혹은 보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 문법3) 체제기제: 1949년부터 현 시진핑 정부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사회주의 30년, 개혁개방 30년, G2 시대로 구분할 때 매우 극단적 변화로 보이는 각 시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체제적 메커니즘으로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공산당 리더십을 이해한다.

4. 커리큘럼과 플랫폼

1) 비교언어문화학적 접근법 ex) 정치 분야

① 인민(人民) vs. 국민

◇ 한국 학생들이 중국의 정치 관련 정보를 접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며 낯설어하는 단어가 '인민(人民, 런민)'이다. 이는 정확히 'people'에 해당하는 중국어인데 정작 우리에겐 이 용어가 없다. 대신 '국민'이라는 용어를 쓴다. 엄밀히 말해, '국민(nation)'은 국가를 구성하는 성원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11]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 자체로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권리주체다.

◇ 반면, 중국은 그 권리주체가 '인민'이다. '인민'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성원으로 '보통 사람', '평민'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내포하면서 사회의 소수 특권층과 구별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인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2018.3.11. 개정][12]	
제1장	총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농민 연맹을 기초로 하여 인민민주 전제정치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방법과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 사업을 관리하고, 사회 사무를 관리한다.

1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1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은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 기원한다. 당시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유진오는 처음 그 내용을 '인민'으로 기초했는데 '국민'으로 된 것에 못내 아쉬움을 표하면서 "좋은 단어 하나를 공산주의자에게 뺏긴 셈"이라고 회상한 바 있다. 20세기 중반 동아시아에 냉전체제가 등장하면서 '인민'과 '국민'은 각기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체제)와 자유주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주권자로 고착되었다. 유진오가 '국민주권'이 아닌 '인민주권'이 옳다고 생각한 이유는 "국민은 국가 우월의 냄새를 풍겨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13]

◇ 따라서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권리주체로서 한국은 '국민'을, 중국은 '인민'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 함의가 양국(대한민국 vs. 중화인민공화국) 형성 과정의 역사 경로가 다름에 따라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한국의 '국민'은 법률이 정한 한국 국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 중국의 '인민'(노동자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은 원칙적으로 '인민의 적'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인민의 적'은 중국 '국민'의 일원이기는 하나, 인민주권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중국에서 '국민', 즉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는 '공민(公民)'이다. 중국 헌법은 제33조에서 제56조에 걸친 제2장에서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을 천명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국민'이란 용어는 실제 그 맥락과 사용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함의를 지닌다. 2016~17년 촛불혁명과 탄핵의 국면에서 '국민'은 국정농단 세력을 '국민의 적'으로 구분하는 중국식 '인민' 개념에 가깝다. 한편 '치매국가책임제' 같은 정책에서 '국민'은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중국식 '공민' 개념에 가깝다. 반면, 중국의 '인민'은 다소 추상적이긴 하나 그 개념이 다변적이지 않다. 중국공산당 정부의 슬로건이고 대부분 관공서에 걸려있는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为人民服务)'란 현판의 '인민'은 단일한 이미지로 떠오른다. 오히려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인민'인가, '인민의 적'인가다. 논리적으로 중국의 '공민'은 '인민' 내지 '인민의 편'과 '인민의 적'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

② 전정(专政) vs. 독재

◇ 한국 언론은 중국 정치체제를 '1당독재'라고 일컫는다. 아울러 후진타오 시기 사라졌던 '핵심'[14]이란 용어를 부활시키며 1인 권력을 강화한 19대 시진핑을 흔히 '시황제'라 일컫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독재'가 아닌 '전정(專政)'이란 용어로 표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에 나오는 '인민민주전정의 사회주의 국가'란 표현이 그것이다. 이는 인민과 인민 사이에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치가 이뤄지지만, 인민의 적에 대해서는 '전정', 즉 일체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독재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한편, 중국에서 '독재(独裁, 두차이)'란 용어는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경우나 형식은 민주주의지만 실제로는 권력 독점이 자행되는 체제를 비판할 때 쓴다. 예컨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군부 독재 국가를 일컬을 때나 러시아처럼 민주선거가 있지만 실제로 독재적인 방식으로 통치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전정'은 인민의 적에 대해 독재의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 같은 '인민 독재'는 헌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범주의 독재라는 것

13)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박명규, 『국가·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2014, pp.107-109 재인용.

14) 중국에서 '핵심'이란 용어는 1989년 6.4천안문사건 때 등장했다.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고문위원회 주임이었던 천윈(陈云)은 5월 26일 개최된 중앙고문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덩샤오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을 굳건하게 지키자"고 외쳤다. 이것이 정치 용어로서 공식화의 길을 걷게 된 건 덩샤오핑에 의해서다. 그는 6월 16일 장쩌민(江泽民), 리펑(李鹏), 차오스(乔石) 등 제3세대 영도집단을 불러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어떤 영도집단도 하나의 핵심을 가진다. 제1세대 영도집단의 핵심은 마오쩌둥 주석이었고, 2세대 핵심은 나다. 그리고 3세대 영도집단도 핵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는 바로 장쩌민 동지다"라고 선포했다. 그해 11월 총서기 장쩌민이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까지 물려받자 '장쩌민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란 문구가 처음 쓰였다. 시진핑의 '핵심' 지위를 언급하는 사례는 201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해 그해 10월에 열린 18기6중전회에서 공식화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9807594

이다. 무력으로 정권을 강탈한 군사 독재는 불법적인 것이다.[15]

③ 굴기(崛起) vs. 패권

◇ 중국에서 '굴기'라는 말이 처음 정치 용어로 등장한 것은 2003년 10월 당시 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이던 정비젠(郑必坚) 교수가 보아오(博鰲) 포럼에서 '화평굴기(和平崛起)'를 제안하면서다. 이후 12월 10일 미국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12월 26일 마오쩌둥 탄생 110주년 기념대회에서 후진타오 총서기가 다시 이 말을 강조하면서 국내외에 큰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줄곧 '화평발전(和平发展)' 노선을 견지해왔다. 외부적으로는 평화를, 내부적으로는 점진적 발전을 표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부상이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중국위협론'과 중국은 개혁개방의 내부적 모순과 부조리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중국붕괴론'이 미국 등 서방국가 중심으로 대두되자 정비젠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화평발전'을 '화평굴기'로 바꿔 제시한 것이다.

◇ '굴기'란 본래 '산 따위가 솟아오르다'는 의미로, 다른 주변 세력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공격적인 행위를 내포하진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굴기'를 바라보는 주변국의 시선은 '패권화'의 혐의를 거두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2005년 이후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CCTV에서 '대국굴기(大国崛起, the Rise of the Great Powers)'[16]란 제목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이 용어는 대내적으로 국가-민족 포퓰리즘과 결합하며 더욱 유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의 국면에서 이 용어는 자제되고 있다.

2) 서울대 중국 관련 전공과목 <중국사회문화론특강>

① 강좌의 특징 및 설계

◇ 이 강좌는 10개의 특강으로 구성된다. '특강'은 팀티칭과 다르다. 초청연사는 콘텐츠 제공자이자 그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다. 담당교수는 그 콘텐츠와 텍스트를 선별해 커다란 스토리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확산시키는 큐레이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무대의 감독처럼 강좌의 전 과정과 현장을 운영하고 디자인한다. '연사'라는 텍스트는 다른 그 어떤 텍스트들-문서, 사진, 동영상 등-보다도 그것이 전달하는 콘텐츠의 현장성과 독립성, 정체성과 신뢰성을 증폭시킨다. 연사는 '중국'에 대한 증언자이며 자기 완결적이지만 부분으로 전체를 이루는 총체적 개별자이다.

◇ 구성 및 설계의 원칙: 첫째, 강연 주제는 학술 담론을 지양하고 각 분야에 있어 중국에 대한 관찰과 체험의 서사를 기반으로 하되 과거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현재적 이슈와 전망을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둘째, 연사는 가능한 한 필드 작업을 포함한 현장 실무 경험을 가진 분들로 구성한다. 셋째, 각각의 강연은 전체 강좌의 틀 속에서 느슨하지만 유기적인 방식으로 연결돼 '중국'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실체적 스토리로 접근하는 데 실질적이고 유용한 맵이 되도록 설계한다.

② 2015~2018년 특강 목록

15) 이종화·장윤미, 《열린 중국학 강의》, 신아사, 2017, pp.138-139.

16) 총 12편으로 구성된 이 역사 다큐는 2006년 11월 13일 CCTV 채널2(财经)에서 처음 방송되었다. 제작 내용 및 의도는 15세기 이후 해양의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무대에 등장했던 9개 국가(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미국)의 굴기 과정을 살펴보고, 국가 굴기의 역사 규율을 탐색해보고자 한 것이다.

2015년 특강		2016년 특강	
주제	연사 프로필	주제	연사 프로필
중국 금융시장 혼란으로 본 중국경제	언론사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특파원	홍콩인은 어디로 가는가: 국민, 민족, 그리고 독립	인천대 교수 겸 중국화교문화연구소 소장
일대일로, 유라시아를 향한 그랜드 디자인	동아대 교수 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의 통일과 중국의 역할	인천대 중국학술원 연구위원, 전) 조선일보 베이징/홍콩 특파원
미•중 관계와 한반도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대응	동아대 교수 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샌드위치 한국,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한국동화엔텍 부사장 겸 상해동화엔텍 동사장	국제통화체제의 미래와 위안화	경희대 교수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장
시진핑시대 중국의 발전체제	동서대 교수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중국이라는 선물: 상하이 한국 경제인의 사회적 뿌리내리기	인천대 중국학술원 HK연구교수
중국콘텐츠시장 성장에 따른 한국과 중국 문화사업의 미래	CJ E&M 중국투자배급팀장	G2 시대, 중국 경제의 변화와 대응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소장
점수적립제 도시 거민호구 취득제도와 중국식 도시사회의 탄생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중국공산당 리더십과 민주주의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홍콩인, '국제도시 시민'에서 '국민'으로의 재탄생	인천대 교수 겸 중국화교문화연구소 소장	중국의 노동정치와 노동자	서강대 중국연구소 연구교수
중국의 서진과 유라시아	작가	중국의 법과 사회	변호사 전) 법무법인 태평양 상해사무소 수석대표
단위체제 이후 중국의 사회관리	중앙대 교수	중국의 IT 기업	언론사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특파원

2017년 특강		2018년 특강	
주제	연사 프로필	주제	연사 프로필
인터넷 IT 신기술과 중국 경제 사회 뉴트렌드- 모바일 세상으로 들어간 14억인의 나라	언론사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특파원	'노후공업도시'를 통해 본 최근 중국의 시민권 문제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남북관계와 중국-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역할	국회의원 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중국의 스마트도시 조성현황과 주요 사례	고려대 교수
홍콩에게 출구가 있는가- 국민과 민족, 자치와 독립	인천대 교수 겸 중국화교문화연구소 소장	글로벌 중국과 나의 경험	볼보그룹코리아(주) 상무
북한과 중국 변경에서 본 양국 '특수' 관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	언론사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특파원	一帶一路一網- 디지털 중국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의미	협동조합 소요 이사장
중국의 경제 금융	칼럼니스트	'토지'로 보는 중국	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
중국의 노동정치와 노동자	서강대 중국연구소 연구교수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미중 무역전쟁의 이해와 전망	한양대 교수
중국의 영토분쟁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의 국가통합과 중화민족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중국공산당의 엘리트 충원 제도와 현상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중국의 환경문제와 한중 협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전략 연구실장	미중관계의 구조와 전망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단위체제 이후 중국의 사회관리	중앙대 교수	중국의 문화산업과 주선율 영화	서강대 중국연구소 연구교수

3) 오픈 플랫폼; 팟캐스트 <레알중국>

① <레알중국> 시즌1(2018년 2월 제작) 카탈로그

ep	제목	내용
1	레알중국은 뭐?	차이나 리터러시 업!을 위해 여성학자 6인이 뭉쳤다
2	중국의 가상화폐 정책	가치웹 시대 화폐의 국적, 민간 가상화폐 vs 국가 디지털화폐
3	중국의 호구제와 도농이원구조	농업과 비농업 호구의 양분, 거주 이전에 제한이 생긴 배경과 결과는?
4	도시거주를 위한 점수적립제	점수를 쌓으면 그 도시 거주민으로 등록이 된다? 도시별 점수적립제 내용과 도시 간 위계
5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1)	중국 수능이 한국 수능과 다른 점
6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2)	입시생의 지역별 할당제와 대학지원 사례
7	중국엔 혼인법이 있다구?	1950년 제정된 혼인법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8	중국 신세대 결혼 풍속도는?	1980년 이후 혼인법의 개정 및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결혼풍속도
9	중국의 사회주의 공유제와 토지제도	사회주의 공유제의 형성 과정과 현재
10	집체소유지와 국가소유지의 토지개발	중국의 토지도급경영제와 토지사용권 출양
부록	전인대 헌법수정안 통과와 시진핑 연임 전망	'신시대' 중국 리더십의 변화
11	중국소수민족, 왜 중요한가?	중국 소수민족의 특성과 중요성
12	중국 소수민족의 공인과정 및 민족자치	소수민족 공인과 자치구 및 자치주

② 팟캐스트 '레알중국' 시즌2(2018년 8월 제작) 카탈로그

ep	제목	내용
13	중국의 정치체제와 중국공산당(1)	인민 대 국민, 전정 대 독재, 굴기 대 패권
14	중국의 정치체제와 중국공산당(2)	당-국가체제, 당정합일, 집단지도체제, 민주집중제, 엘리트 권위주의 체제
15	중국의 공무원시험(1)	중국 공무원 시험의 내용과 방식
16	중국의 공무원시험(2)	기층 경험의 중요성과 공무원 부정부패 문제
17	2018년 '미중무역전쟁'(1)	미중무역전쟁의 시작과 배경
18	2018년 '미중무역전쟁'(2)	미중무역전쟁은 치킨게임인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맥락에서 본 미중무역전쟁
19	중국의 도시위계와 도시민이 된다는 것(1)	중국 도시화 현황 및 1선도시부터 5선도시까지의 구분
20	중국의 도시위계와 도시민이 된다는 것(2)	거주등록제도의 변화, 거민호구부의 내용 소개
21	중국의 향촌진흥전략과 6차 산업혁명(1)	중국의 '삼농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당-정부의 대응전략
22	중국의 향촌진흥전략과 6차 산업혁명(2)	집체소유제의 다양한 층위의 권한 행사를 통한 농촌 혁신의 사례와 6차 산업혁명
23	티베트 개요	티베트의 자연 및 인문환경
24	티베트 기원신화와 토번왕조	7세기 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토번왕조부터 지금까지 불교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티베트의 역사를 알아본다
25	티베트 불교 4대 종파	

【메 모】

【특별 분과】 발표 ②

린리밍의『아Q후전』속의 '식인' 주제 읽기*

裵桃任 (한국외국어대)**

【목 차】

1. 들어가며
2. 형장에서 아Q를 구한 허 선생
3. 아Q의 충성스런 책사 구주 선생
4. 팽조팔백수신약과 아Q 사적관
5. 나오며

1. 들어가며

루쉰(魯迅, 1881-1936)은「광인일기(狂人日記)」(1918)에서 광인의 입을 빌려 중국이 지난 4천년 동안 '식인' 습관에 물들어 있었음을 호되게 질타했다. 또「아Q정전(阿Q正傳)」(1921-1922)에서 '잡아먹힌' 아Q의 비극을 통해 중국인의 정신 개조의 절실함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광인이 폭로한 식인의 원흉은 인의도덕(仁義道德)이었고, 허 선생(何先生)과 구주 선생(古久先生)을 그것의 신봉자로 지목했다. '허 선생'의 전통 '의술', '책', '도통'과 '구주 선생'[1]과 그의 '낡은 장부'는 192,30년대 루쉰의 전체 소설 속에서 중국 전통 사회와 예교에 대한 비판에서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했다.

1994년에 린리밍(林禮明, 1943-)은「아Q정전」을 바탕으로 장편소설『아Q후전(阿Q後傳)』을 썼다.[2] 린리밍은 아Q가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구주 선생과 허 선생이 전신의 작은 역할에 만족을 못한 듯이, 루쉰의 창작 취지를 계승해 아Q와 구주 선생과 허 선생을 재창조했다. 이를테면 루쉰은 아Q를 총살시켜 영원히 '씨도 못 받을 놈'으로 눈을 감게 만들었으나, 린리밍은 우 어멈(吳媽)과 허 선생의 교묘한 제휴에 따라 새 삶을 얻은 아Q가 우 어멈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아 불효를 저지르지 않게 했다. 또 아Q에게 혁명에 참가해 구주 선생을 책사로, 허 선생을 형 집행대장으로 수하에 두게 했다. 이 과정의 변용 관계를 보면,

---

* 본 발표문은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에서 발간하는『한중언어문화연구』제46집(2017)에 게재된 논문을 요약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강사

1) 첫째, '古久先生'은 역사상 '고대의 성인 현자'로 받들어 모셔져온 반동적 통치자를 암시; 둘째, '古久'는 '古舊'의 諧音이고, 반동적 통치를 옹호하는 봉건세력을 지칭; 셋째, '古久'는 봉건 역사에서 상류의 가장 악랄하게 사람을 가장 많이 해친 '孔丘'이다. 이는 음운학에 정통한 루쉰이 雙聲疊韻의 방법으로 공자에게 붙여준 대명사이다.(張向天,『魯迅诗文生活杂谈』)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구주'가 봉건세력을 가리킨다고 여긴 것이다. 北禾,「關於古久先生的幾種解釋」,『魯迅研究資料8』, 北京, 北京魯迅博物館魯迅研究室, 1981, 98쪽.

2) 린리밍(林禮明)은 푸젠(福建) 푸칭(福清) 사람이고, 공산당원이다. 1963년 입대한 뒤, 1966년부터 작품을 발표했다. 1983년 성인독학대학(成人自修大學)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기자 및 잡지편집 등에 종사했다. 1994년 중국작가협회에 가입했다. 장편소설『귀부인과 천한 노파(貴婦賤婆)』,『손빈과 방연(孫臏與龐涓)』,『이사와 조고(李斯與趙高)』, 보고문학집『후소 프리즘(扶桑多棱鏡)』, 전문저술『귀역 세계(鬼蜮世界)』,『중국의 귀신문화(中國鬼文化)』,『유학 이야기(儒學故事)』,『동양의 귀신문화(東洋鬼文化)』,『서양의 귀신문화(西洋鬼文化)』 등을 출판했다.『아Q후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高少鋒의「帶着含淚的微笑索他——評林禮明的長篇小說『阿Q後傳』」(吳亦文,『文學美學論稿』, 海峽文藝出版社, 1997, 129-133쪽), 林微潤,「評長篇小說『阿Q後傳』」(『軍中歲月』, 北京時代弄潮文化發展有限公司, 2010, 81-84쪽)과『아Q후전』의 앞부분에 첨부된 許懷中의「文學創作上的大膽嘗試——讀林禮明『阿Q後傳』隨想」(1-6쪽), 孫紹振의「順境中的阿Q——林禮明長篇小說『阿Q後傳』序」(1-4쪽) 등이 있다. 린리밍은 1999년에『아Q후전』을『아Q신전(阿Q新傳)』이란 명칭으로 海風出版社에서 재출판했다. 두 작품의 내용이 같고, 목차 제목을 바꾸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1994년『아Q후전』(福州, 海風出版社)을 분석 텍스트로 삼았다.

[표] 「아Q정전」에서 『아Q후전』으로 '아Q'의 변용 관계

제목			아Q정전	아Q후전
창작 배경	저자		루쉰	린리밍
	창작연대		1921-1922년	1994년
	장르		중편소설	장편소설
	시간배경		신해혁명 전후	신해혁명 전후-1940년대 중기
	공간배경		웨이좡(未莊)→시내	웨이좡→허씨마을(賀家坳)→소산골(牯山村)→웨이좡 일대의 Q좡부(Q莊府)
인적 사항	성명		자오 나리가 성 불허 이름 아Q	아냐오(阿鳥)→Q좡 어른(Q莊家)
	나이		곧 30세가 됨	30세 직전-55세 전후
	교육정도		일자무식	개경사에서 문(독경)·무(종과 목어 치기) 학습→약간 유식
	직업		날품팔이꾼→실직→장물수수 및 판매	개경사의 중→금박공장의 운반공→파란깃발의 혁명군→Q좡부 두목
	부인	1	없음 (연애의 비극 세 번)	우 어멈(뒤에 정신분열)
		(2)		또 다른 젊은 비구니와 풍파 (늙은 비구니가 됐다)
		(3)		뱃사공 궁씨의 젊은 작은엄마와 풍파(죽음)
		4		자오메이쯔(자오 나리의 손녀)
		(5)		? (마취약에 취해 정신 잃음)
	아들	1	없음	아W(허 선생의 아들)→헝다(亨達)
		2		아S(친아들)
	신체특징		머리통의 부스럼자국	
	보양비결		없음	구주 선생이 상납하는 이리골(狼子村)에서 만들어온 팽조팔백수신약(彭祖八百壽神藥)을 먹음
	생사여부		절도죄로 총살	우 어멈과 허 선생의 도움으로 새로이 삶

본고에서 앞의 [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Q후전』의 '식인' 주제를 둘러싼 아Q의 인생 역전과 혁명 성공 그리고 그의 조력자 구주 선생과 허 선생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형장에서 아Q를 구한 허 선생

1) 우 어멈

(1) 아Q의 생사여탈권

「아Q정전」에서 아Q의 목숨은 파리처럼 한순간에 단죄되고 만다. 혁명(신해혁명)이 성공하였다면, 백성을 다스림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아Q는 혁명의 수혜자가 되지 못했다. 이는 본보기로 징계하는 일이 급했던 파총(把總)의 독단이 빚은 결과였다. 『아Q후전』의 린리밍은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 어멈이 아Q의 눈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한 것 같다.

우 어멈이 시내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연은 이렇다. 이립(而立)의 나이를 앞둔 아Q가 그때 자오 나리 댁에서 날품으로 쌀을 찧으러 갔다가 충동적으로 "너, 나랑 자, 나랑 자자!"하고 우 어멈을 추행했다. 이 일로 인해서 소갈머리 없는 아Q가 일거리가 끊겨 굶주리다 시내로 나간 것처럼 우 어멈도 더는 자오 나리 댁에서

종살이를 할 수 없게 되자 낡은 옷가지를 싸들고 무작정 시내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혁명당 파총 수하의 형 집행대장 허 선생 댁의 첫째부인의 몸종이 되었다. 이곳에서 허 선생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우 어멈은 아들을 낳아줄 '씨받이'가 되는 대가로 아Q의 구명을 요구했고, 둘이 계약서도 썼다.[3)]

우 어멈과 허 선생이 아Q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함께 모의해 아Q에게 생명의 은인이 된 과정을 보면, 허 선생은 형장에서 총을 쏘아 아Q를 쓰러뜨린다→상부에 아Q가 총살되었다고 보고한다→시체보관소에서 우 어멈은 가족의 명의로 쓰러진 아Q를 관에 넣는다→미리 구해놓은 오봉선(烏篷船)에 아Q의 관을 싣고 떠난다. 이렇게 해서 우 어멈은 아Q의 관과 함께 배를 타고 링허(陵河)를 거슬러 올라갔다.

(2) 새 삶과 새 생활

우 어멈은 오른팔에 총상을 입은 아Q가 정신을 차리자 아Q의 관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자오씨나루터(趙家渡口)를 지나 검은바위나루터(黑石頭渡口)에 이르러 배에서 내려 가마꾼을 불러 이동해 검은바윗골(黑石頭村)이란 곳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아Q는 이곳에 있는 절 개경사(開慶寺)의 주지 위완룽 스님(元隆師父)이 준 약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또 그 인연으로 출가하였다. 우 어멈은 그 근처 허씨동네(賀家坳)의 토곡사(土穀祠)에서 지내며 구걸로 살아가게 되었다. 또 두 사람은 그들의 사연을 알게 된 허씨동네의 어떤 중년 아낙네의 주선으로 날을 잡아 부부의 연을 맺고, 두 아들을 얻게 된다.

2) 아Q의 두 아들

아Q가 중이 된 뒤, 우 어멈이 허씨동네 서시신(西施神)을 모신 토곡사에 살면서 일대를 돌아다니며 구걸할 때 입덧을 시작했다. 이 토곡사는 아Q가 살던 웨이좡의 토곡사가 아니라 허씨동네의 토곡사이다. 여기서 우 어멈은 첫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세 해가 지났을 즈음에 둘째아들을 낳았다.

[표] 아Q의 두 아들 비교

	큰아들	작은아들
아버지	긴 두루마기 뚱보(금박공장 사장)	아Q
어머니	우 어멈	
이름	아W (五斤 wǔjīn)	아S (四斤 sìjīn)
나이	세 살 터울	
차이	건강하고 다부지다 목소리가 우렁차다 팔다리를 힘차게 팔딱거린다 재면서 잘 움직인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눈썹이 잘생겼다 울음소리가 날카롭고 가늘다 깡마른 몸뚱이에 장식품처럼 작은 손발이 달려있다 얌전하고 조용하길 좋아한다 울지도 떼를 쓰지도 않는다
아Q의 태도	잘생기고 활달해서 좋았다	콧방울이 너무 크다 입이 너무 튀어나왔다 아Q는 제 약점 두 개 더 생긴 듯 싫었다
운명의 변화	양아들로 갔다 서양의 유명한 법률대학에 입학했다	이리에게 물린다 평생 다리의 고통을 안고 산다
진실	아Q는 표면적인 친아버지 허 선생은 생물학적 친아버지 긴 두루마기 뚱보는 양아버지	아버지 아Q는 자신의 다리에 총을 쏘아 평생의 고통을 준 범인이다

「아Q정전」에서 아Q는 성도 이름도 본적도 분명하지 않고 행장도 분명하지 않았다.[4)] 아Q에게 두 아들이

3) 林禮明, 17쪽.
4) 魯迅,「阿Q正傳」,『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73쪽.

생기기는 했으나, 큰아들은 '진실'을 모른 채로 아Q를 찾아와 양아버지의 처형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따진다. 둘째아들 역시 '진실'을 모른 채로 두고두고 복수를 다진다.

3) 허 선생

「광인일기」에서 광인의 형은 의사 허 선생을 청해와 동생을 진찰받게 했다. 이때 광인은 허 선생이 망나니의 화신이란 것쯤은 알고 있었고, 맥을 본다는 구실로 살집이 어떤가를 보는 것인 줄 간파했다.[5] 광인이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이 허 선생의 사람됨과 검은 속셈을 진즉 꿰뚫어본 것이었다. 『아Q후전』에서 허 선생이 별의심을 받지 않고 아Q의 수하에 들어오고 또 형 집행대장까지 되었고, 허 선생은 첫째, 아Q가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일을 한다. 둘째, 자신의 친아들을 살린다.[6] 셋째, 구주 선생 등과 함께 팽조팔백수신약의 재료를 조달 및 판매한다. 그의 형 집행대장이란 직책은 허울 좋은 이름이고 그 직책을 이용해 그가 진정으로 하는 일은 인간 사냥이다. 그야말로 숨은 망나니이다.

3. 아Q의 충성스런 책사 구주 선생

1) 아Q의 혁명

(1) 혁명에 투신하다

개경사에서 제법 잘 나가는 중이었던 아Q는 제 옛날 버릇을 고치지 못해 젊은 비구니와 사고를 쳤다가 발각되어 그 길로 파문당했다. 또 다시 살 길이 막막해진 아Q는 빈털터리인 채로 무작정 배를 탔다. 아Q가 뱃삯 때문에 옥신각신할 때 이 배에 타고 있던 긴 두루마기 뚱보의 눈에 띄였다. 이에 아Q는 자오씨나루터에 있는 그의 금박공장(金箔廠)에 가서 운반공으로 품을 팔게 되었다. 하지만 아Q는 예전에 파총에게 붙잡혔을 때처럼 또 다시 일벌백계의 본보기가 되었고, (옛날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금원보(金元寶)[7]를 훔친 죄로 경찰에게 잡혀 다시 감방에 갇혔다. 또 한 번 절도죄를 지어 위기에 처한 아Q가 이번에는 제 아들을 팔아 살 길을 찾고, 바로 이때 아Q는 혁명의 물결에 휩쓸렸다.

아Q는 사회를 개혁한다든지 장기적인 억압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각성에서 혁명에 가담한 것이 아니었다. 살 길이 막연하던 참에 이들 군대를 만났으니 '혁명'이 다시 한 번 그의 운명을 뒤흔든 셈이었다.

(2) 감투를 쓰다

아Q가 투신한 파란투구에 파란갑옷의 혁명군에서, 아Q의 어리바리한 행동이 우직한 충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섯 명의 우두머리인 우 조장(吳伍頭)에게서 아뇨(阿鳥)라는 이름을 얻어 '명분이 바른' 사람이 되었다. 또 생전 처음으로 팔자에 없는 다스터우(大士頭)라는 감투를 썼다.

아Q가 들어간 군대는 정규 혁명군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저 약간의 땅을 근거지 삼아 날뛰는 토비(土

5) 魯迅, 「狂人日記」,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13쪽.
6) 林禮明, 281쪽; 그는 자신이 아버지임을 밝히지 못했고, 눈물로 아W에게 오늘밤 안에 빨리 떠나라고 부탁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아Q의 명령을 받들어 아들을 죽여야 했다.
7) 林禮明, 78쪽; 아Q가 금원보를 훔친 것은 저승사자에게 뇌물로 주기 위해서였다. 아Q가 처형당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관에 넣어져 배에 실려 갈 때, 아Q는 지옥에 떨어졌다. 저승사자는 아Q의 명이 쉰다섯 살 쯤 되는데 왔다고 하며 아Q를 염라대왕 앞에 데려갔다. 이후에도 아Q는 꿈을 꿀 때마다 지옥에 갔다. 아Q는 염라대왕과 저승사자들을 사귀고 위기에 닥칠 때마다 도움을 받지만 지옥에도 탐욕, 뇌물수수, 비리가 많은 사실도 알게 된다. 본고에서는 아Q와 지옥과의 거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匪) 성격이 강했다. 별 볼일 없는 아Q가 Q좡 두목에 등극해 '잘 살게' 된 것이 이들 군대가 '혁명'보다 또 다른 일에 더 열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이상을 실현하다

「아Q정전」에서 애초에 혁명에 대한 아Q의 이상은 ① 탐나는 것은 모두 갖고, ② 마음에 드는 계집도 모두 내 것이었다.[8] 아Q의 혁명 생애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얻는 과정이었다. 그는 ①에서 저 자신의 역사를 설욕하고 개선가 "내 손에 쇠 채찍으로 너를 치리"를 부른다. ②에서 의처증 때문에 우 어멈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면서 한편으로 자신은 탐나는 여자를 갖는다.

① 탐나는 것은 모두 갖기

아Q는 전에 당한 것을 그대로 (남에게) 갚아 복수하고 응징하며 아무리 충성스런 졸개일지라도 후환이 될 것이라면 가차 없이 처형한다. 아Q의 정신승리법 장부에 들어있는 레퍼토리가 차례대로 공연될 때, 아Q는 처형을 명하는 '살인기계'가 된다.

첫째, '단죄해야 할 때 단죄하지 않고 후환을 남겨두면 더 감당하기 어려워진다(當斷不斷, 禍患難當。).'[9]

둘째, '내부를 안정시킨 뒤에 외부의 적을 친다는 선현의 치세의 철칙이다(揚外必先安內, 實屬先賢治世法寶。).'[10]

셋째, 웨이좡으로 금의환향하다.

「아Q정전」에서 아Q는 웨이좡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Q에게 웨이좡은 굴욕과 항쟁, 고통과 기쁨, 희망과 실망, 몰락과 중흥, 복수와 미련, 사랑과 실연, 혁명과 혁명 금지의 장소이다.[11] 아Q는 웨이좡에 혁명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지 못해 '금지'당했고 총살당했다. 그때 혁명이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면, 아Q는 묵은 빚을 청산해야 한다. 아Q의 설욕과 명예회복은 자신을 고발해 억울하게 총살대로 몬 주모자를 밝혀 앙갚음하는 데 달려있었다.

넷째, '승자는 왕이 되고 패자는 적이 되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다(勝者爲王敗子爲寇, 這是天經地義的。).'[12]

다섯째, 파총의 법정을 재현하다.

[표] 혁명 재판의 재현

막6 순서	아Q정전[13]	아Q후전
따귀 때리기	자오 나리가 달려들어 따귀를 한 대 때렸다	아Q가 두 걸음 앞으로 다가가서 세게 따귀를 한 대 때렸다
무릎 꿇기 금지	"노예근성!" 긴 두루마기를 입은 인물이 경멸하듯 말했으나 서라고는 하지 않았다.	"노예근성!" 구주가 옆에서 크게 소리쳤지만 그는 그(처형될 자)를 서라고는 하지 않았다.
허위자백 강요	사실대로 불어라, 경치지 않게. 내 다 알고 있으니까. 불면 널 석방시켜 줄 테니!	사실대로 말해.……일이 다 밝혀졌어. 불면 아무 일도 없어.
최후 진술	"무슨 할 말은 없는가?" "없습니다."	1회 아순: "저는 본래 총을 쏴서……이리……" 2회 긴 두루마기 뚱보: "없소." 3회 왕 둘째(王二)[14]
동그라미 그리기	종이 한 장과 붓 한 자루를 가지고 와 손에 쥐어주었다.……한 군데를 가리키며 그에게 서명	쓰밍(四銘)이 종이 한 장과 붓 한 자루를 가지고 와 손에 쥐어주었다.

8) 魯迅,「阿Q正傳」『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96쪽.
9) 林禮明, 153-157쪽.
10) 林禮明, 162-165쪽.
11) 林禮明, 183쪽.
12) 林禮明, 219쪽.

	하라 했다. “저는……저는……글 쓸 줄 모르는뎁쇼.” “그려,……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라!”	“저는……저는……글 쓸 줄 모르는뎁쇼.” “그려,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라.” …… “그려, 그리면 아무 일 없다.” 구주가 여전히 차갑게 말했다.

「아Q정전」에서 혁명 법정의 재판 첫 공연이 Q촹 산채(Q莊府)에서 아순을 피고인으로 재공연의 첫 회 막을 올렸다. 아Q 법정은 아Q가 자기 성이 자오라고 말했다가 자오 나리에게 불려가 따귀를 얻어맞은 기억의 재현에서부터 마지막 동그라미를 그릴 때로 착착 순서대로 진행된다. 다만 ‘조리돌림’이 생략된 이유는 아Q의 죄행을 숨겨야 했던 데 있을 것이다.

② 마음에 드는 계집도 모두 내 것

아Q 시절에는 패배로 끝났을지라도 Q촹 두목이 된 아Q로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우 어멈에 대한 의심과 옛날 버릇이 도져서 또 다른 젊은 비구니와 풍파를 일으켜 개경사에서 파문당한 것은 아Q의 새 ‘연애사’의 전주였다. 모두 의심, 덮어씌우기, 억지 쓰기, 책임 회피, 새로운 연애에 대한 갈망, 복수, 응징이 복합적으로 뒤엉킨 것이다.

(4) 관 속에 세 차례 들어가다

아Q는 ‘한 개’의 관에 ‘세 번’ 들어갔다. 처음 관에 들어간 것은 우 어멈이 총알 맞은 아Q를 관에 넣어 시내를 탈출할 때였고, 그 다음에는 전략적 고려에서 주변에 자신이 죽었다고 소문을 내고 실패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또 그 다음에는 한밤의 침입자 두 사람에 의해 관에 넣어졌다.

[표] 아Q가 관에 들어간 경험

	연도	장소	주모자	성격	특징
1	1911 , 서른 미만	시내 사형장	우 어멈과 허 선생	피동적	죽음을 삶으로
2	(40대)	Q촹 산채	아Q와 구주 선생	자발적	패배를 승리로
3	50대	자오씨나루터 아Q사적관	침입자 광인과 아S	피동적	살인을 사면으로

관이란 사람이 죽으면 그의 가족들이 마련해주는 것이다. 관 한 개의 소유주가 우 어멈(처형당한 아Q의 가족)→뱃사공 궁씨(강물에서 인양)→젊은 과부(의붓아들이 선사)[15]→아Q 사적관건립부(守迹部)로 바뀌면서, 아Q는 첫 번째와 세 번째에 피동적으로 관에 넣어졌고, 두 번째는 사전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또 어떤 사자(死者)의 장례를 위장해 그 시신과 함께 들어갔다. 또한 아Q가 ‘관’에 들어가는 행위는 ‘죽음에서 삶으로’ 전환을 상징한다. 첫 번째는 우 어멈과 허 선생이 공모한 관에서, 두 번째는 부패한 시신과 함께 들어간 관에서, 세

13) 魯迅, 「阿Q正傳」,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105-107쪽; 林禮明, 222-227, 239-246, 275-278쪽.

14) 소산골에 아Q군이 주둔할 때 왕 둘째가 (그의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해서 자신이 도와주어야 한다며) 아Q에게 뇌물 5만 위안을 주었고, 아Q는 그를 군무집행이라는 형식으로 보내준 일이 있었다. 왕 둘째는 돈을 아Q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 어멈에게 갖다 주는 조건으로 나갔다. 이 왕 둘째가 아Q가 산채 두목이 된 것을 알고 찾아와 뇌물수수한 일을 끄집어내려 하니 처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林禮明, 115-117쪽.

15) 루쉰의 작품에서, 궁씨는 단씨 넷째 아주머니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옆집의 딸기코 술꾼이다. 魯迅, 「明天」,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36-42쪽; 궁씨네는 대대로 조선업을 해 돈을 벌었다. 작년에 궁씨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그의 예순을 넘긴 아버지가 열여덟 살 소녀를 마누라로 들였다. 궁씨의 이 작은 엄마는 궁씨보다 서른 몇 살이 어렸다.(궁씨는 쉰 줄에 들었다.) 궁씨는 관을 작은 엄마에게 주었다. 관을 미리 장만하면 장수한다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林禮明, 57-58쪽.

번째는 사적관의 관에서 나오면서 새 삶이 시작되었다.

2) 피로 맹세한 충성

소말동굴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승전과 더불어 훨씬 중요하고 커다란 소득은 '구주'라는 천재적이고 교활하고 충성스런 책사를 얻은 일이다. 아Q가 잡은 포로 19명 가운데 '구주'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 구주는「광인일기」의 그 구주 선생이다.[16]

「광인일기」에서 광인은 개 짖는 소리에서 '사자 같이 흉악한 마음, 토끼의 겁, 여우의 교활……'[17]을 떠올렸다. 이는 이 구주 선생과 같은 자들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 구주 선생이 아Q에게 해준 일은, 첫째, 승리는 아Q의 몫으로 돌린다. 둘째, 패배를 승리로 바꾼다. 패배를 남에게 떠넘겨 죄를 물어 처리하는 방법은 아Q의 정신승리법에서 배운 것이니 실패란 없고 또 아Q의 충성을 얻는데 즉효하다. 셋째, 후환을 남기지 않는다. Q좡 어른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요소는 모조리 제거한다. 때로 구주 선생이 직접 나서 처리할 때도 있다. 넷째, Q좡 어른에게 팽조팔백수신약을 계속 먹인다. 물론 구주 선생 자신은 더 먹을 것이다. 다섯째, 루쉰의 작품 속에서 글께나 쓰고 말께나 하는 유식지사들을 그러모아 Q좡 어른 사적관을 건립하고 공적비를 세우며, 아Q의 일대기를 편찬한다.

4. 팽조팔백수신약과 아Q 사적관

1) 팽조팔백수신약

(1) 아Q의 또 다른 적

루쉰의「복을 비는 제사(祝福)」에서 샹린 아주머니(祥林嫂)의 아들이 이리에게 잡아먹혔다.[18] 이리에게 샹린 아주머니만 원한을 가진 것이 아니다.

[표] 이리에 대한 아Q의 원한

작품	연도	장소	상황	결과
아Q정전	1907	웨이좡 인근 산기슭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영원히 기억에 남았다.……흉악하고 무서웠다. 번쩍번쩍 도깨비불처럼 빛나는 두 눈은 멀리서 그의 몸뚱이를 꿰뚫을 것 같았다.	손에 도끼 한 자루를 들고 있었으므로 담이 커져 간신히 웨이좡에 왔다
아Q후전	1911	검은바윗골 길가 작은 절(문설주 없다)	말곰(馬熊)이라 불리는 굶주린 이리……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번뜩이는 눈, 이리의 눈이자 사람의 눈이다.	아Q와 우 어멈 두 사람이 모두 상처를 입었다
			감히 더 쳐다볼 수 없었다.…… "눈, 눈! 너무 끔찍해!" 너무 밉고 너무 무서운 눈이다. 짐승의 눈, 사람 떼거리의 눈, 세속의 눈, 사람을 잡아먹는 눈이다!	불을 피우자 이리떼가 멀리 떨어져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다 날이 밝자 돌아갔다
	1915?	금쇠고개	굶주린 이리가 뛰어들어 어린 아S를 철조망 밖 2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물고 갔다.	아S는 두 팔을 물렸다(왼쪽 다리 중상)

16) 林禮明, 125쪽.
17) 魯迅,「狂人日記」,『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14쪽.
18) 魯迅,「祝福」,『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159쪽.

이리에게 잡아먹힐 뻔했던 기억과 그때의 공포는 아Q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19] 아들 아S도 산채에 뛰어든 굶주린 이리에게 물려가 죽을 뻔했다. 이리, 특히 이리의 눈에 대해, 더 나아가 이리의 눈을 닮은 사람의 눈에 대해 아Q는 잊을 수 없는 두려움, 기억과 원한을 갖고 있다.

[표] 아Q의 기억의 상자 속에 가둬둔 '과거'[20]

장소	상황		끔찍한 눈	결과
자오 나리 댁	자오 나리	따귀 때릴 때	노려보는 눈	잡아먹힘
	자오 수재	커다란 대나무몽둥이로 머리통을 칠 때	번뜩이던 눈	
	사내들	내쫓을 때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것 말고도 귀찮고 업신여기는 뜻을 담은 눈	
토곡사	디바오	훈계할 때	노려보는 눈	
시내 길거리	구경꾼	조림돌림 당할 때	둔하고 또 날카로워 벌써 그의 말을 씹어 먹었고 또 그의 몸뚱이 이외에 또 무엇인가를 삼키려고 하는 여태껏 보지 못한 눈	잡아먹힘(눈알들이 하나로 합쳐졌나 싶더니 그의 영혼을 물어뜯었다)

아Q에게서 사람을 잡아먹는 이리의 눈이 사람을 억압하는 폭력자의 눈과 겹치면서 날카롭고, 흉측하고, 또 멸시, 업신여김,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도 물어뜯는 공포의 원흉이기에 뿌리 깊은 증오를 갖고 있다. 그것은 식인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아Q의 죽음의 공포, 두려움, 비겁함 같은 자기 약점의 집합체이며, 아Q의 기억의 저장소에 도사린 것이었고, 기억의 상자에 가두어두어 '과거가 숨통을 조이게' 된 것이었다.[21]

(2) 팽조팔백수신약 생산지

「광인일기」에서 이리는 하이에나처럼 사람을 잡아먹을 뿐 아니라 '이리골'에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한다. 허 선생이 우 어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준 약이 있었다. 루쉰의 「약(藥)」에서 화샤오솬(華小栓)의 어머니가 그에게 약을 먹였듯이,[22] 또 허 선생이 일러준 대로[23] 우 어멈이 만두를 만들어 아Q에게 먹였다.

구주 선생과 허 선생은 이리골에서 만든 팽조팔백수신약의 '원료=사람'을 조달한다. 그들은 모두 먹었고, 또 고객에는 자오 나리, 자오 수재, 첸 나리, 거인은 물론이고, 딩 거인(丁擧人), 넷째 나리(四爺), 치 대인(七大人), 룽 나리(榮大爺), 루 넷째 아저씨(魯四叔)[24] 등 그 일대 명사란 명사는 죄다 들어있을 것이다.

허 선생과 구주 선생은 재료 공급과 운반책이고, 자오구이 영감은 이리골에 터를 잡고 약을 만들어 파는 사장이다. 아Q 자신도 모른 채로 아Q가 맡은 일은 더욱 많은 싸움거리를 만들어 싸움터에 나가서 더욱 많이 사람을 죽게 하고, 더욱 많이 죄를 물어서 처형하라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가 전쟁터에서 죽인 적이든, 그가 억지 죄를 물어 처형한 수하이든 간에 모두 그들에게 제공되는 약재인 것이다. 이리에 대해 골수의 원한과

19) 魯迅, 「阿Q正傳」,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109쪽; 林禮明, 41-42쪽.
20) 林禮明, 41쪽.
21) 루스 이스트햄, 김경희 옮김, 『기억의 상자(The Memory Cage)』,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11, 284-285쪽; 스미스 가족의 할아버지-아버지-입양아 알렉스(Alex)로 이어지는 삼대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고통 받지만, '가족'끼리 서로 보듬어주고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마지막에 할아버지는 "과거를 상자에 가둬두었다가는 과거가 네 숨통을 조이게 돼. 결국에는 널 산 채로 집어삼키고 말아……." 하고 말한다.
22) 魯迅, 「藥」,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29쪽.
23) 허 선생은 당부하며 말했다. "가져가서 만두에 적셔서 먹게, 아니면 구워서 따뜻한 물에 타서 먹든지. 이 약이 좋아, 팽조팔백수신약이네."林禮明, 62쪽.
24) 딩 거인은 「쿵이지」, 넷째 나리는 「장명등(長明燈)」, 치 대인과 룽 나리는 「이혼(離婚)」, 루 넷째 아저씨는 「복을 비는 제사」에 나오는 권세가들이다.

공포를 갖고 있는 아Q가 이리골 출신의 구주 선생과 허 선생을 오른쪽 왼쪽 수하에 둔 것이다. 아Q는 승리의 성찬, 즉 팽조팔백수신약을 먹는 일과 승리를 감상하는 일, 즉 위세를 부리는 일만 했다. 아Q에게는 이리골이 사람을 잡아먹는 온상이라는 사실을 파헤칠 능력이 없다. 이는 아Q의 새 삶에도 진정한 '각성'이 결여되었고 '참사람(眞人)'이 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 아Q 사적관

「아Q정전」에서 아Q는 웨이좡의 가장 하층민이며 동네북이었다. 그는 권력, 전통, 폭력과 금전의 힘에 눌려 하루살이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한 '버러지'였다. 그가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며 스스로 위안거리를 만들어가면서 근근이 살아갔어도 그의 삶에서 죽음까지 어느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아Q는「아Q정전」의 아Q가 아니다. 아Q가 "나도 예전에는 네까짓 놈보다는 훨씬 잘 살았어!"하고 말할 때는 허풍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아Q는 웨이좡 일대에서 가장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Q의 수하는 변함없는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 그의 사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미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성과는 첫째, 사적관과 공적비를 세웠다. 둘째, 아Q의 일대기를 편찬했다.

이렇게 아Q 사적관을 짓고 공적비를 세우고 아Q평전을 편찬한 것은 모두 루쉰이「아Q정전」을 써준 데서 배운 것이다. 처음에 아Q가 유명해진 것도 루쉰이「아Q정전」을 써주었기 때문이다.「아Q정전」이 없었다면 오늘날 아Q가 그렇게 수많은 중국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5. 나오며

루쉰의 '아Q'를 바탕으로 린리밍은『아Q후전』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와 소재를 담아냈다.

첫째, 루쉰이 아Q에 대한 단죄를 통해서 진정한 각성을 역설하였듯이, 린리밍 역시『아Q후전』에서 진정한 각성 없이, 생명에 대한 진정한 존중 없이 행해지는 모든 혁명은 아Q의 분신들만 수없이 만들어내고 식인의 수단이 되며 사회 개혁과 발전은커녕 역사를 원점으로 되돌려놓을 것임을 드러냈다.

둘째, 루쉰이 지적한 바대로 정신이 병 들면 노예, 본보기, 구경거리가 되고 목숨마저 잃고 말 것이다.『아Q후전』에서 주 선생과 허 선생이 이리골에서 비밀리에 제조해 가져오는 팽조팔백수신약을 먹은 아Q는 약골에서 강골로 바뀌었고 철옹성 'Q좡의 두목'이 되었지만 결국은 꼭두각시였을 뿐이다.

셋째, 루쉰이 아Q에게 '혁명 금지'한 것은 물론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신해혁명의 내막을 폭로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겉 무늬만 바뀌고 속 알맹이가 바뀌지 않는 혁명은 진정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아Q후전』에서 아Q가 투신한 혁명은 루쉰식의 '혁명 금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듯이 보이면서도 루쉰의 판단이 백번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넷째,「광인일기」에서 구주 선생의 낡은 장부와 허 선생의 진맥이 식인의 원흉이었다면,『아Q후전』에서 그들이 조제한 '팽조팔백수신약'은 식인의 증거이다. 구주 선생이 '혁명'의 이름으로 아Q를 조종하고 '팽조팔백수신약'을 먹이며 식인 습관을 길러주었다.

다섯째, 아Q는 원래 1911년 당시에 식인의 희생자가 되어야 했던 인물인데,『아Q후전』에서 다시 살아나 식인의 역사에 동참하였다. 아Q '살해'는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Q가 희생자이든 식인자이든 간에 아Q를 죽인다고 희생자가 없어지고 식인 습관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아Q가 죽으면 그도 약재로 공급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린리밍은 루쉰의 '아Q'가 지닌 기존의 뼈대에 살을 붙여 장수하는 아Q의 일대기를 그려냈다. 기존의 작품, 특히 루쉰의 소설처럼 확고한 '위상'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전의 작품에 대한 '초월' 아니면 '전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린리밍의 가장 큰 고충은 '초월'과 '전복' 사이에서 루쉰이 가차 없이 단죄한 '아Q'에게 어떻게 새 생명을 부여하고 또 어떻게 '새' 아Q를 창조해내는가 하는 데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린리밍은 '완전한' 전복의 어려움과 '뛰어넘기'의 한계도 드러냈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루스 이스트햄, 김경희 옮김,『기억의 상자』, 서울, 랜덤하우수코리아, 2011.
왕경국,『유식의 즐거움』, 휘닉스, 2006.
크리스토프 하인, 노영돈 옮김,『아Q정전』,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사, 2006.
北京魯迅博物館魯迅研究室,『魯迅研究資料8』, 北京, 1981.
高行健,『靈山』, 台北, 聯經, 1990.
林禮明,『阿Q後傳』, 福州, 海風出版社, 1994.
魯迅,『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羅傑,『中外神話故事』, 天津, 天津教育出版社, 2014.
王富仁,『中國需要魯迅』, 合肥, 安徽大學出版社, 2013.

【특별 분과】 발표 ③

야스이 솟켄(安井息軒)의 그리스도교 비판 연구
—「변망(辨妄)」을 중심으로

최정섭 (연세대)

1. 들어가며

근대[1] 일본에서는 막부말기부터 서양과의 통상이 재개됨에 따라, 쇄국정책과 함께 행해지던 그리스도교 금지정책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소위 기리시탄시대 이후 200여년간 지속되던 그리스도교에 대한 탄압이 완화되고 그 전교가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천주교와 개신교, 러시아 정교회의 전교도 다시 본격화되었다. 이런 상황 변화 가운데에서 불교계와 신도계(神道界) 뿐 아니라,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지식인들 가운데에서도 반그리스도교론이 전개되었다. 이중 야스이 솟켄의『辨妄』은 그 저자가 당시 가장 저명하고 신망 있던 유학자의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변망』에서 전개된 야스이 솟켄의 의론은 단순히 '그리스도교 대 유교'라는 구도에서만이 아니라, 19세기말 동아시아의 지식구조가 서양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야스이 솟켄은 도쿠가와 일본의 관학이었던 주자학을 신봉하지 않았고, 일본 독자의 유학전통이라 할 고학(古學)-오규 소라이(荻生徂徠)의 고문사학(古文辭學)과 이토 진사이(伊藤仁斎)의 고의학(古義學) 등-과 청대 중국의 고증학(考證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신의 유교관을 형성했다. 오늘날의 학자로부터 고주학(古註學)이라 불리는 입장을 가진 야스이 솟켄이 그리스도교에 대해 행한 비판은 동아시아적 지식 전통의 근대적 전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고 하겠다.『변망』에 대한 필자의 관심도 여기서 시작된다.

2. 저자

저자 야스이 솟켄의 이름은 하카리(衡)이고, 자(字)는 중평(仲平)이다. 식헌(息軒)은 호(號)이다. 처음에 호를 청롱(淸瀧)이라고 하고, 후에 족헌(足軒)또는 식헌(息軒)이라고 하였다. 별호(別號)를 반구진인(半九陳人)·규심자(葵心子)라고도 한다. 간세이(寬政) 11년(1799) 원단(元旦), 부친 조관(朝寬)의 차남으로 휴가(日向)[2]의 청롱(淸瀧)[3]에서 태어났다.

야스이 솟켄은 어릴 때부터 부친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21세때 오사카의 정주학자(程朱學者) 시노자키 쇼치쿠(篠崎小竹)의 숙(塾)에 들어가,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생활을 견디며 면학에 힘써, 쇼치쿠의 장서를 독파하고, 3년후 에도에 나와 쇼헤이자카(昌平黌)의 유관(儒官)이었던 고가 도안(古賀侗庵)의 문하에 들어가, 그의 추천으로 쇼헤이자카에 입학하고, 거기서 배우기 3년, 물러나 에도의 고주학자 마츠자키 고도(松崎慊堂)의 숙에 들어가, 고주학을 전수(專修)하였다. 때는 분세이(文政) 9년(1826) 28세였다. 야스이 솟켄의 고주학은 부친의 가르침에서 시작해, 마츠자키 고도에 의해 성숙하였다. 다음해 숙에서 나와, 오비번(飫肥藩) 다이묘의 시독(侍讀)이 되고, 이윽고 번교(藩校)의 조교(助敎)에 임명되었는데, 그때 명을 받고 규슈(九州)주를 순시

1) 일본사 시대구분에서 도쿠가와시대를 근세, 메이지시대 이후를 근대라고 부르지만, 본고에서의 논의는 두 시대에 걸쳐 있기에 근대로 통칭한다.
2) 日南이라고도 한다.
3) きよたき, せいりゅう

하고, 「식헌관풍초(息軒觀風抄)」 한 권을 지어 이것을 그 번 다이묘에게 바쳤다. 이것을 본 번의 다이묘는 그 재주에 경복하고, 야스이 솟켄을 중용하려고 하였지만, 권력자들에게 막혔기때문에, 솟켄은 사직하고 다시 쇼헤이자카에 들어가서 연구하다가, 이윽고 떠나서 조조지(增上寺)에 들어가 거기 있던 장서를 독파하고 경술에 잠심(潛心)하며, 성현의 출처진퇴의 뜻을 탐구하고, 예악형정·고금연혁을 공부했다. 덴포(天保) 12년(1841) 43세때, 산케이쥬쿠(三計塾)를 열어 자제에게 교수하였기 때문에, 사방의 준영(俊英)이 그 문하에 모여들었다.

嘉永 6년(1853) 미국 사절 페리가 내항하여 통상을 요구한 국내는 소란해졌다. 그 때문에 다이묘들도 모두 방비에 전념했으며, 솟켄도 「海防私議」한 권을 지어 대포·함선의 주조, 보루구축의 긴요함을 서술하고 국방을 절실히 논하였다. 미토(水戶)번의 열공(烈公)은 이것을 듣고 감격하여, 등전동호를 보내어 솟켄에게 시무(時務)를 물었다. 그것에 대하여 솟켄은 『논어』의 "足食足兵, 民信之矣"라는 여덟 자를 손으로 써서 선물했다. 분큐(文久) 2년(1862), 초빙되어 쇼헤이자카 유관이 되었다. 64세였다. 간세이(寬政) 이학(異學)의 금(禁)이래, 정주(程朱)이외의 것을 이학으로서 금지해온 막부가, 고학을 숭상하는 솟켄을 유관에 기용한 것은 이례적인데, 이로써 당시 솟켄의 명망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상상할 수 있다. 이 무렵 솟켄은 여러 번으로부터 세자의 스승으로 초빙되었다. 메이지 9년(1876) 9월 23일 향년 78세로 사망했다.

저서로는, 경서자사(經書子史)에 관한 것으로서는, 『書說摘要』4권, 『毛詩輯疏』12권, 『周禮補疏』11권, 『論語集說』6권, 『大學說』1권, 『中庸說』1권, 『孟子定本』14권, 『管子纂詁』24권, 『管子纂詁補正』1권, 『左傳輯釋』25권, 『戰國策補正』2권이 있고, 異端에 관한 것으로는 『辨妄』1권이 있고, 海防에 관한 것으로서는 『海防私議』1권, 『靖海問答』1권, 『料夷問答』1권, 『外寇問答』1권이 있고, 文集에 관한 것으로서는 『息軒文鈔』6권, 『息軒遺稿』4권, 『息軒遺文集』1권, 『息軒遺文集續編』1권이 있고, 그 외에, 『息軒觀風抄』1권, 『急救或問』1권, 『軍政或問』1권, 『上明山公書』1권, 『忍草』1권, 『北潛日抄』2권이 있다.

3. 『辨妄』이라는 책

1) 『辨妄』의 판본

『辨妄』은 메이지6년(1873)에 에도(江戶, 도쿄)에서 처음 간행되었다.[4] 같은 해에 제자인 安藤定에 의해 일본식 훈독문(訓讀文)으로 변형된 『辨妄和解』가 간행되었다.[5] 그리고 8년 후인 메이지14년(1881)에 역시 제자인 松本豐多에 의해 교주본이 발행되었다.[6] 고가카츠 지로(古賀勝次郎)에 의하면, 영국 공사관원인 John Harrington Gubbins에 의한 영역본("Bemmo" or "An exposition of Error"; being a treatise directed against Christianity, printed at "Japan Mail" office, Yokohama, 1875), 그리고 독일어번역본("Bemmo" oder des Irrtums Darlegung, Leipzig, 1875)이 있다.[7] 1978년에는 오카다 다케히코(岡田武彦)에 의한 교주본이 간행되었다.[8]

2) 『辨妄』의 구성과 논지

『변망』은 본론인 「辨妄」1~5, 「귀신론(鬼神論)」[9], 「아무개에게 보내는, 공화정을 논하는 편지(與某生論共和政

4) 安井息軒, 『辨妄』, 東京: 中西源八, 明治6年. http://dl.ndl.go.jp/info:ndljp/pid/899764
5) 安井息軒 原著·安藤定 解, 『辨妄和解』, 明治6年.(明治文化研究會 編, 『明治文化全集』제23권 思想篇, 東京: 日本評論社, 昭和42年 제2판 所收)
6) 島津久光公 題序·安井仲平 著·門人松本豐多 校註, 『標註辨妄』, 明治十四年 第七月 新鐫 文海堂藏版. 松本豐多는 『漢文大系』제1권을 구성하는 야스이 솟켄의 「大學說」, 「中庸說」, 「論語集說」, 「大學定本」이 저자 사후에 간행되면서 교정을 거치지 않아 잘못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漢文大系四書辨妄』(1910)을 지었는데, 여기서 '辨妄'이라는 이름을 계승하였다. http://dl.ndl.go.jp/info:ndljp/pid/754132
7) 古賀勝次郎, 「安井息軒の著作(下)-安井息軒研究(五)-」, 『早稻田社會科學總合研究』 10:1(2009.7.), 15쪽. 이 영역본과 독역본은 필자가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8) 安井息軒 原著·岡田武彦 校註, 『辨妄』(『日本思想大系47 近世後期儒家集』 東京: 岩波書店, 1978 所收)

事書)」로 이루어져 있다.

「변망」1은 구약성경 「창세기」와 「출애급기」의 불합리성과 비윤리성에 대한 비판이다.

「변망」2는 그리스도교의 불충(不忠)과 불효(不孝)에 대한 비판이다.

「변망」3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과 부활에 대한 비판이다.

「변망」4는 그리스도교의 배타성과 일본 고유 풍습과의 불화에 대한 비판이다.

「변망」5는 유교의 우주론과 생성론에 기반한 그리스도교 비판이다.

「귀신론」은 주자학이 귀신을 음양이기(陰陽二氣)의 왕래(往來)라고 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아무개에게 보내는, 공화정을 논하는 편지」는 그리스도교의 전파와 행보를 같이 하던 당시 일본의 공화정론자들에 대한 비판이다.

(1) 구약성경 창세기의 불합리성과 비윤리성에 대한 비판

먼저 「변망」1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데, 『변망』이 가진 시각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 반구자[10]는 이미 늙었다. 어쩌다 기운이 나 서양서를 집어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는 책을 집어던지고 이렇게 탄식했다. “심하도다. 서양서의 터무니없고 도덕에 어긋남이(妄誕不經).” 그 말은 천박하여 본디 따져볼 만한 것도 없다. 그러나 어리석은 민중으로서 그 말에 미혹된 자는 죽어도 변하려 하지 않으니, 이는 난(亂)의 근본이다. 지금 그 해(害)가 점차 우리(我)에게까지 미치니, 또한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그 말에 근거하여 조리를 따져 밝힌다.[11]

「변망」1은 저자 야스이 솟켄이 읽은 한역(漢譯) 구약성경을 바탕으로 「창세기」와 「출애급기」를 비판한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금단의 과일, 노아의 홍수, 요셉과 모셉 등 이집트의 이스라엘인들을 둘러싼 이야기들의 불합리성과 비윤리성이 비판된다.

> 그 책에서 말한다. “여호와라는 신(神)이 있는데, 천지보다 먼저 생겼다. 이 신이 천지일월성신(天地日月星辰)과 천지간의 모든 군물(群物)을 만들었는데, 엿새에 완성한 다음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삼았다. 또 흙먼지(塵土)를 모아 자신의 모습에 기대어 사람을 만들었다.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하였다.” 그런 다음 또 말하였다. “사람이 혼자 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아담이 한참 잘 때를 틈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그것을 살로 채워서는 그 아내로 삼고,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이것이 천지만물의 주인이다. 하와는 뱀에게 유혹되어, 금지된 과일을 먹었다. 이에 임신의 고통으로써 부녀자를 벌하고, 거기에다 자식을 낳는 괴로움을 더하였다. 내가 듣기로는 신이라는 것은 영(靈)이 있고 형(形)이 없다. 여호와는 엿새에 천지만물을 만들 수 있었으니, 신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런데 그 형(形)이 작아서 사람과 닮았으니, 또한 기이하지 않은가?[12]

>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世 약 2천년, 여호와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자신이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였다. 날짐승, 들짐승, 길짐승, 발없는 짐승들과 함께 그들을 모두 없애려 하였으나, 노아가 자기를 믿는 것만은 좋아하니, 그에게 미리 명하여 300尺짜리 큰 배를 만들어 그 처자 및 생물의 암수 각 하나씩을 이끌고 배에 오르도록 하였다. 하늘(天)이 대연(大淵)의 틈새를 부수자, 큰 비가 40일간 주야로 내려, 물이 천하의 고산(高山)보다 15척이나 높았고, 땅에 물이 넘쳐나기 150일, 온 땅의 생물이 모두 절멸되었다. 물이 물러나고 난 후, 이윽고 노아의 세 아들로 하여금 천하에 흩어져 살도록 허락하였다. 심하도다, 여호아의 포악함이. 비록 세상사람

9) 「鬼神論」은 본래 上下 두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辨妄』에 함께 수록된 것은 상편이다. 저자의 다른 저서인 『息軒遺稿』에 上下 두 편이 모두 실려 있다.

10) 야스이 솟켄의 별호.

11) 半九子旣老. 事間氣暢, 取西書而讀之, 旣而投卷歎曰: “甚矣. 西書之妄誕不經也.” 其言膚淺, 本不足辨. 然蚩蚩之氓, 爲其所誑惑者, 至死不敢變, 是亂之本也. 今也其害駸駸將及我, 則亦不可不辨焉. 乃據其言而條晰之.

12) 其書曰: “有神曰耶和華. 先天地而生, 是造天地日月星辰, 及兩間所有之群物, 六日而成, 乃以第七日爲安息日. 又聚塵土, 依己像造人. 其名曰亞當.” 旣而又曰: “人獨處未善, 乘阿當酣寢之時, 取其一脇, 實之以肉, 以爲之妻. 其名曰夏娃.” 是爲天地萬物之主. 夏娃爲蛇所誘, 食其所禁之果, 乃罰婦女以胎孕之苦, 重加之以産子之艱. 我聞神也者, 有靈而無形. 耶和華六日能造天地萬物, 神莫大焉. 乃其形幺麽, 與人相像, 不亦奇乎.

들의 죄악이 가득하다 해도, 그들 모두가 [하나라의] 걸(傑)임금이나 도척(盜跖)은 아닐 것이고, 그중에는 반드시 조금 선한 자도 있을 것이다. 지금 그들을 올바른 道로써 이끌지 않고, 또 그 죄의 경중과 대소를 나누지도 않고, 뜻밖에 갑자기 大淵의 틈새를 부수어 그들을 모두 익사시키고, 금수까지 그렇게 하였다. 오로지 노아만을 사랑하여 그로 하여금 미리 배를 만들어 그 재난을 면케 하였다. 마음씀이 이와 같으니 어디에 그 천지의 주재자됨이 있는가? 오만하게 스스로 으슥거리며 "나는 사람을 치우치게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누가 그 말을 기꺼이 믿겠는가?[13]

이스라엘은 적처(嫡妻) 리아를 사랑하지 않고 그 동생 라헬을 사랑했다. 여호와는 리아로 하여금 임신케 한 후 다시 라헬을 그리워하게 하였고, 그 임신을 기다렸다. 여호와는 엿새만에 천지만물을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큰가. 지금에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그 모습을 드러내고서는 그 이름을 바꾸도록 명하였다. 또 그 부부를 중재하여 화해시키고, 자매로 하여금 원망이 없도록 하였다. 비천한 백성(細民)과 같이 어리석다. 집안 사람들에게는 또 얼마나 작은가.[14]

그 책 전체를 살펴보면, 아마 노아라는 이는 처음에 요신(妖神)을 섬겼을 것이다. 그것을 부연한 즉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모세에게서 완성되었다. 모세는 간웅(姦雄)이며, 여호와의 위복(威福)을 과장하여(張皇) 민심을 유혹하고는 그런 후에 무기를 들이대었다. 적국을 쳐부술 수 없으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했고, 이길 수 있음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끄신다."고 말했다. 흡사 그 경계를 넓히려는 것 같다. 그러므로 그 책은 다른 민족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그것이 기록하고 있는 땅은 아시아 아프리카 변경의 귀퉁이 땅에 그친다. 이는 그 명확한 증거이다.[15]

(2) 그리스도교의 불충(不忠)과 불효(不孝)에 대한 비판

사람이 세상에 서는 것은, 부모가 낳고, 주군이 기르는 것이다. 이 둘의 은혜보다 큰 것은 없다. 그에 보답하기 위해 성인이 세운 도는 충과 효이다. 효를 미루어 확대하여, 제공치마(齊功緦麻)[16]부터 무복지친(無服之親)[17]까지, 모두 친히 여기고 사랑한다. 충(忠)을 미루어 확대하여, 경(卿)·사(士)·대부(大夫)로부터 부사서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경하고 귀하게 여긴다. 그래도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여겨서, 다시 사해(四海)까지 미루어 간다. 무릇 인민으로서 나와 동류인 자는 무휼(撫恤)하지 않음이 없다. 후인이 각기 제 자리를 얻어 천하가 평화롭다. 그러므로 생민(生民)의 도는 오직 충효만이 크다.

유태국에 예수그리스도라는 이가 있는데, 여호와의 교(교)를 조술(祖述)하고, 군부(君父)를 가짜라 여겼다. 그 진짜 주군과 진짜 부모는 하늘에 있다. 여호와는 곧 나이고, 내가 곧 그 사랑하는 아들이다. 천주(天主)께서 특별히 나를 내려주시어 세상을 구하신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천주를 사랑하는 것이며, 천주께서는 죽지 않는 영(靈)과 헤지지 않는 관(冠)을 하사하신다.[18]

그런즉 헤지지 않는 冠이 나에게 또 무슨 영광이겠는가. 꺼지지 않는 불이 나에게 또 무엇이 두렵겠는가. 야소는 과연 천주의 아들이라, 자기에게 아부하는 이에게 복을 주고 그 군부를 자기보다 사랑하는 이에게 화를 준다.

---

13) 亞當至梆亞十世, 約二千年, 耶和華見世人罪惡貫盈. 悔己造之. 欲并禽獸虫豸而盡滅之. 而獨喜梆亞信己, 預命之造巨舟長三百尺. 挈其妻子及生物牝牡各一. 以登舟, 旣天破大淵之極, 大雨四旬晝夜, 水高於天下高山, 十有五尺, 溢於地者, 百五十日, 徧地生物盡滅矣. 水旣退, 乃許梆亞三子散處於天下. 甚哉. 耶和華之暴也. 雖世人罪惡貫盈. 未必盡爲桀蹠. 其中必有差善者焉. 今不導之以其道. 又不分其罪之輕重大小, 出其不意卒然破大淵之隙. 盡淹殺之. 并及禽獸, 獨愛梆亞, 使之預造舟以免其災. 用心如此. 安在其爲天地主宰哉. 而傲然自詫曰. 我不偏視人. 其誰肯信之?

14) 以色列不愛嫡妻利亞, 而愛其妹拉結. 耶和華使利亞懷孕, 後又眷念拉結, 聽其懷孕. 耶和華六日能造天地萬物, 今也爲其所愛, 顯見其形, 命改其名. 又調停其夫婦, 令姉妹無怨. 惇惇然如細民於家人. 抑又何小也.

15) 通考其書, 蓋梆亞者始事夭神. 其敷衍之則胣於亞伯拉罕, 而成於摩西. 摩西姦雄. 張皇耶和華威福. 以蠱惑民心. 然後以兵加之. 敵國未可擊則曰. 耶和華不許. 見其可乘則曰. 耶和華導之. 偃然思拓其境. 是以其書未嘗及他族而其所記之地, 止於亞西亞阿非利加邊隅之界. 是其明證也.

16) 暫衰(3년), 齊衰(1년), 大功(9개월), 小功(5개월), 絲麻(3개월)의 五服이라는 喪服에서, 1년부터 3개월까지, 조부모이하 近親者에 대해 행하는 喪服.

17) 忌服에 관계 없는 疏遠한 친족

18) 人之立於世也, 父生之, 君牧之, 二者之恩莫大焉. 聖人立所以報之之道. 曰忠, 曰孝. 推孝以擴之. 自齊功緦麻. 以至無服之親. 皆親之愛之. 推忠以擴之. 自卿士大夫, 以至府史胥徒, 皆敬之貴之. 猶以爲未足也. 又推之以至四海. 凡橫目之民, 與我同類者. 莫不撫恤焉. 而後人各得其所, 而天下平. 故生民之道, 唯忠孝爲大矣.

나는 차라리 마귀가 될지언정, 불충불효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19]

(3)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과 부활에 대한 비판

예수가 피를 흘려 세인의 죄를 대속(代贖)하였다. 형을 받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 백일 후에 승천하였다. 이 역시 그 제자들이 날조한 말이다.……예수가 만약 살신(殺身)하여 속죄하고자 하였다면, 형을 받을 날 저녁에는 당연히 담담하게, 걱정이 없어야 하고 또 걱정때문에 마음이 근심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끝내 저녁에 잠들지 못하고 그 제자들을 소리쳐 일으켜, 억지로 그들과 이야기하였다. 하물며 그 죽음은 유다가 30냥의 은(銀)이라는 이익에 그를 판 것이다. 예수가 스스로 죽으러 간 것이 아니다. 예수는 유다가 장차 자기를 팔려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를 선택하여 열 두 사도의 수를 채웠다. 그 지혜롭지 못함이 심하니, 자기의 피를 흘리는 것이 뭇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지를 또 어찌 알았겠는가?[20]

(4) 그리스도교의 배타성과 일본 고유 풍습과의 불화에 대한 비판

기이하고 환상적인 것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케 하고, 군부(君父)를 낮추고 그 신(神)을 높이며, 생전(生前)의 도(道)를 경시하고 사후의 복을 중시하며, 천당으로써 유혹하고 지옥으로써 두렵게 하는 것은 예수와 부처가 동일하다. 그들간의 다른 점은 예수가 윤회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21]

내가 두려워하는 바는 단지 그것이 풍속을 무너뜨림과 난(亂)을 기름에 있다. 여호와는 스스로 질투의 신이라고 칭하고, 그 신도들이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 법을 더욱 엄하게 하여, 다른 신을 멸하고자 맹세하였다. 그러므로 또 말하였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난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지금 그 교를 하나같이 받든다. 신조(神祖)[22]이래 성군(聖君)·현좌(賢佐)·충신(忠臣)·열사(烈士)의 묘(廟)를 모두 훼손하지 않을 수 없고, 아래로는 사(士)와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도 그 조상(祖禰)에 제사지낼 수 없다. 이 어찌 우리의 충후(忠厚)한 풍속이 차마 할 수 있는 바이겠는가? 증자(曾子)는 말하였다. “愼終追遠, 民德歸於厚矣.” 성인(聖人)은 죽은 이를 섬김이 산 사람을 섬김과 같다. 어찌 반드시 그 향(享)과 불향(不享)[23]을 물어보겠는가? 이것이 나의 성(誠)을 다하여 민(民)을 두터움(厚)에 이끄는 까닭이다. 지금은 군부가 죽으면 끊어버리니, 군부를 금수와 같이 보는 것이며, 오직 자기의 하늘에서의 영광만을 구한다. 이는 오로지 이익으로써 민을 이끄는 것이다. 우리의 충효의 풍속이 도깨비(魑魅)로 화한 것이 아니겠는가![24]

예수를 막는데, 만약 그 해를 알고서 중간에 금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흉포해져서 위와 싸울 것이며, 그들이 바라는 바를 얻고서야 그칠 것이다. 옛날 아마쿠사(天草)의 적(賊)이 바로 그 분명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일단 그 교(敎)를 열어주고 난 후에는 비록 돌이키려(悔) 하더라도 그 신도를 다 죽이지 않고서는 금할 수가 없다. 어찌 그런가? 그들은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을 천상의 영광을 더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미리 대비하여 근심을 없애는 것이 나라를 가진 자의 대계(大戒)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열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장차 천하를 소란케 할 자이며, 장차 우리 민(民)을 섬멸할 자이며, 장차 우리 군부로 하여금 하루도 그 자리에 편히 있게 하지 못할 자이다.[25]

---

19) 然則不弊之冠, 我亦何榮, 不滅之火. 我亦何畏. 耶蘇果天主之子. 能福佞己者而禍愛其君父過於己者. 我寧爲魔鬼. 不能爲不忠不孝之人矣.

20) 耶蘇流血, 以贖世人之罪. 旣刑三日復蘇, 百日昇天. 此亦其徒揑造之言耳.……耶蘇若欲殺身以贖罪. 臨將刑之夕. 當坦然無所憂憫而心爲之忡忡. 終夕不能寢. 喚起其徒. 强與之語. 況其死成於猶太利三十兩銀而賣之. 非耶蘇自就之也. 耶蘇不持猶太將賣己. 擇之充十二使徒之數. 其不智甚矣. 又焉知流己血之可以贖衆罪哉. 至旣死而復蘇與其徒相見. 顯與其所曾說相戾. 夫耶蘇所云永生不死者. 特謂其靈耳. 若肉身則一壞不可得而復. 耶蘇以此誘其徒. 而獨自蘇其身. 豈非貴肉身以賊其靈邪.

21) 衒奇幻以蠱人心, 卑君父而尊其神. 輕生前之道而重事後之福. 天堂以誘之. 地獄以恐之. 耶蘇與浮屠同. 其不同者. 耶蘇獨不說輪迴而已.

22) 功德이 위대한 先祖. 진무천황(神武天皇)을 말한다.

23) 귀신이 제사를 받음과 받지 않음

24) 我所懼獨在其敗俗與釀亂耳. 耶和華自稱嫉妬之神. 不許其徒拜他神. 耶蘇益嚴其法, 誓欲滅他神. 故亦曰. “我之來也. 非平世. 乃興亂耳.” 今一奉其敎. 神祖而下. 聖君賢佐忠臣烈士之廟. 不得不盡毁之. 而下至士庶亦不得祭其祖禰. 此豈我忠厚之俗所能忍爲哉. 曾子曰. “愼終追遠, 民德歸於厚矣.” 聖人事死如事生. 豈必問其享與不享哉. 所以盡吾誠而導民於厚也. 今也君父死則絶之. 視猶禽獸. 而獨求己在天之榮. 是專以利導民也. 無乃我忠孝之俗. 化而爲魑魅乎.

(5) 유교의 우주론과 생성론에 기반한 그리스도교 비판

그렇다면 천지민생(天地民生)의 처음은 과연 어떠한가? “성인이 말하지 않는 바를 나는 감히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교도는 선명하게 착착 이야기한다. 우리 민은 혹 그것에 미혹되기도 한다. 그 화(禍)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다. 나는 일단 억설해본다. 땅과 다섯 행성은 모두 태양을 중심으로 한다. 낮과 밤은 허공 속에서 운전(運轉)한다. 각기 그 도(度)가 있다. 지구는 하루에 한번 자전한다. 삼백예순여섯번 자전해야 태양 둘레를 한번 돌 수 있다. 이것이 일년이다. 일년에는 사계절, 열두달, 이십사절기, 칠십이후(七十二候)[26]가 있다. 땅은 모두 태양의 원근(遠近)을 이름으로 삼는다. 만물은 그것으로써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거둔다. 그 기(氣)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땅이 물(物)을 낳을 수 없다. 만고(萬古)에 일정하며, 그 도가 변한 적이 없는 것 역시 당연하다. 재(灰)가 쌓여 파리가 생기고, 물이 담겨서 물고기가 생긴다. 이로 미루어보면, 생민의 처음은 아마도 역시 기화(氣化)일 것이다. 그중 양기(陽氣)를 품한 것은 남자가 되고, 음기(陰氣)를 품한 것은 여자가 된다. 남녀가 이미 구별되어 있고, 각자 서로 짝지어서 그 류(類)를 번식한다. 물(物)은 모두 그러하다. 사람만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는가?[27]

내가 듣기에, 40년전부터 서토(西土)에도 성인(聖人)의 교(敎)를 기뻐하는 이가 있어, “천하를 다스림에는 공부자(孔夫子)의 도(道)만한 것이 없다”고 하고, 최근에는 성경(聖經)[28]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고 한다. 이는 장차 그 교(敎)[29]를 자기 나라에(國中)에 퍼뜨리려 함이다. 하물며 그 사람이 본래 총명하고 북적(北狄)이나 남만(南蠻)과 같은 가르칠(敎誨) 수 없는 류가 아님에랴. 오래지 않아, 우리의 도가 장차 그들에게서 행해질 것이다 군자의 도가 성장하면 이단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數)이다. 내가 만약 오늘 예수를 계몽한다면, 수십년 후에는, 부처가 인도에서 사라지고 우리나라에만 해를 남긴 것과 같은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위에 있는 군자(君子)라면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30]

(6) 공화정론자들에 대한 비판과 그리스도교

모형족하. 족하가 일전에 와서 물었습니다. 동학의 무리 백여명이 공화정의 아름다움에 대해 크게 주창하면서 공화정이 아니면 부국강병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시비가 어떠하냐고.……그러므로 공화라는 것은 천하에 주군이 없고, 여러 신하가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것을 기어이 황조(皇朝)에서 행하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주상(主上)을 어느 곳에 둘지.……서양은 땅이 척박하고 곡식이 적어서, 자급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이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기교로써 널리 사방과 무역하여 그 없는 것을 보충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은 상인에게 있습니다. 그 세력은 왕후와 대항합니다. 풍속은 또 예수교를 신봉합니다. 예수교의 취지는 군부(君父)를 가짜로 여기고, 자기에게 재산을 거두어옵니다. 그것을 천상(天上)에 쌓는다고 말합니다. 세금담당 관리가 세금을 걷으면 도적보다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민은 그 임금을 업신여기고, 예수를 진왕(眞王)의 아들로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공화정사의 설이 서양에서 성행하는 이유입니다. 양학(洋學)의 무리는 충효인의(忠孝仁義)가 무엇인지 모릅니다.[31]

---

25) 防耶蘇, 若知其害而中禁之, 彼必悍然與上戰, 得其所欲爲而止. 往時天草之賊, 卽其明驗也. 故一開其敎, 雖欲悔之, 非盡戮其徒不可得而禁. 何則? 彼以爲耶蘇死爲增天上之榮也. 可不愼乎!……備預不虞有國者之大戒也. 故謂耶蘇可開者, 將使天下騷然者也, 將殲我民者也, 將使我君父不得一日安其位者也.

26) 음력에서, 자연 현상에 따라 닷새를 한 후로 하여 일 년의 기후를 일흔둘로 나눈 것

27) 然則天地民生之初. 果如何也. 曰聖人所不語. 我不敢知. 然耶蘇徒鑿鑿言之. 我民或惑之. 其禍有不可測者焉. 我且臆說之. 夫地與五星. 皆以太陽爲心. 日夜運轉於虛空中. 各有其度. 地則日轉一度. 三百六十有六轉. 乃能一周大陽. 是爲一歲. 歲有四時. 十二月二十四節七十二候. 皆以大陽遠近爲之名. 萬物以生以長. 以成以收. 其氣所不及. 地不能生物. 萬古一定未嘗變其度. 然則地球者大陽爲之主. 旣爲之主. 而能榮枯盛衰其所生之物. 則謂大陽造成地球亦可. 其於五星亦當然耳. 積灰生蠅. 府水産鱗. 以此推之. 生民之初. 盖亦氣化耳. 其稟陽氣者. 爲男. 稟陰氣者爲女. 男女旣判. 各相配以蕃其類. 物皆然. 人何獨不然.

28) 유교의 경전

29) 유교

30) 我聞前四十年而來. 西土亦有悅聖人之敎者. 曰治天下莫孔夫子之道若焉. 輓近則梓行聖經譯以國字. 此將欲敷其敎於國中也. 況其人固聰明非若北狄南蠻. 不可得而敎誨之類. 不久. 我道其將行於彼與. 君子道長則異端必消. 自然之數也. 我若今日啓耶蘇. 數十年之後. 得無如浮屠滅於印度而獨遺害於我國乎哉. 在上君子. 其可不再思焉乎.

31) 某兄足下. 足下往日來問. 同學之徒百有餘人. 盛昌共和政事之美. 謂非此不能以富國强兵. 其是非如何.……西洋土堉穀少, 不足以自給. 是以爲奇技淫巧. 廣與四方貿易. 以補其缺. 是以其權在商. 勢與王侯相抗. 俗又奉耶蘇敎. 耶蘇之立敎. 以君父

천학무식(淺學無識)의 무리는 무군(無君)의 사설(邪說)을 취하여 황국(皇國)에 시행하려 합니다. 그것을 멸족(滅族)할 죄라고 부른 들 그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옛날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이 도를 막자 맹자가 열어 성도(聖道)로 하여금 다시 후세에 밝게 하였습니다. 예수가 도를 막음은 양주와 묵적의 백배입니다. 지금 비록 그 교를 엄히 금하여도, 그 말은 양서(洋書) 속에 침음(浸淫)하여 있습니다. 그것이 인심을 해치기는 이미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더 이상은 오락가락하는 무리와 더불어 그 시비사정(是非邪正)을 따질 수 없습니다. 족하 역시 내 마음의 슬픔을 알 것입니다. 족하는 일찍이 내 문(門)에서 노닐었고, 함께 충효인의(忠孝仁義)의 설(說)을 들었습니다. 이단자의 무리에 비해 순수하지 않습니까? 만약 또 그 무리와 부화하여 공화의 설을 주창한다면 그 죄는 모르고 하는 자보다 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절교하고자 하니, 다시는 내 문에 발걸음을 하지 마십시오.[32]

【참고문헌】

安井息軒,『辨妄』, 東京: 中西源八, 明治6年. http://dl.ndl.go.jp/info:ndljp/pid/899764

安井息軒 原著·安藤定 解,『辨妄和解』, 明治6年.(明治文化研究會 編,『明治文化全集』제23권 思想篇, 東京: 日本評論社, 昭和42年 제2판 所收)

島津久光公 題序·安井仲平 著·門人松本豐多 校註,『標註辨妄』, 明治十四年 第七月 新鐫 文海堂藏版.

安井息軒 原著·岡田武彦 校註,『辨妄』(『日本思想大系47 近世後期儒家集』東京: 岩波書店, 1978 所收)

安井息軒,『管子纂詁』(漢文大系21), 東京: 富山房, 昭和59年.

山路愛山 原著·出原隆俊 校注,『現代日本教會史論』, 明治39년.(藪禎子·吉田正信·出原隆俊 校注,『新日本古典文學大系 明治編26·キリシト教者評論集』, 東京: 岩波書店, 2002 所收)

古賀勝次郎,「安井息軒と中村敬宇-安井息軒研究序說-」,『早稻田社會科學總合研究』8:1(2007.7.)

古賀勝次郎,「安井息軒の生涯-安井息軒研究(二)-」,『早稻田社會科學總合研究』8:2(2007.12.)

古賀勝次郎,「安井息軒の著作(上)-安井息軒研究(三)-」,『早稻田社會科學總合研究』8:3(2008.3.)

古賀勝次郎,「安井息軒の著作(中)-安井息軒研究(四)-」,『早稻田社會科學總合研究』9:1(2008.7.)

古賀勝次郎,「安井息軒の著作(下)-安井息軒研究(五)-」,『早稻田社會科學總合研究』10:1(2009.7.)

古賀勝次郎,「安井息軒の門生たち(一)-井上毅-安井息軒研究(六)-」,『早稻田社會科學總合研究』10:2(2009.12.)

古賀勝次郎,「安井息軒の門生たち(二)-重野成齋と川田甕江-安井息軒研究(七)-」,『早稻田社會科學總合研究』10:2(2010.3.)

古賀勝次郎,「安井息軒の門生たち(三)-島田篁村·岡松甕谷·竹添井井-安井息軒研究(八)-」,『早稻田社會科學總合研究』11:1(2010.7.)

山本幸規,「安井息軒の『辨妄』と明治初年のキリシト教界」,『教社會問題』32, 昭和59年.

淸水直美,「安井息軒の『辨妄』について」(上),『中國文學論叢』第11號, 昭和61年.

淸水直美,「安井息軒の『辨妄』について」(下),『中國文學論叢』第13號, 昭和62年.

고노이 다카시, 이원순 옮김,『일본그리스도교사』,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마리우슨 B. 잰슨 지음, 김우영·강인황·허형주·이정 옮김,『현대일본을 찾아서』, 서울: 이산, 2006.

爲假. 輸財於己. 謂之積於天上. 計吏收稅. 憎之甚於盜賊. 是以民邈視其君. 而貴耶蘇爲眞君之子. 此共和政事之說. 所以盛行於西洋也. 洋學之徒. 不知忠孝仁義之爲何物.

32) 淺學無識之徒, 欲取無君之邪說以施之皇國. 謂之赤族之罪, 其誰爲不可. 昔者楊墨塞道, 孟子闢之, 使聖道復明於後世. 耶蘇之塞道, 百倍楊墨. 今雖嚴禁其教, 其言則浸淫於洋書之中. 其害人心, 已有如此者焉. 予老矣. 不能復與東西風靡之徒辨其是非邪正. 足下亦知我心之悲邪. 足下嘗游於我門, 與聞忠孝仁義之說. 非淳乎異端者之比? 苟亦與彼徒附和, 以唱共和之說. 其罪甚於不知而爲之者. 請自此絶, 勿再踵我門.

【메 모】

【특별 분과】 발표 ④

胡適의 편찬의식 연구*
—『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을 중심으로

한지연 (중앙대)**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中國新文學大系』및『建設理論集』의 편찬배경
Ⅲ.『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과 胡適의 편찬의식
Ⅳ.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중국신문학대계(中國新文學大系)』(1917～1927)[1]는 저명 출판가(出版家)인 자오자비(趙家璧, 1908-1997)[2]가 주편(主編)을 맡아 간행되었다. 이는 문학혁명을 전후로 한 중국 신문학사의 역사적 변천 과정 및 그 면모를 추적, 고찰하고 있는 문학사적(文學史的)인 성격을 지닌 개론서이자, 이론서 및 비평서로서의 가치[3]가 매우 높은 문헌으로 당시 출판계의 '양대 계획(兩大工程)'[4]으로 불리어질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었다.『중국신문학대계』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후스(胡適, 1891-1962)가 직접 편찬한『건설이론집(建設理論集)』은『중국신문학대계』의 제1권에 해당한다.『건설이론집』은 문학혁명 시기를 전후하여 제기된 당시 지식인들의 주요 문학이론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선집(選集)으로서, 좁게는 후스의 문학사상 및 문제의식이 반영된

---

* 본 발표문은 중국학연구회에서 발간하는『중국학연구』제79집(2017)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비록 이미 게재된 논문이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관련 연구의 심화 및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만약에 인용이 필요하신 경우 본 발표문이 아닌, **중국학연구회 JAMS 홈페이지(chinastudy.jams.or.kr)** 및 **디비피아(http://www.dbpia.co.kr)에서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다운하여 참고**해주십시오. 귀한 발표기회를 주신 대한중국학회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1) 본 논문에서 참고한『中國新文學大系』의 판본은 2003년 上海文藝出版社에서 출판한 影印本이며, 이하 각주에서는『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으로만 표기하며 출판정보는 생략하기로 한다.

2) 국내 선행연구에서 자오자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연유로, 그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저명 출판가이자 편집자인 자오자비는 1932년 광화대학(光華大學) 영문과 출신이다. 대학 졸업 후 양우도서인쇄공사(良友圖書印刷公司) 편집 및 주임을 역임하였으며, 1939년에는 양우복흥도서공사(良友復興圖書公司) 부책임자 겸 주편집자를 역임하였다. 1947년에는 라오서(老舍)와 함께 신광출판공사(晨光出版公司)를 창립하는 등 평생을 출판업에 종사하였다.

3) 당시 몇몇 정기간행물에서『중국신문학대계』에 대한 서평을 발표하였다. 주요 요지로는 "『중국신문학대계』은 가장 방대한 선집이지만, 문헌 보존의 목적 역시 있다("新文學大系固然一方面要造成一部最大的'選集', 但另一方面卻有保存'文獻'的用意。" 姚琪,「最近兩大工程」,『文學』第五卷第1號, 1935年7月1日)", "『중국신문학대계』의 출간은 후대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양분을 제공해주었다("這一計劃的實現, 確是給予後來的青年一個寶貴的資養料。" 摘錄自《上海大美晚報》)", "『중국신문학대계』의 편찬은 당시 출판계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의 있는 작업이다. 왜냐하면『중국신문학대계』에서 우리는 최근 십여 년 동안 발표된 중요 이론과 저명 작품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10권에 해당하는 '색인' 영역은 (『중국신문학대계』) 전집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我覺得這一個工作, 可以說是目下出版界裏最有價值最有意義的一個, 因為從這一部《中國新文學大系》裏, 我們可以讀到這十幾年來一切重要的理論和頂好的作品, 特別是最後的一冊索引, 尤足以增加全書的史的價值。" 摘錄自《南京中央日報》)" 상기 자료는『중국신문학대계』보급판 견본(普及版樣本) '輿論界之好評摘錄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4) 여기서 일컫는 '양대 계획(兩大工程)' 중에서 또 다른 하나는 정전뒤(鄭振鐸, 1898-1958)가 주편을 맡은『世界文庫』(全十二冊, 上海生活書店, 1935)를 가리킨다. 姚琪,「最近兩大工程」,『文學』第五卷第一號, 1935年7月1日 참고.

자료임과 동시에, 넓게는 중국 신문학의 역사가 고스란히 반영된 훌륭한 사료(史料)라고 볼 수 있다.

상술한 바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후스가 지닌 다양한 면모를 통해 문학사가(文學史家) 및 편찬가로서의 후스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후스는 문사철(文史哲) 분야에 능통했던 민국(民國) 시기의 학자이자 사상가, 교육자로서, 중국 현대문학사 및 학술사상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후스가 평생 추구한 학문적, 사상적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하기에, 후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지대하였으며, 관련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후스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견해 및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후스 연구의 또 다른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후스의 『중국신문학대계·건설이론집』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에 반영된 후스의 '편찬의식'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문학사가', '편찬가'로서의 후스에 주목하여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와 편중성을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후스를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후스는 중국 신문학의 탄생 및 발전과 그 궤적을 함께 했던 중요한 인물이자, 문사철 영역에서 적지 않은 저서를 남기었다. 이는 후스 연구의 다양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진행된 후스 연구는 주제가 비교적 편협하며,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비록 『중국신문학대계·건설이론집』이 후스 자신의 순수한 저서는 아니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 연구의 전형성에서 벗어난 후스 연구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둘째, 『중국신문학대계·건설이론집』은 당시 신문학 초기를 대표했던 주요 이론 및 비평을 선별, 편찬한 것이다. 이는 흔히 시기별, 연대별로 서술, 편찬하는 문학사 저서와는 상이하나, 『건설이론집』에는 후스의 독자적인 문학사관(文學史觀)이 곳곳에 침투해 있다. 후스의 문학사관은 비단 문학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습에 젖어 있는 중국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문명의 건설을 위한 일종의 방법이자 사상적 역량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에 다시금 착안하여 독해와 분석을 진행하여 『건설이론집』의 편찬의식을 밝히는데 그 목표를 두고자 한다.

『건설이론집』에는 문학혁명 시기를 전후하여 제기된 당시 지식인들의 주요 문학이론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건설이론집』에는 당시 오사(五四) 신문화운동 시기의 '신문학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왔는가에 대한 후스의 비판적 고찰이 담겨져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에 근거했을 때 『중국신문학대계·건설이론집』에는 후스의 문학 및 학술사상 뿐만 아니라 후스의 '선별목적' 및 '편찬의식'이 반영되어 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문학사가, 편찬가로서의 후스를 재발견하여, 국내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후스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고자 한다.

2. 『中國新文學大系』 및 『建設理論集』의 편찬배경

앞에서 언급한 바, 『중국신문학대계』는 저명 출판 편집자이었던 자오자비가 주편을 맡아 간행된 선집이다. 여기에는 중국 신문학운동(新文學運動) 시기, 즉 중국현대문학의 '첫 번째 10년(第一個十年)' 시기로 일컬어지는 1917년부터 1927년 동안에 발표된 문학이론과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편찬 및 출간에 있어 자오자비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 『중국신문학대계』(1917-1927)의 편찬은 마오둔(茅盾) 선생, 아잉(阿英) 선생, 정보치(鄭伯奇) 선생, 스저춘(施蟄存) 선생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중국신문학대계』의 편찬 계획이 이처럼 원만히 준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차이위안페이(蔡元培) 선생, 후스(胡適) 선생, 정전둬(鄭振鐸) 선생, 루쉰(魯迅) 선생, 저우쭤런(周作人) 선생, 주쯔칭(朱自清) 선생, 위다푸(郁達夫) 선생, 홍선(洪深) 선생 및 위에서 언급한 세 분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자료를 찾고 목차 및 서문을 작성해주셨는지라 염원대로 완성할 수 있었다.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5]

『중국신문학대계』는 자오자비의 주도 하에 공동편찬이 진행되었는데, 주목할 점은 각 선집의 편찬자들이 모두 당시 중국 신문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저명 문인 및 학자들이라는 점이다. 자오자비가 중국 신문학의 산 증인들을 편찬에 참여시킴으로써 신문학사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확인이 가능했으리라 여겨지는 바, 좀 더 원활한 이해를 위해『중국신문학대계』의 각 권별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中國新文學大系』 권별 정보

卷 名	編 者	備 考
『建設理論集』	후스(胡適)	중국 신문학 초기 문학이론 51편 수록
『文學論爭集』	정전둬(鄭振鐸)	중국 신문학 초기 비평문 107편 수록
『小說一集』	마오둔(茅盾)	문학연구회(文學研究會) 작가들의 소설 58편 수록
『小說二集』	루쉰(魯迅)	『신청년(新青年)』에 수록된 작품, 신조사(新潮社), 망원사(莽原社), 미명사(未名社)의 작품 및 향토문학 작품 26편 수록
『小說三集』	정보치(鄭伯奇)	창조사(創造社) 작가들의 소설 37편 수록
『散文一集』	저우쭤런(周作人)	쉬즈모(徐志摩), 량위춘(梁遇春), 위다푸(郁達夫), 천시잉(陳西瀅) 등 작가 17인의 산문 71편 수록
『散文二集』	위다푸(郁達夫)	루쉰(魯迅), 저우쭤런(周作人), 빙신(冰心), 린위탕(林語堂), 펑즈카이(豐子愷), 주쯔칭(朱自清) 등 작가 16인의 산문 148편 수록
『詩集』	주쯔칭(朱自清)	시인 59인의 작품 390수 수록
『戲劇集』	홍선(洪深)	중국 신문학 초기 극작가 18인의 작품 18편 수록
『史料.索引』	아잉(阿英)	1917년부터 1927년 사이의 문학 관련 연구저서, 정기간행물 등의 문헌을 비롯하여 전기(傳記), 창작물, 번역물, 잡지 및 자료 색인 수록

상기 도표에 근거했을 때,『중국신문학대계』는 이론, 논쟁, 문체(여기서는 문학 장르를 의미함)[6] 및 사료 색인까지 그 범주가 광범위하며, 각 권별의 성격에 부합되는 글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급판을 통해 판촉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찬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신문학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계승하고, 신문학의 사실(史實)을 오롯이 재현하고자 한 자오자비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중국신문학대계』를 둘러싼 일련의 편찬배경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자오자비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민국 6년(1917)부터 민국 16년(1927) 간의 잡지, 칼럼, 단행본은『중국신문학대계』편찬에 활용하는 자료들이기에, 작업에 있어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중국신문학대계』(1917-1927)은 모두 10권으로 구성된다. 이론 부분은 '건설이론집'과 '문학논쟁집' 두 권으로, 소설은 문학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세 권으로 나누고, 산문은 작가별로 두 권으로 나누며, 시집 및 희곡은 각각 한 권, 사료·색인 영역은 한 권으로 구성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각 권별마다 해당 편집자들이 서문을 작성하고 10여 년 동안의 신문학 발전 역사를 서술함과 동시에, 해당 시기 작가 및 작품에 대한 평론도 포함된다. 각 권별 서두에는 총서(總序)를 작성하여 신문학운동의 의의에 대해 논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함은『중국신문학대계』가 이전 자료의 정리에 머물

5) "這一個《新文學大系》的計畫，得益於茅盾先生，阿英先生，鄭伯奇先生，施蟄存先生的指示者很多，没有他們，這個計畫決不會這樣圓滿完备的。蔡元培先生，胡適之先生，鄭振鐸先生，魯迅先生，周作人先生，朱自清先生，郁達夫先生．洪深先生和上述的前三位，花費了他們寶貴的時間，替我們搜材料，編目錄，寫導言，使這十部大書得以如愿的實現，我借了這個機會，敬向他們深深的致謝。" 趙家璧,「『中國新文學大系』前言」,『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影印本),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3.

6) 이와 관련하여 리디아 리우(Lydia H. Liu)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겠다. 리디아 리우는『중국신문학대계』가 '소설(小說)', '시가(詩歌)', '희극(戲劇)'과 '산문(散文)'의 문학 장르(文類)로 세분화하여 선별과 편찬을 진행한 점에 대해 이는 영어의 'fiction', 'poetry', 'drama' 및 'familia prose'로 일컬어지는 서양의 문학 장르와 상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법으로 인해 중국문화와 중국문학 본연의 정당성이 철저히 전복되었음을 언급하였다. 劉禾著, 宋偉杰等譯,『跨語際實踐: 文學, 民族文化與被譯介的現代性(中國, 1900-1937)』, 北京, 三聯書店, 2002, 332쪽 참고.

지 않고 역사적 평가 작업을 위해서이다.[7]

상술한 바에 근거했을 때 『중국신문학대계』는 일반적인 전집류와 비교 시 그 규모가 방대하지는 않다. 그러나 각 권별의 특성에 근거했을 때 양적인 규모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더욱 강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인 측면이라 함은 각 권별에 수록된 글 이외에도 당시 베이징대 총장을 역임했던 차이위안페이(蔡元培, 1868-1940)의 총서(總序), 각 권별 해당 편찬자들의 서문(導言)[8]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국신문학대계』의 권위성 및 전문성을 한층 제고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이는 출판가이자 편집자 자오자비만의 전문가적 역량[9] 이외에도 중국 신문학을 대하는 그의 역사적 안목과 소양[10]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지는 바이다.

여기서 우리는 1917년(민국 6년)부터 1927년(민국 16년)이라는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중국신문학대계』 선별작업에 있어서의 분기(分期) 문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사 서술에 분기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관건인 바, 『중국신문학대계』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바, 이에 관해서는 자오자비의 회고(回顧)를 참고할 수 있겠다. 자오자비에 따르면[11] 그는 분기 설정에 있어서 저명 작가이자 문학이론가였던 아잉(阿英)[12]의 견해에 영향을 받았으나[13], 당시 『중국신문학대계』 편찬자들의 다양한 이견들에 부딪쳤다고 한다.[14] 이와 관련하여 자오자비는 마오둔에게 서신 왕래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 바, 마오둔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고 한다.

> '5·4(五四) 운동'은 1919년, '5·30(五卅) 운동'은 1925년으로, 이 6년의 시간은 신문학사(新文學史)에 있어 꽤나 떠들썩했으나, 작품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5·4(五四)'에서 '북벌(北伐)'까지, 즉 1919년부터 1927년까지 정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이렇게 현대중국문학을 두 시기로 나눈다면, 다시 말해 '5·4(五四)'부터 '북벌'까지, '북벌'부터 '현재'까지를 말합니다.……본래 '5·4(五四)'부터 '5·30(五卅)'까지는 '이정표'에 지나지 않는 바, 사실 제1권인 '건설적인 문학이론'의 수많은 주요 글들은 '5·4(五四)' 이전에 발표된 것들입니다. 1917년부터 1927년까지 10년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15]

---

7) "所有從民六至民十六的十年間的雜誌、副刊、単行本，全是我們編輯時所用的資料。我們自認已盡了我們最大的力量，去搜羅得不讓一粒珍珠，從我們的網裡漏掉。《中國新文學大系》的第一個十年共分十大册：理論分建設理論集和文學論爭集兩册；小說以文藝團體爲分界，分一、二、三三集；散文共二集，以作家爲區別；詩集一，戲曲集一；另附史料索引一厚册，足供讀者參考。每册除選材外另由編選人作一長序，論述該部門十年來發展的經過，更評述當代重要的作家和作品。全書之前，又冠以總序，闡敍新文學運動的意義。我們所以這樣做，是爲了要使這部大系不單是舊材料的整理，而且成爲歷史上的評述工作。" 趙家璧, 「編輯『中國新文學大系』緣起」. 상기 인용문운 1935년 3월 15일에 간행된 『良友畫報』第103期에 수록되어 있으며, 본고에서는 上海魯迅紀念館編, 『趙家璧文集』第二卷,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8, 89-90쪽을 참고하였다.

8) 1982년에 상해서점(上海書店)에서 '중국현대문학사 참고자료'의 일환으로 『中國新文學大系導言集』을 출판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陳平原의 「在"文學史著"與"出版工程"之間——『中國新文學大系導言集』導讀」(陳平原主編, 『現代中國』, 第15輯,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4)을 참고하였다.

9) 이에 대해 마오둔은 자오자비를 '인재'라고 지칭("趙家璧辦事稱得上幹才。")하며 그의 유능함을 높이 평가하였다. 茅盾, 『我走過的道路』(中),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281쪽.

10) "我們相信中國新文學的將來，只有向前進取才是最大的出路。這次我們集合十多人的力量，費了一年餘的時間，來實現這一個偉大的計劃，希望能從這部大系的刊行裏，使大家有機會去檢查已往的成績，再來開闢未來的天地。" 上同, 90쪽.

11) 趙家璧著, 『編輯憶舊』, 北京, 三聯書店, 2007, 106쪽.

12) 아잉(阿英, 1900-1977)의 본명은 첸더푸(錢德富)로서 흔히 첸싱춘(錢杏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1926년에 중국 공산당 활동에 참가했으며, 줄곧 혁명문예활동에 종사하면서 장광츠(蔣光慈, 1901-1931)와 함께 '태양사(太陽社)'를 조직하였다. 특히 중일전쟁 시기에는 상하이에서 문예창작에 힘썼으며, 『救亡日報』과 『文献』등 간행물의 편집위원 및 주편을 맡았다.

13) 아잉은 그의 필명(署名) 張若英으로 『中國新文學運動史資料』(上海, 光明書局, 1934)를 출간하였는데, 그는 「『中國新文學運動史資料』序記」에서 5·4(五四) 운동부터 5·30(五卅) 운동까지의 시기를 중국 신문학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시기로 간주하고 있다("從'五四'到'五卅', 在時間上，大約是九年的光景，這一個時期，可說是文學革命期。") 해당 원문은 『中國新文學運動史資料』(1934), 1쪽 및 阿英著, 『阿英全集』第四卷(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3), 283쪽에 수록되어 있다.

14) 소설 영역에서는 '문학단체(文學社團)'로 나누자는 정전둬와 정보치의 주장 및 역사에 근거하여 나누자는 루쉰의 주장 간의 상호 불일치, 산문 영역에서는 편찬자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근거하여 선별하자는 위다푸의 주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15) "'五四'是1919年，'五卅'是1925年，前後六年，這六年雖然在新文學史上好像熱鬧得很，其實作品幷不多。弟以爲不如定自'五四'到'北伐'，即1919－1927年，如此則把現代中國文學分爲兩個時期，即'五四'到'北伐'，'北伐'到現在。……本來'五四'到'五卅'不過表示了'里程碑'，事實上，第一本的'建設的文學理論'，就有許多重要文章是發表在'五四'以前。從1917到1927年，十年斷代是幷没有毛病的。" 趙家璧著, 『編輯憶舊』, 北京, 三聯書店, 2007, 106쪽.

흥미로운 점은 마오둔의 주장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에는 소위 일컫는 중국 신문학 초기, 즉 '첫 번째 10년'에 대한 역사성과 그것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했던 마오둔의 확고한 신념[16]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분기 문제에 있어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표제(標題) 뒤에 '第一個十年: 1917-1927'이라는 부제(副題)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출판 문화적인 시각에서 흔히 일컫는 판매 촉진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중국신문학대계』본연의 출간 의도와 성격의 공고화를 위한 일종의 이론적 방어기제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17] 비록 집필진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이는 신문학에 대한 각 편찬자들의 열정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그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역사화',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신문학의 회고와 성찰이라는 상징적 의미 역시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중국신문학대계』전집의 편찬배경을 전제로 하여『건설이론집』에 대해 논할 수 있겠다.『건설이론집』은『중국신문학대계』에서 '이론' 영역에 해당되는데, '이론' 영역은 후스가 맡았던『건설이론집』과 정전둬가 맡았던『문학논쟁집』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하단의 인용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 이론 영역은 두 권으로 나누고자 한다.『논쟁집』은 이미 편집자를 결정했는데,『건설이론집』은 누구한테 맡겨야 할까? 나는 정전둬 선생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웃으면서 한참을 침묵하더니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 부분은(『건설이론집』을 말함) **후스 선생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소?" 그 전에 나 역시 중국신문학대계의 첫 번째 이론집은 후스 선생 같은 사람에게 맡기는 게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보치, 아잉 선생은 반대할 것이 자명했기에 감히 물어볼 수 없었다. 후스는 당시 베이징대의 총장이었으며, 문화계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인사(人士)였으나, 정치성향은 점점 우경(右傾)에 치우쳤는지라 일부 좌익작가들이 그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18]

상기 인용문을 통해 자오자비가 '이론' 영역 편찬자 선정에 있어 꽤나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중국 신문학사에서 '이론'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것의 영향력, '이론' 영역이『중국신문학대계』전집의 첫 번째 권이라는 전형적인 이유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의 기저에는 자오자비의 문학적 소양, 학술적 안목 및 역사의 흐름을 읽어내어 신문학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 시대적 책임감이 더욱 자리 잡고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목표 하에 그는 신문학 이론 영역을『건설이론집』과『문학논쟁집』으로 세분화하여 편찬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건설이론집』을 후스에게 요청하였던 것이다.

『건설이론집』의 편찬자 선정에 있어 자오자비가 정전둬의 자문을 구한 점, 이에 망설임 없이 후스의 이름이 거론된 점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는 후스의 명성에서 기인했던 것 이외에도 후스만한 적임자가 없었을 것이라는 총편집자 자오자비의 전문가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자오자비가 광화대학(光華大學) 재학 시절이었던 1928년 2월에 후스의 중국철학사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으며, 후스의 강의는 당시 학생이었던 자오자비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19] 이러한 사실 역시『건설이론집』편찬자 선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으리라 여겨지는 바이다.

---

16) 이에 대한 방증으로 마오둔이 편찬한『中國新文學大系・小說一集』編選感想을 참고할 수 있다("新文學發展是長長的一條路，這條路的起點以及許多早起者所留下的足迹，有重大的歷史價值。現在良友公司印行《中國新文學大系》第一輯，將最初十年內的'新文學'的史料作一次總結。這在今日的出版界算得是一樁可喜的事。至少有些散逸的史料賴此得以更好地保存下來。")

17) 劉禾著, 宋偉杰等譯,『跨語際實踐: 文學, 民族文化與被譯介的現代性(中國, 1900-1937)』, 325쪽 참고.

18) "理論分編兩集，論爭集已有了編選者，那麼，另一本《建設理論集》找誰編呢？我乘機懇求鄭振鐸作個推薦。他笑而不答，沈思了好一陣，才輕聲地對我說：'這本集子請胡適來編，你看好不好？'在此之前，我心中也想到過《大系》第一本理論集，如能找到胡適這樣的人來編，那會多好，但我不敢向鄭伯奇、阿英提，他們肯定不會讚成。胡適當時是北京大學校長，文化界炙手可熱的權威人士，政治上在逐漸右傾，左翼作家對他很有意見。" 趙家璧,「話說『中國新文學大系』」,『新文學史料』, 第一輯, 1984 및 趙家璧著,『編輯憶舊』, 北京, 三聯書店, 2007, 102-103쪽 참고.

19) 趙修慧,「趙家璧與胡適有過什麼交往」,『上海采風』, 2期, 2013.

3.『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과 胡適의 편찬의식

후스의『건설이론집』에는 중국현대문학의 태동기였던 첫 번째 10년 시기 등장했던 문학이론 등 관련 문장들이 수록되어 있다. 후스의 편찬의식 고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단에 제시된 '편선감상(編選感想)'을 살펴보도록 하자.

> 나의 일은 매우 간단하다. 왜냐하면 신문학의 건설이론은 본래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신문학 운동은 단지 두 가지의 주요 이론만 있을 뿐이다. 첫째, 살아있는(活的) 문학을 하는 것; 둘째, '사람의'(人的) 문학을 하는 것이다. 전자(前者)는 언어 도구의 문제이며, 후자(後者)는 내용의 문제이다. 무릇 '백화문학'(白話文學), '국어문학'(國語文學), '방언문학(方言文學)의 성분을 흡수하는 것', '유럽화(歐化)의 정도', 이는 모두 '살아있는' 문학의 문제에 속한다. '사람의 문학'이라는 슬로건(口號)은(는) 문학 내용의 기준을 헤아리기 위해 저우쩌런(周作人) 선생이 제기한 것이다.[20]

후스의「편선감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약간의 부연설명[21]을 덧붙이고자 한다. 현재 통용되는『중국신문학대계』전집(영인본)에는 집필자들의 '편선감상'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관련 연구자들에 따르면 '편선감상'은 1930년대 출간 당시 자오자비가 각 집필자들(※ 여기에는『중국신문학대계』총서를 작성한 차이위안페이도 포함되기에 '편선감상'은 총 11편이 됨)에게 특별히 요청한 것이라고 한다. 1권부터 10권까지의 편선감상은 모두 해당 집필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것이며, 자오자비는 이를 영인(影印)하여『중국신문학대계』의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원본이 유실되었는지라 모든 편선감상의 원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필자의 문집, 전집[22] 혹은 타인의 연구저서[23]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상기 후스의「편선감상」의 핵심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문학(活的文學)'과 '인간의 문학(人的文學)'[24]이다. 이는 중국 신문학을 이루는 양대 골간(骨幹)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바, 양자의 상호 공존 하에 문학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혁신'을 추구하고자 했던 후스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스는 신문학의 중요성을 기저로 삼아 명확한 목표와 비전하에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였던 바, 후스의 실제 경험과 실천이『건설이론집』의 편찬 작업에 미친 영향력은 실로 매우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스는『건설이론집』의 얼개를 짜고 구체적인 선별 작업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스는『건설이론집』서문[25]에서 책의 전체 구성[26]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20) "我的工作是很簡單的，因爲新文學的建設理論本來是很簡單的。簡單說來，新文學運動只有兩個主要的理論。(一) 要做活的文學。(二) 要做'人的'文學。前者是語言工具的問題，後者是內容的問題。凡'白話文學'，'國語文學'，'吸收方言文學的成份'，'歐化的程度'，這些討論都屬於'活的文學'的問題。'人的文學'一個口號是周作人先生提出來的估量文學內容的標準。"

21) 후스의 '편선감상'은 후스의 전집 및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는지라, 해당 원문은 陳平原의「在"文學史著"與"出版工程"之間——『中國新文學大系導言集』導讀」(陳平原主編,『現代中國』, 第15輯,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4), 165쪽에서 재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2)『중국신문학대계』전집의 편선감상은 자오자비의 글「話說『中國新文學大系』」에는 모두 인용되어 있지만, 루쉰(『魯迅全集』), 마오둔(『茅盾全集』), 위다푸(『郁達夫文集』), 저우쩌런(『知堂書話』), 아잉(『阿英文集』)을 제외한 다른 집필자들(차이위안페이, 정전둬, 후스, 정보치, 홍선, 주즈칭)의 전집 및 문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金宏宇等著,『文本周邊：中國現代文學副文本研究』,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4, 263쪽을 참고하였다.

23) 참고로『중국신문학대계』의 모든 '편선감상'은 陳平原의「在"文學史著"與"出版工程"之間——『中國新文學大系導言集』導讀」(陳平原主編,『現代中國』, 第15輯,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4), 165-167쪽에 수록되어 있다.

24) 후스는『건설이론집』서문에서 "1907년 12월에『신청년』5권 6호에 저우쭤런 선생의「인간의 문학」이 발표되었다. 이는 당시 문학 내용 개혁에 관한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이었다(次年 (七年) 十二月裏，《新青年》 (五卷六號) 發表周作人先生的《人的文學》。這是當時關於改革文學內容的一篇最重要的宣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胡適編選,『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導言, 29쪽.

25)『건설이론집』의 서문은 1924년 9월 3일(廿四.九.三)에 작성되었으며, 작성 날짜는 서문 말미(胡適編選,『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導言, 32쪽)에 기재되어 있다.『건설이론집』서문은 총 여섯 파트(一~六)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파트의 요지(要旨)는 다음과 같다. 一, 二. 문학혁명의 역사적 배경; 三. 중국문학 혁명운동의 전개 과정; 四. 중국신문학운동의 이론; 五. 인간의 문학; 六. 맺음말 (문학혁명, 문자운동 및 신문학의 문체 및 장르 등 포함)

26) "這一集所收的文字，分作三組：第一組是一篇序幕，記文學革命在國外怎樣發生的歷史；這雖然是一種史實的記載，其實後

PART 1(第一組):『건설이론집』의 도입부. '역사의 시작(歷史的引子)'이라는 큰 제목 하에 1편의 글이 포함되어 있으며, '역사'를 중심으로 국외에서의 신문학운동의 발생 및 발전에 대해 논하였음.

PART 2(第二組):『건설이론집』의 두 번째 부분. '발난 시기의 이론(發難時期的理論)'이라는 큰 제목 하에 24편의 글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학혁명 발생 초기 발표되었던 중요 이론 및 그것의 영향력에 대해 논하였음.

PART 3(第三組):『건설이론집』의 세 번째 부분. '발난 후기의 문학이론(發難後期的文學理論)'이라는 큰 제목 하에 25편의 글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문학운동 시기 발표된 이론 중에서 비교적 '건설적'인 경향을 지닌 글(신시, 희극, 소설, 산문 등 각 영역의 글 포함)들을 선별, 소개하였음.

『건설이론집』의 구성에서 우리는 후스가『건설이론집』편찬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후스는 이러한 편찬 작업을 통해 소위 전통과 현대의 충돌, 해체 속에서 당시 지식인들이 전개했던 문학적, 사상적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한 어떻게 발전을 이루어 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회고, 고찰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후스는『건설이론집』서문에서『건설이론집』의 편찬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 문학혁명의 목적은 '살아있는(活的)' 언어로 새로운 중국의 새로운 문학(新文學), 즉 '살아있는(活的)' 문학, '인간의(人的)' 문학을 창작하는 데 있다. 신문학의 창작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바, 다시 말해 이는 문학혁명의 성공을 의미한다.……
> **그래서 나는『신문학대계』편찬 작업을 가장 기꺼이 환영하는 바이다.『신문학대계』의 주편 자오자비 선생이 나에게『건설이론집』편찬을 부탁했을 때 나는 당연히 사양할 수 없었다.**『건설이론집』에 수록된 이론들은 민국 6년에서 민국 9년(1917-1920) 사이에 발표된 문학혁명의 이론들이며,『신청년』(新青年),『신조』(新潮),『매주평론』(每週評論),『소년중국』(少年中國) 등 몇몇 잡지 중에서 선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잡지들은 모두 중국신문학운동을 이끌었던 선봉 주자들이었으며, (신문학운동 초기) 가장 이르렀던 신문학 홍보 기관이었기 때문이다.[27]

서문은『건설이론집』뿐만 아니라『중국신문학대계』전집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중국신문학대계』각 집(集)을 맡았던 편찬자들의 문제의식과 편찬의도가 매우 선명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와 독자성이 높다. 상기 서문에서 우리는 후스가『중국신문학대계』의 편찬 작업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비록『건설이론집』이 후스의 순수한 저서는 아니지만,『건설이론집』에는 후스만의 독자적인 사상과 문제의식의 흔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후스의 '편선감상' 및 '서문'에 나타난 후스 자신의 '목소리'들을 통해 후스 편찬의식의 개괄적인 면모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었던 바, 이는『건설이론집』에 반영된 후스의 편찬의식을 추적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다.

상기 전제에 근거하여 이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후스의 '문학사관(文學史觀)'이다. 왜냐하면 이는『건설이론집』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후스 사상의 '핵심'임과 동시에『건설이론집』편찬 작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별 기준'이기 때문이다.

> 우리가 그 당시에 제기했던 새로운 문학사관은 바로 문학사를 읽는 중국 독자들에게 새 안경을 씌워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신세계를 통해 세상의 광활함과 역사의 온전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수호전』과『금병매』를 가지고 당시의 정통문학과 비교한다면 하경명(何景明, 1483-1521)의 가품을 두고 일소할 가치도 없을뿐더러, 공안·경

來許多革命理論的綱領都可以在這裏看見了。第二組是文學革命最初在國內發難的時候的幾篇重要理論，以及他們所引起的響應和討論。第三組是這個運動的稍後一個時期的一些比較傾向建設方面的理論文章，包括關於新詩、戲劇、小說、散文各個方面的討論。" 胡適編選,『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導言, 2쪽.

27) "文學革命的目的是要用活的語言來創作新中國的新文學－－來創作活的文學，人的文學。新文學的創作有了一分的成功，即是文學革命有了一分的成功。……所以我是最歡迎這一部大結集的。《新文學大系》的主編者趙家璧先生要我担任'建設理論集'的編纂，我當然不能推辭。這一集的理論文字，代表民國六年到九年之間（一九一七——一九二〇）的文學革命的理論，大都是從《新青年》、《新潮》、《每週評論》、《少年中國》幾個雜誌裏选選擇出來的，因爲這幾個刊物都是中國新文學運動的急先鋒，都是它的最早的主要宣傳機關。" 胡適編選,『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導言, 1-2쪽.

> 릉 역시 그저 그런 유파에 불과할 뿐이다. 『유림외사』와 『홍루몽』을 가지고 동성파(桐城派)와 비교 시에도 "천하의 아름다움을 논할 때 동성의 요씨를 능가할 자가 없다." 식의 고루한 견해를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적 문학관을 처음 접했을 때는 크게 놀랍지 않겠지만 이는 실은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1473-1543)의 혁명이나 다름없다.[28]

상단의 인용문에는 후스의 명확한 문학사관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후스가 언급한 '새로운 문학사관(新的文學史觀)'이라 함은 다름 아닌 '진화문학사관(進化文學史觀)'을 가리킨다. 후스는 진화문학사관에 입각하여 좁게는 신문학의 활로[29]를 개척하고, 넓게는 중국문화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던 바, 후스의 진보적 문학사관은 『건설이론집』에 수록할 구체적한 문장 선별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건설이론집』에는 총 50여 편[30]의 글들이 선별되어 있다. 후스의 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당시 신문학운동 시기 활발한 지적(知的) 활동을 전개했던 지식인(문인, 학자 등)들이 발표했던 글들이다. 『건설이론집』에 등장하는 지식인들은 대부분 후스와 친분이 있었거나 직·간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저명인사들로서, 후스는 『건설이론집』을 통해 당시 치열하기 그지없었던 지식인들의 고민 및 자각과 성찰의 과정들을 회고하고 있다. 더불어 당시 신문학 담론들이 특정 계층의 일방적인 주장, 혹은 탁상공론에 머무르지 않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전파하는데 공력을 기울였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후스는 일찍이 "앞으로 30년 또는 50년 내에 중국에서 새로운 중국(新中國)의 '살아있는 문학(活文學)'이 창조될 것이다."[31]라고 언급하며 문학혁명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피력한 적이 있다. 후스의 이러한 일관성은 『건설이론집』의 편찬 과정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건설이론집』에 수록된 글들은 크게 시, 소설, 희곡 등 장르 혹은 문체를 다룬 '문학비평'과 사상적 측면에서의 '비평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별된 글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후스가 문학의 '개량'과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후스는 『건설이론집』의 선별 작업에서 문학의 '개량'과 '혁신'을 중심으로 삼아 당시 지식인들이 신문학의 '참신성'과 '실용성'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의 이론적 시각으로 풀어낸 점, 또한 그들이 전개했던 주요 논쟁, 담론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사상적', '관념적' 발전을 거듭하였음을 상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문학이 지닌 참신성과 실용성에 대한 후스의 '일관된' 확신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 논의에 근거하여 『건설이론집』에 반영된 후스의 편찬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건설이론집』에 수록된 문장들을 살펴봤을 때, 여기에는 자국의 전통 교육과 외래문화의 영향 하에 생장한 후스의 근대적 문화의식과 독자적 사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건설이론집』에 수록된 전체 글 중에서 후스 자신의 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32], 또한 후스 본인의 글 이외의 나머지 글들도 대다수 후스 자신과 친분이 있는 몇몇 문인, 학자들의 글인 까닭에 중국 신문학 초기 10년 간 생산된 문학이론 및 비평문에 대한 광범위한 독해와 수집, 편찬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지라 선별의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를 남기고 말았다.

둘째, 후스의 진보적 문학사관은 후스 사상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건설이론집』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중요한 '선별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마치 후스가 문학혁명 초기에 주장했던 팔불주의(八不主義)의 면모와도 흡사한 듯하다.[33] 방대한 자료 수집과 꼼꼼한 선별 작업을 통해 완성된 『건설이론집』은 여전히 후대 연

---

28) "我們在那時候所提出的新的文學史觀，正是要給全國讀文學史的人們戴上一副新的眼鏡，使他們忽然看見那平時看不見的瓊樓玉宇，奇葩瑤草，使他們忽然驚歎天地之大，歷史之全! 大家戴了新眼鏡去重看中國文學史，拿《水滸傳》、《金瓶梅》來比當時的正統文學，當然不但何李的假古董不值得一笑，就是公安竟陵也都成了扭扭捏捏的小家數了!拿《儒林外史》《紅樓夢》來比方姚曾吳，也當然不會發那'舉天下之美無以易乎桐城姚氏者也'的傖陋見解了! 所以那歷史進化的文學觀，初看去好像貌不驚人，此實是一種'哥白尼的天文革命'。" 胡適編選, 『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導言, 21쪽.

29) '문학'의 진화, '장르'의 진화, '문체'의 진화를 의미한다. 이에 관해서는 김원중의 「5·4 新文化運動期에 있어서 進化論과 文學史觀의 關聯樣相: 胡適의 進化文學史觀을 中心으로」(『중어중문학』, 제3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를 참고하였다.

30) 이 중에서 「陳獨秀、胡適答」은 부설(附說)에 해당한다.

31) "要在三五十年內替中國創造出一派新中國的活文學。" 胡適, 「建設的文學革命論」, 『胡適文集』(二),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44쪽.

32) 총 50여 편 중에서 후스의 글이 19편(약 38%)을 차지하고 있다.

33) 해당 용어는 후스의 명확한 목표의식과 지향점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서술한 것임을 밝혀둔다.

구자들에게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진보적 문학사관이 반영된 후스의 편찬의식이 있었기에『건설이론집』의 출간이 가능했었으며, 이러한 편찬 작업을 통해 중국문학사의 '정통'을 재정립[34]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문학의 내외적인 것을 막론하고 후스는 신문학 초기 저명 학자들의 문장들을 비롯하여 수구파(守舊派)에 속했던 문인들의 문장[35] 또한 엄선 수록함으로서 당시 역사의 진면목을 오롯이 복원, 이를 통해 신문학의 '시대적 영향력'을 강조하고자 했다.『중국신문학대계』의 출간시기가 역사적으로 격동과 활력의 시기였던 만큼 문학의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 후스에게 있어『건설이론집』에 수록한 문장들은 신문학의 탄생과 전성기를 이룰 수 있게 한 근원적인 동력이나 다름없었다. 이는『건설이론집』의 중요한 특징이자, 후스의 편찬의식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중국신문학대계』의 궁극적 지향점은 "10년간의 신문학 성과를 결산하는 작업"을 통해 "과거 신문학운동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36]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스의『건설이론집』은『중국신문학대계』의 간행 취지와 지향점에 여실히 부합하고 있다. 신문학에 대한 후스의 애정과 집념은 그의 문학창작,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총서 편찬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된 바,『건설이론집』에 반영된 후스의 편찬의식은 중국 신문학사, 학술사상사 및 출판사(出版史)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이정표로서 손색이 없다고 여겨진다.

4. 나오는 말

『중국신문학대계』는 '이론(理論)', '운동(運動)', '작품(作品)' 등 신문학의 주요 영역과 신문학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정리, 엄선하여 '문학사적(文學史的)'으로 서술한 총서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 중에서도 후스가 맡았던『건설이론집』은 문학가, 학자로서의 후스에서 나아가 '편찬자'로서의 후스의 또 다른 면모가 반영된 중요 문헌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후스는 자신이 맡았던 '이론' 영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심도 있게 인식하였으며, 명확한 책임의식과 자신만의 선별기준을 가지고『건설이론집』을 출간하였다. 비록 선별에 있어 편협적인 한계를 드러냈지만, 당시 1930년대에 대세를 이루었던 출판문화 권력 속에서 후스는 소신껏 편찬 작업을 진행하여 신문학이 지닌 역량을 밝히고, 신문학운동을 역사화, 체계화하여 자신의 학술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건설이론집』에 반영된 후스의 편찬의식 연구를 통해 후스의 其人其文을 더욱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초보적이나마 후스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요컨대『건설이론집』은 중국 신문학 연구의 지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후대 연구자들을 위한 이론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4) "這是推翻向來的正統，重新建立中國文學史上的正統。" 胡適編選,『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導言, 20쪽.
35) 린수(林紓, 1852-1924)의「附林琴南原書」,「附林琴南『荊生』小說」이 이에 해당한다.
36) "把十年間新文學成績做一次結算的工作" ; "給過去的新文學運動下一次歷史的評價" 본 논문 그림 1의『中國新文學大系』보급판 견본 집필진 소개란 참고.

【參考文獻】

<1차 자료>
『良友畫報』, 1935.
『文學』, 1935.
阿英著,『阿英全集』第四卷,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3.
胡適編選,『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影印本),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3.
胡適著, 歐陽哲生編,『胡適文集』(共十二卷),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茅盾,『我走過的道路』(中),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上海魯迅紀念館編,『趙家璧文集』第二卷,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8.
張若英,『中國新文學運動史資料』, 上海, 光明書局, 1934.
趙家璧著,『編輯憶舊』, 北京, 三聯書店, 2007.

<2차 자료>
陳平原,「在"文學史著"與"出版工程"之間－－『中國新文學大系導言集』導讀」,『現代中國』, 第15輯,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4.
金宏宇等著,『文本周邊 : 中國現代文學副文本研究』,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4.
劉禾著, 宋偉杰等譯,『跨語際實踐: 文學, 民族文化與被譯介的現代性(中國, 1900-1937)』, 北京, 三聯書店, 2002.
臧杰著,『天下良友』, 青島, 青島出版社, 2009.
秦艷華,「趙家璧的"選擇"意識與『中國新文學大系(1917-1927)』」,『編輯學刊』, 第一期, 2007.
温儒敏,「論『中國新文學大系』的學科史價值」,『文學評論』, 第三期, 2001.
趙家璧,「話說『中國新文學大系』」,『新文學史料』, 第一輯, 1984.
趙修慧,「趙家璧與胡適有過什麽交往」,『上海采風』,2期, 2013.
趙學勇, 朱智秀,「中國新文學大系(1917－1927)》研究述評」,『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第五期, 2008.
김원중,「5・4 新文化運動期에 있어서 進化論과 文學史觀의 關聯樣相 : 胡適의 進化文學史觀을 中心으로」,『중어중문학』39,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
한지연,「以"文學"為職志, 為"文學"爭辯－－以胡適《中國新文學大系・建設理論集》導言為切入點」,『중국학보』74, 한국중국학회, 2015.

【특별 분과】 발표 ⑤

포스트혁명시대 중국의 항미원조 기억 서사
— 영화 <나의 전쟁>(2016)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 담 (전남대)

목 차

1. 중국 항미원조 기억의 어제와 오늘

1) 신중국의 정치문화적 지형에서 이 전쟁은 왜 중요한가?

2) 탈혁명시대 항미원조 서사 구축의 어려움

2. 영화<나의 전쟁>을 둘러싼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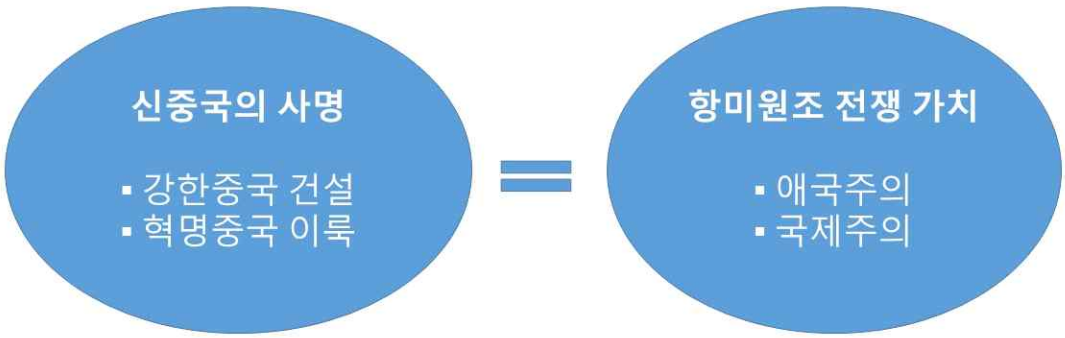
1) 문제의 영화 홍보영상

2) 네티즌 간의 논쟁과 관방의 입장

3) 영화<나의 전쟁>: '나'는 누구이고, '누구'를 위해 싸우나

3. 나오며

1) 신중국의 정치·문화에서 '항미원조 전쟁'의 중요성



★ 국가 정체성을 담고 있는 항미원조 서사.

★ 국내가 아닌 국외(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상상 속의 전쟁' 이었다.

2) 탈혁명시대 항미원조 서사의 어려움

- '냉전해체', '고별혁명'시대로 진입
- 과거 이념으로 나뉜 '적아(敵我)', 즉 '타자'의 재정의 문제

<표1> 항미원조를 다룬 영화 및 드라마 대표작

시대구분	대표작
1980년대	『심금(心弦)』(1981), 『전쟁터의 별(戰地之星)』(1983)
1990년대	『38선상의 여병(三八線上的女兵)』(1990), 『마오와 그의 아들(毛澤東與他的兒子)』(1991)
2000년대	『원대한 포부(壯志淩雲)』(2000), 『역사의 하늘(曆史的天空)』(2004) 등
2010년대 이후	『마오안잉(毛岸英)』(2010), 『38선(三八線)』(2016), 『나의 전쟁(我的戰爭)』(2016), 『펑더화이 원수(彭德懷元帥)』(2016)

"위대한 항미원조 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항거한 정의로운 전쟁"이었으며,
"제국주의 확산 세력 범위를 교란하여 아시아 및 세계평화를 지켰"고,
"인류 평화와 정의 사업을 위해 분투한 국제주의 정신"이다.
习近平《在纪念中国人民志愿军抗美援朝出国作战60周年座谈会上的讲话》（《人民日报》2010.10.25.）

<표2> 항미원조 다큐멘터리 대표작

시기	제목
1990년대	『항미원조 전쟁(抗美援朝戰爭)』(1992), 『교량: 항미원조 실록(較量——抗美援朝實錄)』(1995)
2010년대 이래	『단도(斷刀)』(2010),『조국을 위한 전쟁(爲祖國而戰)』(2011, 15부작),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승리(不能忘卻的偉大勝利)』(2013, 12부작), 『위대한 항미원조(偉大的抗美援朝)』(2014, 6부작)

2. 영화<나의 전쟁>을 둘러싼 논쟁

1) 문제가 된 홍보영상

2) 네티즌 간의 논쟁과 관방의 입장

• 웨이보의 역사 블로거 曆史老師王三實의 글:
「'애국'이란 이름으로 막 나가지 맙시다!」 (게시일: 2016.09.10)

입장을 바꿔, 만약 일본인이 다음과 같은 영상물을 찍었다고 가정해보자. 구순이 넘은 일본 노인들이 난징에 여행을 오게 되자, 중국 가이드가 매우 친절하게 허리를 굽히며 그들의 첫 방문을 환영했다. 하지만 일본 노인들은 떨리고 흥분되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린 70여 년 전에 와봤어! 그때 중국은 '지나'라고 불렸지. 당시 나는 16사단에 있었다네. 우린 그때 일장기를 들고 난징에 왔다고!"

- "오늘날 항미원조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서사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 관방 vs 대중, 세대간 격차 등 복잡.

3) 영화 <나의 전쟁>: '나'는 누구인가?

- 첫째, 타자의 부재는 지원군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답해주지 못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대이다. 선배들은 정강산에서 출발하여 무수한 시련을 겪었다. 그들이 흘린 피는 상강에, 대도하에, 황하에, 장강에 뿌려졌고 승리를 거듭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피를 밟고 계속 전진할 것이다. 새로운 고난과 새로운 승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실패와 퇴각은 우리 것이 아니다."
(국제주의 전사에서 직업군인으로)

• 둘째, 무리한 자막처리

(1) 참전 원인: "1950년 6월 25일, 조선 내전으로 발발"했으나 "미국의 내전 간섭 및 대만 해협에 제7함대 파견으로 중국의 국익을 침해"했고, 중국은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2) 전쟁 의의: "항미원조의 승리로 미국의 조선 내정 간섭 계획을 저지함은 물론 신중국의 안전을 지켜냈다. 또한, 마오쩌둥 주석이 언급한 다음과 같은 진리를 세계에 강력하게 증명해냈다: '외국 제국주의가 중국 인민을 얕잡아 보던 시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영원히 종결되었음을 선포한다'"

4. 나오며: 오늘날 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할까?

• 2016년 개봉된 항미원조 영화의 실패와 관련 논란은 하나의 문화적 징후로, 중국 항미원조 서사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 결절점.

• '아편전쟁'이 제국주의에 당한 '굴욕'이라면, '항미원조'는 '승리'의 상징이고 그 중심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

• '혁명'을 걷어내고도 항미원조는 여전히 '강한 중국', '대국굴기'를 담아낼 수 있는 상징적 서사.

• '반미'든 '친북'이든, 자국의 필요에 따라 항미원조 기억 속 정치적 메시지를 이용해 내부의 단합을 도모할 것.

• 항미원조 서사는 과거 완성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

【특별 분과】 발표 ⑥

류이창(劉以鬯)『술꾼(酒徒)』에 나타난 홍콩 도시 공간 인식

정중석 (한국외대)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도시 공간 속 권력과 이동
3. 도시 공간 속 성적 욕망
4. 도시 공간 속 소비사회구조에 대한 저항
5. 결론

1. 들어가는 말

류이창(劉以鬯)의 장편소설『술꾼(酒徒)』(1963)은 '중국 최초의 의식류 소설', '모더니즘 기법의 소설', '홍콩 문학 중 홍콩을 가장 잘 묘사한 작품' 등의 평가를 받으며, 일찍이 그 문학성을 인정받아왔다. 이 장편소설은 1960년대 홍콩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1]이며, 40권을 상회하는 류이창의 작품 중에서, 작품성과 문학사적 의미에서 볼 때, 그의 대표작[2]으로 손꼽을 수 있다.

홍콩작가는 홍콩 거주민의 신분증을 소지하였거나 아니면 홍콩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문학작품을 출판하는, 혹은 매체에 평론과 번역을 발표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전자는 '홍콩'신분에 대한 정의이고, 후자는 '작가'자격에 대한 정의이다. '홍콩작가'의 기준은 '작가'의 자격이 아니라, '홍콩'신분에 그 방점이 놓여있다.[3] 이러한 홍콩 작가 중 류이창은 최고의 원로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류이창도 홍콩 본토인 작가가 아닌 중국 대륙에서 홍콩으로 남하한 남래작가(南來作家)이다. 중국 대륙의 신문학 작가들은 세 번에 걸쳐 홍콩으로 이동하였는데, 제1차는 항일전쟁 시기인 1938년부터 1939년까지이고, 제2차는 1949년부터 1950년까지, 제3차는 개혁· 개방 초기인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이다.[4] 첫 번째 시기에는 마오둔(茅盾), 쉬디산(許地山), 다이왕수(戴望舒), 예링펑(葉靈鳳) 등이 남하하였고, 두 번째 시기에는 쉬쉬(徐訏), 리후이잉(李輝英), 류이창, 진융(金庸), 시시(西西) 등이 남하하였으며, 세 번째 시기에는 타오란(陶然), 옌휘(彦火), 왕스젠(王詩劍), 수페이(舒非) 등이 남하하였다. 류이창은 두 번째 시기에 남래한 작가로, 정확히 1948년에 홍콩으로 이주했다.

그는 본래 1918년 상하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학까지 다녔다. 중일전쟁시기 잠시 충칭에 있었으나 전쟁 후인 1945년 다시 상하이로 돌아왔고, 3년 후 1948년 홍콩으로 남하하였다. 따라서 소설『술꾼』은

1) 유영하,「홍콩문학의 정체성」,『중국현대문학』 제37호, 2006, 107쪽
2) 김혜준,「홍콩작가 류이창(劉以鬯)의 소설『술꾼(酒徒)』의 가치와 의의—'의식의 흐름' 문제를 중심으로」,『중국어문논총』 제70집, 2015. 228쪽
3) 劉登翰 主編,『香港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36쪽.
4) 박재우,「타이완문학과 홍콩문학」,『중국현대문학과의 만남』, (파주: 동녘, 2006), 130쪽. 김혜준은 計紅芳의 주장에 근거하여, 남래작가의 이동을 다섯 차례로 구분하고 있다. ①항일전쟁기 1937-41년 ②제2차 국공내전기 1945-48년 ③중화인민공화국 수립시기 1949년 전후 ④문화대혁명 시기 1960-70년대 ⑤개혁개방 시기 1980-90년대. (김혜준,「홍콩작가 류이창(劉以鬯)의 소설『술꾼(酒徒)』의 가치와 의의」,『중국어문논총』 제72집, 2015. 303쪽) 반면, 임춘성은 劉登翰의 주장에 근거하여, 남래작가의 이동을 네 차례로 구분한다. (임춘성,「홍콩문학의 정체성과 탈식민주의」,『중국현대문학』 제31호, 2004, 341쪽) ①항일전쟁기(劉登翰, 위의 책, 87쪽, 105쪽) ②국공내전기(劉登翰, 위의 책, 88쪽, 149쪽) ③1950년대 전후(劉登翰, 위의 책, 218쪽) ④1970년대 초-1980년대 말(劉登翰, 위의 책, 414쪽)

홍콩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심리와 고향을 그리는 심정이 많이 드러나기도 한다.

본고는 소설『술꾼』을 도시공간과 도시소설의 맥락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중국의 도시소설은 한방칭(韓邦慶)의『해상화열전(海上花列傳)』(1892)을 그 기원으로 들 수 있으며[5], 그 후 1930년대 신감각파· 해파문학으로 중국의 도시소설은 전성기를 이룬다. 그러나 중국의 도시소설은 1930년대에 흥성하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만다. 그 이유는 중국의 좌익혁명문학의 흥성과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이 깊다. 사회주의 혁명시기에 도시 혹은 도시생활과 도시정취는 자산계급의 부패와 타락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중국좌익문학이 도시에서 향토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향토에서 공산혁명에 필요한 급진적인 소재를 발굴함에 따라, 도시소설은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소설이 다시 나타나게 된 시기는 1980년대 중반 서구 모더니즘 수용 때부터였다. 중국문학 현대화 노력의 일환인 모더니즘의 수용은 문학이 다시 '도시'를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더니즘 의식은 '도시'로 표현되었고, 모더니즘의 산물이 '도시'였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류쉬라(劉索拉)의『또 다른 선택은 없다(你別無選擇)』(1985)와 쉬싱(徐星)의『무주제변주(無主題變奏)』(1985)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중국 대륙에서 본격적인 도시소설의 등장은 1990년대부터이다. 중국이 시장경제에 편입되면서, 문학도 시장에 의해 지배받았고, 이에 따라 문학의 초월적 지위, 즉 국가권력의 우회적 지지를 받는 특권적 위상도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배출된 문학 중 하나가 도시소설이었다. 이 시기 문학은, 문학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는 '문학 상품화' 시기였다.

그러나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탓에 중국 대륙의 이러한 흐름에서 배제되었다.[6] 사실, 아편전쟁이후 중국에서 가장 눈부시게 번영하였던 국제도시는 상하이였다. 하지만 중국대륙에 공산당 통일 정권이 수립되면서, 앞서 살펴본 제2차 남래작가를 포함하여, 당시 상하이에 체류하였던 수십만의 자본가, 비밀결사의 구성원, 문화인, 기술자, 숙련공이 모두 홍콩으로 건너간다. 그 후 홍콩은 예전의 상하이의 지위를 계승하여 급성장하기 시작한다.[7] 홍콩은 중국대륙이 사회주의 시기였던 1950-60년대에 중계 무역항이외에도 공업도시· 금융도시로 번영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 홍콩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이 시기에 가장 번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8] 따라서 홍콩은 중국대륙이 1990년대에 겪었던 도시화, 문학의 상품화 과정을 1950-60년대에 겪게 된다.[9]

류이창의 장편소설『술꾼』은 바로 이러한 홍콩의 도시환경을 표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본 소설은 중국대륙에 도시소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계기인 모더니즘소설에도 영향[10]을 주었다. 본 작품이 가진 홍콩문학으로서의 의의는, 첫째가 중국 최초의 의식의 흐름 수법의 소설이고, 둘째가 홍콩의 상황을 성찰한 현대소설이라는 점이라고 한다.[11] 본고는 도시소설의 맥락에서, 후자에 포커스를 두어, 홍콩의 도시공간을 권력과 이동, 성적욕망, 소비사회구조에 대한 저항으로 나누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

5) 왕더웨이(王德威)의 견해에 따랐다. 왕더웨이는 중국 도시문학의 최초 기원은 한방칭(1856~1894)의『해상화열전』(1892)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과도한 사랑과 욕망'이란 제목에서『해상화열전』이 19세기 유럽의 현실주의와 같은 느낌을 주며, '욕망의 도시'라는 제목에서는 이 소설이 상하이의 홍등가 생활을 세밀하게 묘사했다고 평한다. 또한『해상화열전』은 상하이를 특정한 장소로 부각시키고, 상하이에 공간의 의미를 불어넣었으며, 상하이 특유의 대도시 숨결과 도시 색채를 형상화하였다고 논한다. 나아가 이 소설이 해파문학의 효시가 되는 작품이라고 평한다. (王德威, 宋偉杰 譯,『被壓抑的現代性 : 晚清小說新論』, 臺北 : 麥田出版社, 2003, 105쪽, 123-124쪽)

6) 1960년대부터 홍콩은 영국 홍콩정청의 주도 하에 중국인과는 다른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후지이쇼조, 김양수 역,『중국어권 문학사』, (서울: 소명출판, 2013), 270쪽)

7) 후지이쇼조, 백영길 역,『현대중국문화탐험』, (서울: 소화, 2002), 93쪽

8) 후지이쇼조, 위의 책, 142쪽. 후지이쇼조는 또한 다른 책에서 1960년대는 홍콩의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되어 홍콩드림이 실현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언급한다. (후지이쇼조, 김양수 역,『중국어권 문학사』, (서울: 소명출판, 2013), 272쪽)

9) 유영하는 1950-60년대의 시기가 홍콩이 이제 막 근대적 대도시로서의 형태를 구축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유영하,『홍콩이라는 문화 공간』, (서울: 아름나무, 2008), 57쪽)

10) 김혜준,「작품해설-취했지만 취하지 아니한 술꾼」, (류이창, 김혜준 역,『술꾼』, 파주: 창비, 2014), 298쪽

11) 전자는 黃維樑, 후자는 也斯의 견해이다. (김혜준,「홍콩작가 류이창(劉以鬯)의 소설『술꾼(酒徒)』의 가치와 의의」,『중국어문논총』제72집, 2015. 298쪽 재인용)

2. 도시 공간 속 권력과 이동

도시의 공간은 결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다. 그 안에는 권력구조가 얽혀있으며, 동시에 도시의 공간은 인간의 활동으로 재생산된다. 도시공간의 분할과 인간의 분리는 대응을 이루며, 도시공간의 구분은 일정한 사회관계, 권력관계를 드러낸다. 도시공간은 도시의 욕망구조를 표상하며, 이는 자본욕망, 문화소비욕망, 계급상승욕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이다.

도시공간은 거주자의 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는 상품 본연의 가치인 '사용가치'의 의미를 이미 벗어났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도시공간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가치'나 혹은 그것으로 소유자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교환가치 기호'로 변질되고 있다.

도시인은 생활을 위해 도시의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 이는 사용가치에 대한 욕망이다. 하지만 도시는 도시인들에게 도시의 공간 중에서도 번화가를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도시공간에 대한 교환가치나 교환가치 기호에 대한 욕망이다. 도시는 도시 중심지에서부터 외곽까지 차등적 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도시공간의 분할은 그 거주자들로 하여금 계층을 구분하게 만든다. 동시에 역으로 거주지는 바로 계층구분의 기준과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리(John Urry)같은 학자는 특정 지역이 특정 계급을 형성시킨다고 보았고, 이러한 지역 단위의 계급성은 '순정적 계급'이 아니라 과결정된(over-determined) 속성을 지닌 계급이며, 지역을 '초계급(para-class)'으로 간주하기도 했다.[12]

『술꾼』의 주인공인 화자 '나'도 홍콩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싶었다. 그것은 그의 욕망이자 희망이었다. 그래서 그는 육층짜리 새 건물을 사서, 집세 걱정과 이사할 걱정에서 해방되는 꿈까지 꾼다. 그의 욕망과 바람이 꿈으로까지 드러나는 지경이었다.

> 내가 마권에 당첨되는 꿈을 꾸었다.……그 후 나는 육층짜리 새 건물을 산다. 내가 한 층을 주거지로 사용한다. 나머지는 모두 임대를 준다.[13]

그러나 이러한 홍콩에서의 공간 확보는 단지 그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었고, 현실에서 그는 셋방살이[14]를 한다. 그 셋방살이도 한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자주 옮겨 다니는 셋방살이였다. 처음에 씨마레이(司馬莉)[15] 집에서 셋방을 살았지만, 17세의 조숙한 씨마레이 탓으로 그곳에서 쫓겨난다.

> 씨마 선생은 어제 아주 늦게 잤는지, 기침소리가 밤까지 크게 들렸다. 내가 세면실에서 나오자 그가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무슨 일인가요?" 내가 물었다. "당신 방을 빼줬으면 하오."[16]

다음으로 그가 셋방살이를 한 곳은 중년 아주머니 웡(王) 씨 댁이었다.

> 나는 빛이 잘 드는 방을 구했다.……주인여자는 피부가 매우 하얗고 곱상한 중년 아주머니였는데, 성이 웡 씨였다.[17]

그 다음에 그가 이사한 곳은 중년부부 레이(雷) 씨 댁 셋방이었다.

---

12) 조명래,『공간으로 사회 읽기』, (파주: 한울, 2013), 84쪽, 242쪽

13) 我夢見我中了馬票……然後我買了一幢六層的新樓 自己住一層 其餘的全部租出去 (劉以鬯,『酒徒』, (臺北 : 行人文化實驗室, 2015), 17쪽)

14) 주인공이 홍콩에서 거주하는 주거형태는 강뭥(梗房)이다. 梗房은 집주인이 나무판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만든 방(板間房)으로 방의 공간이 좁고, 세가 비싼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건물가격이 싼 오래된 건물에 집중되어 있다.

15) 소설 속 인명은 번역서와 동일하게 광둥어 발음을 따랐다.

16) 司馬先生昨晚睡得很遲, 咳嗽聲特別響, 當我走出沖涼房時, 他說有話跟我談。甚麼事？我問。想收回你那間梗房。(劉以鬯, 같은 책, 87쪽)

17) 我找到一間光猛的梗房, ……包租婆姓王, 是個半老的徐娘, 皮膚很白, (劉以鬯, 같은 책, 99쪽)

> 나는 코즈웨이베이의 어느 새 건물에서 방을 구했다. 남향 창이 두 개 있었지만 방은 상당히 작았다. 주인은 성이 레이 씨였다.[18]

그가 차지한 홍콩의 열악한 공간, 즉 셋방은 그가 홍콩의 이주자이며 주변인이라는 걸 말해주며, 도시공간의 권력구조에서 사용가치의 공간마저 확보하지 못한 계급이란 것을 말해준다. 반면, 그가 생활을 위해 접촉해야 하는, 그를 억압하는 홍콩 본토인들은 모두 홍콩의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가 무협소설로 거래하는 신문사, 그가 술과 생활을 위해, 고료를 가불받는 신문사는 홍콩의 번화가인 센트럴(Central)에 위치해있다.

> 전차를 타고 센트럴로 갔다. 신문사에 가서 몇십 위안만 가불해달라고 했다.[19]

모위(莫雨)는 할리우드 수법을 모방하는 영화감독으로, 화자의 영화 시나리오 아이디어와 고료를 사취하기도 한다. 그는 홍콩의 번화가 데보로드에서 산다. 화자는 돈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모위를 만나려면, 바다를 건너 '그랜드 호텔'로 가야했다. 화자 '나'가 셋방살이를 했던 집의 위치는 세 번째 셋방을 제외하고 모두 홍콩의 중심지 홍콩섬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 데보로드에는 행인과 차량이 너무나 많다.……그의 이름은 모위로, 전문적으로 할리우드 수법을 베끼는 중화권 영화감독이다.……돈 때문에 모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침 자넬 찾으려던 참일세. 즉시 바다를 건너오게. '그랜드'에서 기다림세." 그가 말했다.……카페리가 조던로드 부두에 도착하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그랜드 호텔'로 갔다. 모위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20]

화자 '나'가 무협소설에서 황색소설로 영역을 넓혀, 홍콩의 문학 상품화 조류에 휩쓸릴 무렵, 그는 황색 신문사 편집자를 만나기 위해 역시 센트럴로 가야했다. 황색 신문 편집자이자 황색글만 쓰는 레이응심(李悟禪)의 사무실도 센트럴에 위치해있기 때문이었다.

> 전문적으로 황색글만 싣는 센트럴의 한 신문사에 가서 그 신문사의 편집자를 만났다. "쓸 만한지 한번 봐주시오," 내가 말했다. 편집자는 성이 레이이고 이름은 응씸인데, 오로지 황색글만 쓰는 자였다.[21]

주인공인 화자 '나'를 고용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은 모두 홍콩의 중심지에 위치해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도시공간의 권력구조에서 교환가치 기호의 속성을 지닌 공간으로, 공간 자체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해준다. 화자 '나'도 그들처럼 홍콩의 좋은 공간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나, 자본화된 홍콩사회는 바로 그 자본으로 화자의 욕망을 가로막는다.

> 하루라도 빨리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팔십 위안과 전당표 한 장이 나온다. 설령 내가 좋은 방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한달 치 방세와 보증금을 내기에도 모자란다.[22]

이러한 홍콩의 공간 배치는 도시공간으로 계급을 나누고 있음을, 도시는 도시민들을 공간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홍콩의 이러한 공간 권력은 공간 등급제와 유사하다.

홍콩의 공간 배치 서술은『술꾼』에서 두드러진 이분법적 서술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술꾼』은

18) 我在銅鑼灣一座新樓裏找到一個梗房，7X8，相當小，有兩個南窗。包租人姓雷，（劉以鬯，같은 책, 134쪽）
19) 於是搭乘電車去中環，走去那家報館預支幾十元薪水。(劉以鬯，같은 책, 87쪽)
20) 德輔道上有太多的行人與車輛。……他叫莫雨，一個專門抄襲好萊塢手法的國語片導演。……想起錢，打了一個電話給莫雨。正想找你，他說。馬上過海來，我在格蘭等你。……渡輪抵達佐頓道碼頭，僱一輛的士，直駛格蘭酒店。莫雨坐在靠窗的座位，(劉以鬯，같은 책, 90쪽, 117쪽)
21) 然後到中環一家專刊黃色文字的報館去找該報的編輯。你看看，能不能用？我說。編輯姓李，名叫悟禪，專寫黃色文字，(劉以鬯，같은 책, 178쪽)
22) 不如趁早搬走。摸摸口袋，八十塊錢和一張當票。即使找到合適的房子，也不夠付上期與按金。(劉以鬯，같은 책, 88-89쪽)

상당히 이분법적인 서술이 많은데, 순문학은 좋은 것이며 통속문학은 나쁜 것으로 묘사되며, 고향 상하이는 잃어버린 이상향이며 현지 홍콩은 거짓과 악마가 활개 치는 곳으로 묘사된다. 주인공이 대하는 사람 역시 막호문(麥荷門)처럼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수하고 착한사람과 돈만 알고 비열하고 교활한 나쁜 사람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서술이 도시공간의 배치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화자가 저자 류이창과 같이 상하이에서 홍콩으로 남하한 남래작가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콩으로 이주한 자들은 화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홍콩에서 좋은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는 홍콩의 주변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충칭시절 신문사의 옛 동료였고 충칭에서 뉴스를 담당했던 선자바오(沈家寶)와 이 워스트리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동창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홍콩의 기존 거주자들은 홍콩의 주류이며 홍콩의 도심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소설이 홍콩의 1962년에서 1963년을 배경[23]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당시 홍콩은 아직 영국의 식민지였으므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는 태생적으로 유럽중심주의 혹은 식민주의자 중심주의를 품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 토착민들을 타자화시키고,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한다. 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에 학교를 세워 식민지 토착민들에게 식민주의국가의 문화와 가치를 주입시키고, 식민주의자들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각인시킨다. 이로써 식민지 토착민들의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어떤 체제나 인물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게끔 여러 세대에 걸쳐 길들여지면 그 체제나 인물에 대항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식민지에서 식민주체(colonial subject)를 길러낼 만큼 성공적이고 강력했다. 식민주체란, 식민통치국가는 우월하지만 자국은 열등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감히 식민지 지배에 저항할 엄두를 못 낼만큼 식민화로 길들여진 사람을 가리킨다.[24] 대부분 식민주체들은 식민주의자들을 대신하여 식민지를 통치하는 경우가 많다. 식민도시 홍콩의 경우, 식민주의자—영국인들에 의해 길들여진 피식민지인, 즉 홍콩 본토인이 바로 식민주체에 해당된다.

소설『술꾼』에서 식민주체인 홍콩의 기존 거주자들은 마치 식민주의자들처럼 홍콩의 이주자들을 다스린다. 홍콩의 정주자들은 식민주의자 영국을 대신하는 식민주체들이므로, 홍콩의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도심지 공간은 식민주체들에게 상징적 자본이 된다. 사실, 홍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개발된 넓은 신계 땅을 제쳐두고, 최고의 땅값을 자랑하는 센트럴만 끊임없이 개발해오고 있다. 홍콩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홍콩 번화가의 개발에만 집착하는 이유를 두고 유영하는 그들의 관료의식 때문이라고 지적한다.[25] 이러한 관료의식은 다름 아닌 식민주체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공간가치를 유지· 확대하려는 의도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홍콩 이주자들은 실제적으로 홍콩의 피식민지인들이며, 홍콩 본토인들에 의해 타자화되는 대상이다. 홍콩 이주자들은 식민주체인 홍콩 본토인들에게 계급적으로 수탈당하고 분배에서 배제되는 계층이다. 홍콩 본토인이 홍콩식 도시우월감을 표상하고 있다면, 홍콩 이주자들은 낙후된 중국이미지를 투사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홍콩 외지에서 홍콩으로 이동하였지만, 홍콩의 중심부로 이동하지는 못한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현대 도시공간은 이미 삶을 위한 '사용가치'라기보다는 공간의 상품적 가치, 즉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기에, 도시의 중심부에서 외곽까지의 분포는 공간 가치에 대한 지불능력에 따라 공간 이용자가 위계적으로 배열된다. 도시공간이 상품화됨에 따라 공간의 진입과 사용은 자본주의하의 상품의 소비 관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26]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홍콩 이주자들은 홍콩의 중심부로 이동하지 못한다.

홍콩 이주자들은 고향에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재 도착지에서 새로운 지위를 찾기 위해, 주류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주변부에서 분투노력한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좌절된다. 따라서 홍콩 이주자들 시선에서 홍콩은 부정적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다.

『술꾼』에서 화자 '나'에 의해 묘사되는 홍콩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홍콩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물론

23) 香港1963。(劉以鬯, 같은 책, 271쪽)
24) 위르겐 오스터함멜, 박은영· 이유재 역,『식민주의』, (서울: 역사비평사, 2006), 156-164쪽. 로이스 타이슨, 윤동구 역,『비평이론의 모든 것』, (서울: 앨피, 2012), 864-868쪽.
25) 유영하,『홍콩이라는 문화 공간』, (서울: 아름나무, 2008), 24-28쪽
26) 조명래,『공간으로 사회 읽기』, (파주: 한울, 2013), 271-273쪽 참조

홍콩의 상업화, 대중화, 자본주의화, 문예계의 몰락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현대 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지만[27], 도시공간의 권력과 이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식민주체인 홍콩 본토인들에게 타자화되는, 피식민지인인 홍콩 이주자들의 울분과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심경은 화자 '나'의 홍콩 인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화자는 "5·4 이후 꽤 우수한 문학작품을 창작했었는데, 홍콩에 온 뒤로는 생활 때문에 지난 이삼십년간의 노력을 포기하고 황색글을 통해 자존심을 찾으려 하고 있다"[28]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그래서 '나'는 "홍콩에서 글을 쓰는 건 창녀가 웃음을 파는 거나 다름없다"[29]고 홍콩을 인식한다. 사실,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가장 광범위하게 형성된 공간이 바로 홍콩도시이다. 르페브르(H. Lefebvre)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생산 영역보다 재생산의 영역이 좀 더 중요한 위기 발생원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도시는 생산 현장이라기보다 재생산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과 자본이 만나는 생산 현장이 자본주의적 갈등의 발원지였지만, 재생산 문제가 전면화되는 단계에서는 생활세계가 더 중요하고 보편화된 모순과 갈등의 발생 영역이 된다. 이 같은 현상이 전면화되는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도시이다.[30] 홍콩시민이 노동이라면 홍콩 도시공간은 자본에 대응된다. 특히, 홍콩의 중심지 도시공간은 자본축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홍콩의 도시공간은 '의사(擬似)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식민지인들이 홍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홍콩의 도시공간이 의사 자본화된 자연스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식민도시 홍콩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홍콩의 밤은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이다.[31]
> 홍콩은 거짓말의 세계![32]
> 홍콩에서는 예술이 가장 돈이 안된다.[33]
> 홍콩은 상업적 풍조가 아주 농후한 사회이다.[34]
> 홍콩에선 우정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다.[35]
> 홍콩에선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36]
> 홍콩은 정말 이상한 곳이다.[37]
> 홍콩은 사십전 소설의 작가는 날마다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으나, 순문예 작가는 스테이크 냄새조차 맡기 어려운 곳이다.[38]

이러한 홍콩의 부정적 묘사는 식민주체인 홍콩 본토인들에게까지 이어진다. 피식민지인들, 즉 홍콩이주자 입장에서 보면, 홍콩과 홍콩 본토인들은 결국 같은 존재였다. 홍콩 본토인들은 홍콩과 마찬가지로 추악하고 비열한 존재들이었다. 젱라이라이(張麗麗)는 비열하고 돈만 아는 인물로, 화자가 구애하나 결국 돈 많은 방직공장 사장과 결혼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친씨푸(錢士甫)는 출판사 사장으로 저속한 문화상인으로 묘사된다. 그는 남의 저작을 도용해 큰돈을 벌어서 현재 대출판가가 된 인물이다. 첫 번째 셋집 주인 씨마(司馬)씨 부부는 도박으로 세월을 보내는 인물이고, 그들의 딸인 씨마레이는 17살 나이에 온갖 방법으로 화자를 유혹하기도 하며 42세의 중년 남자와 동침하기도 하는 인물이다. 두 번째 셋집 주인 웡 씨 댁은 화자를 유혹하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자, 데톨을 반병이나 마셔 화자를 곤혹스럽게 만든 인물이다. 레이응씸은 오로지 황색글만 쓰는

27) 김혜준, 「홍콩작가 류이창(劉以鬯)의 소설『술꾼(酒徒)』의 가치와 의의」,『중국어문논총』 제72집, 2015. 302-304쪽
28) 出了一些五四以來的最優秀的文學作品。如今，到來香港後，為了生活，祇好將二三十年來的努力全部放棄，開始用黃色文字去賺取驕傲。(劉以鬯，같은 책, 197쪽)
29) 在香港，賣文等於妓女賣笑。(劉以鬯，같은 책, 220쪽)
30) 조명래,『공간으로 사회 읽기』, (파주: 한울, 2013), 281-283쪽, 291쪽 참조
31) 夜香港是魔鬼活躍的時刻。(劉以鬯，같은 책, 44쪽)
32) 這是一個撒謊世界！ (劉以鬯，같은 책, 89쪽)
33) 藝術在香港是最不值錢的東西。(劉以鬯，같은 책, 91쪽)
34) 香港是一個商業味極濃的社會。(劉以鬯，같은 책, 113쪽)
35) 在香港，友情是最不可靠的東西。(劉以鬯，같은 책, 177쪽)
36) 錢是一切的主宰。尤其是在香港這種社會裏。(劉以鬯，같은 책, 193쪽)
37) 香港真是一個怪地方。(劉以鬯，같은 책, 206쪽)
38) 香港就是這樣一個地方，四毫小說的作者可以天天吃牛柳，嚴肅的文藝工作者卻連牛柳的香味也不容易嗅到。(劉以鬯，같은 책, 212쪽)

편집자로 성정이 맑지 못하고 자본에 가장 영합하는 세속적인 인물이다.

반면, 식민주체들에 의해 억압받는, 화자와 같은 홍콩 이주자들은 홍콩의 주변인으로서 선량하고 성실하게 묘사된다. 충칭시절 신문사 동료였던 선자바오는 홍콩에 와서 업을 바꾸어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 플라스틱 공장을 세워 건실한 생활인의 삶을 사는 인물이다. 이워스트리트에서 만난 옛 동창은 대학 졸업자인 데도 생활을 위해 무역상점의 잡일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안분지족하는 삶의 태도를 보고 화자는 '그의 뒷모습에서 평범한 거인'을 보았다고 그를 칭송한다.

하지만 화자를 위시한 홍콩 이주자들이 마냥 정직하고 선량하게만 살 수는 없었다. 그들도 식민도시 홍콩에 적응하기 위해, 점점 상업화되는 홍콩에서 살아남기 위해,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어야 했다. 이는 화자 '나'가 끊임없이 순문학과 순수예술을 지향하지만, 현실에서는 무협소설과 황색소설의 통속문학을 창작하는 이율배반적 삶을 사는 이유이기도 하다.

> 나는 무협소설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하지만 부득이 쓰지 않을 수 없다.……생활을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막호문의 바람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39]

즉, 화자는 자신도 식민주체화하는 길을 선택한다. 이는 피식민지인들이 식민주의자들을 모방(mimicry)하는 패러다임이다. 사실, 홍콩 이주자들 중에서 식민주체화된 사람, 즉 식민주체를 가장 잘 모방한 사람은 모위였다. 그는 홍콩 이주자로서 원래 착하고 선량했으나 홍콩에 와서 사람이 간악하게 변했다고 묘사된다.

> 나는 이미 이십년 넘게 모위와 알고 지냈다.……예전에 그는 이렇게 비열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마도 영화판에서 오래 굴러먹다보니 지금은 아주 교활하게 변해버린 것 같다.[40]

모위가 홍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식민주체를 모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방을 화자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 화자도 상업화된 문학생산 시스템에 적응해나간다.

3. 도시 공간 속 성적 욕망

화자인 '나'는 도회지 사람이자 지식인이며 도시의 교양과 문화수준을 내면화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작가로서 엘리트 지식인에 속했다. 하지만 그의 성적욕망은 상당히 모순된 양상을 보인다. 화자는 막호문과 심오하고 진지하게 순문학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여종업원들과 노닥거리는 '손가락 댄스홀'에 간다. 돈으로 여성을 사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순문학 잡지『전위문학(前衛文學)』의 '창간사'를 쓰기도 한다.

> 막호문은 얼굴에 바로 홍조를 띠었고, 눈에서도 자신감이 드러났다.……어느 댄스홀에 들어갔고, 막호문의 당부 따위는 무시해버렸다. 나의 생각은 어둠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41]

> 나는 열여섯살짜리의 여자애의 몸 위에서 한차례 영웅이 되기에 급급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간사'를 쓰기 시작했다.[42]

그는 젱라이라이에게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면서도, 돈으로 옝로우(楊露)를 사기도 한다. 그가 마음속으로

39) 我不是一個寫武俠小説的人，……縱然如此，我還是不能不寫。……爲了生活，我必須反叛自己，同時違拗他的意願。(劉以鬯，같은 책, 84쪽, 176쪽)

40) 我與莫雨相識已有二十多年,……以前,他不是這樣卑鄙的。現在，可能因爲在電影圈混得太久，才變得如此狡獪。(劉以鬯，같은 책, 168쪽)

41) 麥荷門臉上立刻泛起一陣紅潤潤的顔色，眼睛裏有自信的光芒射出。……走進一家舞廳後，不再記得麥荷門的叮嚀。我的思想在黑暗中迷失了。(劉以鬯，같은 책, 123쪽, 126쪽)

42) 我急於在一個十六歲的女孩子身上做一次英雄。擱斷電話，我開始撰寫發刊詞。(劉以鬯，같은 책, 154-155쪽)

진정 사랑한 대상은 젱라이라이였다.

> 나는 젱라이라이를 사랑한다.……그녀가 나를 사랑할 리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답고, 그녀의 침착하고 조용한 태도는 발레리나의 발끝을 상기시킨다.[43]

화자의 이러한 성적 경향은 프로이트(S. Freud)의 성이론 중에서 '애정적 성향과 육욕적 성향의 분리'에 부합한다. 이 이론은 자신의 진정한 사랑, 애정적 성향은 격이 높은 상대에게 쏟아 붓지만, 자신의 성적 능력은 온통 저급한 상대에게 바치는 것을 일컫는다. 프로이트는 교양 있고 지적인 남성에게 이러한 성향이 잘 나타난다고 말한다. 교양 있는 남성은 자신의 성적행위에 엄격히 제한을 가하는 여성을 존경하고, 타락한 성적 대상과 관계할 때만 완전한 성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그가 존경하는 여성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 괜한 모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왜곡된 요소들이 그의 성적 목표에 개입함으로써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성적 쾌락은 곱게 성장한 자신의 아내에게는 감히 느껴 보려고 시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는 타락한 성 대상, 즉 윤리적인 측면에서 저속한 계층에 속하면서 그가 어떤 심미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을 그런 여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한다.[44]

남성의 경우, 여성과 달리 성적 대상을 격하시켜야 되는데[45], 교양있고 지적인 남성일수록 자신의 성적 행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여성을 존경하기 때문에, 실제 사랑하는 대상과 성적 행위의 대상이 분리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술꾼』의 화자 '나'는 요양있는 지식인으로 그의 성적 경향도 '애정적 성향과 육욕적 성향이 분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의 이러한 심리적 태도는 그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막호문과 무슨 심각한 이야기나 토론을 하다가도, 그 이야기를 그만두고 싶거나 혹은 가볍고 세속적인 화제로 바꾸려고 할 때는 입버릇처럼 "그냥 여자 얘기나 하세"[46]하고 말한다. 마치 여자 얘기는 가장 하찮고, 가장 가치 없는 이야기인 듯이 말한다. 여기서 '여자 얘기'는 타락한 성 대상, 격하된 성적 대상의 여성이고, 동시에 그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의 애정적 성향은 격이 높은 상대를 향해 있고, 그의 육욕적 성향은 저급한 상대를 향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막호문과 심오하고 철학적인 토론을 하다가도 여종업들과 노닥거리는 '손가락 댄스홀'에 가고, 젱라이라이를 사랑하면서도 돈으로 어린 옘로우를 사는 것이다.

그의 이런 모순된 성적 경향은 그의 삶의 태도에까지 이어진다. 그는 끊임없이 순문학을 열망하지만, 실제로 그가 현실 생활에서 창작하는 것은 무협소설과 황색소설이다. 다시 말해, 『술꾼』의 화자 '나'의 경우, 그의 대상 리비도(Object-libido)는 순문학과 젱라이라이를 향하고 있지만, 그의 카덱시스(Cathexis)는 통속문학과 댄스홀의 어린 술집여자에게 쏟아지고 있다.

그의 모순된 성적 경향은 그가 홍콩이라는 대도시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역으로 홍콩이라는 도시공간이 그에게 이러한 모순된 성적 행위를 야기시킨 것이다. 기실, 홍콩은 겉은 화려하고 웅대하지만 속은 텅 빈, 즉 자본의 침식과 상업화로 많이 썩어 문드러진 상황에 처해있는 도시다. 이러한 홍콩의 모순적인 상황이 화자 '나'의 성적욕망을 유도했으며, 동시에 그의 성적욕망은 홍콩 도시의 모순된 상황을 알레고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홍콩의 모순적인 상황은 화자 '나'의 삶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로 하여금 순문학을 열망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무협소설이나 황색소설을 쓰게 만든다. 홍콩은 화자를 현실에 굴복시키면서 화자로 하여금 스스로가 멸시하는 것들을 재생산하게 하는 일원이 되게끔 만들어버린다.

류이창은 일찍이 "나는 오랫동안 홍콩에서 글을 팔아 생활해왔지만, 줄곧 자신의 모순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마음대로 방임하여 스스로를 상실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찾을 방도를

43) 我愛張麗麗。……她不會愛我的，我想。……她的笑容依舊很媚，安詳的態度令人憶起舞蹈者的足尖。(劉以鬯，같은 책, 73쪽, 76-77쪽)

44)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역,『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서울: 열린책들, 1996), 168-172쪽. 프로이트는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는 남성이 하층계급의 여성을 평생의 정부로 맞아들이는 심리를 이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소수의 교양있는 사람만이 애정적 성향과 육욕적 성향을 적절히 융합한다고 말한다.

45) 지그문트 프로이트, 위의 책, 171쪽. 프로이트는 여성의 경우엔 그들의 성적대상을 격하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46) 還是談談女人吧。(劉以鬯，같은 책, 37쪽, 40쪽)

강구하기도 했다."[47]라고 말한 바 있다. 작가의 창작물은 어느 정도 자신의 체험과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술꾼』역시 류이창의 이러한 모순된 심리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류덩한(劉登翰)은『술꾼』이 홍콩 도시인의 생존의 곤궁함을 표현한 작품이며, 홍콩이라는 도시는 의심할 여지없이 모순으로 가득 찬 도시라고 논한다.[48]

따라서『술꾼』에서 묘사된 화자 '나'의 모순된 성적 욕망은 단순히 표면그대로의 성적 경향이나 취향을 서술한 것이라기보다는, 화자와 작가의 모순된 심리상태를 은유하는 것이며, 모순된 홍콩의 도시공간을 알레고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도시 공간 속 소비사회구조에 대한 저항

도시소설의 등장은 문학의 상품화 현상과 관련이 깊다. 도시소설의 맥락에서 본다면,『술꾼』은 문학의 상품화가 이루어진 이후, 초기 버전의 도시소설에 속한다.[49] 앞서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중국 대륙은 1990년대에 문학의 상품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도시소설은 이때부터 흥성하게 된다. 하지만 대륙의 1990년대 초반의 도시소설과 후반의 도시소설은 그 결이 상당히 다르다. 초반기 도시소설은 소비문화, 인스턴트식 문화, 도시화의 심화 속에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욕망화 서사를 하거나 물질에 대한 서술을 하였다. 반면 90년대 후반기 도시소설은 허풍적이고 광(狂)적인 '문제청년'을 주인공으로 삼아 소비와 향락, 타락을 추구하는 서술을 한다. 그들은 오히려 물질이나 금전에 대한 욕심이 없고, 돈과 재물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즉, 초반기 도시소설은 이상과 현실의 갈등, 돈과 도덕성의 갈등, 자본주의와 공동체의 갈등이 표출되어 있는 반면에 후반기 도시소설은 그러한 것들마저 사라진다.『술꾼』화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전형적인 '사십전소설(四毫小說)'이 후반기 도시소설에 속할 것이다.

홍콩은 1950-60년 시기에 막 근대적 대도시로서의 형태를 구축했기에, 소설『술꾼』은 중국 대륙의 초반기 도시소설의 특징과 속성을 지니고 있다.[50] 즉, 문학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의 순문학과 통속문학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점, 이상과 현실의 갈등, 도덕성과 자본의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초기 도시소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설『술꾼』이 출판되었던 1963년 당시 홍콩 문단의 상황을 살펴보면, 통속문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고, 순문학은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다. 통속문학은 진융, 량위성(梁羽生)의 무협소설과 이수(亦舒), 천카이룬(岑凱倫)의 연애소설들이 주도하고 있었고, 순문학은 류이창, 시시 등의 작가들이 주도하고 있었다.[51] 따라서 류이창은『술꾼』을 통해서 당시 홍콩의 문단상황과 홍콩의 자본주의화, 홍콩사회의 상업화, 대중화를 비판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어떻게든 개인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계속 소비를 부추긴다. 자본주의에서 소비는 품위를 결정하고, 계급을 결정한다. 자본주의에서 인간 존재의 가치는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속에는 '내가 소비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 준다'는 신념이 존재한다. 이러한 소비주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공간이 도시공간이다. 따라서 도시소설에 나타나는 공간 역시 소비 공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47) 長期在香港賣文的我，總是沒有辦法統一自己的矛盾，一方面任由自己失去；一方面又要設法找回自己。劉以鬯，『劉以鬯卷·前言』，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1991。劉登翰 主編,『香港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254쪽.

48) 這應該是一部表現都市人生存困窘的作品。……這個形象無疑地是從香港這座充滿矛盾的城市所誕生出來的。劉登翰 主編,『香港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254-255쪽.

49) 후이지쇼조는『술꾼』이 1930년대 상하이 신감각파를 계승한 작품이라고 언급한다. (후지이쇼조, 김양수 역,『중국어권 문학사』, (서울: 소명출판, 2013), 263쪽)

50) 임춘성은 황웨이량(黃維樑)의 논지를 빌려, 홍콩문학의 모델은 1960년대에 기틀이 잡혔으며, 홍콩문학은 포스트모던한 도시문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논한다. (임춘성· 홍석준· 박혁순· 이헌종,『홍콩과 홍콩인의 정체성』, (서울: 학연문화사, 2006), 173쪽)

51) 1963年，當時香港的文學格局正呈現這樣一種狀態：通俗文學占據主流，嚴肅文學處於邊緣。前者以金庸、梁羽生等人的武俠小說和亦舒、岑凱倫等人的言情小說為代表，後者以劉以鬯、西西等名家為代表。(聶菲，「"酒徒"形象與香港」，『傳奇·傳記文學選刊』2013年 第1期，19쪽)

대륙의 도시소설의 경우, 90년대에 들어와서 80년대와 크게 달라진 점은, 전통적인 역사 문화 공간이 점차 소실되고 소비 공간이 이를 대치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고궁, 만리장성, 왕푸징(王府井) 같은 상징적 의미의 공간이 소설 속에서 사라지고 쇼핑센터, 슈퍼마켓, 패스트푸드점, 카페, 주점 같은 공간이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상하이 월마트와 미국의 월마트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공간의 지역성과 사회성을 없앴다.[52] 소설『술꾼』의 경우, 홍콩의 역사와 문화의 공간보다는, 오데온 극장, MGM영화, 더블 콜라, 황상황, 해피밸리의 마권 구매 행렬, 네온사인 광고, 미라마 호텔[53] 같은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공간이 주로 나타난다. 이중에서 단연 소비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은 화자가 술을 마시는 술집 혹은 댄스홀이다.

또한 보드리야르(J. Baudrillard)는 소비주의가 도시공간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특히, 광고는 모든 도시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서 공공장소를 없애버렸다고 주장한다. 즉, 거대한 스크린이나 반짝이는 광고판으로 인해 대중들은 자신들의 활동 공간을 상실하였고, 공공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구역이 소실되었다는 것이다.[54] 소설『술꾼』에서도 홍콩 도시공간이 상업화됨에 따라 공공장소가 소실되는 면을 찾아볼 수 있다. 화자는 홍콩에서 항상 삼등 전차를 탄다고 고백한다. 이는 그의 경제적 상황과 계층을 말해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삼등 전차라는 공공장소를 애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홍콩의 중심지 센트럴이나 데보로드에 가면 이러한 삼등 전차를 탈 수 없다.

> 나는 늘 삼등 전차를 탄다.……이등 전차가 없다. 온 거리가 화이트칼라 계급이다.……데보로드 전차에는 이등 전차가 없다.[55]

삼등 전차는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애용하는 공동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주의를 조장하는 홍콩의 중심지는 이러한 공공장소를 없애버리고 좀 더 소비를 해야만 하는 일등 전차만을 만들어 놓는다.

『술꾼』 화자 '나'는 이러한 홍콩의 자본화, 홍콩의 소비사회구조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저항을 하는데, 그 방식은 다소 특이하다. 우선 화자가 인식하는 홍콩의 소비사회구조는 다음과 같다.

> 돈은 모든 것을 지배한다. 나는 생각했다. 돈은 마귀다. 그것의 힘은 신보다도 강력하다. 특히 홍콩 같은 이런 사회에서는.[56]

> 글이 상품으로 바뀐다. 사랑이 상품으로 바뀐다. 여자애의 정조도 상품으로 바뀐다.[57]

홍콩의 도시공간은 상업주의적이고 대중문화적이며, 자본의 화신인 상품이 물신화(物神化)된 공간이다. 이러한 홍콩의 소비사회구조에 대해 화자는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반항을 한다. 사실, 후반기 도시소설의 경우, 그 주인공들은 이러한 소비사회구조에 적응하여 크게 돈을 벌어 소비적이고 향락적이며, 타락한 생활을 한다. 그들은 돈을 흥청망청 쓰는 향락적 소비를 하기 일쑤다. 이들이 소비사회구조에 저항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향락적 소비, 물질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소비로, 시장경제의 합리적 소비패턴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다. 시장경제는 그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을 권고하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는 시장경제의 합리적 소비패턴에 반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기 도시소설에서는 이상과 현실의 갈등, 도덕성과 자본의 갈등이 드러나며, 주인공은 그 속에서 고뇌하고 방황한다. 그들은 사회조류에 편승하지 못해, 대부분 가난하며,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생활을 할 여건도 되지 못한다. 소설『술꾼』역시 예외가 아니다.

---

52) 焦雨虹 著,『消費文化與都市表達:當代都市小說研究』, 上海 : 學林出版社, 2010, 67-68쪽
53) 奧迪安戲院, 米高梅, 得寶可樂, 皇上皇, 快活谷人龍輪購馬牌, 霓虹燈廣告, 美麗華酒店, (劉以鬯, 같은 책, 34쪽, 59쪽)
54) 焦雨虹 著,『消費文化與都市表達:當代都市小說研究』, 上海 : 學林出版社, 2010, 71쪽
55) 我是常常搭乘三等電車的。……電車沒有二等, 滿街白領階級。……德輔道電車是沒有二等的。(劉以鬯, 같은 책, 36쪽, 89쪽, 90쪽)
56) 錢是一切的主宰。我想。錢是魔鬼。它的力量比神還大。尤其是在香港這種社會裏。(劉以鬯, 같은 책, 193쪽)
57) 文章變成商品。愛情變成商品。女孩子的貞操也變成商品。(劉以鬯, 같은 책, 243쪽)

"일주일 뒤에 전화하게." "일주일 뒤면 난 굶어죽어 있을 걸세!"[58]

화자가 모위에게 전화 걸어 고료를 요구하는 장면이다. 화자는 하루하루를 고료로 근근이 먹고사는 처지였다. 따라서 그는 향락적인 소비로 홍콩의 소비사회구조에 저항할 수 없었다. 오히려 생활을 위해 소비사회구조의 일원이 되고, 그것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가 홍콩의 소비구조에 저항하는 방식은 자신의 내면세계로 침잠해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다. 이것을 알레고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주된 소재인 '술'이다. 홍콩 도시공간에서 자본화과정과 소비사회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은 술집이다. 술집은 일반적으로 소비를 과시하는 공간이며, 일상생활에서 도피할 수 있는 도시의 유일한 공간이며, 깊이 숨겨둔 욕망이 들끓는 공간이다. 술집은 애매모호한 환상을 제공하며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공간이기도 한다. 일찍이 발터 벤야민(W. Benjamin)은 "군중은 일종의 베일로서 이 베일을 통해 거리산보자에게 낯익은 도시가 판타스마고리아로서 손짓한다. 이 판타스마고리아 속에서 도시는 때로는 풍경이 되고 때로는 방이 된다."[59]라고 말한 바 있다. 군중은 일종의 베일이 되고, 도시는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가 된다는 것이다. 판타스마고리아 속에서 도시는 풍경이 되기도 하고 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판타스마고리아는 마르크스 용어로 '환등상' 혹은 '환상'의 의미이며, 도시의 소비구조를 상징하는 말이다.

술집은 도시의 이러한 환상효과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화자는 바로 이 공간에서 홍콩의 소비사회구조에 저항한다. 그가 저항하는 방식은 스스로 망가지는 방식이었다. 화자는 상업화되고 의사 자본화된 홍콩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순문학 꿈을 실현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현실과 맞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의지해 자신의 내면세계로 침잠해 들어갔다. 그도 신문사에서 가불받아 술을 마시고 여자를 사는 등, 어느 정도 도시의 쾌락을 쫓는 흐트러진 생활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항상 술에 취해있고, 신문사에서 가불을 받고, 여자를 사는 행위는, 사실 쾌락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을 학대하는 방식,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홍콩의 소비사회구조에 저항한다.

술을 끊으시고 도피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술 사먹을 돈으로 식사를 하고 남는 시간에 자신이 쓰고 싶은 작품을 쓰세요.[60]

막호문이 화자를 충고하는 대목이다. 화자는 자신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홍콩의 현실에 저항한다. 주목할 부분은 작가 류이창 자신은 실제 술을 전혀 마실 줄 모른다[61]는 사실이다. 따라서 류이창이 술꾼을 형상화한 것은 하나의 서사장치로서 착안한 것이며, 술꾼의 형상은 별도의 지시적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자인 주인공이 술을 좋아하고 항상 술에 취해있는 것은 단순히 그의 주벽이거나 생활의 기호가 아니다. 그것은 홍콩 소비사회구조에 화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하나의 설정이다.

『술꾼』에는 비교적 전형적인 사회비판적 요소가 많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내면심리로 끌어들여 내적독백과 자유연상, 이미지의 연계 등 의식의 흐름의 수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를 표현하는데 '술꾼'이란 형상은 매우 효과적인 서사장치이다. 따라서 홍콩이라는 현대 상업화되고 자본주의화 된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를 표현하는데, 그리고 거대도시의 생존환경에서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는 홍콩인을 표현하는데, '술꾼'의 형상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의미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술꾼』의 화자가 술에 깨어있는 모습과 술에 취해있는 모습이 무한히 교차 반복되는 상황은, 사실 홍콩 도시 자체를 표현한 것이며, 동시에 홍콩인들의 삶의 본질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62]

소설이 전개됨에 따라, 『술꾼』의 화자가 자신을 학대하는 정도는 점점 심해진다. 결말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58) 過一個星期打電話來。再過一個星期，我就要餓死了！(劉以鬯，같은 책, 107-108쪽)
59) 발터벤야민, 최성만 역, 「19세기의 수도 파리」,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서울: 길, 2008), 203쪽
60) 你應該戒酒，放棄做一個逃避主義者的念頭。將買酒的錢買飯吃，將空餘的時間撰寫你自己想寫的作品。(劉以鬯，같은 책, 109쪽)
61) 據說劉以鬯自己並不會喝酒。(劉登翰 主編, 『香港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254쪽)
62) 劉登翰 主編, 『香港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253-258쪽 참조

심하게 학대하고 망가지는데, 그 정도가 자신의 자아를 파괴할 수준, 즉 자살을 시도할 정도가 된다.

> 나는 잠시라도 도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통쾌하게 술을 마시고 싶었다.……이상하다. 내가 어째서 인도에 드러누워 있지? 이 사람들은 왜 나를 둘러싸고 있지? 내가 뭔 일을 저질렀나? 나는 여기 얼마나 누워 있었지?……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으나 머리가 심하게 쑤셔왔다. 나는 내가 취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그저 술로 자신을 마취시킬 수밖에.……나는 죽음을 생각했다.63)

그는 자살을 시도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난다.64) 그리고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레이(雷) 할머니와 약속을 하지만, 다시 술을 마시고 할머니에게 막말을 하는 주사를 부리기도 한다. 이로 인해, 그를 아들로 착각했던 자애로운 레이 할머니를 자살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의 이러한 일련의 자기 학대와 망가짐, 자신의 내면으로의 침잠은 모두 홍콩의 소비사회구조에 대한 개인적인 저항이었다.

5. 결론

본고는 류이창의 장편소설『술꾼』이 자신이 표상하는 홍콩도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재현하였는지 분석하려 했다. 홍콩은 공간권력과 공간등급제가 농후한 곳으로, 홍콩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계급에 따라 도시 중심부에서 외각까지 차등적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역으로 홍콩은 의사 자본화된 공간으로 도시민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또한 화자는 모순된 성적 경향을 보이며, 술집에서 항상 술에 취해 나약한 모습으로 홍콩도시에 저항하고 있었다.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드러나는 홍콩을 분석하기 위해, 본고는 공간과 도시소설의 관점을 적용하고, 도시공간 속 권력과 이동, 도시공간 속 성적욕망, 도시공간 속 소비사회구조에 대한 저항으로 나누어,『술꾼』에 나타난 홍콩의 도시공간을 고찰하였다.

도시공간 속 권력과 이동에서는, 주인공 화자가 홍콩 도시공간에서 셋방을 겨우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그를 억압하는 홍콩 본토인—식민주체들은 홍콩의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홍콩의 도시공간은 도시 중심부에서 외곽까지 공간가치의 지불능력에 따라 위계적으로 배열되었으며, 셋방살이를 하는 화자는 그가 차지하는 공간 자체로 그가 홍콩의 주변인이자 이주자 신분임을 말해준다고 논했다. 그리고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와 홍콩 도시공간의 의사 자본화를 적용해, 홍콩 이주자와 정주자 사이의 이분법적 서술과 홍콩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화자가 이율배반적 삶을 살고, 홍콩의 상업화된 문학 시스템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식민주의의 모방 패러다임으로 파악하였다.

도시공간 속 성적욕망에서는, 주인공 화자의 성적 욕망은 지식인이자 도시의 교양과 문화수준을 내면화하고 있는 인물로서 상당히 모순된 양상을 보이며, 이는 프로이트의 '애정적 성향과 육욕적 성향의 분리'라는 성이론에 부합한다고 논했다. 그의 모순된 성적 경향은, 그가 홍콩이라는 대도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도시 홍콩의 모순된 상황을 알레고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도시공간 속 소비사회구조에 대한 저항에서는, 소설『술꾼』이 문학의 상품화 이후 초기 버전의 도시소설의 특징과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소비주의로 인해 공공장소가 소실될 뿐만 아니라, 홍콩의 역사문화 공간보다는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공간이 주로 나타난다고 논했다. 이러한 소비공간 중에서 술집은 발터벤야민의 도시 환

63) 我希望能夠暫時逃避一下，很想喝個痛快。……奇怪，我怎麼會躺在人行道上的？這些人爲甚麼圍着我？我做過些甚麼？我躺在這裏多久了？……我勉强支撐起身子，頭部劇烈刺痛。我知道我喝醉了，但是不知道在甚麼地方喝的酒。……惟有用酒來麻醉自己。……我想死。(劉以鬯，같은 책, 259쪽, 265쪽, 268쪽)

64) 김혜준은 화자의 자살시도는 순문학으로 되돌아가려는 갈망의 표현이고, 자살시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것은 순수성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홍콩에 대한 적응을 상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화자가 살아나는 것은, 류이창과 화자 두 사람이 홍콩을 거부 비판하면서도 홍콩을 용인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김혜준,「홍콩작가 류이창(劉以鬯)의 소설『술꾼(酒徒)』의 가치와 의의」,『중국어문논총』제72집, 2015. 312-313쪽)

상효과를 지닌 공간으로, 홍콩의 소비사회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고, 화자는 바로 이 공간에서 홍콩의 소비구조에 저항한다고 보았다. 화자는 홍콩의 소비사회구조에 자신의 방식으로 저항을 했는데, 그 방법은 자기학대와 자신의 내면세계로 침잠해 들어가는 것이었다.

【參考文獻】

김혜준,「홍콩작가 류이창(劉以鬯)의 소설『술꾼(酒徒)』의 가치와 의의—'의식의 흐름' 문제를 중심으로」,『중국어문논총』 제70집, 2015.
김혜준,「홍콩작가 류이창(劉以鬯)의 소설『술꾼(酒徒)』의 가치와 의의」,『중국어문논총』 제72집, 2015.
로이스 타이슨 지음, 윤동구 옮김, 『비평이론의 모든 것』, 서울: 앨피, 2012
류영하 지음, 『중국 민족주의와 홍콩 본토주의』, 부산: 산지니, 2014
류이창 지음, 김혜준 옮김, 『술꾼』, 파주: 창비, 2014
박종성 지음,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경기: 살림, 2006
발터벤야민 지음,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서울: 길, 2008
스티븐 모튼 지음, 이운경 옮김, 『스피박 넘기』, 서울: 앨피, 2005
유영하,「홍콩문학의 정체성—회고와 전망」,『중국현대문학』 제37호, 2006,
유영하 지음, 『홍콩이라는 문화 공간』, 서울: 아름나무, 2008
위르겐 오스터함멜 지음, 박은영· 이유재 옮김, 『식민주의』, 서울: 역사비평사, 2006
이-푸 투안 지음, 구동회· 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서울: 대윤, 1995
임춘성,「홍콩문학의 정체성과 탈식민주의」,『중국현대문학』 제31호, 2004,
임춘성· 홍석준· 박혁순· 이헌종 지음, 『홍콩과 홍콩인의 정체성』, 서울: 학연문화사, 2006
조명래 지음, 『공간으로 사회 읽기』, 파주: 한울, 2013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김정일 옮김,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서울: 열린책들, 1996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지음, 『중국현대문학과의 만남』, 파주: 동녘, 2006
후지이쇼조 지음, 백영길 옮김, 『현대중국문화탐험』, 서울: 소화, 2002
후지이쇼조 지음, 김양수 옮김, 『중국어권 문학사』, 서울: 소명출판, 2013

陳平原· 陳國球· 王德威 編, 『香港 : 都市想象與文化記憶』,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2015
陳曉明, 「城市文學 : 無法現身的"他者"」, 『文藝研究』 2006年 第1期
黃維樑 著, 『香港文學初探』, 北京 : 中國友誼出版公司, 1987
江少川, 「論劉以鬯及其長篇小說『酒徒』」, 『華文文學』 2002年 第5期
焦雨虹 著, 『消費文化與都市表達:當代都市小說研究』, 上海 : 學林出版社, 2010
李潔非, 「城市文學之崛起 : 社會和文學背景」, 『當代作家評論』 1998年 第3期
李躍 , 「意識流小說的香港化—論劉以鬯的長篇小說『酒徒』」, 『江西教育學院學報』 2008年 第5期
劉登翰 主編, 『香港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劉以鬯 著, 『酒徒』, 臺北 : 行人文化實驗室, 2015
劉以鬯 著, 『劉以鬯卷·前言』,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1991
聶菲, 「"酒徒"形象與香港」, 『傳奇·傳記文學選刊』 2013年 第1期
王德威 著, 宋偉杰 譯, 『被壓抑的現代性 : 晚清小說新論』, 臺北 : 麥田出版社, 2003
楊紹軍, 「20世紀90年代以來都市文學研究綜述」, 『雲南社會科學』 2005年 第5期
葉立新, 「20世紀90年代城市文學的發展」, 『廣東社會科學』 2002年 第2期

【메 모】

【특별 분과】 발표 ⑦

‘중앙1호문건’과 향촌진흥전략 독해

이화진 (서울대)

1. 들어가며

우리가 중국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독이나 몰이해가 발생한다면, 어느 지점에서일까? 중국의 특수성과 한국과의 비대칭성이 교차하는 지점일 것이다. “인구가 많고 땅이 넓으며 물산이 풍부한[人多地大物博]” ‘문명국가’ 중국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다양한 지리적 조건은 글로벌 자본주의에 편입한 이후에도 중국 사회의 특수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전제가 된다. 중국의 ‘도·농 이원구조’는 글로벌 차원의 보편성과 중국적 특수성이 결합된 데다가 한국과의 비대칭성이 작용하는 몇 가지 지점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인지 이와 관련된 우리의 관심은 중국의 도시화[城镇化], 도시 내 유동인구, 점수적립제 도시거민호구 등 주로 도시와 관련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농촌 내부의 현실은 우리의 관심과 시야에서 멀어져 있다. 중국의 삼농(叁农) 문제가 일부 연구자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그 역시 제한적이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20년 넘게 지속된 고속성장에 따른 ‘성장통’이 국가경제와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도농 격차와 삼농 문제를 “전당 업무의 중대 사업”,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련된 근본 문제”로 규정하고 ‘중앙1호문건’을 부활시켰으며 이후 15년간 이 문건을 통해 삼농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2017년 상주인구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58.3%이며, 2020년까지 6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의 도시화, 농업의 공업화, 농민의 도시민화는 중국 경제의 핵심적인 성장엔진이지만, 도시의 과밀화 문제는 물론 식량안보, 농업의 국가경쟁력, 환경 문제 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없다. 가령 중국 정부의 목표대로 2년 후 도시화율이 60%에 도달한다면, 약 1억 명의 농민이 새롭게 도시로 유입되는데,[1]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게다가 상주인구로는 약 5억4천의, 호적인구로는 약 8억7천의 농민이 여전히 농촌에 거주하거나 농업 호구를 지닌다. 심지어 중국 내 도농 소득격차는 여전히 심각하여 2015년 기준 인구의 48%가 종사하는 농업의 GDP 비중은 9%에 불과하다.[2] 이는 삼농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도시화는 제한적인 선택이며 이것만으로는 중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중국이 2004년부터 15년 연속 ‘중앙1호문건’을 통해 삼농정책을 발표한 배경이며 우리가 중국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앙1호문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글은 ‘중앙1호문건’에 대한 간략한 검토에 이어 2018년도 ‘중앙1호문건’의 주제인 향촌진흥전략의 ‘20자 방침’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문서에 대한 독해를 시도함으로써 중국 이해를 위한 경로와 시야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1) 리커창 총리는 2016년 전인대 4차 전체회의 정부업무보고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사람을 핵심으로 한 신형도시화를 추진하여 약 1억 명의 농업 전이인구 및 기타 상주인구의 도시 정착을 실현하고, 약 1억 명이 거주하는 판자촌 및 성중촌 개조를 완성하며, 약 1억 명이 중서부 지역에서 도시에 접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2020년까지 상주인구 성진화율 60%, 호구인구 성진화율 45%에 도달한다.(要深入推进以人为核心的新型城镇化, 实现1亿左右农业转移人口和其他常住人口在城镇落户, 完成约1亿人居住的棚户区和城中村改造, 引导约1亿人在中西部地区就近城镇化. 到2020年, 常住人口城镇化率达到60%、户籍人口城镇化率达到45%).”

2) 1978년 28%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82~83년에 33%로 최고점을 찍은 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中国国家统计」)

2. '중앙1호문건'이란?

'중앙1호문건'이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이하 '중공 중앙')와 국무원에서 그 해에 첫 번째로 발표하여 전국의 공산당 및 국가기구 조직에 전달하는 정책 교서를 의미한다. 1982년 1월 1일은 중공 중앙은 「전국 농촌공작회의 기요(全国农村工作会议纪要)」를 발표하며 당시 농촌 지역에서 진행된 자발적인 탈집단화 움직임 속에서 사상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던 농가 단위의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를 승인함으로써 농촌 개혁과 시장화를 공식화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중앙1호문건'이다. 이후 1986년까지 5년간 농촌경제를 주제로 한 문건을 매 해 가장 처음으로 발표했으며, 이후 18년간 중단했다가 2004년부터 재개한 것이다. 이는 상술한 바 약 20년 간 지속된 고속성장에 따른 '성장통'이 국가경제 및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되자 농촌과 서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발과 지원이 개시된 데에 따른 국가적 조치였다. 이후 2018년까지 15년간 '중앙1호문건'은 농촌, 농업, 농민의 삼농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고 이로써 '중앙1호문건'은 삼농 문제에 대한 중공 중앙의 정책을 대표하는 고유 명사로 정착했다.

[표1] 역대 '중앙1호문건' 목록

1982	전국 농촌공작회의 기요(全国农村工作会议纪要)
1983	현재 농촌경제정책의 약간의 문제(当前农村经济政策的若干问题)
1984	1984년 농촌공작에 관한 통지(关于一九八四年农村工作的通知)
1985	농촌경제의 진일보한 활성화에 관한 10개 정책 (关于进一步活跃农村经济的十项政策)
1986	1986년 농촌공작에 관한 안배(关于一九八六年农村工作的部署)
2004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적 의견 (关于促进农民增加收入若干政策的意见)
2005	농업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농촌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약간의 정책적 의견(关于进一步加强农村工作提高农业综合生产能力若干政策的意见)
2006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关于推进社会主义新农村建设的若干意见)
2007	현대농업의 적극적인 발전과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착실한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积极发展现代农业扎实推进社会主义新农村建设的若干意见)
2008	농업기초시설건설을 확실히 강화하여 농업발전과 농민소득을 촉진시키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切实加强农业基础设施建设进一步促进农业发展农民增收的若干意见)
2009	2009년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关于促进农业稳定发展农民持续增收的若干意见)
2010	도·농 통합발전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농촌 발전의 진일보한 기초를 다지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加大统筹城乡发展力度进一步夯实农业农村发展基础的若干意见)
2011	수리 개혁 및 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快水利改革发展的决定)
2012	농업과학기술 혁신 추진을 가속화하여 농산물 공급보장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관한 약간 의견 (关于加快推进农业科技创新持续增强农产品供给保障能力的若干意见)
2013	현대농업 발전을 가속화하여 농촌발전의 활력을 증대시키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 (关于加快发展现代农业进一步增强农村发展活力的若干意见)
2014	농촌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농업현대화 추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全面深化农村改革加快推进农业现代化的若干意见)
2015	개혁 및 혁신 역량을 확대하여 농업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 (关于加大改革创新力度加快农业现代化建设的若干意见)
2016	신이념 발전를 현실화하고 농업현대화를 가속화하여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落实发展新理念加快农业现代化实现全面小康目标的若干意见)
2017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을 심화하고 농업·농촌 발전의 신동력 육성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深入推进农业供给侧结构性改革加快培育农业农村发展新动能的若干意见)
2018	향촌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关于实施乡村振兴战略的意见)

2004년에서 2018년까지 발표된 15개의 ‘중앙1호문건’은 각 5년씩 2004~08년, 2009~13년. 2014~18년의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는 각각 중공 17대(후진타오 1기), 중공 18대(후진타오 2기), 중공 19대(시진핑 1기)의 삼농 정책을 대표한다. 가령 2006, 2007년에 2년 연속 등장한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은 중공 17대의 대표적인 삼농정책을 지칭하며, 2010년에 제목에서 처음 등장한 “도·농 통합발전”은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라는 중공 18대의 정책적 기조를 반영한다. 그리고 2014년부터 등장한 “농촌개혁의 전면적 심화”, “농업현대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농업공급측 구조개혁” 등은 2017년 중공 19대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한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구성하는 주요 정책 키워드에 다름 아니다. 일부 문서는 해당 지도부의 정책적 전환과 큰 관계없이 그 자체로 주요한 노정표이기도 하다. 가령 2013년 ‘중앙1호문건’은 중국의 농촌이 소농(小农) 경제체제에서 신형 농업경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1982년 가정연산승포책임제를 시행한 이래 토지사용권을 개별 농가에게 분배하여 개개인의 생산력 제고를 독려했던 사회적 분위기나 정책적 기조가 2013년을 전후하여 농업 경영의 집약화, 전문화, 조직화, 사회화를 상호 결합하여 대규모 전업농[专业大户], 가정농장, 농민전업합작사를 통한 유통 등의 확산을 장려하는 움직임으로 전환된 것이다.

중공 중앙과 국무원은 2017년 12월 말 중앙농촌공작회의에 공동 명의로 제출해 토론을 거친 「향촌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关于实施乡村振兴战略的意见)」을 2018년도 1월 2일 ‘중앙1호문건’으로 발표했다. 이는 2017년 10월 18일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전당 업무의 중대 사업인 삼농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각각의 문건은 이전 시기의 내용을 충실히 계승하는 가운데 당해 년도의 주안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총체적 요구[总体要求]’이며, 2018년의 경우 ‘5대 목표’ 혹은 ‘20자 방침’으로 통칭된다.

3. ‘20자 방침’으로 본 향촌진흥전략의 주요 내용

「향촌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에는 삼농의 삼단계 발전 전략[3]과 함께 당 19대 삼농업무의 지도사상이자 강령으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목표가 제시되었다. 소위 ‘20자 방침’으로 일컬어지는 이 5대 목표는 2006년의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推进社会主义新农村建设的若干意见)」에 대한 발전적 계승으로 볼 수 있다.[4]

[표2] 2006년 및 2018년 ‘중앙1호문건’ 5대 목표

2006년	생산발전(生产发展), 부유한 생활(生活富裕), 문명적 향촌풍속(乡风文明), 정돈된 마을 모습(村容整洁), 민주적 관리(管理民主)
2018년	산업흥성(产业兴旺), 살기 좋은 생태(生态宜居), 문명적 향촌풍속(乡风文明), 효율적 거버넌스(治理有效), 부유한 생활(生活富裕)

이 두 개의 ‘20자 방침’ 사이에서 “부유한 생활(生活富裕)”과 “문명적 향촌풍속(乡风文明)”은 2018년에도 이어졌는데, 이는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교육 및 문화 진흥이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생산발전(生产发展)”은 “산업흥성(产业兴旺)”으로, “정돈된 마을 모습(村容整洁)”은 “살기

3) 향촌진흥전략에서는 2020년, 2035년, 2050년에 대해 각각의 단계별 발전전략을 밝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까지는 향촌진흥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제도적 틀과 정책의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2035년까지는 향촌진흥의 결정적 진전을 이루어 농업·농촌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2050년까지는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이루고 농업이 강하고[农业强], 농촌이 아름답고[农村美], 농민이 부유한[农民富]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다.

4) 대부분의 ‘중앙1호문건’은 문서의 서두에 ‘총체적 요구’ 혹은 ‘총요구’를 밝히고 있으나, 20자의 형태로 구성된 것은 이 두 문서뿐이다.

좋은 생태(生态宜居)"으로, "민주적 관리(管理民主)"는 "효율적 거버넌스(治理有效)"로 대체되었으며, "부유한 생활(生活富裕)"은 마지막 순위로 조정되었다.[5)]

이 가운데 "산업흥성(产业兴旺)"은 1·2·3차 산업의 융·복합발전 체계 구축이나 소농과 신형농업경영주체의 유기적 연계 촉진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단순 생산력 발전에서 나아가 농업 분야의 혁신을 촉구한다. 1·2·3차 산업 융·복합발전이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상호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6차 산업혁명'의 실천을 의미하며,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전 과정이 삼농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혜택 또한 삼농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일환과도 맞닿아 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6)]와 농촌관광 및 관광농업 모델 개발[7)]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소농과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연계란, 앞서 언급한 가정농장, 대규모 전업농가, 농민전업합작사, 농기업 등 2010년대 이후 성장하고 있는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발전을 개별 소농과 연계시킴으로서 양자의 상승 작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효율적 거버넌스(治理有效)"의 핵심은 촌민의 자치 수준 제고하고 농촌 지역의 법치체계를 구축하며 전반적인 덕치를 독려함으로써 자치, 법치, 덕치를 결합하는 데에 있다. 특히 촌민의 자치 수준 제고는 촌민위원회 위원장과 촌 당서기를 일원화하여 그 권한과 의미를 확대하는 것, 공무원과 지식인의 은퇴 후 귀촌을 장려함으로써 촌내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 권한을 하방 이양하여 촌 단위 자치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촌민위원회, 농촌집체경제조직, 농촌합작경제조직 등 집체토지 소유권 주체를 특별 법인화하여 그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덕치 수준의 제고는 "좋은 며느니, 좋은 자녀, 좋은 부부(好媳妇、好儿女、好公婆)"나 "가장 아름다운 향촌의 교사, 의사, 촌관, 가정(最美乡村教师、医生、村官、家庭)" 등 도덕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와 경험 등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살기 좋은 생태(生态宜居)"는 생태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다. 이에는 생태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생태환경 보호 보상체계 구축,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항목의 경우 산림, 초원, 습지 등을 이용한 관광산업이나 휴양·건강·양생·생태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 등 상술한 "산업흥성"의 농업관광 및 휴양농업 항목과도 연계된다.

'20자 방침'을 토대로 하여 2018년도 '중앙1호문건'의 향촌진흥전략을 개괄한다면 산업 경쟁력 강화, 교육 및 문화수준 제고, 소득 수준 제고, 주거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을 공유 및 계승하는 가운데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촌내 자치 강화 등이 주요한 방향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향촌진흥전략의 의미와 전망

중국의 성공적인 농촌경제를 대표하며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던 모델로는 장쑤성(江苏省) 화시촌(华西村)이 있다. 화시촌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기업의 형태를 띠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대표적인 농촌 마을로, 그 중심에는 향진기업에서 성장한 화시그룹(华西集团)이 있었다.[8)] 이는 수출 주도형 성장을 추진하던 시기에 지리적 비교우위를 갖춘 동부 연안 지역의 농촌경제에 최

5)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중국농업동향』 2017년 겨울호를 참고할 수 있다.

6) 전자상거래연구센터에서 발표한 2017년도 「중국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보고」에 따르면, 2017년 농촌에 기반한 온라인 쇼핑몰 수는 985만6000개, 매출액은 1조2448억 위안(한화 약 20조)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 39%로 증가했다.("中 전자상거래, 농촌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 (http://www.ajunews.com/view/20180605094606275))

7) 선양시 선베이신구(沈北新区) 시보족진(锡伯族镇) 시보롱띠(锡伯龙地) 창의농업산업단지(创意农业产业园)에서 선보인 휴양관광농업 항목인 "논밭예술화(稻田艺术画)"와 허난성 하오탕촌(郝堂村)에서 시도한 생태촌이 이러한 정책을 경험적으로 선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오탕촌은 2013년 농업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향촌(美丽乡村)'의 첫 번째 시험 향촌으로 선정되었는데, 집체소유토지를 기반으로 한 내치금융을 통해 향촌의 혁신을 추동한 사례이다. 내치금융이란, 촌내 양로자금호조사(养老资金互助社)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향촌여행 및 요양촌을 건설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다시 촌의 해당 구성원에게 수혜가 가도록하는 방식이다.(熊万胜、刘炳辉, 「乡村振兴视野下的"李昌平-贺雪峰争论"」, 《探索与争鸣》, 2017年第12期.)

8) 화시촌 주민들은 평균 400~600㎡(약 150평)의 별장형 주택에 살며 2대 이상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화된 모델이다. 2000년대 이후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던 시기에는 중·서부 지역의 삼농을 대상으로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부었고,[9] 이는 ‘외래형’ 금융위기가 연착륙될 수 있었던 ‘저수지’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10] 그러나 이는 중앙 재정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웠고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산업흥성”과 “효율적 거버넌스” 등으로 대표되는 향촌진흥전략은 중국이 구상하는 ‘신시대’를 겨냥한 ‘새로운’ 삼농 전략이다. 원톄쥔(温铁军)은 자치, 법제, 덕치를 결합한 향촌의 “효율적인 거버넌스”에 주목하며, 중국은 각 지역마다 지리 및 기후 등의 조건이 상이하여 다양한 사회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역사적으로도 상층은 관치(官治), 하층은 자치를 구현해왔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향촌진흥전략이 내세우는 향촌의 자치 강화는 중국의 현실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된다.[11]

“산업흥성”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표적인 삼농문제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인 리창핑(李昌平)은 농민조직에 근거한 “진취(进取)”를 강조하며 향촌의 주동적인 혁신 가능성을 긍정했다.[12] 반면 허쉐펑(贺雪峰)은 그것의 ‘복제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농촌 및 농민 내부가 단일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다.[13] 전체 농촌의 약 70%에 해당되는 중·서부 취약 농촌은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화시촌과 같은 농촌공업화를 구현하기 어렵고 농가별 평균 경지 또한 협소하여 규모화를 통한 신형 농업경영주체로 발전하거나 이와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 융·복합을 통한 관광농업 내지는 휴양농촌 또한 지리적 환경과 도시와의 인접성이 갖추어진 5% 안팎의 농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농민들에게는 여전히 기존의 집체토지에 대한 가정연산승포책임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 즉 ‘설중송탄(雪中送炭)’의 차원이 보다 현실적인 조치라는 것이다.[14]

중국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경지를 확보해야 하며[15] 이를 토대로 상주인구 기준 40%, 호적인구 기준 55%를 웃도는 방대한 농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집체소유제와 가정연산승포책임제로 인해 농업경영의 주체가 개별 농가와 집체조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개별 농가 또한 단일하지 않고 농가와 집체조직 사이의 관계 또한 일정하지 않다. 이 때문에 그 변화 및 발전의 양태 또한 시기별·지역별로 다원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농촌의 사유화 방향 또한 완전히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농촌의 문제는 우리의 시야에 쉽게 잡히지 않는다. 최근 CCTV에서는 ‘중앙1호문건’의 지도 아래 삼대에 걸친 농민과 농촌간부의 삶을 조명하는 『黄土高天』이 상영 중이다. 이 드라마는 개혁·개방 40주년을 기념하는 2018-2022년 중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는데, 모선(莫伸)의 기록문학인 《一号文件》(西安: 太白文艺出版社, 2012)을 원작으로 한다. 이처럼 ‘1호문건’과 ‘삼농-향촌’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중국의 개혁·개방의 경험과 오늘날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가 된다.

있다. 월급 외에도 주식배당금을 받으며 높은 수준의 생활 향유했는데, 1인당 소득은 한때 중국 전체 평균의 7배에 달하기도 했다.(‘중국 고성장기 '부자촌' 연쇄몰락, 화시촌도 석양길로’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218000441)

9)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는 ‘신농촌건설’을 통해 약 30년간 진행된 수출 주도의 고속성장으로 확보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중심으로 하여 ‘삼농’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가령 2005-6년 농업세 폐지와 농업종합보조금 신설, 2007년 농촌 의무교육 학비 면제와 신형 농촌합작의료 전면 추진, 2008년 의무교육법 제정과 ‘삼농’에 예산 5,625억 위안 투입(한화 약 91조원에 해당), 2009년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시행과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급 등이 그 대표적 정책들이다.(원톄쥔 지음, 김진공 옮김, 『여덟 번의 위기』, 돌베개, 2016, 348쪽)

10)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원톄쥔, 앞의 책, ‘신농촌건설’과 관련된 항목을 참고할 것.

11) 温铁军,「生态文明与比较视野下的乡村振兴战略」,『上海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8年01期.

12) 熊万胜、刘炳辉,「乡村振兴视野下的“李昌平-贺雪峰争论”」,《探索与争鸣》, 2017年第12期.

13) 허쉐펑은 중국의 농가가 크게 네 부류로 분화됐음을 지적했다. 가족 전체가 도시로 이전한 부농, 가족 전체가 농촌을 지키며 규모화를 이룬 중견 농가, 세대간 분공을 통한 반공반농(半工半农)의 취약 농가, 노약자만 남은 농가가 그것이다. 허쉐펑은 이 가운데 세대간 분공의 반공반농의 농가가 전체 농가의 70%가량이 되며 주로 중·서부에 분포함을 지적했다.(贺雪峰,「关于实施乡村振兴战略的几个问题」,『南京农业大学学报』, 2018年 第3期.)

14) 贺雪峰, 앞의 논문.

15) 2009년 6월 전국 토지 면적의 12.5%에 해당하는 18억 무(약 1조 2천억㎡)를 ‘경작지 보호구역[耕地红线]’으로 지정하여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中共中央·国务院关于实施乡村振兴战略的意见」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2/04/c_1122366449.htm)
전형진 편저, 『중앙1호문건(1883-2013년 번역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원톄쥔 지음, 김진공 옮김, 『여덟 번의 위기』, 돌베개, 2016.
하설봉 지음, 김도경 옮김, 『탈향과 귀향 사이에서』, 돌베개,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동향』, 2017년 겨울호.
贺雪峰,「关于实施乡村振兴战略的几个问题」,『南京农业大学学报』, 2018年 第3期.
温铁军,「生态文明与比较视野下的乡村振兴战略」,『上海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18年01期.
熊万胜、刘炳辉,「乡村振兴视野下的"李昌平-贺雪峰争论"」,《探索与争鸣》, 2017年第12期.
"中 전자상거래, 농촌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
(http://www.ajunews.com/view/20180605094606275)
'중국 고성장기 '부자촌' 연쇄몰락, 화시촌도 석양길로'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218000441)

【중국어학 분과】 발표 ①

중국학으로서의 언어학에 대하여

박찬욱 (서울여대)

一

어느 학자에게 전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에 누구도 '중국학입니다'라고 하는 학자는 없을 것이다. 정치학, 경제학, 문화학, 사회학, 언어학, 문학, 철학 등, 소위 중국학의 분과학문을 들어 자신을 소개하지 자신의 연구분야로서 중국학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중국 정치학, 경제학, 문화학, 사회학, 언어학, 문학, 철학 등의 합(合)은 중국학일 수 있는가? 중국학의 하위분야로서 '정치학, 경제학, 문화학, 사회학, 언어학, 문학, 철학 등'을 언급한다면 그것의 역인 합 역시 중국학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쉽게 '그렇다'고 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중국학'이란 혹시 우리가 설정한 하나의 개념적 정의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이 같은 질문을 품으니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대학	단과대학	학과
경○대학교	문과대학	중국학과
인○대학교	문과대학	중국학과
원○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과
한○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과
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국학과
목○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국학과
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중국학과
상○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중국학과

모두 중국학과이다. 그런데 그것의 소속은 문과대학이나 인문대학일 때도 있고 사회과학대학일 때도 있으며 인문사회과학대학일 때도 있다. 태초부터 그 단과대학 소속이었을 수도 있고 학과의 방향 변화나 통폐합 등의 이유로 그것의 명칭이나 소속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다만, 중국학과가 거쳐온 명칭이나 소속의 변화 또는 그 정세는 본고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보다 본고는 교육과 연구 대상으로서의 '중국학'이 과연 '인문'과 '사회' 중 어느 범주에 속할까 하는데 의문을 품었다. 나아가 양자 간 경계를 넘어 총체적 단위로서의 중국학이 갖는 목표 설정은 가능할까,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든 언어가 그것의 토대를 이룬다면 언어학은 중국학이란 테두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질문을 던졌다. 본고는 이들 질문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개진해보고자 하였다.

二

'중국학'하면 '국학(國學)', '경학(經學)', '제자학(諸子學)', '(文·史·哲로서의)문헌학', '한학(漢學)', 'Sinology', 'Chinese studies', 'China studies' 등의 학명이 연상된다. 이에 대해,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면 연구대상과 범위, 연구목적과 시발 시기, 연구주체와 목적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國學'에 대한 『現代漢語詞典(第六版, p. 497)』의 정의를 살펴보자.

"稱我國傳統的學術文化, 包括哲學、歷史學、考古學、文學、語言文字學等(본국의 전통적인 학술 문화를 가리킨다. 철학, 역사학, 고고학, 문학, 언어문자학 등이 포함된다.)"

상기 정의에 제시된 개별 학문 분야들로 미루어 보면 풀이된 '국학'의 중심이 '문·사·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것의 뿌리가 경학인데 기인한다.

"[(표제어:) 경학 經學]청 말, 경학은 제자학·송 명리학과 문학까지 포괄하여 중국 고유 학술의 중핵으로서 국학 國學 혹은 국고國故라 불리며 중국 고전학으로 탈피했다(p. 629). ……

[(표제어:) 제자학 諸子學] 청말·민국 초에 경학·사학의 학문 방법을 이용하여 그 연장선에서 확립된 전국 시대의 사상과 학술을 연구하는 학문의 하나다. 국학國學(國故學)은 자학子學·제자백가학諸子百家學이라고도 칭하며(p. 653), …… "

-『중국사상문화사전』, 溝口雄三 등 저, 김석근 등 역, 서울: 책과 함께, 2011.

상기와 같이, '국학'은 '경학'이 그 연구대상을 문학의 제분야로까지 확대시키면서 과거 경(經) 본위였던 명칭이 변경된 결과이며, 그 결과 '국고학(國故學)' 또는 '제자학(諸子學)' 등으로도 불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학'은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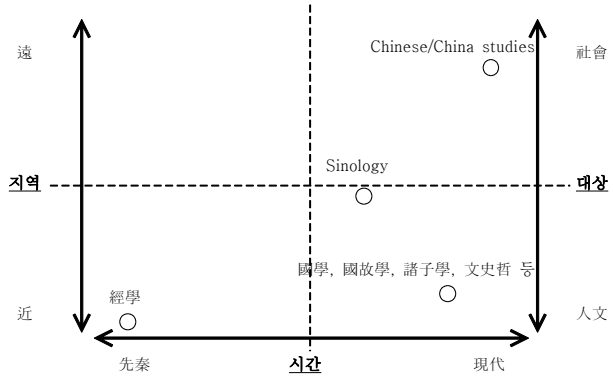
"國學, 是以先秦經典及諸子百家學說為根基, 它涵蓋了兩漢經學、魏晉玄學、隋唐道學、宋明理學、明清實學和同時期的先秦詩賦、漢賦、六朝駢文、唐宋詩詞、元曲與明清小說並歷代史學等一套完整的文化、學術體系。中國歷史上「國學」是指以「國子監」為首的官學, 自 「西學東漸」後相對西學而言泛指「中國傳統思想文化學術」。(국학은 선진 경전 및 제자백가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양한 경학, 위진 현학, 수당 도학, 송명 이학, 명청 실학, 그리고 같은 시기의 선진 시부, 한부, 육조변문, 당송시사와 원곡, 명청 소설, 나아가 역대 사학 등을 포괄하는, 하나의 완정한 문화, 학술 체계를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국자감'을 중심에 둔 관학으로서 '국학'이 지칭되었으나 '서학동점'이후부터는 서양 학문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 문화, 학술'로 범칭되었다.)"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国学/128562.

'국학'이 자국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문·사·철 중심의 사상, 문화연구라면 '중국학'은 외국 학자들에 의한, 문·사·철을 포괄하는, 중국 전반과 관련된 연구를 가리킨다. '한학'으로도 불리는데 연구가 어디를 중심으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때론 (유럽 중심으로)'Sinology' 또 때론 (미국 중심으로)'Chinese studies'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漢學400年」,『騰訊新聞－北京日報(2005.12.30.)』, https://news.qq.com/a/20051230/000972.htm, 이하 동일 사이트 주소 생략).

중국학은, 서양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면 예수회가 전도를 목적으로 16세기 중엽부터 행한 중국연구를 그 기원으로 보고, 일본 학자들까지 포괄하면 14~15세기의 송학(宋學)연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漢學400年」,『騰訊新聞－北京日報(2005.12.30.)』). 서양의 중국연구 중에서도, 그것이 유럽 중심이었는지 미국 중심이었는지에 따라 연구대상과 명칭을 조금 달리하는데, 중국 문화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 유럽의 중국연구는 고전 문헌 연구 중심으로 발전했던 탓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반면 자본주의의 확대와 문화의 침투 등 자국의 국제 전략에 기여할 목적으로 흥기한 미국의 중국연구는 철저히 현실 문제 중심이었던 것이다(「漢學400年」,『騰訊新聞－北京日報(2005.12.30.)－』). 이에 문헌학을 본위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Sinology는 20세기 초반 사회과학을 본위로 한 미국의 중국학 흥기와 더불어 Chinese studies 가 병용되기 시작하였다(「漢學400年」,『騰訊新聞－北京日報(2005.12.30.)』).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학적 경향으로 확대될 경우, 서양의 여러 대학 연구소 명칭이 보여주듯, Chinese studies와 China studies가 병용되기도 한다.

상기 '국학'과 '중국학' 용어 관련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지역, 시간, 대상을 각각의 축으로 하여 중국대륙으로부터의 원~근(遠近), 선진시기~현대, 인문~사회분야를 표시하였다.



이에 기본적으로, 經學은 '근－선진－인문(> 사회)', 國學 등은 '근－근대－인문(> 사회)', Sinology는 '원－근대－인문(> 사회)', Chinese studies는 '원－현대－사회(> 인문)' 영역에 위치시킬 수 있다. 다만, 이는 시발점 당시를 기준으로 가늠한 것으로서 각 명칭별 연구는, 한편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대상 또는 특색을 갖고 지속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 인문이나 사회 연구를 지양하고 스펙트럼적 관점에서 다소(多少)별 차이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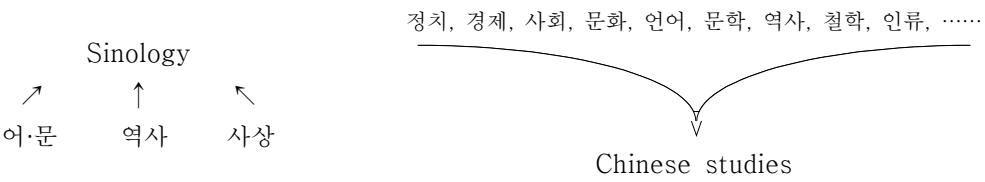
三

그런데 Sinology의 '-ology'는 어원적으로 "지식, 과학의 분과(branch of knowledge, science,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s://www.etymonline.com)"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것이 따라붙는 말엔 "어떤 대상, 특히 과학적인 대상에 대한 연구(the study of something, especially something scientific,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Fifth edition, 2009)"란 의미를 갖는다. 이에 'Sino-'와 '－ology'가 결합된 Sinology는 축자적 측면에서 '중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과)'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를 앞서 언급된 － 유럽을 중심으로 한 문·사·철 중심의 사상, 문화연구 － 내용과 연계시켜보면, Sinology의 Sino-가 가리키는 것은 중국의 모든 것이 아닌, 중국 문헌 또는 기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둔 Sinology는 문·사·철 연구(philology)가 상대적으로 중시된 분야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 고대 경전 및 제자의 기록들을 토대로 인간/사회 현상에 관한 보편 원리를 궁구하려던 학문 분과'가 과거 Sinology의 시발점이며, 해석과 고증 및 비평 등이 그것의 목적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서 기능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반해, Chinese studies는 Chinese study의 복수형이다. Chinese와 관련된 특정 학문 분과들의 통칭으로서의 Chinese studies이다. Chinese studies는 고전 중심의 유럽 중국학 － Sinology － 으로부터 탈피하려던 미국이 현실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따로 명명한 데서 출발하였다(「漢學400年」,『騰訊新聞－北京日報(2005.12.30.)』). 하지만 오늘날 Chinese studies는 기존 사회과학의 제분야와 문·사·철 중심의 Sinology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사용되곤 한다. 물론 그 역으로서, "중국의 언어, 역사, 관습, 정치에 관한 연구(The study of Chinese language, history, customs, and politics, *English Oxford Living Dictionaries*, https://en.oxforddictionaries.com)"와 같이 기존의 Sinology에 사회과학 분야를 포함시키면서 Chinese studies와 Sinology를 동일한 개념으로 지칭하기도 한다(Wikipedia, https://ko.m.wikipedia.org/wiki/중국학).

다만, Sino-와 Chinese, -ology와 study를 각각 등가로 둔다면 어느 것으로 불리든지 무관하겠으나, -ology가 나름의 일관된 내부 체계와 방법론을 함의한다는 점에서(그러므로 복수지칭도 불가하다) 오늘날 중국학으로 지칭되는 연구 범위를 참고하면 Chinese studies으로 불리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상기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부연하면, Sinology는 문·사·철의 각 사유 대상이 일관된 내부 체계와 방법론에 의해 연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Chinese studies는 중국과 연관된 여러 개별적 학문 분야가 하나의 이름으로 통칭되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관련 현상들에 대해 나름의 툴과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과 해석을 가한다는 점에서, '이것도 Chinese studies에 포함되는가'보다는 '그 결과는 중국에 관한 것인가'가 Chinese studies에서 더욱 큰 중요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에 소급되는 학문 분야도 개방적 – 상기 "……"와 같이 – 이라고 볼 수 있다.

四

한국의 여러 중국학 학술단체 중 한국중국학회와 대한중국학회를 잠시 비교해 보자. 학회 간 비교에는 여러 대상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간 비교가 가장 용이할 수 있다. 이는,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학회 성원들의 연구 활동 결과, 즉 학술지 논문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선명함을 띠기 때문이다. 다만, 학술지가 담아내는 연구 분야의 소급은 학술지가 가진 체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아래는 양자간 체제 비교에 국한한다.

한국중국학회에서 발간하는『중국학보(中國學報)』는 기본적으로 문·사·철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그것의 체제도 '어문학', '사학', '철학'으로 나뉘어 있다. 이는 앞선 논의에 기대어 볼 때, 기원적 측면에서, 문헌학(philology)을 중국학의 기본 토대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실리는 연구 성과들은 과거를 지향하는 — 탐구하는 — 문헌학의 그것과 달리, 과거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현·당대의 제(諸)현상들 역시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중국학회에서 발간되는『중국학(中國學)』은, '기획'과 '일반'의 구분만 둘 뿐, 상기와 같은 문·사·철의 경계를 두지 않는다. 나아가 인문과 사회 간 경계 역시 부재하다. 중국과 관련한 제(諸)현상에 대해, 어·문학, 문화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철학 등 각 분야별 분석과 해석이 실려 있다. 이 같은 점은, 문헌학 기반의 중국학 연구 —『중국학보(中國學報)』— 와 달리, 현실 사회 문제를 중시하는 사회과학적 경향을『중국학(中國學)』이 상대적으로 많이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보면, '중국'이란 주제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음에도 상기 두 학회는 인문적 관점의 중국학연구와 인문·사회적 관점의 중국학연구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Sinology 대 Chinese studies 간에 보였던 상대적 대별성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다만, 그것이 어떤 경향을 띠든지 간에, 또는 한쪽은 역사와 철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다른 한쪽은 정치, 경제 분야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고 해도, '어(語)'와 '문(文)'은 늘 그것의 공통분모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양국의 밀접한 지리적 관계와 오랜 교류에 기인한 상호 간 영향의 자연적인 수수(授受)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예컨대 상기 미국 중심의 중국학을 참고할 때,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문'을 대하는 서양의 태도와 달리 한국에서는 중국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어문'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문' 이외 분과의 연구가 중국학에서 좀 더 활발할 필요가 있음을 뜻하는 동시에, 현재 한국의 중국학연구에서 점한 비중만큼 '어문'도 일개 분과 그 이상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五

앞서 '중국 정치학, 경제학, 문화학, 사회학, 언어학, 문학, 철학 등의 합(合)이 곧 중국학일 수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과 관련된 결과인가'에 따른 소급 범위의 개방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하위 범주들의 합이 곧 전체로서의 상위범주로 환원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정의적 차원에서 '중국학'이란 통칭이 허용된다면 총체로서의 중국학이 갖는 목표 또한 그에 맞게 설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여러 연구 분과들이 무엇을 목표로 할 때 총체로서의 한 학문으로 불릴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세균(2011, p. 13)이 학문의 세분·전문화와 융·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든 정치학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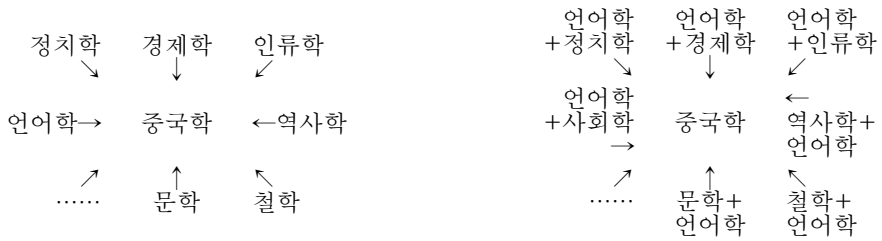
> "정치학은 원래 사람들의 사회적 삶의 단위로 기능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 원리와 작동 방식 등을 해명하고 그 공동체 전체의 재생산이나 변화에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는 통합 학문의 성격이 강했었다. 그러다가 학문의 세분화·전문화 과정이 진척됨과 더불어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은 점차 선거나 의회 정치와 같은, 다른 사회 과정들과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정치 과정 그 자체만을 연구하는 '분과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으로 변모하게 된다. 정치학을 권력 관계 그 자체만을 연구하는 '순수' 정치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 역시 정치학 고유의 주제를 탐구하려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다"
>
> – 김세균(2011), 「들어가며」, 『학문간 경계를 넘어』, 김세균 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 13.

본고는 상기 논의 중 "정치학은 원래 사람들의 사회적 삶의 단위로 기능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 원리와 작동 방식 등을 해명하고 그 공동체 전체의 재생산이나 변화에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는 통합 학문"이란 정의가, 상당히 거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중국학을 '중국이란 (정치, 경제, 문화, 언어 ……) 공동체 내에서 구조적 속성과 작동 원리 등에 관련된 제(諸)현상들의 생산 메커니즘을 해명하고 그에 요구되는 지식을 탐구하는 통합 학문' 정도로 정의할 경우 총체로서의 중국학 아래 여러 관련 학문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중국학이 '인문'과학의 영역인가 아니면 '사회'과학의 영역인가란 이분법적 질문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 그 대신, "인간의 사회·문화적 현상의 관계(p. 11)"를 중심으로 두 영역이 통합된 "인간과학(p. 11)"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김세균 2011, 『학문간 경계를 넘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 같은 관점은 기존의 중국학이 재고할 점을 던져준다. 즉, 중국학을 분과 학문들의 선형적 나열이 아닌 총체로서의 중국학일 수 있으려면 '섞임'의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찰에 기대어 보면, 현재 중국학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분석과 비판, 설명과 이해가 진지하게 수행되고 있다. 문제는 세분화와 전문화가 지속적으로 지향되어 온 데 반해 그에 대한 반작용적 연구, 다시 말해, 총체적 또는 학제적 연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점을 반추할 때 중국학으로서의 언어학은, 인문적 중국학에서든지 사회적 중국학에서든지 어(語)는 늘 그것의 사유 도구로서 기능해왔다는 점에서, 기타 세부 학문 분야보다 학문 간 섞임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六

그렇다면 총체로서의 중국학이 갖는 공동의 목표 아래 언어학은 향후 어떤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 중국학으로서의 언어학은 기본적으로 언어(또는 변종)에 대한 거시적, 도구적, 기능적 관점이 요구된다. 그 언어가 내부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는가 보다는 어느 언어가 선택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갖는가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자.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이 그것이다. 먼저 내부적 측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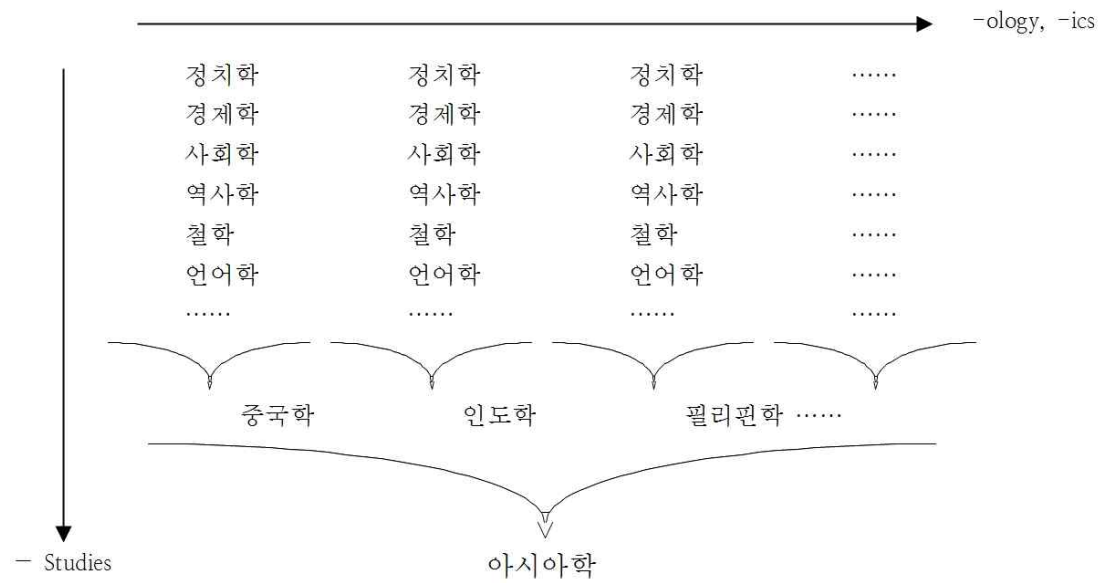


왼쪽은 언어학을 세부 학문 분과 중 하나로 설정한 것이고 오른쪽은 기존 학문 분과들과 융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언어학을 설정한 것이다. 둘 다 중국학을 보여주고 있으나, 왼쪽은 총합으로서의 중국학을, 오른쪽은 총체로서의 중국학을 보여주고 있다. 언어와 방언을 모두 하나의 변종(variety, 變體)으로 바라보면 어느 변종이 상대적으로 위세를 갖고 또 공용어로 선택되는지는 그들 간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 즉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보통화와 광동어를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양자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설명된다. 하지만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왜 어떤 변종은 공용어의 지위를 갖고 어떤 변종은 그렇지 못한가, 또는 말이 그토록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의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문제는 언어적 관점만으로 설명이 어렵다.

또한 “언어에는 가치의 차이, 등급, 격차가 있다(井上史雄[2011, 김덕호 등 역 2015,『경제언어학－언어, 방언, 경어』, 서울: 역락, p. 34])”. 보통화라는 변종은 공용어란 지위를 기초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중국어 학습자들은 보통화를 배우는 데 기꺼이 돈을 투자하지만 광동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다. 학습 활동은 중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학습 결과는 취직이나 승진 등 학습자들의 경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은 나아가, 중국 내부로 눈을 돌리면, 경제 활동을 위해 민족어와 공용어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소수민족들의 문제를 이해할 때도 유효할 수 있다.

이렇듯, 상기 현상들은 그것이 언어－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관점만을 견지한다면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것은 언어적 문제이면서 정치적 문제이고, 정치적 문제이면서 경제적 문제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설명이 가능하다면 세부 학문 분야 중 어느 분야든지 접근할 수 있고 또 공동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외부적 측면이다. 이는 중국 내부를 보는 관점의 확대이다. 한 언어의 개별 음운, 형태, 통사 단위보다, 총체로서의 한 언어가 해당 공동체(국가－지역－세계)에서 기타 언어들과 맺는 관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학의 하위 범주로 중국학을 위치시켜야 한다. 아래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먼저 횡렬을 보면,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설명하는 공동의 방법론과 이론이 하나의 체계가 되어 각각 politics, economics, sociology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그것들이 종렬과 같이 국가별로 모이면 Chinese studies, Indian studies, Philippine studies 등이 된다. 이것이 모이면 더 이상 일개 국가가 아닌 지역이 한 단위가 되어 Asian studies를 구성한다. 아시아를 한 단위로 놓으면 아시아의 일개 구성국으로서 중국이 위치하게 된다.

중국의 경제 부상에 따른 중국어의 미래 위상을 논할 때면 흔히 '전 세계'가 전제된다. 그리고 주요하게는 그것이 세계어(global language)가 될 것인지가 논의된다. 그 결과 흔히 중국이 속한 지역 – 아시아 – 은 흔히 간과되어 왔다. 미래 아시아의 강대 언어 중 하나로서 중국어가 점쳐지기도 하나(강현석 2014, 「세계 주요 언어의 국제적 위상 변화 양상과 국내 외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함축」, 『언어과학연구』 69, p. 15), 아시아 각국의 여러 국내 상황과 그에 따른 언어 선택 등을 고려할 때 중국어가 단기간 내 아시아 내에서 국제 공용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측이 쉽지 않다. 단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에서도 영어는 유일 통용어(working language)로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23개의 통용어가 존재하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상당히 비교된다(Andy Kirkpatrick 2010,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ASEA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p. 7).

주지하듯 중국의 공용어는 보통화(普通話)이다. 그간의 언어학 연구는 주로 보통화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중국이란 한 곳에 줄곧 고정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로서의 중국은 정치학이나 사회학 등 사회과학에서 다뤄야 할 개념으로만 생각했을 뿐 언어 연구의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중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고려보다(또는 당연시하고) 중국의 '어'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이제 당연시된 전제로서의 중국이 아닌, 아시아 구성국으로서의 중국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아시아의 각 국별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중국어가 가진 위상과 지역 매개어로서 점할 위상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은 지면 관계상 따로 나열하지 않고 본문에 기 제시된 서지사항으로 대신합니다.

【메 모】

【중국어학 분과】 발표 ②

뇌친화적 접근의 한자수업이 초등 학습자의 한자인식에 미치는 영향
— 이미지텔링 연상법 활용을 중심으로

신승란 (창원대)

【목 차】

1. 머리말
2. 뇌기능적 특징과 이미지텔링 연상법
   1) 초등학생의 뇌분화 양상과 뇌기능적 특징
   2) 뇌친화적 한자수업 적용과 이미지텔링 연상법
3. 초등학습자의 한자인식 실증 분석
   1) 이미지텔링 한자수업 적용
   2) 연구과정과 방법
   3) 연구결과
4. 맺음말

국내 초등 교실환경에서 한자교육은 대부분 좌뇌기능 중심의 교수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습자의 뇌발단 단계와 한자의 뇌기능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한자교육은 우뇌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교수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습자들에게 뇌친화적 한자수업의 필요성을 제기할 목적으로, 그 방안의 하나로써 '이미지텔링 연상법'을 통해 한자인식의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국내 초등학생 38명을 대상으로 뇌친화적 한자수업을 제공한 결과 기존방식대로 한자수업을 받은 집단보다 '이미지텔링 연상법'을 적용한 집단의 학습자가 한자의 장기기억화에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뇌친화적 교수방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1. 머리말

한자 교육은 학습자들의 부족한 어휘력에 분명하고 명확한 개념을 형성시키고, 교과서 개념과 이해도 및 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1]. 최근에는 어린이 중국어 리터러시 교육과 결합하여 성인과 구별된 '맞춤식 초등한자교육'에 대한 고민이 일고 있다[2]. 그러나 실제 교실현장에서 초등학습자들이 느끼는 한자는 여전히 학습하기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이정희(2004)와 신한미(2018)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서 한자 학습/교육이 어렵다는 설문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교실환경에서 한자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습과 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습자의 뇌기능에 의존하여 처리되고, 이 중 언어영역은 일반적으로 좌뇌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한자는 표음문자와 달리 형상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고 독음과 글자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형의 식별을 담당하는 우뇌의 가공 과정이 상당부분 필요하다[3]. -이하 생략-

1) 김경환(2003), 황명환(2002), 김덕진(2015), 장성익(2014), 신영선(20016)
2) 김민영(2016)은 사립초등학교에서 중국어 정규과정을 편성한 비율이 전국75개 중 42개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과서와 교실활동의 대부분이 우뇌보다는 좌뇌 중심 활동에 치우쳐 있다[4]. 이런 상황은 뇌기능 분화 발달의 불균형과 우뇌 학습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5]. 고영희(1993)는 저학년에 우뇌 우세자가 많다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좌뇌 우세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지만 현 교육환경은 어린이 학습자의 뇌발달 과정과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6]. 게다가 중국어 및 한자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뇌과학에 대한 의학적·공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목한 뇌친화적[7] 교육 연구는 오늘까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뇌 기능 및 뇌 발달 과정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이를 근거로 한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제 중국어 교실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때문에 뇌발달 과정에 있는 초등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자의 뇌 기능적 특징을 고려한 소위 뇌친화적 교수방안이 실제 교실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의미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방법의 하나로써 '이미지텔링 연상법'이 초등학습자들의 한자 인식에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분석하여, 연구적 각도에서 중국어 교육에 뇌친화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뇌기능적 특징과 이미지텔링 연상법

1) 초등학습자의 뇌분화 양상과 기능적 특성

인간의 뇌는 초기에는 기능적 차이 없이 유사성을 가지고 고루 발달하다가 5세를 기점으로 점차 좌·우뇌 기능적 분화 현상이 시작된다. 6세-12세때 측두엽이 발달되고 12세 이후로 후두엽 발달이 일어난다. 측두엽 발달 시기는 초등학습자 해당 연령으로, 언어능력과 창의적 상상의 발달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자 좌·우뇌 분화현상의 전문화가 이 때 이루어진다.

초등학습자들의 뇌분화 과정은 환경적 노출과 교육방식에 따라 시기적 차이를 보이나, 우뇌에서 좌뇌로 점차 활성화 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8]. 저학년 때 우뇌발달이 이루어지다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좌뇌기능이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뇌분화가 완전해지기 이전에는 좌·우뇌를 모두 사용하는 양뇌형 비율이 높아진다.

초등 학습자들의 뇌기능 발달 과정이 우뇌에서 좌뇌로 이동된다면 교육환경도 이러한 발달과정을 근거로 제공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뇌친화적 교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선 각 뇌기능에 대한 이해와 기능별 교수방안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좌·우뇌 기능별 특성은 Brown(2001)의 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기능별 교수방안은 신승란(2017)의 연구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3) 卫志强,『当代跨学科语言学』, 北京语言学苑出版社, 1992
4) 남수극,「한자능력 상.하 집단간 어휘력 및 뇌 활성화 차이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 2010
5) 김병철,「교사와 아동의 뇌기능 분화와 초등과학 교수·학습의 관계」,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2
6)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처리하며 출력하는 일련의 활동에서 좌뇌와 우뇌 중, 주 통제를 받거나 강한 선호도를 보이는 쪽이 어디인가에 따라 '좌뇌형' 또는 '좌뇌우세'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학습자가 특정 기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좌·우뇌를 두루 사용할 경우는 '양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7) 뇌친화적(brain-compatible)은 1975년 Leslie A. Hart가 사용하여, 지금까지 학교 교육에서 뇌의 정보처리 특성을 적용하는 교수-학습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다루어지고 있다.
8) 고영희,『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실패하는가』, 서울;배영사, 1993

좌뇌 기능	우뇌 기능
. 언어적	. 비언어적
. 구두지시와 설명에 반응	. 도형 혹은 상징적 지시에 반응
. 계획적, 단계적, 분석적	. 유동적, 종합적, 자발적
. 논리적 문제해결	. 직관적 문제해결
. 체계적, 통제적	. 자유분방
. 말하기와 쓰기에 강점	. 그리기와 사물의 조작에 강점
. 선다형 테스트 선호	. 개방형 질문이나 주관식 선호
. 지침서, 설명서 등을 선호	. 시각화(이미지) 자료 등을 선호
. 이해를 통한 정보습득	. 반복적 활동을 통한 정보습득
. 연역식	. 귀납식

좌뇌식 교수방안	우뇌식 교수방안
. 구두식 설명 중심	. 시각적 정보 병행
. 순차적. 정렬식 판서 방식	. 자유로운(다발식) 판서 방식
. 교재 중심	. 교재 외 활동 자료 병행
. 기록화, 결론(요점) 도출 기반	. 반복화, 활동 중심 기반
. 참고도서, 서면자료 제시	. 동영상, 활동 프로그램 제시
. 상향식 수업	. 하향식 수업
. 교실환경 통제	. 자유로운 교실환경 보장
. 지침서, 설명서 등을 활용	. 시각화(이미지) 자료 등을 활용
. 객관식, 개방형 과제	. 주관식, 제시형 과제
. 단어의 의미와 발음 중심	. 문장의 의미와 상황 중심

좌·우뇌 특징을 교육환경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고 유의미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가령, 머리셈은 수리력과 추리력이 필요한 좌뇌영역의 연산과정이지만 우뇌 기능 영역인 시각화를 통해 이미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우뇌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 임청묵(2007)의 연구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뇌친화적 교수방안은 중국어 교육환경에 익숙한 연구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초등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찾기 힘들다. 그러나 중국어 전공자 479명을 대상으로 뇌기능을 분류하고 관련 교수법을 제시한 신승란(2017)의 연구를 기반으로 볼 때, 초등학습자에게 맞는 교실활동으로 변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학습자들의 한자인식 방법과 관련한 뇌친화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장식 교실활동 중심으로 구현하기로 한다.

2) 뇌친화적 한자수업 적용과 이미지텔링 연상법

한자수업이 국내 교육과정에 배정되는 시기는 중학교이지만[9], 중국은 초등학교 1,2학년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시기적 기준은 모국어/외국어 교육의 관점, 영어중심/제2외국어 관점 등 여러 배경이 근거로 작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한자교육방식의 대부분이 부수 중심 지도법, 구조 분석법, 쓰기 중심 등의 좌뇌 중심활동임을 감안해 볼 때[10],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뇌기능발달 과정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

9)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한자교과서는 <중학교 교육용 한자> 900자 수록으로 집필 되어 『한문』14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수하고 있다.

10) 한영석, 「한중 한자교학 비교 연구」, 『국제학술대회자료』 p84-89, 국제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1

다.

언어학습은 좌뇌기능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한글이나 영어와 같은 표음문자를 근거로 한 것들이다[11]. 한자는 이러한 좌뇌 중심 기능과는 달리 문자 인식과정에서 좌・우뇌가 종합적으로 운용되는 '复脑文字'이다. 또한 표기체계에서도 표음문자는 철자와 음운이 잘 일치하는 특성을 가지지만 한자는 매우 불규칙적이다. 조장희(2013)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자와 한글의 인지과정을 뇌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자와 한글을 읽을 때의 뇌 사용부위가 다름을 밝혀냈다. 刘景钊(2013)는 학습자가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와 상관없이 한자인식과정에선 모두 좌・우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때문에 상기의 내용을 근거로 초등학습자들의 뇌발달 단계와 한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시기적으로 한자교육은 중국과 같이 초등학교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2]. 또한 우뇌형 또는 양뇌형이 많은 초등학습자인 만큼 방법적으로 우뇌기능 중심의 교수법을 보다 강화하여 좌・우뇌를 고루 활성화 할 수 있는 뇌친화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뇌친화적 한자교육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초등 학습자 한자수업은 언어학습과 관련된 우뇌기능에서 다음의 특성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뇌는 사고와 기억을 이미지에 의존하는 비언어적 성향을 가지므로 한자의 形, 音, 意를 문자적 기호 대신 이미지로 전환 할 수 있다. 여기서 비언어적이라 함은 비단 시각적 경로뿐만 아니라 음율, 신체적 활동 등의 음악적・공간적 영역도 포함한다.

둘째, 우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량의 입력이 가능하고 반복적 학습만으로도 정보입력이 가능하다.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시각적 자료와 반복적 활동중심의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우뇌는 유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종합적인 사고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배제하고, 복합적인 행위와 사고가 동반되는 참여식 과업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상기 우뇌기능의 특성을 참고하여 초등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한자 수업방식에는 이미지텔링 연상법을 들 수 있다.

이미지텔링(Image Telling)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 단어나 문장 등의 정보에 대하여 마음이나 심상에 떠오르는 직관적 인상(Image)을 말(Telling)로 표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학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교수법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연활동이란 점에서 '이미지텔링'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은 근본적으로 일정한 줄거리 또는 사건의 흐름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구어적 활동인 만큼, 자(字)의 개념을 形, 音, 意의 각도에서 두루 이해해야 하는 한자(표의문자)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하 생략- 즉, 이미지텔링은 표의성을 가지는 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字)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을 이미지로 전환하고, 전환된 이미지는 구어적 활동(말하기, 노래하기 등)으로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는 연상법이다.

초등학습자들에게 이미지텔링 연상법을 적용할 경우 학습적・정의적 측면에서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학습적 측면: 단계적 기억 접근방식이 교실환경을 벗어나도 유의식・반복식 학습을 가능케 해 장기기억화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학습한 것을 일정시간(단기적) 기억할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기억하지는 못한다. 인간의 뇌가 정보를 장기기억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뇌의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반복적 자극을 우리는 소위 환경노출, 복습이란 표현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미지텔링 연상법은 학습자들이 교실 밖에서도 자발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교수매체가 될 수 있어 한자의 구조와 의미를 장기기억화 하는데 도

11) 肖潇,「脑科学研究背景下的汉字认知」,『语文学干』, 第8卷, 44-45, 2010
12) 본 연구에서의 '한자교육'이란 사교육을 배제한 정식 교육과정을 말한다.

움을 준다.

2. 정의적 측면: 반복적 환경노출을 유도하여 한자의 심리적 인식변화에 가산적 효과를 준다.

지선희(2009)는 한자 노출이 이루어진 초등학생 집단과 병음만 노출한 집단을 비교한 결과 한자노출이 더 많이 이루어진 집단일수록 문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한자접근을 더 쉽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미지텔링 접근법은 '한자는 쓰면서 암기하여야 하는 외국문자'라는 인식을 벗어나게 하고, 학습이라는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다.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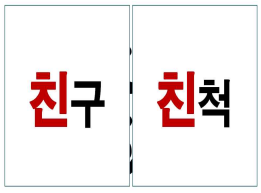
3. 초등학습자의 한자인식 실증분석

1) 이미지텔링 한자수업의 적용

한자의 이미지텔링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교과 한자인 親(친할 친)을 예로 들면[13], 이것은 立(설립) + 木(나무목) + 見(볼견)의 세 부건(部件)이 결합한 것이다. 먼저 초등학습자들에게 각 부건들이 가지는 의미(意)를 이미지로 전환하여 획순이나 편방의 쓰기 순서대로 노출시킨다. 이 때 이미지는 각 부건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그림이어야 하고[14], 반드시 해당 이미지의 실제 문자도 함께 노출해야만 한자의 形과 意를 통합하여 이해시킬 수 있다. 親의 의미와 형태가 완성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자 親 뿐만 아니라 立, 木, 見의 의미도 더불어 이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적 제시과정에는 그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이야기나 동요와 같은 구어적 표현을 병행해야 한다. 한자의 구성요소들은 이야기의 흐름이나 필요에 따라 부건 뿐만 아니라 부수(제부수 포함)나 기초한자(혹은 이미 학습한 한자)등도 활용할 수 있고, 각 부건별 색깔을 달리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기 내용에 대한 시각적 자료와 구어적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 있는(立)	나무(木)를	자주 보면(見)	(나무와)친해져요(親)

		- 굿거리 장단의 북소리에 맞춰 손동작 병행 - 교과서 출현 단어 함께 제시 - 시각자료와 가사를 동시에 진행
친할 친 (x2)	뚝딱 뚝딱 친구, 친척	

13)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학년별 한자 빈도수 조사(전지인,2015)에서 '親'은 학년 평균 130회 이상 출현하고 있는 주요 한자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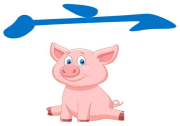
14) 만약 추상적 의미를 나타낼 경우 가급적 그 의미를 가장 잘 유추할 수 있는 그림을 선택한다.

한자를 부건으로 쪼개어 세부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목표한자까지 그 개념을 단계적으로 파악하고(분석적, 계획적, 논리적), 이미지를 서술적 표현인 이야기로 정보 전달을 하는 접근법(언어적)은 좌뇌기능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부건을 이미지로 전환하여 굿거리 장단으로 음악적 요소를 가미하고(비언어적), 이미지와 음악 손동작을 통해 시각・청각・근운동의 감각기관을 병행하며 반복하게 하는 행위(유동적, 종합적, 자발적)는 우뇌기능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구두식 설명과 상향식 수업, 이해를 동반한 정보습득 과정중심의 과업을 좌뇌기능 교수방법으로, 시각적 정보를 병행하고, 반복적이며 활동 중심의 과업을 우뇌기능 교수방법으로 제시한 신승란(2017)의 연구와도 부합한다.

2) 연구과정과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습자 38명[15]을 대상으로 이미지텔링 접근법을 적용한 한자수업을 실시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통해 학습자들의 한자 인지 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이하 생략-

본 연구는 초등학교 1,2학년 교과 출현 횟수가 높은 한자 11자를 선정하였고, 음악(음률)과 한자 부수를 활용하여 굿거리 장단의 <노래1>과 상어가족 동요를 변용한 <노래2>로 분류하였다. <노래1>에 사용된 제시한자는 親(친할 친), 分(나눌 분), 時(때 시), 重(무거울 중), 算(셈 산), 食(먹을 식)의 6자이고, <노래2>에는 家(집 가), 室(집 실), 安(편안 안), 字(글자 자), 問(물을 문), 聞(들을 문), 間(사이 간)의 7자가 사용되었다[16]. - 이하 생략-

한자	이미지			
分				分
算				算
家				家
室					室
노래1	서 있는(立) 나무(木)를 자주 보면(見) 친할 친(親), (뚝딱 뚝딱) 친구, 친척 피자 여덟(八)조각 칼(刀)로 나누면, 나눌 분(分), (뚝딱 뚝딱) 분모, 분가 해(日)가 뜨면 절(寺)에서 종을 쳐요, 때 시(時), (뚝딱 뚝딱) 시간, 시계 천(千)리길 마을(里)로 가면 몸이 무거워, 무거울 중(重), (뚝딱 뚝딱) 중요, 체중 대나무(竹)를 눈(目)으로 보며 양손(廾) 세어요, 셈 산(算), (뚝딱 뚝딱) 계산, 암산 사람(人)은 좋은 것(良) 먹어야 해, 먹을 식(食), (뚝딱 뚝딱) 식당, 식탁			

15) 실험대상자의 특성: A사립학교 방과후 한자수업 학생12명, B학교 중국어 수업 학생 12명, C학교 방과후 중국어 수업 학생 14명

16) 한자의 세부 구성요소와 의미전개방식은 전문가(김균자:명지국제한자중국어통합교육원장, 한자사범)의 검증을 거쳐 작성되었다.

이미지텔링 교수법을 실시한 반은 실험집단A로, 기존방식대로 교실수업을 실시한 반은 B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집단 A와 B에게 같은 한자를 교수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학습자들이 배운 한자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의 테스트를 통해 두 집단 간의 한자 기억능력을 확인하였다. 실험 전에 각 학습자들의 한자능력 점검을 거쳐 최종 확정된 학습자는 38명이다[17]. 또 한자능력 점검을 통해 산출된 각 실험자들의 점수는 실험수업 후 재실시 되는 2차 한자 텍스트 결과분석의 근거값으로 사용되었다. 실험은 1회로 한정하였고 2차 테스트는 실험수업 1주일 후에 일괄 진행하였다.

집단 A는 이미지텔링 연상법을 활용한 시각자료를 제시하면서 노래를 반복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고, 집단 B는 한자들의 음과 훈, 뜻, 관련단어, 쓰기 순서 등을 판서와 함께 설명하고 실험자들에게 직접 쓰기노트에 10번씩 쓰면서 외우게 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3) 연구결과

실험을 통해 두 집단 간에 시행된 한자수업이 학습자들의 한자인식 및 학업성취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법의 학습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각 집단 간 쌍체비교를 통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A집단은 P=9.11E-12<0.05, B집단은 P=1.2E-08<0.05의 결과가 산출되어 두 집단 모두 학습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험결과의 차이(평균)를 바탕으로 두 집단의 분산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F검정 결과에서 P=0.01492<0.05의 수치가 산출되어 각 집단에서 실시한 교수법 효과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18]. - 이하 생략-

두 집단 사전·후 결과 (p<.05)

	N		평균	표준편차	t검정: 쌍체 비교
A집단	19명	사전(1차)	2.36	1.422	9.11E-12
		사후(2차)	10.05	1.904	
B집단	19명	사전(1차)	2	1.256	1.2E-08
		사후(2차)	4.89	1.118	

두 집단 간 교수 효과 분석 (p<.05)

	N	차이 (2차-1차)	F검정: 분산에 대한 두 집단	t검정: 등분산 가정 두 집단
A집단	19명	7.68	0.01492	4.52E-09
B집단	19명	2.89		

상기 통계적 결과를 통해 확보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다.

A집단의 한자 테스트 결과 학습자의 평균 정답율이 1차에선 평균 2개였으나 이미지텔링 연상법을 적용한 후 실시한 2차 결과에서는 평균 10개의 정답률을 나타내어, 실험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한자인식 결과는 평균 8개의 향상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B집단의 한자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1차 정답율이 평균 2개를 기록하여 그 평균이 A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험 전 두 집단 간의 학습평균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존 방식대로 수업을 실시한 후 테스트한 2차 결과에서 평균 5개의 정답율을 기록하였고 1-2차 간 평균의 정답률 차이가 3개로 나타나 역시 학습효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학습효과를 수치적으로 확인해 볼 때 A집단의 학습효과가 B집단보다 약 3배에 가까운 상승

17) 한자능력 점검은 실험자(字)11개 한자를 포함한 17문제를 제시하여 이들의 음과 훈을 기재하는 방식의 테스트로 진행되었다. 대상자는 최초 40명이었으나 결과에서 2명의 학생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실험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38명이 최종 실험자수로 확정되었다.

18) 분산에 대한 두 집단의 귀무가설은 '각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로 설정되었고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률을 보여 이미지텔링 연상법을 적용한 한자수업이 초등 학습자들의 한자인식에 더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맺음말

본 실험 결과를 통해 '이미지텔링 연상법'이 기존의 한자수업 방식보다 초등학습자들의 한자인식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바, 비단 한자수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어 교육 전반으로 뇌친화적 수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경환,「초등학교 한자어의 효율적 지도방안」, 부산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 2003.
김연옥,「좌우뇌 교육이 유아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대학교대학원, 석사, 2006.
김덕진,「고등학교 생명과학 용어의 한자어 뜻풀이가 학생들의 수업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15.
신승란,「중국어 학습자의 학습 선호도와 현장 교수 방법 사이의 갭 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 2017
이정희,「한자교육과 어휘력의 상관성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임청욱,「시각화한 머리셈 교육이 초등학생의 뇌발달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 2007.
정진성,「초등학생의 뇌기능 분화에 따라 마인드맵 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8.
전지인,「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위한 교육용 기초 한자 선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15.
황명환,「학습용어의 한자지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2.
杨兆乐,「成功汉语学习者的学习策略及学习风格研究」, 山东大学, 硕士, 2012.
刘景钊,「论汉字认知在促进儿童大脑两半球均衡发展的作用」,『教育生物学杂志』, 第1卷.第4期, 245-250, 2013.
肖　潇,「脑科学研究背景下的汉字认知」,『语文学刊』, 语言文字修辞, 2010.
徐子亮,「汉字背景与汉语认知」,『汉语学习』, 第6期, 63-37, 2003.
_____,「不同认知风格的汉语学习者在学习策略运用上的差异研究」,『国际汉语教学动态与研究』, 2006.
周小兵,『对外汉语教学入门』, 中山大学出版社, 2009.
卫志强,『当代跨学科语言学』, 北京语言学苑出版社, 1992
Brown, H. D. "*Teaching by principles*" (2n ed), New York Longman. 2001

【중국어학 분과】 발표 ③

중국어 “比”에 대한 경동사 가설 검토

유효단 (부산대)*

【목 차】

1. 들어가기
2. “比”에 대한 논쟁
3. 중국어”比”에 대한 경동사설의 가능성 분석
   1) 경동사 가설의 기초 --- VP Shell 구조 가설
   2) 경동사 이론의 제기 및 발전
   3) 중국어”比”가 경동사 이론에 적용되는 근거
4. 맺음말

【摘要】

지금까지 중국어 학교문법에서 비교 구문 중의 “比”가 개사라고 주장했지만 중국어 학계에서 “比”의 문법 지위가 무엇인지를 아직 논쟁이 많다. 2장에서 중국어“比”에 관한 주장은 주로 개사설, DegP Shell구조 가설, VP Shell 구조 가설 세 가지를 소개한다. 3장에서 VP Shell 구조 이론, 경동사 이론 및 경동사 이론이 중국어에 적용되는 상황을 근거하여 중국어 “比”에 대한 경동사설을 제기한다. 경동사 이론의 기초 및 발전 과정을 통하여 영어 ,한국어 ,중국어 경동사의 특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比”가 경동사 이론에 적용되는 근거를 제시한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중국어 “比”에 관한 경동사 가설의 합리성을 설명하도록 한다.

【關鍵詞】“比”, 개사설, DegP Shell 구조, VP Shell 구조, 경동사

1. 들어가기

비교구문은 사람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모든 언어에서 존재한다. Greenberg(1963)에서 30 종의 언어를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45 가지 보편문법 현상을 제시했다. 이중에 제 22조 규칙이 비교구문과 관련이 있다. 즉 비교기준-비교표지-형용사 어순을 가지는 언어는 후치사언어 이고 형용사-비교표지-비교기준 어순을 가지는 언어는 전치사언어이다. 따라서 우리 알고 있는 한국어는 전형적인 후치사언어이고 영어는 전형적인 전치사언어이다. 하지만 중국어는 이런 규칙을 위배한다. 중국어에서 전형적인 비교구문 어순이 비교표지-비교기준-형용사이다. 만약에 이 규칙에 따르면 한국어 비교표지"보다"는 후치사이고 영어 비교표지"than"은 전치사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칙을 위배하는 중국어 비교표지"比"는 과연 단순한 전치사로 판단할 수 있을 까?

지금까지 중국어 학계에서 대부분 학자들이 차등 비교 구문"比"자를 개사라고 주장한다. <현대중국어 사전>[1]에서도 "比"는 동사의 특징이 점점이 사라지고 개사로 허사화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어"比"는 동사로부터 전변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소수의 학자들은(徐國萍 (2007) 등) 개사설을 부정하지만 동사설도 완전히 인증하지 못했다. 또한 일부분 해외 중국어 학자들은(Liu Chen-sheng(1996), Xiang Ming(200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1) 呂叔湘·丁樹聲,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16.8, 제6판

3;2005)등) 변형 생성문법 측면에서 "比"비교구문을 분석했다. 특히 Xiang Ming(2005)에서 영어 비교구문의 DegP-shell 구조에 의하여 중국어 비교구문의 DegP-shell 구조를 설정했다. 다른 한편으로 Xiang Ming은 "比"가 동사 기능을 잃어버린 동사라고 보충했다. Erlewine, Michael(2007)에서 Larson(1988)의 동사구 껍질 구조(VP Shell Structure)가설을 도입하는 동시에 사건의미론 분석법을 결합하여 중국어 "比" 비교구문은 동사구 껍질 구조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어 비교구문 "比"에 대한 가설은 주로 개사설, DegP-shell 구조가설, VP Shell 구조가설 세 가지가 있다.

본 논문은 중국어 비교 구문 "比"에 대한 개사설, DegP-shell 구조가설, VP Shell 구조가설을 검증하고 이를 기초로 더 합리적인 경동사 가설을 제기하고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比”에 대한 논쟁

첫째, “比”에 관한 개사설이다.

呂叔湘 (1979) 와 朱德熙 (1982) 에서 중국어(차등)비교 구문 중의 “比”가 개사로 분류되지만 “比”의 동사적 성질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陳昌來 (2002) 에서 현대 중국어 개사가 전형적인 개사, 동사와 개사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개사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개사는 “對於(에 대하여), 根據(에 따라서), 除了(-을/을 제외하고)...”등을 포함하고 동사와 개사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개사는 "被(피동), 把(사동), 比(보다), 在(에서), 從(에서/부터)" 등이 있다. 劉丹青(2003)에서 처음에 언어 유형학적으로 중국어 개사를 분석하고 다시 분류를 했다. 즉 중국어 개사는 前置 개사, 後置 개사와 框式 개사[2]로 나뉜다. 중국어前置 개사는 전치사이고 동사로부터 변해왔으므로 동사와 개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예를 들면 "比, 把, 被, 在" 등이 있다). 중국어 後置 개사는 후치사인데 주로 NP뒤에 온 방위사를 말한다.("桌子上 (책상 위에), 家裏 (집에)"와 같이 NP+후치사로 구성된다). 중국어 框式 개사는 두 개의 pp로 구성되는 특수한 구조인데 항상 前置 개사 + NP+後置 개사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走在路上”, “从家裏來”, “像妹妹一樣漂亮” 등과 같은 문법현상을 框式 개사구조이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어 " 比"를 前置 개사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해외학자 Liu Chen-Sheng(1996), Jo-Wang Lin(2009)에서도 “比”를 개사로 설정하고 “比”에 의한 DegP 구조를 구축했다.

둘째, “比”에 관한 DegP Shell 구조가설이다.

XiangMing(2005)에서 중국어 비명시적인 비교구문(Implicit comparative)과 영어 비교구문의 대조를 통하여 타동사 비교구문(Transitive comparative)의 구조를 분석했다. 영어 비교구문의 DegP Shell구조에 따라서 중국어 비교구문의 DegP Shell구조를 구축했다. 중국어 차등비교구문은 비교표지의 유무에 따라서 명시적인 비교구문(Explicit comparative)과 비명시적인 비교구문(Implicit comparative)[3]으로 나뉠 수 있다. 또한, 비명시적인 비교구문이 타동사 비교구문이다. 명시적인 비교구문과 비명시적인 비교구문은 다음과 같이 보인다.

(1) ㄱ. 他 比我 高10cm。 (명시적인 비교구문)
그가 나보다 10cm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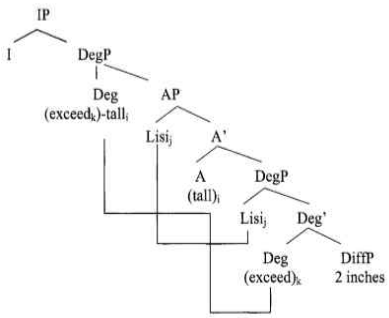
2)Greenberg(1995)에서 처음에 "Circumposition"이라는 개념이 제기했다. Circumposition는 preposition(전치사) 및 proposition(후치사)와 달리 전치사와 후치사로 같이 구성되는 한 가지의 특수한 문법현상이다. 이런 특수한 개사는 중국어에서 잘 쓰이는데 刘丹青 (2003) 에서 이를 "框式 개사"라고 한다. 예를 들면 "从家裏 , 在桌子上, 像小孩似的, 像他们一樣..."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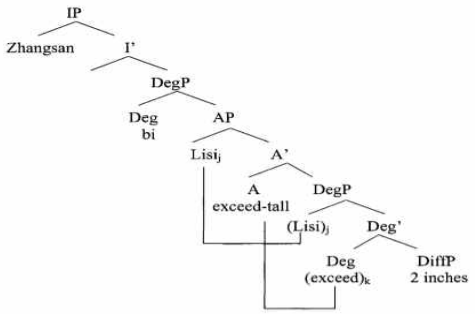
3) 명시적인 비교구문과 비명시적인 비교구문이라는 개념은 Kenedy(2005)에서 제기되었다. 명시적인 비교구문은 비교 표지를 가지는 반면에 비명시적인 비교구문은 비교 표지를 가질 수 없다.

ㄴ. 他　　高我　　10cm。(비명시적인 비교구문)
　그가 나보다 10cm 더 크다.
(2) ㄱ. 他　比我　高。
ㄴ. *他　　高我。
　그가 나보다 크다.

의미역 부여 일률성 가설(Baker 1988)에 따르면 동일한 의미역 관계는 동일한 통사 구조적 관계를 갖는다 (최기용·박소영 2017). 중국어“ 张三　高　李四　2厘米 ”와 같은 비명시적 비교 구문은 명시적 비교 구문과 또 같은 기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比”의 DegP Shell구조는 (3)과 같은 비명시적 비교구문에 의하여 구축된 것이다.

(3) 张三　　高 李四　2厘米。
　장산이　 리스보다 2cm 더 크다.
(4) 张三　比李四　 高 2厘米。
　장산이 리스보다 2cm 더 크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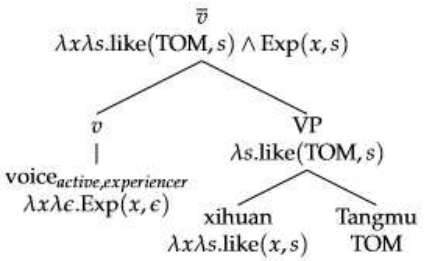
XiangMing(2005)에서 주장한 DegP-hell구조 가설은 명시적인 비교구문과 비명시적인 비교구문 심층구조의 일치성을 지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국어 명시적 (차등)비교구문에서 수량표현이 왜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모든 명시적 비교구문이 왜 비명시적 비교구문으로 변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다.

셋째, 중국어 “比”에 관한 VP Shell 구조 가설이다.

Erlewine, Michael(2007)에서 처음에 새-Davidson 사건 의미론[5]을 이용하여 중국어 "比"비교구문을 분석했다. "比"에 대한 개사설과 동사적 성질을 부정하고 Larson(1988)의 동사구 껍질 구조(VP Shell Structure)가설을 도입하는 동시에 사건의미론 분석법을 결합하여 중국어 "比" 비교구문은 동사구 껍질 구조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5)　約翰　比瑪麗　　喜歡湯姆。
　Jhon　likes Tom more than Mary.
　　죤은　 마리보다 탕모를 더 좋아한다.
(6)[[voice active, experience]]= λxλε.Exp(x,ε)
(7)

4) 이 나무 그림은 XiangMing(2005:192)에서 참조할 수 있다.
5) Davidson(1975)에서 행위동사를 사건의 존재와 관련시켜서 사건 바탕의 의미이론을 제기했다. Higginbotham(1985,2000)과 Parsons(1985,1990,2000,2002)에서 Davidson(1975)의 사건 의미 이론을 기초로 하여 "새-Davidson 사건 의미론'을 제시했다. 새-Davidson 사건 의미론에서 일반적인 행위동사뿐만 아니라 명사, 형용사, 전치사까지 다 새-Davidson 사건 의미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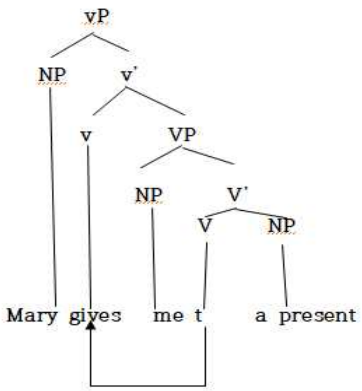
위의 (5),(6)에서 보이듯이 중국어 “比”는 세 가지 기능을 포함한다고 알 수 있다. 첫째, 사건e1과 사건e2를 통하여 두개의 외부논항을 도입한다. 둘째, “比”는 사건e2(즉 비교기준)를 결속한다. 셋째, 정도술어에 의하여 사건 e1가 사건e2와 비교되는 정도의미를 표현한다. 따라서 “比”의 의미해석은 단순한 정도 비교가 아니라 세 자리 서술어를 취하는 <e,t>의미유형이다.[7] 다시 말하자면, 비교대상이 “比”로 도입된 것이고 비교 기준이 정도술어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어 “比”비교구문은 vP-Shell 구조에 적용될 수 있다.

3. 중국어“比”가 경동사 이론에 적용되는 가능성 분석

1) 경동사 이론의 기초: VP Shell 구조

동사구 껍질구조(VP Shell구조)가설은 처음에 Larson(1988)에서 영어 중의 이중 목적어 구조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다. 핵 계층 이론에 따라서 이분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동사가 세 개의 논항을 가지는 경우에는 삼분지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arson(1988)에서 VP Shell구조 가설(동사구 껍질 구조)를 제시했다. 즉 ″give″에 의하여 두 개의 동사구가 중첩되어서 형성된 구조는 동사구 껍질 구조이다. Larson은 ″give″를 v와 V로 분리되었다. v는 기능 핵으로서 어떤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표현한다. V는 기능 핵이 없이 남아있는 동사″give″이다. 다시 말하자면 v는 기능 핵으로서 외부 논항을 부여하는 것이고 V는 내부 논항을 부여하는 것이다. v에 의한 상위구조(vP)는 V에 의한 하위구조(VP)와 복합하여 동사구 껍질 구조(VP Shell Structure)를 형성한다. 나무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8)



Kratzer(1996)과 Marantz(1997)에서 Larson(1988)의 VP Shell구조 가설을 기초로 하여 좀 더 보충했다. 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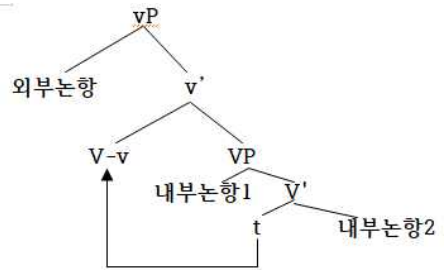
6) Erlewine, Michael(2007)에서 32페이지를 참조 가능함.
7) 영어에서 비교형태소″er″의 의미유형은 정도 서술어 의미를 나타내는 <d, t>의미유형이다. 하지만 중국어 “比”의 의미유형이 다르다.

atzer(1996)에서 v가 Voice로 설정하고 v가 실제적으로 외부논항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능 핵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Marantz(1997)에서 외부논항이 V(어휘동사)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능 핵에 의하여 도입된 것이다.

2) 경동사 이론의 발전 및 적용

경동사(Light verb)라는 개념은 Jespersen(1942)에서 처음에 제기되었다. Jespersen(1942)에서 탈동사적 명사(deverbal noun, VN)를 분석했는데 이 탈동사적 명사들이 일반적으로 V+VN (have a laugh, take a walk 등) 형식으로 실현된다고 발견했다. Jespersen은 V+VN구조 중의 'V'를 경동사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자면 경동사는 의미가 불완전하고 가강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VN앞에 오는 동시에 시제와 인칭을 표시하는 한 가지의 특수한 동사이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언어유형학과 생성문법의 발전에 따라서 언어학자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이런 경동사를 발견했다. Grimshaw&Mester(1988)에서 일본어 동사를 연구하는데 어떤 동사들이 자체가 논항을 가질 수 없고 추상명사와 결합하면 논항을 가지게 된다. 경동사 구문에서 외부논항은 경동사V가 도입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탈동사적 명사VN가 도입한 것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교착어로서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적지 않다. 경동사 가설은 이런 현상을 해석하기에 큰 도움이 된다. 90년대에 Chomsky가 경동사 가설을 흡수하는 동시에 VP Shell구조 가설과 결합하여 더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경동사 이론을 구축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9)



(9)에서 보이듯이 VP Shell구조중의 상위구조에서 v는 경동사이고 하위구조에서 V는 어휘동사이다. v는 경동사로서 강한 특정을 가지기 때문에 하위구조 V를 상위구조 v자리에 이끌었다. v의 지시어는 외부논항이고 v의 보충어자리는 하위구조 VP가 차지한다. 그리고 V의 지시어는 내부논항이다. 만약에 내부논항이 두 개 있으면 두 번째 내부논항은 V의 보충어자리에 있다. 하지만 Chomsky는 주장한 경동사는 음성형식을 가질 수 없는 한 가지의 기능핵이다. 다시 말하자면 , 영어 중의 경동사는 영 형식으로 나타나는 v이고 이 v가 문장의 발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휘 동사 V의 인상을 유발한다.

경동사 이론은 한국어에 적용되는 동시에 한국에서도 발전되었다. 한국어에서 경동사 이론과 가장 적합한 표현은 "하다"와 "되다"이다.

(10) ㄱ. 연구하다, 연구되다
ㄴ. 연구를 하다, 연구가 되다
(11) 나는 통사론 연구를 한다.

(10ㄱ)에서 보이듯이 "하다"와 "되다"는 어근"연구"와 결합하여 합성동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접사로 처리할 수 있지만 (10ㄴ)에서 격표지"를, 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다"와 "되다"는 동사로 볼 수밖에 없다. (11)에서 동사"하다"의 의미가 미약해서 내부논항"통사론"이 "하다"가 도입한 것이 아니라 탈동사적 명사"연구"가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가 "통사론"을 성분통어 하고 "하다"가 "통사론 연구" 전체를 성분통어 한다.

즉 심층구조에서 "연구"가 어휘동사V로 설정하고 "하다"는 경동사v로 처리해야 된다.

김용하·박소영(2017:167)에서 한국어의 동사구 껍질 구조를 분석했는데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기능핵v가 가시적 형태소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동사와 결합하는 사동접사"-이/히/리/기/우/구/추-" 등이 기능핵 v의 실현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경동사는 가시적인 접사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영어, 한국어 경동사와 달리 중국어 경동사는 음성형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자유 형태소이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 경동사 v와 같은 접사 특성이 없고 어휘동사의 인상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Huang1997, Lin 2001). 즉 중국어에서 음성형식을 실현하는 경동사도 있고 영 형식으로 실현하는 경동사도 있다는 말이다. 만약에 경동사는 음성형식을 가지게 된다면 어휘동사의 인상을 유발하지 않고 어순도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만약에 경동사는 영형식으로 존재한다면 영어와 한국어처럼 어휘동사의 인상을 유발하고 어순도 달라진다.

지금까지 중국어"把"자 구문, "被"자 구문 및 결과보어 구문 등이 경동사 이론에 적용된다는 주장은 점점이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熊仲儒 2003, 李廣玉2014)[8].

3) 중국어"比"가 경동사 이론에 적용되는 근거

마찬가지로 중국어 "比"비교구문도 경동사 이론으로 해석된다. 다음에 "比"에 대한 경동사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들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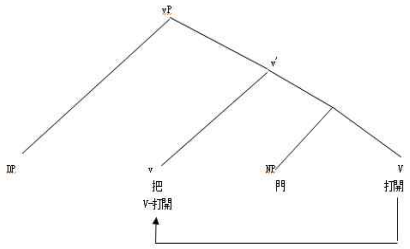
근거1: 중국어"比"는 전형적인 개사의 특징을 갖추지 않는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중국어 전형적인 개사구조의 위치가 자유로운데 문장 앞에 올 수 도 있고 문장 중간 위치, 뒤에도 올 수 있다. 하지만 중국어 "比+NP"성분이 문장 앞에 선행할 수 없다.

(12) ㄱ. 英姬 比哲洙 聪明。
영희는 철수보다 똑똑하다.
ㄴ.* 比哲洙 英姬 聪明。
철수보다는 영희가 똑똑하다.

(13) ㄱ. 爸爸 对于这件事 有看法。
아빠가 이 사건에 대하여 생각이 있다.
ㄴ. 对于这件事 爸爸 有看法。
이 사건에 대하여 아빠가 생각이 있다.
ㄷ. 爸爸 有看法, 对于这件事。
아빠가 생각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8) (1)ㄱ. 我 把門 打開了。
나는 문을 열었다.
ㄴ. 我 打開了 門。
나는 문을 열었다.
(2)



위에서 보이듯이 (12) 중국어"比哲洙"는 문장 앞에 올 수 없고 한국 어 "철수보다"는 문장 앞으로 전치할 수 있다. 그리고 (13)에서 중국어 전형적인 개사구조"对于这件事"는 문장 앞에 올 수도 있고 문장 뒤에도 올 수 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对于+NP"구조는 부사어로 판단할 수 있지만 "比+NP"는 하나의 성분으로 볼 수 없고 부사어로 판단될 수도 없다.

둘째, 중국어 차등 비교 구문에서 "比" 앞에 NP, VP, AP, IP가 올 수 있다. [9] 하지만 한국어와 영어에서 비교표지"보다/than"가 결합하는 성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한국어에서 비교표지“보다”는 후치사로서 항상 NP나 PP만 올 수 밖에 없다. 영어에서도 비교표지“than”는 전치사로서 뒤에 NP나 IP만 가능하다.

(14) ㄱ. 飛機　　比火車　　快。(NP)
　　비행기는 기차보다 빠르다.
　ㄴ. 去　　比　不去　　(更)　　好。(VP)
　　가는 것은 안 가기는 것보다　(더)　　낫다.
　ㄷ. 蠻橫　　比傲慢　　更　可怕。(AP)
　　무지막지하기는 오만하기보다 더 무섭다.
　ㄹ. 爸爸　　看到兒子得獎　　比自己得獎　　還　高興。(IP)
　　아빠는　아들이 상을 받은 것을 보고　　자기가 상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

위에서 보이듯이 중국어 차등비교구문에서 "比"뒤에 NP, VP, AP, IP가 다 올 수 있는 반면에 대응되는 한국어 차등비교구문에서 "보다"앞에 NP만 올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다"가 전치사로서 앞에 NP만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다"앞에 PP가 오는 경우에는 "보다"와 PP가 결합하여 새로운 PP를 구성하기 때문에 "보다"의 통사적 특성을 위배하지 않는다.

근거2; 중국어“比”가 동사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추지 않는다.

첫째, 중국어“比”는 일반 동사처럼 “A不A”와 같은 의문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15) ㄱ. 你吃不吃飯？(일반 동사)
　　너는 밥을 먹을래?
　ㄴ. *她比不比我漂亮？
　　그녀는 나보다 예쁘니?

위의 (15)에서 보이듯이 중국어 일반 동사는 “A不A”의문문에 적용되는 반면에 “比”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比”는 전형적인 동사가 아니다.

둘째, 중국어에서 시제 표지보다 상 표지가 더 잘 쓰인다. 중국어 상 표지는 "了(완료상)", "着(상태)", "过(경험)" 등을 포함한다. 만약에 "比"는 동사라면 "比"는 일반 동사처럼 뒤에 상표지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

9) 중국어 학계에서 많은 학자들이(張宜生 (2000) , 陳昌來 (2002) , 覃業位 (2013) 등) 중국어 차등 비교구문 비교대상 자리에 NP, VP, AP, IP, PP가 다 온다고 주장했다. PP가 오는 경우에 논쟁이 상당히 많다. 유효단(2016)에 따르면 비교대상 자리에 PP가 올 수 없다고 한다.
(3) 나는 철수에게보다 순희에게 사과를 더 많이 사주었다.
　*我　　給順姬　　比給哲洙　多買了水果。
(4) 상해에서보다 북경에서 출발하기 더 가깝다.
　从北京　　比从上海　出發 更　進。
(3)에서 "給順姬" "比給哲洙"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고 게다가 "给" 자체가 동사인지 개사인지에 대한 논쟁도 아직 많다. (4)에서 "从北京" "比从上海"가 성립되지만 "从+NP+VP"구조가 부정사와 결합하면 "从+NP+不+VP"구조가 아니라 "不从+NP+VP"로 된다. 따라서 "从"은 전형적인 개사(전치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차등비교구문 비교대상에 PP가 온다는 것을 인증할 수 없다.

(16) ㄱ. 姐姐　比我 (更) 漂亮。
　　언니는 나보다 더 예쁘다.
　ㄴ. *姐姐　比了我 (更) 漂亮。
　　언니는 나보다 더 예뻤다.
　ㄷ. *姐姐　比著我 (更) 漂亮。
　　*언니는 나보다 더 예쁘고 있다.
　ㄹ. *姐姐　比過我 (更) 漂亮。
　　*언니는 나보다 더 예쁜 적이 있다.

(16)에서 중국어 비교표지 "比" 뒤에 "了(완료상)", "著(상태)", "過(경험)" 등과 같은 상표지가 올 수 없다. 따라서 중국어 차등 비교구문에서 "比"는 전형적인 동사로 볼 수도 없다.

근거3: 중국어 "比"비교구문에 대한 부정문에서 부정사가 "比"와 결합한다. 하지만 중국어 전형적인 개사 구문에서 부정사가 항상 서술어와 결합한다.

(17) ㄱ. 英姬　比哲株　聰明。
　　영희는 철수보다 똑똑하다.
　ㄴ. *英姬　比哲株　不聰明。
　　영희는 철수보다 똑똑하지 않다.
　ㄷ. 英姬　不比哲株　聰明。
　　영희는 철수보다 똑똑하지 않다.
(18) ㄱ. 對於這件事,　我發表意見。
　　이사건에 대하여 나는 의견을 발표했다.
　ㄴ. 對於這件事,　我不發表意見。
　　이 사건에 대하여 나는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다.
　ㄷ. *不對於這件事,　我發表意見。
　　이 사건에 대하여 나는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다.

예문(17)에서 중국어 "比"비교구문에 대한 부정문에서 부정사"不"는 비교표지"比"와 결합한다. 하지만 전형적인 개사 구문에서 부정사는 서술어와 결합한 것이다. 만약에 "比"는 개사라면 부정사"不"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근거4: "比+ NP"는 부가어로 볼 수 없다.

만약에 "比+ NP"가 부가어로 설정한다면 중국어 비교 구문이 변형생성문법 중의 결속이론[10]을 위배할 수도 있다. 결속 이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즉 결속 조건A: 대용사는 일정한 결속 영역에서 (선행사에 의해) 결속되어야 한다. 결속 조건 B: 대명사는 일정한 결속 영역 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결속조건 C: 지시표현은 (항상) 자유로워야 한다 (최기용·박소영 2017).

(19) 瑪麗　比她　眼睛大。
　마리는 그녀보다 눈이 크다.
(20) *【IP瑪麗i【IP【PP比她i】眼睛大】】】

위의 (19)의 예문을 (20)과 같은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선행사 "瑪麗"는 대명사"她"를 성분통어 하는데 결속조건 B에 따르면 대명사"她"가 "瑪麗"와 같은 지표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명사"她"는 선행

10) 최기용·박소영(2017)에서 생성문법 중의 결속 이론을 소개했다.

사“瑪麗”와 동일 지표를 가질 수 없다. 즉 이런 분석은 결속 조건 B를 위해한다. 즉 “比+ NP”가 부가어로 볼 수 없고 “比”의 앞뒤 성분이 같은 층위에 있어야 한다.

근거5: 중국어 “比”비교 구문의 의미유형은 개체비교이고 VP-Shell 구조에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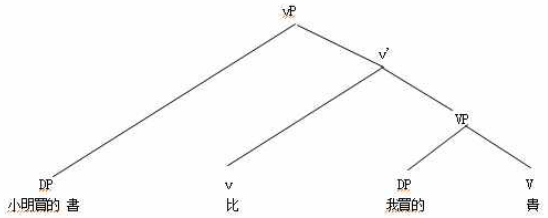
앞의 2장에서 논의한 듯이 중국어 (차등) 비교 구문의 의미유형은 <e,t>이다. 즉 중국어 “比”비교 구문의 의미 분석은 다음과 같다.

(21) 小明 買的書 比我買的 更 貴。
효명은 산책이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다.
(22) ㄱ. 比3-place e1【λx. 小明買x】
e2【λy. 我買y】
e1>e2【λdλy. y d-貴】
ㄴ. ⟦ 比 ⟧ = λx.λPdet. λy. ∃d[P(y,d)∧¬P(x,d)][11]

(22)은 (21)예문에 대한 의미 분석이다. “比+ 비교기준”는 사건 e1과 사건 e2가 정도서술어의 차원에서 비교되는 의미를 지시한다. 즉 중국어 “比”비교 구문은 세 자리 서술어(두 개의 개체 서술어, 하나의 정도 서술어)를 요구하는 개체 비교 구문이다.

이런 형식적인 의미 분석은 VP-Shell 구조에 적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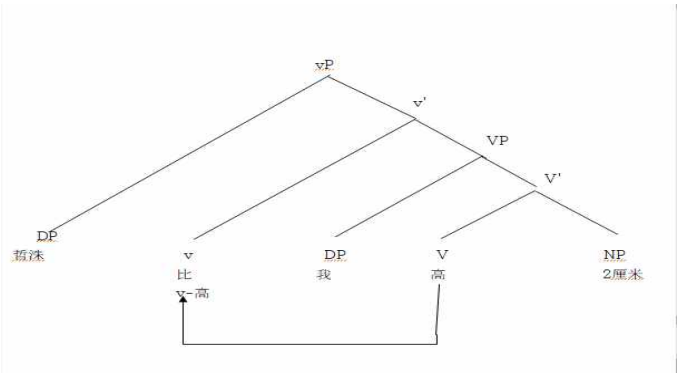
(23)



근거6: 중국어 타동사 비교 구문과 “比”비교 구문의 일치성을 지지한다.

“比”가 경동사로서 음성형식이 실현될 수 없으면 동사인상 및 어순 변화를 유발한다.

(24) ㄱ. 哲洙 高 我 2厘米。
철수는 나보다 2cm 더 크다.
ㄴ. 哲洙 比 我 高 2厘米。
철수는 나보다 2cm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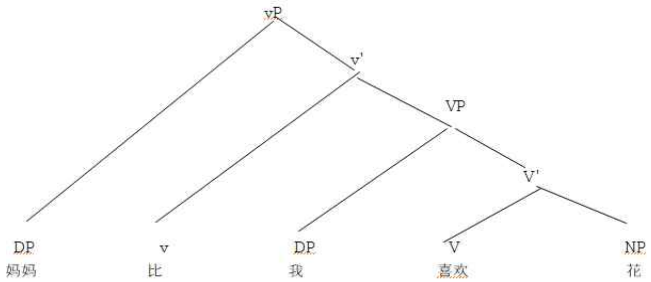
11) 박소영, 「한국어 절-비교구문의 관계절 분석에 대한 반론」,생성문법연구 28.2, 2018, p 253-272.

위의 그림을 보시면 “比”자는 “把”자와 같이 기능 핵으로서 음성형식을 갖춘다. 만약에 경동사v의 음성형식이 실현되면 어순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만약에 경동사 v가 음성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문장의 발음을 실현하기 위하여 v가 강한 접사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사 인상을 유발한다. 즉 경동사v가 영형식으로 나타나면 어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근거7: 중국어에서 주어 비교구문만 가능하고 목적어 비교 구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중국어 주어 비교구문만 가능하고 목적어 비교구문이 실현될 수 없는 데에 경동사 이론을 통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동시에 중국어 차등 비교구문의 의미 중의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25) 妈妈 比 我 喜歡 花。
엄마 보다 나 좋아하다 꽃
엄마가 나보다 꽃을 더 좋아한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比” 비교 구문의 통사구조에서 비교주체“妈妈” 와 비교대상“我”가 다 지정어 자리 DP에 있다. 지정어 자리에 항상 주어 오기 때문에 중국어 “比” 비교 구문에서 주어 비교구문만 존재한다. 또한, 중국 비교주체와 비교대상 자리에 주어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 중의성도 일어나기 쉽지 않은 것이다.

4. 맺음말

본 논문에서 중국어 “比” 에 관한 개사설, DegP-Shell 구조 가설, VP- Shell 구조 가설 등 여러 가지 가설을 소개하고 검증했다. 개사설, DegP-Shell 구조 가설이 성립될 수 없는데 “比”자는 VP- Shell 구조의 특징에 부합한다. 이에 더 나아가서 중국어 “比” 에 관한 경동사 가설을 제시했다. 경동사 이론을 기초로 중국어 “比” 자가 경동사로 본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했다. “比”에 관한 경동사 가설은 중국어 주어 비교구문과 의미 중의성에 해석하기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중국어 경동사는 한국어와 영어보다 더 복잡해서 더 제세한 분류해야 되고 “比”가 어떤 경동사인지에 대해 더 자세한 분석과 연구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고영근·구본관(2008),『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안동환(2007),『통사론 제3판 - 생성문법이론의 소개』, 한국문화사
오경숙(2010),『한국어 비교구문 연구』, 서울, 박이정.
유효단(2016), 한·중 차등 비교구문의 대조 연구 : ′보다′ 비교구문과 ′比′ 비교구문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태(2004), 국어 경동사(light verb)와 동사범주 상층부의 의미구조, 인문논총 12: 5-14.

정대식(2016), 한국어 경동사 논의에 대한 검토 : ‘하다’를 중심으로, 언어학 / EONEOHAG :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2016-12 :87-116
정민수·조영순(2017), give 경동사 구문의 사용, 영어영문학21, Vol. 30, Issue 4, p. 165-187
陈昌来(2002), 介词与介引功能, 合肥：安徽教育出版社。
何元建(2011),『现代汉语生成语法』, 北京：北京大学出版社。
黄正德(2008),「从“他的老师当得好”谈起」,『语言科学』第3期：225-241
刘月华(2001),『实用现代汉语语法』, 教学与研究出版社。
徐国萍(2007),『现代汉语差比范畴研究』, 上海：学林出版社。
朱德熙(1983),『关于比字句』, 北京商务出版社。
李广玉(2014), 轻动词理论的发展与应用, 现代语文（语言研究） / Modern Chinese. (9):13-17
Alrenga, P., Kennedy, C., & Merchant, J. (2012). A new standard of comparison. In Proceedings of WCCFL (Vol. 30, pp. 32-42).
Xiang M(2005). Some topics in comparative constructions[M]. Michigan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Germanic, Slavic, Asian and African Languages.
Chae H R(1998). A comparative analysis of tough-and comparative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Korean[J]. LANGUAGE RESEARCH-SEOUL-, 34: 33-72.
Grano, T., & Kennedy, C. (2012). Mandarin transitive comparatives and the grammar of measurement.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21(3), 219-266.
Kim J B, Sells P(2009). On the Structure of Korean Comparative Constructions: A Constraint-based Approach[J]. Language and Information, 13(2): 29-45.
Kim J B, Sells P(2010). A Phrasal Analysis of Korean Comparatives[J].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0: 179-205.
Lee, J. S. (2002). Ellipsis in Korean comparatives. Studies in Modern Grammar, 30, 155-179.
Lin, J. W. (2009). Chinese comparatives and their implicational parameter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7(1), 1-27.
Liu, C. S. L. (2007). The weak comparative morpheme in Mandarin Chinese. Concentric: Studies in Linguistics, 33(2), 53-89.
Liu, C. S. L. (2010). The Chinese geng clausal comparative. Lingua, 120(6), 1579-1606.
Liu, C. S. L. (2011). The Chinese bi comparative. Lingua, 121(12), 1767-1795.
Park, S. Y. (2010). Korean Clausal Comparatives Revisited. 생성문법연구, 20(3), 473-498.

【메 모】

【중국어학 분과】 발표 ④

新HSK의 화제범주와 항목 분석
— 新HSK 4~6급(듣기, 독해)을 중심으로

박경송 (영산대)* · 위수광 (창신대) · 임춘영 (동아대)*****

【목 차】

Ⅰ. 서론
Ⅱ. 新HSK 화제범주 분석
2.1 중국어교육요목의 화제범주
2.2 新HSK 등급별 화제범주
Ⅲ. 新HSK 화제항목 분석
3.1 新HSK 등급별 화제항목
3.2 新HSK 영역별 화제항목
Ⅳ. 결론

Ⅰ. 서론

汉语水平考试(이하 HSK)는 모국어가 중국어가 아닌 학습자의 중국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중국어능력 표준화 시험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생활과 학습 및 업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이다.

中国国家汉办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해외 응시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제 언어평가 연구의 최신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형식과 등급체계를 바꾼 新HSK를 시행하고 있다.[1] 현행 新HSK는『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이하『CEFR』) 과『國際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 (이하『國際大纲』)에 준하는 1급~6급 등급체계이다. 이는 2009년 중국정부가 제정한 평가요목『新漢語水平考試大綱』(이하『新HSK大綱(2009)』) 에 근거한 것이다. 이후『新HSK大綱(2009)』을 수정한『新HSK大綱(2015)』이 나왔다.[2]

『新HSK大綱(2015)』의 서문에 따르면, 주제중심 교수법(主题式教学)과 과업중심 교수법(任务型教学)의 이론과 방법에 근거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화제와 언어 과제를 제시하고, 기존의 많은 언어자료 통계와 분석을 통하여 2009년『新HSK大綱』을 수정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제요목(話題大綱)', '과제요목(任務大綱)'을 새롭게 추가하고 '문법요목(言語點)'을 개선하고 '어휘요목(詞彙大綱)'을 세분화했다고 강조하고 있다.[3] 이 가운데 '화제요목'은 '주제중심교육'의 일환으로 언어를 유의미한 주제 속에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소통에 필요한 화제를 이용하여 언어교육과 내용교육을 통합하여 언어능력과 사회적 이해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것은 화제요목으로 제시된 화제를 이용하여 언어 기능과 언어 지식, 문화를 통

* 영산대학교 외국어학부 중국어전공 부교수
** 창신대학교 중국비즈니스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 동아대학교 중국어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1)『新HSK大綱(2015)』서문 참조.

2) 위수광(2017:314)『新HSK大綱(2015)』에서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중국어교제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며, 초보적으로 '教-学-考'의 삼위일체의 중국어 종합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였다.

3)『新HSK大綱(2015)』前言:"此次大概修订，我们根据主题式教学和任务型教学的理论及方法，以交际汉语和语言任务为指引，对137萬考生实测的2萬餘道试题、120多萬字的预料进行了统计、标注和分析，对2009版大纲进行了补充、修订和完善，增加了话题大纲、任务大纲，改进了语言點大纲，细化了词汇大纲。"

합한 교육과 평가를 시행하고자 한 것이다. 화제요목은 제시된 주제에 따라 중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중심화제의 기준인 셈이다. 『新HSK大綱(2015)』에서는 1급에서 6급까지 등급별로 화제요목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新HSK '교수-학습-평가'에서 주목해야 할 중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新HSK大綱(2015)』의 4급~6급의 '화제요목'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2014년도에 출간된 『新漢語水平考試眞題集HSK4級』, 『新漢語水平考試眞題集HSK5級』, 『新漢語水平考試眞題集HSK6級』의 기출문제1~3회분과 『新HSK大綱(2015)』중 樣卷(샘플)문제의 듣기와 독해영역에 나타난 화제를 분류하고자 한다. 기출문제에 나타난 구체적인 화제가 무엇인지 분류함으로써 新HSK 4급~6급의 등급별 화제, 듣기와 독해 영역별 화제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등급별 분류를 통해 4급~6급의 화제요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제가 실제 기출문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어떤 부류의 화제가 주요한 유형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영역별 분류를 통해 듣기와 독해영역에서 제시되는 화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특히 이해영역에서 어떤 화제의 활용이 주로 요구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화제의 범주와 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新HSK를 포함한 중국어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방향과 교육요목 설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新HSK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았다.[4] 국내에서 新HSK와 관련된 연구는 첫째, 어휘 분석과 이를 활용한 어휘 교육방안, 둘째, 영역별 문항분석 및 문제유형과 연계한 교육방안, 셋째 등급별 시험문제 분석과 중국어교재와의 연계교육방안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에서 新HSK와 관련된 연구는 첫째, 등급별 실제 시험문제의 유형분석 및 교육방안, 둘째, 등급별 문항타당도 분석, 셋째, 특정국가 新HSK시험문제의 교육에 끼친 영향, 넷째, 어휘분석 및 교육방안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5] 국내와 중국에서 『新HSK大綱(2015)』과 시험문제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몇 편의 연구가 있어도 대부분 『新HSK大綱(2015)』의 어휘 분석에 집중하거나[6]『新HSK大綱(2015)』 자체 내용 및 新舊 내용을 대조하여 분석하고 있다.[7] 화제요목과 관련된 유의미한 연구는 『新HSK大綱(2015)』 의 화제요목과 시리즈교재 『博雅漢語』의 화제를 대조 분석한 것이다.[8] 이를 통해 『新HSK大綱(2015)』의 화제범주와 항목 내용을 참조하여 교수-학습-평가 방안의 개발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新HSK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新HSK大綱(2015)』의 '화제요목'을 기출문제와 연계하여 분석하거나 新HSK 기출문제의 등급별·영역별 주제를 분류하고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평가요목인 『新HSK大綱(2015)』에서 제시한 화제요목에 근거하여 4급~6급의 듣기와 독해 기출문제에 나타난 화제를 범주별로 분류하고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그 결과를 활용한 중국어교육 제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新HSK 4급~6급 기출문제의 듣기와 독해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연구자의 교육대상이 대부분 성인학습자 및 대학생이므로 이들이 주로 응시하는 등급에 주목하였다. 둘째, 의사소통 과정은 표현과 이해로 이루어지는데 新HSK 기출문제는 이해중심 내용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해영역을 중심으로 화제를 분석하고, 이 연구 결과를 향후 표현영역의 화제 분석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4) 선행연구는 2018년 3월에 검색한 것을 기본으로 계속 보강하였음을 밝힌다. 『新HSK大綱(2015)』이 2015년 8월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新HSK'를 제목으로 국내의 RISS와 중국의 CNKI(中国知网)에서 검색한 2015년 이후 연구를 기준으로 삼았다. 국내 선행연구는 학위논문(5편) 및 학술지 논문(9편), 중국은 학위논문(75편) 위주로 검토한 것이다.

5) 대표적으로, 신혜숙(2016)은 신HSK 6급의 독해 문제의 문항 분석 및 문제유형과 연계한 교육방안을 연구하였다. 賈文靜(2016)은 新HSK 6급의 독해의 '( )채우기 유형'의 실제 문제 분석과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6) 이지은·신수영(2015)은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新HSK 5·6급 독해 영역에 사용된 어휘에 대해 분석하고, 新HSK 기출문제 독해 영역과 『新HSK大綱』 어휘 목록을 비교하여 반영률을 측정하였다. 新HSK 독해 영역 5급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6급 어휘는 어휘등급 하향조정을 제안하였고, 학습자의 학습의욕 향상을 위해 어휘목록 반영률이 높은 문제 출제 요구를 제기하였다.

7) 王輝(2016)는 중국어교육과 학습 및 시험전략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新舊HSK大綱의 이론적 기초 및 등급표준을 대비 분석하였고, 신HSK大綱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밝혔다. 또한 新HSK4급의 시험문제를 영역별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교육방안 및 응시전략을 제시하였다.

8) 繆韋(2018)는『新HSK大綱(2015)』의 '화제요목'에 근거하여 『博雅漢語』 시리즈교재의 화제를 정리, 분석하였다. 『博雅漢語』에서 나타나는 화제의 분포와 특징을 요목과의 대조분석을 통해『博雅漢語』 화제의 출현빈도는 '일상생활, 체험적깨달음'이 가장 높고(55.86%), 다음으로 '문화, 각종정보, 문학예술' 의 출현빈도(35.17%)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연구에서는 『CEFR』과『國際大綱(2014)』, 『新HSK大綱(2015)』의 요목을 서로 비교하되, 『新HSK大綱』의 '화제 요목'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新HSK 4급~6급 기출문제의 듣기와 독해의 화제를 세부적으로 추출하고 출현 빈도를 분석하여 화제의 범주와 항목을 분류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화제 범주와 항목이 보여주는 특징을 심화 분석하여 중국어의 수준별 교육과 이해능력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찰할 것이다.

Ⅱ. 新HSK 화제범주 분석

2.1 중국어교육요목의 화제범주

이 논문에서 다루는 화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주제란 "생각이나 활동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는 문제나 내용을 말한다. 또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환경과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말이나 글의 중심 화제로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교육과정의 구성방법이 달라지더라도 어떠한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제선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교수의 필요성이 큰 주제 내용은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유의미적인 학습을 도울 수 있다."[9]

중국어교육(國際大綱)과 평가요목(新HSK大綱) 화제의 제정배경이 된 『CEFR』과 중국어교육에 적용되는 화제들의 범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각 요목의 화제범주

CEFR	國際大綱	新HSK大綱[10]	
		범주	화제항목
일상생활 주생활과 환경 식생활 여행 인간관계 날씨 쇼핑 여가 및 오락 건강과 위생 서비스업	일상생활 가정생활 관광과 교통 사회교제 여가 오락 심신건강	일상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음식
			교통및외출
			대인관계
			날씨
			쇼핑
			체육활동
			보건의료
			개인경제활동
			환경보호
			보도기사
인적사항 장소	개인정보	각종정보	개인정보
			사건정보
			물건정보
			시간정보
			장소정보
교육과 직업교육	학교생활 교육	교육	교육활동
			학습상황
			현상과문제

9) Richards 2001, 김중섭(2016:33)에서 재인용.

		일과직업	구직·이직
			일상근무
			공관활동
			고객상담
	기념일활동 언어와 문화	문화	전통풍속
			국정민생
			지리명소
언어			언어문자
			건설
			역사
			군사
			법률
	감정과 태도 가치관	체험적깨달음	생활의지혜
			인생경험
			사회현상평론
	문학과 예술	문학예술	각종고사
			동화
			유머
			각종예술
			작품소개
			명인명가소개
			개념용어
	과학과 기술	과학기술	인터넷과 정보기술
			과학기술상식
			과학기술발명
			전문과학지식
	자연 지구와 환경	자연	동물
			식물
			자연현상
			환경기후
			인간과자연
	사회	경제	경제현상
			경제관리
			상업무역

<표1>은 『CEFR』, 『國際大綱』, 『新HSK大綱(2015)』의 화제범주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가지 요목의 화제를 비교해보면, 『CEFR』은 14개, 『國際大綱』은 18개, 『新HSK大綱(2015)』은 10개의 큰 범주가 있다. 특히 『新HSK大綱(2015)』의 경우, 화제범주 하위에 55개의 항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3가지 요목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화제범주 '생활, 정보, 교육, 직업, 언어'는 보편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화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國際大綱』의 화제 중 '감정과태도, 가치관, 문학예술, 과학기술, 자연, 사회'와 『新HSK大綱(2015)』의 화제 중 '문화, 체험적깨달음, 문학예술, 과학기술, 자연, 경제'는 중국어교육요목에만 포함된 화제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新HSK大綱(2015)』도 특히 '문화, 체험적깨달음, 문학예술, 과학기술, 자연, 경제'를 중국어 의사소통에 필요한 중심 화제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1] 유럽 내

10) 『新HSK大綱(2015)』前言에서 화제범주와 항목분류는 HSK기출문제 분석과 HSK어휘의 화제분류를 종합하고, 『國際大綱』(2014), 『현대한어분류사전』(2013), 『同義詞詞林』(1983) 등을 참고하여 설정한 것으로 밝혔다.

11) 화제범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國際大綱』의 '감정과 태도, 가치관'은 『新HSK大綱(2015)』의 '체험적깨달음'과 유사성이 크다.

에서 다중언어사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CEFR』과 달리,『新HSK大綱(2015)』은 개별적인 중국어 사용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新HSK大綱(2015)』화제요목에는 특화된 범주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 범주의 하위 항목에는 '전통풍속, 국정민생, 지리명소, 언어문자'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문학예술' 범주의 하위 항목에는 '각종고사, 각종예술, 작품소개, 명인명가소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체험적 깨달음' 범주의 하위 항목에 '인생경험, 생활의지혜, 사회현상평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보편적 가치관 외에 중국인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新HSK大綱(2015)』의 화제요목에 근거하여 新HSK 기출문제에 나타난 화제범주를 분류함으로써 중국어교육에 필요한 화제의 경향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2 新HSK 등급별 화제범주

이 연구는 新HSK 기출문제의 듣기와 독해에 집중하여 화제범주를 분류하고자 한다. 이에 분석대상인 新HSK 기출문제의 등급별 문항 수를 소개하고, 등급별 화제범주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자한다.

화제의 문항 수는 4급 총 77개, 5급 총 55개, 6급 총 41개이다. 원래의 문제수와 화제문항수가 상이한 이유는 듣기와 독해에서 다수의 문제를 한 화제문항으로 다루기 때문이다.[12] 출현 빈도에 기준하여 분류한 등급별 화제범주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표3> 등급별 화제범주 분포

4급		5급		6급	
화제	빈도율(%)	화제	빈도율(%)	화제	빈도율(%)
일상생활	48.1	일상생활	48.6	문학예술	20.1
각종정보	16.9	문학예술	14.1	체험적깨달음	17.7
체험적깨달음	14.9	체험적깨달음	11.8	문화	14
일과직업	4.5	과학기술	5.9	일상생활	14
문학예술	4.2	문화	5.5	자연	13.4
문화	3.9	일과직업	5.5	과학기술	8.5
자연	3.2	자연	4.1	경제	5.5
교육	2.9	경제	2.3	교육	4.3
과학기술	1.3	교육	2.3	일과직업	1.8
경제	0	각종정보	0	각종정보	0

『新HSK大綱(2015)』의 '화제요목'을 근거로 新HSK 기출문제의 분포를 살펴보면, 4급의 화제범주는 10개, 5급과 6급은 각각 9개 범주로 분류되고 있다. 4급에서 제시된 '각종정보'가 5급과 6급에 출현하지 않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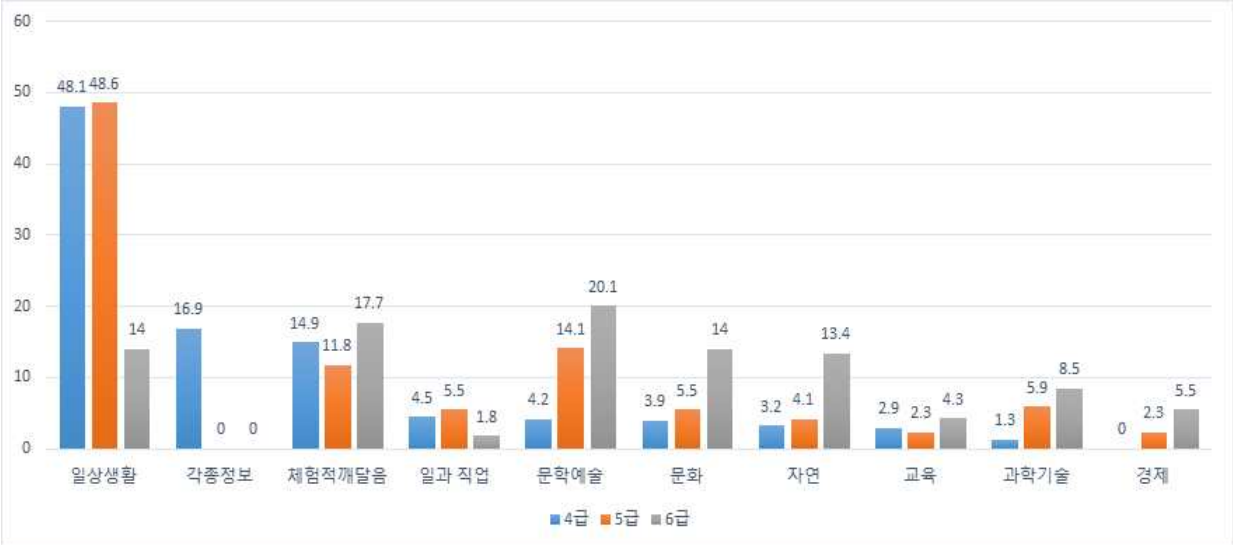
12) <표2> 등급별 문제별 문항수

	4급			5급			6급		
	영역	문제	문항	영역	문제	문항	영역	문제	문항
듣기	1부분	10	10	1부분	20	20	1부분	15	15
	2부분	15	15	2부분	25	16	2부분	15	3
	3부분	20	15				3부분	20	6
독해	1부분	10	10	1부분	15	4	1부분	10	미포함*
	2부분	10	10	2부분	10	10	2부분	10	10
	3부분	20	17	3부분	20	5	3부분	10	2
							4부분	20	5
		85	77		90	55		100	41

* 6급의 독해 제1부분인 51번~60번은 단문에 대한 문장오류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맥락이 부재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각종정보'라는 화제는 단순정보이고 난이도가 높지 않아 이미 1급~4급에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1> 등급별 화제범주 분포도



이상의 <표3>와 <그림1>에 나타난 新HSK의 화제범주는 등급별 비중과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급의 화제는 보편적 의사소통에서 요구되는 '일상생활, 각종정보'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중국어교육요목에서만 제시된 '문화, 자연, 과학기술, 경제' 등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5급의 화제는 보편적 의사소통에서 요구되는 '일상생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중국어교육요목에서만 제시된 '문학예술, 체험적깨달음, 과학기술, 문화' 등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6급의 화제는 오히려 중국어교육요목에서만 제시된 '문학예술, 체험적깨달음, 문화, 자연' 등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보편적 의사소통에서 요구되는 '일상생활'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로써 新HSK는 등급이 높아질수록 보편적 의사소통 관련 화제뿐만 아니라 중국을 이해하고 세계화와 관련된 화제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新HSK의 화제범주는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것'(일상생활, 각종정보, 체험적깨달음)에서 '사회적이고 전문적인 것'(교육, 일과직업), 나아가 '중국 이해와 관련된 것'(문학예술, 문화), '세계화와 관련된 것'(과학기술, 경제, 자연)으로 확장됨을 알 수 있다.

Ⅲ. 新HSK 화제항목 분석

이 장에서는 新HSK 기출문제의 화제범주 하위에는 주로 어떤 항목이 제시되는지 등급별, 영역별 주요한 항목을 살펴봄으로써 新HSK에서 중점적으로 필요로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3.1 新HSK 등급별 화제항목

화제항목은 화제범주의 하위 화제정보의 단위들이다. 각 범주의 하위 항목의 출현빈도를 살펴봄으로써 등급별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구체적인 화제를 알 수 있다. 新HSK의 기출문제에 나타난 등급별 항목을 빈도율에 따라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주요 화제범주별 항목 분포

4급			5급			6급		
화제범주	항목(%)		화제범주	항목(%)		화제범주	항목(%)	
일상생활 48.1%	가정생활	30	일상생활 48.6%	가정생활	27.1	문학예술 20.1%	각종 고사	63.9
	대인관계	15		대인관계	22.4		각종예술	13.9
	직장생활	10		쇼핑	10.3		명인명가소개	11.1
	쇼핑	7		보건의료	9.3			
	학교생활	6		교통수단및외출	8.4		작품소개	11.1
각종정보 16.9%	개인정보	35	문학예술 14.1%	각종 고사	74.2	체험적 깨달음 17.7%	인생경험	69
	사건정보	25		작품소개	9.7		생활의 지혜	24.1
	장소정보	25		명인명가소개	9.7		사회현상평론	6.9
	물건정보	10		각종예술	6.5			
	시간정보	6						
체험적 깨달음 14.9%	인생경험	61	체험적 깨달음 11.8%	인생경험	57.7	문화 14%	지리명소	26.1
							국정민생	26.1
	생활의 지혜	39		생활의 지혜	42.3		역사	17.4
							전통풍속	13
							건축	13
							언어문자	4.3
일과직업 4.5%	구직·이직	62	과학기술 5.9%	인터넷과 정보기술	38.5	일상생활 14%	보건의료	34.8
							직장생활	13
	일상 근무	38		과학기술상식	38.5		체육활동	13
							음식	8.7
				과학기술발명	23		가정생활	8.7
							대인관계	8.7
							보도기사	8.7

<표4>의 주요 화제범주별 항목을 살펴보면, 新HSK는 등급별로 비중 있게 요구되는 항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4급은 가정생활, 대인관계,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 관련 항목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개인, 사건, 장소, 물건, 시간 등의 '각종정보' 항목도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급은 가정생활, 대인관계, 쇼핑, 보건의료 등 '일상생활' 항목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문학적으로 교훈적, 철학적, 유머와 관련된 사실이나 현상을 이야기하는 '각종고사'[13]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각종 예술작품이나 명인명가 등을 소개하는 '문학예술' 항목도 제시되고 있다.

6급은 일상적인 것보다는 '문학예술, 체험적깨달음, 문화'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6급의 '문학예술'에는 각종고사, 각종예술, 명인명가소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체험적깨달음'에는 삶에서 체득한 이치를 다룬 인생경험, 생활의지혜, 사회현상평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문화'에는 중국과 관련된 지리명소, 국정민생, 역사, 전통풍속, 건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일상생활'에는 보건의료가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이로써 4급과 5급의 화제항목은 '일상생활' 위주이고, 6급의 화제항목은 '문학예술'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체험적깨달음'에 속하는 항목은 4급~6급에서 모두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6급에서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는 '문학예술, 체험적깨달음, 문화'는 다른 등급에 비해서 비교적 균등한 출현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등급별로 출현빈도가 높은 항목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우언고사, 철리고사, 유머고사, 역사고사 등이 많다.

〈표5〉 등급별 항목 분포[14)]

순위	4급 (%)		5급 (%)		6급 (%)	
1	가정생활[일상생활]	14.3	가정생활[일상생활]	13.2	각종고사[문학예술]	12.2
2	인생경험[체험적깨달음]	9.1	대인관계[일상생활]	10.9	인생경험[체험적깨달음]	12.2
3	대인관계[일상생활]	7.1	각종고사[문학예술]	10.5	식물[자연]	6.7
4	개인정보[각종정보]	5.8	인생경험[체험적깨달음]	6.8	보건의료[일상생활]	4.9
5	직장생활[일상생활]	4.9	생활의지혜[체험적깨달음]	5.0	과학기술상식[과학기술] 생활의지혜[체험적깨달음]	4.3

〈표5〉에서 살펴보면 4급에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항목은 가정생활, 인생경험, 대인관계, 개인정보, 직장생활이고 일상생활 관련 항목이 주를 이룬다. 항목의 세부 주제를 분석해보면 가정생활 항목에서는 '개인이미지, 쇼핑, 집안일하기, 바깥일보기, 출산, 여가오락, 육아'[15)]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인생경험 항목에서는 '인간관계, 자기만족, 진정한 친구, 성공과 실패의 가치, 성공의 조건'[16)]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대인관계 항목에서는 '전화번호요청, 사과하기, 문의와 대답, 칭찬과 감사, 동료와 연락'[17)]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18)] 개인정보 항목에서는 '친족관계, 신분정보, 개인경력, 사회관계'[19)]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직장생활 항목에서는 '회사생활, 휴가신청, 동료 간의 교류, 회의, 일상근무, 출근'[20)]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5급에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항목은 가정생활, 대인관계 및 각종고사이다. 가정생활 항목의 세부 주제는 '집안일 하기, 육아, 바깥일 보기, 여가오락, 인테리어'[21)] 등이다. 대인관계 항목의 세부 주제는 '배려와 감사, 평가와 동의, 걱정과 만류, 건의, 호응, 거절과 반대, 격려'[22)] 등이다. 각종고사 항목의 세부 주제는 '경쟁, 즐거움과 돈의 관계, 의사표현 방법, 삶의 태도, 칭찬의 기능, 직접체험의 힘, 안전운전, 자기중심 잡기, 자기만족과 현재의 소중함'[23)] 등이다. 인생경험 항목의 세부 주제는 '인생목표, 일상의 소중함, 여가활용과 성공, 고난의 극복, 성공과 실천, 훌륭한 리더의 조건, 육아의 즐거움과 행복, 도전과 성공'[24)] 등이다. 생활의지혜 항목의 세부 주제는 '일상의 행복, 인간관계와 소통, 자기주도적 인생과 성공, 인간관계와 예의, 스트레스 해소, 작은일 관리와 큰 성공'[25)] 등이다.

6급에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항목은 각종고사와 인생경험 및 식물이다. 각종고사 항목의 주제는 '소탐대실, 백아절현, 난제해결과 적극적 자세, 성공, 맹모삼천지교, 공자의 긍정적 자세, 제나라 관중과 환공의 인재선발'[26)]등이다. 인생경험 항목의 주제는 '규칙적 생활과 인생의 가치, 선입견 경계, 관용의 장점, 풍부한 경험과 평정심, 진정한 강자, 시작의 의미, 과거집착 경계, 유머감각과 낙천성과 평정심, 시간과 힘의 올바른 사용법, 모험정신과 성공, 고통에 대한 감내 역량, 자기에 대한 파악 능력' [27)]등이다.

14) 『新HSK大綱(2015)』에서 설정한 55개 항목을 기준으로 환산한 비율임을 밝힌다.
15) H41221-20, H41221-51, H41222-14, H41223-12, H41223-35, H41223-61, 大纲4级-84~85. (예시 H41221-20: 4급 기출문제 제1회 20번 문항)
16) H41221-38~39, H41221-44~45, H41221-49, H41222-8, H41223-75.
17) H41221-4, H41222-2, H41222-52, H41223-54, 大纲4级-17.
18) 여기서 '칭찬과 감사, 사과하기'의 내용은 언어기능과도 관련된 내용이지만 중국어교육요목에서는 화제항목에 포함되고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19) H41221-7, H41221-47, H41222-27, 大纲4级-5.
20) H41221-6, H41221-14, H41221-24, H41223-32, 大纲4级-51, 大纲4级-55.
21) H51221-12, H51221-33~35, H51222-4, H51223-16, 大纲5级-24.
22) H51222-5, H51222-9, H51222-17, H51223-14, 大纲5级-10, 大纲5级-16, 大纲5级-20.
23) H51221-42~43, H51221-53~56, H51221-57~60, H51221-75~78, H51222-36~38, H51222-39~41, H51222-44~45, H51222-83~86, 大纲5级-36~38.
24) H51221-39~41, H51221-46~48. H51222-64, H51223-33~35, H51223-39~41, H51223-42~43, H51223-63. 大纲5级-61.
25) H51221-49~52, H51221-71~74, H51221-79~82, H51222-33~35, H51222-46~48, H51223-53~56.
26) H61221-34~36, H61221-48~50, H61222-31~33, H61222-38~40, H61222-41~43, 大綱4級-41~43, 大綱4級-81~84.
27) H61221-4, H61221-61, H61221-67, H61222-5, H61222-11, H61222-69, H61223-4, H61223-6, H61223-14, H61223-61, H61223-63, H61223-65.

식물 항목의 주제는 '雪蓮, 고추 매운 맛의 비밀, 수목의 성장환경, 백양나무, 중국 강남의 대나무 맹종죽, 시솽반나의 風雨花, 나뭇잎 변색 원리, 香菜의 정화작용, 타클라마칸 사막의 백양나무' [28]등이다.

이상에서 각 등급별 항목의 주제들을 살펴보았다. 4급과 5급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대인관계 항목이 공통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國際大綱』의 4급 목표인 '개인과 관련된 일과 사교적 활동에 관련된 언어자료를 이해한다.'[29]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5급과 6급에서 문학예술 범주에서 '각종고사' 항목 비중이 높은 것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반적인 화제에 대한 교류와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표명할 수 있고 각종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30]는『國際大綱』5·6급의 목표와 부합한다. 6급에서 각종고사, 인생경험, 식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익숙한 현대 중국과 세계의 관심사'라는 화제와 일맥상통하고 있다.[31]

3.2 新HSK의 영역별 화제항목

이 절에서는 新HSK 듣기와 독해 영역에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항목의 세주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어교육의 언어기능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이 있다. 반면에 新HSK는 이해영역 위주임으로 듣기와 독해영역에 주로 나타나는 화제를 분석한다면, 중국어 '교수-학습'에서 이해능력에 필요한 화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표6〉 듣기, 독해 영역별 화제항목분석

등급	듣기			독해		
4급	일상 생활	58.8%	1. 가정생활 2. 대인관계=직장생활 3. 학교생활 4. 음식=교통수단및외출=보건의료	일상 생활	37.2%	1. 가정생활 2. 교통수단및외출 3. 대인관계 4. 쇼핑 5. 직장생활
	각종 정보	18.8%	1. 사건정보=장소정보 2. 개인정보	체험적 깨달음	22.3%	1. 인생경험 2. 생활의지혜
	체험적 깨달음	13.1%	1. 인생경험 2. 생활의지혜	각종 정보	14.9%	1. 개인정보 2. 사건정보=장소정보
5급	일상 생활	69.4%	1. 가정생활 2. 대인관계 3. 쇼핑 4. 교통수단및외출 5. 직장생활	문학 예술	27.6%	1. 각종고사 2. 작품소개 3. 명인명가소개=각종예술
	문학 예술	6.9%	1. 각종고사 2. 명인명가소개 3. 각종예술	체험적 깨달음	27.6%	1. 인생경험 2. 생활의지혜
	체험적 깨달음	3.5%	1. 인생경험 2. 생활의지혜	일상 생활	9.2 %	1. 보건의료
6급	문학 예술	25.0%	1. 각종고사 2. 각종예술	문화	22.1%	1. 국정민생 2. 지리명소=역사

28) H61221-4, H61221-44~47, H61221-64, H61222-14, H61222-44~47, H61223-67, H61223-93~96, 大綱6級-15, 大綱6級-93~96.

29)『國際大綱』(2014:17) "能理解工作或社交场合中比较简单、内容熟悉的语言材料，抓住重点，把握细节。"

30)『國際大綱』(2014:23) "能使用一些交际策略参与谈话，包括专业领域内一般性话题的交流和讨论，表明自己的观点和态度，并能了解各种意见。"

31)『國際大綱』(2014:25) "进一步熟悉當代中国和世界的热点话题。"

			3. 작품소개=명인명가소개			3. 전통풍습=건축
	일상 생활	18.8%	1. 보건의료 2. 체육활동 3. 가정생활=직장생활	문학 예술	17.6%	1. 각종고사 2. 작품소개=명인명가소개 3. 각종예술
	문화	8.3 %	1. 지리명소 2. 국정민생 3. 전통풍습=역사	일상 생활	7.4 %	1. 보건의료 2. 음식=직장생활

<표6> 의 영역별 항목을 살펴보면, 新HSK 기출문제의 듣기와 독해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항목은 크게 4개 범주의 하위 항목임을 알 수 있다. 듣기영역에서 비중이 높은 것은 일상생활(4급·5급·6급)과 문학예술(6급)의 하위에 있는 항목이다. 독해영역에서 비중이 높은 것은 일상생활(4급), 체험적깨달음(4급·5급), 문학예술(5급·6급), 문화(6급)의 하위에 있는 항목이다. 이에 영역별로 비중이 높은 범주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항목을 제시하고, 항목별로 어떠한 주제가 제시되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듣기 영역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항목과 주제를 살펴보겠다. 4급 듣기에서 주요한 항목은 가정생활, 대인관계, 직장생활, 학교생활, 음식, 교통수단외출, 보건의료, 사건정보, 장소정보, 개인정보 등이다. 가정생활 항목에서는 '집안일(이사준비, 에어컨수리하기), 여가오락(등산, 무용연습), 바깥일보기(집구하기, 비자발급), 육아(아기잠재우기)'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대인관계 항목에서는 '요청(전화번호문의), 교류(동료와 메일로 사진공유), 행위(감사인사하기, 양해구하기), 감정(실망)'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사건정보 항목에서는 '승강기 점검, 관광객 수 제한', 장소정보 항목에서는 '약속장소, 음식점 좌석 정보, 가구시장정보'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개인정보 항목에서는 '개인경력, 친족관계'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5급 듣기에서 주요한 항목은 가정생활, 대인관계, 쇼핑, 교통수단및외출, 직장생활, 각종고사, 명인명가소개, 각종예술 등이다. 가정생활 항목에서는 '집안일(현관문 비밀번호 설정, 인테리어, 택배받기, 베란다 정리), 여가오락(전시회가기, 공연보기, 박물관가기, 피크닉), 바깥일보기(집구하기, 운전면허시험, 헬스장, 출국수속), 육아(우유먹이기, 아이 달래기, 조카와 놀아주기)'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대인관계 항목에서는 '태도(불만족스러운 태도, 배려와 감사, 거절과 반대, 격려, 동의와 평가), 감정(걱정과 원망, 걱정과 만류, 긴장감 토로), 교제(칭찬, 건의)'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쇼핑 항목에서는 '상품정보(할인항공권정보, 스카프색깔정보), 상품구매(온라인상품구매, 할인도서구매, 주문번호 조회, 포장요청), 계산(할인권이용 결제)'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교통수단및외출에서는 '이동방식(기차침대칸 이용), 이동과정(공항까지 이동), 길 묻기(박물관 가는 길 묻기), 이동준비(탑승권 분실 및 재발권)'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각종고사 항목에는 '자기만족, 칭찬의 효과, 직접체험의 효과, 안전운전, 마음비우기와 즐거움'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6급 듣기에서 주요한 항목은 각종고사, 각종예술, 작품소개, 명인명가소개, 보건의료, 체육활동, 가정생활, 직장생활 등이다. 각종고사 항목에는 '유머고사(부자간 등산에서 발생한 에피소드, 부부의 보석가게 에피소드), 성어이야기(백아절현), 우언이야기(一字之师, 소탐대실)'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각종예술 항목에는 '상해국제영화제, 영화박물관, 문학유형의 독자영향력 차이'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일상생활 항목에는 '보건의료(건강관념, 휴대폰 부작용, 가족 간 스킨십효과), 체육활동(크로스컨트리, 운동지식)'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이상의 듣기영역에서 4급은 일상생활과 그 외 부가활동,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자주 가는 장소, 함께 생활하거나 일하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주요한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5급에는 가정이나 사람과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이나 활동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쇼핑이나 교통이용과 관련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6급에서는 단순한 언어소통에 그치지 않고 폭넓은 배경지식을 전제로 한 유추능력을 요구하는 주제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다른 등급과 달리 중국과 중국문화에 대한 깊은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독해영역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항목과 주제를 살펴보겠다.

4급 독해에서 주요한 항목은 가정생활, 교통수단및외출, 대인관계, 쇼핑, 직장생활, 인생경험, 생활의지혜 등이다. 가정생활 항목에서는 '육아(아이보기, 절약습관교육), 바깥일보기(비자발급관련 인터넷검색, 지하철 음식반입금지 규정, 은행이용), 결혼과 연애, 여가오락(독서)'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교통수단및외출 항목

에서는 '교통문제(음주운전 금지), 지하철이용, 이동거리, 항공기이용'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인생경험 항목에서는 '진정한 친구, 기회에 대한 준비, 현상과 본질 차이, 성공과 실패, 성공노하우'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생활의지혜 항목에서는 '삶에 대한 태도, 인간관계 주의점, 정보습득 방법, 기회 잡는 법, 스트레스 해소법'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5급 독해에서 주요한 항목은 각종고사, 작품소개, 명인명가소개, 각종예술, 인생경험, 생활의지혜 등이다. 각종고사 항목에서는 '우언고사(진정한 즐거움은 금전과는 무관하다, 寒號鳥처럼 준비 없는 생활을 하지마라, 칭찬의 효과), 철리고사(적합한 목표설정, 존중의 역량, 과유불급, 마음비우기와 즐거움), 역사고사(제 장공과 사마귀의 용기)'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작품소개 항목에서는 '중국 최초영화<定军山>, 달 관련 신화, 역사서 <漢書>'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명인명가소개 항목에서는 '명대 夏原吉'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인생경험 항목에서는 '끈기의 중요성, 여가활용과 성공, 인생에서 선택의 중요성, 용감한 도전'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생활의지혜 항목에서는 '인간의 환경결정론, 자기주도적인 인생, 사람간의 소통방법, 스트레스 해소'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6급 독해에서 주요한 항목은 국정민생, 지리명소, 역사, 전통풍습, 건축, 각종고사, 작품소개, 명인명가소개, 각종예술 등이다. 국정민생 항목에서는 '용토템, 북경관광 미식대전, 四大名砚(풍물특산품)'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지리명소 항목에서는 '杨浦大桥, 雲南省 昆明湖, 滇池, 베이징 유명서점'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역사 항목에서는 '사라진 중국 고대국가 楼兰, 제도의 역사, 당삼채 도자기의 역사'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전통풍속 항목에서는 '오목, 섣달그믐의 전설'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각종고사 항목에서는 '성어이야기(千里送鹅毛고사, 맹모삼천지교) , 철리고사(근심해소하면 만사형통, 적극적인 자세의 결과), 역사이야기(초나라 왕과 정나라 남자를 통한 지도자 관용의 효과, 2차대전 역사사건), 우언고사(제나라 환공과 관중의 인재선발 기준)'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작품소개 항목에서는 '<红楼梦>, 영화<桃姐(심플라이프)>'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명인명가소개 항목에서는 '颜真卿, 李清照 소개' 등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난다.

이상의 독해영역에서 4급은 단순하고 기본적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의 주변 장소, 복잡한 교통이용, 삶에 대한 태도나 행동의 지침이 될 만한 교훈을 주요한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5급은 '재미있고 유익한 경구, 깊고 오묘한 이치, 의미 있는 교훈', 중국인이 창작한 영화와 저서, 인생과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논리적 판단과 주장을 주요한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의견이나 주장, 중국의 문학예술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6급은 중국의 '상징물, 특산품, 명승지, 문물제도의 역사, 풍습, 인물', 중국의 성어와 역사서에서 유래하고 인용한 교훈과 사상, 중국의 유명 문학작품과 영화작품을 주요한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등급과 비교해보면 중국과 중국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Ⅳ. 결론

이 연구는 『新HSK大纲』의 '화제요목'을 기준으로 삼고, 新HSK 4급~6급 기출문제 듣기와 독해의 화제 범주와 항목을 분석한 것이다. 중국어 '교수-학습'에서 수준별 교육과 이해능력 교육에 필요한 화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新HSK 기출문제의 화제범주 현황과 항목특징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화제범주에서는 '일상생활, 체험적깨달음, 문학예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상생활' 범주는 등급별 난이도에 따라 수준별로 상이하게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4급은 '가정생활, 대인관계'이고, 5급은 '교통수단및외출, 쇼핑' 등이며, 6급은 '보건의료, 체육활동' 등이 제시되어 동일한 화제범주가 등급별 수준에 맞게 제시되어 있다. '체험적깨달음' 범주의 '인생경험'과 '생활의지혜' 항목이 등급별로는 고루 제시되었다. 하지만 영역별로는 듣기영역보다 독해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예를 들면, 4급과 5급의 듣기영역에서는 평균 10%미만이지만, 독해영역에서는 평균2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학예술' 범주는 등급별 상이

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4급에서는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5,6급에서는 높은 비중을 보인다. 특히 5급과 6급에서는 다양한 화제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듣기영역보다 독해영역에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요목에는 제시되어 있지만 기출문제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항목도 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 범주의 개인경제활동, 환경보호, '교육' 범주의 교육활동, 학습상황, 현상과문제 등이다. 이는 '교육' 범주가 '일상생활' 범주의 학교생활과 변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어야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과직업' 범주의 구직·이직, 일상근무, 공관활동, 고객상담 등도 '일상생활' 범주의 직장생활과 변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취업과 직결된 내용이고 성인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항목이므로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화제 설정이다. 현재 기출문제에서는 출현빈도가 낮은 편이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필요성이 높아질 화제 범주는 '과학기술과 경제'이다. 과학기술의 '인터넷과정보기술'에는 중국의 검색사이트 '바이두(百度)'[32]가 세부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2015년에 출간된『新HSK大綱』의 샘플문제에는 '과학기술' 범주의 과학기술발명 항목에서 중국의 주산발명, 폐지를 활용한 흡수지의 상품화, 최악의 발명품 비닐봉지 등이 제시되었다. '경제' 범주의 경제관리에서는 홍보전략, 직원관리이론, 판촉전략, 경영마케팅, 경영매출전략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항목과 세부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정보화시대에 따라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등급별·영역별 화제를 분석한 이 연구결과는 중국어 수준별 교육 및 이해능력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를 기준으로 할 때, 일상생활과 각종정보의 주요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4급의 화제는 초·중급수준의 중국어회화 과목에 적용할 수 있다. 문학예술, 체험적깨달음의 주요 주제를 포함한 5급의 화제는 중급수준의 중국어독해 및 중국문화 관련 과목에 적용할 수 있다. 문학예술과 문화의 주요 주제를 포함한 6급의 화제는 고급수준의 통번역중국어, 시사중국어 등 특수목적중국어 과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新HSK大綱(2015)』의 '화제요목'을 新HSK 기출문제와 연계하여 등급별, 영역별 화제와 세부주제를 파악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화제 분류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미진하고 분석 자료의 양적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향후 데이터의 양적 확보 및 화제분석의 이론 근거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어교육은 어휘, 문법, 문장의 교육 이외에 화제를 통해서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화제 분석을 통한 수업 지도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중국어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분석 결과를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법', '주제중심교수법', '과제수행교수법'에 대한 연구와 이를 활용한 중국어요목 및 교재개발, 국내 교재의 화제 분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중섭(2016),『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국립국어원.

김중섭(2017),『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신혜숙(2016),「新HSK 6급 독해 문제 분석 및 교육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럽평의회 편 김한란 외 옮김(2010),『언어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서울: 한국문화사.

위수광(2017),「국제대강(國際大綱)(어법(語法) : 2014)의 중국어 교육문법체계 고찰 - 국제대강(國際大綱)(어법(語法) : 2008)과 비교를 토대로 -」,『중국언어연구』73권, 서울: 한국중국언어학회.

이지연·배재석(2014),「주제중심 중국어 회화 수업 내용 연구-'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중어중문학』제5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32) 大綱6級-16~20.

이지은·신수영(2015),「(新)HSK 5, 6급 독해 영역 어휘의 코퍼스 분석」, 언어와 정보 사회 25권, 서울: 언어정보연구소.
国家汉语国际推广领导小组办公室(2008),『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 外语教學与研究出版社.
国家汉办/孔子学院总部(2009),『新汉语水平考试大纲』, 商务印书馆.
_____(2014),『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 北京语言学院出版社.
_____(2014),『HSK眞題集(4級)』, 高等教育出版社.
_____(2014),『HSK眞題集(5級)』, 高等教育出版社.
_____(2014),『HSK眞題集(6級)』, 高等教育出版社.
国家汉办/孔子学院总部(2015), 『新汉语水平考试大纲』, 人民教育出版社.
賈文靜(2016),「新HSK六級閱讀部分選詞填空題的真題分析及教學策略」, 渤海大學, 碩士學位論文.
繆韋(2018),「『博雅漢語』與『HSK考試大綱』(2015版)話題對比分析」, 四川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王輝(2016),「新舊HSK大綱對比分析-以新HSK四級爲例」, 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吴凡(2017),「基于新HSK词汇大纲的汉语书面语词汇研究与教学」, 西安外国语大学, 碩士學位論文.

【메 모】

【중국어학 분과】 발표 ⑤

한·중 차등 비교문 에서의 '更' 과 '还'의 의미 비교분석

이은민 (부산외대)*

1. 초록

본고는 17권의 한·중 현대 소설 텍스트의 차등 비교문 에서'更'과 '还'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다양한 정도부사 표현에 있어서의 그 원인을 알아내고자 먼저 인지언어학의 연구 방법론 중의 하나인 원형 이론 중 Langacker의 연결망 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어 정도부사의 의미 연결망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한국어 정도부사의 사용에 있어 '더', '훨씬', '훨씬 더', '더욱'중 어느 것을 사용하던지 정도 크기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어느 것을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어 정도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순서를 살펴보면서 원형적 차등 비교문 형식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다.

2. 한·중 현대 소설 텍스트 차등비교문의 "更"과"还" 현황분석

본고는 10권의 현대 중국어 소설 그리고 7권의 현대 한국어 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차등 비교문 속의 중국어 '更' 그리고 '还'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의미 비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차등비교문의 중국어 "更"과"还"의 한국어 의미 비교

본고는 총 17권의 한·중 현대 소설 속 차등 비교문 에서 중국어의 정도부사'更', '还'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차등 비교문 속 다양한 한국어 표현에 대한 정리를 하였다. 1)

(1) 중국어 '更' 과 한국어 의미 비교

가. 更- 더

(1) 狮子 , 我觉得跟你**比**跟王仁美**更**像夫妻。《蛙》
스쯔, 런메이 **보다** 당신이 **더** 내 인연인 것 같다. 《개구리》

(2) 可是虎妞**比**别人都**更**多着些危险。《骆驼祥子》
하지만 후니후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위험했다. 《낙타샹즈》

(3) 총명함을 숨기는 건 무지를숨기는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이니까.
《두근두근 내인생 》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eunminlee9@naver.com)
1) 한·중 현대소설 텍스트에서 정도부사'更'을 포함한 차등비교문은 총 80개, '还'를 포함한 차등비교문은 총46개이다.

因为隐藏聪明要**比**隐藏无知更难。《我的忐忑人生 》

(4)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는거는 그런 의미에서 모르는 것**보다 더** 나빠.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知道的东西根本不算什么，从某种意义上说，知道**比**不知道**更**糟糕，重要的是领悟。《我们的幸福时光》

한·중 소설책 텍스트 속의 중국어 정도부사'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더'의 표현법은 원본 중국어 현대소설 텍스트 안에서 14개,한국어 현대소설 텍스트에선 19개로 하여 총 33개로 제일 많은 수로 나타났다.

나. 更-훨씬

(5) 刘作家权衡利弊，觉得前途**比**婚姻**更**为重要，只好在女朋友面前低头认错。《兄弟》

류 작가는 즉시 손익계산을 해본 뒤 자신의 전도가 결혼 **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득불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다. 《형제》

(6) 可以拿到手的三十五块现洋似乎**比**希望中的一万块**更**可靠。《骆驼祥子》

하지만 수중에 쥔 35원이란 은전이 희망 속의 1만 원 **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웠다.

《낙타샹즈》

(7) 왜냐하면 고운정**보다**는 미운 정이 **훨씬** 너그러운감정이기때문이다.《새의 선물》

在一起经受折磨的过程中自然萌发的憎恶则是**比**喜爱**更**长久的感情。《鸟的礼物》

(8) 그러나 이 작품의 이미지 활용은 흔히 '상징적 기법' 으로 통하는 것들 **보다 훨씬** 복잡하면서 자연스럽다. 가령 백로들만 해도 그들이 '나' 가 꿈꾸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를, 또는 작가가 되려는 그녀의 염원을 '상징한다' 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외딴방》

这部作品中的形象运用要**比**"象征性技巧"**更**为复杂而自然。即使只有白鹭，我们也不能粗率地认为它们"象征着""我"梦中美丽而宁静的世界，以及成为作家的夙愿。

《单人房》

중국어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훨씬'이라는 표현으로 원본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현대소설 텍스트 안에서 각각 4개, 총8개로 나타났다.

다. 更-훨씬 더

(9) 这时候李光头已经可以走来走去了，他还是很瘦，**比**婴儿时的李光头**更**瘦了。《兄弟》

이때 이광두는 이미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른 상태였고, 갓난아기였을때 **보다 훨씬 더** 마른 상태였다. 《형제》

(10) 알고 있었다. 내가 오늘 그걸 했다는 걸. 실은 승찬아저씨**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두근두근 내인생 》

我知道。今天我做到了。其实我**比**胜灿叔叔**更**知道。《我的忐忑人生 》

중국어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훨씬 더'의 표현으로 원본 중국어 소설 텍스트에서 5개, 한국어 텍스트 1개, 총 6개로 나타났다.

라. 更-좀더

(11) 只不过**比**前几年**更**显干瘦。《红高粱家族》
몇 년 전 **보다 좀더** 말랐을 뿐 다른 변화는 없었답니다.《홍까오량 가족》

(12) 그런데도 종구**보다는 좀더** 나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다른 상대가 아니고 가장 처지는 종구를 선택했다는 점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새의 선물》
我能理解Miss李姐姐为什么不选择**比**宗九**更**好的(相对而言)对象，而是选择了最差劲的宗九。《鸟的礼物》

중국어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좀더'의 표현으로 원본 중국어, 한국어 소설 각각 1개씩 총 2개로 나타났다.

마. 更-더욱

(13) 这种干嚎**比**湿哭**更**动人，无数的看殡百姓都被我父亲感动了。《红高粱家族》
이러한 울음은 젖은 울음소리 **보다**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으며 무수한 구경꾼들은 모두 나의 아버지에게 감동되었죠. 《홍까오량 가족》

(14) 他们的爹恶狠狠地骂着，好像他**比**阮书记**更**恨他们。《食草家族》
그들의 아비가 독살스럽게 욕을 하는데, 로웬 서기 **보다 더욱** 심하게 그들에게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았다.《풀먹는 가족》

중국어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더욱'의 표현으로 원본 중국어 소설 텍스트 안에서만 총 2개로 나타났다.

바. 更-더더욱

(15) 花树的倒影**比**花树本身**更**迷人。《食草家族》
거꾸로 비친 월계수 그림자는 원래의 월계수 **보다** 사람을 **더더욱** 미혹에 빠뜨렸다.
《풀먹는 가족》

중국어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더더욱'의 표현으로 원본 중국어 소설에서만 총 1개로 나타났다.

사. 更-더한

(16) 그것은 하나의 연설문 **보다 더한** 웅변을 담고 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那里包含着**比**演讲**更**厉害的雄辩。《我们的幸福时光》

중국어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더한'의 표현으로 원본 한국어 소설에서만 총 1개로 나타났다.

아. 更-보다도 더

(17) 因为赵柔**比**我**更**讨厌学习。《快乐我家》
왜냐하면 쪼유는 나 **보다도 더**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아이니까—《즐거운 나의집》

중국어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조사'보다 뒤에 '도'라는 보조사와 함께 '더'를 덧붙인 표현으로 원본 중국어 소설에서만 총 1개로 나타났다.
아래는 차등 비교문의 중국어 '还'에 상응하는 다양한 한국어 표현법에 대해 알아보자.

(2) 중국어 '还' 와 한국어 의미 비교

가. 还-더

(1) 那年大旱，蝌蚪**比**水**还**多。《蛙》
가뭄이 심한 해였는데, 올챙이가 물 **보다 더** 많아 보일 정도였어. 《개구리》

(2) 不过你也别担心，天生人，地养人，周文王时人**比**现在**还**多，可也没人饿死。《食草家族》
주나라 문왕 때는 지금 **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지. 《풀 먹는 가족》

(3) 머리가 사람 얼굴 **보다 더** 큰 살아 있는 문어들, 싱싱한 전복들, 서울 **보다** 세배는 값이 싼 갈치 고등어 꽃게 사이를 오가다가 왜 너는 엄마를 생각했을까. 《엄마를 부탁해》
走过脑袋**比**人脸**还**大的活生生的章鱼和生龙活虎的鳗鱼，走过**比**首尔便宜三倍的带鱼、 鲍鱼和花蟹，你为什么想起了妈妈？《妈妈你在哪里?》

(4) 우리 모두에게 전 **보다 더** 잘하려고, 그럼으로써 충분의 불명예를 보상하려고 애쓰는 것은 눈에 뛸 정도였다. 《새의 선물》
她对我们**比**以前**还**好，她希望以此来弥补离家出走的耻辱的想法非常明显。《鸟的礼物》

한·중 소설책 텍스트 속의 위에서 언급한 중국어 정도부사'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더'의 표현법은 중국어 '还'에서도 나타났다. 원본 중국어 현대소설 텍스트 안에서 24개, 한국어 현대소설 텍스트에선 3개로, 총 27개로 제일 많은 수로 나타났다.

나. 还-훨씬

(5) 我也知道那滋味,整天在床上，**比**下地干活**还**累，身体都活动不了。《活着》
나도 그 기분을 알지. 온종일 자리에 누워 있는 게 밭에 나가 일하는 것 **보다 훨씬** 피곤한일이거든.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으니까.《인생》

(6) 可你们看看一乐，对我有多亲，**比**二乐，三乐**还**亲。《许三观卖血记》
일락이를 좀 보라구. 나한테 얼마나 잘해? 이락이, 삼락이 **보다 훨씬** 잘한다구. 《허삼관 매혈기》

(7) 나 **보다 훨씬** 어린데도 부모가 논밭 일을 하는 동안 밥을 해먹거나 동생을 키우는 아이도 많았던 것이다. 《새의 선물》
我们村里有许多**比**我**还**小的孩子，在父母去地里干活时，也都照看弟弟妹妹，还要给他们做饭。《鸟的礼物》

(8) 근데 부대 앞에 있는 다방도 나 **보다 훨씬** 잘 알아. 《새의 선물》
可她对部队前面的茶馆**比**我**还**清楚！ 《鸟的礼物》

중국어 '更'과 같이 '还' 역시 한국어로 '훨씬'이라고 표현되었다. 원본 중국어 소설에서 4개, 한국어 소설에선 3개로 총 7개로 나타났다.

다. 还-훨씬 더

(9) "读书好啊，一天不读书，**比**一个月不拉屎**还**难受。" 《兄弟》
"독서는 참 좋은 겁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한 달 동안 똥을 안 싼 것 **보다 훨씬 더** 참기 힘들다 이 말씀이야. " 《형제》

(10) 镇文艺宣传队的规模**比**油麻地中学的**还**大，有三十几号人，借了粮站的一个大仓房排练场 。《红瓦黑瓦》
삼십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진문예선전단의 규모는 유마디 중학교 **보다 훨씬 더** 컸다. 《빨간 기와》《까만기와》

'훨씬 더' 역시 중국어 '更'과 마차가지로 '还'에서도 표현되었다. 원본 중국어 소설에서 총 2개로 나타났다.

라. 还-더욱

(11) 他知道支部书记是个心**比**铁石**还**硬的王八蛋，跟他要粮绝不是件轻松事情。《红高粱家族》
그는 지부서기란 작자의 심리가 강철 **보다 더욱** 단단하고, 더러운 놈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인간을 찾아가 쌀을 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홍까오량 가족》

(12) 我**比**那时候**还**小的时候就听说过：大队饲养场里的一头母猪成了精。《食草家族》
내가 그 시절 **보다 더욱**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이다. 양돈장의 암퇘지 한 마리가 요정이 되었단다. 《풀 먹는 가족》

'더욱' 역시 중국어 '更'과 마찬가지로 '还'에서도 표현되었다. 원본 중국어 소설에서 총 2개로 나타났다.

마. 还-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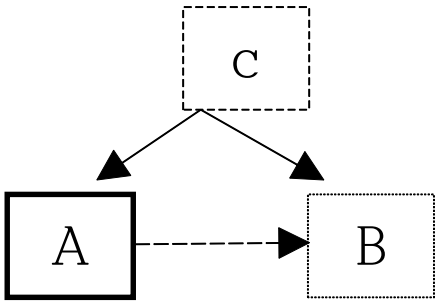
(13) 他的饭量**比**我**还**大。《许三观卖血记》
밥도 나 **보다 많이** 먹는다구요.《허삼관 매혈기》

'많이'는 중국어 '更'에선 본고의 텍스트에선 볼 수 없었고, '还'에서 표현되었다. 원본 중국어 텍스트에서 총 1개로 나타났다.

2) 두 가지 분석 기준을 통한 의미 분석

(1) 연결망 모형에 따른 의미 분석 - '더', '훨씬', '훨씬 더', '더욱'

陆俭明(1980)의 연구에 따르면 '更'과 '还' 둘 다 비교에 사용하지만 비유 일 땐 '还'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예문들을 비추어 볼 때, '更'과 '还'로 나누어 살펴본 바에 따르면, '还'를 사용한 중국어 차등 비교문이 비교와 더불어 비유를 나타낼 때 사용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에선 중국어의 '更'과 '还'의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더', '훨씬', '훨씬 더', '더욱' 등과 같이 다양한 표현법이 중복 되어 나타났다. 그러면 왜 "更"과"还"가 한국어 차등비교문 안에서 구분 없이 다양하게 표현되는지에 관해 알아보고자 Langacker(1991b: 271)[2]의 언어 범주화에 대한 아래의 연결망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결망 모형

A는 원형prototype 이고, B는 확장extension이고, C는 A나 B가 활성화 될 때마다 활성화되는 도식schema 이다.[3] <그림1>의 연결망 모형에 근거하여 본고는 위의 예문의'更'과 '还'의 동시에 표현 되었던'더', '훨씬', '훨씬 더'그리고 '더욱'의 의미 확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연결망 모형에 근거하여'더', '훨씬', '훨씬 더'그리고 '더욱'의 의미 확장 연결망 모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졸저 李殷昉(2017)의 한국어 차등 비교문의'비교결과'에 해당하는 표현이 매우 다양함과 동시에 구체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4] 이러한 다양함과 구체적인 표현이 차등비교문의'更'과 '还'에 상응하는 한국어 정도부사 표현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정도부사 사용 순서에 따른 의미 분석- '좀더', '더더욱'

'좀더', '더더욱'은 중국어 차등비교문의'更'과 '还'의 표현이 중복 되지 않게 사용하였다. 그러나'更'이나 '还'에 둘 다 모두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좀더', '더더욱'을 사용할 땐 거리차를 고려해야 한다. 崔健(2010)[5]은 한국어의 증량(增量)부사는 대량(大量)부사', '중량(中量)부사', '소량(小量)부사',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훨씬	더	좀
	更 / 还	稍微

또 이렇게 나누어진 정도부사는 같이 연이어 사용함에 있어 순서가 있다고 하였다.'대량(大量)부사'와'중량(中量)부사'는 연이어 사용할 수 있고, 그 순서는'대량(大量)부사'>'중량(中量)부사'이며, 중량(中量)부사'와'소량(小量)부사' 역시 연이어 사용 가능하며,그 순서는'소량(小量)부사'>'중량(中量)부사'이고, '대량(大量)부사'와'소량(小量)부사'는 같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6] 본고는 崔健의 한국어 정도부사 사용 순서에 동의하며, 이

2) 김동환,『인지언어학과 개념적혼성이론』, 박이정, 2013.05, p.105 재인용.
3) 김동환, 위의책, p. 105 참고.
4) 李殷昉,「汉韩差比句对比研究」, 박사학위논문, 2017, pp.197-228.
5) 崔健,『语言对比论文集』,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12, p.151.
6) a. 동생이 형보다 훨씬 더 크다.
b. *동생이 형보다 더 훨씬 크다.

를 바탕으로'좀더'와'더더욱'을 사용한 위의 예문을 보았을 때, 모두 원형적 차등 비교문[7] 형식에 위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만약'좀더'를'더좀'의 순으로 사용한다면 崔健의 위에서 언급한 정도부사 순서에 맞지 않아 비문이 된다. 그러나'더더욱'의 '더'를 '더욱'뒤에 놓고 보면'더욱더'로 崔健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어에서 잘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러면 '더욱'은 어디에 속할까? 崔健의 정도부사 순을 기준으로 해서'중량(中量)부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나'더욱'은 위의'훨씬'과'좀'과는 같이 쓸 수 없다. 崔健의 한국어 정도부사 사용 순서는 거의 보편적이지만'더욱'과 같은 부사처럼 예외도 존재한다. 즉, 한국어 차등 비교문의 정도부사 표현에 있어 표현 방식은 자유로우나 원형적 차등 비교문 효과가 나타나려면 정도부사 간의 사용 가능 순서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3. 결론

한·중 차등 비교문의 更'과 '还'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다양한 정도부사 표현에 있어 한국어 정도부사의 의미 연결망을 살펴보고, 또 하나는 한국어 정도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순서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

a. 동생이 형보다 좀 더 크다.
b. *동생이 형보다 더 좀 크다.
a. *동생이 형보다 훨씬 좀 크다.
b. *동생이 형보다 좀 훨씬 크다.
崔健, 위의 책, p.151. 참고.

7) '원형적 차등비교문'은 김동환의 '원형적 타동 구문'이라는 표현에서 응용되어 사용하였다. 김동환, 위의 책, p. 109 참고.

【메 모】

【중국어학 분과】 발표 ⑥

“一日教师”活动应用于韩国大学汉语课的教学模式实践研究
— 以汉语会话课实例为中心

曹筱君（釜山外语大学）

【目 录】

1. 绪论
2. "一日教师"活动应用于汉语会话课的实例
   2.1 研究对象及步骤
   2.2 课堂模式的设计及及学生实施活动情况
3. 活动满意度调查
4. 结语

1. 绪论

在当今的教学过程中，越来越摒弃原有的以教师灌输知识型的课堂教学，转而强调以学生自主性学习为中心的教学方式。从近些年来兴起的像PBL(问题式学习)教学法、 flipped learning(翻转/颠倒式学习)以及行动学习法（Action learning）等中，我们更可以清晰地发现：所有这些教学学习法的核心都是以“学生为主，教师为辅”的形式来展开教学过程的。那么目前把这些教学学习方法应用在汉语教学的研究成果又有哪些呢？笔者考察了近四年来发表在中国的CNKI网站和韩国的RISS网站上的论文，发现两国在数量上来说可谓旗鼓相当都在十余篇左右，但总体上来看把这些自主性的教学法应用在汉语教育方面的研究成果还并不多。笔者认为阻碍这些教学学习法在汉语语言教学中的推广，最大的问题有以下三点：

1)近些年流行起来的教学学习法大都是以提出问题给出任务，学生自己解决问题来完成任务的形式来展开，所以一个好的“问题”就成了最终任务能否圆满完成的核心，这样的学习过程对于语言教育中不是连贯特定领域专业方向的一般语言课程上，在学生的基础语言能力还很不够的情况下，显然变得很不容易。

2)给予学生自主性的教学模式虽然得到大多数人的赞同和提倡，但是一直伴随着对老师在教学过程中的作用性的质疑声从未消失过。所以这类教学学习法在课后的问卷调查的反馈中也经常出现两级化的现象。也正因如此，如何把课堂还给学生，又不让学生在学习的过程中感受不到老师存在的价值，成为老师们共同的思考题。

3)这类教学学习法大多以团队的形式来展开活动，那么如何给与学生公平公正地打评就成了老师和学生都非常敏感和费心的部分。当然这也是大多数合作学习活动的一个常见问题。

带着以上这些疑惑，在寻找合理有效的解决方式中，笔者在自己所教的一般汉语会话课上引用了一种“一日教师”的活动来做试探性的探索研究。

在中国对“老师”一词一直都具有很广泛的界定，即只要是对方有能力，可以从对方身上学到东西，即可称对方为师。这也从侧面反映了“教”与“学”是息息相关，紧密而不可分的。古代的《礼记•学记》中有这样一段话，原文是：虽有嘉肴，弗食，不知其旨也；虽有至道，弗学，不知其善也。是故学然后知不足，教然后知困。知不足，然后能自反也；知困，然后能自强也。故曰：教学相长也。翻译成今天的话就是说：尽管有美味可口的菜肴，不吃，就不知道它的味美。尽管有最好的道理，不学，就不知道它的好。因此学习后就知道不足，教导人后才知道困惑不通。知道不足，然后能自我检查。知道困惑，然后能自我勉励。所以说教与学是相互促进的。这段文字正很好的说明通过朋友间的互帮互助、互相切磋学问、相互观摩的教学过程从而到达“教是为了学生学会教学”的这一

最终目标。近代的教育学大家陶行知先生也早在二十世纪二三十年代就提出过“小先生制”的教育思想。何谓“小先生”，陶行知先生自己对此是这样说明的：“生是生活，先过那一种生活的便是那一种生活的先生，后过那一种生活的便是那一种生活的后生，学生便是学过生活的人，先生的职务是教人过生活。小孩子先过了这种生活，又肯教导前辈和同辈的人去过同样的生活，就是一名名实相符的小先生了。”由此可见，陶行知的所谓“小先生”，并非传统意义上的“长者为师”，而是知者为师、能者为师，以知识和能力掌握的先后为标准，而与年龄的先后没有必然联系。正如陶先生所说：“每个人，即使是只学习过几个月，只要学到一点，就应当把他学到的教给别人，甚至很小的孩子也可当‘小先生’。”这也促使笔者选择把“一日教师”这一活动应用到汉语的教学课堂上。

2. “一日教师”活动应用于汉语会话课的实例

“一日教师”活动就是让学生当一次老师，让学生作为老师站在讲台上把自己所掌握的知识传授给其他学生的活动。既然是要当一次老师，那么这就要求学生本身自己要在正式上课前对所要传授的知识点有足够充分地掌控。本次研究对象的学生虽是一年级学生，但都是在入学前学过汉语的学生，由于学习汉语时间长短，加上有无去过中国留学经验等等客观因素，学生间的汉语水平本身是很参差不齐的。为了克服这一矛盾，帮助学生提高自身的汉语水平，在正式导入“一日教师”活动前的几周时间里，笔者通过以PBL为基础的Storytelling活动来帮助学生练习口语和提高写作能力，由于本论文的重心是介绍“一日教师”活动，故在此不做具体的说明和展开。

2.1 研究对象及步骤

本研究是在韩国釜山所在的某四年制大学中文系一年级汉语会话课（专业课）上进行学生“一日教师”活动，重点记录在汉语会话课上应用此活动的整个流程，并且考察此活动的可行性。通过严谨地观察分析整个活动过程中的学生情况，从而得出学生“一日教师”活动应用在汉语会话课上是否可行。

本研究是以上中文系一年级汉语会话课（专业课）的学生，一个班级，二十个学生作为研究对象，研究考察期为五周。这二十个学生全部都参与了从学期初的学生基本情况问卷调查和口语面试测试，到学期中的活动准备日志和最终活动发表，以及事后的问卷调查等项目，所以最终也是以这二十人作为最终研究分析对象。研究对象的基本情况及口语能力如下图所示：

<table>
<tr><td>研究对象</td><td colspan="5">选修汉语系一年级汉语会话课（专业课）一个班级的全体学生（共20人）</td></tr>
<tr><td rowspan="5">学生基本情况调查</td><td>年级分布</td><td colspan="4">一年级 20人</td></tr>
<tr><td>性别</td><td colspan="2">男 5人</td><td colspan="2">女 15人</td></tr>
<tr><td>有无HSK</td><td colspan="2">有HSK 16人</td><td colspan="2">无HSK 4人</td></tr>
<tr><td>HSK级别</td><td>3级 3人</td><td colspan="2">4级 8人</td><td>5级 5人</td></tr>
<tr><td>有无中国留学经验</td><td colspan="2">有经验者 7人</td><td colspan="2">无经验者 13人</td></tr>
<tr><td>口语面试</td><td>下 3人</td><td>中下 11人</td><td>中 4人</td><td>中上 1人</td><td>上 1人</td></tr>
</table>

<表1>

这二十个学生的年级分布全都是刚进大学的一年级学生。男：女为1：3。从学生基本情况调查中发现，没有HSK资格证的四个学生里，有两个学生都有在中国留学的经验，剩下的两个学生在韩国国内也都学了两年左右的汉语。在有无中国留学经验的调查中，有经验者为七人（35%），其中一人在中国留学时间长达十三年，一人在中国留学过一年。除此以外，三人只在中国短期进修过一个月，其他在中国留学的时间也都在两、三个月左右。所以总体来看，虽然本次研究对象选择的是一年级的课目，但整个班级学生汉语水平都在中级以上水准，而且多以在韩国国内本土学习汉语的居多，也正是因为这个缘故，在学期初的口语1：1面试测试中可以看到，学生的口语会话能力总体

并不高，口语会话能力较之学生本身的阅读水平存有差异。这也是本次研究想要通过可行的学生“一日教师”活动来提高口语成效的最终目标。

“一日教师”活动是从期中考试后才正式进行，活动方式是以两人为一组，实验总共为期五周。之所以这样安排也是因为对于这样的学生“一日教师”活动的可行性存在不确定性，通过足够长的准备期让学生能充分地做好当“一日教师”前的准备工作。所有研究还处于试验阶段，最终活动发表的时间也限制在每组十分钟的时间。本论文研究对象在一周一次，一个小时的课时里进行学生“一日教师”的准备活动，为期四周，第五周进行最终学生“一日教师”活动发表。整个活动流程内容如下所示：

学习阶段	主要活动内容	核心教学培养目标	提交方式	评价方式	注意事项	评价时间
第1次活动课	1.通过给学生示范最终活动发表模式，帮助学生理解掌握"一日教师"活动的形式要求。 2.明确"一日教师"活动的整体流程进度并进行说明，帮助同学了解活动的目的和意义。					5月 第1周
第2次活动课	1.分组，并通过组员协商制定主题内容。 2.组员之间协商制定各自在活动中的任务分配。 3.编写对话内容（初稿）。 4.最终填写完并提交当天的"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	1.自主学习能力 2.知识信息处理 3.沟通理解力 4.人际关系能力	课后作业1上传至e-class	自我评价 同学间互评 教师评价	1.为了最终成功的发表，在准备阶段，学生需要做好充分地准备，教师也要做到细致地指导。 2. 在发表前的准备阶段，教师在巡视每组活动时要仔细观察每组的活动内容及时给予指导和建议。	5月 第2周
第3次活动课	1.参考教师反馈建议，修改整理对话内容。 2.结合教师示范说明，制定"一日教师"活动发表时的课堂教学案。 3.最终完成当天"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的填写。	1.自主学习能力 2.知识信息处理 3.沟通理解力 4.人际关系能力	课后作业2上传至e-class	自我评价 同学间互评 教师评价		5月 第3周
第4次活动课	1.最终定稿对话内容。 2.对上次活动课上"一日教师"活动发表制定的课堂教学案里的具体项目，如：单词、语法说明、例句练习等进行更进一步地完善规划。 3.最终完成当天的"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 4.进行发表前的模拟练习。	1.自主学习能力 2.沟通理解力 3.人际关系能力	课后作业3上传至e-class	自我评价 同学间互评 教师评价		5月 第4周
第5次最终发表课	通过以上4周准备活动课以及学生自主准备-教师指导-再修改-再指导的反复过程，最终学生展示成果发表演示的时间。	1.人际关系能力	PPT上传至e-class	教师评价		6月 第1周

<表2>

2.2 课堂模式的设计及学生实施活动的情况

根据表4《学生“一日教师”活动企划案》的内容以及借鉴美国著名心理学家约翰M·凯勒（John M.Keller）教授提出的“ARCS学习动机模型”，我们对除了第5次最终发表课以外的其他4次活动课上，每堂课里所涉及的学习目标及活动内容也都制定了详细相应的教师备课案。

第1次活动课的核心内容就是让学生清楚明白地了解什么是“一日教师”活动？如何进行“一日教师”活动？为此笔者制定了以下教师备课案，如图所示：

学习目标	1. 清楚了解"一日教师"活动的初衷和意义。 2. 掌握明确"一日教师"活动的整体流程和进度。		
学习阶段	教师·学生互动		学习资料 及注意事项
	教师	学生	
导入	1.点名后开始上课。 2.调节学生课堂氛围，开始介绍"一日教师"活动内容。	1.确定学习资料并准备上课。	1.点名簿
展开	1.在向学生明确说明本次学习目标后，给学生做最终"一日教师"活动发表形式示范，帮助学生理解本次活动的形式要求。 2.通过"一日教师"活动企划图和"一日教师"活动指南来引导学生，对最终"一日教师"活动发表前的准备流程进行说明，帮助同学了解活动的目的和意义。	1.一起确认学习目标和学习内容。 2.聆听观摩老师的示范说明。 3.对不明白或有疑问的地方提出问题意见。 4.理解明确"一日教师"活动。	1.PPT 2.指导学生集中理解"一日教师"活动。 3.对学生提出的异议耐心给予充分说明。
首尾	1.概要总结"一日教师"活动核心。 2.简略介绍使学生了解下次活动课内容。		

<表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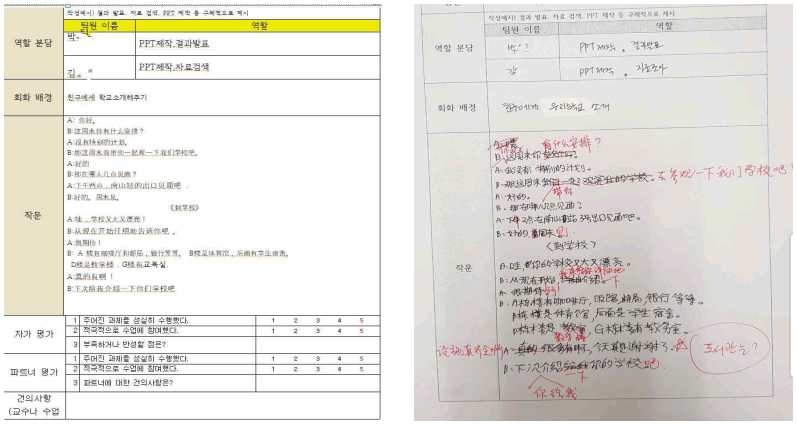
为了充分引起学生的注意，笔者还制作了“一日教师”活动指南来帮助学生更好地理解本次活动。

接着是第2次活动课备课案，如下表所示：

学习阶段	教师·学生互动		学习资料 及注意事项
	教师	学生	
导入	1.点名后开始上课。 2.调节课堂氛围，分发"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并说明填写要求和方式。	1.准备上课，并确定本节活动课的活动方式和要求。	1.点名簿。 2."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
展开	1.观察指导学生按活动要求进行，并完成活动任务。 2.在各组制定主题内容时，为避免有雷同重复的主题出现，需给予必要的干涉和协调。 3.随时对学生提出的帮助要求给予回应。	1.一起确认活动内容。 2.两人为一组进行分组，并通过组员协商制定主题内容。 3.组员之间协商制定各自在活动中的任务分配。 4.编写对话初稿内容。 5.对不明白或有疑问的地方提出问题意见。	1."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 2.指导学生履行"一日教师"活动要求。 3.对学生提出的疑问耐心给予充分说明。
首尾	1.说明并明确课后作业要求，提交方式和时间。 2.简略介绍使学生了解下次活动课核心内容。		

<表4>

现在我们来看一下学生在课堂上的准备情况和课后各自整理上传到e-class的作业情况吧。



<1조 课堂上的日志和课后上传至e-class的作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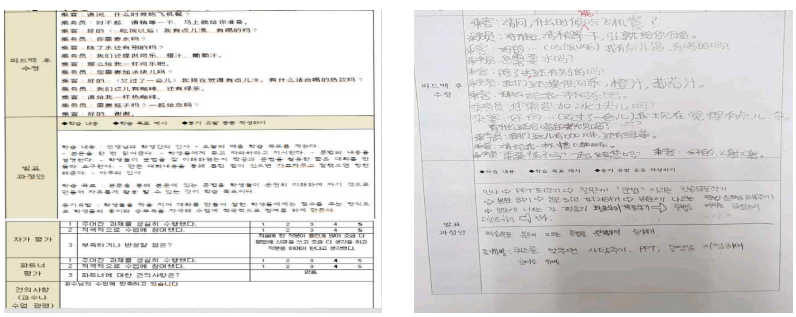
上面左图是学生在课堂上完成的准备日志。右图是本次活动后，学生各自独立回家把课上的内容再整理并进行了自我和组员间的评价内容。

下面是第3次活动课备课案情况，如下表所示：

学习阶段	教师·学生互动		学习资料 及注意事项
	教师	学生	
导入	1.点名后开始上课。 2.对上周学生提交的”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进行批改和反馈，并发还给学生。 3.分发本次”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并说明填写要求。	1.准备上课，并确认老师对上周”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的反馈意见。 2.明确本节活动课的活动方式和要求。	1.点名簿 2.”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
展开	1.对上次活动课上的问题提出教师的反馈意见，帮助学生修改并完善对话内容。 2.为最终”一日教师”活动能顺利发表进行，示范说明教学案制定过程，帮助学生理解本次活动的形式要求。 3.随时对学生提出的帮助要求给予回应。	1.学生根据老师的修改反馈对对话内容进行改正及整理补充。 2.对不明白或有疑问的地方提出问题意见。 3.参考老师示范，通过组员间协商，制定”一日教师” 活动的教学方案。 4.按要求填写并完成”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	1.PPT 2.”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 3.指导并帮助学生制定”一日教师”活动教学方案。 4.对学生提出的疑问耐心给予充分说明。
首尾	1.说明并明确课后作业要求，提交方式和时间。 2.简略介绍使学生了解下次活动课核心内容。		

<表5>

在此我们也选取一组为代表向大家展现一下学生们的活动情况，如下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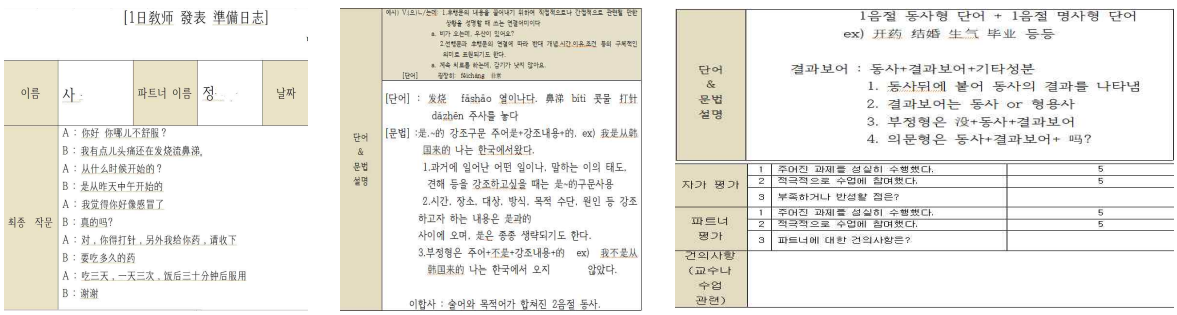
<2조 课堂上的日志和课后上传至e-class的作业>

整个第2、第3次的活动准备期间里，学生们已经大致地完成了正式发表时需要的教学对话本文内容以及发表时的教学备案的准备工作，也就是说“一日教师”发表时的雏形已经都搭建完成。在第4次活动时，将对更细节、更具体的方向进行进一步地准备活动。以下是第4次活动课的备课案：

学习阶段	教师·学生互动		学习资料 及注意事项
	教师	学生	
导入	1.点名后开始上课。 2.对上周学生提交的“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进行批改和反馈，并发还给学生。 3.分发本次“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并说明填写要求。	1.准备上课，并确认老师对上周“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的反馈意见。 2.明确本节活动课的活动方式和要求。	1.点名簿 2.“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
展开	1.帮助学生修改并最终完成对话内容。 2.指导更细致具体的“一日教师”活动发表教学案制定。 3.对“一日教师”活动发表过程中的评价标准进行说明。 4.给予学生帮助及指导发表前的模拟练习。	1.学生根据老师的修改反馈对对话内容再次进行更正及整理补充，完成最终定稿对话内容。 2.根据上次制定的“一日教师” 教学方案，组员间进行协商对于单词、语法说明、例句练习等具体项目进行更加充分准备。 3.按要求填写并完成“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 4.进行发表前的模拟练习。	1.“一日教师”活动准备日志 2.帮助学生完成“一日教师”活动发表前的细节部分。 3.对学生提出的疑问耐心说明，并对学生的发音，发表时的注意点等进行更进一步的指导。
首尾	1.说明并明确课后作业要求，提交方式和时间。 2.明确发表顺序和发表时有关的规则。		

<表6>

下面是选取一个学生代表的活动实施情况, 如下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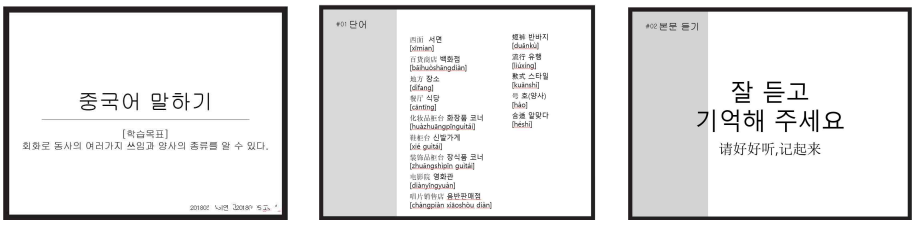
<3조(一个学生) 课后上传至e-class的作业>

由于是最终发表前的最后一次准备活动，所以学生课后上传的作业和学生在课堂上进行的内容基本一致，而且也不存在老师的反馈内容，故在此不再把学生在课堂上填写的活动准备日志内容一起并列展示给大家了。

从第1次的“一日教师”准备活动开始，直到第4次活动的展开，整个一系列的活动都是紧紧围绕着ARCS动机模型的“注意”、“相关”、“自信”、“满意”这四大要素来设计进行的。为了成功引起学生的注意，在第1次活动课的一开始，笔者就通过亲自示范来向学生展示最终“一日教师”发表时的实例模式；在接下来的每堂活动课的开始阶段，笔者都会向学生明确本次活动课的活动内容目标，如：在学生制定自己的教学案前，先给学生展示一些真实教师的备课案，帮助学生更好地理解这一活动与学生自己的切身性；每次把对上堂活动课上的活动日志重新反馈发还给学生时，总是对学生的表现逐一进行肯定和强化，从而提高学生的自我效能感；在第1次的活动课上就明确说明本次活动的评分标准和评分角度，在每次活动后也如实贯彻执行了自我评价和学生组员间的评价，从而最大化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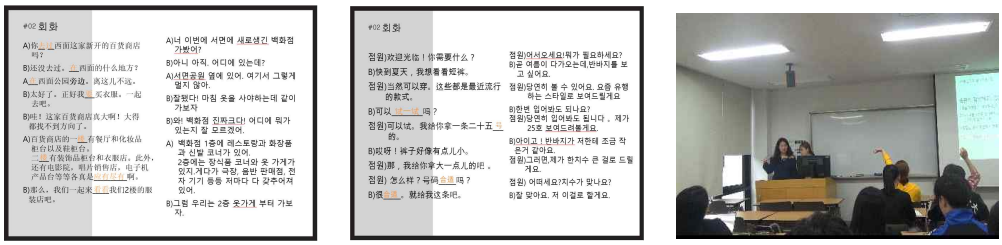
努力去实现公平公正的评分原则

第5次活动课是最终发表，在此笔者也选取一组学生代表来展示一下学生的最终成果。如下图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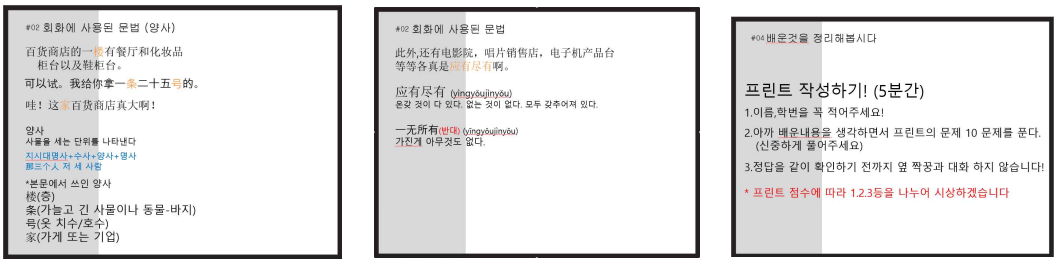
<4조 课堂发表过程--开始阶段>

这一组学生作为老师，他们在上课开始前就向学生明确了今天的学习目标是“通过本文内容来学习几个重要动词的用法和量词的使用”。首先挑选出本文内容中将要出现的单词内容和同学们一起进行朗读和学习。接着在不公开原文内容的情况下，让学生进行听力练习，总共听读两遍。



<4조 课堂发表过程--本文解释阶段>

接着我们的“老师”把刚才听到的内容公布给大家看，但是在公开的过程中，一些接下去要重点说明的动词或量词和语法点上采用空格的形式，让坐在下面的学生们自告奋勇地来抢答。在这一过程中，所有学生都有被积极调动起来，互动气氛非常好。



<4조 课堂发表过程--重要语法点及课堂小测试阶段>

这一组学生不仅有对对话文中出现的四字成语和语法进行说明外，在发表的结尾部分还出了一份问题卷来考察其他学生的掌握情况，并按分数给前三名的学生发放奖品以示鼓励。整课堂的节奏掌控和学生间的互动关系都做得非常棒。

3. 活动满意度调查

由于本研究是笔者尝试性地把“一日教师”活动应用到汉语会话课上的实践研究，所以“一日教师”活动是否可行就要通过活动结束后的满意度问卷调查来给出明确地答案。调查内容如下表所示：

领域	问卷内容	完全不是	不是	一般	是	完全是
满意度	"一日教师"活动新鲜有趣。	0人 (0%)	0人 (0%)	2人 (10%)	13人 (65%)	5人 (25%)
	我觉得通过"一日教师"活动使课堂气氛变得活跃。	0人 (0%)	0人 (0%)	1人 (5%)	11人 (55%)	8人 (40%)
学习效果	我觉得通过"一日教师"活动使我对汉语学习增加了兴趣。	0人 (0%)	1人 (5%)	2人 (10%)	12人 (60%)	5人 (25%)
	为了"一日教师"活动而编写的文章，促进了我的词汇和表达能力。	0人 (0%)	1人 (5%)	3人 (15%)	11人 (55%)	5人 (25%)
	我觉得通过"一日教师"活动对我的汉语口语能力是所有帮助的。	0人 (0%)	1人 (5%)	5人 (25%)	8人 (40%)	6人 (30%)
	通过"一日教师"活动充分地发挥了我的创意性。	0人 (0%)	1人 (5%)	2人 (10%)	10人 (50%)	7人 (35%)
态度	我积极主动地参与到"一日教师"活动。	0人 (0%)	0人 (0%)	0人 (0%)	9人 (45%)	11人 (55%)
	我在履行课堂作业过程中，能很顺利圆满地和队友一起进行合作学习。	0人 (0%)	0人 (0%)	0人 (0%)	7人 (35%)	13人 (65%)
改进点	我认为教师的参与（提问、说明、提供改进反馈等）是恰到好处的。	0人 (0%)	0人 (0%)	1人 (5%)	10人 (50%)	9人 (45%)
	请谈谈自己在参与到本次活动中的感受（好的地方或不足之处等等都可以）。					
	- 能成为"一日教师"让我感到十分地兴奋。 - 优点：提高了汉语写作能力和词汇量。 遗憾的地方: 没有 - 老师，辛苦了。 - 产生了自信心，对汉语也更感兴趣。 - 很开心能和同伴一起来合作完成任务。 - 老师主动积极地参与，我觉得很好。 - 由于是像真正地上课一样，所有的内容都要我们自己准备，所以为了更准确地掌握语法、词汇等等部分，自己要更加地努力，从这点上来说，我很满意。 - 一方面是教同学，一方面也是自我学习，这样很不错。 - 因为是亲自准备上课内容，所以对自己所要教授的内容要做到100%地理解和掌握，从这一点来说这个学习方法很好。					

<表7>

正如<表7>中学生谈及本次活动的感受那样，整个“一日教师”活动的初衷和目的被学生们很好地理解和接受，这是笔者感到欣慰的，也很好地证明了“一日教师”活动是完全可以应用在汉语会话课上的。除了个别一两个学生以外，其他绝大多数的学生都能从自己亲自备课，提炼语法和词汇点，和他人合作以及传授他人知识的过程中，学习和提升自己。在问卷调查的最后，所有的学生都避谈了此次“一日教师”活动的不足之处，只谈了对本次活动满意的地方。所以笔者想要借此来谈谈整个活动后的一些反思：首先笔者觉得准备期拉得过长。另外，就是对于有没有必要要求学生要像真正的教师那样写“教学案”的问题上，虽然让学生们写“教学案”对学生来说并非不好，这样可以帮助学生在自己正式发表前进行一种预演式地整理和安排，但是写“教学案”其实并非“一日教师”活动的初衷与目的，既然不是重点那么在以后的活动安排上，会对此问题进行改进和调整。最后就是笔者在正式导入“一日教师”活动前，为了帮助学生练习口语和提高写作能力而进行的以PBL为基础的Storytelling活动，如何把前后两者活动更紧密地联系起来，使得“一日教师”活动可以顺延着前面的PBL的基础更有效果地展开是今后“一日教师”活动展开时需要思考的问题。

4. 结论

本文梳理了笔者在自己所教的大学一年级汉语会话课上采用“一日教师”活动的详细记录，从课堂模式的设计到学生实施这一活动的整个过程，并在活动结束后进行了问卷调查。笔者通过问卷调查的形式来观察分析了学生对于“一日教师”活动的满意程度。问卷调查从满意度、学习效果、自我对这“一日教师”活动的参与态度及需要改进的地方等几大方面进行调查。结果可以说是相当可喜的，从各个方面都得到的良好评价中，可以判断此活动在汉语会话课上的推行是完全可行的。

虽然“一日教师”活动的可行性已经得到了证明，但是在如何更好地应用在汉语课上是接下去需要改进和进一步要研究的问题，本次研究对象是低年级中级水平的汉语学习者的，那么针对不同汉语水平的学习者又该如何来开展此活动呢？等等一系列问题还将有待更深层次地研究和探讨。

【参考文献】

조영란 (2017) ,<PBL 기반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중국어 교육 ― ‘중국어 기초연습’ 강의사례>, 《中國學論叢》
진광호 (2010) <중국어-한국어 Tandem 학습법 도입>, 《중국학》 36집 (pp.31~48)
이효영 (2018) <서비스러닝을 활용한 중국어 탄뎀(Tandem)수업 사례 연구 >, 《한국중국언어학회》
진광호, 정태업, 이효영 (2013)<협동학습에서의 동료평가 결과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른 학업 성취도 비교 : 중국어-한국어 Tandem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중국학》 제46집
云欣（2016），<PBL教学法咋对外汉语近义词教学中的应用>，辽宁大学硕士学位论文
高向斌（2006），<一堂好课标准的调查研究>，上海教育科研期刊

【메 모】

【중국어학 분과】 발표 ⑦

미추(美丑)의 대립관념에 본 '美'의 의미범주

김정필 (경상대)

서언

우리는 한자 '美'를 '아름답다'라고 번역한다. 그러면 과연 '아름답다'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의미범주를 어디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가? 4차원의 정보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전의 사전에서 찾던 어휘와 그 의미를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게 되는데, 한국어 '아름답다'를 중국어 사전으로 검색하면 美, 美丽, 优美, 美妙, 美好, 甜美, 漂亮, 好看, 俊, 妍丽, 秀丽, 佳 등 기본의미에서 善良, 高尚, 圣洁, 爱 등이 나온다. 그러면 10여개가 넘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와 반대로, '美'를 한국어 사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명사로서 "눈 따위의 감각 기관을 통하여 인간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교육 성적이나 등급을 '수, 우, 미, 양, 가'의 다섯 단계로 나눌 때 셋째 단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때의 '미'는 과연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할까? 사실 여기에서 나타내는 '미'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보이는 미각적, 시각적, 청각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학업의 중간단계를 나타내는 균형과 조화의 '미'를 의미한다. 즉 한국어의 '아름답다'에 대한 사전적 의미설명[1] 중에 나타나는 수식어에 보이는 '균형과 조화'의 미에서 왔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균형과 조화' 이외에도 '즐거움과 만족', 그리고 '마음씨가 곱거나 행동이 훌륭하고 갸륵하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개인의 호감도(好感度)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우리는 한국어 '아름답다'의 유의어와 반의어를 통해 '미추'의 대립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유의어로 나타나는 '고매하다, 곱다, 깨끗하다' 등과 반의어인 '못생기다, 추하다, 밉다' 등 대립관계가 완전한 상반대립을 이루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곱다-추하다'의 관계를 '미추관념'의 상반대립으로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고매하다'나 '깨끗하다', 그리고 '못생기다' 등과 대립되는 또 다른 어휘가 '美'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사실 중국어 학자[2] 중에서 '미추개념'에 포함되는 다양한 어휘들에 是非(시비) 然否(연부) 利害(이해) 好歹(호태) 利弊(이폐) 好坏(호훼) 荣辱(영욕) 优劣(우열) 甘苦(감고) 善恶(선악) 真假(진가) 真伪(진위) 恩怨(은원) 赏罚(상벌) 功过(공과) 婚丧(혼상) 盛衰(성쇠) 存亡(존망) 吉凶(길흉) 得失(득실) 休戚(휴척) 등이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러한 어휘들이 어떻게 '미추'의 대립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중국어에서 '美'는 '丑'와 대립개념으로 인식되는데, 과연 '추하다'의 '丑'는 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범주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포괄할 수 있을까?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미추'의 개념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어휘들을 통해서 중국인의 심리의식에서 바라 본 '美丑(미추)'의 대립관념을 '褒贬', '好坏' 등의 대립관점에서 긍정적 판단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모두 '美'적 관념을 지닌 것으로 확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어 '아름답다'의 의미 해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첫째가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이며, 두 번째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한 데가 있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다양한 수식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常敬宇(1995)

1. '美'의 본질과 의미의 확장

'美'의 본의에 대해서는 우선 ≪说文≫에서 해석하고 있는 "美, 从羊从大, 甘也"에서 찾을 수 있는데, 글자 본래의 모습은 '큰 양' 혹은 '양이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석 중의 후반부 해석인 '甘也'은 '美'의 의미범주가 '味觉'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즉 '美' 또한 일종의 '味觉美'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味觉美'란 고대중국인들의 심미의식(审美意识)이 음식의 맛(味道)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甘'에 대한 ≪说文≫의 해석이 "甘, 美也。从口含一。一, 道也。"에서도 '甘'과 '美'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더 나아가, 段玉裁는 그의 주해에서 "甘为五味之一, 而五味之可口皆曰甘。"이라고 있으며, 또 "引伸之, 凡好皆谓之美"하여 '好'와 연계시키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심미의식이 사물에 대한 '好坏'의 감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美'를 '아름답다'라고 번역하여 사물의 조화로움과 화려함에서 찾고 있는 것도 또 ≪说文≫의 '美'의 또 다른 해석인 "美, 色好也。"에서는 '美'가 '视觉美'인 '色'과도 상호 연계되어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각언어인 한자를 통한 설명에서 '味觉美'나 심미의식을 '色'의 '视觉美'로 표현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또 '美'의 '아름다움'을 여자와 연관시키는 것은 ≪说文≫이나 ≪广雅≫ 등에서 나타나는 '女'자 부수의 글자가 '美'로 훈독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예를 들면, '媚、娓、姍、娧(더딜 태)、姝(예쁠 주)、姣、婉 등'은 모두 여성과 관련된 부수 '女'가 있는데, 이러한 한자의 훈독에서도 '美'나 '好'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학자인 '笠原仲二' 역시 고대중국인의 원시적인 심미의식을 '음식'과 연관된 관능성의 희열감을 '味觉美'로 보았으며, 음식과 병칭되던 표현 방식에서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욕망인 '色'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대중국인들의 심미의식의 발전은 '美'의 의미범주가 '食'과 '色'에서 더 다양한 물질방면의 기물, 복식, 천지, 산천 등으로 그 범주가 확대되어, 다양한 물건의 표현에 '美'자를 부여함으로써 '美物'의 명칭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器物美 - 美物、美玉、美剑、美珥
服饰美 - 美衣、美裘、美锦、纤美之服

더 나아가, 이러한 심미의식의 확장은 단순히 감각적 표현에서 政治、人情、人心 등의 의식문화 방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정치, 道德、诗文 등의 정신문화 방면의 어휘들이 생성되게 된다. 예를 들면, 政治방면의 미를 표시하는 어휘로는 美政、美治、美官、至美之道 등이 있으며, 人才를 나타내는 것에도 美材、美质、美贤、奇逸之美 등이 있다. 또 윤리에는 心之美、德之美、义之美、和之美、美意、人情之美 등이 있다. 사업에서는 '美名、美事、功之美、名誉之美 등'이 사용되며, 문학예술에서는 '诗之美、赋之美、辞之美、曲之美、美音、美声、舞之美' 등이 쓰인다.

지금까지 기존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美丑'의 대립에서 바라본 '美'의 의미범주의 파생과 확장은 중국인의 심미의식의 발전, 변천,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중국인의 심리의식의 점차적인 변화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味觉美→视觉美→听觉美→精神美'의 노선을 따라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미각에서 청각은 모두 감각의 범주에 해당하지만, 정신으로 가기까지의 특징은 모두 개체의 주관적 판단에서 복수의 단체가 공감해야 하는 객관적인 색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을 통해 판단할 수 없으며, 전체 국민들의 공감이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고대중국어에서 비롯하여 현대중국어에 이르기까지의 '美'의 의미범주를 '주관'에서 '객관'으로 가는 의미범주를 통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즉 초기의 단순히 음식의 맛에 대한 개인적 감각을 통한 '好坏'의 주관적 평가에서 그것을 품평하는 상벌의 기준인 '褒贬'의 대립으로, 다시 평가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통한 유무의 대립인 '是非'의 평가로 가는 객관화의 범주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好坏'의 대립과 미추관념

앞에서 '美'의 의미가 음식을 즐기는 '美觉美'에서 출발했다고 하였는데, '饮食'의 맛을 통한 접근은 개인적으로 그 맛을 좋아하느냐 아니냐의 평가인 '好坏'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우리가 음식의 맛에 대해서는 '맛이 있다' 혹은 '맛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정작 이러한 '有无'의 대립은 매우 객관적인 존재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맛의 유무는 '있다' 혹은 '없다'라는 객관적 현상에 대한 설명보다는 '좋다' 혹은 '나쁘다'(好坏)의 개념대립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好'의 본의는 '美, 貌美'라 하여 용모의 아름다움에서 출발한다. 《说文》에서는 "好,美也。"라 하였으며, 《方言二》에서는 "凡美色或谓之好。"라 하여 시각미인 '色'과 연결하고 있다. 그리하여 '好皮囊'는 '好看的外貌'를 의미하며, '好鸟'는 美丽的鸟, '好不丑'는 反语로써,即好不俊, 俊得很 등으로 해석된다. 특히 '好美'는 '美貌'를 의미하며, '好闲'은 '容貌美丽,举止闲雅'로, '好妇'는 '美貌的妇女' 등으로 해석되는 것은 고대한어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려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여전히 '善'과 '友好', 그리고 完成;完毕로 연결되며, 아울러 '合好'와 더불어 '很'의 의미까지로 파생된다.

그러면 대표적인 '好坏'의 미추대립를 나타내는 어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에서 언급했던 어휘 중에서는 '好坏(호훼), 好歹(호알), 善恶(선악), 婚丧(혼상), 甘苦(감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 '褒贬'의 대립과 미추관념

우선 '褒'는 '기리다, 넓고 큰 옷자락' 등으로 되어 있으나, ≪现代汉语词典≫에서는 '赞扬, 夸奖'으로 해석하여 '贬'(降低, 缺点)과 상대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서면어에서는 '(衣服)肥大'라고 하여 '褒衣博带(宽袍大带)'라고 하여 한국어 한자사전의 '넓고 큰 옷자락'과 대비되지 않을까 싶다. 또 어휘 '褒贬'은 그 어순구조의 결합방식에 따라 크게 대등병렬과 결합어휘의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대등병렬의 어휘구조는 '评论好坏'(褒贬人物／一字褒贬／不加褒贬)으로 '좋고 나쁨'을 평가 혹은 구별하는 방식으로 대비시키고 있으며, 결합어휘로는 '批评缺点', '指责'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褒贬'의 평가내용은 비록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하겠지만, 좋고 나쁨의 구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주관적인 면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에 언급된 어휘 중에서 이러한 대립개념으로 표현된 대표 주자로는 赏罚(상벌)과 功过(공과)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보며, '好坏'의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褒贬'은 한국어에서 적합한 용어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서론에서 언급했던 한국어의 학교 등급에서 보이는 '미'와 관련시켜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褒贬'의 평가는 '美'의 의미범주 '甘'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데, '甘'、甜' 등과 결합한 어휘 등은 기본적으로 '맛'에 대한 평가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甘'과 결합한 어휘는 대부분 '美好'나 '褒义'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甘泉、甘露、甘霖(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甘美、甘甜、甘心(诚心如意、愿意)、甘愿(心甘情愿)、甘旨(美好的食物)、甘之如饴(엿 이, 感到像糖一样甜)、同感共苦、甘心愿意' 등이 있다. 대표적인 '褒贬'의 미추대립을 나타내는 어휘로는 优劣(우열), 荣辱(영욕), 恩怨(은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4. '是非'의 대립과 미추관념

'是非'의 대립개념은 긍정과 부정의 평가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是非(시비)와 然否(연부)가 대표적인 어휘라 볼 수 있다. 또 개인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으나 真假(진가), 真伪(진위), 利害(이해), 利弊(이폐), 盛衰(성쇄), 存亡(존망), 吉凶(길흉), 得失(득실), 休戚(휴척) 등도 '是非'의 미추대립으로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是'의 본의는 '正'으로 이지러지지 않음(不偏斜)을 나타낸다. 《说文》에는 "十目烛隐曰直,以日为正曰是。"라 하여 '直'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国语·楚语》에서는 '理'라고 해석하여 현대중국어 '对'의 의미를 지닌다. 또 《淮南子·脩务》에서는 '善'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正'과 '直', 그리고 '对'는 동사로 '赞同(正确,肯定)을 나타내고, 관계사로는 긍정판단을 나타낸다. 대표적인 관계사로는 是必(一定要;务必), 是须(必须,务须), 是致(以致;因此) 등으로 사용된다.

이상에서 '是'의 '是非'대비는 '理' 혹은 '对'와 연관되어 긍정부정의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추대립'에서 '美'의 또 다른 범주는 '是'로써,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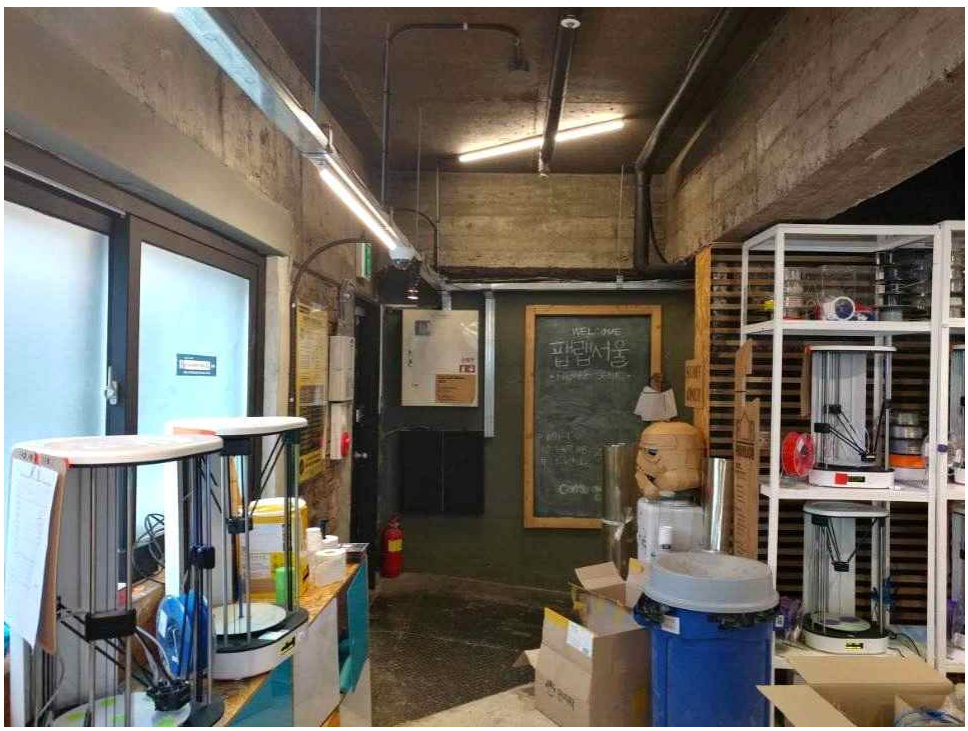
5. 정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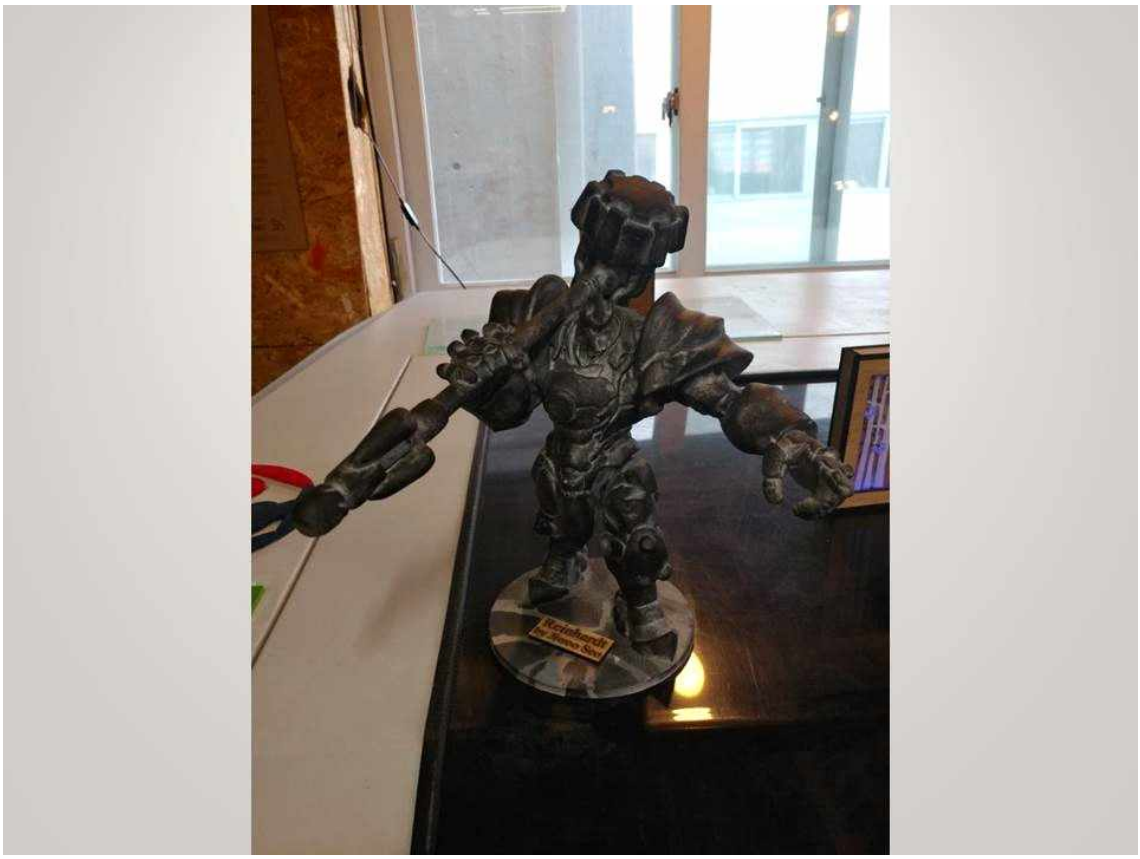
이상 '美丑'의 대립관념을 통한 '美'의 의미범주를 '好坏', '褒贬', '是非'의 개념대립을 통해 각기 긍정부분인 '好', '褒', '是'에 대비시켜 고찰을 시도했으며, 그 첫 번째 과정으로, '好', '褒', '是' 등이 가지는 의미범주를 '美'의 의미범주와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그 다음 과정은 본 발표문에서 검토되지 않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각 어휘들로 구성된 구문과 구문의미를 대비시킴으로써, 과연 그 의미범주가 서로 어떠한 유의성을 지닐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아울러 유의범주가 가지는 경계를 도상으로 검증하여 어떤 부분에서 '美'의 범주가 '好', '褒', '是'의 범주를 포괄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떠한 각도에서 '好', '褒', '是'가 美'의 범주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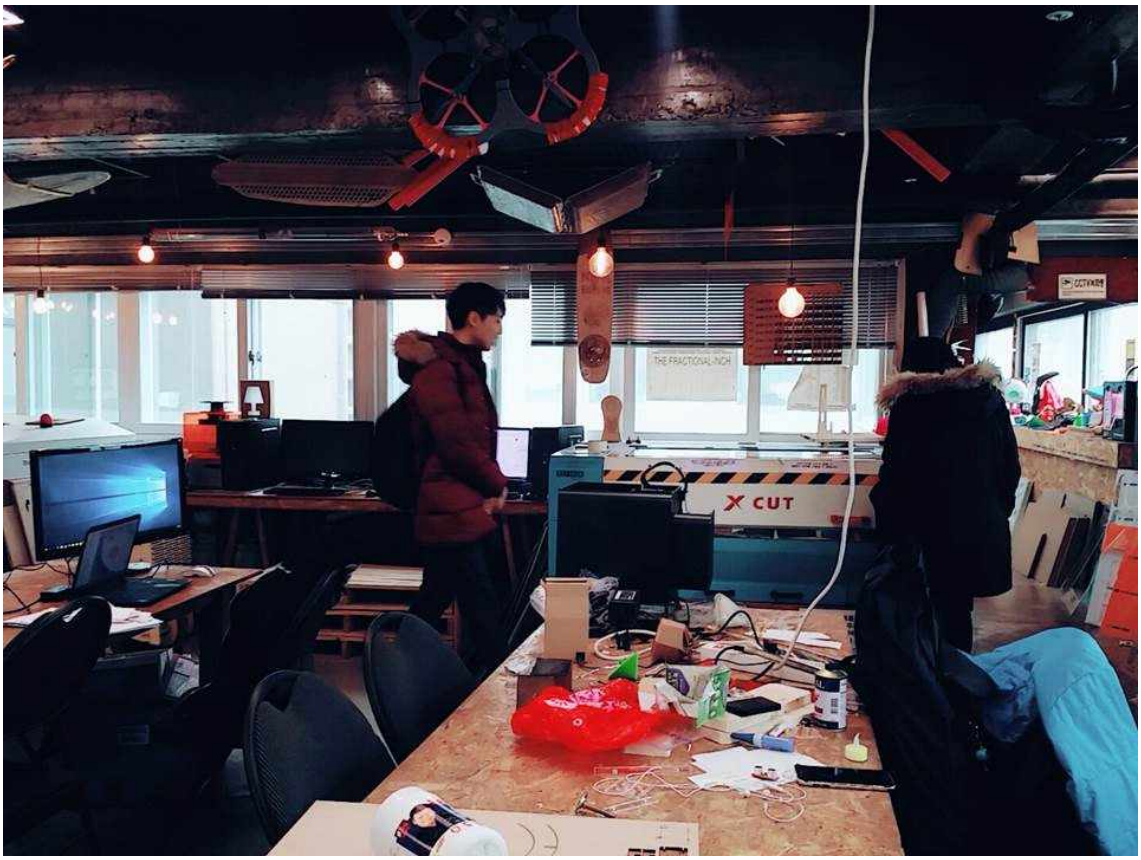
【중국문학 분과】 발표 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장자의 리더십

김송희 (LAMI 인문과 예술 경영연구소)






X CUT

참조 문헌과 학회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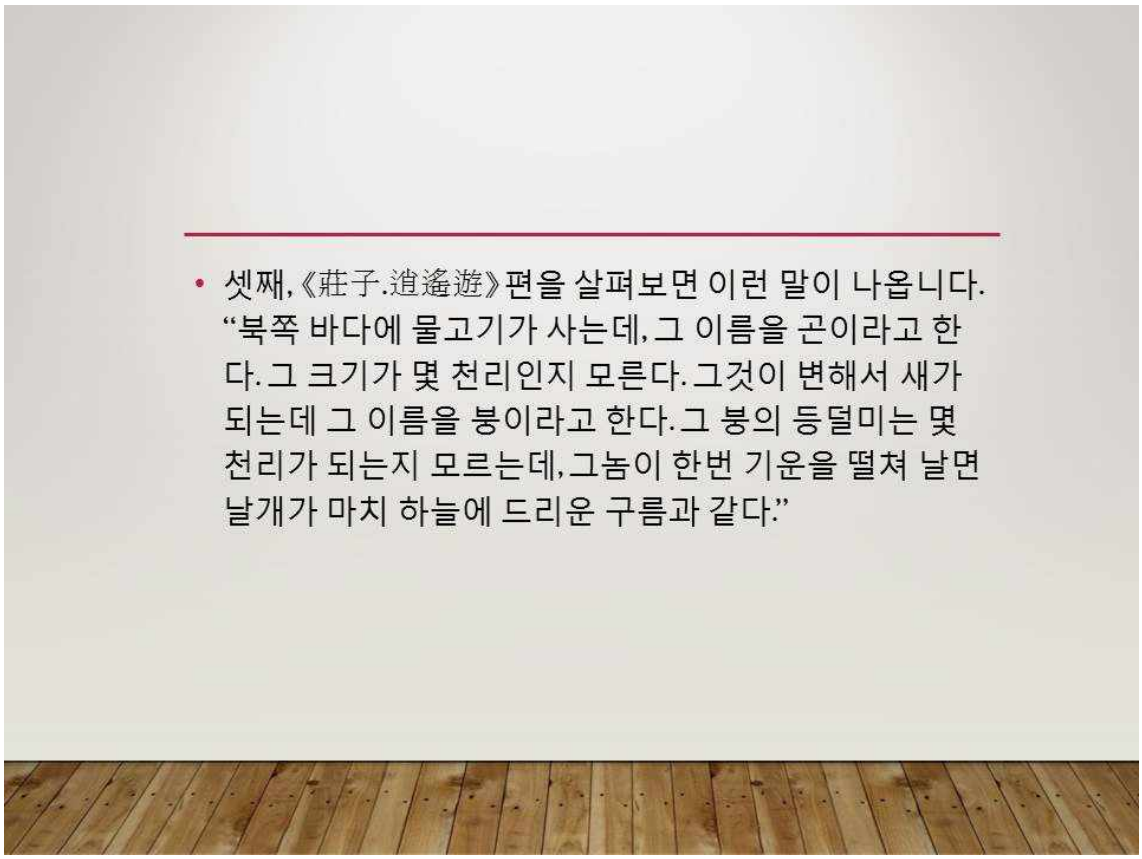
- 《세계를 향한 한국교육》
- 《팍스 아메리카의 침묵》
- 《대학 잃어버린 베리타스를 찾아서》
-
- <4차산업혁명과 인문학적 리더십-
- 《莊子》에게 묻다> 2017년 11월 12일
- 연대 국제학술회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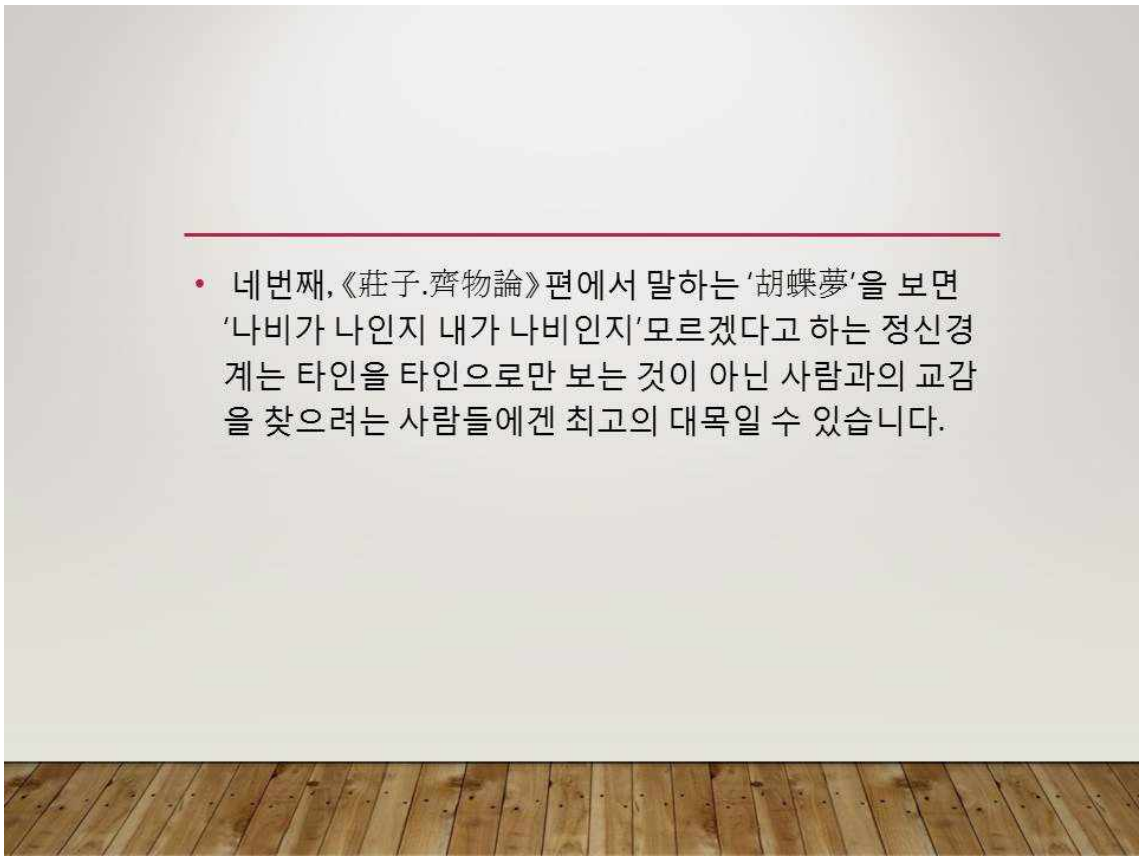
《莊子.天下篇》

첫째 "천하의 학자들은 대개 도(道)의 한 부분만을 보고 스스로 옳다고 했다. 이를테면 눈과 입과 코가 제각기 분명한 바가 있어서 서로 통하지 못하는 것과 같고, 또 기술을 가진 여러 명이 장기가 있어서, 때에 맞추어 쓰이는 바가 있지만, 그 전체를 갖추어 두루 사용하지 못하는, 한 부분에 얽매인 사람과 같았던 것이다."

- 《莊子.齊物論》에서는 상대적인 시각과 상대성 원리를 강조함으로서 지나친 편견을 버리자는 데서 통찰하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장자는 "小知不及大知, 小年不及大年.....此小大之辯也."라는 설명을 통해서, 분별적 지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둘째, 《莊子.逍遙遊》편을 보면 "너무 멀고 멀어 끝이 없는 까닭인가? 붕새가 나는 구만 리 상공 저 위에서 이 지상을 내려다보아도 또한 저러할 뿐일 것이다."라고 하여 무한한 세계를 동경하는 상상력을 담은 것인데요,


• 셋째,《莊子.逍遙遊》편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사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그 크기가 몇 천리인지 모른다. 그것이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그 붕의 등덜미는 몇 천리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놈이 한번 기운을 떨쳐 날면 날개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 네번째,《莊子.齊物論》편에서 말하는 '胡蝶夢'을 보면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모르겠다고 하는 정신경계는 타인을 타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사람과의 교감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겐 최고의 대목일 수 있습니다.

- 다섯째,《莊子》는 '天人合一'을 강조함으로서 자연과 합일되는 정신경계를 따름으로 지나치게 인위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을 부정합니다. 자연합일적인 정신경계에서 배우도록 하는 것은 天心과 民心의 교감과 소통을 중시하는 마음으로 살피도록 한다는 점이다.

莊子의 제계(齊戒)

- "마음의 제계(齋戒)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氣로써 듣는 것이다. 귀는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고, 마음은 일에 부합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氣란, 텅 비운 채 무심히 사물을 기다려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道란, 아무 것도 없이 텅 비우는 것을 모으는 것이고, 비워낸다는 것이 곧 心齋인 것이다."

데르버,《윈 월드-세계적 폭력에서 사회적 세계화까지》

"상위 200개 기업이 세계전체 특허의 90%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식량 대부분을 생산하고 가공하여 판매한다. 자동차와 보일러에 쓸 기름을 조달하고 세계 수십억 인구를 위한 미디어 산업과 문화 산업을 담 당한다.....거의 모든 은행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보건에 대한 결정권도 점점 더 많이 가진다. 무엇보다도 전 국가의 무기 창고에 가득한 대부분의 무기를 생산한 장본인이 바로 이들이다."

- 《장자.거협(莊子.去篋)》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지자(知者)란 큰도둑을 위해 물건을 모아두는 자가 아닌가? 혹은 소위 성인(聖人)이란 큰도둑을 위해 물건을 지키는 자가 아닌가?"

《莊子.繕性》편

-
- "옛말에도 '物'을 위하여 자기를 망치고 俗을 위하여 본성을 잃은 사람, 이것을 일러 안과 밖의 가치를 거꾸로 보는 倒置의 백성이라고 한다."

키워드

- 4차 산업혁명의 혁신과 개발, 아이디어
- 장자의 통찰력,
- 민심과 소통하는 천인합일
- 인간에 대한연민,
- 정직과 덕,
-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을 묻는 리더십

【중국문학 분과】 발표 ③

寒山詩의 주요 이미지에 관한 고찰

정원호 (동의과학대)

【목 차】

1. 들어가며
2. 긍정적 이미지
   1) 白雲　　2) 寒山
3. 부정적 이미지
   1) 動物　　2) 酒肉
4. 나오며

【초록】

본고는 '寒山' 혹은 '寒山子'라고 알려진 인물의 詩集인『寒山詩』에 나타난 주요 이미지에 관해 고찰한 글이다. 시의 이미지에 관한 고찰은 시인의 내면에 드리우고 있는 사고의 방향성을 가늠케 해주는 동시에 삶의 지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시인 한산은 그의 시 속에서 당대의 영향을 받아 유가와 도가의 경향도 일부 나타나지만, 불교적 색채가 매우 짙게 드리워져 시 전체를 불교적 경향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산이 이러한 경향의 시를 창작하기 위해 어떠한 이미지를 사용하였는가를 고찰해보았다. 아울러 그의 시에 나타난 이미지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시를 통해 그의 세계관을 뚜렷하게 포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시에서 긍정적 이미지로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 이미지는 '흰 구름[白雲]'과 '한산[寒山]'이다. '흰 구름'은 첩첩 산중에 홀로 은거하며 거친 자연의 변화 속에서 화자의 벗이 됨과 동시에 세상을 자유로이 살아가고자 시인의 내면세계가 그 속에 투영되어 있다. '한산[寒山]'은 시인이 은거하며 생활하던 장소로서의 한산과 인간으로서의 한산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시인이 이상향을 위해 정진하던 때의 한산이라는 배경은 고난과 역경의 도량으로 나타나지만, 깨달음에 도달하고 난 이후 한산이라는 배경은 이상적이고 청정한 아름다운 도량의 긍정적 이미지로 다가왔다.

그의 시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난 것 또한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 이미지는 '動物'과 '酒肉'이다. 동물 가운데에서는 특히 '돼지'와 '개'의 이미지가 부정의 이미지로 동원되었다. 돼지는 탐욕과 거짓의 이미지로, 개는 성냄과 애욕의 이미지로 동원되었다. 술은 일시적인 쾌락을 위한 인간의 부정적인 욕망의 이미지로, 고기는 탐욕스런 인간의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 한산의 수양을 통한 변화하는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 이미지는 한산의 시를 입체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확장되어 시적 의미를 보다 구체화 시켜주는데 일조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寒山, 佛教, 白雲, 動物, 酒肉

1. 들어가며

寒山의 성명은 고증할 길이 없으며, 집안 역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집안이 상층 관료 집안은 아니며, 중하층 계급의 관리 집안으로 경제는 비교적 부유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1] 그의 생활연대는 대략 唐나라 武則天시기부터 德宗 貞元년간으로 백세 가량 수를 누린 것으로 전해진다. 長安人이며 삼십 세 이후 天台山 寒岩으로 들어가 약 70여 년 간 그곳에서 은거하며 지냈다. 그곳에서 國淸寺 승려인 豐干, 拾得 등과 교유하며 시를 창작하였다.[2] 그의 작품 성향은 어릴 적부터 익혀온 유가적 훈도의 영향과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은둔해 들어간 이후의 도가적 영향이 일부 배어있다.[3] 그러나 그의 시 삼백여 편은 거의 종교라고 할 만한 강한 불교적 색채가 상당부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4]

이미지는 인간의 삶을 위해 필수적인 매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미지와 인간의 삶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미지로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에 속하는 만큼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삶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5] 한편의 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시인은 가슴 속에 무수히 많은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 그 중 어떤 이미지들은 시인의 관심에서 사라져 버리고, 남은 이미지들은 서로 적당한 조합을 이루어 결국에는 시인이 표출하고자 하는 주제에 알맞은 작품으로 탄생된다. 그러한 이미지는 시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효과가 있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구체화시켜서 표현해주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고찰은 시인의 내면에 드리우고 있는 사고의 방향성을 가늠케 해주는 동시에 시인의 삶의 지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산이 불교적 경향의 시를 창작하기 위해 어떠한 시적 이미지를 사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대개 시인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과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의 두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寒山詩』에 사용된 주요 이미지를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중국의 崔小敬이 그의 박사논문에서 한산시의 物象과 心象에 관해서 다룬 바가 있다. 그는 여기에서 한산에 대해 물리적 공간, 생활공간, 깨달음의 공간의 세 부류로 구분해 놓고 각 부류에 속하는 한산시의 종류를 한데 묶어 평을 가하였다.[6] 국내에는 이선희가「한산시에 나타난 한산의 의미」에서『寒山詩』중에 보이는 寒山의 意象에 대해 유사한 시편들을 한데 묶어놓고 寒山의 표면적 경관 묘사와 한산의 禪的 경계에 대해 묘사하였다.[7] 필자가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寒山'은 자연물인 '寒山'이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이 됨과 동시에 이상향으로 나아가는 인생수양의 길이다. 그러므로 '寒山'의 이미지 변화를 통해 인간 한산의 심리적 변화에 따른 수양의 단계를 고찰해 보고자 함이다. 즉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긍정적 대상과 부정적 대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 한산의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본고의 寒山詩 原文은 이전에 발표한 필자의 한산시 졸고와 마찬가지로 四庫全書 全唐詩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寒山詩 전체가 無題詩이므로 논지 전개의 편의상 四庫全書 全唐詩本 卷806에 실려있는 寒山詩 수록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서 詩를 구분지었음을 밝혀둔다.[8]

---

* 동의과학대학교 관광중국어전공 조교수 (whjung@dit.ac.kr)

1) 何善蒙,『隱逸詩人-寒山傳』, 浙江人民出版社, 2006, pp.14-15. 참조.

2) 陳耀東,『寒山詩集板本研究』北京:世界知識出版社, 2007, p.11. 참조. 拙稿,「寒山詩의 儒·道家적 양상 고찰 과정 고찰」,『中國學』, 제63집, p.124 에도 관련 내용이 일부 실려 있음.

3) 拙稿,「寒山詩의 儒·道家적 양상 고찰 과정 고찰」, p.124 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음.

4) 寒山詩의 序詩에 해당하는 첫 시편에 "무릇 나의 시를 읽는 사람들이여, 모름지기 마음속 淸淨함을 유지하라.……악한 業을 몰아내어 없애고, 佛法에 귀의하여 眞性을 받으라. 오늘날 부처의 몸 받기를, 律令을 받드는 것처럼 신속히 하라.(凡讀我詩者, 心中須護淨.……驅遣除惡業, 歸依受眞性. 今日得佛身, 急急如律令."「寒山詩-001」)라고 하여 스스로 佛者의 길을 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拙稿,「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p.124 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음.

5) 김현강,『이미지』,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p.19.

6) 崔小敬,『寒山及其詩研究』, 中國 復旦大學校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p.112-116. 참조

7) 이선희,「한산에 나타난 한산의 의미」,『中語中文學』제14집, 1992.

8) 이 세 줄 내용은 이전 졸고인「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p.125와「寒山詩의 儒·道家적 양상 고찰」p.125 에

2. 긍정적 이미지

『寒山詩』는 여느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시적 이미지의 조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자연계에서도 따오기도 하고, 인간계에서 따오기도 한다. 혹은 유정물과 무정물의 세계에서 빌려오기도 한다. 그들 중에는 한산이라는 시인의 여정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긍정적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긍정적 이미지 가운데에서도 그 영향이 가장 큰 두 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白雲

『寒山詩』에서 '구름[雲]'이라는 용어가 출현하는 곳은 모두 55회이다. 구름 가운데는 '푸른 구름[青雲], '누런 구름[黃雲]', '검은 구름[黑雲]' 등의 색상으로 표현된 구름이 있는가 하면, 또 '외로운 구름[孤雲]', '조각 구름[片雲]', '가는 구름[行雲]' 등의 시인의 감성이 더해진 구름도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름은 '흰 구름[白雲]'이다. '白雲'은 작품 속에 모두 22회 등장한다. 여기서는 시인이 '흰 구름'이라는 무정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重巖我卜居 첩첩 바위 산 바로 내가 사는 곳
> 鳥道絶人跡 새들 만의 길이라 사람 자취 끊어져 있네.
> 庭際何所有 뜰 가에는 무엇이 있나
> 白雲抱幽石 흰 구름만이 그윽한 돌을 안고 있네.
> 住玆凡幾年 여기에서 몇 해나 흘렀나?
> 屢見春冬易 봄 여름이 거듭 바뀌어 갔네.
> ……9)

화자가 거처하는 곳은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첩첩 바위산중이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철저히 차단하고 자연 속에서 자기만의 고독을 즐기고 있다. 산중 그의 뜰에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을 떠도는 흰 구름뿐이다. 이 구름은 돌을 감싸고 있다. 화자는 이 돌에 "幽"자를 써서 자신의 현실과의 거리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간이 멈추어 있을 것 같은 산중 공간에 떠다니는 흰 구름의 존재는 그에게 봄 여름이 거듭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새들만이 다닐 수 있는 화자의 뜰 주변 자연물 가운데에서도 흰 구름은 화자의 산속 동반자이다.10)

> 登陟寒山道, 한산의 길을 올라가는데,
> 寒山路不窮. 한산의 길은 끝이 없도다.
> 谿長石磊磊, 긴 골짜기엔 바윗돌 쌓여있고
> 澗闊草濛濛. 너른 시냇가엔 풀이 무성하네.
> 苔滑非關雨, 이끼 미끄러움 비 온 탓 아니며,
> 松鳴不假風. 소나무 우는 것 바람 탓 아니라네.
> 誰能超世累, 누가 속세의 번거로움 벗어나서,

언급한 내용과 같음을 밝히는 바이다.

9) 「寒山詩-002」

10) 李白은 그의 시「蜀道難」에서 山勢의 험함을 새들도 원숭이도 넘어가지 못하는 산이며, 손만 뻗으면 하늘의 별도 잡힐 듯한 산으로 묘사하였다. : "황학이 날아도 넘어가지 못하며, 원숭이들이 건너려고 하여도 잡고 오르는 것을 근심하네.…… 삼성을 어루만지고 정성을 지나며 우러러 한숨 쉬고, 손으로 가슴 어루만지며 앉아서 길게 탄식하노라.(黃鶴之飛尙不得, 猿猱欲度愁攀援…… 捫參曆井仰脅息, 以手撫膺坐長嘆.)"『李太白全集-卷之三』, 北京:中華書局, 1995.pp.162-163.

共坐白雲中. 함께 흰 구름 속에 앉을 수 있으려나.[11]

시적화자가 도달하려고 하는 곳은 寒山이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다. 바윗돌 첩첩히 쌓여있는 긴 골짜기도 거쳐야하고, 풀이 무성한 시냇가도 화자를 기다리고 있다. 날씨는 설상가상으로 비를 뿌리고 바람이 불어, 바위를 밟으면 물에 젖은 이끼 탓에 걷기 힘들고 소나무 울음은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힘든 여정을 거치면서도 화자의 마음속에 품은 이상향은 寒山에 가면 쉴 수 있는 흰 구름[白雲]이다. 寒山의 시에서 구름[雲]은 종종 나타난다. 한산은 무정물인 구름에 자신의 감정을 실어놓았다. “내 사는 곳은 은둔하기 좋으려니, 거처에 세속의 먼지잡음 없다네. 풀을 밟다보니 오솔길 되고, 구름을 바라다보니 이웃이 되었다네.”[12] 인간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 거처를 정해놓고 주변의 자연을 벗으로 하였다. 특히 구름은 화자가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이웃으로 변모한다. 그 가운데서도 흰 구름의 존재는 삶의 번다함이 사라진 脫俗的인 이상향으로 그려진다.

可重是寒山, 귀하도다, 이 한산이여!
白雲常自閑. 흰 구름 늘 절로 한가롭구나.
猿啼暢道內, 원숭이 울음 도량 내에 들려오고,
虎嘯出人間. 호랑이 울부짖음 인간세계를 벗어났네.
獨步石可履, 홀로 걷노라니 돌은 밟을 만하고,
孤吟藤好攀. 외로이 읊조리나니 등나무 더위잡기 좋구나.
……[13]

시적화자는 자신이 마련한 산속 도량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그곳은 신비한 원숭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정신을 번쩍 깨우는 호랑이의 포효소리가 천지를 가득 채워서 인간들의 범접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 그 도량을 홀로 거닐다보면 주변의 돌길은 어느새 발길에 익숙해져 가고, 등나무 줄기 잡고 오르며 홀로 읊조리며 자신만의 도를 즐기고 있다. 흰 구름은 그러한 화자의 주변을 한가로이 벗해주고 있다. “華山의 꼭대기에 올라 한가로이 노니는데, 날 밝아 한낮이 눈부시네. 사방을 둘러보니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은 학과 더불어 날아가고 있네.”[14] 환한 대낮 산 정상에서 속세의 번잡함 벗어놓고 한가로운 여유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시야에 흰 구름이 들어온다. 구름은 학과 짝을 지어 창공을 유유하게 떠다닌다. 화자는 흰 구름에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내면의 이상세계를 투영시키고 있다. 어느 경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세계가 담겨있다.

時人尋雲路, 요즘 사람들 구름길 찾고 있건만,
雲路杳無蹤. 구름길 아득하여 자취 없다네.
山高多險峻, 산 높고 매우 험준하며,
澗闊少玲瓏. 계곡물 넓으나 영롱하지 않다네.
碧嶂前兼後, 푸른 산은 앞과 뒤로 둘러있고,
白雲西復東. 흰 구름은 서로 갔다 동으로 갔다한다네.
欲知雲路處, 구름 가는 길 알고자 하는가?
雲路在虛空. 구름길은 저 허공에 있다네.[15]

시의 전편에 걸쳐 ‘구름길[雲路]’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등장하고 있다. 삶의 여정에서 힘겨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에 자신의 이상향을 실어본다. 구름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유혹을 느끼

11) 「寒山詩-028」 :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p.128 필자 역문.
12) 吾家好隱淪, 居處絶囂塵. 踐草成三徑, 瞻雲作四隣. 「寒山詩-004」: 拙稿, 「寒山詩의 儒·道家적 양상 고찰」, p.128 필자 역문.
13) 「寒山詩-165」
14) 閑遊華頂上, 日朗晝光輝. 四顧晴空裏, 白雲同鶴飛. 「寒山詩-166」
15) 「寒山詩-257」

며 살아간다. 하지만 속세에서 바라보는 구름은 변화무쌍하기 그지없다. 잠깐 다른 생각에 빠져있다 다시 고개 들면 구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시적화자가 거하는 곳은 산세가 무척 높고 가파르며 주변에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다. 계곡에 물길은 비록 넓지만 그렇다고 매혹적인 물빛은 아니다. 여기서의 구름은 인간들에게 혹은 유토피아적 이상향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처없어 보이는 허공의 구름은 세속의 눈으로는 가는 길을 알 수 없다. 오직 그러한 욕망을 멀리하고 깊은 산속에 진실된 자아와 대화하고 노래하는 화자의 눈에만 볼 수 있는 구름의 길이며, 그 구름은 흰 구름이다.

浩浩黃河水, 넓고 넓은 황하의 물이여,
東流長不息. 동으로 길이 흘러 쉬지 않는구나.
悠悠不見淸, 아득히 흘러도 맑아지지 않는데,
人人壽有極. 사람의 수명은 한계가 있다네.
苟欲乘白雲, 진실로 흰 구름 타고자 할지나,
曷由生羽翼. 무엇으로 날개를 돋게 하려나.
唯當鬢髮時, 오직 머리털 검을 즈음에,
行住須努力. 가나서나 모름지기 노력을 기울여라.[16]

중국의 서쪽 靑海省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황하는 예로부터 천년에 한번 맑아진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맑아지기 어렵다.[17] 황하와 같은 이러한 유구한 자연에 비해 인간의 수명은 불과 백년을 넘기기 어렵다.[18] 이러한 제한된 수명을 가진 인간이 그 욕망은 끝이 없다. 세속에서의 온갖 욕망의 장벽 앞에 쉬이 무너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탈속적인 신선의 유토피아적 세계를 꿈꾸기도 한다. 이 세계로 들어서게 하는 방편이 화자가 가리키는 흰 구름이다. 그러나 새처럼 날개도 없는 인간이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을 어떻게 탈 수 있나. 시의 말미에 시적화자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오직 조금이라도 젊은 시절에 속된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실한 자아를 찾는 공부에 매진하며, 그러한 공부만이 흰 구름 너머 탈속적 이상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2) 寒山

『寒山詩』에서 '寒山'이라는 용어가 출현하는 곳은 모두 38회이다. 이를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한 부류는 寒山子가 은거하며 생활하던 곳을 가리킨다. 이 의미로 쓰인 곳은 모두 28회이다. 또 한 부류는 인간으로서의 한산 혹은 佛道를 추구하는 수행자로서의 한산을 가리킨다. 이 의미로 쓰인 곳은 모두 10회 이다.[19] 그러나 일부 시에서는 사람과 장소 두 의미가 한데 복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인간 '寒山'과 은거수행 장소로서의 '寒山'이 갖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한산이 추구하며 나아간 길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可笑寒山路 우습도다! 한산의 길이여.
而無車馬蹤 수레와 말의 자취없구나.
聯溪難記曲 시내는 얼마나 굽었는지 알기 어렵고

16) 「寒山詩-064」
17) 『左傳』「魯襄公」8년 "楚나라의 子囊이 鄭나라를 치고 鄭나라가 蔡나라를 침공한 일을 응징했다. 당시 鄭나라에서는 子駟와 子國,子耳 등 초나라에 복종하려는 측과 子孔과 子展, 子蟜 등 晉나라의 구원을 기다리자는 측으로 의견이 갈라섰다. 그 때 초나라에 복종하려는 측의 子駟가 말했다. "「周詩[실전된 詩]」에 이르기를, 황하의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자니,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점복을 실로 무수히 치니 스스로 그물을 만드는 것과 같소."라고 하였다.("楚子囊伐鄭, 討其侵蔡也. 子駟,子國,子耳欲從楚. 子孔,子蟜,子展欲待晉. 子駟曰, 「周詩」有之曰 '俟河之淸,人壽幾何?兆云詢多, 職競作羅.'") : 楊伯峻編著, 『春秋左傳注(修訂本)三』, 北京:中華書局, 1995. p.957. 좌구명지음, 신동준 옮김, 『춘추좌전3』, 한길사, 2006, p.174 번역 참조.
18) "인간의 삶은 백년도 못 채우면서, 늘 천년의 근심 품고 사네. ……(人生不滿百, 常懷千載憂)" 「寒山詩-135」
19) 賀莉, 「唐詩中的'寒山'意象」『西安文理學院學報』期刊1, 2015, p.41. 참조.

疊嶂不知重 첩첩 봉우리는 몇 구비인지 모를세라.
泣露千般草 이슬 온갖 풀 위에 눈물 뿌리고
吟風一樣松 바람 한 소나무에 불어오네.
此時迷徑處 이에 길을 잃어버린 곳에서
形問影何從 육신은 그림자에게 묻는다 어디로 가느냐고.[20]

시에서 묘사된 '寒山'의 이미지는 우선적으로 '寒山'이 처한 지리적 물리적 형상에 대해 그리고 있다. 당시 인간들의 보편적인 이동 도구인 수레와 말은 감히 접근하기 어렵다. 시내는 굽이굽이 흐르고 험한 봉우리는 첩첩히 에워싸서 몇 구비인지 알 수가 없다. 산세가 높고 험준하니 이슬방울은 온 대지의 풀을 적시고 바람은 소나무를 에워 감싸며 불어온다. '寒山'으로 가는 길이 험하다 보니 도중에 길을 놓쳐버린다. 그리고는 화자는 자신에게 묻는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고. 시의 전편에서 묘사된 '寒山'의 이미지를 종합해 보면 표면적으로 '寒山'의 물리적 위치인 것 같은데, 내재적 의미는 스스로 자신에게 던지는 인간 한산이 나아가는 길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한산이 추구하는 길은 일반 인간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길이며, 그 과정은 온갖 고난의 역경을 거쳐 가야하는 길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寒山'은 그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실현할 수 있는 물리적 상징적 도량이기도 한 것이다.

'寒山'에 대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구절은 곳곳에 보인다.[21] 한산의 척박한 환경에 대해 묘사한 다른 한편을 보기로 하자.

杳杳寒山道, 아득하고도 먼 한산 길이여,
落落冷澗濱. 쓸쓸하고도 찬 시냇가로다.
啾啾常有鳥, 짹짹거리는 새는 늘 있는데,
寂寂更無人. 적적하니 사람은 더욱 없네.
淅淅風吹面, 쏴쏴하는 바람 얼굴에 스치고,
紛紛雪積身. 펄펄 내리는 눈 몸에 쌓이네.
朝朝不見日, 아침마다 해를 보지 못하고,
歲歲不知春. 해마다 봄을 모른다네.[22]

시적화자가 묘사하는 한산으로 나아가는 길은 늘 아득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다. 한산의 도중에 굽이 흐르는 시내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차갑게 흘러만 간다. 인적은 드문데 새 울음 소리는 늘 들려오니 적막감은 깊어만 간다. 깊은 산중이라 얼굴을 스치는 바람소리 세차고, 눈은 내 몸을 덮어 버린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가 여기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알려주는 봄이 한산에는 찾아오지 않는 듯하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매서운 눈보라가 일상사인 극한 환경 속에 세월의 흐름마저 단절된 것 같은 도량이 바로 이곳 한산이다. 시의 서두에 묘사한 '아득하고도 먼 한산의 길'이란 이러한 물리적 환경 이외에 고난과 역경을 거쳐 가야 하는 자신의 수행 길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상기 두 편을 제외하고도 한산에 대한 묘사에서 화자가 공통으로 들고 있는 자연환경은 이와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다.

碧澗泉水淸, 푸른 시내에 샘물은 맑고,
寒山月華白. 한산의 달빛은 희도다.
默知神自明, 적적한 깨달음에 정신은 절로 밝아지고,
觀空境逾寂 공(空)을 관함에 경계는 더욱 고요해지네.[23]

20) 「寒山詩-003」: 한산의 이 시편에서 제2구는 陶淵明의 「飮酒-其五」제2구와 흡사하며[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마지막 구는 陶淵明의 「形影神」에서 그 모티브를 취한 듯하다. 宋丘龍著, 『陶淵明詩說』, 臺北:文史哲出版社, 民國73년, p.67. p.174.
21) 한산의 길을 올라가는데, 한산의 길은 끝이 없도다. 긴 골짜기엔 바윗돌 쌓여있고, 너른 시냇가엔 풀이 무성하네.…… (登陟寒山道, 寒山路不窮。谿長石磊磊, 澗闊草濛濛。……) 「寒山詩-028」: 상기 인용시.
22) 「寒山詩-031」
23) 「寒山詩-081」

상기 언급된 한산의 계곡을 흐르는 시내가 쓸쓸하고도 차가우면서도 몇 구비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풍경으로 묘사된 반면, 이 시편에서 한산을 흐르는 시내는 푸른빛에 그 샘물은 맑고 투명하다. 게다가 한산을 비추고 있는 달빛은 희기만 하다. 지금까지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거친 환경으로 묘사된 한산이 이 시편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거센 눈보라와 비바람에 햇빛마저 들지 않는 척박한 한산에서 시간을 잊은 채 자신을 관조하던 화자에게 한산이란 장소는 어느덧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화로 다가온다. 그의 내적 경계가 고요한 깨달음에 이르니 정신이 저절로 밝아지며, 허공을 관조하니 자신을 둘러싼 한산의 외적 경계가 척박함은 사라지고 고요하면서도 아름다운 도량으로 다가온다.

세월도 흐름도 잊어버린 화자에게 백년도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일반인의 평범한 물리적 시간의 단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寒山'은 그에게 영원에 가까운 수 만년의 시간을 제공해 준다.

> 粤自居寒山, 한산에 은거한 지,
> 曾經幾萬載。일찍 몇 만 년이 흘렀던가.
> 任運遯林泉, 운명에 맡겨 숲과 샘으로 은둔하여,
> 棲遲觀自在。한가로이 쉬며 자유자재함을 관조하네.
> ……
> 細草作臥褥, 가는 풀로 요를 삼고,
> 青天爲被蓋。푸른 하늘로 덮개 만든다네.
> 快活枕石頭, 시원스레 돌베개 베고 누워,
> 天地任變改。천지의 변화에 맡겨둔다네.[24]

이와 같은 상징적인 기나긴 세월의 흐름 동안 운명과 천지의 조화로움에 몸을 맡긴 화자에게 '寒山'의 풀밭은 요가 되고 하늘은 이불이 되며, 돌은 베개가 된다. 이로써 한산은 자신의 내적 경계가 추구하려는 이상향에 가까워지니 '寒山'에 펼쳐진 자연경계가 훌륭한 보금자리로 변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한산이 도달한 이러한 내면의 경계를 일반인의 식견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다.

> 多少天台人, 천태산의 많은 사람들,
> 不識寒山子. 한산자(寒山子)를 몰라본다네.
> 莫知眞意度, 참된 그 뜻은 알지 못하고,
> 喚作閑言語. 부질없는 말만 한다고 외친다네.[25]

이 시편에서 나온 寒山에는 뒤에 '子'가 붙어있어 인간 '寒山'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천태산 깊은 곳에 은거한 한산이지만 오가다 만나는 산중의 사람들은 한산이 던지는 말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며,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한산이 던지는 말은 소리없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다. 도리어 한산의 시에 대해 道理가 없다고 따져 묻기까지 한다.[26] 그러나 천태산 험한 곳에서 오랜 세월[27] 수양하며 자신의 이상향을 위해 정진한 한산에게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비난은 아무런 책망거리가 되지 못한다. 도리어 "한산자(寒山子)는 늘 이와 같도다. 홀로 스스로 거하며,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28]라고 하며, 스스로의 경계가 삶과 죽음을 초월한 듯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한산이 마련한 '寒山'이라는 淸淨도량에는 앞서 언급한 '白雲' 외에 '달[月]', '소나무[松]', '바위[岩]', '새소리[鳥語]', '꽃[櫻桃][楊柳]', '아침 해[旭日]' 등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들이 도량의 곳곳을 한산과 함께 하고 있다.

---

24) 「寒山詩-164」 :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p.136. 필자 역문.
25) 「寒山詩-181」
26) "어떤 사람 한산자(寒山子)에게 책문하네, 그대의 시에는 道理가 없다고.(客難寒山子, 君詩無道理)" 「寒山詩-187」
27) "한산에 한번 들어가 앉아, 어느덧 삼십년을 머물렀네.(一向寒山坐, 淹留三十年.)" 「寒山詩-049」
28) "寒山子, 長如是. 獨自居, 不生死." 「寒山詩-311」

3. 부정적 이미지

한산은 序詩에 해당하는 첫 시편에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淸淨함을 유지하고 惡業을 몰아내라고 하였다.[29] 청정한 단계는 들어서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는 더욱 힘든 엄격한 자기 수양을 필요로 한다. '寒山'이라는 수양의 도량에서 흰 구름을 벗하며 세월의 흐름을 잊은 채 청정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한산의 시야에 정 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속의 사람들의 행태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기 마련이다. 본장에서는 한산이 시에서 어떠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세워 자신의 안타까움을 극대화 시켰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자신의 시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한산이 설파하려고 만들어 놓은 삶의 정화장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動物

豬喫死人肉, 돼지는 죽은 사람의 살을 먹고,
人喫死豬腸. 사람은 죽은 돼지의 창자를 먹네.
豬不嫌人臭, 돼지는 사람 냄새를 싫어하지 않고,
人返道豬香. 사람은 도리어 돼지 냄새 향기롭다고 하네.
豬死拋水內, 돼지가 죽으면 물속에 던져버리고,
人死掘土藏. 사람이 죽으면 흙속에 파묻는다네.
彼此莫相噉, 피차간에 서로 먹지 않으면,
蓮花生沸湯. 연꽃이 끓는 물에서 피어나리.[30]

시편 전체가 사람과 돼지의 이분법 구조로 되어있다. 여기서 흥미를 끄는 것은 시적화자의 보는 시각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철저하게 인간과 돼지가 수평적 구조로 나열되어 있다. 먼저 먹는[喫] 행위에 대해 인간과 돼지가 서로의 살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상호 대립적 부정적 의미가 부각되어 보인다. 그러나 사람과 돼지가 서로의 냄새를 싫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도리어 그 냄새를 향기로워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대립의 각도를 바로 잡아보려는 시적화자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즉 두 생명체 모두 죽고 나면 각각 물과 흙속으로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세계에 대해 굳이 인간 우위의 세상으로 구분지어 놓지 않고 있다. 시의 말미에서 '인간과 돼지 서로 먹지 않으면'이라는 대목에서까지 철저하게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서로 먹고 먹히는 대립적 각도가 풀어지고 나면 펄펄 끓는 물에서도 연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佛法의 조화로움의 세계로 독자들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산이 바라보는 돼지의 이미지는 사람과 대립하여 서로 먹고 먹히는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世有一等愚,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茫茫恰似驢. 멍청하기가 마치 나귀와 같네.
還解人言語, 사람 말을 그래도 알아들으면서,
貪淫狀若猪. 색을 탐하는 모습이 돼지와 같네.
險巇難可測, 음험하기가 헤아리기 어렵고,
實語却成虛. 진실된 말은 도리어 거짓으로 변한다네.
誰能共伊語, 누가 그와 더불어 말을 말할 수 있으리오,
令敎莫此居. 차라리 이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31]

29) 註4)에 소개되어 있음.
30) 「寒山詩-070」
31) 「寒山詩-075」

화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를 두 마리 동물에 비유하고 있다. 어리석음의 표상으로 먼저 나귀[驢]를 들고 있다. 그런데 나귀에 대해서는 '멍청하다'는 비유에 그치고 있는 반면, 돼지는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즉 그 사람이 나귀처럼 멍청하기는 해도 사람들 말은 알아듣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색을 탐하는 모습이 마치 돼지와 같다고 하였다. 『左傳』에서는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돼지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 "탐욕이 끝이 없고, 무례하기 그지없다"라고 하였다.[32] 화자도 이 사람의 색을 탐하는 모습을 일컬어 돼지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음험하기 그지없고 하는 말은 모두 거짓으로 변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와 더불어 말을 섞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라는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즉 이 시편에서 등장하는 돼지는 탐욕의 상징이며, 이는 白雲이 감도는 이상향의 청정도량인 '寒山'과는 대척점에 위치하는 부정적 이미지의 상징이다.

이 밖에도 돼지는 좋아함과 미워함도 모르며, 스스로 자기 허물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33]

赫赫誰盧耽肆, 눈 부시도다! 누구의 술집인가,
其酒甚濃厚. 그 술은 매우 진하고도 맛나다네.
可憐高幡幟, 사랑스럽구나! 높이 휘날리는 깃발,
極目平升斗. 자세히 보아도 되와 말술 공정하다네.
何意訝不售, 그런데 어찌하여 술이 팔리지 않나,
其家多猛狗. 그 집에 사나운 개가 많기 때문일세.
童子欲來沽, 동자가 술 사러 왔다가,
狗齕便是走.개가 물려 하니 이내 달아나버린다네.[34]

외관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주점 깃발 높이 펄럭이는 주막이 시편의 서두에 등장한다. 더군다나 그 주막에서 파는 술은 농도도 진하고 맛나며, 주인장은 양심을 어기지 않아 술의 양을 아주 공정하게 달아 팔고 있다. 술이 잘 팔릴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다 구비하였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손님들이 방문을 꺼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집에 사나운 개가 많기 때문이라고 시적화자는 말하고 있다. 개의 사나운 성질이 손님들의 출입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시의 내용은 『韓非子』「外儲說右上」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나라에 道를 지닌 선비들이 政見을 펼쳐 군주의 정치를 밝게 하고자 하나, 나라의 대신들이 사나운 개처럼 달려들고 물어뜯어 군주가 선비들을 기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것이다.[35] 자신의 사리사욕 챙기기에만 눈이 멀어 자신의 나라마저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의 심성을 사나운 개에 비유한 것이다. 주변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인간의 그릇된 심성을 화자는 '사나운 개'의 이미지에 투영시켜 놓은 것이다.

我見百十狗, 내 백 마리 넘는 개들 보니,

32) 순임금의 악정(樂正)후기(后夔)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백봉을 낳았다. 그[伯封]는 실로 돼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탐욕이 끝이 없고, 무례하기 그지없었다. 이에 사람들이 그를 큰 돼지(封豕)라고 불렀다.(樂正后夔取之, 生伯封, 實有豕心, 貪惏無厭, 忿類無期, 謂之封豕.)『左傳』「昭公」25년. 좌구명지음, 신동준 옮김, 『춘추좌전3』, p.318-p.320 번역 참조.

33)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도 전혀 모르니, 마치 돼지와 양 같구나. ……스스로 자기 허물을 볼 줄 모르나니, 우리에 누워있는 돼지 같구나. (……好惡總不識, 猶如猪及羊. ……不自見己過, 如猪在圈臥.)"「寒山詩-235」

34)「寒山詩-117」

35) "송나라 사람 중에 술 파는 이가 있었는데, 술을 정확하게 재어 팔고, 손님에게 성심껏 대하였다. 그 술도 아주 맛있었으며, 깃발도 높이 매달았다. 그러나 팔리지 않아 술이 시어버렸다. 그 이유를 궁금해하였다. 마을의 장자인 양천어른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양천이 '당신의 개가 사납소?'하고 물었다. '개가 사나우면 왜 술이 팔리지 않소?'라고 주인이 물었다. 양천이 말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혹 어린아이에게 돈을 주어 술병을 들고 술을 사러가게 하면, 개가 달려들어 물어버린다. 이것이 술이 시어지고 팔리지 않는 이유라네. (宋人有沽酒者, 升概甚乎, 遇客甚謹, 爲酒甚美, 懸幟甚高著, 然不售, 酒酸. 怪其故, 問其所知閭長者楊倩, 倩曰, 汝狗猛邪? 曰, 狗猛則酒何故而不售? 曰, 人畏焉. 或令孺子懷錢挈壺甕而往酤, 而狗迓而齒亢之, 此酒所以酸而不售也.)" 項楚, 『寒山詩注』, 北京:中華書局, 2000, pp.309-310. 원문 재인용, 필자 역.

箇箇毛髼鬆. 일일이 털이 헝클어져 있네.
臥者渠自臥, 눕는 놈은 스스로 누워있고,
行者渠自行. 다니는 놈은 스스로 다니고 있네.
投之一塊骨, 놈들에게 뼈다귀 하나 던져주니,
相與嗟咮爭. 서로 물어뜯어 가며 싸운다네.
良由爲骨少, 진실로 뼈다귀는 적고,
狗多分不平.개는 많으니 공평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이라.[36]

시편 전체가 개를 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등장하는 개는 수 백 마리가 넘는데 하나같이 외양이 다듬어져 있지 않다. 주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버려진 개 일 수도 있다. 하는 행동도 일사불란하지 않다. 제각각이다. 그러는 중에 살점발린 뼈다귀 하나 던져지면 서로들 물어뜯어가며 필사적으로 쟁취하려 한다. 시적화자는 시의 말미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단지 개체 수는 많고 먹이는 적어서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 시의 제3구에서 제6구까지의 내용은『戰國策』「秦策篇」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강대국인 秦나라에게 대항하려 주변국들이 합종책으로 연합하자, 秦나라에서 재물을 미끼로 각 나라들을 유혹하니 각 나라의 책사들은 서로 이견을 보이며 그 합종은 깨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37]

시적화자는 적은 먹이에 많은 굶주린 개들의 필사적인 다툼의 본능을 인간들에게 비유하고 있다.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쉽게 일그러질 수 있는 인간들의 나약한 내면적인 심성과 자신들만의 삶을 위하여 타인의 생명조차 쉽게 경시해버릴 수 있는 인간의 부정적인 단면을 '개'의 이미지를 통해 투영시키고 있다.

이 밖에 한산의 다른 시편에서 개는 성냄의 상징뿐만 아니라,[38] 愛慾에 물든 인간의 욕망에 비유되어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해탈의 경지에 들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사용되기도 하였다.[39]

그 외 한산의 詩에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동원된 여러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거북이를 쏘아버린 전갈[蠆],[40] 탐욕스런 사람을 비유하는데 동원된 어미 잡아먹는 올빼미[梟],[41] 사자의 위세를 빌려 거짓으로 왕 행세를 하는 여우[狐],[42] 貪瞋痴의 三毒에 비유된 뱀[虵],[43] 재물을 탐하고 음욕을 즐기는 사람을 비유하는데 동원된 승냥이[豺狼][44] 등이 대표적이다.

2) 酒肉

술은 중국 문학작품에서 예로부터 인간 삶의 喜怒哀樂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 작가 개인의 내면적 심성의 발로가 술과 어우러져서 수많은 문학작품이 탄생되어 왔다. 한산에게 술은 어떠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36)「寒山詩-058」
37) "천하의 책사들이 조나라에 모여 합종책으로 진나라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진나라의 재상 응후가 이르기를, 왕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를 물리쳐 버리십시오. 진나라는 천하의 책사에게 원한을 사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여 진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부귀를 위해서 일 뿐입니다. 왕께서는 왕의 개들을 보십시오. 누워있는 놈은 누워있고, 일어서 있는 놈은 일어서 있고, 걸어가는 놈은 걸어가고, 머무는 놈은 머물러 있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뼈다귀 하나를 던지면 서로 이빨을 드러내고 싸웁니다. 왜 그렇겠습까? 다투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天下之士, 合從相聚於趙, 而欲攻秦. 秦相應侯曰, 王勿憂也, 請令廢之. 秦於天下之士, 非有怨也, 相聚而攻秦者, 以己欲富貴耳. 王見大王之狗, 臥者臥, 起者起, 行者行, 止者止, 毋相與鬬者, 投之一骨, 輕起相牙者, 何則, 有爭意也.)" 項楚,『寒山詩注』, pp.158-159. 원문 재인용, 필자 역.
38) "성내는 것은 집안의 개와 같네.(瞋忿似家狗)"「寒山詩-152」
39)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났는데,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당시 사람들 모두 돌아보고는, 어리석은 애욕에 마음이 물들었다네. ……개가 마른 뼈다귀를 씹으며, 헛되이 제 입술과 이빨을 핥는 것 같았다. ……애초부터 개의 마음 갖고 있어, 해탈의 경지에 들지 못하나니.(……逢見一羣女, 端正容貌美. ……時人皆顧眄, 痴愛染心意. ……狗齩枯骨頭, 虛自舐脣齒. ……無始有狗心, 不超解脫地.)"「寒山詩-170」
40)「寒山詩-034」
41)「寒山詩-086」
42)「寒山詩-118」
43)「寒山詩-226」
44)「寒山詩-235」

가? 또한 술과 함께 등장하는 '고기[肉]'는 한산의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살펴보도록 하자.

有酒相招飮, 술이 있으면 서로 불러 마시고,
有肉相呼喫. 고기 있으면 서로 불러 먹네.
黃泉前後人, 앞서거니 뒤서거니 황천으로 갈 사람들,
小壯須努力. 젊을 때 모름지기 힘써 노력하라.
玉帶暫時華, 옥대도 잠시의 영화요,
金釵非久飾. 금비녀도 오랜 장식 되지 못하나니.
張翁與鄭婆, 장씨 노인과 정가 노파도,
一去無消息. 한번 가더니 소식 없더라.[45]

중국의 많은 고전시에서 '술[酒]'은 시인의 마음의 벗이 되어 작품 속에 등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의 술은 '고기[肉]'와 함께 시적화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행위가 시적화자의 인식에는 이성을 놓아버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욕망의 덩어리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쾌락에 몸을 맡겨버리는 사람들의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승세계인 황천이다. 생전에 온갖 부귀를 누리던 사람들도 한번 이 세상을 떠나가면 영영 소식이 없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 젊은 시절 마음의 정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시적화자의 메시지에 '술과 고기'는 강한 부정적 이미지로 다가온다.

城北仲家翁, 성 북쪽의 중씨 노인,
渠家酒肉多. 그 집엔 술과 고기 많다네.
仲翁婦死時, 중씨 노인 아내 죽었을 때,
吊客滿堂屋. 조문객이 집에 가득하였네.
仲翁自身亡, 중씨 노인 자신이 죽으니,
能無一人哭. 한 사람도 울어주는 이 없네.
喫他盃臠者, 남의 술과 고기 먹던 사람들,
何太冷心腹. 어찌 그리도 심장이 차가운가.[46]

한 집에 술과 고기가 많다는 것은 富를 의미한다. 시편에 등장하는 중씨 노인도 생전에 집에 술과 고기 차려놓고 사람들과 자주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노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조문하러 온 객들이 가득하였는데, 정작 중씨 노인 자신이 죽자 조문객이 거의 없다. 이에 시적화자는 탄식한다. 남의 술과 고기 즐겨 먹던 사람들의 인심이 지극히 냉랭하다고. 시적화자에게 술과 고기는 순간적인 여흥을 즐기는 수단에 불과할 뿐, 인간의 순수한 심적 교류에는 정신을 흐리고 육신을 탁하게 하는 매개물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술과 고기'에 대한 시적화자의 엄중한 부정적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自有慳惜人, 몹시 인색한 사람 있어,
我非慳惜輩. 스스로는 인색한 무리 아니라 하네.
衣單爲舞穿, 단벌옷은 춤추느라 헤지고,
酒盡緣歌啐. 술이 다하면 노랫소리로 재촉하네.
當取一腹胞, 한번 배부르면 그만인걸,
莫令兩脚儽. 두 다리 피곤하게 하지마라.
蓬蒿鑽髑髏, 쑥이 해골 뚫고 나오면,
此日君應悔 그 때 그대는 반드시 후회하리라.[47]

45) 「寒山詩-053」
46) 「寒山詩-140」
47) 「寒山詩-142」

본인은 재물을 아끼며 탐하는 인색한 무리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가 있다. 단벌옷은 춤가락에 헤지고 술은 다 떨어지면 노래로 추임새 넣어가며 또다시 재촉하기를 반복한다. 이에 시적화자는 메시지를 던진다. 한차례의 여흥에 만족하며, 쾌락으로 육신을 피로하게 하지 말라고. 시의 말미에서는 자신의 해골이 쑥대밭을 뒹굴 때에서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물에 대한 탐심도 없고, 출세에 대한 욕망도 없이 단벌옷에 그저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인생을 잘 즐기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화자는 끊임없는 자기수양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술로 백년도 살지 못하는 아까운 삶을 허비하며 보내지 말라고.[48] 자연과 더불어 맑은 정신으로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이러한 메시지는 죽고 난 뒤에도 땅을 치며 후회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메시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我見凡愚人, 내 세속의 어리석은 사람들 보니,
多蓄資財穀. 재물과 곡식 많이 쌓아두고 있네.
飮酒食生命,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며,
謂言我富足. 나는 풍족하다고 말하네.
莫知地獄深, 지옥 깊은 줄 알지 못하고,
唯求上天福. 오직 천상의 복만 구한다네.
罪業如毗富, 죄업이 비부라산 같은데,
豈得免灾毒. 어찌 가혹한 형벌 면하리오.
……
不如早覺悟, 일찍 깨달음 얻어,
莫作黑暗獄. 캄캄한 지옥으로 갈 죄 짓지 않는 것만 못하리니.
狂風不動樹, 미친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心眞無罪福. 마음이 참되면 죄와 복이 없나니.
……[49]

화자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에서 재물과 곡식을 많이 축적해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축적된 富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며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다닌다. 그러면서도 死後에 지옥은 고사하고 도리어 천상세계의 온갖 복락이 자신들에게 찾아오길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술'은 불교 경전 곳곳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러 악업을 짓는 근본', '중생을 번뇌에 빠뜨림', '신체의 여러 기능을 쇠약하게 만듦', '심신과 가정을 파괴함' 등등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50] 그리고 술과 함께 '고기'에 대해 화자는 시편에서 '生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불교에서 일컫는 생명체를 가진 중생을 일컫는 말이다.[51] 즉 화자는 굳이 '魚肉'이라는 상용적 표현을 쓰지 않고 '생명(生命)'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고기를 먹는 행위'가 '생명을 먹는 행위'와 같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신의 몸을 살리려고, 남의 목숨 앗는"[52] 이러한 죄업은 캄캄한 지옥의 가혹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죄와 복의 현상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참된 마음을 닦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 외 다른 시편에서 '고기[肉]'는 姓이 '오만(傲慢)'이요 이름이 '탐욕(貪)'이란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는 대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53] 어리석은 마음으로 늘 불평에 가득찬 사람이 오직 먹을 줄 아는 것은 '고깃덩이[大臠]'로 표현되기도 하며,[54] 서로 번갈아 잡아먹는 어리석고 미련한 고깃덩이[肉團]'로 표현되기도 하였다.[55]

48) "사람의 삶은 백년도 못 채우면서, 늘 천년의 근심 품고 사네. ……(人生不滿百, 常懷千載憂)" 「寒山詩-135」 : 상기 註)17에 소개. / "인생은 일백년, 부처님 말씀은 십이 부.……(人生一百年, 佛說十二部)" 「寒山詩-152」
49) 「寒山詩-233」
50) 『涅槃經』『成實論』『四分律』『沙彌戒經』 등의 경전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項楚, 『寒山詩注』, p.594.
51) 상동
52) "어찌 구태여 남의 목숨 죽이어, 장차 너의 몸 살리려고 하는가.(何須殺他命, 將來活汝己)" 「寒山詩-095」
53) 한 사내가 있어 성은 오만이요, 이름은 탐, 자는 염치없음. ……고기를 먹음에 더욱 물리지 않다네.(有漢姓傲慢, 名貪字不廉. ……食肉更無厭.)" 「寒山詩-076」
54) "어리석은 마음으로 언제나 불평이며, ……오직 큰 고깃덩이 먹을 줄만 알고, 이 외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네.(癡心常憤憤, ……唯知打大臠, 除此百無能.)" 「寒山詩-138」

4. 나오며

이상으로『寒山詩』에 나타난 주요 이미지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寒山詩』에서 표현된 '寒山'은 자연물 그대로 작가에게 공간적 배경이 됨과 동시에 이상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수양의 길이 되어 주었다. 자신의 수양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한산의 모습 또한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옴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산을 둘러싼 여러 자연경물은 인간 한산에게 긍정적 이미지로 다가와 주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흰 구름[白雲]'은 시간의 흐름이 멈추어 버린 듯한 첩첩 바위 산중에 화자의 동반자로 함께 하였다[寒山詩-002], 긴 골짜기 풀이 무성한 시냇가를 거쳐 비 뿌리고 바람 불며 물에 젖은 이끼로 가득한 바위를 지나가야 하는 힘든 여정 속에서 흰 구름은 한산에게 삶의 탈속적 이상향으로 다가왔으며[寒山詩-028]. 어느 경계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세계가 창공을 나는 학과 함께 흰 구름에 투영되어 있다[寒山詩-166]. 흰 구름이 가는 길은 세속의 유혹에 빠져있는 인간의 눈에는 변화무쌍하기 짝이 없어 정처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세속적 욕망을 멀리하고 깊은 산속에서 진실한 자아와 대화하고 노래하는 화자의 눈에만 볼 수 있는 구름의 길이다[寒山詩-257]. 인간의 제한된 수명 앞에서 젊은 시절 진실한 자아에로의 끊임없는 내적 추구만이 날개도 없는 인간이 흰 구름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로[寒山詩-064], 작가 한산에게는 인생수양의 동반자이면서도 긍정적 이미지의 자연물인 것이다.

『寒山詩』에서 '寒山'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한산 혹은 佛道를 추구하는 수행자로서의 한산을 가리키며, 또 다른 하나는 寒山子가 은거하며 생활하던 장소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과 장소의 두 의미가 한데 복합된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산이 수양하던 도량으로서의 '한산'은 화자의 수양척도에 따라서 달리 표현되기도 하였다. 우선 한산이 세속을 등지고 온갖 역경을 거쳐 가야 할 때의 한산은 산세 높고 험준하며 첩첩히 에워싼 험한 봉우리에 비바람이 소나무를 감싸고 불어오는 고난의 장소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寒山詩-003]. 사람들의 발길은 닿지 않고 깊은 산중 얼굴을 스치는 거센 눈보라에, 해도 보이지 않고 봄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다[寒山詩-031]. 그러나 어느 순간 한산은 푸른 시내에 맑은 샘물이 흐르고 하얀 달빛이 비추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화자의 내적 경계가 고요한 깨달음에 이르니 정신은 절로 밝아지고, 그를 둘러싼 한산의 경관은 아름다운 도량으로 다가온다[寒山詩-081]. 한산에서 멈추어 버린 세월의 흔적은 화자에게는 몇 만년에 가까운 시간적 단위로 다가온다. 긴 세월의 흐름동안 천지의 조화로움에 몸을 의탁한 화자에게 한산이라는 도량은 화자의 이상향으로 다가온다[寒山詩-164]. 그러나 오가는 사람들은 한산이 던지는 말의 참된 의미는 알지 못하고, 도리어 시에 道理가 없다고 책망한다[寒山詩-187]. 그러나 천태산 험한 곳에서 오랜 기간 수양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듯한 한산에게[寒山詩-311] '흰 구름'이 감싸고 도는 '한산'은 이상적인 淸淨도량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독자들의 가슴으로 다가옴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한산의 시야에 비치는 세속적 사람들의 수많은 행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왔다. 한산은 이에 대해 그들의 행태를 동물에 빗대기도 하고 그들이 즐겨하는 술과 고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교훈적 자세로 임하기도 하였다.

동물 가운데에서는 '돼지'와 '개'가 주된 부정적 이미지로 동원되었다. 먼저 돼지는 사람과 대립하여 서로 먹고 먹히는 부정적인 이미지 이며[寒山詩-070], 색을 탐하며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람에 대해 그 모습이 돼지와 같아서 이 땅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빗대었다[寒山詩-075]. 개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며 주변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릇된 심성을 지닌 부정적인 인간의 이미지 이며[寒山詩-117], 나약한 내면적인 심성과 타인의 생명조차 경시해 버릴 수 있는 부정적인 인간의 이미지에 동원되기도 하였다[寒山詩-058]. 그 밖에 개는 애욕에 물든 인간의 욕망에 비유되어 사람들이 이로 인해 화자가 추구하는 해탈의 경지에 들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사용되기도 하였다[寒山詩-170].

55) "큰 바다 물 끝이 없고, 물고기와 용 한없이 많네. 서로 번갈아 잡아먹는, 몽매하고 어리석은 고깃덩이들. ……(大海水無邊, 魚龍萬萬千. 遞互相食噉, 兀兀痴肉團. ……)" 「寒山詩-228」

그 외 한산의 시에는 전갈[蠆], 올빼미[梟], 여우[狐], 뱀[虵], 승냥이[豺狼] 등이 부정적 이미지의 동물로 비유되었다.

한산의 시에서 술은 이성을 놓아버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부정적인 욕망의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다[寒山詩-053]. 한산은 그들에게 해골이 쑥대밭을 뒹굴 때에서야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寒山詩-142]. 그러나 사람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생전에 축적된 富로 술과 고기를 즐겨하며 죽고 난 뒤에서도 천상의 복락이 자신에게 찾아오길 바라는 어리석은 존재이다. 이에 대해 한산은 술과 함께 인간들이 즐겨먹는 고기는 인간과는 또 다른 생명체라고 시에서 적시하고 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까지 먹는 부정적인 행위의 대상의 대상적 이미지로 '고기[肉][生命]'를 내세웠다[寒山詩-233]. 즉 고기는 '고기[肉]'는 탐욕에 찬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는 대상이며, 어리석고 불평에 가득찬 사람이 즐겨하는 것[寒山詩-138]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동원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통해서는 한산이 자신의 길로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 가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한 여운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산의 시에 쓰인 주된 이미지의 고찰을 통해 인간 한산의 수양을 통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 이미지는 지금껏 바라보던 한산시에 대한 단편적 공간적 관념에서 입체적 공간으로서의 시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아울러 한산시에서의 언어적 이미지의 수사법을 통해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추구고자 하는 그의 세계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56]

【참고문헌】

陳耀東,『寒山詩集板本研究』北京:世界知識出版社, 2007.
何善蒙,『隱逸詩人-寒山傳』, 浙江人民出版社, 2006.
宋丘龍 著,『陶淵明詩說』, 臺北:文史哲出版社, 民國73년.
楊伯峻 編著,『春秋左傳注(修訂本)三』, 北京:中華書局, 1995.
李　白,『李太白全集-卷之三』, 北京:中華書局, 1995.
項　楚,『寒山詩注』, 北京:中華書局, 2000.
김현강,『이미지』,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유평근·진형준,『이미지』, 살림, 2015.
좌구명 지음, 신동준 옮김,『춘추좌전3』, 한길사, 2006.
崔小敬,『寒山及其詩研究』, 中國 復旦大學校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賀莉　,「唐詩中的'寒山'意象」『西安文理學院學報』期刊1, 2015.
이선희,「한산에 나타난 한산의 의미」,『中語中文學』제14집, 1992.
정원호,「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中國學』, 제52집, 2015.
_____,「寒山詩의 儒·道家적 양상 고찰」,『中國學』, 제63집, 2018.

56) 유평근·진형준,『이미지』, 살림, 2015, p.47. 언어적 이미지에 관한 내용 참조.

【중국문학 분과】 발표 ④

郑《笺》兴意的探讨

吴万钟(全南大学)* · 赵惠珍(全南大学)**

引言

现代人看《诗经》的时候，如果要了解古人如何理解它，首先应该由毛诗解释入手。所谓毛诗解释包括《毛诗故训传》和《毛诗序》。如《汉书·艺文志》有关《诗》的记载：“诗经二十八卷，鲁、齐、韩三家。鲁故二十五卷。鲁说二十八卷。齐后氏故二十卷。齐孙氏故二十七卷。　齐后氏传三十九卷。齐孙氏传二十八卷。齐杂记十八卷。韩故三十六卷。韩内传四卷。韩外传六卷。韩说四十一卷。毛诗二十九卷。毛诗故训传三十卷”[1]的内容，西汉时期《毛诗》比三家诗多出一卷，《毛诗故训传》比《毛诗》多出一卷。但《毛诗》的传本早已失传，其体例如何，不得而知。《毛诗》的经卷可能与鲁、齐、韩三家诗一样是二十八卷，在此加了《毛诗序》，成了二十九卷。[2]《毛诗故训传》则可能在《毛诗》上再加了《故训传》一卷，成了三十卷。[3]因此，这里所说的《毛诗》的解释系统不是单指西汉时期与齐、鲁、韩三家诗区别的传本，而是指从西汉之后以《毛诗》为依据所形成的包括《故训传》和《毛诗序》的解释体系。郑玄就是以此为底本作《笺》的。

东汉末，郑玄以《毛诗故训传》为底本作《笺》，是为何呢？赵茂林梳理了前人对此问题的看法之后，提出了自己的观点。他把前人的看法分为二：首先是根据宋人王柏《诗疑》的说法，即“惟毛苌者最后出，其言不行于天下，而独行于北海。郑康成，北海之人也，故为之笺。”[4]这就简单提出郑玄选用《毛诗》作《笺》的理由为与他的出生地有关。还有依据清人魏源在《诗古微·齐鲁韩毛异同论·上》中的辨别，说“要其矫诬三家者，不过三端，曰齐鲁韩皆未见古序也。毛诗与经传诸子合而三家无证也。毛序出子夏孟荀，而三家无考也。请一一破其疑。”[5]其实，魏源批驳程大昌、郑樵、马端临对三家诗的看法，以论证三人对三家诗的见解为错误。可见三家诗虽有前面所列三种缺点的主张，但都有可破之处，不足为郑玄弃《三家》而取《毛》的充分理由。赵茂林提出郑玄用《毛诗》作《笺》的理由有二。其一是根据《郑志》的“后乃得毛公传，既古书，义又宜然”[6]之语，认为《毛

* 韩国全南大学中文系教授
** 韩国全南大学中文系博士生

1) 班固，《汉书》，北京，中华书局，1962年6月，1707-1708页。

2) 徐复观在《中国经学史的基础》里质疑“毛诗二十九卷”与《毛诗序》联系的说法，说：“王先谦在‘诗经二十八卷，鲁、齐、韩三家’下谓‘此三家全经，并以序各冠其篇首。’在‘毛诗二十九卷’下王氏谓‘此盖序别为一卷,故合全经为二十九’此乃以《诗序》的分合，来解决卷数的异同，而不顾现存的事实。…《诗》则并非以一篇为分卷的单位，每卷包含诗若干篇，有伸缩的馀地。所以与‘诗经二十八卷’的数字相符的仅有‘鲁说二十八卷’，‘齐孙氏传二十八卷’。此外则或多或少，并与‘二十八卷’之数字不合，这与《诗序》的或分或合，并无关系。换言之，《汉志》所录的‘经二十八卷’，分明是《经》的卷数，未尝将《序》记入。”台北，学生书局，1982年5月，147－148页。

3)《毛诗故训传》的作者根据郑玄的《诗谱》（孔颖达，《毛诗正义》，《十三经注疏二》，台北，蓝灯文化事业公司，11页），陆玑的《毛诗草木鸟兽虫鱼疏》（山阳丁晏校正本，下卷，70-71页），陆德明的《经典诗文·序》（吴承仕，《经典释文序录疏证》，北京，中华书局，1984年3月，87页），都说是大毛公亨。他传授给小毛公苌，为河间献王博士。但今人王国维把《毛诗故训传》分为二，主张《故训》是大毛公作，《传》是小毛公作，说“《故训》与《传》，故不必为一人所作，例以齐鲁韩三家之学固可知也。然则何以知《传》为小毛公作也，曰毛诗故训多本《尔雅》，而《传》之专言典制义理者，则多用《周官》。《周官》一书得於河间，不独汉初齐鲁诸儒皆未之见，即周秦人著书亦未有徵引一二者。大毛公鲁人，又亲受《诗》於荀子，是生於周秦之间，何缘得见《周官》而引之。今案《毛传》之用《周官》者，如《召南·行露》《传》曰，‘昏礼，纯帛不过五两，’…凡出《周官》者二十七条，盖小毛公为河间献王博士，得见《周官》，因取以传诗，附诸《故训》之后。”王国维虽把《故训传》分为二人作，但并不说分为二卷，而说《传》附加于《故训》，则内容散见于各诗篇中，所以不碍说加一卷。

4) 王柏，顾颉刚标点，《诗疑》，辨伪丛刊之一，37页。

5) 参阅魏源，《诗古微》，《续经解毛诗类彙编》（三），台北，艺文印书馆，1986年，6月，3110页。

诗》为古书，而比三家《诗》更贴切诗意，其主要原因是“《毛诗》于《左传》、《国语》所采较多，而且严格依据历史著作的体例，用‘《风》《雅》正变’、用‘世次’来解释《诗经》，赋予每首诗政治褒贬之义，从而使其诗说显得系统严密，且看似颇有历史依据。”但三家诗却无“正变”和“世次”的概念来解《诗》，却不如《毛诗》。其二是《毛传》用“比兴”理论来解诗，以形成一个解释体系，并将诗的内容与历史事件联系起来，使诗意丰富了历史情节的真实感，并附加了比兴所带来的喻意。[7]赵先生所提出的对《毛诗》解释的优点，如以“正变”和“世次”概念来解诗而历史依据的感觉，以及以比兴理论来解诗时与历史联系起来而产生真实感，的确是让郑玄选《毛诗》的重要理由。

除此之外，可以从《诗》学史的角度说明其理由。《诗》学在西汉主要由三家诗霸占官学，毛诗在民间流传。齐、鲁、韩三家诗中，《鲁诗》以解说严谨，美刺说《诗》而关怀现实人生与政治为特色；《齐诗》以阴阳五行、谶纬灾异等神秘色彩浓厚的解《诗》为特色，而以此有观王朝盛衰，为君主研究知人之术的政治目的；《韩诗》以阐述《诗》的多重喻义，扩大其兴喻的意义为特色，而以此保持着《诗》与现实生活的关系。[8]作为官学的三家诗的这些解说倾向使汉代《诗》学逐渐与现实政治和实际人生靠拢，并使其阐释内容逐渐成为抱有神秘色彩浓厚而神圣的微言大义的解释体系。郑玄为了摆脱三家诗的这种功利目的的解《诗》体系，就采用《毛诗》解释所含的先秦传统《诗》学体系的以礼释《诗》，从历史化的角度解《诗》，以制度解释感情等富有理性精神的古学，来代替三家诗，才能维持传统《诗》学的人文精神。[9]郑玄为何把《毛传》当为作《笺》的底本，如果用刘毓庆、郭万金先生的话说，就如“《毛诗》则秉承了战国的理性精神，在《诗经》的诠释中，用理性思考化解着《诗》原初携带的神秘色彩”，《笺》则秉承了《毛诗》的理性精神，在《诗经》的诠释中，用理性思考化解着三家《诗》携带的神秘色彩。

还可以从思想史的角度说明其理由。从西汉到东汉，汉朝的意识形态定型，以儒家为主的社会制度、官僚体系、教育制度等也稳定发展。这时，绾带社会思想体系的是今文经学解经方式的章句之学。章句之学的重点在于通过辨明句读而挖掘原始文本的微言大义，而其经义的解说层次不穷，逐渐变成繁琐。这种繁琐的解经倾向“却刺激了另一种以博闻强记为特征的知识主义风气。”由此，“在民间形成了一种推崇历史知识、文字知识与博物知识的风气，并随着这一风气的传续形成了‘古学’与‘通儒’的传统。”[10]东汉时期崇尚古学而成为通儒中，包括继承《毛诗》的如郑众、贾逵、马融、郑玄等的学者。[11]郑玄作为东汉末的大儒，年轻时从张恭祖受今文学的《韩诗》，后来注群经时用古文学的《毛诗》，[12]是受到东汉时期好古学和知识主义的思想潮流的影响。

2. 郑《笺》与《毛诗》的不同

以上从《毛诗》解释本身具备的优势、《诗》学史和思想史等三个角度论述了郑玄用《毛传》作《笺》的理由。郑玄以《毛传》作为底本作《笺》，则《笺》与《毛传》之间有什么区别？郑玄作《笺》时的立场在他自己的《六艺论》中可以见到，说“注《诗》宗毛为主，毛义若隐略，则更表明；如有不同，即下己意，使可识别也。”[13]郑玄很明确地表明以《毛诗》为主的注释立场。这可以从他注释《毛诗》后不用“注”而用“笺”来命名，

6)《汉书·张曹郑列传》说：郑玄“依《论语》作《郑志》八篇”（1212页）的记载。《郑志》已失传，此说见于《毛诗正义·邶风·燕燕》的注解里，《十三经注疏》2,台北，蓝灯出版社，78页。

7) 参阅赵茂林，《两汉三家<诗>研究》，成都，巴蜀书社，2006年11月，628-637页。

8) 参阅刘毓庆，郭万金，《从文学到经学-先秦两汉诗经学史论》，上海，华东师范大学出版社，2009年10月，209-242页。

9) 刘毓庆，郭万金先生认为《毛传》解释反应的是战国时期的理性精神，说“《毛诗》和三家《诗》，显然分属于这两个不同的时代。齐、韩、鲁三家，无一例外地介入了汉代神秘文化的营建工程，而《毛诗》则秉承了战国的理性精神，在《诗经》的诠释中，用理性思考化解着《诗》原初携带的神秘色彩。”《从文学到经学-先秦两汉诗经学史论》，421-429页。

10)参阅葛兆光，《中国思想史》，上海，复旦大学出版社，2004年7月，306-307页。

11)陆玑的《毛诗草木鸟兽虫鱼疏》记载：“其后郑众、贾逵传《毛诗》，马融作《毛诗传》，郑玄作《毛诗笺》。”山阳丁晏校正本，下卷，71页。

12)《汉书·张曹郑列传》：“遂造太学受业，师事京兆第五原先，始通京氏易、公羊春秋、三统历、九章算术。又从东郡张恭祖受周官、礼记、左氏春秋、韩诗、今文尚书。”（1207页）“凡玄所注周易、尚书、毛诗、仪礼、礼记、论语、孝经、尚书大传、中候、乾象历。”（1212）

看出其推崇的态度。《毛诗正义》对此注明，说“郑于诸经皆谓之‘注’，此言‘笺’者，吕忱《字林》云：‘笺者，表也，识也。’郑以毛学审备，尊畅厥旨，所以表明毛意，记识其事，故特称为‘笺’。余经无所尊奉，故谓之‘注’。”[14]郑玄崇尚《毛诗》，无可非议，但并非专从它，如与毛义有不同，“即下己意”。所谓“下己意”，皮锡瑞说“实本三家，是郑笺《诗》兼采今古文也。”[15]但郑玄说的“己意”不仅仅如皮氏所说的“实本三家”之义，应该还包括在毛义不明之处为了解诗而采取的各种参考资料之义，如以经解经、以礼解《诗》等方式所赋予的儒家之说，也有诸子之说。[16]《笺》以毛诗说为主而兼采三家诗说，清儒陈奂已明言，说“郑康成习韩诗，兼通齐鲁，最后治毛诗。笺诗乃在注礼之后，以礼注诗，非墨守一氏。笺中有用三家申毛者，有用三家改毛者，例不外此二端。三家久废，姑就所知，得若干条。毛古文，郑用三家从今文，于以知毛与郑固不同术也。”[17]陈奂专从毛义，故说毛与郑不同术，意思是郑《笺》解诗的宗旨与《毛诗》不同。其不同术所包含的是以礼注诗，非墨守一家之义，还有用三家诗意申毛、改毛之处，即自己所说的“下己意”的内容。郑《笺》与《毛诗》不同术之处刚好成为《笺》诗说的特色。

如上所说，郑《笺》与《毛诗》有同，也有不同。如从宏观和微观的学术角度看，我们可以说明两者诗说不同的理由。从学术、经学史、诗经学史等宏观的角度看，郑《笺》可以说继承《毛诗》而有相同的地方，就站在《毛诗》学说的立场；但从注释方式、古今文学、诗经学派等微观的角度看，则与《毛诗》不尽相同，杂有三家诗、今文经学的内容，也有不少注释方式与内容方面的不同。对郑玄的笺《诗》特色，孔德凌在《郑玄<诗经>学研究》中概括为5种：第一是不拘师说，就是东汉的郑玄不像西汉经师那样严守师法，而择善而从；第二是融通今古，就是兼通古今文经学的郑玄融合了三家《诗》与《毛诗》于一体，吸收了各家之长，并集先秦两汉《诗经》研究成果之大成；第三是创立新说，就是创新地结合《毛诗》、《毛传》和《毛诗序》为一体的《笺》的注释方式，并以《毛诗》为主、兼取三家而融汇今古文经学于一体的新的解《诗》风格；第四是解《诗》论《诗》相结合，就是为疏通经义笺《诗》，同时为《诗经》做了总纲性质的引导，作《毛诗谱》，建立了较为完备的解《诗》体系；第五是注重与现实联系，就是郑玄生于汉末乱世，通过注经方式关怀天下现实，在笺《诗》中反映着动荡不安的现实、人君治世的方针、理想社会的蓝图、个人处世的策略等时事问题。[18]孔德凌所概括郑《笺》诗说的这些特色，都是博通诸经的大儒才具备的。不拘一家之师说、融通古今文学才成大儒，由此才能创立新说，并拥有大儒的心胸才能关怀现实问题，而作以正变、美刺观念安排诗篇次第的《谱》。[19]

由此可知，虽说郑《笺》与《毛诗》有同之处，也有不同之处，其相同的地方是继承《毛诗》而申明其学说的内容，其不同的地方就是兼采三家诗说，或创立新说而丰厚诗意的内容。所谓继承《毛诗》而申明其学说，主要指在《毛诗》的训诂文字，依《序》说明诗意和标兴解兴义的基础上，郑《笺》采取同样的注释方式，加以诠释文字、考据制度的注解，补以诗旨的内容，并添以阐发兴义的解说。所谓兼采三家诗说，或创立新说而丰厚诗意，主要指郑《笺》运用《毛诗》注释方式的时候，兼采三家诗说而丰富诗意，又在汉代谶纬之神学的影响之下霸占官学的今文学所探究的微言大义，就阐发孔子编撰《诗经》之意。郑《笺》对创立新说而丰厚诗意的注释特色上，虽创建了《毛诗》、《毛传》、《毛诗序》三者为一体的解释系统，但重点在于丰厚诗意上。所谓郑《笺》比《毛诗》丰厚诗意是通过诠释文字、考据制度、兴意的阐发、兼采三家诗意等的注释方式，而达成的。

那么，郑玄要达到丰厚诗意的内容是什么？郑玄以《毛诗》为底本作《笺》，当然要继承其《诗》学的核心思想，就是《诗》的经典意义。《诗》能成为经，主要依靠《毛诗》解释体系。《毛诗》解释体系很复杂，不但含有先秦传统《诗》学的成分，而且包含汉代《诗》学的成分。这说明《诗》经过春秋战国、秦、汉的历史时期，逐渐

13)见于《毛诗正义·周南·关雎》，12页；刘毓庆，《历代诗经著述考》（先秦-元代），北京，中华书局，2002年5月，59页。

14)见于《毛诗正义·周南·关雎》，12页；刘毓庆，《历代诗经著述考》（先秦-元代），60页；赵茂林，《两汉三家<诗>研究》，632页。

15)皮锡瑞，《经学历史》，台北，艺文印书馆印行，1987年10月，147-148页。

16)有关郑玄“下己意”之意的探讨，参阅 赵茂林，《两汉三家<诗>研究》，637-638页。

17) 见于陈奂，《郑氏笺考徵》，《诗毛氏传疏》，台北，台湾学生书局，1967年9月，1087页；赵茂林引用陈奂之语，申明此意，《两汉三家<诗>研究》，638-639页。

18)参阅孔德凌，《郑玄<诗经>学研究》，山东大学，博士学位论文，2007年5月，139-145页。

19)《毛诗谱·序》：“夷、厉已上，岁数不明。太史《年表》自共和始，历宣、幽、平王而得春秋，次第以立斯《譜》。”《毛诗正义》，6页。

积累理解《诗》文本的历史经验和文化滋养，形成一个通过《诗》的解读教化人民意识形态的解释体系。先秦《诗》学的核心术语应该是《尚书》中的“诗言志”。孔子以《诗》教学时所重视的礼乐观念的用《诗》理念，孟子的“知人论世”、“以意逆志”等的《诗》学理论，赋诗引诗而言志，《毛诗序》以美刺论诗等，都是诗言志精神的不同展现。再经过荀子传《诗》时提高的经典意义，就在《毛诗》解释体系中一一呈现。这种《毛诗》解释体系里面所包含的礼乐精神、知人论世的现实精神、赋诗引诗的论辩精神、美刺论的政论精神，无不都是支配人们意识形态的人文精神，即是所谓《诗》能成为“经”的经典意义的要素。郑玄笺《毛诗》，重点在于其经典意义的深化。[20]这就是《笺》比《毛诗》诗意丰厚的主要内容。如果郑玄作《笺》的目的在于经典意义的阐发，那么，其主要手段之一就是通过兴意的阐发而实现的。

3.《笺》兴意的思维模式

郑《笺》对兴句阐发兴意，主要依据《毛传》标兴的部分。《毛传》所标的兴诗，共有115篇，其中作兴意说明的有35篇，其外的80篇都只标“兴也”2字，[21]没有作兴意的说明。郑玄对《传》标兴的作品进行兴意阐释的，共有88篇之多，没有解释的有27篇。其中《毛传》有《笺》没有兴意解释的有16篇，《笺》有《毛传》没有兴意解释的有69篇，《毛传》和《笺》共有兴意解释的有19篇，《毛传》和《笺》都没有兴意解释的有11篇。可见郑《笺》对《毛传》标兴的兴句进行兴意解释的88篇中，19篇是在《毛传》兴意解释的基础之上再作兴意的阐发，还有69篇是针对标兴的兴句自己进行兴意的阐发的。另外，《毛传》有《笺》没有兴意解释的16篇则大约接受《传》的释义而不觉得再作兴意的阐发。

《毛传》标兴而作兴意的解释，郑《笺》加以兴意的阐释，这些兴意反映着当时人们的一种思维模式，我们叫“兴的思维模式”。这里所说的兴的思维模式，指对《诗经》作品中借以他物抒发作者情怀的诗篇进行注解时使用的一种思维方式。其实，兴的思维模式不仅仅含有这一层意义，还应该含有诗歌创作时描写他物的兴句中反映诗人情怀的写作思路。所以中国诗学传统里“六诗”[22]中的“兴”，从诗歌写作技巧的角度说也好，从对兴句兴意的阐释角度也好，都是一种思维模式。[23]如再从兴的原始意义来看，也是指一种原始人民兴祭活动中产生的思维模式。刘怀荣主张兴祭从萌芽到消亡的全过程就是“中国独特的艺术思维兴法思维生成的历史、文化前提。”他说“兴祭中巫术、宗教的‘与神同一’自然转化为艺术、美学的‘与物同一’，在漫长的原始巫术、宗教祭祀实践中孕育生成的、原始先民世代相承的主体心理体验，终于在挣脱巫术、宗教的母体脐带之后，以人间性的姿态构成了中国艺术心理体验的先在模式。至此，萌芽于远古民族生活的兴法思维开始踏入了中国古典艺术的门槛。”[24]如这样看，郑玄对兴句阐发的兴意的思维模式是远绍于原生态兴祭活动中产生的思路，并承继于诗歌创作者与他物感情交融的思路，还直接续于《毛传》展开兴意的思路。

我们还可以考虑对郑玄作兴意阐释有影响的一些因素。《诗经》作品产生之后经过春秋战国、秦、汉时期，诸子百家思想里出现很多对人与客观事物之间进行的思考，并从中说解人生的大道理，这是一因素；战国时期阴阳五行说兴起后，人们的思维里产生联系人与客观事物的想法，譬如天人感应、物我感化、四时与人政之间的关系等，也是一因素；汉代谶纬思想盛行一时，其思想所勾勒的宇宙万物的想象世界，对解《诗》者兴义的阐发打开了活跃的心灵活动空间，[25]又是一因素。虽郑玄作笺《诗》时试图摆脱三家诗的神秘色彩的解说，但自己不知不觉地受到

20) 刘毓庆，郭万金在《从文学到经学-先秦两汉诗经学史论》说，“甚至有学者认为，郑玄‘专门研究经典中的名物训诂，而忽略思想，实可称为后代考证学的开山祖。’其事在某种意义上讲，他对经典思想意义的阐发，才是其《诗》学的本质。”464页。

21) 《毛传》标“兴也”的116例子中，只有一处标“忧者之兴也”（《周南・卷耳》）。

22) 《周礼・大师》：“教六诗曰：风、赋、比、兴、雅、颂。”《十三经注疏二》，台北，蓝灯文化事业公司，356页。

23) 本人已在《从诗到经》的第三章《兴的思维模式与毛诗解释》里，主张《传》和《笺》的兴意是继承春秋战国时人们思维的一种思维模式。北京，中华书局，2001年3月，44-60页。

24) 他对此问题探讨说，甲骨文里出现的一些兴字为祭名，此祭名的兴字与祭祀有关的歆、釁字同源通用，古音亦相近通转。并对“兴祭的全部发展历史大致可以分为三个时期，表现为三种不同的形态。一是殷代以前以图腾祖先崇拜为主要特征的兴祭早期形态；二是殷商时代以祖先崇拜为特征的兴祭仪式；三是殷商以来，兴祭的分化、解体与向非宗教、非祭祀领域的转化。”参阅刘怀荣，《赋比兴与中国诗学研究》，北京，人民出版社，2007年7月，87-124页。

谶纬思想影响的思维模式，反映在其注解里面。如《小雅·节南山》在“不自为政，卒劳百姓”句下，《笺》说“昊天不自出政教，则终穷苦百姓。欲使昊天出图、书，有所受命，民乃得安”；《周颂·雍》在“燕及皇天，克昌厥后。绥我眉寿，介以繁祉”句下，《笺》说“文王之德安及皇天，谓降瑞应，无变异也。又能昌大其子孙，安助之以考寿，与多福禄。”[26]这是以天兆人事之吉凶的概念来解诗的，就是比较明显地反映谶纬概念的例子。但对客观事物如日月、山川、动物、植物与人之间的关系进行说解时，郑《笺》比《毛诗》更灵活地运用人与他物之间的对应、对比的关系。这或多或少受到汉代谶纬思想洗礼的影响。如《邶风·日月》的“日居月诸，照临下土”句下，《传》说“日乎月乎，照临之也”，《笺》说“日月，喻国君与夫人也。当同德齐意以治国者，常道也。”《传》没有进行兴意的具体说明，就简单地解说日月普照天地之意，《笺》却具体地指明在人世间与日月对应的是国君与夫人，加以说解两人应当同德齐意以治国，乃是常道的治国道理。

由以上的论述看，郑《笺》兴意的思维模式，一方面来源于中国诗学传统里面很重要概念之一的“兴”本身的理论发展，就是兴祭活动中生成的思路、诗人写作兴句的构思、《毛传》标兴而展开兴义的思路等三种渊源的积累；另一方面来源于《诗经》作品产生之后人们发展的思想，如诸子百家思想里人与客观事物之间进行的思考，阴阳五行说影响人们思维里产生联系人与客观事物的想法，谶纬思想所勾勒宇宙万物想象世界的心灵活动等。郑玄基于传统中积累的这些有关兴的滋养，通过对兴句进行兴意的阐发，达到的目的是《毛诗》解释所设计的经典意义的深化。下面对《笺》的兴句解释进行分析，以显现如何达到其经典意义的深化。

1）君臣关系的兴意

郑《笺》对《毛传》有兴意解释的作品没有进行解释的共有16篇，这是基本上接受《毛传》的意思。《毛传》对这些作品兴意的主旨可以归纳为以下几种，一是夫妇之间的道理，如后妃之德、夫妇和睦；[27]二是男女之间的道理，如妇人待礼以成为室家、男女待礼以成家、妇人外成于他家；[28]三是为政治国的道理，如为政用心、国民得力、国君有财而不能用、君招贤人、上与民同欲、主乐宾客以成礼、君子长育人材、行小人之道、国家贤人众多；[29]四是其他主旨，如称美国君之德貌、役夫劳苦等。[30]除此之外，《毛传》还有19篇作了兴意的解释，郑玄对此做了进一步的阐发。这时，他的阐释不一定完全顺着《毛传》的兴意，有的根据《毛传》做进一步阐发，有的与《毛传》不同，另作新的阐释。下面分别举例试作分析。

首先看一下《笺》依《传》阐发兴意的例子。《郑风·山有扶苏》的诗旨依《毛诗序》说是“刺忽也。所美非美然。”[31]在首两句“山有扶苏，隰有荷华”下，《传》说“言高下大小各得其宜也”；《笺》说“兴者，扶胥之木生于山，喻忽置不正之人于上位也；荷华生于隰，喻忽置有美德者于下位。此言其用臣颠倒，失其所也。”《传》说兴意的文字简略，《正义》疏解为“山上有扶蘇之木，隰中有荷华之草，木生於山，草生於隰，高下各得其宜，以喻君子在上，小人在下，亦是其宜。今忽置小人於上位，置君子於下位，是山隰之不如也。”依《正义》

25)刘毓庆，郭万金在《从文学到经学-先秦两汉诗经学史论》里分析《诗纬》的诗说后，说“诗歌这发自宇宙深处—天地之心的声音，便蕴涵了天地变化、人事无常的全部秘密。《诗纬》对于诗歌所赖以产生的宇宙关系的勾勒，显然带有浓郁的神话色彩，然而它却基本上还原了《诗经》产生时代的观念与世俗文化背景。”参阅345-353页。

26)魏启峰在《毛亨郑玄朱熹<诗经>注释研究》（西北大学，博士学位论文，2016年6月）介绍了郑玄注释里用谶纬的两则例子。参阅124-126页。

27)《笺》说：后妃説乐君子之德，无不和谐，又不淫其色，慎固幽深，若雎鸠之有别（《关雎》）；阴阳和而谷风至，夫妇和则室家成，室家成则继嗣生（《邶风·谷风》）。

28)《笺》说： 籧篨，长而杀也。钓以得鱼，如妇人待礼以成为室家（《竹竿》）；男女待礼而成，若薪刍待人事而后束也。三星在天，可以嫁取矣（《绸缪》）；葛生延而蒙楚，蔹生蔓于野，喻妇人外成于他家（《葛生》）。

29)《笺》说：为政有缓有急，用心之不均（《兔爰》）；园有桃，其实之食。国有民，得其力（《园有桃》）；国君有财货而不能用，如山隰不能自用其财（《山有枢》）；先君招贤人，贤人往之，驶疾如晨风之飞入北林（《晨风》）；上与百姓同欲，则百姓乐致其死（《无衣》）；鹿得湜，呦呦然鸣而相呼，恳诚发乎中，以兴嘉乐宾客，当有恳诚相招呼，以成礼也（《鹿鸣》）；君子能长育人材，如阿之长莪菁菁然（《菁菁者莪》）；行小人之道，责高明之功，终不可得（《小宛》）；山木茂盛，万民得而薪之。贤人众多，国家得用蕃兴（《棫朴》）。

30)《笺》说：武公质美德盛，有康叔之余烈（《淇澳》）；杕杜犹得其时蕃滋，役夫劳苦，不得尽其天性（《杕杜》）。

31)程俊英，蒋见元在《诗经注析》说“写一位女子找不到如意对象而发牢骚的诗。”见于北京，中华书局，1991年10月，241页。

的解释看，兴句“山有扶苏，隰有荷华”是各得其所的情景，但《毛诗序》把此诗理解为“刺忽”的作品，就是讽刺忽任用君子与小人于不合宜的职位上，这样不得不说不如山隰之各得其所的适宜情景。但《笺》对兴句“山有扶苏，隰有荷华”的理解与《传》不同，就把它理解为不适宜的情景，就如《正义》疏解“以高山喻上位，下隰喻下位，言山上有扶苏之小木，隰中有荷华之茂草，小木之處高山，茂草之生下隰，喻忽置不正之人於上位，置美德之人於下位。言忽用臣颠倒，失其所也。”《笺》把扶苏为小木而处高山、荷华为茂盛而生下隰的情景，与忽任用不正之人於上位、美德之人於下位作对比，拿兴句的物象符合于心想的事象，也直接符合于《毛诗序》“刺忽”的诗意。《笺》虽在《传》和《毛诗序》的忽用臣不当的诗意上作解释，对兴句的具体理解却有所不同，而以此显现出“用臣颠倒，失其所也”的诗旨。《笺》通过兴句兴意的阐发，对君主要用臣适当的道理（第二章的养臣适当的道理）做了更具体的说明，使读者心中浮现出物象与事象之间更鲜明的意象。

我们再看《小雅・隰桑》出现与《山有扶苏》类似主题的兴意解释。《毛诗序》说《隰桑》的诗旨是“刺幽王也。小人在位，君子在野。思見君子也，盡心以事之。”[32]在首两句“隰桑有阿，其叶有难”下，《传》说“阿然美貌，难然盛貌，有以利人也”；《笺》说“隰中之桑，枝条阿阿然长美，其叶又茂盛，可以庇廕人。兴者，喻时贤人君子不用而野处，有覆养之德也。正以隰桑兴者，反求此义，则原上之桑枝叶不能然，以刺时小人在位，无德于民。”《传》对兴句的解意很直接单纯，隰桑长美茂盛，以给栖息者纳凉，所以说‘有以利人’。《笺》根据《传》的‘利人’的兴意联系人事，进一步说“野中君子，其身有美德，可以覆养，人事之者，蒙其利也。既隰中之桑盛如此，则原上之桑不能然，是不可以庇荫也。猶野中君子德如是，则在位小人不能然，为不能覆养也。由小人在位而无德，故今思见在野君子而尊事之。”（《正义》的疏解）《笺》对兴句字面兴意的阐释是以隰中之桑喻为野中君子，其君子之美德能覆养人；而反面之意是以原上之桑喻为在位小人，则不能覆养人。《笺》的这种反面之意的阐释是为了迎合《毛诗序》“刺幽王也。小人在位，君子在野”的诗旨而引申的。《毛诗序》从美刺角度解诗，说讽刺幽王不能任用君子而在野，反而小人在位，《笺》顺着此意阐发兴意，而从兴句的自然景物中任意地想象隰中之桑和原上之桑、君子在野和小人在位的对比意象，就引申出讽刺小人在位，无德于民的兴意。《笺》兴意的这种任意性即是兴意思维方式的一种特性。

《卫风・芄兰》也是与君用臣的主题有关。在首句“芄兰之支”下，《传》说“芄兰，草也。君子以德，当柔润溫良”；《笺》说“芄兰柔弱，恒蔓延于地，有所依缘则起。兴者，喻幼稚之君，任用大臣，乃能成其政。”《传》对兴句芄兰之草的属性阐发，就是君子之德应当像芄兰般柔润温良，取意简要直接，但《笺》在芄兰之柔弱的属性上，再引申其蔓延的属性，以此阐发“幼稚之君，任用大臣，乃能成其政”的兴意。《传》由芄兰柔润的属性取君子之德的兴意，《笺》则由芄兰柔弱的属性取幼稚之君的兴意，再由蔓延的引申意取任用大臣而成其政的兴意。《传》的兴意是君子的一般德性，《笺》则是幼君的政治德性，其取兴意是从普遍意义的解释转到含有具体时政意义的解释。

还有《郑风・葑兮》的兴意涉及君倡臣行的君臣关系。《毛诗序》的诗旨是“刺忽也。君弱臣強，不倡而和也。”[33]在首两句“葑兮葑兮，风其吹女”下，《传》说“人臣待君倡而后和”；《笺》说“兴者，风喻号令也，喻君有政教，臣乃行之。言此者，刺今不然。”从诗文来看，诗人以风比男，以葑比女；但《传》以风比君，以葑比臣；《笺》则以风喻号令，以葑喻行令。原来诗文的以风和葑比一般的男和女，在《传》的解释里兴意转向君和臣之间关系的比喻，到了《笺》则其兴意再转向到君号令和臣行令的具体事象。兴意事象的由一般男女关系到君臣关系，再具体到君号令而臣行令关系，从普遍意义的兴意一次又一次转变到政治意义的具体意象上，使诗篇产生政教观念的诗意，而具有让读者培养意识形态的意义。

再看一下《笺》的兴意与《毛传》不同的解释。《邶风・旄丘》的诗旨《毛诗序》说“責卫伯也。狄人迫逐黎侯，黎侯寓于卫，卫不能修方伯连率之职，黎之臣子以責于卫也。”[34]在首两句“旄丘之葛兮，何诞之节兮”下，《传》说“诸侯以国相连属，忧患相及，如葛之蔓延相连及也”；《笺》说“兴者，喻此时卫伯不恤其职，故其臣于君事亦疏废也。”《传》对兴句的旄丘上的葛，专取葛本身的蔓延相连的属性，以兴喻诸侯以国相连属，忧患相及的人事，这样兴句葛之阔节的物象与兴意的事象不太吻合。《毛诗序》的诗旨，卫侯不救被狄人迫逐的黎侯，不

32)《诗经注析》说“是一位妇女思念丈夫的诗”。见于726页。
33)《诗经注析》说“可能是当仲春‘会男女’的集体歌舞曲。”见于242页。
34)《诗经注析》说“是一些流亡到卫国的人，盼望贵族救济而不得的诗。”见于99页。

尽方伯连率之职，而黎侯的臣子刺责卫伯而作此诗，是先秦时期封建诸侯国之间的事来说解，却与《传》的兴意符合。《传》的兴意通过凸显出葛本身的蔓延相连的属性，意在阐发诸侯之间遵守的行为纲领。但《笺》却与《传》不同，对兴句采取旄丘上的葛节长得阔大的情景，以兴喻卫伯不恤其职，故其臣于君事亦疏废的人事。《笺》直接采取兴句的物象，将葛节长得阔大的情景联系到卫伯不恤其职，而其臣疏废君事的事象，就把《传》的诸侯之间的事转到君臣之间的事了。这就是《传》的兴意反映战国时期的时代意识，《笺》的兴意反映汉朝时期的时代意识的一个例证。

还有《秦风·黄鸟》谈到君臣关系的内容。在首两句“交交黄鳥，止于棘”下，《传》说“黄鸟以时往來得其所，人以寿命终，亦得其所”；《笺》说“黄鸟止于棘，以求安己也。此棘若不安，则移。兴者，喻臣之事君亦然。今穆公使臣从死，刺其不得黄鸟止于棘之本意。”《毛诗序》的诗旨是“哀三良也。国人刺穆公以人從死，而作是诗也。”这首诗从诗文中可以找到有关诗的历史背景和情节线索，所以诗本身不存在产生不同理解的可能性。[35]但对兴句的兴意，《传》和《笺》有不同的阐释。《传》从兴句的黄鸟往返飞来而止息于棘的物象中，采取得其所的意象，以此类推人以寿命终，亦得其所的兴意。如从诗文中穆公使良臣从死的内容来看，良臣不得其所，故人们哀伤良臣，讽刺穆公。但《笺》则从兴句的黄鸟止息于棘的物象中，取追求安己之处，如棘不安则移去的意象，以此兴喻臣下事君时，如君行道则留，行不道则去的行为模式。《传》是从鸟止于树的景象中，突显得其所的意象，以取人得其所而寿命终的兴意；但《笺》则从鸟止于树的景象中，凸显出择其所的意象，以喻君行道与否，臣有去留之道的兴意。《传》阐发的兴意是人生命有关的普遍价值意义的内容；《笺》则把兴意的阐释转移到关于君臣之间行为模式的内容上来，赋予了现实政教意义浓厚的诗意。

《大雅·卷阿》也涉及到君臣关系的问题。在首两句“有卷者阿，飘风自南”下，《传》说“恶人被德化而消，犹飘风之入曲阿也”；《笺》说“兴者，喻王当曲体以待贤者，贤者则猥來就之，如飘風之入曲阿然。”《毛诗序》的诗旨是“召康公戒成王也。言求賢用吉士也。”[36]《传》从兴句之从南方飘风吹入卷曲阿陵的景象中，取其飘风顺着卷曲的阿陵消散无影的意象，阐发恶人被贤德的君主感化而消失不见的兴意。《笺》则从兴句的景象中，取阿陵以卷曲之形纳入南方的飘风的物象，阐发王以曲体纳贤的意象。虽同一个兴句，《传》、《笺》有采取物象的侧重点不同，而阐发的兴意也随之而异。《传》的兴意强调君有德而感化的君主之德，《笺》则强调君主曲体求贤而致才的君臣关系。

在以上有关君臣关系主题的兴意诗篇中，我们着重论述了《笺》依据《传》的兴意作解释时，顺着《传》意做进一步阐发兴意的例子，以及与之阐发不同的例子。除此之外，《笺》还有对《传》没有作兴意解释的诗篇　69篇（前面已提）。其中，有关君臣关系主题的诗篇不少，下面举两个例子进行分析。先看一下《小雅·南山有台》的兴意。在首两句“南山有台，北山有莱”下，《笺》说“兴者，山之有草木，以自覆盖，成其高大，喻人君有贤臣，以自尊显。”《毛诗序》的诗旨是“乐得贤也。得贤则能为邦家立太平之基矣。”《笺》从兴句的南山上有夫须，北山上有莱草的景象中，取其草木之茂盛而自成高大的物象，阐发人君得以贤臣而自尊显的兴意。《南山有台》似乎是“为统治者颂德祝寿的诗”，[37]诗文中并没有提及君王与贤臣的关系。《笺》为了迎合《毛秩序》之‘乐得贤’的诗意，阐发君王之歌功颂德来自于得贤臣而治国之故。《笺》从兴义的阐发中，凸显出君得以贤臣而尊显的君臣关系的一面。

《小雅·裳裳者华》的兴意也谈君臣关系的内容。在首两句“裳裳者华，其叶湑兮”下，《笺》所“兴者，华堂堂于上，喻君也；叶湑然于下，喻臣也。明王贤臣以德相承而治道兴，则谗谄远矣。”《毛诗序》的诗旨是“刺幽王也。古之仕者世禄，小人在位，则谗谄並進，弃贤者之类，绝功臣之世焉。”[38]《笺》从兴句之堂堂的华与茂盛的叶共荣相依的景象中，特写出明华在上、茂叶在下的物象，以阐发明王贤臣以德相承而治道兴，则谗谄远的兴意。其实，华叶共在同一个枝头上，没有上下之分，《笺》为了强调君臣关系之高下观念而说‘华上叶下’，似乎不成逻辑。《正义》对此问题说“言华上、叶下者，因文之上下以喻君臣上下耳”，也是牵强的附会。这可能是由《笺》的兴意阐释的任意性而带来的。《笺》主要依据《毛诗序》的古之明王贤臣相依而兴国治，今则小人在位而

35)《诗经注析》说“秦国人民輓‘三良’的诗。”见于350页。
36)《诗经注析》说“周王与群臣出游卷阿，诗人陈诗颂王的歌。”见于831页。
37)见于《诗经注析》，483页。
38)《诗经注析》说“周王赞美诸侯的诗。”见于678页。

谗谄並進，弃贤者之类，绝功臣之世的诗旨，任意地阐发明王贤臣虽有上下之分，但如以德相承则治道兴，而远离谗谄之人的兴意的。

以上对《笺》兴意内容中有关君臣关系为主题的诗篇做了分析，[39]其内容涉及到各种君臣关系的具体行为规范，如君要用臣适当（山有扶苏）、君用小人则无德于民（隰桑）、幼君任用大臣而成其政（芣苢）、君号令而臣行令（擸兮）、君不恤其职而其臣疏废君事（旄丘）、君行道与否，臣有去留之道（黄鸟）、君曲体而致才（卷阿）、君得以贤臣而尊显（南山有台）、明王贤臣以德相承而治道兴（棫朴者华）等。《笺》大约顺着《毛诗序》的诗旨，从诗篇出现的各种景象中任意地导引出君臣关系的各种道理，有的依据《传》的兴意，有的阐发与《传》不同的兴意，有的阐发自己的兴意，都是有于统一汉朝现实政治有意义的内容，则其目的似乎通过《笺》的注释树立一个比较完整的培养儒家理想统治思想的蓝图。

2) 君民关系的兴意

郑《笺》的兴意解释里面有关君民关系内容的诗篇也不少。首先看一下《笺》与《传》不同兴意的《秦风・蒹葭》的解释。在首两句“蒹葭苍苍，白露为霜”下，《传》说“白露凝戾为霜，然后岁事成，兴国家待礼然后兴”；《笺》说“蒹葭在众草之中，蒼蒼然強盛，至白露凝戾为霜，则成而黄。兴者，喻众民之不从襄公政令者，得周礼以教之则服。”《传》从兴句苍然茂盛的蒹葭上白露变为霜的景象中，特写出苍苍的蒹葭等到白露变为霜之后，才变成坚实而可用的意象，以阐发国家待礼然后兴盛的兴意。《传》以蒹葭比国家，以霜比礼，才有如蒹葭待霜后坚实，国家待礼治后兴旺的比喻。《笺》则对兴句的景象中，侧重点出苍然强盛的蒹葭等到白露变为霜,则蒹葭也变为黄的物象,以阐发虽不从襄公政令的众民,得周礼之教则变服从的兴意。虽《传》和《笺》都以霜比礼，但以蒹葭比的对象一是国家，一是众民，取得的物象一是坚实而可用，一是变为黄，各自不同，阐发的兴意随之而异，即一是国家待礼然后兴，一是众民得周礼之教然后服从。从同一个兴句中，《传》的兴意反映着国家待礼而后兴旺的比较合理而朴实的思路，《笺》则反映着民众得礼教而后服从的适合于汉统一王朝君令而民从的观念。

再看一下君民关系的另一例子。《邶风・北风》在首两句“北风其凉，雨雪其雱”下，《笺》说“寒凉之风，病害万物。兴者，喻君政教酷暴，使民散乱。”《笺》从兴句的北风寒凉，加上下雪雱然盛大的景象中，凸显出寒凉之风，病害万物的物象，以阐发君之政教酷暴，使民散乱的兴意。这与《毛诗序》的诗旨“刺虐也。卫国並为威虐，百姓不亲，莫不相携持而去焉”[40]相符合，就讽刺卫王暴政而人民受害的政治现实，以此警惕后王。这是君暴则民害的例子。

下面还看一下与《北风》的兴意相反的君善而民益的例子。《唐风・扬之水》在首两句“扬之水，白石凿凿”下，《笺》说“激扬之水，激流湍疾，洗去垢浊，使白石凿凿然。兴者，喻桓叔盛強，除民所恶，民得以有礼义也。”《笺》从激扬的水流中看见凿然白石的景象中，抓住激流湍急，洗去垢浊，使白石凿然鲜明的物象，以阐发桓叔行德政而日益强盛，除民之所恶，使民得以有礼义的兴意。《毛诗序》正是反映这首诗的历史背景，就是“刺晉昭公也。昭公分国以封沃，沃盛強，昭公微弱，国人將叛而归沃焉。”[41]《笺》的兴意符合于此诗的历史背景。这是君行善政则民受益之例。

同样篇名的《王风・扬之水》也有君民关系的兴意，但其主体略不同。在首两句“揚之水，不流束薪”下，《笺》说“激揚之水至遄迅，而不能流移束薪。兴者，喻平王政教烦急，而恩泽之令不行于下民。”《笺》对兴句的激扬之水不流束薪的景象中，抓住虽遄迅激荡的急水不能流移一束之薪的物象，阐发虽平王政教烦急，但恩泽之令不行于下民的兴意。这是把水流动束薪的物象，很切合地比附君令行于下民的意象。

---

39)除了上面分析的9篇之外，还有《北门》、《采葛》、《车邻》、《防有鹊巢》、《蜉蝣》、《鸨鸠》、《鸤鸠》、《九罭》、《湛露》、《沔水》、《绵蛮》等诗篇也兴意的解释涉及到君臣关系的内容。这些例子里面像天子与诸侯之间的关系（《湛露》、《沔水》），或卿大夫与小臣之间的关系（《绵蛮》）的诗篇也算进去的。

40)后人对此诗的理解没什么歧异，《诗经注析》说“民不堪卫国虐政，招呼朋友共同逃亡的诗。”见于112页。

41)《左传・桓公二年》有关历史背景的记载：“惠之二十四年，晉始乱，故封桓叔于曲沃。靖侯之孫栾宾傅之。师服曰，“吾闻国家之立也，本大而末小，是以能固。故天子建国，诸侯立家，卿置侧室，大夫有貳宗，士有隶子弟，庶人、工商，　各有分亲，皆有等衰。是以民服事其上，而下无觊觎。今晉，甸侯也；而建国，本既弱矣，其能久乎？”惠之三十年，晉潘父弑昭侯而纳桓叔，不克。晉人立孝侯。”《诗经注析》说“这首诗可能作于潘父”

除此之外,君民关系的兴意中还有比较典型意义的兴意思维方式的例子，如《小雅·鸿雁》。在首两句“鸿雁于飞，肃肃其羽”下，《笺》说“鸿雁知辟阴阳寒暑。兴者，喻民知去无道，就有道。”《笺》对兴句的鸿雁飞翔的物象中，联想到候鸟随气候变化而迁移的属性，以此阐发“民知去无道，就有道”的儒家王道的政治观念。郑玄的这一联想可以在《论语》和《孟子》里面找到其观念的渊源。在《论语》里面如“子曰：‘笃信好学，守死善道。危邦不入，乱邦不居，天下有道则见，无道则隐。’”（《泰伯》）；“子曰：‘直哉史鱼！邦有道，如矢；邦无道，如矢。君子哉蘧伯玉！邦有道，则仕；邦无道，则可卷而怀之。’”（《卫灵公》）[42]这在说明人们在国家有道无道时如何处世行为等的概念。在《孟子》里面如“今夫天下之人牧，未有不嗜杀人者也。如有不嗜杀人者，则天下之民皆引领而望之矣。诚如是也，民归之，由水之就下，沛然谁能御之？”（《梁惠王上》）；“民之归仁也，犹水之就下、兽之走圹也。”（《离娄上》）这在说明人民归向于不爱杀人的统治者，如水向下流、兽走圹野一样，是属于本性的自然现象。可见，郑玄从鸿雁飞翔的兴句中，联想到“民知去无道，就有道”的兴义，正是对孔子与孟子对君民关系的思维方式的继承和展开。[43]

《笺》的兴意中还涉及到君臣民关系的诗篇。《大雅·桑柔》在首四句“菀彼桑柔，其下侯旬。捋采其刘，瘼此下民”下，《笺》说“桑之柔濡，其叶菀然茂盛，谓蚕始生时也，人庇阴其下者，均得其所。及己捋采之，则叶爆爍而疏，人息其下，则病于爆爍。兴者，喻民当被王之恩惠，群臣恣放，损王之德。”《笺》对兴句的菀然茂盛的桑叶下，人得均阴而息，然捋采桑叶则稀疏，而病其下息之民的景象中，采取桑叶茂盛，人均得庇荫于其下，然捋采桑叶之后，其叶爆爍稀疏，人民虽休息于其下，得病于爆爍的物象，以喻“民当被王之恩惠，群臣恣放，损王之德”的兴意。以桑叶的树荫比王之恩惠，以捋采桑叶的行为比群臣恣放，说明天下之民受困苦，是因为群臣放恣而王之恩惠不及于下民，所以接着兴句说“民心之憂無絕已，喪亡之道滋久長”，就是群臣损害王德的缘故。《笺》把兴句的桑叶茂盛到被采后稀疏的景象，联系到君的恩惠被群臣的捉弄不及于下民的关系，以此强调君臣民关系中臣之作用的重要性。

以上分析了有关君民关系内容的诗篇，包括民众得礼教而后服从（《蒹葭》）、君暴则民害（《北风》）、君行善政则民受益（《唐风·扬之水》）、君令行于下民（《王风·扬之水》）、民知去无道就有道（《鸿雁》），还有有关君臣民关系内容的，如君的恩惠被群臣放恣不及于下民（《桑柔》）。《笺》通过兴义的阐发，从兴句的诗篇中引申出各种君民关系的模式，以此让后人，尤其是统治阶级，在读《诗》的过程中涵养行为的规范。从这意义上，《笺》的阐发兴意的主要功能就在于《诗》的经典意义的深化上面。

3）人君形象的兴意

《笺》阐发的兴意中还有很重要的主题是有关人君形象的内容。这里的人君是指包括天子、国君等统治者而言的。首先看一下《齐风·东方之日》的兴意内容。《传》和《笺》的兴意不同，在首三句“東方之日兮，彼姝者子，在我室兮”下，《传》说“兴也。日出东方，人君明盛，无不照察也”；《笺》说“言东方之日者，憩之乎耳。有姝然美好之子，來在我室，欲与我为室家，我无如之何也。日在东方，其明未融。兴者，喻君不明。”《传》对兴句的日出东方的景象中，采取东方之日普照万物的物象，以喻人君明盛而无不照察的兴意。由此，把义句的“彼姝者子，在我室兮”解释成被明德之君的教化，而以礼来往的情景，但今之君混暗，不能以德教化，则民不以礼婚姻，所以刺衰。但《笺》则直接从兴句日出东方的景象中，采取日在东方，其明未融的物象，以喻君不明的兴意。这是把义句理解为不以礼来往的情景。《笺》的这种解释更符合于《毛诗序》的“君臣失道，男女淫奔，不能以禮化”的诗旨。从同样的东方之日的景象中，《传》和《笺》按照自己所需的诗意，采取的物象各自不同的，而塑造出贤德之君和混暗之君的相反的形象。这充分说明从兴句的景象中阐发兴意时，可以任意地自由地发挥

42)还有相关记载如：“子曰：‘甯武子，邦有道，则知；邦无道，则愚。其知可及也；其愚不可及也。’”（《公冶长》）；“子谓南容，‘邦有道不废，邦无道免於刑戮。’以其兄之子妻之。”（《公冶长》）；“子曰：‘邦有道谷，邦无道谷；耻也。’”（《宪问》）；“子曰：‘邦有道，危言，危行；邦无道，危行，言孙。’”（《宪问》）；“孔子曰：‘天下有道，则礼乐征伐自天子出；天下无道，则礼乐征伐自诸侯出；自诸侯出，盖十世希不失矣；自大夫出，五世希不失矣；陪臣执国命，三世希不失矣。天下有道，则政不在大夫；天下有道，则庶人不议。’”（《季氏》）

43)参阅《从诗到经》，46-49页。

想象力。

《齐风・南山》是讽刺君主不道德行为的代表诗篇。这是讽刺齐襄公淫乱于亲妹的诗。在首两句“南山崔崔，雄狐绥绥”下，《传》说“国君尊严，如南山崔崔然。雄狐相随，绥绥然无别，失阴阳之匹”；《笺》说“雄狐行求匹耦于南山之上，形貌绥绥然。兴者，喻襄公居人君之尊，而为淫泆之行，其威仪可耻恶如狐。”《传》从兴句的“南山崔崔，雄狐绥绥”的景象中，采取南山之高峻，和雄狐相随而无别的物象，以喻国君尊严，而失阴阳之匹配的兴意。《笺》则从兴句中，采取在高峻的南山上，雄狐行求匹耦的物象，以喻襄公居人君之尊，而为淫泆之行，其威仪可耻恶如狐的兴意。这是从雄狐的动物本性中抓住求偶不伦的属性，以比附襄公乱伦行为的。《传》的兴意措辞委婉抽象，《笺》则依《传》的兴意，更直接地比附襄公的淫乱行为。这是从兴意中阐述君主败坏人伦的典型形象的诗篇。

《齐风・甫田》也是讽刺襄公的诗篇。对于齐襄公“无礼义而求大功，不修德而求诸侯，志大心劳，所以求者非其道”（《毛诗序》）的形象，《笺》在兴句的解释中认为是描写理想君主的形象用来反讽的。在首两句“无田甫田，维莠骄骄”下，《传》说“大田过度而无人功，终不能获”；《笺》说“兴者，喻人君欲立功致治，必勤身修德，积小以成高大。”《传》对兴句的大田没有耕种而莠草芜茂的景象中，采取田地过度大而人力不及，结果没有收获的意象，以喻“无礼义而求大功”的兴意。《笺》则从兴句的景象中，接受《传》的意象，但却采取反向的思路，即如人欲收谷，必劳力治田，才能获谷一样，人君欲立功致治，必勤身修德，积小以成高大的兴意。这就以勤身修德而立功致治，积小而成高的理想君主形象来暗刺齐襄公的不如。

《秦风・终南》是“戒襄公也。能取周地，始为诸侯，受显服，大夫美之，故作是诗以戒劝之”（《毛诗序》）的诗。在首两句“终南何有？有条有梅”下，《传》说“宜以戒不宜也”：《笺》说“问何有者，意以为名山高大，宜有茂木也。兴者，喻人君有盛德，乃宜有显服，猶山之木有大小也。此之谓戒劝。”《传》对兴句的终南山上有何木？有条和梅的问答内容，直接阐发“宜以戒不宜”的兴意，似乎有些难解。《笺》依《传》和《毛诗序》的内容解开诗意，就说兴句含有高大的终南山宜有茂盛的树木的意思，以此阐发盛德的人君宜有显服的兴意。《毛诗序》的诗旨是劝戒秦襄公，就是人君受显服，宜有相称的美德。《笺》兴意的思维模式是像高大的山宜有茂盛的树木一样，高位的人君宜有盛大的美德，美德的人君宜有显赫的服装。《笺》对兴句中自然他物任意地比附人事的类似意象，以此阐发相应的兴意，是兴意思维模式的特色。

还有有关君有施恩于天下之形象的诗篇。《小雅・大东》在首两句“有饛簋飧，有捄棘匕”下，《笺》说“飧者，客始至，主人所致之礼也。凡飧、饔饩，以其爵等为之牢礼之数陈。兴者，喻古者天子施予之恩于天下厚。”《笺》从兴句的簋中有丰满的饔饩，旁边有长大棘匕的景象中，采取君主按爵等次陈列牢礼的意象，以喻古时天子施恩于天下敦厚的兴意。如依《毛诗序》的“刺乱也。东国困于役而伤于财，谭大夫作是诗以告病焉”的诗意来看，天子施恩于天下的兴意含有伤今不如古，托古刺今的讽谏之意。通过这种兴意的阐发，强调天子布施恩德于天下老百姓的君德形象。44)

以上分析从各种自然他物中阐发的各种人君形象，如贤君和暗君形象；败坏人伦的形象；人君欲立功致治，必勤身修德的形象；盛德人君的形象；天子施恩于天下的形象等。《笺》从诗篇的兴句中引申出各种人君形象时，有的与诗的本意相近，有的似乎与诗的本意相距甚远，但在不少作品中反复地塑造各种人君的形象，或称颂或劝戒或讽刺，其意图应该是以此让读者培养作君作统治者作领导的素质的。

4）君与宗族关系的兴意

古代人君治国时非常慎重处理人际关系，宗族关系是其中一项。人君与宗族之间和好相处是天经地义的，但这时不能与他们太近，也不能与他们太远，若即若离的关系中权衡利弊，保持中和，才是理想的相处。《笺》的兴意

44) 有关君德形象的诗篇还有《小雅・瞻彼洛矣》（“瞻彼洛矣，维水泱泱”：我视彼洛水，灌溉以时，其泽浸润，以成嘉谷。兴者，喻古明王恩泽加于天下，爵命赏赐，以成贤者。）；《小雅・蓼萧》（“蓼彼萧斯，零露湑兮”：兴者，萧，香物之微者，喻四海之诸侯，亦国君之贱者；露者，天所以润万物，喻王者恩泽不为远国则不及也。）；《小雅・黍苗》（“芃芃黍苗，阴雨膏之”：兴者，喻天下之民如黍苗然，宣王能以恩泽育养之，亦如天之有阴雨之润。）等，都在兴意中阐发王之恩泽，而强调君恩有德的形象。因纸面关系，不在此一一分析。

中也有谈到这一主题的诗篇。《唐风·有杕之杜》就是其例。在首两句“有杕之杜，生于道左”下，《笺》说“道左，道东也。日之热恒在日中之后，道东之杜，人所宜休息也。今人不休息者，以其特生阴寡也。兴者，喻武公初兼其宗族，不求贤者与之在位，君子不归，似乎特生之杜然。”《笺》从兴句的杕然特立的杜木，生在道路左旁的景象中，采取道左孤然特立的杜木，宜有休息之人却没有的意象，以喻晋武公与其宗族兼充爵位，而不求贤才与之在位的兴意。这首诗的原意似乎是女子向对方表示好感的内容，[45]但《毛诗序》说“刺晉武公也。武公寡特，兼其宗族，而不求賢以自辅焉”，就是讽刺晋武公不求贤才而与宗族亲近的寡特形象。这样把原来男女相求关系的内容转变为君臣相求关系的内容，并以此讽刺人君只与宗族亲近而不求贤才辅助的治国态度。

《小雅·角弓》的兴意也涉及到王与宗族之间关系。在首两句“骍骍角弓，翩其反矣”下，《笺》说“兴者，喻王与九族不以恩礼禦待之，则使之多怨也。”《笺》对兴句的调利的角弓翩然反体的物象中，顺着《传》的角弓之“不善绁檠巧用，则翩然反戾”的意象，以喻王与九族不以恩礼禦待之，则使之多怨的兴意。《正义》对此具体解说“角弓虽则调利，当善用之。若不善置绁檠而巧用之，则翩然而其体反戾矣。是用角弓之难也。以兴和顺者，宗族也。此宗族虽则和顺，当善待之。若不善设食燕而恩御之，则亦憤然而其心怨恨矣。是待宗族之难也。”[46]按照《正义》的解说看《笺》的兴意是，角弓虽调利适当，但不善置于絆檠，其形体反戾，是说明用角弓之难。以兴王待宗族也一样难，宗族虽和顺，如不以恩礼善待，则使之愤然多怨。依《毛诗序》的诗意看，《角弓》是讽刺幽王不亲九族而好谄佞、骨肉相怨的诗。《笺》在兴句中也阐发人君不善待宗族则招来他们怨恨的反讽意义，以警戒之。

君与宗族之间的关系可以说是君与臣之间的关系，但与他姓之臣之间确有不同之处，故以分节表述。虽有关诗篇不多，但人君与宗族之间的关系如何处理，《笺》在兴意中颇有警惕人君的声音。

5）男女关系的兴意

这里所标的男女关系包括天子与后妃、国君与夫人、贤女与君子、夫与妇、男与女之间的关系。《关雎》编为《诗》的第一首肯定有编诗者的深意。按照毛诗解释体系来看，天子与后妃的关系是《关雎》的主题，也是《周南》11篇的主题；国君与夫人的关系是《召南》14篇的主题。《毛诗序》对《关雎》的“后妃之德也”与《鹊巢》的“夫人之德”的开宗明义，是在阐明从经典的角度解释《诗》的立场。对此问题前人已多次论及，在此不再重述。[47]我们还举一个《小雅·白华》的例子，看天子与后妃之间的兴意内容。在首两句“白华菅兮，白茅束兮”下，《笺》说“白华于野，已漚名之为菅，菅柔软中用矣，而更取白茅收束之，茅比于白华为脆。兴者，喻王取于申，申后礼仪备，任妃后之事，而更纳褒姒。褒姒为孽，将至灭国。”《笺》对兴句的已沤白华作菅，又用白茅收束的物象中，采取柔韧的菅中用，而再取白茅收束之，但茅比白华还脆的意象，以喻王娶备礼义的申后，而再纳褒姒，褒姒为孽灭国的兴意。沤白华作中用的菅比喻申后备礼义而作后妃，再取白茅收束比喻再纳褒姒控制申后，茅比白华脆比喻褒姒没备礼义而为孽灭国。幽王宠爱褒姒而罢黜申后的事象，正符合于兴句的用白茅收束菅的物象。《笺》阐发的这种兴意合于《毛诗序》的诗意，如“周人刺幽后也。幽王取申女以为后，又得褒姒而黜申后，故下国化之，以妾为妻，以孽代宗，而王弗能治，周人为之作是诗也。”[48]《笺》通过兴意阐释天子与后妃之间以礼相待，不然会导致灭国之灾的历史案例，以此警戒后王。

《笺》把男女之间相爱的诗解释为贤女与君子之间的内容。《陈风·东门之池》在首两句“东门之池，可以漚麻”下，《笺》说“于池中柔麻，使可緝绩作衣服。兴者，喻贤女能柔顺君子，成其德教。”《笺》从兴句的东门之池水可以沤麻的物象中，采取池水泡沤麻，变柔而可緝绩作衣服的意象，以喻贤女能柔顺君子，成其德教的兴意。以水比喻贤女，以麻比喻君子，像水能使物变柔顺一样，贤女以柔顺的德性变君子为善。《笺》的兴意把男女爱情诗歌的内容理解成贤女劝君子为善的内容，这与《毛诗序》的“刺時也。疾其君之淫昏，而思贤女以配君子”的诗意相符合。《笺》的兴意含有君子得贤女而成为善修正的德教的劝戒。

45)参见《诗经注析》，326页。
46)参见《毛诗正义》，502页。
47)参阅黄永武，《从诗经二南看修齐治平之道》，《中国诗学·思想篇》，台北，巨流图书公司，1979年4月，123-133页。
48)《白华》是“一首贵族弃妇的怨诗。”见于《诗经注析》，729页。

《陈风・泽陂》是怀念对方的诗。《毛诗序》把它理解为陈灵公时君臣淫乱而男女相悦，所以讽刺淫风盛行的诗。[49]《笺》却在兴意中凸显出同姓男女之间的淫风。在首两句“彼泽之陂，有蒲与荷”下，《笺》说“蒲，滑柔之物。芙蕖之茎曰荷，生而佼大。兴者，蒲以喻所说男之性，荷以喻所说女之容体也。正以陂中二物兴者，喻淫风由同姓生。”《笺》从兴句的泽陂上有蒲与荷的景象中，采取蒲的滑柔之形，荷的佼大之形的物象，并取以蒲喻所说男之性，以荷喻所说女之容体的意象，而阐发淫风由同姓生的兴意。《笺》通过兴意的阐发，劝戒由同性男女淫乱而淫风起的世态。

男女之间的关系各有不同层次，如天子与后妃、国君与夫人、贤女与君子、夫与妇、男与女等都有各自不同的情况。《笺》解释爱情诗歌时，不从人们普遍感情的角度解释这些男女之间的关系，而从美刺的角度阐释德、礼义、为善修正、劝戒淫风等的社会问题，就把个人感情问题转变为社会秩序问题。《诗》经过《笺》的这种兴意阐释，逐渐成了涵养社会问题的认识、培养个人道德素质的读物。

6）兄弟、朋友关系的兴意及其他

人际关系里面还有很重要的一环是兄弟、朋友之间的关系。《笺》的兴意也关注到这一人际关系。《小雅・常棣》在首两句“常棣之华，鄂不　”下，《笺》说“鄂足得华之光明，则　然盛。兴者，喻弟以敬事兄，兄以荣覆弟，恩义之显，亦　然。”《笺》从兴句的常棣开花，鄂足　的景象中，采取鄂足在下支撑常棣之花，花在上茂盛地覆盖鄂足而得以　然光明盛大的物象，以喻弟以敬事兄，兄以荣覆弟的意象，由此阐发兄弟之间的恩义　然显明的兴意。以鄂足比喻弟，以华比喻兄，鄂足支撑花以喻弟支持兄，花覆盖鄂足以喻兄以荣誉覆盖弟，由此相得益显，以此劝诫兄弟之间应该和好爱善。《笺》的兴意与这首诗的诗意[50]符合，其进行的思路是先从兴句的自然景象中抓住一点特殊的物象，以喻有关诗意的人事意象，由此阐发兴意。这是典型的兴意的思维方式。

有关朋友关系的兴意，见于《小雅・谷风》。在兴句的首两句“习习谷风，维风及雨”下，《传》说“风雨相感，朋友相须”；《笺》说“东风谓之谷风。兴者，风而有雨则润泽行，喻朋友同志则恩爱成。”《传》从兴句的和调的东风吹及润雨的景象中，直接地把有风有雨的自然现象想象成风雨互相感应的模式，以比喻朋友之间相辅相成的需要关系；《笺》则从兴句的景象中，加上五行观念（谷风为东风，即生长之风），抓住风而有雨则润泽行的物象，以喻朋友之间志同道合的意象，阐发他们之间恩爱相成的兴意。从此例的解释中，我们知道《笺》的注释虽然遵循《传》的兴义内容，但因受到汉代的思想观念的影响，其内容反映出与《传》不同的思维方式的特色。[51]

《笺》兴意的主题中还有仁人不遇的诗篇。《邶风・柏舟》在首两句“泛彼柏舟，亦泛其流”下，《传》说“亦泛泛其流，不以济度也”；《笺》说“舟，载渡物者。今不用，而与众物泛泛然俱流水中。兴者，喻仁人之不见用，而与群小人并列，亦猶是也。”《传》从兴句的柏舟泛然漂浮在流水之上的景象中，只提到柏舟漂浮在流水之上而不用于渡人的物象，如依《毛诗序》“言仁而不遇也。卫頃公之時，仁人不遇，小人在侧”的诗意来看，则知以柏舟比喻仁人，以漂浮在流水之上比喻不遇。但《笺》从兴句中更具体地点出渡物的柏舟不见用，而与众物泛泛然俱流水中的物象，以喻仁人不见用而与群小人并列的兴意。仁人不见用，怀才不遇是从古至今无世不有的社会现象。《诗》的时代也好，《传》、《笺》时代也好，这种怀才不遇的主题常与夫妇关系、[52]男女关系、君臣关系等的诗互相联系，阐发同样主题。

《笺》兴意的主题中有阐释君子形象的诗篇。《郑风・风雨》在首两句“風雨凄凄，鸡鸣喈喈”下，《笺》说“兴者，喻君子虽居乱世，不变改其节度。”《笺》从兴句的風雨凄凄，鸡鸣喈喈的景象中，采取鸡虽逢风雨，守时而不变其鸣的意象，以阐发君子虽居乱世，不变改其节度的兴意。这是与《毛诗序》“思君子也。乱世则思君子不改其度焉”的诗意相符合的。《风雨》原来是写妻子和丈夫久别重逢的诗歌，经过《毛诗序》和《笺》的兴意的

49)《毛诗序》：“刺時也。言灵公君臣淫于其国，男女相说，忧思感伤焉。”

50)《毛诗序》：“燕兄弟也。闵管、蔡之失道，故作《常棣》焉”在《续序》的内容中，把这首诗与西周初周公和管叔、蔡叔的联系起来解释，显然牵强，但《古序》的“燕兄弟”的诗意，很符合诗意的；《诗经注析》：“宴会兄弟的诗”，见于447页。

51)参阅《从诗到经》，56-58页。

52)《诗经注析》说《柏舟》是“一位妇女自伤不得于夫，见侮于众妾的诗。”见于729页。

解释，变为乱世思得鸡鸣不已、不改节度的君子之诗了。《小雅・鹤鸣》的兴意也凸显出贤人君子虽隐居而名声远著的形象。53)

以上论述了兄弟之间和好爱善，朋友之间志同道合则恩爱相成，仁人不遇，君子虽乱世不改节度和虽隐居名声远著等兴意主题。《笺》的兴意还涉及到维持社会秩序的礼的重要意义，如《鄘风・墙有茨》的“国君以礼防制一国”，《周颂・振鹭》的“杞宋之君有得礼之宜”等；还有警惕谗人的内容，如《小雅・巷伯》的“谗人集作己过，以成于罪”，《小雅・青蝇》的“佞人变乱善恶”等。《笺》对兴句阐发的兴意可以说包括各种人际关系和个人行为准则的细节内容。

4. 结言

郑玄笺《诗》时不以三家诗而以《毛诗》为底本，有其明确的选择理由：《毛诗》本身具备的解释体系的优势；从《诗》学史的角度看，东汉的时候毛诗的理性成分比三家诗的神秘色彩更令人所好；从思想史的角度看，东汉崇尚古学之风盛行。《诗》已有四家诗的解释体系而享有经典的地位。汉代三家诗占据官学，其学说混入谶纬灾异等汉代盛行的神学成分，逐渐变质。郑玄汉末作《笺》赋予《诗》的经典意义，欲挽回其经典的价值和地位。

《笺》赋予《诗》的经典意义，主要通过三种方式进行的：一是接受《毛诗》解释的美刺、正变观念而进行阐释；二是按照《毛诗序》的诗旨而进行阐释；三是对《传》标兴的阐释其兴意。本文只是从《笺》阐发的兴意如何赋予经典意义的角度进行论述。我们把《笺》阐释兴意的88篇内容归纳为6类（其实按主题细分则更多），分别为君臣关系、君民关系、人君形象、君与宗族关系、男女关系、兄弟・朋友关系等。当然，郑玄作《笺》的时候并没有有意对这些人际关系内容进行阐发兴意，但整体的内容里面几乎包括各种人际关系的重要环节的行为模式，尤其对围绕人君形象的阐发更为突出。《诗》含有了这些内容之后，让后来读者从中吸取涵养人际关系行为模式的各种典型范例，并使《诗》成为君主贵族子弟们培养治国之术的重要教科书之一。从这意义上，我们可以说郑《笺》深化了《诗》的经典意义，并提高了其经典的价值和地位，而在中国历史上为维持《诗》的经典地位，在思维模式上打下了坚实的基础。

我们还可以提到的一点是分析《笺》的兴意内容的时候，附带地感觉到其思维方式的定型化。《传》对兴句阐发兴意时，一般就诗意的本事作解释，直接而简略；《笺》则从兴句的景象中，抓住一个特有物象，并对兴物如动物・植物・山川等的属性展开阐释，以喻人事有关的意象，而阐发诗意有关的兴意。《笺》的这种较为复杂的兴意思维模式，应该反映着汉代流行的谶纬灾异思想里面所常见的联系客观事物与人事的思维方式。然而《笺》虽映射出谶纬灾异思想的思路，其诗意则要归到儒家古学的诗意，就是毛诗的诗意。

53)参阅《从诗到经》，58-59页.

【메 모】

【중국문학 분과】 발표 ⑤

中国80后诗歌浅析

吴晓方(东亚大学)*

【目 录】

1. 序言
2. 80后诗歌的情感抒发
3. 80后诗歌的现实反映
4. 80后诗歌的割裂与叛逆
5. 结论

1. 序言

新旧世纪交替之际的中国文坛，各种网络诗歌论坛和诗歌民刊方兴未艾，如雨后春笋般涌现。最早的一批80后诗人依托于此，应运而生。[1]所谓80后诗人，普遍泛指在上世纪80年代出生的诗歌写作群体。文学上的80后概念源于诗歌届。2000年7月，民刊《诗参考》开辟了专栏——“80年代出生的诗人的诗”，集中推出部分80年代出生诗人的作品。从2002年起，《诗潮》、《星星》、《诗刊》、《诗选刊》等主流刊物开始关注这拨诗歌新军，80后诗人这一概念逐渐获得学术界的认同，并自此登堂入室。[2]

虽然80后诗歌作品存在一些浮躁和喧哗，有着各种缺失和局限性，在代际划分、作品质量等方面也受到诸多质疑，但是在当代诗歌写作格局中，这一诗歌群体还是展现出了一些全新的独特气质：他们成长于信息时代，在网络环境下进行阅读与写作。对社会现实的思考、认真的文本实践、鲜明的探索精神，使得他们的作品具有极大的艺术潜力和发展空间。他们无疑是这个时代值得阅读和注目的诗人群体，是一股不可小视的创作力量。

“80年代以后出生的诗人，衣食无忧，远离苦难。他们在全球化的浪潮中成长，商品社会与大众文化的影响深入到骨髓，他们是为影视与网络媒体造就的一代。他们的作品想象丰富、轻灵、跳动，在玄思中呈现出一种不同于前人的奇幻景观。”[3]身处剧变的社会现实之中，80后诗人的诗歌创作也呈现出空前多元化的态势：从阿斐的口语诗歌，到丁成的先锋诗歌，从顾不白的学院诗歌，到春树的朋克诗歌，从郑小琼的打工诗歌，到张二棍的底层诗歌……包罗万象，令人目不暇接。身为80后的一分子，笔者在阅读这些80后诗歌作品时，立即感受到了先天的亲切和共鸣，还体验到了一种既是旁观者又是局内人的奇妙感觉。本文试图从80后诗歌的具体文本入手，对80后诗歌整体写作进行基本考察，探讨80后诗人的诗歌创作形态，诗歌创作特征，进而管窥他们的生存空间及内心世界，并对其未来的走向做简单的勾勒。

* 东亚大学 中国语学科 助教授

1) 当时80后诗人活跃的论坛有诗生活网站、扬子鳄网络诗歌论坛、小长老诗歌论坛、山鬼诗歌论坛、南方诗谈、解放论坛、门中文论坛、原诗歌论坛、蓝星诗歌论坛等，民刊则有《扬子鳄》、《浮苇》、《冬至》、《诗与思》、《新文学观察》、《缺席》、《八十年代》、《弧线》、《秦》，出版诗集《一滴水晶》(80后诗人方为、唐纳、莫蓝自费印刷)、《独立——E时代诗人作品选》(老刀主编，2002年3月)、《八十年代后诗选》(春树主编，2002年11月)、《80后诗选-2》(春树、果酱、小虚主编，2003年11月)等。

2) 2002年12月，《诗选刊》推出“中国诗歌年代大展特别专号，“80年代诗人”赫然出现在刊首；2003年4月，《海峡》杂志从第四期开始连续八期推出“80后诗歌展”栏目；2003年9月，《诗选刊》推出“80年代出生诗人作品展”。

3) 吴思敬，〈当下诗歌的代际划分与“中生代”命名〉，《诗刊》，2007年11期上半月刊. p. 53

2. 80后诗歌的情感抒发

古语有云：诗以言情，歌以咏志。对自我的省察，对自然的感悟，对宗教与神的敬仰，乃至悲悯众生，乃至建功立业，乃至家国情怀，类似这些情感的抒发在前人诗歌中也屡见不鲜，但是80后诗人却用了全新的视角和形式，来写困惑、写感悟、写情感、写哲理。

有着中国“80后”第一诗人美誉的阿斐，用精心筛选过的口语，书写生活中的感悟与随想。在2002年的作品《众口铄金》中，他写出了个体生命、同时也是80后这一代人的精神特征和生存状态，引起了普遍共鸣。“我的孩子都快出世了/而我昨天还是个小孩……所以我变了/变成了朋友预想的模样/一个坐着八抬大轿的草民/战战兢兢地伸出孱弱的手/迎合命运的安排/像甘霖之下无辜的万物”。[4]回顾其时，正值互联网和新经济浪潮冲击中国社会，“80后”们甫一成年，便被挤压在理想与现实的夹缝之中，无奈地发出成长的哀叹。

而另一位诗人刀刀，则自称时代焦虑症青年，他在作品中这样描述日常生活，抒发精神诉求。“我啊。看着途经肉身的每一天。无力挽留。/招架。只能在烟里求仙。与虚拟的上神。对坐。/举杯。喝大酒。说大话。在酒里求醉。/求死。求今夜无不堪的往事同房。同床。”[5]刀刀自我反省：“仿佛你从未说错一句话，没干过傻事/该行贿的已经送达，马屁拍得刚刚好/宴会上不曾酒醉，不曾借酒发疯，把蜡烛吹灭/热爱的姑娘们都不反悔，站在火热的青春里/等待你背信弃义，朝秦暮楚”[6]他省察的不仅仅是自己，而是与他具有相同时代文化背景的每一个80后个体。

名校复旦出身的学院派诗人顾不白，写作之于他，更呈现为一种与个体与周遭自然的对谈。“一停一行，一树一云。/山上的野菊花开得正好，清风里有一炉香，两卷金刚/和几个下酒菜观棋的童子，因春困而沉默不语。/庙里的大德，闲时诵经，说一些/鱼雁往来的故事。”[7]自有一份坐看庭前花开花落，笑望天边云卷云舒的从容。

作为一名藏族诗人，嘎代才让的诗中，总会出现一些宗教符号，总会表达对神的敬仰。“夜的凄凉是不容置疑的，它拥有/天空中打鼾的星辰；除了夜，就剩下高挂上空的月亮；”。他“想抵近高处”，但“高处没有一个人的影子在走动/更没有同行者在说话，移动的仅仅是向神攀升的一枝花”，让他“长时间感到惊讶”。[8]嘎代才让其实并没有刻意去传达宗教教义与关怀，这只是民族基因中神性的自然流淌。

在《父辈的挽歌》中，诗人阿斐用不带感情的目光，审视着父亲，“数着儿女的愁纹/你不流老泪/眼看他们被人嘲笑、玩弄/你木然而坐，无所事事/任凭轮回之箭穿透后辈的咽喉/父亲，你生于荒年，毁于盛世/父亲，棍棒之下你捡回一条卑贱的命/所以你懂了，活着就是一场闹剧。”诗中“父辈”这一意象，并不具体指代某个个体，而是“生于荒年，毁于盛世”，“独自偷欢”，“心肺全失”，苟且“捡回一条贱命的”一代群像。他们“不为生灵涂炭所动”，选择将“脑中的记忆一键删除，空无一物/不曾有过饥荒，不曾有过批斗/不曾有过血腥的屠戮和不见血的扼杀/所有的过往都随浮云而逝”，没有人忏悔，没有人赎罪，没有人反思，躲进小楼成一统，从此天下便承平。愤怒的诗人于是拍案而起，大声疾呼：“死神，请把这样的父亲带入地狱/死神，请消灭这些虚无的父亲”。他们“不是我们的父辈”，而是“敌人”，是“慈祥的魔鬼”，是“凶手”，是“不用刀的屠夫”。[9]

诗人雪马是一名颇具争议的“爱国行为艺术家”，他曾赴青岛黄海大声朗诵诗作《我的祖国》，跳海抗议日本侵犯钓鱼岛：“我的祖国/只有两个字/如果拆开来/一个是中/一个是国/你可以拆开来读和写/甚至嚎叫/但你不可以拆开/字里的人们/不可以拆开字里的天空/不可以拆开字里的土地/不可以拆开这两个字/合起来的力量/如果你硬要拆开/你会拆出愤怒/你会拆出鲜血”[10]寥寥数行诗句，把对祖国的一片深情表达得淋漓尽致，凡中华儿女，闻者无不击节赞赏，血脉偾张。

诗人张二棍是一名来自山西的地质队钻工，长年野外作业，触目所及尽是荒凉与贫穷。单调乏味的底层社会生

4)阿斐，〈众口铄金〉，《诗建设：80后诗选》，总第二十四期，2016年.p.10
5)刀刀，《五书四经(组诗)》，http://blog.sina.com.cn/s/blog_491f9bc40102e316.html，2012年11月.
6)刀刀，《太行夜雾》，http://blog.sina.com.cn/s/blog_491f9bc40100lqu0.html，2010年9月.
7)顾不白，〈四月之书〉，《诗建设：80后诗选》，总第二十四期，2016年.p.72
8)嘎代才让，〈梦境：向神的爱〉，《漂泊的一代:中国80后诗歌》，2012年.p.179
9)阿斐，〈父辈的挽歌〉，《漂泊的一代:中国80后诗歌》，中国文联出版社，2012年.pp.6-7
10)雪马，〈我的祖国〉，http://bbs.tianya.cn/post-183-531499-1.shtml，2007年12月.

活，反而让他真正沉静下来，试图用写作跳出束缚，寻找另一个自己。他的诗歌作品大多反映底层社会现状，带有深刻的悲悯色彩，三言两语，就能振聋发聩，点透人生。但笔者却对他的一篇诗歌小品——〈有间小屋〉情有独钟。诗人如此描述自己理想中的桃花源，“要秋阳铺开，丝绸般温存/要廊前几竿竹，栉风沐雨/要窗下一丛花，招蜂引蝶/要一个羞涩的女人/煮饭，缝补，唤我二棍/要一个胖胖的丫头/把自己弄的脏兮兮/要她爬到桑树上/看我披着暮色归来/要有间小屋/站在冬天的辽阔里/顶着厚厚的茅草/天青，地白/要扫尽门前雪，洒下半碗米/要把烟囱修的高一点/要一群好客的麻雀/领回一个腊月赶路的穷人/要他暖一暖，再上路”。语言平易朴实，氛围朴素温暖，风格平淡自然，却举重若轻，营造出鲜明的意象，优美的意境。从陶渊明的“采菊东篱下，悠然见南山”，到海子的“我有一所房子，面朝大海，春暖花开”，千百年来归园田梦一脉相承。而且这首作品中还体现出了诗人仁慈悲悯的人道主义情怀：要把烟囱修的高一点”，好“领回一个腊月赶路的穷人”，要他进屋“暖一暖，再上路”。与前人相比，作品的立意和境界也上升到了一个新高度。

3. 80后诗歌的现实反映

别林斯基说过：“诗歌是生活的表现，或者确切地说，就是生活本身。”任何一种文学艺术都与现实生活有关，都在或直接或间接地指向现实生活本身，这是一种共性。80后诗人们拥有敏锐的触角，他们用诗歌探究真相，寻求救赎灵魂、改变现实的道路，为读者打开新的视野维度。80后诗人固然反对文艺政治化，热衷于崇尚自我，但并不是对社会生活不屑一顾。80后诗歌从来没有也不可能离开生活的现实，它的“在场”本身就是事实。

诗人王彦明用工整对仗的排比修辞，以新颖的角度对现实加以辛辣的批判。本是怀抱一腔理想，从农村来到城市，却迅速被淹没于滚滚都市洪流之中，“苦于算计，苦于躲避 / 苦于羡慕，苦于妒嫉 / 苦于爱，苦于付出太多也日渐无力 / 苦于恨，苦于咬紧牙关还是终于失去 / 苦于无奈，苦于变态 / 苦于抽刀断水水更流，苦于举杯消愁愁更愁 / 苦于把理想变为火花，苦于把火花形成燎原之势 / 苦于急火攻心心急火燎，苦于口舌生疮而辗转难眠 / 苦于面具太厚，苦于意义太多 / 苦于发言无力，苦于无人注视 / 苦于广告不可躲避，苦于疗效不可期遇 / 苦于点燃，还要熄灭 / 苦于寻求安生，还要下网捕鱼 / 苦于苦于，…… / 这个秋天 / 黄连吃尽，清心去火。”[11]诗人用澄澈的目光过滤污浊的的现实。读罢释卷，细思良久，顿觉醍醐灌顶：世间万般皆苦，唯有放下执念，何必蝇营狗苟？虽然身处俗世，无法超然物外，至少也要做到知白守黑，固守内心一片清明空间。

草根出身的“打工诗人”郑小琼是一名川妹子，只有中专学历，21岁起就在广东打拼。在中国现代化建设的大工地上，她辗转于都市的钢筋水泥，从切身的生活和情感体验出发，抒发内心的迷茫孤独，压抑落魄，麻木屈辱，勾勒现阶段中国底层打工群体的生存真相。她在诗中写道，男友“从外地流浪到黄麻岭”，“一直想/挤上前面那辆生活的班车”，却“在工业区奔波了65天找不到工作”，“与几张薄薄的简历依靠着前进”，“有一次差点让检查暂住证的抓到了”，“有一次在天桥上暗娼询问他需不需要”，他“仍然坚持相信命运中的在夹肉面包会有”，而诗人却“在灯光里看见他在理想中忍住了泪”。[12]其实对诗人自身来说，“打工这个词”也是“很艰难”的两个字，“说出来，流着泪”。她听见的打工，像“兄长描写的那样/‘小心翼翼，片片切开/加两滴鲜血、三钱泪水、四勺失眠’”，她看见的打工，是“受伤的手指/流血的躯体/失重的生命/卑微的灵魂/还有白眼”。[13]

另一位优秀的打工诗人唐以洪，自述他的家就像“三国”——孩子和父母在老家留守、妻子在某公司打工，他却像一只麻雀四处飞着，永远都不能着陆。他说他也想稳定下来，好好爱孩子、妻子、父母，但他做不到，他怕失去工作，他知道生存意味着什么。所以他在生存中写生存：“我叫唐以洪，一个农民/一个工人，一个流浪者/一个建设者，背叛者/忠实者，把异乡建设成故乡/把故乡建设成异乡。”[14]写实性的内容用诗歌这种载体表达出来，带给人更深的触动。全新的市场经济环境下，社会分配不公，贫富差距悬殊，深受其苦的唐以洪无奈慨叹：“大厦是本地人的 / 轿车是有钱人的 / 加班加点的青春是卖给老板的 / 血汗换来的955元—— / 250是房东的 / 300是儿子上学

11)王彦明，〈苦于〉，《新世纪诗典(第3季)》，浙江文艺出版社，2015年. p. 34
12)郑小琼，〈奔跑〉，《漂泊的一代:中国80后诗歌》，中国文联出版社，2012年. p. 36
13)郑小琼，〈打工，一个沧桑的词〉，《散文诗》，2003年第14期. p. 47
14)唐以洪，〈这就是生活(组诗)〉，《星星》，2011年第04期. p. 60

的 / 150是菜市场里肉菜贩子的 / 烟贩和酒贩又抠掉我100元 / 另外100元我像粮食一样种在银行里 / 但一直没有发芽 / 剩下的55元是准备给 / 感冒和胃病这两个乞丐的”。最后他自我调侃“幸好父母早已仙逝 / 不再需要钱花 / 要不然我就不孝了 / 但我还是很幸运 / ——老婆暂时还是自己的”。15)“暂时”这两个字细思恐极，打工者夫妇长期异地分居的婚姻生活，幸福感和安全感只会是奢望。用喜剧的方式谈悲剧，笑中带泪，初看不由失笑，再品不忍卒读。幽默的外衣下，掩盖着几多现实，几多无奈，几多心酸!

其实全面梳理一下唐以洪早期至今的诗歌作品，会发现他已经一步步踏出了自我观照的藩篱。初期他只是把打工诗歌作为自己抗争苦难的工具，但后期他作品的主人公逐渐由“我”扩大至了“我们”。他已经由一个在场者变成了一个旁观者，来审视、反思整个打工者群体的生活与命运。在中国工业化城镇化的进程中，越来越多的农民，离开土地，奔赴城市的工地或流水线。诗人“曾在打工诗歌中说道 / 我们像机器人一样活着”，谁知“说着说着，机器人就真的来到了 / 流水线上，它不要工资，不要保险 / 不要法定假日，不要人格，不要尊严 / 毫无怨言地”代替了打工者的辛勤劳作、加班加点、受苦受累 / 和‘早早夭折的青春’”。”但是诗人觉得这还不够发达，“如果那些机器人能够代替”生儿育女，养家养老，甚至能代替生存、活人，该有多好。诗人感叹，“今天，机器人在流水线上 / 像我们昨天一样 / 活着”。16)表面上看是对机器人的拟人化，其实诗歌的主旨在于对人的物化、异化。打工者的处境其实与机器人同病相怜，重复繁重毫无意义的劳动，获得低廉堪堪糊口的报酬。

80后诗人们用自己的亲身经历告诉我们，这条道路上布满荆棘和坎坷，诗歌记录了他们的艰难，见证了他们的心酸，同时也纾解了他们的痛苦。

4. 80后诗歌的割裂与叛逆

相较于60年代、70年代人，80后张扬个性，特立独行，80后诗歌中表现出了强烈的割裂与叛逆。针对这一点，许泽平论述了80后诗歌两种最重要的极端现象：先锋写作和后撤写作，一种是激进地前倾、以批判和质询为己任，一种是执着地后撤，回归个人内心。这两种写作方式，表面上看呈现出完全不同的形态，但其实是殊途同归的，某种程度上讲，它们都是对现实的不满和反抗。17)叛逆的80后诗人为了割裂前辈诗人的的影响，甚至不惜放弃对优雅、崇高、理想、奋斗的追求，把自己放低到尘埃里。

阿斐便在诗中以“世间最肮脏的一分子”自居，并“以垃圾的名义宣誓：/从此脱离优雅、崇高、理想、奋斗 / 脱离所有羁绊，以垃圾的形状、垃圾的呼吸、垃圾的头脑 / 活在这个世界上，活在你们的眼皮底下 / 以蛆虫为伴，以肮脏为荣，以死亡为终极目标 / 以垃圾的名义，取消你们，包括你们的父母和孩子 / 任由你们皱眉、捂鼻、吐痰，像害怕死亡一样远离我们”。18)

而北漂诗人郑现，由于一直过着颠沛流离的生活，导致他与现实世界产生深刻的决裂。他毫不犹豫地“纵身一跳”，“选择沉沦”。他不相信“真理和真主”，不同意“返璞或返程”，“不会膜拜真实和爱”，他“选择下降”，"因为—不—需—要”上升。他“对世间万物不屑一顾”，他“不需要咒语”，也“不需要偈子”，他毫无留恋地“坠落：用一条竖线作墓志铭”。19)

在诗人李傻傻的作品中，对现实的的叛逆、渴望割裂的焦灼毫无遮掩，一眼可见，甚至可以感到一种壮士断腕的决绝。“伤口的肉在某个时候开始腐烂 / 离伤口稍远一些的肉 / 还暂时红润着还没有腐烂 / 那是因为时候还没到 / 时候到了 / 再远一些的肉也会腐烂 / 试着撒上点加速腐烂的药 / 伤口的肉腐烂起来就会快一些 / 没有见到骨头是因为腐烂得还不够快 / 腐烂快了就会见到骨头 / 见到了骨头 / 伤口的新肉就长出来了”。20)

而春树这个富有朋克精神的女诗人，语言直接锐利，行文大胆泼辣。她的诗歌作品单刀直入，不玩花招，见真

15)唐以洪，<老婆暂时还是自己的>，http://blog.sina.com.cn/s/blog_4b2846c801008pix.html，2008年3月.
16)唐以洪，<今天的机器人像我们的昨天>，http://blog.sina.com.cn/s/blog_4b2846c80102w5ca.html，2015年12月.
17)许泽平，<80后诗歌研究>，广西师范学院硕士学位论文，2012年.p.1
18)《诗建设：80后诗选》总第二十四期，作家出版社，2016年.p.9
19)郑现，<坠落>，丁成，《80后诗歌档案》，中国海洋大学出版社，2008年.
20)李傻傻，<伤口的肉>，《漂泊的一代:中国80后诗歌》，中国文联出版社，2012年.p.88

性情。“写诗也许是在滥写感觉 / 咬紧牙关以至出血 / 我的血出得越多越好 / 我的眼睛开始变长 / 脸色发黄 / 变得像一个从来不认识我的我 / 也许这才是真正的我 / 我想和命运做斗争 / 那就是我真正的什么也不做 / 我倒要看看我能变成什么样子 /　　我能不能接受我变成的样子”21)

5.结论

80后诗人大多活跃于网络，入门零起步，零难度，少了主流刊物的把关，作品质量可以说是良莠不齐，泥沙俱下。在世纪之交这个传统向现代过渡的特殊时段，全球化、城市化、现代化及网络大爆炸的多重作用下，金钱至上，物欲横行，求真求善求美的社会价值体系分崩离析，80后诗人陷入了茫然与虚无之中。与前几代诗人相比，他们浮躁，不安，困惑。他们的创作虽然自由、多样、个性，但也难免流露出快餐化、口水化、情绪化及跟风的倾向。不过一味地批评和否定，并不能带来任何助益。80后诗人自新世纪初开始崭露头角，时间已经过去了将近二十年，现今他们都已进入而立、不惑。去年9月的中国青年诗歌论坛暨全国80后诗会上，作为80后最具持续影响力的诗人，郑小琼在发言中谈到：“我们已经过了而立之年，而立对于人生来说，对于写作来说，意味的是人的心灵和灵魂真正的确立，无论价值观的取向，或者精神上都应该是真正的成人，而立之前，我觉得应该呈现的是一个人的青春跟朝气，或者由于现实生活的一些伤怀和感伤。”相信随着80后诗人的日渐成熟，在经历过最初的阵痛和迷茫之后，他们会通过沉淀、磨炼，找到前行的方向，拓展写作的宽度和深度。尽管身处诗歌创作渐渐式微的大环境之下，80后诗歌尚未落幕，仍在砥砺前行。

【参考文献】

丁成，《80后诗歌档案》，中国海洋大学出版社，2008年.
赵卫峰，《漂泊的一代:中国80后诗歌》，中国文联出版社，2012年.
赵卫峰，<大事记或十年脉象：中国80后诗歌进行时>，《诗探索》，2012年05期. pp.92-116.
《诗建设：80后诗选》总第二十四期，作家出版社，2016年.
伊沙，《新世纪诗典》，浙江文艺出版社，2015年.
春树，<我只是一个女孩子>，《春树的诗》，重庆大学出版社，2013年.
霍俊明，<80后为中国诗坛提供了什么样的版图?——贵州、山东、河南80后诗歌选读印象>，《诗选刊》，2009年08期.pp.95-97.
<80后诗歌的谱系与身份焦虑>，《中国诗歌研究动态》，2006年第二辑.pp.9-22.
许泽平，<80后诗歌研究>，广西师范学院硕士学位论文，2012年.
吴思敬，<当下诗歌的代际划分与“中生代”命名>，《诗刊》，2007年11期上半月刊. pp.52-56.
王丽英，<“80后”诗歌：另类的一代>，东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09年.
陈亮，<“80后”的诗歌创作及其历史境遇的文化阐释>，《山东青年政治学院学报》，2009年2期.pp.25-29.
泽平，<80后诗歌的代际命名>，《星星（下半月）》，2013年3期.pp.113-121.
80后诗歌库 http://www.poetryonline.cn/
中诗网 http://zgsg.yzs.com/
中华诗库 http://www.shigeku.org/

21)春树，<我只是一个女孩子>，《春树的诗》，重庆大学出版社，2013年.p.12

【메 모】

【중국문학 분과】 발표 ⑦

『紅樓夢』을 통해 본 작가의 人性論

최병규 (안동대)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賈雨村의 인성론을 통해 본 작가의 인성론
3. 『홍루몽』 인물묘사를 통해 본 작가의 인성론
   1) 가우촌 인물묘사를 통해 본 작가의 인성관
   2) 정감과 감성에 대한 중시
   3) 감성과 이성의 화협
4. 『홍루몽』에 나타난 작가의 인성론 특징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홍루몽』의 작가는 이 소설 모두에서 가우촌을 통해 一場 인성론을 펼치는데, 이는 기존의 중국의 전통적인 인성론과 매우 상이한 자신의 독특한 인성관으로 우리의 주목을 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작가는 가우촌에 대한 묘사를 시작으로 가보옥, 임대옥, 설보채 등을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들에 대한 인물묘사를 통해 자신의 독특한 인성관을 보이는데, 이 역시 이 소설 작가의 인성론을 이해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본고는 『홍루몽』을 통해서 본 작가의 독특한 인성론에 대한 연구로 그 고찰 방식은 먼저 가우촌이 이 소설 제2회에서 펼친 장편의 인성론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여 『홍루몽』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인물묘사의 시각을 통해 드러난 작가의 인성론을 논의하고자 하며, 결론에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인성론과 구별되는 『홍루몽』 작가의 독특한 인성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가우촌의 인성론을 통해 본 작가의 인성론

가우촌은 이 소설 제2회에서 냉자흥과의 대화에서 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바탕 설교하고 있다.

> 하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함에 있어 크게 어질고 크게 악한 두 부류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어진 자들은 천운을 타고 태어났고, 크게 악한 자들은 겁운을 타고 태어났지요. 요、순、우、탕、문、무、주、소、공、맹、동、한、주、정、장、주가 모두 천운을 타고 태어났고, 치우, 공공, 걸, 주, 시황, 왕망, 조조, 환온, 안록산, 진회 등이 모두 겁운을 타고 태어났다고 하겠지요. 크게 어진 자들은 천하를 바로 다스리고 크게 악한 자들은 천하를 어지럽힙니다. 청명하고 뛰어난 영기는 천지의 正氣로서 仁者가 가지고 태어나고, 잔인하고 괴벽한 것은 천지의 邪氣로서 惡者가 가지고 태어나는 법이죠. 지금은 나라가 융성하고 천하가 태평한지라 총명하고 뛰어난 정기로 태어난 분들이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초야에 이르기까지 가득합니다.[1)]

1) "天地生人，除大仁大惡兩種，餘者皆無大異。若大仁者，則應運而生，大惡者，則應劫而生。運生世治，劫生世危。堯、舜、禹、湯、文、武、周、召、孔、孟、董、韓、周、程、張、朱，皆應運而生者。蚩尤，共工，桀，紂，始皇，王莽，曹操，桓溫，安祿山，秦檜等，皆應劫而生者。大仁者，修治天下；大惡者，撓亂天下。清明靈秀，天地之正氣，仁者之所秉

여기서 우선 우리는 작자 조설근이 가우촌이라는 인물의 일장 연설을 통해 뭔가 심상찮은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음을 직감할 수가 있다. 가우촌은 사람의 인성에 대해 대인과 대악의 두 부류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사람의 본성은 대체로 극단적인 두 부류를 제외하면 모두가 선하다고도 악하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들은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다. 처음부터 작자는 사람은 대인과 대악만 아니라면 사람의 선악문제는 사람의 인성에서 크게 중시될 필요가 없는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작자는 대인과 대악의 부류들을 나열하면서 그 인물들과 특성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충 얼버무렸고 당시는 대인이 많아 세상이 태평하다고 칭송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첫째, 작자가 대인과 대악의 인물들을 예시하고 그들의 특성을 얘기하지만 이는 자신의 관심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였으며, 둘째, 작자는 文字獄과 같은 당시 상황을 염려해 조정에 저촉되지 않는 듣기 좋은 말을 하며 매우 형식적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작자는 대인을 거론하면서 청대 理學을 중시하던 당시의 유학적 분위기에 편승해 유학의 정통 성현들 일색으로만 예시하고 있으며, 당시는 태평성대라 이런 어진 자들이 가득하다는, 은근히 조정의 비위를 맞추어주는 듣기 좋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작자의 이런 생각은 가우촌이 대인과 대악의 부류에 대한 설명은 대충 간단히 끝내고, 이어 그 중간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긴 설명을 늘어놓은 점에서 잘 알 수가 있다.

> 그 나머지 빼어난 기운은 갈 곳이 없어 감로가 되고 화풍이 되어 널리 사해에 퍼져 있습니다. 저 잔인하고 괴벽한 사기는 빛나는 햇빛 아래서는 기를 펼 수 없기 때문에 깊은 구렁텅이와 큰 골짜기에 엉켜 있다가 바람에 날리거나 구름에 밀려다니지요. 그중에서 어쩌다 조금이라도 빠져나온 것은 뛰어난 영기와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기는 사기를 용납하지 않고 사기도 정기를 싫어하여 서로 지려고 하지 않지요. 마치 바람과 물, 우레와 번개가 땅 속에서 서로 만나 사라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 부닥치는 것과 같지요. 이미 새어나온 이상 그 사기는 사람에게 불기 마련인데 남자건 여자건 이 사기를 띠고 난 자는 잘 된다 해도 덕행이 뛰어난 자는 못 되고, 못 된다 해도 대흉대악은 되지 않지요. 즉 억만 사람을 놓고 보아도 그 총준한 영기는 억만 사람의 위에 있지만 인정에 어긋나는 그 괴벽하고 비틀어진 면은 또 억만 사람의 아래에 서게 되지요. 그래서 만약 부귀한 공후의 가문에 태어나면 치정에 빠진 사람이 되고 청빈한 학자의 가문에 태어나면 세사를 초월한 뛰어난 선비가 되고, 어쩌다 미천한 가문에 태어나도 용렬한 자들의 심부름을 듣는 하졸이나 노복은 되지 않고 명배우나 명창기가 되지요. 옛날의 허유、도잠、완적、혜강、류령、왕사이족、고호두、진후주、당명황、송휘종、류정지、온비경、미남궁、석만경、류기경、진소유 등이나 근대의 예운림、당백호、축지산 등과 이구년, 황번작, 경신마, 탁문군, 홍불, 설도, 최앵, 조운 같은 사람이 모두 환경이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2)]

여기서 작자는 허유나 도잠과 같은 세사를 초월한 뛰어난 선비 즉 逸士高人類의 인물이나 홍불이나 조운 등 奇優名倡과 같은 하녀들을 모두 환경이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홍루몽』작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악과 正邪, 그리고 남녀와 귀천에 관계없이 사람이 지닌 그 어떤 총명하고 특이한 기질과 개성에 주목하여 사람을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정(혹은 선)과 사(혹은 악)의 기운이 만나서 태어난 특이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이다. 따라서 조설근은 선하거나 바른 사람들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비록 다소 사악한 기운을 지니고 있을지언정 인간적 개성이나 수려한 기질을 지닌 자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也；殘忍乖僻，天地之邪氣，惡者之所秉也。今當運隆祚永之朝，太平無爲之世，清明靈秀之氣所秉者，上至朝廷，下及草野，比比皆是."- 제2회.

2) "所餘之秀氣，漫無所歸，遂爲甘露，爲和風，洽然溉及四海。彼殘忍乖僻之邪氣，不能蕩溢於光天化日之中，遂凝結充塞於深溝大壑之內，偶因風蕩，或被雲催，略有搖動感發之意，一絲半縷誤而泄出者，偶值靈秀之氣適過，正不容邪，邪複妒正，兩不相下，亦如風水雷電，地中既遇，既不能消，又不能讓，必至搏擊掀發後始盡。故其氣亦必賦人，發泄一盡始散。使男女偶秉此氣而生者，在上則不能成仁人君子，下亦不能爲大凶大惡。置之於萬萬人中，其聰俊靈秀之氣，則在萬萬人之上；其乖僻邪謬不近人情之態，又在萬萬人之下。若生於公侯富貴之家，則爲情癡情種；若生於詩書清貧之族，則爲逸士高人，縱再偶生於薄祚寒門，斷不能爲走卒健仆，甘遭庸人驅制駕馭，必爲奇優名倡。如前代之許由、陶潛、阮籍、嵇康、劉伶、王謝二族、顧虎頭、陳後主、唐明皇、宋徽宗、劉庭芝、溫飛卿、米南宮、石曼卿、柳耆卿、秦少遊，近日之倪雲林、唐伯虎、祝枝山，再如李龜年，黃幡綽，敬新磨，卓文君，紅拂，薛濤，崔鶯，朝雲之流，此皆易地則同之人也." - 제2회

이는 군자나 성현을 중시하며 도덕적인 완인이 되기 위한 수양만을 추구하던 기존의 전통적 인성론에 비해 대단히 진보된 관점이다.

또『홍루몽』의 작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유가의 전통적인 성삼품론에 근거하여 인성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중품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중시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중품에 속하는 자들을 정과 사, 즉 선함과 악함이 동시에 부여된 이른바 '正邪兩賦'의 인물로 칭하며 이들에 대한 깊은 존중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최고의 도덕적 가치관인 正과 善을 지향하는 중국의 정통적인 인성론에서 탈피하여 상대적으로 무시되었던 중품의 '보통'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자 그들이 지닌 사(즉 악)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들의 빼어난 기질과 개성에 대해 주목하는, 그의 독창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3.『홍루몽』인물묘사를 통해 본 작가의 인성론

1) 賈雨村 인물묘사를 통해 본 작가의 人性觀

『홍루몽』의 작가 조설근의 독특한 인성론은 먼저 이 소설 제2회 가우촌과 냉자흥이 나누는 대화에서 가우촌이 언급한 일장 의론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우선 작가 조설근의 중요한 인성론을 펼친 가우촌이란 인물에 대해 살펴보자. 왜냐하면 작가 조설근의 인성론은 가우촌의 인성에 대한 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 그가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 이 소설 제1회에서다.

> 내 비록 배운 것은 없고 글재주도 없지만 꾸며낸 속된 글(여기서 원문 '假语村言'은 '꾸며낸 속된 글'이란 의미 외에도 '가우촌의 말'이란 뜻도 지니고 있다. 즉 '假语村言'은 '賈雨村云(가우촌의 말)'이란 말과 발음이 같아 쌍관어의 구실을 하고 있다.)로 이야기를 써내려간다 하더라도 또한 여인들의 전기를 남겨 그들을 세상에 알려지게 하고 나아가 세인들의 눈을 즐겁게 하여 그들의 한 때의 근심과 답답함을 풀어준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우촌을 운운했다.[3]

이 소설의 작자가 소설 첫머리에서 가우촌의 이름을 운운함은 이 책에서의 그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어 甄士隱〔견사은은 眞事隱(진실을 감춘다는 뜻)과 중국어 발음이 같다.〕의 하녀가 그를 보았을 때 그의 비범함에 대해 서술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계집종은 꽃을 따려고 머리를 치켜드는 순간 창 안에 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해진 두건에 낡은 옷차림새가 궁상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허리가 굵직하고 가슴이 떡 벌어지고 얼굴이 넓적하고 입맵시가 방정한데다가 칼 눈썹 아래 눈에는 정기가 서려 있고 콧날이 우뚝하고 볼이 불그스름했다. 계집종은 얼른 몸을 돌려 피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늠름하게 생긴 분이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 주인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가우촌이란 분이 아닐까. 그러기에 주인께서 오래 고생할 사람이 아니니 도와주고 싶으나 그럴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다시 돌아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4]

이 부분은 이 소설의 작자가 제삼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우촌이란 인물의 객관적인 모습과 기질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가우촌에 대한 하녀의 반응과 태도에 대한 묘사로부터 우리는 그가 위풍당당하고 기개

3) "雖我未學，下筆無文，又何妨用假語村言，敷演出一段故事來，亦可使閨閣昭傳，復可悅世之目，破人愁悶，不亦宜乎？故曰賈雨村云云." - 제1회.

4) "那甄家丫鬟撷了花，方欲走時，猛抬頭見窗內有人，敝巾舊服，雖是貧窘，然生得腰圓背厚，面闊口方，更兼劍眉星眼，直鼻權腮。這丫鬟忙轉身回避，心下乃想："這人生的這樣雄壯，卻又這樣襤褸，想他定是我家主人常說的什麼賈雨村了，每有意幫助周濟，只是沒甚機會。我家並無這樣貧窘親友，想定是此人無疑了。怪道又說他必非久困之人。"如此想來，不免又回頭兩次." - 제1회.

가 높은 사람으로 소설 작가에 의해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밖에도 어느 날 저녁 가우촌과 견사은이 서로 만나 달을 대하고 술을 대작하며 시를 짓던 狂放한 모습과 견사은이 그에게 노자 돈과 의복을 주었을 때 정중한 감사를 표하지 않고 단지 한 마디 간단한 사의를 표했을 따름이었으며, 과거 보러 떠날 때에도 견사은에게 직접 찾아와 인사하는 대신 간단한 쪽지만 남기고 훌쩍 떠나버린 행동들을 보면 그는 세상의 예법에 따르지 않는 광방한 성격의 인물임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2회에서 냉자흥과의 대화에서 그가 가보옥을 '색마'라고 하자 이에 정색하며 일장 의론을 발표한 점은 그의 걸출함과 함께 소설 속 그의 중대한 역할과 비중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한다.

그런데 이런 그가 이 소설 제4회에서는 馮淵이 薛蟠에게 억울하게 타살된 살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권문세가인 설씨가의 권세와 결탁하여 살인자를 방면하는 꽤나 사악하고 부패한 관리로 전락하게 된다. 당시 그는 풍연의 정혼녀인 甄英蓮이 그의 은인인 견사은의 딸임을 알았지만 그녀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대단히 배은망덕한 인성을 지닌 인물로 변신하였다.[5] 이에 대해 홍학자들은 대체로 이 소설의 작자 조설근이 가우촌이라는 한 당당한 선비의 영혼의 몰락을 통해 당시 官場의 부패와 인정의 냉혹함을 풍자하고자 함이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설근은 곧 이어 살펴볼 선과 악, 그리고 정과 사를 동시에 지닌 그의 인성론을 반영한 인물의 한 대표적인 예로 가우촌을 등장시켰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6]

2) 정감과 감성에 대한 중시

이 소설의 주지가 정을 얘기한 것이라고 소설 작자가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홍루몽』은 정이 풍부한 인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그 정의 진한 맛과 오묘한 경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소설 인물군상들이 지닌 정의 다양한 면모와 그 심오한 의미는 『홍루몽』이 중국고전소설의 최고봉이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약 『홍루몽』 속의 인물들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해야 한다면 가보옥, 임대옥 등을 중심으로 한 정감과 감성이 풍부한 '자연인격'의 부류와 설보채, 습인 등과 같은 이성과 법도를 중시하는 예교적인 '사회인격'의 인물군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이다.[7] 이 소설의 작자는 가보옥, 임대옥 등과 같은 전자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폄하하는듯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존중하거나 동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이와 반대로 겉으로는 존중하는듯하지만 속으로는 풍자를 가하고 있다. 이는 설보채나 습인에 대한 이 소설 작가의 풍자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다.[8] 따라서 『홍루몽』은 설보채나 습인 등과 같은 이성적이고 세속적인 인물들이 지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면을 풍자하는 반면 이와 정반대인 가보옥과 임대옥, 그리고 청문 등의 인물들이 지닌 자연스럽고 진솔한 면을 높이 사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홍루몽』은 인성 가운데의 자연스러움과 진실함, 그리고 순수함과 자유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이 소설이 긍정하는 인간상 중의 하나가 자신의 정감과 감성을 가식 없이 자연스럽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인간형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일찍이 이 소설 제5회에서 작자는 경환선고를 통해 그녀가 세상의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면을 혐오하면서 반면 가보옥이 지닌 의음, 즉 치정을 높이 평가한 바가 있다. 경환선고의 생각을 이

5) 가우촌은 어렵게 과거에 급제한 후 벼슬살이를 하면서 탐관오리의 누명으로 관직을 박탈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임대옥의 훈장이 되면서 임여해와 가정의 추천으로 복직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벼슬살이 현장의 부패와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에 적응하면서 그는 인성을 잃은 교활하고 부패한 관리로 전변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6) 조설근이 가우촌이란 인물을 창조한 것은 중국소설사에서 외모가 걸출한 인물이 언제나 호인이라는 관례를 깬 것으로 볼 수가 있다.

7) 萬晴川은 「自然人格與社會人格的沖突－－賈寶玉薛寶釵性格比較」(西北師大學報 社會科學版, 1992年第02期)라는 논문에서 『홍루몽』 속의 인물을 가보옥류의 '자연인격'과 설보채류의 '사회인격'으로 양분한 적이 있으며, 이 소설은 이러한 두 부류의 인간들의 충돌을 다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8) 다만 이 소설 작가는 이를 대단히 절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게 은밀히 풍자하고 있다.

소설 작자의 사상과 동등시할 수는 없지만 가보옥의 의음에 대한 그녀의 거창한 의론 내용을 보면 전술한 바대로 그녀는 다소 은폐적이고 변형된 모습일지언정 작자의 주된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가식과 위선, 그리고 포장에 대한 혐오일 것이다. 이 소설의 작자 조설근이 완적을 비롯한 위진명사와 위진풍도의 사상을 계승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경환선고의 입을 통해 세인들의 위선과 가식을 대단히 혐오하고 있다. 『홍루몽』 작가의 이런 진정을 중시하는 사상적 면모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설보채와 같은 인물의 가식과 냉정함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로 곳곳에서 풍자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가보옥이나 임대옥, 그리고 사상운 등을 비롯한 진정이 넘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순수한 기질과 개성을 세절묘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강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홍루몽』은 가보옥과 임대옥 같은 순수한 영혼을 지닌 인물들이 설보채와 같은 전통적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예교파들에 의해 제압되는 안타까운 당시 현실을 통해 이 작품을 읽는 이로 하여금 임대옥류 인물에 대한 강한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가가 존중하는 인간상도 이런 위선적인 예교파 인간들을 풍자하는 한편 풍부한 정감과 감성을 그 어떤 가식이나 위선 없이 자유롭고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옹호하며 찬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홍루몽』 작가가 지닌 이런 풍부한 정감과 감성을 지닌 인물들에 대한 예찬은 이 소설 제2회에서 가우촌이 주장한 정사양부의 인물들에 대한 중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가우촌이 제시한 정사양부 즉 정과 사를 동시에 지니고 태어난 자들은 비록 그 도덕성에 있어서는 인정에 어긋나고 괴벽하고 비뚤어진 면을 배제할 순 없다 치더라도 그 총명하고 영특한 기운은 대단히 출중함을 얘기하고 있다. 그들은 출신성분에 따라 3가지 부류로 구분되는데, 부귀한 가문에서 태어나면 치정에 빠진 사람이 되고, 청빈한 학자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세사를 초월한 뛰어난 선비가 되며,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나면 명배우나 명창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예로 허유, 도잠, 완적, 혜강, 류령, 왕사이족, 고호두, 진후주, 당명황, 송휘종, 류정지, 온비경, 미남궁, 석만경, 류기경, 진소유, 예운림, 당백호, 축지산, 이구년, 황번작, 경신마, 탁문군, 홍불, 설도, 최앵앵, 조운 등과 같은 사람들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환경만 다를 뿐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임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작자가 예로 든 이런 부류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허유와 도잠과 같은 몇 명의 逸士高人을 제외하면 모두가 '情癡情種'의 풍류재자 유형의 인물임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풍류재자는 어떤 유형의 인간들인가? 바로 그들은 학식이 있고 재기가 뛰어나며 세상의 예법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을 자유분방하게 살아간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세사에 깊이 관여하길 싫어하여 名教와 功利, 그리고 본분에 충실하기 보다는 문학예술을 사랑하는, 대단히 정감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그들은 황제라고 하더라도 국가대사나 강토보다도 미인과 예술을 더 사랑하였고, 문인학자가 되더라도 세상을 등지고 초야에 묻혀 사는 은사가 되거나 자유분방하고 다정다감한 풍류재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면 빼어난 재정을 지닌 유명한 배우나 기생이 된다고 하였다.

『홍루몽』이 출현한 명청시대는 한대와 마찬가지로 유학의 입김이 대단히 강해 예교사상에 의해 인간의 정이 억압을 받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극성스러운 정주이학은 천리와 인욕을 운운하며 인의예지로 대표되는 천리로 인간의 욕정을 철저히 제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당시의 理學은 예로써 사람의 정을 제어해야 함을 당연시하게 된 것이다. 정주이학의 이런 관점에 대해 명청시대의 많은 진보적 사상가들도 그 부당함을 비판하며 인간의 정욕의 가치를 여러 방면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상가들은 대진, 이지, 풍몽룡 등과 같은 인물이다. 『홍루몽』의 작자 조설근도 명청시대 이런 사상적 배경에서 이 소설을 통해 정의 가치를 다각도로 역설하였다. 특히 『홍루몽』은 가보옥과 임대옥, 청문 등과 같은 인물들의 기발하고 의미심장한 언행과 사상을 통해 인간이 지닌 풍부한 정감과 감성, 그리고 진정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감성과 이성의 화협

앞에서 필자는 『홍루몽』 작가가 소설 속에 나타난 대조적인 인물군들의 대립적 면모에 대한 묘사와 이에 대한 신랄한 풍자나 동정을 통해 이 소설이 지향하고 비판하는 인격상들을 제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즉 『홍

루몽』은 가보옥류의 자연인격자들과 설보채류의 사회인격자들을 명백히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동정과 풍자를 통해 자신의 애증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경지와 작가의 걸출함은 자연인격에 대한 찬미와 사회인격에 대한 비판과 풍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양자의 화합과 조화의 경지를 계시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 『홍루몽』의 작자는 자연인격자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과 감성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자연인격자들에게 결핍된 사회인격자들의 장점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편면적인 어느 한 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용적인 태도로 양자의 차이를 통한 중화와 화협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9] 이 점은 조설근이 소설 속에서 자연인격류의 인물들을 무조건 찬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결점들도 지적하고 있으며[10] 동시에 사회인격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설보채를 남녀주인공인 가보옥과 임대옥의 결합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小人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사상을 지닌 正人君子로 묘사한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두 부류의 서로 다른 인간상의 제시를 통해 임대옥과 같은 진정과 다정다감함을 바탕으로 거기다 설보채와 같은 온유돈후함과 사회성을 동시에 지닌 그 어떤 이상적인 인격상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11] 즉 우리는 『홍루몽』을 통해 사회인격과 자연인격의 모순과 투쟁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그 어떤 인간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은 이 두 부류의 인간에 대한 『홍루몽』 작자의 중용적인 인물묘사태도에서 읽을 수가 있다.

임대옥과 설보채는 비록 이 소설 속에서 서로 적지 않은 사상적 모순과 충돌을 겪는 관계지만 양자를 결코 상충적이고 대립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고 통일된 한 몸으로 보는 이른바 '釵黛一體說(즉 보채와 대옥이 한 몸이라는 설로 혹은 '채대합일론'이라고 칭하기도 함.)' 견해는 자연인격과 사회인격의 가치에 대해 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나 찬반적 태도를 넘어 양자의 화합과 조화를 암시하는 이 소설 작가의 중용적 가치관과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다.

4. 『홍루몽』에 나타난 작가의 인성론 특징

중국철학사를 통해 본 중국의 전통적인 인성론은 모두가 사람의 본성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에 대한 분석과 선하지 않은 부분은 후천적인 수양에 의해 개선해야 함을 얘기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공자는 사람의 인성은 선천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미소하며 사람의 인성의 선악의 본질은 대체로 사람이 출생한 이후에 습관에 의해 점차 형성된다고 하였으며[12], 그 후 맹자와 순자는 각각 성선설과 성악설로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선을 자신 혹은 人僞(즉 예의)를 통해 추구해야 함을 역설하였다는 점에서는 매한가지였다. 이어 한대에 들어와 동중서가

9) 인물예술기교에 나타난 『홍루몽』 작가의 중화성과는 달리 이 소설의 結局은 매우 극단적인 철저한 비극정신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송진영은 『홍루몽』의 비극성에 대해 논하며 이 소설이 중국 기존의 화협과 대단원의 中和美 전통을 탈피하여 철저한 비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하였다. 그리하여 "보옥과 금릉십이채로 대표되는, 작자의 이상을 기탁한 인물들이 대부분 불행한 종말로 처리된 것은 중국비극의 전통적 형식인 대단원 결국이 타파된 것이다. 이러한 결국은 『홍루몽』의 비극성 자체를 한층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립충돌이 양자의 파멸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화해와 평정을 추구하는 단원 결국이 아니라, 대립되는 양자가 여지없이 파멸되고야 마는 비극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홍루몽』은 기존의 중국고전 비극미학의 전통인 喜悲交集을 한편으론 계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원주의의 타파와 그로 인한 비극성의 제고라는 새로운 미학적 변모를 보여주는 훌륭한 비극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성은 중화미의 비극전통이 변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송진영, 『홍루몽의 비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102쪽 참고.

10) 梅新林은 『紅樓夢哲學精神』(北京: 學林出版社, 1995)에서 이 소설과 유가의 세속화 철학 간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부정과 認可, 그리고 긍정의 세 측면으로 해석하였다. 이른바 부정은 이 소설에서 가보옥이 유가의 內聖外王의 정신을 철저히 부정하기 때문이며, 인가는 가보옥이 그래도 유가의 성현이 지은 대학중용과 같은 정통유학과 가정윤리규범에 대해 부정하지 않은 태도 때문이며, 이른바 긍정은 석두가 지닌 '補天' 의식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수락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최병규, 「『홍루몽』 인물을 통해서 본 삶의 예술」, 『중어중문학』 제30집, 2002, 400쪽.

11) 이 소설이 중시한 가장 이상적인 여성 秦可卿을 보더라도 그녀는 자연인격과 사회인격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12) "性相近也, 習相遠也."(『論語陽貨』), 양백준 역주, 이장우, 박종연 한역, 『논어역주』, 중문출판사, 1997, 302쪽.

'性善情惡論'을 주장하면서 성은 선한 것이고 정은 악한 것이라는 생각이 도가가 지배한 위진시대에서도 만연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13], 이런 관념은 당대에도 이어져 이고나 한유와 같은 자들도 모두 이런 성향의 주장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성선정악의 관념은 북송의 장재가 이른바 天地之性과 氣質之性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송원명청대에의 정주이학은 모두 이를 근거로 이른바 '存天理, 滅人欲'을 주장하였으니 중국의 인성론은 언제나 사람의 인성의 선악의 뿌리를 캐기 위해 매진하였고 이를 근거로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 인성 이면의 감정과 욕망을 통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루몽』의 작자는 더 이상 선악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다소 사악한 면을 지닌 중품의 보통 인간들 가운데 특이한 부류들을 주목하며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철학사를 통해 본 중국인의 인성론에서 주목할 점은 사람의 인성을 三品으로 구분한 점인데, 이런 性三品論은 동중서가 사람의 인성을 상중하의 聖人之性과 中民之性, 그리고 斗筲之性의 삼품으로 구분한 것에서 본격화되었다. 筲는 한 말 두되들이 대그릇의 의미로 '두소지성'이란 도량이 좁은 사람의 성이라는 뜻이다. 이어 성삼품론은 왕충과 순열, 그리고 한유를 거치면서 더욱 체계화되는데[14], 이는 모두 선의 각도에서 어떻게 악을 선의 경지로 개도할 것인지에 대한 수양론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나 『홍루몽』의 인성론은 사람을 선악의 각도에서만 파악하던 기존의 인성론 논쟁에서 벗어나 사람이 지닌 독특한 개성과 특이한 기질에 대한 분석과 규명의 중요성을 환기한 것으로, 군자나 성현을 중시하며 도덕적인 완인이 되기 위한 수양만을 추구하던 기존의 전통적 인성론에 비해 대단히 진보된 관점이다. 이는 말하자면 도덕적 지고지선의 이상인 선함만을 추구하는 중국 유가의 전통적 인성론에 대한 『홍루몽』 작가의 문제의식의 표명으로 볼 수가 있다.[15]

이런 인성론에 입각하여 조설근은 매우 독특하고 반속적인 방식으로 인물에 대한 품평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앞서 가우촌이라는 인물에 대한 작가의 반속적인 기이한 묘사에서도 그러하였듯이 그가 관심을 보인 정사양부의 인물들은 유가적 내지는 세속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빼어나고 특이한 기질이나 독특한 개성에 주목하여 사람을 선별한 것이다. 이런 인물들은 비록 출신성분의 귀천에 따라 "情癡情種", "逸士高人", "奇優名倡"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뛰어난 재기를 지니고 있지만 세상과 잘 타협하지 못해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분에 충실한 삶보다는 자신의 성정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간 풍류재자들이다.[16] 다시 말해 그들은 모두 세속적인 가치관과 위배되어 세속의 중시를 받지

13) 위진시대 何晏, 鍾會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견지하였으며, 다만 王弼은 성인도 정이 있다는 다소 독창적인 견해를 주장하였다. 기본적으로 도가의 인성론도 유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가는 원래 인간이 지닌 본성과 성정은 순박한 것이지만 사람이 지닌 사사로운 감정과 욕망으로 인해 인성이 타락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본성 속의 순수하고 진실하며 자연의 도에 따르는 본래의 성정으로 복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莊子와 老子는 모두 儒家의 仁義를 반대하였는데, 그들은 自然 人性論을 근거로 사람의 마음을 옭아매는 인의를 비판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人性은 원래 素樸하며 無知無欲한 것이지만 仁義가 그들의 소박한 천성을 파괴하였다고 보았다.

14) 당나라 때의 한유는 전대의 성삼품론을 체계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昌黎先生文集』 卷11 「原性」에서 성삼품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仁義禮智信의 성은 천성적이고, 정은 喜怒哀惧愛惡欲으로 사람이 외계와의 접촉으로 생겨난 것인데, 이런 五性과 七情은 각각 상중하의 삼품으로 구분되며 상품은 학습으로 더욱 총명해지고 중품은 지도에 의해 선해지거나 악해질 수도 있으며, 하품은 완전히 악한 것이라고 하면서 교육과 법제에 의해 삼품을 선한 곳으로 이끌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15) 朱淡文도 지적하였듯이 조설근의 인성론과 철학논리에는 전통 주자학에서 중시하는 절대적인 가치인 理에 대해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즉 주희가 太極 내지 리가 만물의 근본이자 가장 높은 본체로 보며 氣는 다만 중개자로서 리의 범위 내에서 순환왕복을 할 따름이라고 보았지만 조설근은 張載와 呂坤의 사상을 계승하여 氣一元論적 인성론을 펼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朱淡文, 『紅樓夢研究』, 臺灣: 貫雅書局, 1991, 62~66쪽 참고.) 이런 점은 戴震도 마찬가지였다. 말하자면 조설근은 性卽理가 아니라 性卽氣의 관점에서 만물은 하나의 기로부터 생겨났을 뿐이며, 그 氣의 淸濁 정도에 따라 사람과 만물이 차별되며, 같은 사람 같은 만물도 기를 얼마나 받았느냐 따라 천태만상이 구별된다고 본 것이다. 즉 기의 차이에 따라 성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조설근의 이런 인성론은 주자가 성을 仁義禮智라는 도덕원리로 보고 있는 반면에 성을 血氣와 心知를 갖는 사람과 생물의 欲求, 感情, 知로 보는 대진의 인성론과 맞닿아있는 것이다. 이런 인성론의 윤리학적 의의는 혈기의 욕구와 심지의 감정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인의예지가 사람의 마음에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기에 본래 가지고 태어난 그것을 회복하자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간이고 인간인 이상 사회를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기와 심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와 너의 관계에서 인의예지를 추구해 가야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임옥균, 「戴震 인성론의 윤리학적 의의」, 『동양철학』 제20집, 2003, 111~112쪽 참고. 『홍루몽』에 나타난 조설근의 정주이학의 학설에 대한 직접적 배척 태도는 제31회에서 사상운이 음양의 기의 정사에 따라 사람과 사물이 생겨난다는 논리를 펼친 점과 제52회에서 보채가 시모임을 열어 太極圖에 대한 시를 읊어보자는 제의에 대해 보금이 꼬집어 비평을 한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못한 채 광방하고 예술적인 자유로운 삶을 영위한 다소 불행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마디로 그들은 당시의 예교를 부정한 풍류재자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설근의 이런 인성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선과 도덕성과 같은 유가적이고 세속적인 인물품평의 관례를 벗어나[17] 사람의 빼어난 개성에 주목한 것이다. 이는 위진시대 高情(즉 고상한 정의 경지)과 才藻(즉 재기와 문장력)를 인물품평의 주요 내용으로 삼던 위진풍도의 정신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18] 이를 바탕으로 조설근의 인성론과 인물품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癡'이다. 『홍루몽』은 위진시대의 시대정신인 위진풍도 사상과 이를 잘 표현한 『세설신어』 속의 치정의 경지를 대단히 잘 구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정사양부의 세 부류의 인물들도 모두 이런 치 내지는 치정의 세계를 잘 반영한 인물이다. 물론 이 소설 속 가보옥과 임대옥을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들도 모두 치정을 지닌 인물임도 물론이다. 따라서 『홍루몽』은 위진시대 『세설신어』를 통해 불거진 '치'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 경지를 다시 크게 부각시킨 대표적인 중국고전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홍루몽』의 작자는 치와 치정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이성의 가치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자연인격자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과 감성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자연인격자들에게 결핍된 사회인격자들의 장점들을 높이 평가하여 편면적인 어느 한 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용적인 태도로 양자의 차이를 통한 중화와 화협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홍루몽』은 우리들에게 사회인격과 자연인격의 모순과 투쟁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그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을 계시하고 있다.

5. 나오는 말

소설 『홍루몽』은 수많은 등장인물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과 독특한 성정들을 묘사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특히 이 소설의 작가는 가우촌과 가보옥 등을 비롯해 임대옥과 설보채, 청문과 습인 등 몇 부류의 대조적인 인물군들을 통해 자신의 인성론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가우촌의 입을 통해 장황하게 드러난 인성에 대한 의론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표명하고자한 그의 인성론으로 대단히 의미심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작가는 이런 인성론을 기반으로 그가 관심을 가진 이른바 '정사양부'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다. 따라서 『홍루몽』 인물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이 소설의 주제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인성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홍루몽』에 나타난 작가의 인성론은 전통적인 유교적 善惡 문제라든지 일률적으로 聖賢만을 추구하던 수양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보통'의 인간들이 지닌 다양하고 개성적이며 자연스러운 인성의 모습에 주의와 관심을 보이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 해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홀시한 부류의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사양부'의 인간들에 대한 중시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과 생명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매우 중시하는 이런 인도주의적 정신이야말로 『홍루몽』 인성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홍루몽』 작가의 인성론의 특징은 '性善情惡'의 중국의 전통적인 인성론에서 벗어나 인간의 정과 감성의 가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주정주의적 관점에서 이 소설은 '정사양부'의 이른바 '풍류재자'들을 높이 추숭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한편으론 전통적인 유교적 이성과 절제의 미덕도 부정하지 않은 점은 『홍루몽』 인성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6) 중국의 홍학자 周汝昌은 이들의 특징을 귀납해서 말하길, 명리와 流俗을 무시하고, 성정을 중시하고, 예술을 사랑하며, 본업에 힘쓰지 않고 낙오자 같이 생활하고, 예교에 저촉된 지유와 풍류를 추구하면서 미친 듯 세상을 피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周汝昌, 『紅樓夢與中華文化』, 臺灣: 東大圖書公司, 1989, 131쪽 참고.

17) 이런 조설근의 관점에 대해 鮑河揚은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 예술과 사랑을 국가의 존망 위에다 둠은 정말 놀라운 견해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의 우리도 그 충격적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설근의 이런 기이한 정감론은 성공하면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도적이 된다는 논리를 부수어 성패로써 영웅을 논하지 않고 예술과 사랑에 대한 집착으로 생명의 가치를 논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것은 처음부터 비극적임이 예정된 것이다." - 鮑河揚, 『生命的荒唐是生命的最愛-紅樓夢是文學的老莊, 老莊是哲學的紅樓夢』, 臺灣: 商訊文化, 2015, 25쪽.

18) 寧稼雨, 『魏晉風度』, 北京: 東方出版社, 1996, 78쪽.

【중국문학 분과】 발표 ⑦

《高麗史》引孟子言初探

胡倩茹(銘傳大學)*

【目 录】

壹、前言
貳、《高麗史》引孟子言分析
參、《高麗史》引孟子言之特色
四 、結語

【摘要】

朝鮮半島與中國國土相鄰，由《高麗史》記載太祖王建之言「惟我東方，舊慕唐風，文物禮樂，悉遵其制」，可知對於漢唐文化的傾仰，尤其深受儒家文化思想，所謂「昔周公孔子皆大聖」可知對儒家周公孔子的尊崇，並言足以開三韓太平之業的就是孔孟之道。史書的記載更常引用賢者之言，《高麗史》亦然。關於儒教在朝鮮半島的相關研究繁多，論及孔子者眾，至於為孔子傳人的孟子其相關研究相形之下是較為少的。故本文欲由此角度來爬梳《高麗史》中對於孟子的引言有哪些？又有哪些文人朝臣引用？引用的內容又有何特點？希冀藉由此對於孟子及其學說在高麗王朝的相關發展能有些許的提供。

【關鍵詞】孟子、高麗、儒家

壹、前言

朝鮮半島鄰近中國，深受其文化影響，尤其是儒家學說，申鬥煥在＜韓國儒學的發展現狀與當代價值＞中提到：「韓國儒教經歷了古代至三國時代、統一新羅至高麗時代、高麗末期到朝鮮初期的新儒學、朝鮮建國到壬辰 倭亂、壬辰倭亂之後到朝鮮後期為止以及現代儒學」[1]，可知儒學從韓國古代到高麗、朝鮮以及現代一直皆有不同的發展。對於儒學的注重也可由《舊唐書》＜東夷傳＞在高麗的傳文中得到印證：

高麗者，出自扶餘之別種也……..俗愛書籍，至於衡門庶養之家，各於街衢造大屋，謂之扃堂，子弟未婚之前，晝夜於此讀書習射。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後漢書》、《三國志》、孫盛《晉春秋》、《玉篇》、《字統》、《字林》；又有《文選》，尤愛重之。[2]

文中說到高麗俗愛書籍，而子弟所讀之書首先提到的「五經」就是儒家的典籍。而高麗時期對於儒學的發展更具有重要的關鍵，就如楊朝全、何彤梅，《中國__朝鮮・韓國關係史》一文中提到：

高麗國王的尊孔崇儒，對儒學在高麗的發展起了巨大促進作用，高麗國王睿宗（西元1106－1122年），重視中國儒學經典的學習與研究，設立清讌、寶文兩座宮廷圖書館，每日與文臣講論《六經》……高麗國王仁宗，令以《孝經》、《論語》等儒學經典分賜閭巷兒童，以廣教化。[3]

---

* 銘傳大學應用中文系助理教授

1) 申斗煥，＜韓國儒學的發展現狀與當代價值＞，《東岳論叢》第32卷第12期，（2011年12月），頁24。

2) 見《舊唐書》＜東夷傳＞，卷一百九十九上 列傳第一百四十九上。

3) 楊朝全、何彤梅，《中國__朝鮮・韓國關係史》（上）（天津:天津人民出版社，1996），第三章「宋與高麗之文化交流」，

文中提到高麗國王睿宗每日與文臣講論《六經》，可見儒家經典在貴族社會的受重視；而高麗國王仁宗令以《孝經》、《論語》等儒學經典分賜閭巷兒童，以廣教化，則說明了儒家經典對一般平民社會有教化之功。亦即不論是政府或是民間，皆受儒家思想的浸潤，甚且認為足以開三韓太平之業的就是孔孟之道[4]。孔在《高麗史》中提及儒家學者之言以議論國事者所在多有，對孔子的重視與其言的引用自是無庸置疑，而本文著重在對於引孟子言的探討，因為關於儒教在朝鮮半島的相關研究繁多，論及孔子者眾，至於為孔子傳人的孟子[5]其相關研究相形之下是較為少的。故本文欲由此角度來爬梳《高麗史》中對於孟子的引言有哪些？又有哪些文人朝臣引用？引用的內容又有何特點？希冀藉由此對於孟子及其學說在高麗王朝的相關發展能有些許的提供。

貳、《高麗史》引孟子言分析

《高麗史》中提到恭愍王十六年設置五經四書齋：「十六年，成均祭酒林樸上言，請改造成均館，命重營國學于崇文館舊址，令中外儒官，隨品出布，以助其費，增置生員，常養一百，始分五經四書齋。」[6]五經四書齋中就包含了孟子齋，可知當時即講授《孟子》書，到了李氏朝鮮四端七情說的論辯更與孟子的學說有所關聯。而《高麗史》中有許多提到孟子的思想之處，不過此處只是就《高麗史》中記載有引用孟子之言分析，其餘與其學說思想的命題相關者則不列入。以下先就整理出的十三則引言將其節要列出，再試為分析。

1、李齊賢贊曰：「文公問井地於孟子，孟子曰：『仁政必自經界始。經界不正井地不均穀祿不平。是故暴君污吏必慢其經界。經界既正分田制祿可坐而也。』三韓之地，非四方舟車之會，無物產之饒、貨殖之利。民生所仰只在地力，而鴨綠以南大抵皆山，肥膏不易之田絕無而僅有也。經界之正若慢，則其利害比之中國相萬也。（《高麗史》＜世家卷第二＞）

此則出於《孟子・滕文公上》，李齊賢在文中引孟子之言，強調田畝界線劃分需要公平正確，方能將好好的分配田地、制定俸祿，尤其是三韓「無物產之饒、貨殖之利。民生所仰只在地力」，更顯土地劃分的重要。

2、庚戌吏曹判書鄭摠上書曰:：「殿下近以乾文示警命臣制求言敎書，臣旣制進以為救之道莫若修政夫政者正也。孟子曰：『一正君而國定。』董子曰:『人君正心以正朝廷，遠近四方無不一於正』此實萬世之格言也……請殿下察皇天譴告之心，念天位惟艱之訓，小心翼翼改過，不吝以慰國人之望。」（《高麗史》＜世家卷第四十六＞）

此則出於《孟子・離婁上》，庚戌吏曹判書鄭摠上書中引孟子之言，規勸國王需當改過以正自身，因為君正才能國定，強調了人君心正的重要。

3、王遣內侍衛尉注簿康英俊賜瓘等羊酒并賜軍人銀，一面銀瓶四十事。瓘又使林彥記其事書於英州廳壁曰:：「孟子曰：『弱固不可以敵強，小固不可以敵大。』吾諷斯言久，而今信之矣，女真之於國家強弱眾寡其勢縣殊而窺邊鄙……舉義旗伐無道，一洗君之恥。』…彥承命援筆志之。」（《高麗史》＜列傳卷第九＞）

此則出於《孟子・梁惠王上》。尹瓘使林彥記其事，說明高麗趁女真弱時攻打之，欲拓展疆土卻反被女真奪去城池，然而高麗並不放棄，終「舉義旗伐無道，一洗君之恥」。

4、王嘗問邊事奏曰:：「杜牧言時事云：『上策莫如自治。』 宋神宗與文彥博議邊事，彥博曰: 『須先自治不可略近勤遠。』王安石曰:『彥博言固當若能自治七十里可以王天下。孟子曰:未有千里而畏人者。今以萬里之天下而畏人者由不自治也。』今我三韓之地豈特七十里而已哉，然而不免畏人者，其咎在乎不先自治而已。（《高麗史》＜列傳卷第十＞）

頁311。

4) 見《高麗史》＜列傳卷第二十三＞，朝臣石璘言：「願殿下勿以無君父者為師尊堯舜孔孟之道以開三韓太平之業」。

5)《漢書・楚元王傳贊》說：「自孔子歿，綴文之士眾矣。唯孟軻……博物洽聞，通達古今，其言有補於世。

6) 見《高麗史》＜志卷第二十八＞，「學校條」。

此則出於《孟子・梁惠王下》。說明高麗仁宗認為三韓遠超過七十里，但卻怕別人來攻伐的原因乃是在於不先自治。若將自己治理好，又怎畏人呢？邊疆之守重在自治。

5、又上書丞相拜住曰: ″小國下官敢以陋言仰瀆尊聽其為狂僭大矣。 然而江河之量無所不容，之言必有可取，伏望哀其迫切之意先寬其罪而小加憐察。孟子曰: 『禹思天下有溺者如己溺之，稷思天下有飢者如己飢之也。』 天下之溺與飢者非禹手之而稷其哺也，何其心斷然自以為責而不辭歟，天之降任於大人本欲使之濟斯人也。 苟視其困窮無告者恬不為愧，豈天之降任意耶 ，此所以忘之苦親播植之勞宅九土粒蒸民左右堯舜而澤及後世者也。設有一人焉不幸而陷濤瀨轉溝壑，禹稷而見之，將圖其須臾之活而已耶 ，吾知必為之計使之不複虞飢患溺然後已也。（《高麗史》＜列傳卷第二十三＞）

此則出於《孟子・離婁下》。李齊賢以孟子人飢己飢、人溺己溺的仁愛精神求元丞相拜住對忠宣王的寬罪憐察。

6、金湊樂安郡人。登第。恭愍朝累遷成均直講。諫官鄭樞等上書論辛旽，王怒下獄鞫之辭連湊杖流於鄉……與同僚上書曰: ″孟子曰: ’天時不如地利。三里之城七里之郭環而攻之必有得天時者矣。 然而不勝者是天時不如地利也。（《高麗史》＜列傳卷第二十五＞）

此則出於《孟子・公孫丑下》。金湊以地利的重要上請國王要修築內城舊基以抵抗外寇。

7、昔周公孔子皆大聖也，周公未免於有過，孔子未免於被毀，微孟子之辨則匡章未免為不孝無同舍之歸，則不疑未免為盜金，古之聖賢不幸被謗亦多有之。 願殿下不以被謗而輕崇仁也。（《高麗史》＜列傳卷第二十五＞）

此則出於《孟子・離婁下》。權近以孟子與通國皆稱不孝的匡章交遊，引人有所質疑之事來提醒國王需要有察辨之心，有過則改，不以被謗而對李崇仁有所定罪。

8、詹進九規: ″ 一曰養德三代之時人君必有師傅保之官師導之教訓傅傅之德義保保其身體故書曰: ’立*大師*大傅*大保茲惟三公論道經邦燮理陰陽……’人莫難於知過莫甚難於改過。 孟子曰: ’古之君子過則改之今之君子過則順之豈徒順之又從而為之辭。（《高麗史》＜列傳卷第三十＞）

此則出於《孟子・公孫丑下》。李詹列舉九規，第三條為改過，引孟子之言希望國王能夠有過則改，不要有過不改而且還強辯。

9、又上* 曰: ″東方自朝鮮之季離為七十合為三韓干戈爛 而相尋生民之肝腦塗地者……孟子曰: ’不孝有三無後為大。’ 以其絕祀也。 故古者父母終既葬於野虞而安神廟而祀之，此事亡如事存之道也。 吾東方家廟之法久而廢弛。 今也國都至於郡縣凡有家者必立神祠，謂之衛護，是家廟之遺法也。（《高麗史》＜列傳卷第三十＞）

此則出於《孟子・離婁上》。李詹引此則明家法的重要，從葬俗的修改強調事父母之孝。

10、天子誥命其為君成矣。又既已為臣矣而逐之大不可也。 此其說不亦是乎 ’ 則曰: ’王位太祖之位也。社稷太祖之社稷也。 玄陵固不得而私之也。’ 昔燕子之與燕少子 或曰: ’燕可伐歟。’ 孟子曰: ’不可。 子之不得與人燕子不得受燕於子之。’ 聖賢之心以為土地人民受之先君者也，時君不得私與人也。（《高麗史》＜列傳卷第三十二＞）

此則出於《孟子・公孫丑下》。高麗末期的鄭道傳引孟子與沉同的對話，帶出土地人民乃受之先君者，國王不得私相授受。

11、初司藝柳伯淳知礎等將上* 招諸生止之曰: ″天下既廣雖有異端何害吾道 ″ 生員尹向曰: ″天下安有二道 ″伯淳曰: ″諸生之志則大矣。 雖上書王必不聽何補於治 ″ 向曰: ″孟子云: ’吾君不能謂之賊。’ 吾輩雖不才安敢背前賢之格言受賊君之名哉 ″伯淳竟不能禁。（《高麗史》＜列傳卷第三十二＞）

此則出於《孟子・離婁上》。伯淳認為上書於王，王若不聽則於治無益。尹向引孟此之言說明若是如此，作為臣子

沒有盡到提醒國君遵循先王法度，反而不去勸戒他，這是賊害國君。強調人臣須盡勸戒國君以遵先王法度之責。

12、孟子曰: ″生亦我所欲也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舍生取義者也。″ 夫人孰不惡死哉 而忠臣義士一遇變故雖鼎 在前刀巨在後而不 者以所欲有甚於生故也。 高麗自仁宗以降王室多難而伏節死義之士亦不乏人。 今次其事作忠義傳。（《高麗史》＜列傳卷第三十四＞）

此則出於《孟子・告子上》。 此文載於列傳第三十四「忠義」條，引孟子之言說明作此傳者乃記那些捨生取義的忠臣義士。

13、金倫李齊賢樸忠佐等上* 曰: ″孟子曰: ’不仁者可與言哉 ’ 安其危而利其菑，樂其所以亡者。不仁而可與言，則何亡國敗家之有。 其有欺君罔民不憚天下之公論不畏天下之大法則不仁之大者也與之言尙不可，信之任之乎（《高麗史》＜列傳卷第三十七＞）

此則出於《孟子・離婁上》。此文載於列傳第三十四「嬖倖」條，金倫李齊賢樸忠佐等引孟子之言，極言康允忠乃是藉由荒淫不仁之人，「專權於國，流毒於民，至使先王存被譴訶歿稽贈謚。 若不舉正此賊之罪無以追明先王之忠。 伏乞轉呈上國以明前代之事非先王之過皆允忠所為，加此賊兩觀之誅雪先王萬世之恥」[7]。

以上乃十三則孟子引言在《孟子》一書中的出處以及內容分析，藉由此可以歸納出《高麗史》引孟子言之特色，論述如下。

參、《高麗史》引孟子言之特色

綜觀此十三則《高麗史》引孟子言，可得到之特色如下：

《高麗史》的體例為＜世家＞、＜志＞、＜表＞＜列傳＞，引孟子之言只出現在＜世家＞、＜列傳＞中。

幾乎為朝臣儒者進言或規勸時所用，只除了第十二則引孟子之言說明作＜列傳＞，「忠義條」者乃記那些捨生取義的忠臣義士。

引用者依序為李齊賢、鄭摠、尹瓘[8]、仁宗、李齊賢、金湊、權近、李詹、李詹列、鄭道傳、尹向、金倫李齊賢樸忠佐等引孟子之言[9]。由此來看，引用者頗眾，但其中以李齊賢引用三次較多。

引用的內容可大略分為三個方面：

在國家治理之方，如田畝土地劃分的重要、固守邊疆首要在國家自治、修築內城舊基以重地利。

人君自身的要求如心正、改過而不文過、不能私相授受；人臣須盡勸戒國君以遵先王法度之責。

社會方面重家法葬俗的修改，強調事父母之孝。

其中對於國君心正身正的要求出現三次，且由不同的三人提出，即李齊賢、權近、李詹，可知當時對於國君正心正身頗為重視；即便是尹向引孟此之言說明若是如此，作為臣子沒有盡到提醒國君遵循先王法度，反而不去勸戒他，這是賊害國君。強調人臣須盡勸戒國君以遵先王法度之責。那也是反映出國君有過之處須改之以正，而這些內容的反面，也可以看出當時高麗王朝國家社會的一些問題。

7) 見《高麗史》＜列傳卷第三十七＞。

8) 根據「瓘又使林彥記其事書於英州廳壁曰:：『孟子曰：『弱固不可以敵強，小固不可以敵大。』」之文，知乃尹瓘之言，林彥為記錄者。

9) 其中第十二則乃《高麗史》的編纂者有**鄭麟趾**等多人，不知確切何人所引，故不列入。

四 、結語

透過以上初步的分析，可知《高麗史》中引孟子之言多偏向在政治的部分，對於孟子心性論此一命題的引言並沒有出現。然而藉由這樣的分析也發現大約在仁宗之後，引孟子之言才漸次出現，到高麗末期則較為頻繁。或可和前文提到的恭愍王十六年設置五經四書齋的說法對照，五經四書齋中就包含了孟子齋，可知恭愍王時期開始講授《孟子》書，可說孟子學說開始發展在高麗中末期是較為明顯的。

【參考書目】

（漢）班固撰，《漢書》，臺北:中華書局，2012年
（後晉）劉昫等撰，《舊唐書》北京:中華書局，1975年
（宋）朱熹撰，《四書章句集註》，臺北:鵝湖出版社，2010年
鄭麟趾等，《高麗史》，臺北:文史哲出版社，2012年再版
楊朝全、何彤梅，《中國__朝鮮•韓國關係史》，天津:天津人民出版社，1996年
喜蕾，《元代高麗貢女制度研究》，北京:　民族出版社，2003年顏吾芟，《中國歷代文化概論》，北京:交通大學出版社，2006年
申斗煥，＜韓國儒學的發展現狀與當代價值＞，《東岳論叢》第32卷第12期，（2011.12）

【메 모】

【중국문학 분과】 발표 ⑧

오례를 통한 시경의 시 연구

송진열 (동서대)*

【초록】

우리가 인지한 사상은 하나의 행위로 전환되어 각종 예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선진시대 중국에서 시는 가, 악, 무의 일체로 시가 음악 행위인 노래로 불리워지며 악기의 반주와 더불어 무가 덧붙이면 시가 악으로서 완성된다.

중국 예악의 전형은 주나라 때 완성되어 그 후에 건설된 왕조의 정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주나라는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나 사회체제를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라는 규범을 만들어 인간의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길례는 천, 지, 인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천제 사상이 동양적 사상의 기본이 되었다. 궁중의 각종 의식인 왕과 제후와의 만남을 위한 궁중 혼인 잔치 의식인 가례가 있다.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영정의식으로 연회를 베푸는 빈례가 있다. 군사의식에 관한 군례가 있는데 이 의식의 목적은 군의 최고통치권자가 국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망한 자를 애도하는 흉례가 있다.

고대 중국인들의 생활 습관이나 사상을 읽을 수 있는 시경의 예악제도는 오례를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시경의 시들 중에 定之方中 (정지방중)은 국가의 종묘사직에 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용풍 시 중의 하나이다. 那(나)는 상나라 시대에 탕왕께 제사 드리는 악사 (樂詞)로 주나라의 제례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이 시에서 각종 악기가 연주되고 있는 용례를 볼 수 있다. 녹명 시는 임금과 신하들이 하는 각종 연회에 불러진 가사로서 빈례를 베풀어 서로간의 질서뿐만 아니라 악을 통해 화를 이루는 광경을 묘사한 대표적인 시이다.

간혜의 시에서 임금은 무무를 춘 무인에게 흡족해서 술을 내렸다. 이처럼 가악무가 한데 어우러진 대표적인 시이다. 여기에서 춤을 추는 이는 악인이 아니라 문인이다. 국풍의 시 관저에서 부부간의 결혼의 의식을 다루는 가례의 예로서 부부간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군례의 예와 관련된 시는 이번 논문에서 제외했지만 시경의 시를 통해 예나 악 제도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키워드】 예악, 오례, 정지방중, 나 (那), 관저, 가악무

1. 연구 목적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고하게 되면 행위로 옮겨지게 되고 행위 역시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시 시대에 인간은 농사를 중심으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연 현상을 주재하는 하늘에 대한 깊은 경천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원시 시대의 사람의 경천사상이 하나의 행위인 제천의식을 거행하도록 만들었다. 고대 시대에 제사장은 제천의식을 주관하는 부족장으로 제정일치의 시대였다. 부족국가에서 국가의 형태를 취하면서 제천의식은 하나의 국가의 행사로 바뀌고 이런 예식을 행하는데 음악이 수반되게 되었다. 고대 샤머니즘에서 신을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춤을 출 때 음악이 필수적이었듯이 제천의식의 종묘에 사용되는 새로운 음악

*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무속 신앙에서 종묘로 전환되면 음악 체계가 변화되게 되었다. 개념, 인식의 사상이 행위로서 음악 행위나 음악 체계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고대인들은 천신, 지신, 인신 등에 제사를 지내는 천지인의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고 국가가 형성되면서 천지인 사상이 하나의 종묘제례나 문묘 제례 등의 행위로 옮겨가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주나라의 주공은 예악 제도를 완성하여 선조들의 문덕이나 무공을 칭송하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런 의식에는 음악이 수반되어 제사의 분위기를 엄숙하거나 제사에 참여하는 이들의 화합을 가져다주는 악은 각종 의식이나 종묘제례나 연회나 회례에서 하나의 상징으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경의 예악 제도가 어떻게 시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경의 시들 중에 《관저》, 《녹명》, 《간혜》, 《정지방곡》, 《상체》, 《나》 같은 시에서 예악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나라가 건국되면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묘를 쌓음과 동시에 악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시경을 오례를 통한 시경 시의 분석을 통해 고대의 중국 예악제도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시경의 시들은 시이면서 노래가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학적 입장이나 악학의 원리를 통해서 분석될 수 있다. 시학적 입장이라면 육의를 근거로 해서 시가 과연 어떻게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통해 그 시의 성격이나 어떤 목적으로 묘사되었는가? 등을 규명할 수 있다. 그리고 시경의 시들이 악곡의 원리의 입장에서 분석된다면 중원 시대의 민간에서 읊어지는 노래나 귀족들의 노래, 궁정에서 음악으로 연주되는 시 등 풍, 아, 송의 장르나 흐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등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시경의 시들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나 사상을 읽을 수 있는 풍이나 각종 연회에서 사용하는 아나 각종 제사에 사용되는 노래가사인 송으로 이루어 졌다. 국풍에서 대부분 시들은 민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 『시경』시는 인륜의 시작이라고 할 남녀 간의 사랑 노래로, 즐거워하면서도 그 즐거움이 너무 지나쳐서 그 바름을 잃어서는 안 되고, 슬퍼하더라도 그 슬퍼하는 마음이 지나쳐 몸과 마음을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喜怒哀樂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음으로 해서 마침내 마음에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性情醇化를 말하였다.2)

시경의 시들은 인간의 감정들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궁중에서 제사를 지내는 노래 가사로 불리어졌고 춤과 함께 각종 의식에서 사용되었다. 시경의 시들은 주나라의 예악이 시행되었던 제도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다. 연구자는 경의 시들 중에 예와 악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길례, 빈례, 가례의 시들을 골라 분석하면서 고대 중국의 예악 제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시경에 나타난 예악 제도

고대 중국에서는 천자가 제후국에 불렀던 시의 가사 내용을 통해 정치가 잘 되고 있는가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 시경의 시들은 고대 중국의 예와 악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고 예가 하나의 국가의 통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통치 원리나 행위 규범이 예가 악을 통해 완성되는 예와

1) 曹本冶, 思想~行爲, 上海, 上海音樂學院出版社, 2008, p.10
2) 윤인현, 「논어에서 시경의 시」, 『국제 어문』, 2014, 60집, p.275

악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고재 중국의 예악 사상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논자는 예와 악의 사상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시들을 분석하기 전에 예와 악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3-1. 예

고대 중국인들에게 예는 의식행위나 기물의 사용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전달되었다. 시경의 시들에서 이런 5례의 예의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예는 일상생활에 침투되어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되었다.

> 예란 선진시기 사회생활 각 측면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서주말부터 동주 때까지 예에 대한 논술이 사회 중심의 과제가 되었다. 그것은 국가제도를 유지하는 기구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행위의 규범이었다. 예의 표현형식은 의식과 기물의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의식은 예용, 예사, 행위의 동작이고 기물은 행례자가 그것을 빌어서 사상을 표현하는 매체 자체로 삼았다. 기물의 사용과 예식의 진행을 통해서 예의 정신과 속 뜻을 나타내었다. 기물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 기물의 사용은 본질적인 물성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인위적인 예성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것의 상징적 의미는 어떤 경우는 실용적 가치를 뛰어넘기도 했다.[3)]

주나라는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나 사회체제를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라는 규범을 만들어 인간의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예는 신분 계급 간에 명확한 차이를 강조하는 유교적 세계관을 대표하는 단어이다.

> 유교는 임금과 사대부 그리고 평민 천민에 이르는 엄격한 신분의 구분을 해놓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하였다. 이 차별에는 남녀의 차이, 귀천의 차이도 포함된다. 이는 물론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는 필요한 것이다.[4)]

중국의 유교의 정치는 예의 의한 다스림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데 주나라 예악제도는 예법에 따라서 구체적 절차를 밟는 의식 행위를 하였다. 이런 엄격한 의식 속에서도 공동체를 하나로 이끄는 악이 수반되었다. 다시 말해 예와 악이 화합을 이루어 조화를 이루는 '和'를 이루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하였다.

> 예와 악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인간의 성품과 감정을 바로잡아 국가의 질서와 통합을 확보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5)]

중국의 문화의 핵심중 하나는 예악을 통한 和를 이루는 사상이다. 주나라 유가 예악은 천지나 조상들에게 지내는 궁중의 종묘나 조회나 연음 등 궁정의식과 사냥이나 임금 행렬 등의 의식에 예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악이 연주되었던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궁전에서 아악을 연주하였고 다른 국가의 사신들이 오면 연회를 베풀고 악을 연주하고 제사를 지낼 때 아악의 대표적인 악기인 진고나 종고의 악음을 사용하게 되었다. 오례는 유교 사회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질서와 규범으로 마땅히 지켜야할 법도였다.

유교시대에는 오례가 존재하였는데 이런 의식에는 항상 음악이 동반되었다. 그러면 오례에 대한 종류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길례는 천신·지신·인신 등에 관한 제례 의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종묘나 사직이나 천신 등에 바치는 제사 의식이다. 제례의의 예들로 증제나 상제는 국가에서 가을이나 겨울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화합을 꾀하였다.

주나라 때에 완성된 오례 중에서도 하늘에 제사지내는 종묘 제례가 아주 중요한 국가 행사가 되고 있었다. 오례 중의 하나인 길례에서는 천제, 제제, 인제 등 세 가지로 분류되면서 농업 사회에부터 시작된 천제 사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동양적 사상의 기본이 되었다. 주나라 이전에 상나라가 천제 때 살아 있는 사람을 제물

3) 詩經器物考釋, 陳溫菊, 文津出版, 2001, p.65.
4) 한국인, 삶에서 꽃을 피우다. 삼화인쇄, 2008, p.6
5) 금장태, 『한국 유학의 악론』, 예문 서원, 2008, p.5

로 바쳤지만 주나라가 건국되면서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를 기치를 들고 있었다.

> 우리 중국은 서주시대에 이미 인본주의 시대로 진입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중국은 민본주의 사상이 제일 먼저 나타난 지역 중의 하나였고 매우 성숙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6)

유교의 인본주의는 천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인간을 중시하는 민본주의가 국가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인본주의 사상은 임금과 신하, 부부, 부모와 자식 간에 질서가 필요하고 각종 제례와 빈례, 가례, 흉례 등의 의식에 필요한 예와 의식을 행하고 사람들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각종 악들이 제정되었다. 중국 주나라 때 사회 구성원간의 예뿐만 아니라 화합을 강조하는 예악 사상이 유교를 국교로 숭상한 조선시대에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조선조는 왕조 초기부터 예악이 요구하는 신성한 의례에 필요한 각종 의식을 정비하고 여기에 필요한 종래의 음악을 새롭게 조명하기도 하고 신악을 제정한다. 종묘와 사직 등 제례에 관한 의례, 군신간 계층간의 도덕적 의례 그리고 국가 간의 외교를 위한 의례와, 군대에 의한 의례, 국가 차원에서의 흉한 일에 관한 의례 등에 사용할 각종 음악과 가무를 재정비한다.7)

이런 오례의 의식은 왕권이나 국가체제 안에서의 사회질서라는 분명한 목적의지가 담겨 있다. 주나라 때부터 시행되었던 국가적 행사로서 실시되었던 오례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던 조선시대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조에 의례에 필요한 음악과 가무가 재정되었듯이 주나라 때 의식에서 예를 완성하는 수단인 악이 항상 연주되었다. 시경의 시들 중에 연회나 조회나 혼례 등을 묘사하고 있는 시들을 살펴보면 어떤 의식을 치르며 의식 중에 공동체간의 화합을 위해 가무와 악이 병행되었다. 주나라 때 완성된 예악은 하나의 표본으로 중국의 귀족들이나 일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념이 되었다. 이처럼 주나라 때 제정된 예악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악은 각종 궁중 의례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 수양에도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다.

시를 통한 시교가 인성이나 감정의 발달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다. 주나라 대부터 춘추 전국 시대의 시들이 편찬된 시경의 시들은 음악에 사용되는 가사로 예와 연관되어 있는데 시경의 시들은 조정의 연회나 큰 공 행사에 의식과 관련되어 음악이 연주되었다.

3-2. 시경에 나타난 악

시경에 나타난 악 제도를 살펴보기 이전에 성, 음, 악(“声、音、樂”)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후 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성이란 단순히 물체의 진동으로 나오는 소리로 객관적 으로 존재하게 되고 인간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음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 어떤 사물을 보면 사람의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면 성으로 드러나고 소리가 반복되면 변화가 생기고 그런 성과 성이 호응하여 문장이나 꼴을 이루게 된다. 이런 성들을 조합하거나 배열을 하게 되면 음이 된다.

사람이 외물을 보고 자기의 변화가 나오고 소리가 상응되어 하나의 가락이 생겨나고 그것이 음이 된다. 이 음이 악기로 연주되고 가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 시에 기악반주가 더해지고 춤까지 가미되었을 때 악이 된다. 시가의 노래와 기악 반주와 춤이 어우러지는 것을 악이라 한다. 다시 말해 음이라는 가락이 형성되어 악기로 반주를 하고 간척 우모를 들어 춤을 추면 악이 되는 것이다.

> 무릇 음의 일어남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은 물건이 이처럼 만드는 것이다. 물건에 느껴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에 나타난다. 소리가 서로 응하기 때문에 변을 생한다. 변해서 방법을 이루어, 이것을 음이라고 한다. 그 음을 모아 악기에 담아서 간척, 우모에 미치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 악이란 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사람이 사물에서 동한 그 마음에 근본을 둔 것이다.8)

6) 彭林,『禮樂人生』, 中華書局, 2006, p.5
7) 조운조,『조선시대 천제와 음악의 전개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7, p.3

시경의 시들은 노래를 위한 가사로 시는 말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기악 반주가 수반되고 무용이 첨가되면서 악으로 완성되게 된다. 시경의 시들은 본래 노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가의 노래와 악의 반주가 있고 문무와 무무가 추가되어 악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고대의 악은 시가, 음악, 무용이 삼위일체가 된 종합예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고대에는 시는 곡조가 얹어져 노래를 위한 악보로 쓰여졌기 때문에 시와 악은 분리되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고대 선진 중국에서는 악가무가 함께 행해지면서 동시대에 살았던 감정을 공감하면서 예술 문화적 사회적 심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사회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신경 미학학자 디사나야케는 예술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임을 이야기 하고 있다.

디시나야게는 예술을 관습적으로 치러지는 하나의 의례로 보았다. 그녀는 미적 경험과 분석에서 개인의 예술적 접촉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역할로서의 예술적 접촉을 강조했다. 예술은 협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 예술은 하나의 의례 행위로서 고대부터 농경 시대의 풍요나 하늘을 향한 제천 의식이나 조상들이나 외교 사신을 위한 빈례나 궁중 혼인 장치의 일종인 가례에서 가, 악, 무가 종합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사회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
>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의식이나 조상을 향한 제례의식, 혹은 부족의 각종 악무활동이나 빈례를 행함에 있어 음악은 빠질 수 없었으며, 그 부족의 취합과 통합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기복의 공명을 천지에 전달하기 위해 그 중심에 또한 고 혹은 고로 상징된 악기는 필수였다.[9]

악은 당시의 사회상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수단이고 사회의 통합을 이루거나 개인의 수양을 위한 수단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악기에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의 줄은 오행 사상을 반영하여 5개의 줄로 형성되었으나 두 개의 줄이 더 추가되어 문왕과 무왕의 문덕과 공덕을 찬양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4. 시경과 예악 제도

주나라는 봉건제도로 왕은 사회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해 예악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예는 각종 의식이나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작용하였고 각종 의식에도 악이 첨가되어 예악제도가 고대를 특징지을 수 있다. 시경은 고대 주나라의 예악제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들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예와 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시경은 통치자들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글로서 교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 간혹 시경의 국풍에 들어 있는 민가들처럼 서민에게서 나온 것들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전한 것은 사대부들이며, 따라서 서민의 감정이나 생활을 노래한 민요라 할지라도 그 해석을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행하여졌고 그것들이 전해지고 읽혀진 의의도 정치적인 가치에 있다.[10]

고대 중국인들이 시를 채집했던 주목적은 시의 가사 내용을 통해 민심을 읽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노래 가사인 시의 내용은 그 당시 고대 중국의 풍속을 알 수 있고 가사 내용을 통해 민심을 읽을 수 있다. 공자는 음악을 정악과 속악으로 분류하였는데 빠른 음악인 속악의 음률들은 너무 촉박하고 다급하게 몰아쳐 백성들이 음악을 듣고 흥분되거나 성을 내도록하기 때문에 민심을 해하는 나쁜 음악이라고 분류하였다.

주나라 때 예를 제정하면서 그것을 극대화하기 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예악 제도를 완성하였다. 예의란

8) 『예기』, 「악기」편, 평범사, 1976, p.68
9) 이성원, 고대 중국의 악의 기원과 그 변화, 『동양 사학 연구』, 94집, 2006, p.35
10) 김학주, 중국 고대 문학사, 민음사, 1983, p.17

의식에서 지켜야 할 의식으로 천신 지신 인신 등에 대한 기례가 존재하는데 국가에서 지내는 종묘 제례는 선왕들의 문공과 무덕을 칭송하는 동시에 왕권이나 국가 체제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식이 행해졌다. 군례를 통해서 군의 최고 통치권자가 국왕이고 빈례를 통해 왕이 제후를 초청해 잔지를 베푸는 연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시경의 시들은 오례중 길례나 빈례나 가례의 시들의 분석을 통해 주나라의 예악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길례와 정방지곡과 나

시경의 시 定之方中 (정지방중)은 국가의 종묘사직에 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용풍 시 중의 하나이다.

定之方中 (정지방중)
定之方中(정지방중) : 정성이 남녘 하늘 가운데 빛나는데
作于楚宮(작우초궁) : 초구에 궁실을 짓는다
揆之以日(규지이일) : 해로 방위를 지어
作于楚室(작우초실) : 초구에 궁실을 짓네.
樹之榛栗(수지진율) : 그곳에 개암나무와 밤나무와
椅桐梓漆(의동재칠) : 의나무 오동나무 가래나무 옻나무 심는데
爰伐琴瑟(원벌금슬) : 이를 베어다가 금과 슬을 만들것이라네

우리는 이 시에서 성이 완성되는 날에 개암나무, 밤나무 금슬을 만들 수 있는 의나무, 오동, 가래나무와 옻나무를 심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정지방중은 춘추시대 위국의 의공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은 후에 위문공은 송환공, 제환공 기타 제후의 도움을 받아서 백성들을 데리고 3일 동안 소생하고, 궁실을 지었고 악기를 연구하여 제조한 송가를 기록하고 찬양한 시이다.[11]

금슬의 악기 제정은 종묘사직이나 궁실을 짓는 만큼 국가의 대사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악은 국가의 정치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경의 대아편의 나 (那)는 종묘 제례에서 예와 악이 함께 수반되는 예악제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시이다. 나 (那)는 상나라 시대에 탕왕께 제사 드리는 악사 (樂詞)로 주나라의 제례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로 당상에서는 큰 북이나 작은 북이나 피리가 연주되고 당하에서는 편경이 연주되고 무용들이 행해지면서 제사 의식을 행하고 있다.

나 (那)
鞉鼓淵淵 (도고연연)
嘒嘒管聲 (혜혜관성)
庸鼓有斁 (용고유역)
萬無有奕 (만무유혁)

이 시에서 북을 두드리거나, 경을 치고, 피리를 불고, 종을 치고 탕자 손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탕왕을 기리면 추모하는 노래 시이다. 시경에 나타난 那(나)의 시를 통해서 볼 때 선조를 기리고 추모하는 종묘 제악 때 사용하기 위한 노래 가사로 악과 무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천지나 땅에 지내는 종묘 제례에 가, 무, 악이 어우러진 길례가 드러나 있는 시이다. 시경에는 종묘제례의 시와는 달리 일상의 연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빈례의 여러 시들이 있어서 주나라의 예악제도를 볼 수 있다.

11) 李祥霆, 詩經宗議, 中國 人民大學 出版社, 2013, p.24

4-2. 빈례와 시 녹명

주나라의 연회에서 보여주는 예악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는 녹명이다. 이 시는 향음 주례, 연례, 사냥 예식에서 노래 불리어졌다. 이 시는 유교의 인본주의인 임금과 신하의 군신유의, 부부간의 질서인 부부유별의 예인 질서를 주장하면서도 악을 통해 서로간의 화합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녹명 시는 임금과 신하들이 하는 각종 연회에 불러진 가사로서 빈례를 베풀어 서로간의 질서뿐만 아니라 악을 통해 화를 이루는 광경을 묘사한 대표적인 시이다.

>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으로 원래 녹명(鹿鳴)은 임금이 여러 신하와 귀한 손님에게 잔치를 베풀고 사신(使臣)을 송영(送迎)하는 데 쓰인 악가였는데, 그 후에 연례(燕禮)와 향음주(鄕飮酒)에서 쓰였다. 그 내용은 우는 사슴에게 먹이를 주듯이 임금이 신하를 불러 향응(饗應)함에 비유한 것이다[12)]

<小雅(소아)> 편의 녹명 시집에서 악을 통한 군신간의 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가 (嘉)의 어원을 살펴보면,

> 嘉에서 壴(북 주)가 의미부이고 加(더할 가)가 소리부로 북소리 (壴)를 더함(加)으로써 만들어지는 즐거움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그래서 좋다, 아름답다가 원래 뜻이며, 이로부터 즐겁다, 경사, 혼례 (嘉禮) 등의 뜻이 나왔다. 갑골문에서 장신이 달린 북 (壴)과 쟁기 (力 력)를 그려 쟁기질 (力)로 상징되는 생산을 위한 노동과 북 (壴)으로 대표되는 즐거운 음악이라는 두 개념을 결합해 즐거움을 상징했다.[13)]

이처럼 樂이 가해질 때 흥이 생겨나게 악이 가미된 의식에서 군신간의 질서가 지켜지고 서로간의 화를 이루는 모습을 녹명을 노래하고 있다.

鹿鳴(녹명)	
我有嘉賓	내게 좋은 손님 오시어
鼓瑟吹笙	슬뜯고 생활불면 즐기네
吹笙鼓簧	생황 불며
我有嘉賓	내게 좋은 손님 오시어
鼓瑟鼓琴	슬 뜯고 금을 타며 즐기네
鼓瑟鼓琴	슬뜯고 금 타며 즐기니
和樂且湛	화평하고 즐거움에 젖어드네
我有旨酒	내게 맛있는 술이 있어
以燕樂嘉賓之心	잔치 베풀어 좋은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네

이 녹명은 왕이나 제후들이 신하를 초청하여 향음을 베풀어 군신의 예를 지키는 대표적인 시이다. 군신은 아시 주행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아시주행 (주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소서)”라는 시구를 통해 이상국가의 주나라의 예악을 본받아 군신 간에 예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통해 화합을 이룰 수 있음을 희망하고 있다. 아시 주행의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선왕이 향연을 베풀어 신하들을 사랑해주기를 희망하는 사상의 드러나고 있다. 이 시는 군신유의의 윤리질서가 강조되면서도 군주의 자혜로운 마음이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鹿鳴의 시는 화를 상징하는 금과 슬이 연주되고 생황이 연주되는 주대의 예악 제도의 실살을 볼 수 있다. 이 시는 군주와 신하가 예악으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예악 제도를 볼 수 있다. 시경의 시 간혜는 시와 음악과 무용이 추가되면서 진정으로 가 악무의 삼위일체로서의 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이다.

12) 녹명 [鹿鳴],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13) 하영삼, 한자 어원 사전, 도서출판, 2008, p.4

간혜는 향음주례하는 궁중예식을 보여주는 시로 임금은 보통 악공에게 술을 하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간혜의 시에서 왕은 춤을 추는 석인 즉 재능 있는 무인에게 술을 내려주고 있다. 왕이 자리 잡은 다음 악대들이 의전을 펼쳐 생음악을 연주하게 된다. 그러면 무용수들은 악기의 연주에 맞춰 문무나 무무를 추는 사람은 간척이나 우모를 들고 춤을 춘다.

간혜 (簡兮)
簡兮簡兮 (간혜간혜) 익숙하게 익숙하게
方將萬舞 (방장만무) 막춤을 추고 있네
左手執籥 (좌수집약) 왼손에 피리들고
右手秉翟 (우수병적) 오른 손에 꿩깃 들었네
赫如渥赭 (혁여악자) 붉게 얼굴 상기되니
公言錫爵[14] (공언사작) 임금께서 술잔 내리시네

이 간혜 시는 춤이 가무디면서 시가 가 악 무의 종합적 예술 형태를 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경의 시들의 각종 연회에는 악기 연주와 춤이 동반되어 흥을 돋우게 되었다. 이 간혜 시는 군신유의를 윤리의 예를 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음악과 무용이 끝난 후 예만 지켜야 하는 신분 질서를 넘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서로간의 화합을 이루는 고대 사회의 연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대의 연회에서 행해졌던 춤은 문덕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문무와 무공을 찬양하기 위한 무무로 양분되어 있다. 고대 시대에 악은 연회나 회례나 각종의식에 사용하면서 사회를 통치하고 화합을 이루는 요소로 간혜의 시에서 볼 수 있고 국풍의 첫머리에 있는 관저는 혼인에 관한 풍속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시이다.

4-3. 가례와 시경 시 관저

시경은 민요를 기록하고자 하는 중국인의 생활상이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는데 역사적 무대는 주초부터 춘추말기이다. 시경의 시들은 고대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사상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 국풍의 관저가 시경의 첫머리에 놓여 있는 이유는 남녀 특히 부부가 지켜야 할 예를 보여주고 시이기 때문이다.

> 시경의 제일 첫머리에도 부부지락을 읊은 시인 관저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시경의 첫머리에 놓은 이유는 이 세계의 질서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 부부의 관계가 바로 서야하기 때문이다. 난며가 배필을 구할 때는 신중히 가려야하고 예를 갖추어야 하며, 부부간에 예을 지켜 공경하며, 금슬처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15]

관저는 가례의 풍속사가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인 시로 남자가 여자와 혼인을 하기 위한 행동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시에서 군자가 요조숙녀를 구하는 관저는 민가에서 채집되었지만 사대부들의 혼인관을 대표하는 시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고대 청동기 시대에 금슬을 특히 종고는 왕이나 귀족들이나 사대부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관저 (關雎)
窈窕淑女 (요조 숙녀) 아리따운 아가씨와
琴瑟友之 (금슬우지) 금슬타며 함께 하고 싶네
窈窕淑女 (요조숙녀) 아리따운 아가씨와
鐘鼓樂之 (종고락지) 풍악 울리며 즐기고 싶네

14) 『시경』, 성균관대 출판부, 2008, p.153: 의례에 연음할 때 악공에게 술잔을 내려주는 예임.
15) 정수미, 조선시대 제망실문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경성대학교, 1999, p.19

위의 구절 “요조숙녀, 금슬우지”라는 어구가 표현하듯 고대 중국에서 남녀 간의 애정이나 부부의 화합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금슬이다. 그 당시에 주대 시대에 금슬의 악기가 연주되었다는 표시이며 특히 숙녀가 군자에게 예를 다하고 군자는 혼인을 한 후 부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인을 즐겁게 만들어주어야 함을 가르치는 교화의 수단으로서 시의 면모를 볼 수 있다. 특히 위의 시에서 금슬우지의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부간의 우정이나 화는 악이 동반되었을 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여기에서 “우”자는 친절하고 융합한 뜻을 가지고 있다. 원래의 해석은 금슬이 제일 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룬다고 했는데 그래서 군자가 요조 숙녀에 사랑에 빠진 것이 제일 이상적이고 제일 조화롭다. 그런데 이 구시는 다른 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우는 동사로 써서 군자가 금슬로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금슬을 쳐서 숙녀가 가깝게 되려고 하고 숙녀와 사귀기 위해 금슬로 숙녀를 감동시킨다. 왜냐하면 이 시의 마지막 문장은 “요조 숙녀, 종고락지”이었다.16)

금과 슬로 연주된 악은 느린 음악으로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음악을 들은 요조숙녀는 군자의 배려심에 사랑과 고마움을 느끼고 어떤 존경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관저 시의 마지막 구절 ‘종고락지’라는 어구에서 볼 수 있듯이 종과 북은 서로 함께 연주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북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종은 금속악기로 되어 있고 각기 음색이 다른데 조화를 이룬다. 이처럼 악은 예를 실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결국풍의 시 관저는 엄숙한 예에 악이 추가되면서 서로 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고대 중국인들의 예악 사상을 볼 수 있든 대표적인 시이다.

나가며

시경은 풍, 아, 송의 3가지로 나뉘어져 각종 시가들이 종합 편찬된 경전으로 주나라 때 주공이 완성한 예악 사상의 전형을 볼 수 있다. 본 논고는 중국인의 철학사상의 가장 근본인 오행 사상 중 오례 중 길례, 빈례, 가례에 맞추어 시경을 분석하였다. 우리는 시경의 시들을 통해서 예의지방으로 칭송되는 중원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중국인들의 생활규범이나 정치적 목적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시경의 시들 중에 연회나 조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시 녹명에서 볼 수 있듯이 군신간의 경의를 강조하는 윤리의식을 보면서도 음악을 통한 조화를 중시하는 시경은 주나라의 예악 제도를 볼 수 있는 경전임을 알 수 있다. 국풍의 첫 번째 시인 관저를 보더라도 부부유별의 모습을 통해 예를 지키면서도 악을 연주하면서 화합을 중시여기는 고대 중국인들의 면모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경은 예의 모습이나 특히 악기의 사용 등을 통해 질서만을 강조하는 예를 완성시키는 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 고대 중국인들이 예를 엄격한 예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화합을 꾀하는 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논고에서는 오례 중 길례, 빈례, 가례 풍속이 나타나고 있는 시경을 시를 분석했지만 군례나 상례에 관한 시들을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음 논고에서는 군례나 상례에 관한 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李祥霆, 詩經宗議, 中國 人民大學 出版社, 2013
2. 曹本冶, 思想~行爲, 上海, 上海音樂學院出版社, 2008

16) 李祥霆, 詩經宗議, 中國 人民大學 出版社, 2013, p.27

3.『예기』,「악기」편, 평범사, 1976
4. 윤인현,「논어에서 시경의 시」,『국제 어문』, 2014, 60집
5. 한국인, 삶에서 꽃을 피우다. 삼화인쇄, 2008
6. 금장태,『한국 유학의 악론』, 예문 서원, 2008
7. 彭林,『禮樂人生』, 中華書局, 2006
8. 조운조,『조선시대 천제와 음악의 전개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7
9. 이성원, 고대 중국의 악의 기원과 그 변화,『동양 사학 연구』, 94집, 2006
10. 김학주, 중국 고대 문학사, 민음사, 1983
11. 하영삼, 한자 어원 사전, 도서출판, 2008
12. 정수미, 조선시대 제망실문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경성대학교, 1999

【중국사회과학 분과】 발표 ①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상표권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초연 (한국해양대) · 차경자 (한국해양대)

목 차

- Ⅰ. 서론
- Ⅱ. 관련 개념
- Ⅲ. 사례분석
- Ⅵ. 신<전자상거래법>의 영향
- Ⅴ. 결론

Ⅰ. 서 론

- 현재 중국은 세계최대 전자상거래 시장 보유
- 2017년 중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규모는 71,751억 위안, 2016년 대비 39.16% 증가
- 2018년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6억 명 돌파 (중국 인구의 42.8%)
- 온라인 점포들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판매 역시 증가하고 이에 관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음
- 한국의 이랜드가 중국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상대로 상표권 간접침해소송에서 승소한 이래, 온라인 쇼핑몰의 법적책임이 강화됨
- 2019년 1월 1일부터 신'전자상거래법'에서도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타오바오에는 한국인이 개설한 점포도 많고, 한국인의 이용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상의 상표권 침해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Ⅱ. 관련 개념

- 1. **전자상거래의 개념**
  - 중국 경내에서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전자상거래법> 제2조)
  - 예외: 금융상품과 서비스, 정보망을 통해 뉴스, 음악, 동영상, 출판 및 문화상품 등의 내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2. **전자상거래 경영자(电子商务经营者)의 개념**
  -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과 비법인조직 (동법 제9조 1항)
  - 종류: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내 사업자, 자체 사이트 또는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Ⅱ. 관련 개념

- 3.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电子商务平台经营者)의 개념**
  - 거래 쌍방 또는 다자간을 위해 인터넷 사업장 제공, 거래 알선, 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동법 제9조 2항)
  - 한국의 인터넷 오픈마켓과 유사함 (G마켓, 11번가, 옥션 등)
  - 중국의 타오바오(淘宝) 등이 이에 속함
- 4. **플랫폼 내 경영자(平台内经营者)의 개념**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동법 제9조 3항)
  - 예) 타오바오에 입점해있는 점포

Ⅱ. 관련 개념

• 5. 상표권침해 간접침해의 개념

– 1) 상표권 침해행위 (<상표법> 제57조)

-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일상품에 유사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상품에 동일상표 혹은 유사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상표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위조 무단 제조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상표를 변경하고, 변경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
-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타인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 → 간접침해행위**

– 2)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표권 침해 유형

- 플랫폼 내 경영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위조상품을 거래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
- 타인의 상표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특정 광고주의 사이트를 노출시키는 행위

Ⅲ. 사례분석

• 1. 전자상거래 당사자들간의 법적 관계

1) 플랫폼 경영자 ↔ 플랫폼 내 경영자(판매자)

- 플랫폼 내 경영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등록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계약관계 성립
- 플랫폼 경영자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광고 등 부가서비스 제공
- 법률상 가상 점포의 임대차 관계 or 상법상 명의대여자 관계 or 중개행위

2) 플랫폼 경영자 ↔ 소비자

- 상품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와의 상품거래에 대해 직접책임 없음
- 단,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신체안전, 재산안전 보장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함 (<전자상거래법> 제38조 1항)

Ⅲ. 사례분석

1. 전자상거래 당사자들간의 법적 관계

3) 플랫폼 내 경영자(판매자) ↔ 소비자

- 일반적 상품매매계약의 당사자

4) 플랫폼 경영자 ↔ 상표권자

- 플랫폼 내 경영자(판매자)와 상표권자 간에 직접적 침해행위가 있어야 법적 책임관계 발생
- 플랫폼 경영자는 침해행위의 간접 당사자이며, 아래에 해당될 경우 간접침해 인정
  - 직접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거나,
  - 직접침해행위에 관여하거나 기여했을 경우,
  - 직접침해행위 인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Ⅲ. 사례분석

• 2. 사례분석: 이랜드(衣念) vs. 타오바오

1) 사건개요

- 한국 이랜드는 1994년 중국 의류산업에 진출하면서 중국 상해에 衣念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곰돌이 캐릭터와 티니위니(Teenie Weenie) 상표를 등록함(제1545520호, 제1326011호)

图一为第1545520号注册商标。

图二为第1326011号注册商标。

Ⅲ. 사례분석

- **2. 사례분석: 이랜드(衣念) vs. 타오바오**

1) 사건개요

- 이랜드는 타오바오에 점포를 개설한 A가 해당상표를 불법 부착한 의류를 정품의 10-50%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
- 이랜드는 타오바오에 7차례에 걸쳐 신고했지만, 타오바오는 관련 의류 정보만 삭제조치하고 다른 조치는 하지 않음
- 2009년 9월, 이랜드는 타오바오가 상표권 침해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제소함
- 1심법원은 타오바오가 침해행위를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방임하여 침해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A와 타오바오가 공동으로 3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타오바오가 상소함
- 2심법원은 1심 판결 지지함

Ⅲ. 사례분석

- **2. 사례분석: 이랜드(衣念) vs. 타오바오**

2) 법적쟁점

① 플랫폼 경영자의 법적 지위

- 중개서비스제공자 : 타오바오는 거래의 장소로서, 물품 혹은 서비스의 정보를 취득하고, 교역대상을 물색하고, 물품 혹은 서비스의 거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거래하는 장소이다(타오바오의 '이용자 약관' 중에서)
- 중국법은 플랫폼 경영자의 법적지위나 계약의 성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② 플랫폼 경영자의 의무범위

- 사전에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주의를 고지할 의무
- 입점 점포들의 합법성에 대해 필요한 심사를 할 의무
- 문자, 사진, 증서 등을 통해 상품의 합법성을 증명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
- 침해행위 발생 후에는 거래를 중지하고, 침해물품의 유통을 막을 의무

Ⅲ. 사례분석

- **2. 사례분석: 이랜드(衣念) vs. 타오바오**

2) 법적쟁점

③ 플랫폼 경영자의 면책조건

- <侵权责任法>제36조,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 **플랫폼 경영자가 실제 침해행위의 발생사실을 몰랐거나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
- **플랫폼 경영자가 침권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을 경우**
- **침권행위를 인지 한 후, 즉시 관련 정보를 삭제했을 경우**
- 과연 타오바오는 위의 면책조건을 만족시켰는가?

Ⅲ. 사례분석

- **2. 사례분석: 이랜드(衣念) vs. 타오바오**

3) 판결의 시사점

- 이 사건의 최대핵심은, 타오바오의 상표권 간접침해 책임 여부임
- 중국법원은 타오바오가 직접적인 거래당사자는 아니지만, 플랫폼의 관리자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금전적으로 배상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간접침해 책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
  - 상표법 제57조: (6)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타인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타오바오가 상표권 침해행위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명시함

Ⅲ. 사례분석

- **2. 사례분석: 이랜드(衣念) vs. 타오바오**

3) 판결의 시사점

- 플랫폼 경영자의 의무이행에 대해 기준을 제시함
  - 타오바오는 <淘宝网服务协议>, <商品发布管理规则>, <淘宝网用户行为管理规则> 등의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음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제 역할을 못하여 원고의 손해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금전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함
  - 법원은 타오바오가 침해행위 '**인지**'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명시함으로써, 인지 하지 못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플랫폼 경영자가 간접침해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음

Ⅵ. 신<전자상거래법>의 영향

- **1.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 규정 강화**
  -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신체안전, 재산안전 보장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연대책임 부담 (제38조 1항)
  - 소비자의 생명, 건강과 긴밀히 연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격에 대해 충분히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비자에 대해 안전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책임부담 (제38조 2항)

VI. 신<전자상거래법>의 영향

- **2. 플랫폼 경영자에 대한 특별규정 명시** (제27-46조)
  -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신분, 주소, 연락처, 인허가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해당 정보에 대해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해야 함
  - 제공받은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 또는 세무부서에 보고
  - 플랫폼에서 생성한 상품과 서비스의 정보 및 거래 정보 등을 기록, 보존해야 하며, 보존기한은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이어야 함
- **3.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권리자는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플랫폼 경영자에게 통지하여 삭제, 차단, 접속중단,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플랫폼 내 경영자는 침해 통지를 받은 후 권리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플랫폼 경영자는 이를 권리자에게 전송하여 신고 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함

VI. 신<전자상거래법>의 영향

- **4. 법적책임 강화**
  - 플랫폼 경영자가 권리자의 침해통지를 받은 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의 확대 부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함
  - 잘못된 통지를 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통지를 한 자는 이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악의적인 통지를 하는 경우 2배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 플랫폼 경영자가 침해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삭제, 차단, 접속중단,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함

V. 결 론

- 플랫폼 경영자에게 대한 간접책임 범위가 확대되면, 전자상거래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려움
- 현행법 상의 기준도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례별로 판결이 다름
-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침해행위에 대응해야 함
- 신<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경영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에 향후 플랫폼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이는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이어져 거래의 일시적 위축을 초래할 것임
- 이에 따라 신<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메신저를 통한 거래 방식이 폭발적인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의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메 모】

【중국사회과학 분과】 발표 ②

시진핑 정부 해양 전략의 목표와 의미

김지예 (부산외대)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21세기의 '대국굴기(大國屈起)'를 지향하면서 구축되고 추진되어 온 시진핑 정부의 해양 전략의 세부 내용과 특징, 정치적·외교적 목표를 고찰하고, 이전 시기의 중국 해양 전략과의 차이점을 분석하며, 그러한 해양 전략과 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방향성이 현재의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문제점과 한계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 작업은 21세기 중국의 정치·외교적 본질을 이해하고, 한국의 바람직한 대중(對中) 외교 전략을 수립하며, 해양에서의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유효한 이론적, 실무적 지침을 마련하는 기초 토대가 될 것이다.

제2장 시진핑 정부의 해양 전략

1. 해양 전략의 범위와 목표

1) 근해(近海) 방어와 원해(遠海) 호위

시진핑 정부의 해양 전략이 이전의 마오쩌뚱 시대, 덩샤오핑 시대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근해 방어, 원해 호위'의 보다 확장된 총체적 전략이라는 점이다. 즉, 마오쩌뚱 시대의 '연안 방어', 덩샤오핑 시대의 '근해 방어'라는 다소 수동적, 제한적인 해양 전략 범위를 벗어나서 '근해 방어, 원해 호위'라는 보다 넓은 범위에 걸친 해양 방위 전략과 해양 이익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해양 이익 보호와 해양 강대국화

이러한 범위와 원칙 하에 중국의 해양 이익을 보호하고, 그를 통해 해양 강대국화, 해군 현대화, 해상 경제로 장악을 통한 경제 강대국화 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이 핵심 지침이자 실천 강령이 되는 것은 중국이 2011년 9월에 발표한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에 규정된 국가 핵심 이익으로서, ①국가 주권, ②국가 안보, ③영토 보전, ④국가 통일, ⑤헌법에 기초한 국가 정치 제도와 사회 안정, ⑥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에 대한 기본 보장 등 6대 영역의 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수호 의지를 천명하였다. 즉, 시진핑 정부의 해양 전략은 국가 핵심 이익의 중요 구성 요인인 근해와 원해의 이익과 주권을 총체적으로 수호하려는 목표 하에 구축되는 것이다.

이처럼 확장·심화된 해양 전략 범위 및 해양 이익 보호 목표는 주변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서 전반적인 국제 질서에도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세부 내용과 의미, 국제 정치 및 국제 해양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 인도, 일본 등 주요국들의 반응과 대응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다.

2. ‘일대일로’ 정책과의 연계

1) 일대일로 정책의 내용과 의미

시진핑 정부의 해양 전략은 2013년 10월부터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즉 ‘One Belt One Road’ 정책과도 연계되면서 내용적으로 더욱 확장되었다. 2013년 10월에 시진핑이 국제적으로 천명한 일대일로는 육상과 해상 양면에서 중국 주도의 국제적인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원대한 국가 전략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향후 적어도 35년 동안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제적,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깊게 뿌리내릴 계획이다. ‘일대(一帶)’는 여러 지역들을 통합하여 구축한 ‘하나의 지대’[One Belt]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의 ‘육상 신실크로드’를 지칭한다. ‘일로(一路)’는 ‘하나의 길’[One Road]을 의미하며, 중국→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로 이어지는 21세기의 ‘해양 신실크로드’를 뜻한다.

2) 일대일로 정책의 목표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중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경제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2000년대 이래로 중점적으로 추구해 온 대국굴기의 구체적인 실천 강령, 혹은 행동 지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강대국(G2)으로 웅비하고자 하는 일대일로 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시진핑 정부의 해양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해상 전략의 의미를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시진핑 정부의 정치·외교 전략

시진핑 정부의 해양 전략 및 그 연장선상인 일대일로 정책의 본질과 의미를 좀더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정부의 정치·외교의 대원칙과 핵심 전략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진핑 정부의 정치적, 외교적 목표와 전략이 국가 운영의 대강령이고, 해양 전략이나 일대일로 정책은 그 실천 세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의 정치·외교 목표와 전략을 고찰하는 것은 해양 전략의 의미를 종합적,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1. 정치적 전략과 목표

해양 강대국화, 강력한 해군력 건설 및 증강, 해양 군사 전략 확대, 해상 경제권 장악 등으로 요약되는 시진핑 정부의 다분히 공격적이고도 확장된 해양 전략은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 도약·발전하고자 하는 ‘중국의 꿈’이라는 원대한 정치적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11년에 6대 영역으로 구성된 ‘국가 핵심 이익 수호’에 대한 의지를 국제 사회에 노골적으로 천명하였다. 2012년에 중국 최고 지도자로 집권한 시진핑은 ‘중국의 꿈’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 시진핑의 강국(强國), 강군(强軍), 경제 부흥에 대한 정치적 염원과 비전은 마치 전근대의 중화(中華) 사상이 21세기에 ‘신형 중화사상’으로 부활된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현재의 중국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중화몽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그와의 연계 속에서 해양 전략의 구체적, 본질적 의미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외교적 전략과 목표

1) 신형 대국 관계 구축

21세기를 주도하는 세계 2대 강대국(G2)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상에 걸맞는 국제 관계와 외교적 역할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신형 대국 관계'라는 개념 하에 G2 국가에 적절한 외교적 규범을 스스로 규정하였다. 신형 대국 관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내용이기보다는 중국의 주도권과 국제적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내용에 보다 가까운데, 이처럼 중국의 외교적, 국제적 역할을 확대 강조한 신형 대국 관계는 중국이 보호하고 호위해야 할 영토 및 해상 영역에 대한 관념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해 방위, 원해 호위의 해양 전략 범위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2) '주동작위(主動作爲)'의 외교

'주동작위'는 해야 할 일을 주도적으로 실천한다는 의미로서, 중국이 국제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그 속에서 중국의 이익을 당연히 반영하고 관철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인 협력 요청을 수락하여 해외에서의 양국 간 군사·외교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관철하는 데에도 외교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군력 현대화, 해상 군사력 증강을 통한 중국 해양 작전 능력의 제고는 주동작위 외교 실천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런 외교적 전략과 필요성에 의해 해양 전략의 목표와 의미를 분석할 경우, 문제의 본질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시진핑 정부 해양 전략의 문제점과 한계

1. 대외적 문제점

시진핑 정부의 확장된 해양 전략과 목표 및 그 토대가 되는 원대하고도 치밀한 정치적, 외교적 목표는 자연스럽게 21세기 중국의 해양 전략의 능동성, 공격성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주변국과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견제와 우려, 상호 충돌 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주변국, 주요 강대국 간에 진행되는 영유권 및 이익 분쟁, 불안정한 주변 정세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시진핑 정부의 신형 해상 전략 및 그 기저의 정치적, 외교적 목표의 문제점과 한계를 대외적 측면에서 정리해 보겠다.

2. 대내적 문제점

한편, 시진핑 정부의 공격적인 해양 전략은 국내 정책과의 부조화, 중국 사회 발전 수준과의 불균형, 선진 법률이나 제도의 미비함 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대내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내적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적 문제로서, 2010년대 이후부터 중국은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져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데, 이런 발전 장벽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강한 국가'를 지향하면서 확장적, 공격적인 외교 정책과 해양 전략을 계속 강행할 경우, 중국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초래될 각종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도 중국의 당면한 난제 중 하나이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시진핑 정부의 해양 전략의 내용과 특징, 정치적·외교적 목표, 영향과 의미, 문제점과 한계 등을 분석·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의 중국 해양 전략 및 그 토대가 되는 정치적, 외교적 목표와 비전 등의 수정·보완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봄으로써, 한국의 대중 외교 전략 수립과 중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유효한 이론적, 실무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중국사회과학 분과】 발표 ③

선전: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과기원(科技园)

이중희 (부경대)

광저우: 씨족결속력을 잘 보여주는 천쟈츠(陈家祠)

1일 최대 100만 명이 찾는 북경로

광저우 남역에서 광저우의 번화가인 북경로로 향했다. 북경로까지는 전철을 이용하면 된다. 북경로는 광저우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 보행가이다. 1일 평균 유량이 40만 명, 경축일이나 휴일에는 60만 명, 최고치일 때는 100만 명에 이르는 번화가이다. 북경로의 연원은 명·청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경로에서는 광저우의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시티투어버스를 탈 수 있다. 비용은 약 30위안이다. 3개의 노선이 있다. 그 가운데 광동성 천씨들의 사당이자 서원인 천쟈츠(陈家祠)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다. 전철로 갈 경우에는 1호선인 천쟈츠역에서 내리면 된다.

대형 씨족 사당·서원, 씨족 결속력을 잘 보여 주는 천쟈츠

청 말에 건립된 광동성 천씨들의 사당인 천쟈츠는 서원(书院)을 겸하고 있다. 그래서 천씨서원(陈氏书院)으로 불리기도 한다. 천쟈츠는 국가 AAAA급 관광지이며 입장료는 10위안이다. 이 사당은 광저우에 가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참관하는 곳이다. 마펑워에서도 핫 플레이스이다.

천쟈츠의 건립과정을 자세히 보면 중국 사회가 씨족 전통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계기는 청말 1888년에 천창차오(陈昌朝)、천쭝쉰(陈宗询)、천란빈(陈兰彬)、천부타오(陈伯陶) 등 광동의 천씨 48명의 향신명사(乡绅名流)들이 천씨 서원을 만들자는 문서에 연명하면서 비롯되었다. 향신(乡绅)은 퇴직 관리로서 그 지방에서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이 가운데 천란빈(陈兰彬)은 청 말에 초대 주미 공사를 지냈던 저명한 외교관이다. 천씨 서원의 완공은 1894년에 가능하였다. 이로 보건대 천씨 서원은 광동의 천씨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서원과 사당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 영남 사당식 건축양식의 최고봉

천쟈츠 문 앞의 광장은 매우 넓다. 입장료를 내고 문 안으로 들어가니 각종 건축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광동 민간건축 장식예술의 집대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붕에는 타오수(陶塑)가 보인다. 타오수란 점토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구워낸 것이다. 아주 정교하다.

서원과 사당의 내외부에는 아름다운 목각, 벽돌조각, 석각 등이 즐비하다. 그 정교함은 이루 표현하기 힘들다. 철·구리(铜铁铸) 주조나 벽화도 또 다른 볼거리이다. 필자는 십 수 년 전에 천쟈츠에 가 본적이 있다. 그 때에 비해 사당의 안팎이 잘 단장되어있다.

천쟈츠는 광동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전통 영남사당 건축양식의 최고봉이라 할 만하다. 사당과 서원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장식이 정교하고 화려하다. 이를 통해서 광동 천씨들은 씨족의 세도를 과시하고 결속력을 꾀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탕씨들의 씨족사회인 탕쟈고진(唐家古镇)

다른 곳에서도 씨족사회의 전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필자가 중산대의 방문학자로 주하이에서 체류하는 아파트 인근에도 유명한 씨족마을이 있다. 우선 필자가 사는 아파트의 버스정류장 이름조차도 탕쟈(唐家)이다. 아파트 인근에 탕쟈고진이 있다. 탕씨들이 살던 진(镇)이다. 고진(古镇)의 입구에서 우선 탕씨들의 사당을 확인할 수 있다. 안으로 더 들어가니 과거의 진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 진(镇)의 일부는 술집과 까페, 민박, 식당 등으로 리모델링하였다.

더 들어가니 과거 울타리의 흔적도 보인다. 과거에 탕씨들이 주거지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큰 울타리의 흔적이다. 옆에 이를 설명하는 표지판도 있다. 탕씨들은 주하이에서 가장 세도있는 씨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탕쟈진(镇)은 유명인사도 많이 배출했다. 칭화대 탕궈안(唐国安) 초대 총장도 이 지역 탕씨 출신이며 인근에 그를 기념하는 학교와 기념관도 있다.

잔씨 사당(詹氏宗祠)

둥관 샤바팡(下坝坊)에 가도 잔씨 사당(詹氏宗祠)을 볼 수 있다. 과거에 잔씨(詹氏)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샤바팡도 탕쟈 고진(唐家古镇)과 유사한 씨족마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샤바팡이나 탕쟈 고진 같은 씨족 마을은 중국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만큼 중국 사회의 씨족 전통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화교들의 혈연적 결속력을 보여주는 씨족 마을

현재 남아있는 씨족 마을은 대부분 성공한 씨족이다. 천쟈츠의 천씨나 탕쟈고진(唐家古镇)의 탕씨는 그 지방에서 세력도 있고 성공한 씨족이다. 한편 광동과 푸젠 출신들은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서 지역적·혈연적 결속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남방의 마을에 깊이 남아있는 씨족 전통은 중화권의 화교들이 혈연적·지역적 결속력이 왜 강한지를 잘 설명해준다.

참고: 바이두백과, <广州北京路>, <陈家祠>

둥관(东莞): 영남(岭南)문화의 발원지

외자 기업이 많이 진출한 도시

둥관에 공업단지가 많고 외자 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또 중국에서 외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다. 개혁개방이후 급속히 성장한 대도시이다. 그래서 선입견으로는 둥관에는 전통 명승고적지로는 가 볼만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펑워 여행 앱에서 둥관(东莞)을 검색해보면 의외로 가볼만한 곳이 적지 않다. 먼저 마펑워의 둥관에서 개술(概述) 부분을 읽어보았다. 영웅의 도시이다. 둥관에는 아편전쟁 시 린저쉬(林则徐)가 아편을 불태웠던 지역인 후먼(虎门)이 있다. 후먼은 둥관의 한 진(镇)이다. 진(镇)은 우리나라의 읍에 해당한다.

둥관의 구랑위(鼓浪屿), 샤바팡(下坝坊)

마펑워가 특별 추천하는 지역으로 "둥관의 구랑위(鼓浪屿)"라는 샤바팡(下坝坊)이 눈에 띈다. 마펑워에는 각 지역별로 명소(景点)라는 부분이 있다. 둥관의 명소에는 꼭 가 보아야할 탑 세븐(必游TOP7)이 있다. 탑 세븐 가운데 샤바팡은 어제 인기 2위였다. 샤바팡은 완강(万江)에 위치해있다. 주강삼각주지역 영남 수향마을 가운데 보존이 잘 된 촌락이라는 설명이 있다.

주하이 북부에 위치한 탕쟈 버스터미널에서 둥관의 남부버스터미날(南城汽车客运总站)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린다. 버스터미널에서 전자지도인 가오더지도(高德地图)로 샤바팡을 검색해보았다. 주소(地址)를 입력하고 네비게이션(导航)을 활용하여 쟈오처(叫车)로 확인한 결과 샤바팡이 멀지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둥관은 2개 노선의 전철을 보유하고 있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영남수향마을의 문화

쟈오처(叫车)로 공유차량을 콜하니 10분후에 도착했다. 샤바팡에 도착하니 우선 마을 옆에 하천이 보인다. 하천의 이름은 완강(万江)이다. 하천을 따라 도로가 있다. 입장료는 따로 없다. 마을 입구로 들어가니 먼저 도로 변에 <잔씨사당(詹氏宗祠)>이 보인다. 과거 이 마을에 잔씨가 많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로변과 도로변의 골목마다 전통집을 개조한 술집, 식당, 커피숍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샤바팡쓰샹下坝坊

四巷>과 <1908 BAR>라는 간판이 눈에 띈다. 골목에는 상업건축물 뿐 만 아니라 주민이 사는 거주지도 보인다. 실제 샤바팡의 상주인구는 1,750명이며, 호적인구도 723명에 이른다.

둥관시의 "영남수향문화박물관"

마을 전체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샤바팡을 둥관의 톈쯔팡(田子坊)、 둥관의 구랑위(鼓浪屿)、둥관의 798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샤바팡은 명청 시기 영남수향의 촌락구조를 잘 보여주는 명촌이기도 하다.

영남은 우링(五岭) 남쪽인 광동과 광시를 지칭하는 지역이다. 샤바팡은 주강삼각주지역에서 영남수향문화의 보존이 비교적 완벽한 촌락 가운데 하나이다. 뿐 만 아니라 샤바팡은 둥관시의 "영남수향문화박물관"로 불리기도 한다.

커위안(可园), 청대 광동 4대 명원의 하나

영남문화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청대 명원인 커위안(可园)으로 향했다. 커위안은 공유차량서비스인 디디추싱으로 10위안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있다. 커위안은 순더(顺德)의 칭후이원(清晖园)、푸산(佛山)의 량위안(梁园)、판위(番禺)의 위인산팡(余荫山房)과 함께 청대 광동 4대 명원의 하나란 점에서 영남문화를 확인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이다.

커위안은 청 도광제때인 1850년에 건립되기 시작해서 1864년에 완공된 영남식 정원이다. 커위안의 주인은 청대 광시안찰사(广西按察使)라는 고위직까지 지냈던 장징시우(张敬修)라는 인물이다.

둥관은 영남문화의 발원지

입장료를 지불하고 내부로 들어가니 정원의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실제 면적은 2,204평방미터에 이른다고 한다. 큰 연못이 있고 연못 옆에는 아름다운 정자와 건축물 등이 많이 보인다. 장쑤 쑤저우의 유명 정원 못지않게 아름다운 정원이다.

외국투자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도시로 알고 있었던 둥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다니 놀랍다. 둥관은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 도시일 뿐 만 아니라 영남문화의 발원지임이 분명하다. 샤바팡 뿐 만 아니라 커위안可园에서 둥관이 영남문화의 발원지라는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 바이두백과, <下坝坊>, <可园>

중산: 쑨중산이 아직 살아 숨 쉬는 도시

쑨원생가기념관(孙中山故居纪念馆)

중산은 광저우의 남쪽에, 주하이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이다. 중산은 쑨원(孙文)의 고향이다. 먼저 쑨원생가기념관(孙中山故居纪念馆)에 가보기로 했다. 필자가 방문학자로 거주하고 있는 주하이 북부에서 쑨원기념원까지는 버스로 1시간정도 소요되었다.

신해혁명 기념공원 옆에 쑨원기념원이 있다. 입구로 들어가자 먼저 <중국공산당간부교육훈련관>이 있었다. 교육훈련관 내부에는 쑨원의 평소 검소 검약한 생활을 보여주는 전시물이 많고 이러한 쑨원의 정신을 받들어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취지의 교육장도 있다.

전시물 가운데 중산복을 입은 쑨원의 사진이 특히 눈에 띄었다. 사진 밑에 설명이 흥미롭다. 쑨원은 중요한

회의에서만 양복을 입었고 보통 때는 중산복을 즐겨 입었다. 이는 양복을 사면 금은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의 검약 정신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중국공산당에서 존경하는 인물

"쑨원은 중국을 개조하기위해서 전심전력 다 했으며 일생의 모든 정력을 다 쏟아 부었다"는 마오쩌둥의 글귀도 있었다. 쑨원이 아직도 중국공산당에서 존경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들어가니 중산기념관, 중산생가, 중산강당, 쑨원의 고향마을 등이 보존되어있거나 복원되어있다.

중산기념관 근처에 있는 쑨원의 고향마을은 추이헝촌(翠亨村)이다. 중산시차원에서 쑨원이 살았던 당시의 마을을 보존하고 있다. 청조 마을의 건축양식이나 문화를 견학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이다. 문화유산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알 수 있었다.

쑨원이라는 최고의 브랜드 가치의 덕을 보는 도시

쑨원생가기념관에서 전통 상업가였던 쑨원서로(孙文西路)로 가기위해서 버스를 탔다. 차창 밖으로 제조업 단지가 많이 보인다. 중산은 둥관과 함께 제조업이 발달된 도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버스 차창 밖에서 보이는 각종 지명은 쑨원과 신해혁명과 관련된 것이 많다. 중산은 쑨중산의 고향답게 중산과 관련된 명칭이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버스로 1시간 20분정도 가서 도착한 쑨원서로(孙文西路) 또한 중산의 핫 플레이스이다. 입구로 들어가니 100년 된 서양식 건물이 즐비한 번화가였다.

중산은 아직도 곳곳에서 쑨원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중산시가 쑨원이라는 최고의 브랜드 가치의 덕을 보고 있으며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전: 중국의 5번째 직할시는?

북경과 상해, 톈진, 충칭에 이어 다섯 번째 직할시는?

중국인들 사이에 다섯 번째 직할시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도시는 어디인가? 현재 중국의 직할시는 북경과

상해, 톈진, 충칭이다. 직할시가 되면 각종 이점이 주어진다. 따라서 대도시는 다섯 번째 직할시가 되기 위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중국 인민들이 다섯 번째 직할시로 가장 많이 거론하는 도시는 광저우가 아니다. 난징도 아니다. 창춘도 아니다. 지린성의 창춘은 1953년에 직할시로 지정되었다가 1년도 못되어 취소되었던 적이 있다. 당시 1년도 못되어 창춘은 직할시에서 지린성의 성도로 강등되었다. 창춘도 현재 중국인들 사이에 다섯 번째 직할시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도시는 아니다.

선전, 다섯 번째 직할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도시

현재 중국 인민들에게 다섯 번째 직할시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도시는 선전이다. 우선 선전은 북경과 상해, 광저우와 함께 1선 도시이다. 더욱이 선전은 최근 각종 지표에서 중국 1위에 랭크되고 있는 도시이다. 기업시가 총액에서 상해를 제치고 1위이다. 경제 규모에서 홍콩을 제치고 있다. 중국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선두 도시이다. 외지인의 비율도 가장 높은 도시이다. 광둥성이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성(省) 중 하나라는 점도 선전의 직할시로의 분리가능성을 높인다. 홍콩과의 인접성도 선전의 직할시로의 승격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은 전적으로 중국 인민들의 생각일 뿐이다. 직할시로의 승격은 도시의 실력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정치적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중앙 차원의 지역 개발 계획도 직할시로의 승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도시가 최우선 순위라고 확실히 볼 근거도 강하지 않다.

큐알(QR) 코드로 꽉 찬 거리

광저우 남역에서 선전 북역까지는 고속철로 30분 걸린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먼저 선전 북역의 규모에 놀랐다. 선전 시내로 가기 위해서 전철역으로 향했다. 선전 북역 전철역으로 들어가니 먼저 모바일 구매(手机购买)라는 장소에 몇 개의 모바일 이용 티켓 구입 장소가 보인다. 모바일로 전철 티켓을 구매하는 장소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 도시답다.

위챗페이로 큐알(QR) 코드를 찍어서 시빅센터 전철역으로 가는 전철티켓을 구입했다. 선전에도 1선 도시인 북경, 상해, 광저우처럼 전철의 노선이 아주 많다. 전철을 이용하면 선전의 중요한 지역을 거의 갈 수 있다.

음식 배달원이 분주히 움직이는 거리

시빅센터 전철역에서 나와서 본 시빅센터는 한 장의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거대한 몇 개의 빌딩으로 구성되어있다. 시빅센터는 시정부, 시인민대표대회당, 시립 박물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다음에는 번화가로 이동했다. 세련되고 거대한 규모의 백화점과 각종 쇼핑센터로 꽉 차있다. 시빅센터 주변이나 번화가에서는 점심때가 되니 어러머(饿了么)나 메이퇀와이마이(美团外卖)가 새겨진 옷을 입은 음식 배달원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환러해안(欢乐海岸), 혁신적 소비 공간과 관광의 타운

선전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 도시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선전은 혁신적 소비 공간과 관광 타운을 육성함으로써 소비와 관광의 도시로도 몸집을 키우고 있다.

선전에는 다양한 혁신적인 소비 공간과 관광 타운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와 관광이 홍콩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소비 및 관광도시로서의 선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관광 산업 분야에서 선전이 중국에서 충칭, 청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함께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가 되고 있다.

중국 특유의 소비 공간

혁신적 소비 공간과 관광 도시로의 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러해안(欢乐海岸)으로 향했다. 선전만(深圳湾)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올라오니 바로 환러해안의 입구가 보인다. 환러해안은 쇼핑몰, 식당, 영화관, 커피숍, 호수, 수로, 호텔 등이 어우러진 혁신적인 소비 공간이다. 땅 값이 비싼 한국의 대도시에서는 이런 소비 공간을 조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 특유의 소비 공간이다.

입구에 먼저 초대형 영화관이 보인다. 중간에는 호수가 보인다. 오른쪽으로 가니 물길이 보인다. 물길을 따라 레스토랑 등이 밀집해있다. 안으로 더 들어가서 가니 커피숍도 즐비하다. 한참 더 들어가니 쇼핑 몰도 보인다. 뒤에는 호텔도 보인다.

선전: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과기원(科技园)

4차 산업혁명의 선두기업이 밀집한 과기원

선전의 대표적인 특성은 4차 산업혁명의 선두 도시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과기원(科技园)만한 곳이 없다. 과기원은 가오신취(高新技术产业园区)로 불리기도 한다. 선전에는 제2금융권 회사에 근무하는 필자의 제자가 있다.

이 제자가 운전하는 차로 선전 남산구(南山区)에 소재하는 가오신취(高新技术产业园区)의 한 빌딩 주차장에 도착했다. 한 중국인이 휴대폰으로 주차장 벽에 있는 QR 코드를 찍어서 주차료를 간단하게 지불하는 게 인상적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선두 도시답다.

선전 가오신취는 중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지역이다. 1996년에 설립되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회사빌딩, 아파트, 상업지구가 계속 들어서고 있다. 주차장 밖으로 나오니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TCL그룹도 보인다.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KONKA(康佳)의 거대한 빌딩도 보인다.

소비 공간의 혁신, 완샹톈디(万象天地)

다음으로 완샹톈디(万象天地)로 향했다. 완샹톈디는 과기원 전철역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2017년 9월에 오픈한 완샹톈디는 식당, 커피숍 및 쇼핑몰이 밀집한 거리이다. 완샹톈디는 몰(mall)과 상업가를 결합한 신 개

넘의 쇼핑 거리이다. 선전의 높은 소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식당, 커피숍 및 상점은 홍콩 투자 기업이다.

중국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는 선전대학(深圳大学)

선전대학은 211공정대학이 아니다. 985공정대학은 더욱 아니다. 선전대학은 1983년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신생 종합 대학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는 대학이다. 실제 중국 내 신문도 이를 보도하고 있다. 이 대학 출신으로 텐센트(腾讯)의 창업자인 마화텅(马化腾)을 비롯해서 장즈둥(张志东), 스위주(史玉柱) 등 유명한 기업가가 많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 대학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선전대학 북문으로 들어가자 곳곳에 건설 현장이 보인다. 계속 걸어가 보니 과학 기술 분야의 큰 건물도 보인다. 선전대학 바로 옆은 과기원(科技园)이다. 선전대학에서는 거의 어디서나 텐센트(腾讯)의 건물을 볼 수 있다 더욱이 한징그룹(汉京集团) 등 과기원의 거대한 건물도 보인다. 선전대학은 위치나 졸업생으로 보아 4차 산업혁명의 선두 대학으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

웰고(Well Go), 폐쇄형 무인 편의점

선전에 두 가지 종류의 무인 편의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입구부터 모바일로 등록해야하고 출구에서는 결제해야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필자는 이런 유형을 편의상 폐쇄형 무인 편의점이라 부르겠다. TCL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톈홍다샤(天虹大厦)의 무인편의점인 웰고(Well Go)는 건물의 한 모퉁이에 있다. 위챗으로 문 앞의 큐알(QR) 코드를 찍고 등록을 한다. 상품을 고르고 결제구로 가서 큐알(QR) 코드를 찍고 결제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30분 정도 지켜보았는데 이 편의점에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F5미래상점(未来商店), 개방형 무인 편의점

다른 하나는 개방형 무인 편의점이다. TCL 건물 1층에 있는 미래상점은 다른 무인 편의점과 달리 들어갈 때 스마트폰으로 따로 큐알(QR) 코드를 찍을 필요가 없다. 들어갈 때 신분 인식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위의 무인 편의점과 다르다. TCL 건물의 1층에 있는 미래상점이다. TCL 건물은 가오신위안(高新园)전철역 바로 옆에 있다. 미래상점은 2017년 10월 6일에 개업하였다.

미래상점 내부에는 4개의 자동 기계가 있다. 물품판매기(标品售货机), 음료판매기(冲饮售货机), 신선식품판매기(鲜食商品售货机) 및 자동세척식탁(自动清理餐桌)이 그것이다. 각각을 직접 작동해보았다. 물품판매기(标

品售货机)에서는 모바일로 결제한 후 과자, 음료 등을 살 수 있다. 구입시간은 30초 이내이면 가능하다.

음식을 전달하는 로봇

음료판매기(冲饮售货机)에서는 커피, 차, 라면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물에 타서 마시는 각종 음료나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자동기계가 음료 판매기이다. 결제하고 구입하는 데까지 2분 이내이다. 벽면에 있는 스크린의 순서대로 커피를 주문해보았다. 6위안의 커피를 모바일로 결제하였는데 40퍼센트 할인이 되어 3.6위안이었다. 5분 지나니 다른 벽면에서 문이 열리더니 로봇이 커피를 전달한다. 공상 과학의 세계에 온 듯하다.

신선식품판매기(鲜食商品售货机)은 신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상점의 중간에는 자동세척식탁(自动清理餐桌)이 있다. 이 식탁은 음식을 먹고 나면 자동으로 버리고 세척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F5미래상점, 공상 과학 세계 같은 무인편의점

미래 상점의 핵심기술은 로봇아암(机械臂)와 지능창고보관(智能仓储)이다. 한쪽 벽면이 열리면서 로봇의 팔이 커피를 선반에 갖다 둔다. 물건 값은 유인편의점보다 싸다. 30분 지켜보니 이 무인 편의점에는 사용자가 많다. 현재 미래상점은 광저우 등에도 있다.

미래 상점은 몇 가지 점에서 폐쇄형 무인 편의점의 보강 판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들어갈 때 신분인식이 필요 없다. 둘째, 커피나 라면처럼 뜨거운 음식을 제공한다.

낙관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

무인 편의점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엇갈린다. 낙관적 전망을 가진 미래상점의 창업자인 쉬하이청(徐海成)은 2017년 11월 매경(每经)에서 2018년은 무인편의점의 폭발적 성장의 원년이라 보고 있다. 2018년 1월 텐센트도 무인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점도 낙관적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부정적 전망도 다소 존재한다. 2017년 하반기 개업한 알리바바의 빙고박스는 폐업한 상태이다. 필자는 상해, 닝보, 원저우 등에서 폐업해서 텅 빈 빙고박스를 확인하였다. 아니면 아예 빙고박스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장소를 확인하였다. 빙고박스의 실패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무인 편의점에 갈 때 노인이나 유소년을 동반하는데 폐쇄형 무인편의점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고 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무인 편의점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무인 편의점에 대한 IT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도 아직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폐쇄형 무인 편의점의 단점을 보완한 미래상점 같은 개방형 무인 편의점이 당분간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미래에 폐쇄형 무인편의점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의 무인편의점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편의점은 더욱 주목해야하는 소매점임이 분명하다.

참고: 바이두백과, <深圳科技园>, <F5未来商店>

마카오: 중국 소비 혁명으로 성공한 베네치안

거대한 인파가 몰리는 주하이 궁베이통관(拱北口岸)

중국의 소비 혁명을 파악코자 이번에는 마카오에 가보기로 했다. 시기도 주강삼각주의 도시를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겨울이다. 마카오 명소 가운데서는 최근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베네치안을 택했다.

2018년 1월 하순 토요일 아침부터 거대한 인파가 주하이 궁베이통관(拱北口岸)에서 마카오로 이어진다. 마

카오로 가는 중국인이 너무 많아지자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경우 1개월에 1회만 마카오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주하이쪽 궁베이통관을 거쳐 마카오측 관자(关闸)통관을 통해 마카오로 들어갔다. 관자통관에서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고 통관 직원에게 여권을 보이면 입경증명서(入境申报表)를 준다. 마카오 통관으로 들어가서 바로 옆에 각종 쇼핑몰로 가는 행렬이 인산인해이다. 베네치안에 가는 무료 셔틀 버스를 타는 행렬에 줄을 섰는데 그 행렬이 수 백 미터에 이른다. 거의 1시간 반은 기다리고서야 셔틀 버스에 승차할 수 있었다.

쇼핑, 카지노, 식사, 호텔 등의 거대한 복합 건물

30분후에 도착한 베네치안 안은 인산인해이다. 때는 토요일이기도 하다.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은행의 에이티엠(ATM)기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인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지만 일본인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베네치안은 쇼핑, 카지노, 식당, 호텔 등의 거대한 복합 건물이다. 서문으로 들어가자 먼저 카지노가 보인다. 더 들어가자 실내 운하가 보인다. 운하에는 곤돌라를 타고 가는 관광객도 보인다. 운하와 곤돌라에서 이태리 도시 베네치아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운하 옆은 쇼핑 거리이다. 더 들어가자 식당 광장도 보인다. 다른 편에는 호텔도 있다. 베네치안은 거대한 타운이다. 밤에 베네치안의 벽면에서 레이저쇼도 볼만하다.

베네치안의 규모와 그 인파를 통해서 마카오가 미국 라스베가스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도시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환경 요인는 중국인들의 여행 붐이라는 소비 혁명에 있다. 중국의 수요를 잘 예측한 마카오 기업의 전략도 성공적이었다.

중국 본토와는 다른 결제 방식

하지만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는 중국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곳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외였다. 이전에 통관을 나와서 공항버스를 탈 때 30위안을 위챗페이로 결제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마카오에서는 어떤 장소에서도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 결제할 수 없었다. 위안화도 불가했고 홍콩 달러나 마카오 달러 아니면 한국에서 사용하던 신용 카드만 가능했다. 마카오의 호텔이나 식당에서는 중국 모바일 결제가 불가했던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 안되던 곳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외국인에게 불편한 중국인 신분증 제도: 중국은행 에이티엠(ATM)

마카오의 중국은행 에이티엠(ATM)에서도 외국인은 중국은행 체크카드를 갖고 있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없다. 마카오의 에이티엠(ATM)에서는 중국은행 체크카드와 함께 중국인이 갖고 있는 신분증을 스캔해야 현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카오에서뿐만 아니라 본토 중국에서도 중국인의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가끔 있다.

중국인이 갖고 있는 신분증이 없는 외국인은 모바일 혁명의 편리함을 종종 못 누리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들은 모바일 결제를 위한 은행계좌 개설을 하고도 중국인 신분증이 없어 이 같은 경우가 있다. 중국인의 신분증이 모바일과 연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 불편한 중국인 신분증 제도: 기차표 구입

외국인도 중국인처럼 기차표나 시외버스표를 모바일로 구입(购票)할 수 있다. 하지만 역에 가서는 공항에서 보딩패스를 받듯이 좌석표(取票)를 받기위해서는 오프라인 좌석표(取票) 창구에 줄을 서야한다. 이런 좌석표(取票) 창구 앞의 대열은 대부분 길게 마련이다. 특히 이동이 극심한 춘절, 국경절 때에는 대열이 장사진을 이룬다. 상황이 이러니 외국인들은 모바일로 표를 구입하고도 언제나 긴장해서 중국인보다 미리 역에 가서 좌석표를 받는(取票) 창구에 줄서 있어야한다.

중국인 신분증은 실명제의 중요한 토대

중국인은 어떤가? 중국인은 모바일로 예매를 하면 역에서 좌석표를 받는 취표(取票)는 역무원 창구(人工)가 아닌 자동취표기(自动取票机)에서 할 수 있다. 자동취표기에서 표를 뽑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취표기에서 번호를 입력하고 신분증을 취표기의 해당부분에 갖다 대어야만 좌석표를 뽑을 수 있다. 중국인의 신분증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달리 기계가 인식하는 물질이 내재되어있다. 이런 기술의 중국인 신분증은 실명제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외국인도 중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영구 거류증을 받을 수 있다. 영구거류증은 중국인 신분증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영구거류증이 없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역무원 취표 창구(人工取票)에서 줄을 서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인의 신분증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달리 개인의 신분을 기계가 인식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신분인식과 실명제의 핵심수단이다.

주: 이 글의 일부는 다음 글의 일부를 그대로 활용하였음. 이중희, 2018, <흔적이 남는 사회, 추적 가능한 사회>, 네이버 중국

【메 모】

【중국사회과학 분과】 발표 ④

“一带一路”与东北亚地区：中国的视角及政策转型

张暮辉(釜山大学)*·涂波(新罗大学)**

【目 录】

1. 绪论
2. 文献综述
3. "一带一路"与东北亚：中国经济外交的新尝试
4. "一带一路"倡议在东北亚面临的挑战及困难
5. 结论及政策建议

【摘要】

自2013年伊始， 中国“一带一路”倡议的覆盖面逐步扩大，目前已经涵盖了东南亚、中亚、南亚、东欧乃至非洲的广大地区。与此形成强烈反差的是，东北亚地区仍然是“一带一路”的盲点地区。进入2018年以来，中国政府开始对“一带一路”五年期的推行情况进行重新评估，并开始做出一定程度的政策调整。另一方面，随着东北亚地区的地缘政治形势逐步好转，中国开始考虑将东北亚地区纳入到“一带一路”的版图之内。相对于中国在“一带一路”其他沿线地区所扮演的“主导性”角色，中国在东北亚地区强调“一带一路”倡议与其他域内大国的“战略对接”。本文将重点考察中国在东北亚地区推行“一带一路”倡议的背景因素、具体政策，以及可能面临的困难及挑战。同时，本文将试从宏观和微观角度提出可行的政策建议。

【关键词】 中国；“一带一路”；东北亚；战略对接；韩国；日本

1. 绪论

自从中国2013年提出建设“新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合作倡议以来，“一带一路”的地域覆盖面逐步扩大。与此形成强烈反差的是，东北亚地区仍然是“一带一路”的一大盲点地区。进入2018年以来，中国政府开始对“一带一路”五年期的推行情况进行重新评估，并开始做出一定程度的政策调整。从宏观角度来看，中国政府对“一带一路”建设采取了有限度收缩的态度，这一方面体现出中美贸易战背景下的外部政治压力，另一方面也是考虑到“一带一路”在南亚及东南亚区的推行过程中遭受到了一定程度的挫折和指责[1)]。因此，自2018年中期开始，中国政府开始给“一带一路”逐步“降温”并淡化其政治色彩。这一政策举措尤其表现为，中国政府在官方场合明确的避免使用“一带一路战略”的名称，而是将其降格为“一带一路倡议”。显然，其用意在于规避沿线国家对于“一带一路”的疑虑和抵制。

尽管如此，进入2018年后，东北亚地区越发成为“一带一路”的另一潜力区域。这首先得益于东北亚地缘政治形势的好转。自2012年伊始，中日韩三国之间的历史问题和领土争议不断；2015年后中韩关系因萨德问题而一落千丈，由顶点坠落至冰点；同时，朝鲜挑衅性的核试验以及导弹试射不断，东北亚政治安全形势更加阴云密布。2018

* 张暮辉，第一作者，韩国釜山国立大学国际专门大学院助教授，muhui_zhang@pusan.ac.kr
** 涂波，通讯作者，韩国新罗大学经营学部助教授，tubo110@hotmail.com
1)“一带一路”倡议的局部受挫特别表现为，由于巴基斯坦以及马来西亚的政权更迭，而导致部分基础设施工程被迫暂停。

年以来，东北亚的地缘政治局势得到了大幅缓和与提升，这尤其表现在以下三个方面。首先，中日关系升温，日本首相安倍晋三于2018年10月访华。借由中日关系的改善，日本对于中国“一带一路”建设的态度从敌对逐步转变为合作；其次，中韩关系也重回正轨，两国关系在逐渐摆脱“萨德危机”；最后，2018年间，韩朝首脑会谈和美朝首脑会谈分别举行，朝鲜半岛南北关系得以大幅改善。在此背景下，如果朝鲜兑现弃核承诺，那么朝鲜半岛南北双方的和平合作进程也将被逐步提上日程。长期来看，贯通朝鲜半岛的“南北走廊”建设一旦开始，对于中国所倡导的欧亚大陆互联互通建设也是一大利好消息。可以预见，东北亚地区在未来一段时间内或将被纳入中国的“一带一路”版图之中，甚至有可能成为“一带一路”建设新的爆发点和增长点。

当然，“一带一路”在东北亚地区的前景尚不明朗，在很大程度上仍然处于规划和设想阶段，区域内主要国家对于“一带一路”构想仍存在疑虑。东北亚地区大国林立（中国、美国、日本、俄罗斯），以美国为核心的美日、美韩军事同盟将长期存在，加之朝鲜问题尚存极大的不确定性。在“一带一路”所涉及的其他地域中，中国大多扮演了“给予者”、“投资者”以及“主导者“的角色。与此相反，“一带一路”构想在东北亚地区能否顺利实施，很大程度上取决于“一带一路”构想能否与其他区域大国（俄罗斯、日本、韩国）的地区发展战略成功“对接”，从而实现双赢。本文将重点考察中国在东北亚地区推行“一带一路”倡议的背景因素、具体政策，以及可能面临的困难及挑战。同时，本文将试从宏观和微观角度提出可行的政策建议。

2. 文献综述

传统上，东北亚地区并非是中国政府和学者所倡导的区域合作的主要目标和方向。虽然中国政府和学者传统上强调通过“六方会谈”框架解决朝鲜半岛问题，但在涉及区域经济合作和一体化的议题上，中国国内则更多的关注以东盟10+3为主体的“东亚”的概念，而并非“东北亚”的概念。这一政策惯性仍然存在于2013年“一带一路”倡议正式提出以后。中国政府的“一带一路”构想着重于南亚、东南亚以及欧亚地区，而东北亚地区则一直是“一带一路”的空白地带。这期间，虽然有部分中国学者开始探讨（如著名的东亚合作问题专家张蕴岭）建立囊括中、韩、朝、日、俄、蒙的东北亚区域经济合作框架，但这一制度设想仍然还未与“一带一路”倡议相挂钩[2)]。

中国学术界开始关注与探讨“一带一路”倡议在东北亚地区的发展前景始自于2016年。2016年下半年，中国政府官方发布了《建设中蒙俄经济走廊规划纲要》，并将中蒙俄经济走廊作为“一带一路”六大经济走廊而正式提出[3)]。以此为契机，自2017年以来，中国国内的学术界及智库界开始大规模探讨和研究“一带一路”在东北亚地区的发展可行性模式，以及具体与俄罗斯、日本、韩国等地区大国的战略对接路径。特别值得注意的是，近期以来，中国的研究智库已经开始将东北亚地区作为“一带一路”沿线的一个独立地区而进行政策分析研究[4)]。目前来看，中国学者对于“一带一路”在东北亚的规划布局，主要着眼于以下四点：首先，重视促进与俄罗斯和蒙古国的能源贸易与投资，带动能源产能合作，从而增加政治互信[5)6)]；其次，部分学者从振兴中国东北的角度出发，关注以黑龙江、内蒙古、吉林省为依托的物流、口岸以及国际运输通道建设[7)]；再次，部分中国学者继承了若干年前张蕴岭对于东北亚地区合作的设想，并主张将既有的中日韩合作、大图们江流域多边合作等逐步统筹融合到“一带一路”框架内，其最终目标在于通过经济合作缓解该地区（特别是朝鲜问题）的安全困境；最后，随着中韩关系回暖，特别是韩国文在寅政府提出“新北方政策”、“新南方政策”，中韩两国之间也开始试水第三方市场下的政策协调和项目合作，已经有中国学者开始提出“中韩朝经济圈”的概念，旨在通过中韩两国的协力合作而促使朝鲜进行经济改

2) 张蕴岭，<中国参与和推动东北亚区域经济合作的战略>，《东北亚论坛》，第一辑，2013，pp3-9；<东北亚区域合作与新秩序的构建>,《社会科学战线》，第三辑，2015，pp197-204

3) 中国一带一路网，《建设中蒙俄经济走廊规划纲要》，http://www.beltandroadforum.org（上网时间：2018年11月8日）。

4) 复旦大学一带一路及全球治理研究院，<“一带一路”2018年度报告>，http://brgg.fudan.edu.cn/（上网时间：2018年11月8日）。

5) 王玉柱，<蒙古国参与“一带一路”的动因、实施路径及存在问题>，《国际关系研究》，第四辑，2016。

6) 郭霞、朴光姬，<一带一路”倡议与东北亚能源安全合作——基于区域构建视角的分析>，《东北亚学刊》，第六辑，2017，pp41-46.

7) 林备战，<“一带一路”倡议下东北亚地区国际运输通道建设>，《东北亚经济研究》，第四辑，2018年，pp62-69

革和开放[8]。

综合以上文献可以看到，东北亚地区进入“一带一路”政策版图仍然时间较短，研究有限。2018年以来，东北亚地区的地缘政治形势发生了重大变化。中韩关系大幅回暖，中日关系更是借由安倍首相的访华行，而彻底摆脱了2012年购岛危机以来的低谷期。同时，朝鲜半岛形势为之一变，带动东北亚地区的安全形势大为好转。因此，2018年以来的东北亚形式转好，对于“一带一路”倡议与日本、韩国、俄罗斯等其他区域大国的战略对接和互利共赢，可谓是一大利好消息。因此，本文将重点结合2018年来的东北亚地区形势变化，探析中国“一带一路”的政策转型，并试图提出可行的相关政策建议。

3.“一带一路”与东北亚：中国经济外交的新尝试

1）中蒙俄经济走廊

中蒙俄三国合作倡议的提出，首先得益于近年来双边政治关系的发展。中俄两国于2013年将“战略协作伙伴关系”提升到“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中蒙两国也于2014年将“战略伙伴关系”提升至“全面战略伙伴关系”。2014年9月和2015年7月先后举行的中蒙俄三国首脑会晤，明确了三国合作的发展方向。与此同时，三国经贸合作水平提升，成为彼此依赖的重要经贸合作伙伴。中国已成为俄罗斯第一大贸易国和第三大投资国，同时也是蒙古第一大贸易伙伴和第一大投资国。由于产业结构互补性强，在蒙古国外企中近一半为中国企业。

在此背景下，“中蒙俄经济走廊”作为“一带一路”六大经济走廊之一，一经提出，即获得了蒙古和俄罗斯两国的响应。2015年7月，三国有关部门签署了《关于编制建设中蒙俄经济走廊规划纲要的谅解备忘录》。2016年，三国领导人共同见证签署了《建设中蒙俄经济走廊规划纲要》，这也是共建“一带一路”框架下的首个多边合作规划纲要。在三方的共同努力下，规划纲要已进入具体实施阶段。2017年4月“一带一路”峰会期间，三方签订关于建设中蒙俄经济走廊规划纲要的谅解备忘录，以对接丝绸之路经济带、欧亚经济联盟以及“草原之路”倡议为目标，建设经济走廊旨在通过在增加三方贸易量、提升产品竞争力、加强过境运输便利化、以及促进交通基础设施发展及互联互通[9]。

未来“中蒙俄经济走廊”的重点增长点预计将集中于能源合作（特别是油气管道）以及相关配套交通基础设置的建设领域[10]。特别是在中俄既有能源合作的基础上，蒙古的积极加入将成为“中蒙俄经济走廊”的新看点。蒙古拥有丰富的煤、铜矿等矿产资源，对蒙古来说，基础运输设施的改善，尤其是现代化铁路的投入使用，将直接降低矿产出口成本并提升其出口能力。近年来，蒙古积极提出了“草原之路”倡议，项目包括连接中俄的高速公路、电气化铁路、扩展跨蒙古国铁路以及天然气和石油管道等[11]。早在2015年，蒙古国务部长恩赫赛汗就曾表示，蒙古国地处中俄两个大国、大市场中间，过境运输地位凸显，将“一带一路”和“草原之路”对接，对蒙古本身的发展至关重要。蒙古国总统提出建设经由蒙古国的中俄油气管线，大致从俄罗斯经蒙古国至中国的二连浩特、北京，管线总长相当于俄罗斯中国天然气管道东线长度的近一半距离。该油气管线若能建成，不但能够节约成本，也为俄罗斯能源出口增加渠道，同时也将进一步保障中国能源进口通道安全。从长远的角度来看，贯通俄—蒙—中、俄—中亚—中的油气管道不但会给三国提供更加稳定多元的能源保障和输出渠道，还可对接中亚—西亚—南亚经济走廊，形成最富前景的亚欧能源大动脉。

8) 仇发华，〈“中朝韩经济圈”建设初探——兼论“一带一路”在东北亚地区对接〉，《韩国研究论丛》，第一辑，2017，pp98-110

9) 于洪君，〈中蒙俄在“一带一路”建设中开展务实合作的现状与前景〉，http://zmejjyjy.imu.edu.cn/info/1048/1131.htm（上网时间：2018年11月10日）

10) 朴光姬、李芳，〈“一带一路”建设与中蒙俄能源合作——基于地区安全视角〉，《亚太经济》，第三辑，2016年，pp3-9.

11) 王海燕，〈“一带一路”视域下中蒙俄经济走廊建设的机制保障与实施路径〉，《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五辑，2016年。

2) 日本对于“一带一路”态度的转变

2017年以来，中日关系呈现出“回暖”的迹象，日本首相安倍晋三多次在公开场合释放善意。进入2018年，先有李克强总理于2018年5月借出席中日韩三国领导人会议之机访日；9月12日，国家主席习近平在符拉迪沃斯托克出席第四届东方经济论坛过程中会见日本首相安倍晋三，10月，安倍晋三也将实现他2012年担任首相以来的首次访华之行。借助双边首脑互访的全面恢复，中日关系也逐步走出了2012年日本政府“钓鱼岛购岛事件”后的低谷期。

值得注意的是，在安倍政府推动中日关系发展的诸多举措之中，日本对于“一带一路”倡议从过去的观望态度转为寻求合作成为一大亮点。2017年7月在德国汉堡举行的“习安会”上，安倍首相亲自向习主席表达了加入“一带一路”倡议的意愿。2017年11月下旬，日本经团联组织了多达250人的庞大代表团访华，对“一带一路”的具体实施情况进行了考察，并就“一带一路”框架下的中日双方企业间合作进行洽谈。进入2018年后，日本对于“一带一路”的态度呈现出愈发积极合作的态度。2018年5月份李克强总理访日期间，中日双方领导人提出建立“中日一带一路官民商务委员会合作机制”，以积极讨论和协调中日两国在第三国的投资和其他形式的经济合作，该机制的第一次会议将于9月底举行。安倍晋三10月访华期间，两国举行了部长级“日中第三方市场合作论坛”[12]。安倍首相在致辞中表示，希望两国“在开放性和透明性的原则上，采用国际标准，共同在第三方市场开拓可持续性的发展项目”[13]。据日本经济产业省的统计数据显示，两国达成了多达54项、价值超过180亿美元的第三国合作协议[14]。这些都标志着中日之间围绕着“一带一路”的机制化合作正式步入正轨。

总体来看，日本政府对于“一带一路”倡议态度的转变，体现出如下几个特点：

首先，面对中国近年来在“一带一路”建设中所取得的成就和影响力，日本的财界和经济业界越发向安倍政府施加压力，要求改善中日关系，并为日本企业参与“一带一路”建设提供支持和创造良好的政治环境[15]。据亚洲开发银行预测，2016年至2030年，“一带一路”沿线的基础设施建设需求在26万亿美元左右。“一带一路”开辟了通往东南亚、南亚、欧州大陆到非洲的市场，如果日本不积极参与其中就有被边缘化危险，越来越多的日本经济界人士将“一带一路”视为日本经济和企业发展的机遇，日本国内相对狭小的市场必须抓住中日关系改善的机遇期。因此，搭上中国“一带一路”的顺风车越发成为日本工商界人士的共同期待和诉求。例如，日本经济界的联合组织——经团联于2015年起每年定期召开“日中企业家及原政府高官对话会”，在“一带一路”倡议下，中日两国共同开放第三国市场的相关话题也成为每年对话会的重点议题之一。

其次，对于安倍政府而言，政治上的考虑也促使其不得不转变对“一带一路”的消极态度。2017年以来，安倍内阁经历了严重的国内信任危机，先后爆出的“森友学园”和“加计学园”丑闻事件一度让安倍内阁支持率降至30%以下。因此，对外改善中日关系，成为安倍政府挽回国内政权支持率的重要手段之一。随着安倍首相于2018年10月访华，日本政府从政治外交的立场上，也必须对中国的“一带一路”建设给与尊重和支持，这也将成为两国进一步改善外交关系的前提。

最后也是最为引人注目的一点是，中国和日本企业在“一带一路”框架下先行先试，在“一带一路”沿线第三国的协调合作已经取得了一些示范性成果，而这些项目中所探索出的中日合作模式正在逐步扩大到其他的领域。从日本的角度来讲，日本政府希望在逐步加入“一带一路”建设的同时，不过分刺激美国及国内的反对力量，因此由民间企业自发参与“一带一路”倡议成为日本政府的首选。例如，日本最大的货物运输公司“日本通运”早就开始同中国铁路总公司合作，协助在华日企借助中欧班列开展通往中亚和欧洲的定期运输业务[16]。2017年9月，日本通运宣布将与哈萨克斯坦国家铁路公司合作，提供连接中日港口、中亚和欧洲的陆海联运服务。同时，据日本《朝日新

12)关于中日第三方市场合作论坛的详情，见日本外务省相关资料https://www.mofa.go.jp/mofaj/a_o/c_ml/cn/page4_004452.html （上网时间：2018年11月12日）

13)安倍晋三，<日中第三国市場協力フォーラム　安倍総理スピーチ>,日本首相官邸记者会记录，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18/1026daisangoku.html（2018年10月26日）（上网时间：2018年11月10日）。

14)童黎、郭光昊，<前所未有！中日180亿美元第三国合作协议清单>，http://finance.sina.com.cn/stock/usstock/c/2018-10-26/doc-ifxeuwws8484244.shtml（2018年10月26日）（上网时间：2018年11月10日）。

15)日本経団連，<第4回日中企業家及び元政府高官対話共同声明>,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8/082.html （2018年10月12日）(上网时间：2018年11月10日)

16)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中日关系战略报告书: 中日关系2017——战略对峙中的转机》，2018年3月，p47

闻》报道，中日两国政府设想于2018年内开展合作的第一个项目，就是泰国的“BTS”铁道铺设项目[17]。泰国提出了“东部经济走廊开发计划”，项目规划将连接曼谷市中心帕亚泰车站和素万那普国际机场的铁路，再向郊外其他机场延伸大约50公里。中日两国新近成立的“一带一路官民商务委员会合作机制”下设专门的分科会，针对年底实施的国际招标进行合作并敲定具体方案。而稍早前的5月份，泰国东部经济走廊中国—日本第三方市场合作国际研讨会也在曼谷举办，吸引了来自中日泰三方的政府官员及企业界人士参会。

3）朝鲜半岛的互联互通建设前景

与日本类似，韩国对“一带一路”的态度在近年来也发生了一定程度的转变。早在朴槿惠政府时期，中韩关系进入蜜月期。朴槿惠总统提出了“欧亚倡议”以及“东北亚和平与合作构想”，其中拟与中国、俄罗斯一道加强东北亚地区的互联互通和贸易联系。2015年，中韩签署自贸区协定；同年韩国以创始成员国身份加入亚投行（AIIB），中韩两国还签署了《关于在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建设以及欧亚倡议方面开展合作的谅解备忘录》。然而，由于“萨德事件”的发生，中韩关系于2016年以来迅速陷入低谷，韩国政府对于“一带一路”建设的态度也日渐转向负面。随着2017年朴槿惠遭到弹劾下台，新任总统文在寅上台并于年底访华，中韩关系才开始全面恢复。

文在寅政府履任后推出了“新北方政策”，其核心在于：（1）以朝鲜半岛为核心，建立东北亚地区的“责任共同体”，促进东北亚地区的多边合作，同时推动建立在东海、西海地区的朝韩合作带；（2）重点推荐与俄罗斯远东地区的合作，加强贸易往来及在西伯利亚地区的合作，并合力开放海洋资源；（3）建立北极航线等等。与此同时，文在寅政府上台伊始，在积极修复中韩政治经济关系的同时，也在诸多场合公开表示积极寻求加入中国的“一带一路”倡议，并探讨如何将“新北方政策”与之对接。此后不久，文在寅政府又进一步推出了以东盟国家为核心对象的“新南方政策”，旨在在东南亚地区为韩国企业开辟更为广阔的商业渠道。

综上，可以说，“新南方政策”和“新北方政策”是文在寅政府东亚战略的两大核心组成部分。因此，韩国对于“一带一路”建设将会采取何种政策，很大程度上取决于“一带一路”倡议在多大程度上能够与其国内的“新南方政策”、“新北方政策”实现对接和共赢。2017年12月文在寅总统访华时，曾提出与“一带一路”倡议对接的几种战略合作方案，其中包括加强中韩两国的互联互通、实现亚欧大陆的陆海空交通物流畅通、中韩企业合作开拓第三国市场等等。其中最为引人注意的项目有二：其一为能源合作，韩国期待加强与中国东北地区的合作，并加入中蒙俄经济走廊、大图们江开发计划等多边合作机制；其二为铁路建设。韩国虽为半岛，但受限于朝鲜的地缘政治隔绝状态，实际上的政治地理形态与岛屿无异。因此，韩国期待以朝韩改善关系为核心契机，将朝鲜半岛铁路南北贯通，从而打造纵观欧亚大陆的釜山—平壤—中国东北—蒙古—俄罗斯—欧洲铁路干线。实际上2018年以来，随着朝韩首脑会谈、朝美首脑会谈以及朝鲜无核化进程上的进展，朝韩关系的发展突飞猛进，朝鲜半岛南北铁路建设也逐渐被提上日程。2018年8月，文在寅总统公开提议，以欧盟一体化为样板，打造“东北亚铁路建设共同体”，并提出在今年年内实现南北双边的铁路联通[18]。同时，文在寅表示，该项目的进展将会是开放性的，将引入中、美、俄、日、蒙古等其他五国的积极参与。

对于中国而言，中国政府及民间对于朝鲜半岛的铁路联通表现出了高度期待。在现阶段，中欧班列的开通已成为丝绸之路经济带发展战略的重要组成部分，上升到国家战略的高度，更可谓是“一带一路”建设的标志性成果之一。根据中国政府的规划，东部通道由东部沿海地区经东北地区，并最终从黑龙江省满洲里出境[19]。可以预见，朝鲜半岛未来的互联互通一旦能够实现，则可以与现有的中欧班列相联通，对于中国“一带一路”倡议中的欧亚交通及能源建设也将形成重大利好。特别是随着朝韩关系改善，如果朝鲜能够进一步开放市场并实现经济发展，那么也

17)朝日新聞，<日中協力、発車ベルは幻？タイ高速鉄道、政治と現実にズレ>,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3731615.html（上网时间：2018年11月10日）

18)Benjamin Haas, <South Korean Leader Calls for Train Route to North Korea by End of Year>, The Guardian News, 2018-08-0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15/south-korea-moon-train-rail-road-north-end-of-year（上网时间：2018年11月12日）

19)中国一带一路网，<中欧班列建设发展规划（2016—2020 年）>, https://www.yidaiyilu.gov.cn/yw/qwfb/4802.htm（上网时间：2018年11月7日）

将为中国东北地区的经济发展提供重大的历史机遇。

与此同时，部分韩国学者也提出了其他一些具体的合作方案，以实现“一带一路”与“新北方战略”的对接，例如在东北亚地区推动“资金融通”，即通过亚洲基础设施投资开发银行（AIIB）、丝路基金（Silk Road Fund）、亚洲开发银行（ADB）等多边金融机构为东北亚地区的发展提供资金支持。同时，韩国在朴槿惠政权时期就曾经提出建立“东北亚开发银行”的构想，如若现任的文在寅政府仍然能够继续推进这一想法，那么中韩两国的东北亚地区合作构想中的共同利益将进一步扩大[20]。

4.“一带一路”倡议在东北亚面临的挑战及困难

尽管如上一节所述，2018年以来，随着中日、中韩双边关系的改善以及朝鲜半岛局势的进展，中国政府开始加大“一带一路”倡议在东北亚地区的布局和规划力度，但不可否认是，中国单方面的计划和想法能否落实为双边或多边的合作项目仍有待观察。具体来说，作者认为，“一带一路”在东北亚地区能否落地生根，将面临以下几方面的考验和挑战。

1）抽象概念为主，具体项目仍待落实

首先，东北亚地区作为开展“一带一路”建设相对滞后的地区，客观上说，大部分的构想和计划还仍然处于早期的规划阶段，仍然缺乏具体的路线图和时间表，更缺乏具体落地的合作项目。以“中蒙俄经济走廊”建设为例，目前该项计划实施各自倡议，不仅三国之间的计划仍需进一步协调，在三国国内的各部门及各地方之间，仍然存在诸多前期研究、协调规划、资金支持、人才保障和国家间法律等多方面协调问题。同时，三国间交通运输、通关、进出境检验检疫等标准不一致、手续繁琐等带来的过境、通关成本较高，通关、过境运输壁垒并未完全消除，况且沿线国家的交通运输便利化机制和协议有待健全和完善。

同时，“一带一路”在日本和韩国的接受度尚有待提升的重要原因之一在于，不少日韩两国的经济界人士仍然心存顾虑，认为“一带一路”建设在现阶段的发展仍然虚多于实，即便在未来有意愿与中国企业在一定条件下合作，也仍然先需要收集和分析更为详细的商业与政策信息。这部分工商界人士对于中国的“一带一路”建设往往采取谨慎的观望态度。况且，虽然进入2018年以来，随着中日、中韩关系的恢复升温，中日、中韩两国高层在“一带一路”的合作方面达成了一些政治意向，但总体来看，这种宏观的合作意向仍然需要落实到政府工作层面的具体合作计划。比如，“一带一路”倡议与日本的“印太战略”、韩国的“新南方政策”在东南亚地区存在强烈的竞争关系；与此同时，韩国“新北方政策”的着眼点更多的在于与俄罗斯的能源合作及于朝鲜的经济合作，而并非针对中国。因此，“一带一路”与日韩两国的既定方针政策如何准确对接，仍然缺乏具体的成功案例和模式可循。

2）域内国家的地缘政治顾虑

从地缘政治的角度来看，“一带一路”建设仍然面临区域内其他国家的质疑，特别是源自于政治安全层面上的顾虑。以“中蒙俄经济走廊为例”，俄罗斯国内部分舆论仍然认为中国的经济崛起和影响力扩大对于俄罗斯远东部分形成了一定程度的威胁。俄罗斯国内一些人士甚至认为，中国利用俄罗斯当下遭受国际制裁的困境，在对俄能源谈判中存在牟利动机。俄罗斯倡导的欧亚联盟与中国主推的“一带一路”在战略定位、合作模式、前景规划上都相距甚远，二者虽然在追求经济发展的层面存在一定共通点，但在现阶段看来仍是异大于同[21]。对于蒙古国而言，由

20)李昌株，〈“韩半岛新经济地图、新北方政策”与“一带一路”对接方案研究〉，《东北亚经济研究》，第四辑，2018，pp71-77

21)Gregory Shtraks, 〈A cold summer for China and Russia? - Political Relations between the Two Giants Remain Warm, but Economic Ties Appear to be Cooling〉, 《The Diplomat》, http://thediplomat.com/2015/09/a-cold-summer-for-china-and-russia/ （2015年10月9日）（上网时间：2018年11月10日）; Liu Ming, 〈BRICS Development: A Long Way to A Powerful Economic Club and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Pacific Review》, 第三辑，2016，pp443-4

于其夹在中俄两大国之间的特殊地位，因此蒙古国往往在地缘政治层面上追求左右逢源，并力图在中俄两国间追求势力平衡。同时，蒙古国内仍然存在部分反华情绪，对于中资企业的投资行为带有敌视情绪。另外，从能源贸易的结构上看，蒙古国和俄罗斯是能源净输出国，中国则是能源净输入国，这也就决定了中国在三国能源合作博弈中处于相对被动的地位，中国的利益和诉求往往受到蒙俄两国国内政策变化的影响，这也导致中方企业未来在“中蒙俄经济走廊”的投资活动可能会利益受损。

这种地缘政治上的顾虑在日本政府对待“一带一路”的态度上表现得尤为明显。安倍政府上台以来，在亚太地区主打“印太战略”并提出新南向外交。在此外交战略下，日本优先发展与澳大利亚、印度的双边和多边关系，重点拉动东盟国家，并承诺为东盟国家提供更多的ODA贷款援助。同时，部分日本企业近年来开始撤出中国市场而转投南亚和东南亚市场。无论是从政治上还是从经济上，日本对于中国的进一步崛起都仍然持有打压和敌视态度。安倍首相在2017年12月的日中两国经济界会议上表示，“在自由开放的印度太平洋战略下，也可以与倡导‘一带一路’构想的中国大力合作”，可见日本对于“一带一路”的态度仍然是有条件、有前提的。2017 年年末，虽然日方提出了物流和环境等日中双方具体的合作行业，而在港口建设等与军事相关的问题上日本又表现出了反对的姿态。另外，虽然日方对于“一带一路”的态度有所转变，但是对于加入亚投行仍然没有明确释放出积极信号。这一切都表明，中日关系的全面改善非一日之功，双边层面的老问题需要管控，在第三国层面上的中日协调与合作仍然任重道远。

同时，朝鲜半岛目前的形势虽然转好，贯穿半岛南北的铁路线建设也正在被提上日程，但半岛局势的发展仍然存在诸多不确定性。就在文在寅总统提出该项倡议后不久，美国就一度表现出反对态度，担心该项目可能违反联合国的对朝制裁议案，并反对向朝鲜输入能源、食品等战略物资[22)]。虽然通过美韩双边协商后，美国的态度已经开始软化和转变，但未来的朝鲜半岛互联互通建设的前景，仍然需要考虑美国因素这一重要变量。受限于东北亚地区严峻的地缘政治安全局势，朝鲜及美国的态度都可能影响到未来韩国是否能够进一步加入“一带一路”倡议。

3）来自日本和韩国的恶性竞争

中国、日本、韩国作为东亚地区的三大经济体，目前都在不同程度上积极推出了海外投资扩展计划和与之相配套的政治外交战略。三国之间（特别是中国和日本两国）的企业界之间在海外第三国的投资竞争关系日趋激烈。早在中国倡导成立亚投行时，安倍政府就曾经采取反制措施，承诺日本同样将加大对于亚洲地区的基础设施投资，并重点通过日本政府开发援助项目（ODA）来推行日元贷款和技术支援，并同时扩大日本主导的亚洲开发银行（ADB）的融资能力。

这种中日之间的“恶性竞争”在东南亚国家表现的尤为突出。中日两国对于东亚合作主导权的争夺日趋激烈，特别针对东南亚的基础设施建设和经济开发，中日之间的恶性竞争呈现出白热化趋势，其结果对于两国而言可谓是“双输”的结果[23)]。在这种背景下，例如，在铁路建设方面，中国计划在老挝、泰国、马来西亚和新加坡修建铁路，与中国南部相连。而日本也在东南亚修建铁路，其战略是创建打通缅甸、泰国、老挝、越南的东西经济走廊，与中国形成对峙之势。中日两国各自在推销高铁项目时产生的恶性竞争也容易导致价格战，从而实现双方利益的双输。正因如此，日本国内对于参与“一带一路”也存在不少抵制的声音。一部分日本经济界人士认为，日本企业在南亚、东南亚等地区深耕已久，而现在中国企业的大举进军该地区正在形成对日本影响力和经济利益的极大冲击。在这种背景下，与中国的“一带一路”项目合作，无异于事实上为中国“做嫁衣”。因此，从长远来看，中日韩三国在未来的合作将不仅仅限于三国之间，而是不可避免的发展扩大到其他国家和市场。在这种背景下，三方都应积极创造条件推进机制化的政策沟通，避免恶性竞争。

53

22)Benjamin Haas, <Train project linking North and South Korea stopped in its tracks by US>, The Guardian News, 2018-08-3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31/north-south-korea-train-project-halted-us （上网时间：2018年11月12日）

23)Yoshimatsu Hidetaka, <New Dynamics in Sino-Japanese Rivalry: Sustain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18年（网络发表版）

5. 结论及政策建议

随着近年来中国经济的强势增长，“一带一路”一经提出，随即发展成为中国外交的核心方向，并愈发成为世界关注的焦点之一。作者从中国国内的政策和舆论导向来进行观察并分析认为，2018年将可能成为“一带一路”倡议的一个重要的转型拐点，其中的一个重要表现即中国开始计划将东北亚地区纳入到“一带一路”版图之中。

首先，东北亚地缘政治局势的改善是促使中国政府态度转变的最大因素，特别是中日关系回暖和朝鲜半岛局势的大幅改善，使得中国政府开始考虑中日、中韩在第三方市场合作的可能，以及连接整个朝鲜半岛——中国东北——欧亚大陆的交通物流建设的远景规划。与此同时，“一带一路”倡议实施以来，已经完成了第一个五年期，国际上质疑和批评声音也开始甚嚣尘上。在这样的大背景下，中国政府自从2018年开始有意识的给“一带一路”建设“降温”，不再强调中国的主导角色，而是转而着重探索“一带一路”与其他国家发展战略的对接和融合。正是在这样的思路下，使得中国与俄罗斯、日本、韩国等区域大国的战略对接和协商共赢成为可能。

当然，“一带一路”在东北亚地区的前景仍然不明，从目前来看，中蒙俄经济走廊仍处规划之中，实际投入的项目有限；中韩在第三国市场的合作也尚处于磋商阶段，还缺乏具体成例可循；朝鲜半岛的铁路联通计划，则更充满不确定性，并受到美国因素的影响。目前看来，仅仅是中日两国之间，利用“一带一路”的既有网络，在欧亚区和东南亚区等第三方市场达成了一定的合作成果。尽管如此，这也不意味着日本可以消弭对于中国的地缘政治顾虑。因此，作者认为，“一带一路”倡议未来在东北亚地区的落实和发展，中国特别需要在以下两个方面进行努力。

1）促进高层互访，强化政治互信

进入2018年来，虽然东北亚各国之间的政治外交关系纷纷转好，但地缘政治的隐患仍将长期存在。因此，以首脑会谈为代表的高层互访仍将对于国家间关系的塑造具有决定性意义，也只有在外交关系转暖，进而进入蜜月期的大前提下，中国“一带一路”建设的推行才能迎来历史机遇，并逐步吸引俄罗斯、日本、韩国、蒙古等周边国家的积极响应与积极对接。特别是以日韩两国为例，其对于“一带一路”态度的积极转变，首先应受惠于中日、中韩双边关系的改善和提升。同时，中国应积极争取斡旋和介入朝鲜半岛的和平进程，扩大对半岛事务的政策影响力。

2）借鉴日本和韩国的先进经验，避免恶性竞争

客观地说，日韩两国在海外投资和基础设施建设方面，开展时间较早，也已经积累了丰富的经验，相对于中国而言，运作和盈利模式更为成熟。比如，在中日竞争的重点区域——东南亚，日本自战后以来早已深耕几十年，建立起完善的制造业基础，不少企业也是当地的最大投资商。不同于中国，日本在东南亚地区的经济活动采取了政府ODA贷款、私营企业、金融集团、政府机构、多边机构等多样化的运作模式。相反，中国目前在“一带一路”各沿线国家仍然主要采取了政府主导、国企实施的投资模式，其盈利能力、财政可持续性、可持续发展能力、以及与当地社会的融入程度仍存在一定弊端。因此，有评论认为，日本在这些地区的基础设施投资建设的弱点在于宣传能力不足，因此稍显低调，但实际上日本在当地的影响力以及所取得的具体成果不菲。再例如，虽然亚投行成立以来在开放性、透明度等方面广受好评，但由于其毕竟处于草创阶段，其实际的运作能力仍有待观察，因此在现阶段还不具备与亚洲开发银行竞争的实力。综合这些意见，在现阶段来看，中国的“一带一路”建设仍需要向日本、韩国等发达国家学习并汲取其先进经验，特别是应该进一步建立和扩大中日、中韩产业界和政府部门的相关对话机制。

【参考文献】

仇发华，〈“中朝韩经济圈”建设初探——兼论“一带一路”在东北亚地区对接〉，《韩国研究论丛》，第一辑，2017。

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中日关系战略报告书：中日关系2017——战略对峙中的转机》，2018年3月。

郭霞、朴光姬，〈一带一路”倡议与东北亚能源安全合作——基于区域构建视角的分析〉，《东北亚学刊》，第六辑，2017。

李昌株，〈“韩半岛新经济地图、新北方政策”与“一带一路”对接方案研究〉，《东北亚经济研究》，第四辑，2018。

林备战，〈“一带一路”倡议下东北亚地区国际运输通道建设〉，《东北亚经济研究》，第四辑，2018。

朴光姬、李芳，〈“一带一路”建设与中蒙俄能源合作——基于地区安全视角〉，《亚太经济》，第三辑，2016年。

童黎、郭光昊，〈前所未有！中日180亿美元第三国合作协议清单〉，http://finance.sina.com.cn/stock/usstock/c/2018-10-26/doc-ifxeuwws8484244.shtml（2018年10月26日）（上网时间：2018年11月10日）。

王海燕，〈“一带一路”视域下中蒙俄经济走廊建设的机制保障与实施路径〉,《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五辑，2016年。

王俊生，〈“一带一路”缓解东北亚安全困境：可行性及其路径〉，《国际安全研究》，第二辑，2018。

王玉柱，〈蒙古国参与“一带一路”的动因、实施路径及存在问题〉，《国际关系研究》，第四辑，2016。

于洪君，〈中蒙俄在“一带一路”建设中开展务实合作的现状与前景〉，http://zmejjyjy.imu.edu.cn/info/1048/1131.htm（上网时间：2018年11月10日）。

张蕴岭，〈中国参与和推动东北亚区域经济合作的战略〉，《东北亚论坛》，第一辑，2013。

———，〈东北亚区域合作与新秩序的构建〉,《社会科学战线》，第三辑，2015。

中国一带一路网，〈中欧班列建设发展规划（2016—2020 年）〉，https://www.yidaiyilu.gov.cn/yw/qwfb/4802.htm （上网时间：2018年11月7日）

安倍晋三，〈日中第三国市場協力フォーラム 安倍総理スピーチ〉,日本首相官邸记者会记录，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18/1026daisangoku.html（2018年10月26日）（上网时间：2018年11月10日）。

朝日新聞，〈日中協力、発車ベルは幻? タイ高速鉄道、政治と現実にズレ〉，https://www.asahi.com/articles/DA3S13731615.html（上网时间：2018年11月10日）

日本経団連，〈第４回日中企業家及び元政府高官対話共同声明〉，http://www.keidanren.or.jp/policy/2018/082.html （2018年10月12日）(上网时间：2018年11月10日)

Benjamin Haas, 〈South Korean Leader Calls for Train Route to North Korea by End of Year〉, The Guardian News, 2018-08-0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15/south-korea-moon-train-rail-road-north-end-of-year（上网时间：2018年11月12日）

——————, 〈Train project linking North and South Korea stopped in its tracks by US〉, The Guardian News, 2018-08-3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31/north-south-korea-train-project-halted-us（上网时间：2018年11月12日）

Gregory Shtraks, 〈A cold summer for China and Russia? - Political Relations between the Two Giants Remain Warm, but Economic Ties Appear to be Cooling〉, 《The Diplomat》, http://thediplomat.com/2015/09/a-cold-summer-for-china-and-russia/ （2015年10月9日）（上网时间：2018年11月10日）

Liu Ming, 〈BRICS Development: A Long Way to A Powerful Economic Club and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Pacific Review》, 第三辑，2016

Yoshimatsu Hidetaka, 〈New Dynamics in Sino-Japanese Rivalry: Sustain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18年（网络发表版）

【메 모】

【중국사회과학 분과】 발표 ⑤

중국외교 3.0: 시진핑 시기의 변화와 지속*

리 단 (부경대)

【목 차】

Ⅰ. 서론
Ⅱ. 중국의 국제질서관의 변화
1. 마오쩌둥: 혁명론과 국제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추구
2. '덩샤오핑 시대': 평화주의와 국제질서에 대한 참여
Ⅲ. 시진핑 시대의 중국외교: 운명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
1. 인류운명공동체의 창의
2. 신형국제관계의 구축
Ⅳ. 결론: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의 변화와 지속

【초록】
이 연구는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외교의 '변화'와 '지속'적 측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대외적으로 소위 핵심이익과 관련된 의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저비용의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지향해 가야 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큰 틀에서 중국외교는 기존 지도부시기와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조정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시진핑 시기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강한 자신감으로 피동적 대응에서 선명하고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우선 외교목표 설정의 명확성에서 나타났다.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인류문명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 구축을 내세워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제기 및 전개하고 있다. 둘째는 기존의 상호신뢰 강조에 비해 공동이익을 강조하였다. 셋째, '적극적인 유위관(積極的有爲觀)' 즉 역할론 강조이다. 향후 중국의 이러한 '분발외교'는 주변국가와의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의 신뢰구축여부, 일대일로를 비롯한 글로벌 전략에서 강대국과의 이익의 조화여부 및 역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관건이 될 것이다.

【키워드】 시진핑, 국제질서관, 혁명, 평화, 운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 변화와 지속성

Ⅰ. 서론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에 따르면 국제체제는 어느 정도의 질서를 내포한 위계체제이며 지배국가-강대국-중견국-약소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국제체제는 '민족 국가군'과 '불만족 국가군'으로 나뉘는데, 불만족국가군의 어느 한 강대국이 급성장하여 지배국가의 도전세력으로 등장할 때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체제위기가 발생한다.[1] 중국은 약 40년의 개혁개방으로 G2시대의 막을 올렸다. 따라서 그 동안 중국은 '경제적 거인'인 것에 비해 '전략초보(戰略新手)'단계에 머물렀다. 즉, 거대한 경제적 우세를 대외전략으로 효과

* 이 논문은 2017-2018년도 부경대학교 자율창의과제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과제번호: CD20170498)
1) 김성한, 「아태지역에서의 G2 체제: 미.중 협력과 갈등 가능성 평가」, 『전략연구』 통권 제60호(2013.11), p.109.

적인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속에서 2008년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은 적극적인 태세를 보였으며, '공세외교'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2년부터 개막된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중국몽(中國夢)'을 기조로 국가대전략을 구상해 왔으며 세계적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해[2] 왔다. 시진핑은 대외관계의 3관 즉, '역사관(歷史觀)', '대국관(大局觀)', '역할관(角色觀)'을 제시하여 국제무대에서 '신발전관(新發展觀)', '신안보관(新安佺觀)', '정확한 의리관(正確的義利觀)', '글로벌 거버넌스(全球治理)', '국제 법치관(法治觀)'으로 주동적, 적극적 외교전략을 펼치고 있다.[3] 현재 중국은 '분발유위(奮發有爲)'를 외교기조로 미국, 유럽,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신형대국관계'의 재설정, 주변국과의 대외직접투자(Outbound Direct Investment, ODI)와 공적개발원조(Oversea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4] 중국 외교의 이러한 강세적인 성향은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변화가 진행 중'이며[5] '질적인 변화(質的變化)'를[6]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변모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의 외교에 관한 담론과 논쟁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 그리고 1989년 천안문 '정치풍파' 등 국내외 전략적 환경을 고려하여 덩샤오핑은 '韜光養晦, 有所作爲'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 중국외교는 '불 간섭(不干涉)', '불 대항(不對抗)', '비결맹(不結盟)', '불 당두(不當頭) ' 등 내용을 외교의 기조로 삼았었다. 21세기 초 WTO가입으로 세계체제로 편입한 중국은 '도광양회' 전략이 21세기 변화 된 국제정치 환경에 적극적인 대응 여부를 둘러싸고 이른바 '역할론'에 대한 논쟁이 진행이 되었다. 예컨대, 예즈청(葉自成)은 중국의 역할을 영역별로 구분하는 것과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고,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앞장을 서서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이 번 논쟁에서는 '도광양회' 논조가 여전히 주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으로 지역 '책임대국(責任大國)론'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외교실천에서 관철되었다. 2002년말 2003년부터 한반도에서 불거진 제2차 핵위기에서 중국의 '셔틀외교'를 통한 중재자, 균형자 역할 추구가 바로 그러한 맥락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외교전형에 대한 토론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외교에 대한 담론은 '목표의 모호성', '대국으로서의 우유부단'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중국은 급부상에 즉 '경제 거인'에 걸맞은 대전략(大戰略)의 제시가 시급하다는[8]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제시가 있었다. 왕이쩌우(王逸舟)는 일직히 중국의 외교전형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왕이쩌우는 그 동안 중국학계가 외교전형에 대한 견해를 '글로벌 거버넌스(全球治理)', '해외 이익설(海外利益說)', '신형주권론(新型主權論)', '무력신중론(愼用武力論)', '왕도패권론(王道覇道論)', '타성 억제설(抑制惰性)', '전략강역론(戰略疆域論)', '사회민의론(社會民意論)', '국제공관론(國際公關공:public relations)', '이익계층론(利益分層論)', '복잡한현상론(複雜現象論)', '세계대세론(世界大勢論)'등으로 분류하였다.[9] 미국학자 썬다웨이(沈大偉, David Shambaugh)는 중국 외교전형을 학파별로 '본토파', '현시주의파', '대국파', '아시아 제1파', '글로벌 남방파', '선택적 다자주의'와 '글로벌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중국외교 연구가 '분극화(極化)'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10]

쯔오커진(趙可金)는 이러한 외교전형에 대한 주장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11] 첫 번째는 '도광양회 유소작

2) 李東律,「시진핑체체제의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제18차 전국대표대회
3) 徐宏.“习近平外交思想引领中国特色大国外交迈上新征程”,「光明日报」2018年7月4日, 中国社会科学网(http://www.cssn.cn/gjgxx/gj_zgwj/201807/t20180719_4506135.shtml)
4)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국제정치논총』제58집 1호, 2018, pp.112-116.
5) 김홍규,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관계”,「jpi 정책포럼」, 2015.04.p.2.
6) 阎学通,『超越韬光养晦』天津出版传媒集团, 2016, p.72.
7) 叶自成, “21世纪初的新形势与中国大国战略新概念”,『国际政治研究』2000年第6期, pp.29-31. 叶自成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빠른 시일 내 매커니즘의 전환으로 서구가 주도하는 시장체제로 참여,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체제로 참여,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고 주류국가로 부상,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쟁취하고 필요할 때 앞장서야 하며 글로벌 사무에서 방관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8) 赵可金, “中国崛起与对外战略调整“,『社会科学』2010年第9期, pp.3-4.
9) 王逸舟, “中国外交转型”,『学习与探索』2008年第5期, pp.57-67.
10) 赵可金, “建设性领导与中国外交转型”,『世界经济与政治』2012年第5期, p.49.
11) 赵可金, 위의 논문, pp.49-50.

위′ 전략이 여전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이슈문제에 대한 인내와 양보하는 전략을 단기간 내 중대한 조정을 해서는 안 되며 ′도광양히 유소작위′ 전략으로 국제사회에서 ‘4불원칙’ 즉 ′깃발을 들지 않고(不扛旗)′, ′앞장을 서지 않고(不當頭)′, ′적을 만들지 않으며(不樹敵)′, ′대항을 하지 않는다(不對抗)′ 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은 외교전략에 대한 적극적으로 변혁으로 국제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국력의 부상과 함께 외교정책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며 국제신용을 우선순위에 놓고 국제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중국은 중요한 세력과 결맹을 해야 하며 보다 많은 전천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결성하여 중국의 발언권의 확보와 중국식 발전모델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주장은 안정 속에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새로운 정세 하에 유소작위를 추구해야하며 글로벌 금융, 기후변화, 해양문제, 지역적 이슈문제 등에 대하여 건설적인 규칙의 창립을 추동하고 중국의 이념과 가치관을 국제규범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지속적인 조정을 겪었던 중국외교는 시진핑 시기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인 개입과 능동적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국익 추구를 위하여 ′지역대국′에서 ′글로벌 국가′로 나아가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비전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지향은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될 것을 전망된다.[12] 따라서 시진핑 시기의 중국 외교 방향의 설정이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외교가 추구하는 목표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우선 중국의 국제 질서관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국제질서관은 국가가 국제질서에 대한인지와 자국이 구상한 이상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추구이다. 국제질서관은 외교 전략의 핵심요소로서 외교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의 분석을 통해서 중국 외교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측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Ⅱ. 중국의 국제질서관의 변화

국제질서관은 행위자가 국제질서에 대한 기본인식으로서 일반적으로 몇 가지 패턴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현존 국제질서에서의 강대국과 자국에 대한 평가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적 시스템에서 자국 및 자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타 행위자에 대한 자리매김,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이다. 셋째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정체성 형상화 및 자국이 국제질서 속에서 현재 내지는 미래의 이익의 실현이다.[13] 현대 중국의 국제질서관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형성되었다. 건국 초기 중국은 서구 중심적 자본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전면부정으로부터 평화공존 원칙으로 발전 하였으며 나아가 ‘공정한 신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건립(建立公正的國際政治經濟新秩序)’ 제안 등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적 태세를 보여 왔다.[14]

1. 마오쩌둥: 혁명론과 국제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추구

1) ‘일변도(一邊倒)’ 전략의 제시

중화인민공화국 건구 이후 장제스(蔣介石) 정권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합법국가로 안정을 받은 반면 사회주의 중국은 국제질서에서 배제되었다. 건국 초기 마오쩌둥을 ′일변도′ 전략으로 자본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전면부정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제질서를 따르기로 하였다.[15]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헌법의 성격을 띤 ‘공동강령(共同綱領)’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은 국가 독립. 자주 및 영토의 완전을

12) 门洪华, “两个大局视角下的中国国家认同变迁(1982-2012)″,『中国社会科学』2013年第23期, pp.54-66.
13) 安善花. 张益姝, “当代中国国际秩序观的构建及其实践战略--基于近代历史记忆和现实国际环境的研究分析”, 『大连大学学报』第36卷第1期, p.92.
14) 叶自成. 蒋立群, “新中国国际秩序观的变迁”,『党的文献』2011年第6期, p.72.
15) 叶自成. 蒋立群, 위의 글, p.72.

보호하기 위함이며 중국은 국제사회의 영구적 평화와 각 국가 인민과의 우호협력을 옹호하고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며', '중국은 우선 소련과 인민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압박을 받은 민족을 연합하여 공동으로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며 세계의 영구적 평화를 수호 한다'[16]라는 외교정책 기조를 천명하였다.

1949년 11월 8일 외교부 성립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외교부장인 쩌우언라이(周恩來)는 '신중국의 외교(新中國外交)'라는 연설에서 중국의 외교임무를 '소련과 인민민주주의 국가와 형제 우의를 결성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17] 중국은 서구열강이 무력으로 중국에 가한 일련의 불평등 조약이 중국 주권과 국익에 대한 침해임으로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역설하였으며 '새로 부뚜막을 쌓겠다는(另起爐灶)전략을 제시하여 중국식 이념외교를 펼치게 되었다.

마오쩌둥 시기 중국은 국가주권의 평등. 영토의 완전 등 측면에서 서구 중심적 국제질서를 인정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시기 중국의 국제질서관은 형명과 전쟁으로 자본주의 세계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18] 즉 사회주의진영에서 소련의 주도적 위치를 인정,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진영과의 대립, 사회주의 국가 간의 주권 독립 수호와 협력, 그리고 신흥 국가의 민족 독립운동지지 등이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의 대외정책과 외교관계는 동일 이념권에서는 대소련관계, 대항적인 세력관계에서는 대미국관계, 그리고 여타 지역과의 관계에서는 제3세계가 일차적인 고려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19] 건국 초기 중국의 국제질서관은 '친소(親蘇)'와 '반미(反美)'로 요약이 된다.

2) '평화공종 5원칙'과 '중간지대론'

중국의 일변도 전략은 어는 특정국가에 절대적 복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0] 건국 초기부터 중국은 주권의 독립과 국가 간의 평등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마오쩌둥은 외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국가는 대소를 막론하고 평등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였다. 예컨대 1954년 마오쩌둥은 미얀마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은 '대국의 특별한 권리를 반대하며 강대국은 높은 지위 약소국은 낮은 지위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며 '강대국은 약소국에 대하여 경제적 착취, 정치적 압박, 그리고 자국의 의지와 정책과 사상을 약소국에 가해서는 안되며...강대국이 봉건적 가부장과 같이 다른 국가를 자제(子弟)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21]

1950년대 중국은 초기의 국민당정권이 남긴 유산에 대한 청산과 민생회복을 통해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국제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진영의 국가로부터 인정을 얻었으며 미얀마,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 개선으로 어느 정도 국제환경의 완화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국내. 국제환경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중국은 대외전략과 정책을 조절하였다. 1953년 저우언라이 총리는 인도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互相尊重主權和領土完整), 상호불가침(互不侵犯), 상호 내정불간섭(互不干涉內政), 호혜평등(平等互利), 평화공존(和平共存)' 이른바 '평화공존 5원칙'을 제시하였다. 1954년 6월 중국과 인도, 중국과 미얀마의 연합성명에서도 평화공존 5원칙을 제창하였다. 1955년 4월 18일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 국가 대표단이 참석하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저우언라이 총리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호소와 함께 평화공존 5원칙을 재차 천명하였다. 1950년대부터 평화공존 5원칙은 중국외교의 지도지침으로 대외관계의 초석이 되었다.

한편 1950년대 중반부터 잠재되었던 중·소 갈등이 1956년 소비에트 20차 대표대회를 계기로 공개적으로 악화되면서 중국은 공공연하게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양극 체제의 틀에서 벗어나

16) 『中华人民协商会议共同纲领』 제1장 총강 내용 참조 정리.
17) 『周恩来外交文选』 中央文献出版社, 1990, pp.1-2; 张少冬, "周恩来外交思想中的国际秩序观", 『社科纵横』 总第33卷第1期, 2018年1月, p.27에서 재인용.
18) 叶自成. 蒋立群, 앞의 글, p.72.
19) 박병광,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전략연구』 통권 제60호, 2013.11, p.142.
20) 张历历, 『当代中国外交简史』 上海人民出版社, 2008, p.8.
21) 『毛泽东外交文选』, 中央文献出版社、世界知识出版社, 1994年版, pp.191-192;俞沂暄, "中国的国际秩序观", 『复旦国际关系评论』 第十四辑, p.312에서 재인용.

기 위한 '3개 세계론(三个世界劃分)'을 설파하였다. '3개 세계론' 의 취지는 미국과 소련이 패권경쟁을 하는 국제구조를 대비한 것이며 그 목적은 강대국 및 패권국가의 갈등에 대한 활용으로 중국의 국가 이익을 수호를 하는 동시 비교적 완화된 국제관계 형성에 데 있다.[22] 마오쩌둥 시기 중국외교는 혁명과 국제외교관례 간에 미약한 '이중성'을 보였으나 혁명과 투쟁이 압도적이었다. 이 단계의 중국외교는 '시작단계'에 처해 있었다.[23]

2. '덩샤오핑 시대': 평화주의와 국제질서에 대한 참여

1) 국제체제 인식과 '신 국제 정치경제 질서' 제안

(1) 국제체제 인식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 전회는 중국이 '계급투쟁 중심'에서 '경제건설 중심'으로 전환의 기점이 되었다. 통상적으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집권까지의 중국을 '덩샤오핑 시대'로 구분한다.[24] 1978년에 복권을 한 덩샤오핑은 '평화'와 '발전'을 시대발전의 양대 주제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1987년에 "중국공산당 제13차 당대표대회 보고"에 기재하였다.[25] 중국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걸맞은 대외정책을 "독립자주 대외정책의 견지", "중국은 결코 어떤 대국이나 국가집단의 압력에 의존 또는 절대 굴복하지 않은다"라는 기조를 강조하였다.[26]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기존의 혁명론에 근거한 '적', '아' 논리에서 벗어나 '건설적, 발전적 사고'로 외부 환경을 평가하였으며 1980년대 중국의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친구 찾기(找朋友)'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가능한 한 많은 '친구'를 쟁취하여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교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신 국제 정치경제 질서 제안

1984년 4월 덩샤오핑은 부라질 총리를 회견 하는 자리에서 '신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건립'을 강조하였다. 덩샤오핑은 신 국제 정치경제 질서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세계는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평화문제는 그 중의 하나이다. 평화를 쟁취하려면 패권을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남북문제도 시대적 과제 중의 하나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경제 발전에 지장을 줄 것이다.'[27]라는 것이다. 덩샤오핑의 이러한 주장은 외국 수뇌와의 만남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었다. 1988년 9월 덩사오핑은 스리랑카 총리와의 만남에서 '현재 국제경제 신질서의 건립과 국제정치 신질서의 건립이 필요', 같은 해 12월 인도 총리와의 만남에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와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의 건립은 시급하다' 등 중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28]

덩샤오핑의 신 국제 정치경제 질서관은 중국의 후계 지도자들로부터 계승과 발전되었다. 1992년 중국공산당 14차 대표대회는 '평화공존 5원칙을 기석으로 평화(和平), 안정(穩正), 공정(公正), 합리(合理) 적인 신국제질서'를 제시하였으며, 1997년 15차 당대표대회는 '국제신질서는 평화공존 5원칙을 토대로 해야 하며 이는 유엔헌장의 원칙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대표대회는 '국가는 정치적으로 상호존중, 공동협상을 해야 하며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게 강요해서는 안됨; 경제적으로 상호촉진. 공동발전을 해야 하며 빈부격차를 조성해서는 안됨, 문화적으로 상호참조, 공동번영을 해야 하며 타민족의 문화를 배척해

22) 仇华飞, 앞의 책, p.58.
23) 王逸舟, "中国外交六十年",『江苏社会科学』2009年第6期, pp.2-3.
24) 王逸舟, 위의 글, p.3.
25) 韩召颖. 姜潭, "改革开放以来中国外交理念的演进 --基于中国共产党全国代表大会政治报告的分析(1982-2017)",『南开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8年第1期, p.13.
26) 刘建飞, " 改革开放与新中国外交",『中共党校学报』第19卷第1期, 2015年2月, p.109.
27)『邓小平文选』第3卷, p.56; 陈少铭, "邓小平与改革开放以来中国外交战略的确立",『中共党史研究』2014年第10期, p.35에서 재인용.
28) 宫力, "中国国际秩序观的演进与战略选择",『现代国际关系』2014年第7期, p.34.

서는 안됨, 안보적 측면에서는 상호신뢰, 호혜, 평등 및 협력의 신안전관을 수립해야하며, 대화와 협력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안됨' 등내용으로 그 동안의 신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구체화시켰다.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 대표대회는 중국이 구상 한 이상적인 국제질서관을 '영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세계'로 규명하였으며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역할론을 공공연하게 제시하였다.

요컨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은 부정에서 인정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1982년 중국공산당 제12차 대표대회는 '기존 불평등한 국제경제관을 타파하고 국제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쟁'이라는 인식으로 '타파', '투쟁'이 키워드였다. 중국공산당 제15차 대표대회는 현재 국제질서를 '국제정치경제 낡은 질서'라는 표현과 함께, 이 체제는 '불공정하고 불합리'라는 평가를 하였으며 국제질서를 낮게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제 17차 전당대는 '국제정치경제 낡은 질서'라는 표현이 언급되지 않은 채, 중국은 '국제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동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이 전면부정으로부터 점차적인 인정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9] 전체적으로 이 시기 중국은 '인정'과 '불만'으로 국제질서를 평가하였으며 국제정치경제 신질서의 추진을 중국의 책임과 의무로 간주하여 이러한 질서에서의 중국의 자주성 수호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30]

3) 다자주의주의와 국제질서에 대한 참여

마오쩌둥 시기 중국의 다자외교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시기 중국은 중립적인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를 시도하였으며 (1950년대 중국은 세계위생기구에 신청서 제출) 그 범위는 아시아, 아프리카와 관련된 국제기구였다. 이 시기 중국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데 중점으로 두고 다자외교를 반제국주의. 반패권주의 무대로 활용하였다. [31] 1970년대 중국은 중소관계 악화로 소련을 주적으로 인식하여 '반소' 통일전선 건립에 주력하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이는 중국과 서구 국가 간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은 1971년 유엔에 가입하여 정치대국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1971년 11월 24일부터 1976년 12월 22일 안보리의 158회 결의 중 중국의 미투표율이 29%(46회)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으며[32] 이 기간 중국은 거부권보유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 등 강대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자임하고 실익 추구전략을 도모하였다.[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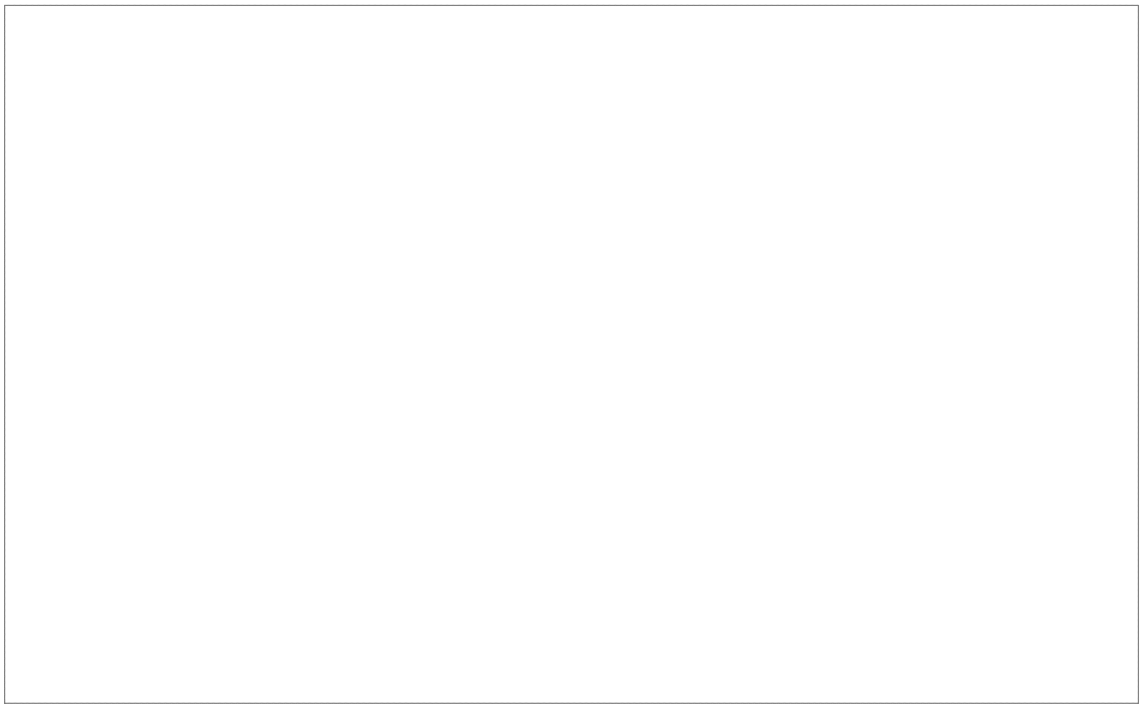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국제체제를 다극화로 인식해 왔으며 중국이 중요한 '한극(一極)'이라고 판단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제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34] 덩샤오핑은 '미·소 양국의 독점 상황이 변화되고 있으며 세계는 다극(多極)으로 발전 하는 데 중국이 한 극을 차지하며', 중국은 '국제문제에서 무소작위(無所作爲)가 불가능하며 무엇이던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국제 정치경제 신질서를 추동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35] 따라서 1980년대 초부터 중국의 외교는 이념을 지침으로 하였던 이상주의 편중에서 현실주의로 치우치게 되었으며 대외정책은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외교적 노력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국제체제에 대하여 선별적. 차별적으로 참여 및 활동의 수위를 조절하는 태도를 보여왔다.[36] <그림-1>는 1966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이 국제기구의 참여현황인데 중

29) 韩召颖. 姜潭, 앞의 글, p.13.
30) 孙伊然, "亚投行、'一带一路'与中国的国际秩序观",『外交评论』2016年第1期, p.6.
31) 郑启荣. 牛仲君 主编,『中国多边外交』世界知识出版社, p.27.
32) Samuel Kim, China the Nations and World Onler, p. 209; 郑启荣. 牛仲君 , 앞의 책, p.61, 재인용.
33) 박홍순, "중국과 다자외교－UN과 PKO 정책: 中國多者外交-UN(國際聯合)/PKO(平和維持活動)政策", 평화연구학회, p. 228.
34) 채규철, "중국의 대외전략과 향후 대외관계 전망",『社會科學研究』2013, 52(4), p.136.
35) 门洪华, "'韬光养晦、有所作为'战略方针与20世纪90年代的中国外交",『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2016年第4期, p.84
36) 한석희, "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외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국제지역연거』제11권 제1호, p.358.

국의 참여율이 미국, 일본, 인도 등 국가가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수준의 80%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37] 21세기 초 중국이 WTO 가입으로 이러한 행보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2007년 중국이 참여 한 4, 386개 국제기구 중 1, 753개가 협정성(協定性) 기구인데 그 중 A형(국제기구연맹) 25개, B형(지구적 국제기구) 374개, C형(洲際組織) 575개, D형(지역조직)은 779개로 통계되었다.[38] 이러한 국제기구에서의 참여범위는 국제안보제도, 국제경제제도, 국제환경제도 내지는 인권제도 등 전방위적인 특징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중점이었다.

<그림-1> 중국과 미국, 일본, 인도 등 국가가 국제기구 참여율 비교



* 자료출처: Yearbook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8th ed.(Brussels: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2000/2001); 江忆恩(Alastair Lain Johnston), "中国对国际秩序的态度",『国际政治科学』2005年第2期, p.32, 재인용.

서구학자들은 중국의 정치, 문화, 역사 등 요인에서 출발하여 중국이 국제제도에 대한 준수율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국제체제에 대한 수용 및 융합은 아주 높았다. [39] 1980년대부터 중국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내발전 노선의 조정에 따라서 국제사무에 대한 정책을 조절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유엔 평화유지에 대한 입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81년 중국은 '유엔헌장에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정 및 국가의 주권과 독립에 유리한 평화행동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40] 1982년부터 중국은 유엔 평화유지 배당금을 담당하는데 동의하였으며 1986년에는 체납금을 납부하였다. 1988년 9월에 유엔 평화유지행동특별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거의 찬성을 하였다. 또한 중국은 평화유지 활동 인력을 파견을 하였으며 그 숫자는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2년 이전에 중국이 투입한 인원은 약 100명의 수준에 머물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국가보다 확연히 낮은 수준이이다. 그러나 2003년에 300명으

37) 江忆恩(Alastair Lain Johnston), "中国对国际秩序的态度",『国际政治科学』2005年第2期, p.32.

38) Figure 2.1.1. Geographic distribution: membership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country: 2007, p.41, Figure 2.1. 1. Geographic distribution countries in the greate st numb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2007, Yearbook of interna tional Organizations: Guide to Global Civil Society Networks: 2008-2009, p.50; 朱立平, "中国参与国际体系的评估指标及相关分析",『江海学刊』2009.5, p.165 재인용.

39) Ann Kent, *Beyond Compliance: Chin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Security,* p.222; A last air Lain Johnston, *Social State: China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1980-2000, p.196; 朱立平, "中国参与国际体系的评估指标及相关分析",『江海学刊』2009.5, p.165, 재인용.

40)『中国代表团出息联合国有关会议文集』, 世界知识出版社, 1981年, p.130.

로 상승하여 2004년부터 총 숫자가 1, 000명 이상에 달했다. 2008년 현재 중국은 18차례 총 10, 000명의 인원을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파견하였다.[41]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개혁, 개방 이후 성장한 국력과 걸맞은 '책임대국'의 이미지 창출전략 형태를 보이고 있다.

Ⅲ. 시진핑 시대의 중국외교: 운명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논쟁도 시작이 되었다. 국제관계의 측면에서는 중국을 부상한 '신흥대국(新興大國)', '신형초강대국(新型超級大國)', '개량적 수정주의(改良修正主義)', '조화세계의 건설자(和諧世界的建設者)'로[42] 간주하였고, 국제체제와의 관계에서는 중국을 '국제체재 내의 강대국(體係內大國)', '책임대국(責任大國)', '도전적 대국(挑戰大國)'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논쟁과 함께 중국외교는 2009년부터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새로운 조정적 국면에 진입하였다. 현재 중국의 외교를 '공세적 외교', '개혁과 창신'이라는 분석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며 중국의 이러한 전형은 ' 인류운명공동체'의 제창과 이를 위한 외교적 실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1. 인류운명공동체의 창의

1) 전개과정

'운명공동체'는 2010년의 "제2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언급된 개념이다. 2011년 9월,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는 '국제사회는 반드시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운명공동체'의 시각, 협력과 상생의 이념, 문명 간의 학습, 국가 간의 협력으로 인류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상호포용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43] 이어서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는 '운명공동체'를 대외전략의 10대 지침 중 하나로 삼았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에 처음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언급 한 후 다양한 자리에서 수차례 걸쳐 '인류운명공동체'를 해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이 주장하는 '인류운명공동체'의 윤곽이 들어나게 되었다.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유엔대회에서 '인류운명공동체'의 내용을 국가 간의 '평등. 이해. 협상으로 동반자관계 구축, 공정. 공평. 정의. 공동으로 건설. 공유(共享)의 안보구조, 창신. 포용. 호혜적인 경제관계, 화이부동. 상호포용(兼收幷蓄)의 문명 간의 교류, 자연. 녹색. 발전적 생태체계의 구축'[44]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인류운명공동체'를 설명하였다. 2017년 1월 18일, 시진핑은 유엔 연설에서 '인류운명공체' 구축의 관건은 행동에 있으며 국제사회는 동반자관계, 안보구조, 경제발전, 문명 간의 교류, 생태 등 여러 방면에서의 노력을 d기울여야한다고 강조하였다.[45]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표대회는 '인류문명공동체 구축'을 중국공산당 당헌에 수록하였으며 2018년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를 중국헌법에 기재하였다. 또한 2017년 2월 10일 "아프리카 신개발 협력 계획(N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는 중국이 제창한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채택하였다.[46] 이로서 '인류운명공동체'는 국제사회로부터 호응을 얻게 되었다. (<표-1>은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의 전개과정이다)

41) 张慧玉, "试析中国参与联合国机制对世界的影响",『国际论坛』2003年第5期, 郑启荣. 牛仲君 , 앞의 책, 64, 재인용.
42) 陈志敏, "全球治理中中国的写尽力量定位",『国际政治研究』 2012年第4期 ; 公为明, "关于世界大变革与中国外交大转型的思考",『国际观察』2017年第四期, p.19에서 재인용.
43) 陈须隆, "人类命运共同体理论在习近平外交思想中的地位和意义",『当代世界』2016.07, pp.9-10
44) 习近平, "携手共建合作共赢新伙伴, 同心打造人类命运共同体",『习近平谈治国理政』第二卷, pp.523-525; 杨洁勉, "新时代中国外交的战略思维和谋划",『外交评论』2018年 第1期, p.5, 재인용.
45) 杨洁勉, "新时代中国外交的战略思维和谋划",『外交评论』2018年 第1期, p.5, 재인용.
46) 周安平, "人类命运共同体概念探讨",『法学评论(双月刊)』2018年第4期(总第210期), p.17.

<표-1>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의 전개과정

시간	장소	내용
2010.	제2차 중.미 전략과 경제대화	운명공동체
2011.09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	운명공동체의 시각으로 인류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대응 및 상호포용적인 발전 추구
2012.10	중국공산당 18차 대표대회(후진타오)	대외관계 10대 지침으로 삼음
2013.03	모스크바 대학연설	인류사회는 갈수록 상호융합('你中有我, 我中有你') 적인 운명공동체로 발전
2013.04	버아오포럼(博鰲論壇)	운명공동체를 견고하게 수립
2013.10	동남아 방문 시	중국-아세안 간 긴밀한 운명공동체
2014.11	중앙외사공작회의	주변운명공동체를 타조
2015.09	버아오아시아포럼	아시아운명공동체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
2015.11	제17차 유엔회의	협력적 윈윈의 동반자관계 구축으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2016.07	중국공산당 창당95주년 대회	인류운명공동체와 이익공동체를 추동
2017.05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	제휴로 광범위한 이익공동체를 구축
2017.07	G20회의	광범위한 이익공동체 구축
2017.10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표대회	중국공산당 당헌에 기재
2-18.03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헌법에 기재

2) 배경

후진타오 집권 끝 무렵에 제시된 '공동체' 개념을 시진핑 시기에 전면적으로 전개 되었으며 범위는 국가간 공동체에서 지역공동체 나아가 인류운명공동체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운명공동체의 개념이 나오고 또 중요시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 번째는 글로벌화이다. 정보화의 확산으로 국가 간의 상호의존과 공동체 개념이 전례 없이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국가 간의 협력관계의 형성과 함께 환경. 에너지. 사이버 안보와 같은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중국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려 가지 도전에 대해서 일국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혼자 힘으로 인류가 직면하는 온갖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어떤 나라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 [47] 하에 '인류운명공동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 구축의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다. 21세기 국제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부상이라 할 수 있겠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현재 124개 국가(지역)의 제1대 무역국이며, 외자유치와 대외투자는 세계2위를 차지하였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국제질서의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으며 중국과 국제질서의 관계가 기존의 피동적. 수동적 관계에서 적극적. 능동적 관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유례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이후 중국은 '홈그라운드 외교(主場外交)'로 국제회의를 35차례 개최하였다. 회의 참가국가(지역) 또는 기구가 약 224개에 달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이 처음으로 제안 혹은 정례화 된 회의 또는 장기성 국제정상회이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회의 의제설정 권리 확보 및 발언권 향상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였다. [48]

그러나 부상한 중국이 직면한 국제환경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 안보적인 압력이 가장 주목을 받는다. 실제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어떠한 국가로 발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줄곧 국제사회의 관심의 초점이자 중국지도자들의 고민이었다. '중국의 길'에 대한 국내외의 논쟁 중에 중국은 '평화궐기(和平蹶起)'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주변국가 간의 영유권문제, 미국의 아태지역전략의 조정 등 여러 가

47)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종합분석", 성균중국정치연구소, 2017.10.26., p.11.
48) 胡鞍钢.李萍, "习近平构建人类命运共同体思想与中国方案",『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特别策划』pp.2-5.

지 국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중국의 '평화궐기' 환경은 여의치 않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외교의 공간이 더욱 축소 된 양상을 보였다.[49] '국가'에서 '강국'으로 진입한 중국이 어떠한 세계를 추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향후 중국이 '위대한 부흥'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 상생적. 공헌적 이미지 구축은 중국에게 있어 중대한 과제이다.

3) 내용과 특징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구상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정리해 보면 대체적으로 다섯까지 측면으로 귀결된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국은 협력과 윈-윈으로 공동발전과 이익의 공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국과 타국 간의 이익의 조화, 개방적. 포용적 협력, 균형과 상생으로 보다 공평한 국제 경제질서를 구축하며, 정치적으로는 국가 간의 주권의 평등을 기조로 세계가 함께 국제규칙을 제정하며 국제사무의 관리, 협상과 소통 등 평화적인 수단으로 분쟁과 충돌을 해결, 종합. 협력. 지속가능한 안보관 수립 및 문화의 상호융합, 그리고 녹색. 저탄소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생산의 추구 등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인류운명공동체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석이 된다.

첫 번째 특징은 '가치'에 대한 추월이다. 인류운명공동체는 기존에 미국이 추구한 국제질서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가치규범 확산을 전제로 피아를 구분했던 것과 달리 이념과 체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공동이익을 매개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이다.[50] 인류운명공동체는 '지구는 하나이며 국가들은 같은 세계 속에 있다'라는 공통된 이익의 기반으로 강조함과 부동한 문명 간의 융합을 중요시하였다. 중국의 학자들은 공통된 이익을 평화와 발전이라는 소망으로 상호 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앞에서 그 어느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공동번영에 대한 강조이다. 경제글로벌화는 세계경제의 상호의존 및 번영과 함께 국가 간의 빈부경차도 초래되었다. 시진핑은 중국경제의 신상태(新常態)에 대한 강조와 함께 '중국몽'과 '세계몽'의 상관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세계가 좋아야 중국도 좋고, 중국이 좋아야 세계도 좋기' 때문에 세계 각 국가는 중국 발전의 '편차 탑승(搭便車)'를 환영한다고 역설하였다.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로 세계와 중국의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 공존과 공영을 위한 중국의 공헌이라는 주장이다.[51]

2. 신형국제관계의 구축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제안한 '신형대국관계' 대신 19차 전당대는 '신형국제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실제로 중국이 신형국제관계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대학 방문 시, '각 국가는 협력과 윈-윈을 핵심으로 신형국제관계의 창립을 진행해야 하면 각국 인민은 반드시 함께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라는 연설을 하였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신형국제관계를 언급한 것이다.[52] 2014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협력과 윈-윈을 핵심으로 신형국제관계를 건립하여 호혜적인 개방전략으로 협력과 윈-윈의 이념을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대외협력의 여러 가지 면으로 구현시켜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중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형국제관계'의 구축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신형국제관계'는 다음과 같은 각도로 실천이 되었다.

1) 신형대국관계

49) 赵可金, "中国外交3.0版：十八大后的中国外交新走向",『社会科学』2013年第7期, p.5.
50) 이문기, "시진핑 시대 '중국의 꿈', 국내정치 맥락과 대외정책의 변화",『세계지역연구논총』제36집 1호, p.98에서
51) 김재철, "중국식 강대국 외교정책과 중국 외교의 기조: 시진핑 집권 1기의 평가와 향후 전망",『2017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2018년 3월, p.155.
52) 王巧荣, "以合作共赢为核心构建新兴国际关系",『当代中国史研究』2016年第4期, p.34.

신형대국관계는 국제체제에서 자국의 변화된 위상과 그 위상에 따라 중국이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는 인식 변화에서 제기된 것이며[53] 시진핑 주석 집권 1기의 중국 외교전략의 마크이다.[54] 1990년대 중반 이후 중. 미 관계는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갈등과 협력 속에서 반복을 겪었다. 중미관계를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크게 좋아질 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중국은 '싸우면서 깨지지 않는다(斗而不破)' 라는 원칙을 양국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접어 들면서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자세는 양국으로 하여금 아태지역 내지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익 충돌을 빈번하게 노출시켰다. 21세기 이후 특히 2009년 이후 양국 관계는 갈등적 부분이 더 강조되었으며 중.미관계가 투키디데스함정의 비극을 면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양국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2년 2월 시진핑 부주석이 미국 방문 시 '신흥대국관계론'을 제기하여 중.미관계의 안정이 없이 아태지역의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중국 측 입장을 미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했다. 2012년 5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중.미 양국은 '국제정세와 국내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쌍방은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추진해야 하며 양국의 국민과 전 세계가 안심할 수 있는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55]고 역설하였다. 후진타오는 신형대국관계를 다섯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혁신적 사고로 대국 관계의 새로운 경로모색, 둘째, 상호 신뢰와 공동 발전, 셋째, 평등과 상호간의 양해 및 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존중, 넷째, 적극적 행동과 실질적 협력, 다섯째, 우정을 다지고 광범위한 교류를 촉진이다. [56]

이러한 '신형대국관계론'은 2013년 6월 7-8일 이틀 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과 양제츠(楊潔篪) 전 중국외교부 부장이 '제5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의 연설에서 신형대국관계를 세 가지 함의로 해석하였다. 첫째는 불충돌 불대항(不冲突, 不对抗)이다. 즉,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전략의도를 파악하고, 파트너십을 강조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는 상호존중이다. 상대방의 사회제도와 핵심이익을 존중하며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원칙으로 포용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는 윈-윈 구도의 추구이다.[57]

신형대국관계는 강대국과의 협력을 보장하는 것과 중국의 자주성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은 미국이 주도하는 틀 내 중국의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고차원적 대응으로 간주된다.[58] 다시 말해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호존중, 협력, 윈윈'으로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며, 동시에 각자의 핵심 이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건설적인 경쟁을 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59]

이러한 신형대국관계는 몇 개 차원을 포함하였다.[60] 첫째, 중국이 대미관계 접근의 기틀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중.미 양국은 전략적 신뢰의 강화, 상대 국가 핵심 이익에 대한 존중 및 포용적인 협력을 전개하여 공동으로 글로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미국은 신형대국관계의 논의 중 '충돌을 회피하자'는 주장에 동의 하지만 '상호존중'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양국의 체제가 다르고 국가의 가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61] 둘째, 러시아와의 '비결맹 동반자(結伴不結盟)' 관계의 정립이다. 시진핑은 2013년과 2014년의 첫 번째 외국 방문의 목적지를 러시아로 하여 러시아가 중국외교에서의 우선순위를 과시하였다.[62]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긴밀화가

53) 차창훈, "중국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제기에 대한 일 고찰: 내용, 배경 및 평가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p.5.
54) 门洪华, "构建新型国际关系：中国的责任与担当",『世界经济与政治』2016年第3期, pp.5-6.
55)『胡锦涛文选』第三卷, 人民出版社, 2016年版, p.584; 于洪君,『从参与全球化到打造共同体』中国经济出版社, 2017, p.149에서 재인용.
56) 장루이좡(張睿壯), "신형대국관계 전략의 기원과 난제",『Sungkyun China Brief』, p.90.
57) 杨洁篪, "『求是』撰文论中国外交：开局体现战略性, " 中华人民共和国驻韩国大使馆网站, http://www.chinaemb.or.kr.
58) 이정남, "미.중 협력과 경쟁 사이 중국은 왜 신형대국관계를 말하나?",『통일한국』2014.11, p.22.
59) 이정남, 위의 글, p.22.
60) 王逸舟,『创造性介入』北京大学出版社, 2015年11月, pp.75-76.
61) 한인희, "중.미 양국의 '신형대국관계'에 관한 연구",『社會科學硏究』제15권 제1호(통권 42호), p.4

주목을 받았다.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 집행이사장(中國國際問題研究基金執行理事長)"이며 러시아 주재 중국 전 대사였던 류구창(劉古昌)은 '중국과 러시아는 비결맹 신형대국관계이며 쌍방은 결맹의 정책과 의도가 없다'라고 밝혔다.[63] 셋째는 중국과 기타 중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을 포함하였다. 브릭스 국가와의 협력, 중요국가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 등등 모두 중국이 제창한 신형대국관계의 틀에 속한다.

2) 주변외교[64]

중국은 주변 국가와의 외교전략 강구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 10월 24-25일 중국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주변외교공작좌담회(周外交工作座谈会)'를 소집하여 주변국가와의 '운명공동체'를 강조하였다, 주변국가와의 외교원칙을 '이웃나라와 화목하게(与邻为善) 벗으로 지내(以邻为伴)고, 친화(亲)·성의(诚)·호혜(惠)·포용(容)의 이념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65] 시진핑은 2013년 보아오포럼(博鳌亚洲论坛)에 참석하여 주변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베트남 국가 주석 쯔엉떤상(张晋创), 박근혜 한국대통령, 샤리프 파키스탄총리 등 주변 국가 수뇌가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국은 주변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하여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의 지역질서 제창에 동참 또는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AIIB 등과 같은 아시아 구상 전략은 바로 이러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같은 맥락이다.

2013년 9월 10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방문 시, 시진핑 주석은 각각 육상 신 실크로드(一帶)와 신 실크로드(一路)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2013년 11월에는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되었고, 전인대 12기2차회의에서 국무총리의 업무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정해졌다. <그림-2>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대일로 전략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중화경제권 구상 전략에 해당되며,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66] 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일대일로' 전략의 금융 플랫폼으로 AIIB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10월 24일에는 창립선언을 하였다. AIIB는 신 실크로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과 함께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2> 중국의 '일대일로' 노선도

* 자료: 언론보도,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62) 冯绍雷, "中俄可能为大国关系提供新的范式", 『人民论坛』 2014年3月上 ; 门洪华, "十八大以来中国国际战略布局的展开", 『社会科学』 2017年第8期, p.24에서 재인용.
63) "刘古昌谈习近平访俄 : 中俄是新型的大国关系", 中国网(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txt/2013-03/22/content)
64) 리단,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전략 패러다임 분석", 『평화연구』 제16권2호(2016). pp.14-16 내용에 근거하여 재정리.
65) "习近平 : 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2013-10/25.
66) 이지용,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정치경제학적 함의와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2014 겨울), P.221.

3)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

2001년 WTO 가입은 중국과 국제질서를 연결시켜주었다. 2006년 원쟈바오(溫家寶) 전 국무원 총리는 "중국.유럽 포럼" 제2차 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책임국가이며...국제체제의 참여자. 수호자 및 건설자다'라는 중국이 국제질서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였다.[67] 2008년 이후 중국의 국제체제에 대한 접근은 '참여'에서 '건설'로 전환하는 중이다. 시진핑 시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수차례 '건설적'. '주도적' 역할론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2016년 중국 공산당 창당 95주년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세계 평화와 발전의 건설자, 공헌자. 수호자 역할을 밝혔으며 2017년 2월 17일 "국가안전위원회 공작좌담회(國家安全委員會工作座談會)"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신질서 및 국제안전의 수호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기존의 참여. 건설적인 역할에 비해 주도적 역할론을 더 강조하였다. [68] (<표-2>는 중국이 국제질서에 대한 목표 인식이다)

<표-2> 중국이 국제질서에 대한 목표

시기구분	정통주도
청말기(1800-1860)	분리주의자
청말부터 중화민국(1896-1939	참여주의자
마오쩌둥 시대(1949-1976)	수정주의자
덩샤오핑 시대	참여주의자
후 덩샤오핑 시대	참여주의자
시진핑 시대	건설주의자

* 朱锋. (美) 罗伯特. 罗斯,『中国崛起:理论与实践』上海人民出版, 2007年版, p.167; 公为明, "关于世界大变革与中国外交转型的思考",『国际观察』2017年第4期, p.21에서 재인용

중국은 이러한 '건설적. 주도적 역할'의 실천의 일환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을 강조해 왔다. 중국공산당 18차 대표대회 이후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 중시 하는 정도와 참여도가 사상 최고에 달했다.[69] 중국은 2015년과 2016년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학습을 두 차례 진행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 AIIB와 NDB 창설을 주도, SDR편입, 기후변화협정의 체결 등 일련의 행동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은 '공상(共商)', '공건(共建)', '공향(共享)'을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표방하여 윈-윈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제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높이려고 하였다. 예컨대 중국은 G20을 자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간주하여 이를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제로 적극 진행하려 하였다. 2013년 시진핑은 G20을 '세계경제의 안전기(穩定器), 글로벌 성장의 촉매제(催化器), 글로벌 거버넌스의 추진기(推進器)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2016년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항저우행동계획(杭州行動計劃)"을 비롯한 성명과 원칙에 중국방안을 반영시켰다. 둘째, 일대일로 전략으로 중국 주도의 다원협상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예컨대 중국공산당 19차 대표대회는 '일대일로를 중점으로 육지와 해양의 연동 및 동서 간의 양방향적 개방구조를 형성, 일대일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제협력의 '신 플랫폼'을 만들며 개방형 세계경제를 촉진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적극적인 자유무역구의 건설로 지역경제 일체화를 주도하려 하였다. 중국은 2016년까지 건립한 자유무역구는 약 19개이며, 체결한 협정은 약 14개이다. 또한 중국은 RCEP, FTAAP와 같은 기제로 지역경제 일체화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67) 温家宝, "开创中欧关系合作、共赢、和谐的新局面-在中欧论坛第二次会议开幕式上的讲话",『国务院公报』 2006年第32期, pp.5-6; 陈东晓, "新世纪前十年中国外交布局的转型和升级",『国际观察』2012年第6期p.12에서 재인용.
68) "习近平首体两个'引导'有深意"(http://news.china.com.cn/2017-02/20/content_40324193.htm)
69) 王鸿刚, "中国参与全球治理：新时代机遇与方向",『外交评论』2017年第6期, p.1.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를 중요시하는 원인으로는 해외이익의 증대, 글로벌 대국의 정체성 인식에서 기인된 국제책임, 그리고 중국이 제창하는 운명공동체 실천 등이 있으며 그 성과도 어느 정도 거두었다.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미국우선주의 배경하의 국제환경을 중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기회(戰略機會)로 간주하여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를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에서 직면할 도전은 외면할 수 없다. 중국의 보여주고 있는 국제전략으로 국제사회가 중국의 '패권지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서구국가들이 글로벌화에 대한 '손해'인식과 중국을 '글로벌화의 최대 수혜자'인식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주도자 자질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인정할지[70] 등의 과제가 있다.

Ⅳ 결론: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의 변화와 지속

전체적으로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후진타오 집권시기로부터 넘겨받은 국내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소위 핵심이익과 관련된 의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저비용의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지향해 가야 하는 입장이다.[71] 따라서 큰 틀에서 중국은 기존 지도부 시기와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평화공존 5원칙을 대외전략의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둘째, 시대적 과제를 '평화'와 '발전'으로 인식하였다. 중국공산당 18차 대표대회는 '지금은 세계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있으나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적 주제' 라는 판단을 하였다. 19차 대표대회도 '세계가 대발절(大發展), 대변혁(大變革), 대조정(大調整)시기이지만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적 주제'라고 재확인하였다. 셋째, 국가정체성을 '발전중 국가'라는 판단이다. 중국은 국력과 국제지위의 부상으로 '세계적 대국'으로 각인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자국을 개발도상국가로 간주하였다. 시진핑은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경제체이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는 위치는 변화가 없다. 중국은 단지 등치가 큰 것뿐이며 기껏해야 발전 중인 대국(發展中大國)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위에서 언급된 지속성에 비해 시진핑 시기 중국이 국제체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약으로 향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물론 다수의 전문가들은 당장의 국력에서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일초다강'의 국제질서는 점차 약회되고 '양초다강(兩超多强)' 시대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심지어 옌쉐퉁(閻學通) 교수는 향후 국제질서 변화는 다극화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양극시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했다.[72] 이러한 국제체제에 대한 판단에 따라 중국 외교는 조정적 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강한 자신감으로 피동적 대응에서 선명하고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하였다.[73]

이것은 우선 외교목표 설정의 명확성에서 나타났다.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인류문명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 구축을 내세워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제기 및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제안은 기존의 외교목표가 '모호'함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오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교훈을 받아 드린 것이다. 또한 외교 목표는 기존의 경제성장을 위해 평화적인 주변 환경 조성이라는 데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함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선언하였다. 즉 중국의 외교목표는 기존의 '돈을 벌기 위해서'에서 '친구를 찾기 위해서'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74]

---

70) 王鸿刚, 앞의 글, p.12.

71) 이동율, "시진핑체제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를 중심으로", 『中蘇 硏究』 제36권 제4호, p.31

72) 阎学通, "中国学者首提全球格局从一超多强转向两朝多强", 『环球时报』, 2011年12月30日 ; 金灿荣, "展望未来十年格局", 『南方都市报』 2017年8月3日 ; 이문기, "시진핑 시대 '중국의 꿈', 국내정치 맥락과 대외정책의 변화",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집 1호, p.98에서 재인용.

73) 金灿荣等著, 『中国智慧』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7, p.20.

74) 阎学通, 『超越韬光养晦』 天津出版传媒集团, 2016年7月, p.36.

둘째는 기존의 상호신뢰 강조에 비해 시진핑 시기의 중국외교는 공동이익을 강조하였다. 중국이 중앙아시아와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동남아와의 '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남아시아와의 '중국.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경제회랑' 등 지역협력기제, 그리고 운명공동체로 주변국가 연결된 안보협력 등등 사례는 모두 서로간의 신뢰보다 공동이익이 우선시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75]

셋째, '적극적인 유위관(積極的有爲觀)' 즉 역할론에 대한 강조이다. 중국공산당 19차 대표대회 보고가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 더 큰 공헌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한데서도 확인된다. 이는 중국은 여러 가지 중국의 방안으로 국제질서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양제츠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글로벌 기버넌스에 깊이 참여하여 국제질서 개혁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인도'할 것을 강조한 데서 단적으로 확인되었다.[76]

요컨대, 시진핑 시기의 중국외교는 이념과 실천은 기존과의 지속성을 보이지만 질적인 변화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의 외교가 성공적인 전형을 완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중국이 향후 직면하고 있는 전략적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까지 중국이 '강경외교'를 진행하는 요인은 국력의 급부상, 국내 갈등의 전이 및 중국의 민족주의 등이 있다. 향후 중국의 이러한 '분발외교'는 주변국가와의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의 전략적 신뢰의 구축여부, 일대일로를 비롯한 글로벌 전략에서 강대국과의 이익의 조화여부 및 지역의 이슈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江忆恩(Alastair Lain Johnston), "中国对国际秩序的态度",『国际政治科学』2005年第2期
宫力, "中国国际秩序观的演进与战略选择",『现代国际关系』2014年第7期
김성한, "아태지역에서의 G2 체제: 미.중 협력과 갈등 가능성 평가",『전략연구』통권 제60호(2013.11)
公为明, "关于世界大变革与中国外交转型的思考",『国际观察』2017年第4期
김재철, "중국식 강대국 외교정책과 중국 외교의 기조: 시진핑 집권 1기의 평가와 향후 전망",『2017 중국정세보고』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2018년 3월
金灿荣等著,『中国智慧』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7
金灿荣, "展望未来十年格局",『南方都市报』2017年8月3日
김홍규,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관계",「jpi 정책포럼」, 2015
门洪华, "两个大局视角下的中国国家认同变迁(1982-2012)",『中国社会科学』2013年第23期
门洪华, "'韬光养晦、有所作为'战略方针与20世纪90年代的中国外交",『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2016年第4期
门洪华, "构建新型国际关系：中国的责任与担当",『世界经济与政治』2016年第3期
门洪华, "十八大以来中国国际战略布局的展开",『社会科学』2017年第8期
『邓小平文选』第3卷
刘建飞, " 改革开放与新中国外交",『中共党校学报』第19卷第1期, 2015年2月
리단,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전략 패러다임 분석",『평화연구』제16권2호(2016)
『毛泽东外交文选』, 中央文献出版社、世界知识出版社, 1994年版
박병광,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전략연구』통권 제60호
박흥순, "중국과 다자외교－UN과 PKO 정책: 中國多者外交-UN(國際聯合)/PKO(平和維持活動)政策", 평화연구학회
冯绍雷, "中俄可能为大国关系提供新的范式",『人民论坛』2014年3月上
孙伊然, "亚投行、'一带一路'与中国的国际秩序观",『外交评论』2016年第1期
성균중국정치연구소,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종합분석"
徐宏."习近平外交思想引领中国特色大国外交迈上新征程",「光明日报」2018年7月4日, 中国社会科学网
习近平, "携手共建合作共赢新伙伴, 同心打造人类命运共同体",『习近平谈治国理政』第二卷
阎学通,『超越韬光养晦』天津出版传媒集团, 2016年7月
杨洁篪, "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人民日报』2017.11.19.
杨洁篪, "『求是』撰文论中国外交：开局体现战略性, " 中华人民共和国驻韩国大使馆网站, http://www.chinaemb.or.kr.

75) 阎学通, 위의자료, p.37.
76) 杨洁篪, "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人民日报』2017.11.19., 김재철, 앞의 글, p.144에서 재인용.

杨洁勉, “新时代中国外交的战略思维和谋划”,『外交评论』2018年 第1期
阎学通, “中国学者首提全球格局从一超多强转向两朝多强”,『环球时报』, 2011年12月30日
安善花. 张益姝, “当代中国国际秩序观的构建及其实践战略--基于近代历史记忆和现实国际环境的研究分析”, 『大连大学学报』第36卷第1期
温家宝, “开创中欧关系合作、共赢、和谐的新局面-在中欧论坛第二次会议开幕式上的讲话”,『国务院公报』2006年第32期
王逸舟, “中国外交转型”,『学习与探索』2008年第5期
王逸舟, “中国外交六十年”,『江苏社会科学』2009年第6期
王逸舟,『创造性介入』北京大学出版社, 2015年11月
叶自成, “21世纪初的新形势与中国大国战略新概念”,『国际政治研究』2000年第6期
叶自成. 蒋立群, “新中国国际秩序观的变迁”,『党的文献』2011年第6期
王巧荣, “以合作共赢为核心构建新兴国际关系”,『当代中国史研究』2016年第4期
王鸿刚, “中国参与全球治理：新时代机遇与方向”,『外交评论』2017年第6期
于洪君,『从参与全球化到打造共同体』中国经济出版社, 2017
俞沂暄, “中国的国际秩序观”,『复旦国际关系评论』第十四辑
李東律, ″ 시진핑체젱,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문기, ″시진핑 시대 '중국의 꿈', 국내정치 맥락과 대외정책의 변화″,『세계지역연구논총』제36집 1호
이정남, ″미.중 협력과 경쟁 사이 중국은 왜 신형대국관계를 말하나?″,『통일한국』2014.11
이지용,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정치경제학적 함이와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2014 겨울)
장루이창(張睿壯), ″신형대국관계 전략의 기원과 난제″,『Sungkyun China Brief』
张少冬, “周恩来外交思想中的国际秩序观”,『社科纵横』总第33卷第1期, 2018年1月
张历历,『当代中国外交简史』上海人民出版社, 2008
张慧玉, “试析中国参与联合国机制对世界的影响”,『国际论坛』2003年第5期
赵可金, “中国崛起与对外战略调整“,『社会科学』2010年第9期
赵可金, “中国外交3.0版：十八大后的中国外交新走向”,『社会科学』2013年第7期
赵可金, “建设性领导与中国外交转型”,『世界经济与政治』2012年第5期
周安平, “人类命运共同体概念探讨”,『法学评论(双月刊)』2018年第4期(总第210期)
『中国代表团出息联合国有关会议文集』, 世界知识出版社
郑启荣. 牛仲君 主编,『中国多边外交』世界知识出版社
朱立平, “中国参与国际体系的评估指标及相关分析”,『江海学刊』2009.5
朱锋. (美) 罗伯特. 罗斯,『中国崛起:理论与实践』上海人民出版, 2007年版
『周恩来外交文选』中央文献出版社, 1990
陈少铭, “邓小平与改革开放以来中国外交战略的确立”,『中共党史研究』2014年第10期
陈须隆, “人类命运共同体理论在习近平外交思想中的地位和意义”,『当代世界』2016.07
陈东晓, “新世纪前十年中国外交布局的转型和升级”,『国际观察』2012年第6期
陈志敏, “全球治理中中国的写尽力量定位”,『国际政治研究』2012年第4期
차창훈, ″중국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제기에 대한 일 고찰: 내용, 배경 및 평가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48(4), 2014.9.
韩召颖. 姜潭, “改革开放以来中国外交理念的演进 --基于中国共产党全国代表大会政治报告的分析(1982-2017)”,『南开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8年第1期
한석희, ″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외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국제지역연거』제11권 제1호
채규철, “중국의 대외전략과 향후 대외관계 전망”,『社會科學硏究』2013, 52(4)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국제정치논총』제58집 1호, 2018
한인희, ″중.미 양국의 '신형대국관계'에 관한 연구″,『社會科學硏究』제15권 제1호(통권 42호)
胡鞍钢.李萍, “习近平构建人类命运共同体思想与中国方案”,『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特别策划』
『胡锦涛文选』第三卷, 人民出版社
“习近平首体两个‘引导’有深意”(http://news.china.com.cn/2017-02/20/content_40324193.htm)
“习近平：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2013-10/25)
″刘古昌谈习近平访俄：中俄是新型的大国关系”, 中国网(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txt/2013-03/22/content)
Figure 2.1.1. Geographic distribution: membership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country: 2007; Figure 2.1.1. Geographic distribution countries in the greate st numb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2007,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uide to Global Civil Society Networks: 2008-2009
Yearbook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8th ed.(Brussels: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2000/2001)
Ann Kent, Beyond Compliance: Chin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Security, A last air Lain Johnston, Social State: China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1980-2000

【중국사회과학 분과】 발표 ⑥

韩国对朝奥运外交对朝鲜半岛局势的影响

涂波(新罗大学)*

【摘要】

朝鲜在金正恩就任最高领导者以后一直在不断试射导弹，并进行了数次的核试验。尤其在2017年，朝鲜进行了两次核试验和多次导弹试射，极大的加剧了朝鲜半岛的紧张局势，也引发了国际社会的一致批判和制裁。2017年新上任的韩国文在寅政府一方面采取了加强韩美同盟，通过举行联合军演等方式来应对朝鲜的核导试射，另一方面也没有放弃在参选期间就提出的继承发扬“阳光政策”，文在寅先后提出了“柏林构想”、向朝鲜提供人道援助计划和朝鲜局势“驾驶员论”等具有怀柔性质的外交设想。伴随着平昌冬奥会越来越近，韩国对朝鲜加强了“奥林匹克外交”的攻势。文在寅于2017年末向美国提出了延期美韩军事演习的提案，释放出了对朝鲜的最积极信号，获得了朝鲜的积极回应。两国在板门店举行会谈，拉开了以“平昌奥运会”为契机的朝韩对话序幕。2018年后，朝韩成功实现了三次首脑会谈，朝美首脑也成功的在新加坡举行了首次会谈。以奥运外交为契机，朝鲜半岛的局势重新回到了协商谈判的良好局面。文在寅政府通过以平昌奥运会加深了朝韩两国的互信，也加强了朝鲜弃核的决心；不过半岛的局势虽然有所缓和，光靠韩国一国之力来推动局势的良性发展还面临很大的困难，美国的态度将继续影响朝鲜半岛局势的未来发展方向；在奥运外交后期的半岛要实现无核化和推动和平进程仍然任重道远。朝韩等国应该充分利用平昌奥运外交带来的良好态势来延续对话，促进朝美协商签署停战协定，并最终找到朝鲜半岛走向和平发展的根本之策。

【关键词】奥运外交；平昌奥运会；朝鲜半岛；无核化；核导试验

第一章、绪论

朝鲜的最高领导人金正恩自掌权以来就一直竭力发展核导试射，把拥有核武器自保作为国家战略。朝鲜在2016年就连续进行了两次核试验，而在进入2017年以后，朝鲜的核导试射大概经历了三个阶段。第一阶段是从1月到6月底，朝鲜试射了多次中远程、防空导弹和地对舰巡航导弹；第二阶段到8月底，朝鲜开始试射洲际弹道导弹，导弹最终落在日本专属经济区或飞跃日本，并把美国本土划入攻击范围内；第三阶段是到年末，朝鲜进行第六次核试验，成功试爆洲际氢弹，并在此后发射了宣称“可以攻击美国全境”的洲际导弹。特别在第三阶段里通过核试验成功试爆洲际氢弹后，朝鲜还发射了宣称“可以攻击美国全境”的洲际导弹，实现了从中远程弹道导弹—洲际导弹—氢弹核试验的跨越，对此有相关学者指出，朝鲜核问题“已经从量变发展成了质变”。另一方面，韩国政坛在2017年也经历了巨大变化，前任总统朴槿惠因“崔顺实门”下台，此后韩国迎来了新总统文在寅。新任文总统历来主张改善朝韩关系，意欲继承和发扬金大中和卢武铉两位前总统的“阳光政策”，文在寅的上台也因此在一定程度上受到了朝鲜的欢迎。朝鲜的总联机关报《朝鲜新报》5月10日发表了题为《借助烛光力量的政权交替》，文章指出这次提前举行的大选是要求腐败权力下台的“烛光革命的产物”，并评价“共同民主党候选人当选所带来的政权交替，是手持烛光在广场上集会的市民争取到朴槿惠弹劾之后的另一个胜利”。但是短暂的缓和局面并没有持续多久，朝鲜随即在5月14日发射了文在寅当选韩国总统后的第一枚导弹，并在此后陆续多次试射了导弹和进行了第六次核试验。针

* 두보, 제1저자, 신라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tubo110@hotmail.com

对朝鲜不断的核导试射，新一届韩国政府采取了巩固韩美同盟，并联合美日同盟等越来越严厉的表态和措施。具体来讲，在第一阶段里韩国表示了“强烈谴责和遗憾之情，呼吁停止挑衅和创造对话基础，并表示将通过韩美同盟来捍卫国民生命和国家安保”；在第二阶段里，针对朝鲜试射洲际导弹并对日本造成强烈威胁的新情况，韩国除了“强烈谴责、警告朝鲜和强调韩美同盟”外，还促成了韩美日三国首脑的会晤，文在寅还指示部署剩余的“萨德”发射车；而在第三阶段，鉴于氢弹和洲际导弹试验的恐怖威慑力，韩国表示“朝鲜一而再，再而三的挑衅是不可容忍的行为，表示要做好各项准备和强化军事应对力量”，韩国还随即同包括日本和美国在内的几个国家共同研究了如何加强安理会的制裁和强化韩美日三国的互助等。由此可见韩国新政府对于朝鲜核导试射的态度也变得越发强烈，采取了加强美韩同盟并拉拢美日同盟，通过举行联合军演等方式对朝鲜的核导试射作出回应，同时也呼吁联合安理会等国际机构来对朝进行共同施压。朝鲜半岛的局势屡现险情，朝核问题于2017年末达到了关键节点。在此情况下，朝鲜和美韩等国如果采取进一步加剧局势紧张的行动，将有擦枪走火的危险，朝鲜半岛的局势有可能陷入战争的深渊。

文在寅政府一方面采取了加强韩美同盟，通过联合军演等方式来应对朝鲜的核导试射，另一方面也没有放弃在参选期间就提出的继承发扬“阳光政策”主张，文在寅先后提出了“柏林构想”、向朝鲜提供人道援助和半岛局势“驾驶员论”等具有怀柔性质的外交政策。随着平昌冬奥会的接近，韩国对朝鲜加速了“奥运外交”，并最终在2018年初得到了朝鲜的呼应。金正恩在2018年新年贺词里表示要“缓和北南之间尖锐的军事紧张状态，营造朝鲜半岛的和平环境”，并表示“有意派团参加平昌冬奥会”，由此以“平昌奥运会”为契机的朝韩对话序幕正式拉开。两国首脑在2018年实现了三次会晤，朝美首脑也在新加坡实现了首次会谈。本文所要研究的是，韩国的对朝奥运外交对朝鲜半岛的局势变化具体有着什么样的影响？以此延伸开来，朝韩两国将如何延续奥运外交带来的良好局势，继续推动半岛的无核化和和平进程？本文将采用文献研究的方法，在回顾相关文献并追踪奥运外交的发展历程后，剖析平昌奥运外交对半岛局势的重要影响，并提出结论和相关建议。

第二章、相关文献的回顾

现存文献对于朝鲜核导问题有着许多分析，也对于半岛的无核化与和平发展有着许多建设性设想，也有少数文章提到了体育外交对于国际社会的重要作用。但是目前还没有看到有文献对于韩国本次对朝的平昌奥运外交外交进行专门性研究，并指出其对于缓解局势，促进对话的关键作用。本文在这些文献的基础上，首先回顾朝韩体育外交的发展历程，着重捕捉平昌奥运前后的事态发展过程，分析其对朝鲜半岛局势的重大影响，并提出相关建议。

第三章、韩国对朝奥运外交历程回顾

早在1956年，就有过东德和西德在墨尔本奥运会上同时入场的先例，而朝韩则有着在奥运会史上首次实现组成联合方队参加入场式的先例。在2000年的悉尼奥运、2004年的雅典奥运会和2006年的多哈亚运会上，即金大中和卢武铉两位前任韩国总统执政期间，朝韩就多次在国际体育运动会上共同入场，成就了这几界国际体育赛事的重大历史时刻。对韩国来讲，它既想通过巩固美国军事同盟来对朝鲜不断突破底线的核导试射做出反应，而在另一方面，新政府又坚持继承发扬“阳光政策”来改善朝韩关系并启动对话。文在寅早在竞选韩国总统时期就曾提出过“责任、合作、和平和民主”四大原则，主张改善南北关系，以对话推动半岛无核化和签署和平协定，同时坚持韩国在半岛问题上发挥更大作用，并尽早构建自主国防力量；文在寅此后在就职宣誓仪式上曾表示，为了半岛的和平，愿意随时访问美国，并在条件允许的情况下将访问朝鲜；就任以后，文在寅先后提出了“柏林构想”、向朝鲜提供人道援助计划和“驾驶员论”等具有怀柔性质的对朝政策；还表示要争取早日收回“战争指挥权”，并在其任职后的第一个光复节庆典上表示“没有韩国的同意绝对不能在半岛举行军事行动，并将用一切手段来阻止战争”等等。可见，韩国新政府一直在努力寻找和平的手段来缓解半岛局势，而这些都为此后开展对朝奥运外交打下了一定基础。

伴随着平昌冬奥会的开幕时间越来越近，韩国对朝鲜逐渐加强了“奥运外交”的攻势。在2017年6月，文在寅就首次表达了“欢迎朝鲜参加平昌奥运会”的立场，并“考虑和朝鲜一起举办冬奥会，还建议和朝鲜一起共同入场开幕式”。文在寅在9月21日联合国的演说里再次表示了不希望朝鲜崩溃，不追求“吸收统一”和“人为统一”，并表示为了欢迎朝鲜参加平昌奥运会，将“和国际奥运委员会一起努力到底”。随后韩国统一部也催促朝鲜同韩国见面，并一起开诚布公地讨论“把平昌奥运会办成和平奥运会”等议题。韩国外交部长官康京和也表示“朝鲜参加平昌奥运会将受到全体国际社会的欢迎，也会给南北双方带来和解与和平的特别机会”，青瓦台有关人士还指出“奥运会期间韩美同盟中断军事训练也是其中一个可选方案”。此后文在寅总统于2017年12月正式向美国提出了延期韩美军事演习的提案，这是韩国对朝奥运外交进程中释放出的最为积极的一个信号。韩国的奥运外交在2018年初取得了积极的成果，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在2018年1月1日的新年贺词里表示，要“缓和北南之间尖锐的军事紧张状态，营造朝鲜半岛的和平环境，朝韩应该改善关系”，并“有意派代表团参加平昌冬奥会”。韩国青瓦台随即表示欢迎，并提出愿意不计时间地点同朝鲜进行对话。随后，韩国与美国达成了在冬奥会期间推迟军事演习的决定，并促成了朝韩两国相关代表在板门店举行会谈，拉开了以“平昌奥运会”为契机的朝韩对话序幕。接下来金正恩的胞妹金与正和金永南率团访韩，朝韩代表团在平昌冬奥会开幕式上共举“朝鲜半岛旗”一同入场，并实现了冬奥会史上首次组成女子冰球联队参赛。朝鲜还派遣劳动党中央委员会副委员长金永哲率团参加平昌奥运会闭幕式。在平昌奥运会结束后，也延续了对话的局势，韩国特使团于3月5日访问朝鲜，并与金正恩等会面，取得了开通首脑热线，两国对话期间不进行核导试射，并于4月底举行了首次首脑会谈等成果。截止2018年10月，朝韩两国实现了三次首脑对话，取得了如《板门店宣言》等多项促进朝鲜半岛无核化和和平进程的成果，朝美两国还实现了于新加坡的首次会晤，此后文在寅还成功访朝，并有望在以后实现签署半岛停战协定。以平昌奥运会为起点，半岛的局势在进入2018年以来有了重大变化，文在寅政府的奥林匹克外交取得了众多成果。

第四章、韩国的对朝奥运外交对朝鲜半岛局势的影响

接下来将深入分析韩国奥运外交对朝鲜半岛局势的影响如下：

通过触动民族利益共同点来疏通了朝韩两国对话沟通的渠道，真正拉开了文氏“阳光政策”的序幕

虽然是同在一个半岛，拥有同一民族和同一语言文化，朝韩两国却是不同政治体制国家。在历史上，朝韩曾经一同经历过多次异常坎坷的反侵略和反殖民统治，也正因为如此，两国拥有较强的民族凝聚力。但自2006年朝鲜进行第一次核试验，和2007年李明博就任韩国总统结束“阳光政策”以后，朝韩两国的关系逐渐恶化，尤其在经历了2009年朝鲜退出六方会谈并进行第二次核试验，以及2010年“天安舰事件”后，朝韩关系直线降温。其后，朝鲜的第四次核试验直接导致了韩国宣布全面中断开城工业园区的运转，并进行单边制裁，双方对话沟通渠道中断。不过尽管两国的关系中间经历了反复曲折，缓解紧张和改善关系仍然是双方的共同意愿。对两国来说，本次在平昌举行的冬季奥运会可以让全世界聚焦朝鲜半岛，展示韩民族的文化传统和民族形象，是具有重要意义的大事件。文在寅政府的对朝奥运外交正是在双方都期待沟通和改善的大背景下，触动了半岛韩民族的利益共同点。

前面已经提到，文在寅政府一直坚持继承和发扬“阳光政策”，主张改善关系和推动对话，同时坚持韩国自身在半岛问题上发挥更大的作用。文氏政府上任以后提出的“柏林构想”、“驾驶员论”和“争取早日收回战争指挥权”等言论都是文氏“阳光政策”的重要构成部分，但是这些都没有真正得到朝鲜的支持，甚至还被批评缺乏诚意。文氏政府的这些言论和相关政策在提出时常常伴随着韩美同盟的各种施压措施和国际制裁，因此朝鲜难以对“带有两面性”的文氏政府报有积极的态度。同时，文在寅政府批准的向朝鲜提供人道援助计划等引发了美国等盟国的不满，也受到了韩国国内在野党的批评。而本次的对朝平昌奥运外交里，文在寅政府向美国提出了延期美韩军事训练的提案则是对朝释放出了最积极的信号，并最终得到了朝鲜的响应。在金与正赴韩参加冬奥开幕式后，她转达了金正恩欢迎文在寅访问朝鲜的邀请，当时文在寅表示要为访朝创造条件。随后参加闭幕式的朝鲜劳动党中央副委员长金英哲表示朝方有意促成朝美对话来创造这个条件。而在韩国总统特使团访朝期间，金正恩表达了积极参与朝美对话，并可把无核化问题列入对话议题等内容。由此看出，朝韩两国借了奥运外交的东风来延续朝韩对话，并

促成了两国的首脑会谈。

韩国以平昌奥运外交为起点来增进了朝韩的互信，也更加使朝鲜政权加强了弃核的决心

韩国通过对朝的奥运外交，使得朝鲜半岛短期摆脱了长期以来的核和战争的阴影，出现了和平友好的气氛。通过奥运外交，韩国与美国达成了在冬奥会期间“推迟（delay）”军事演习，韩美两国把预定于2018年初期间的军事演习推迟到4月才进行。而朝鲜从2018年初开始，没有进一步举行核导试射，而且通过此后的朝韩会谈来使得事态继续良性发展。以平昌奥运会为契机开展的朝韩对话，使得朝鲜在此过程中更加清晰的了解文在寅政府对于无核化的坚定意志，和致力于对话谈判来推动朝鲜半岛和平进程的决心。金正恩在劳动党中央委员会第七届第三次全体会议上宣布不再进行任何核试验和洲际导弹发射，和废弃朝鲜北部核试验场等内容。朝鲜此后于2018年5月在咸镜北道吉州郡的丰溪里核试验场对多条坑道和附属设施进行爆破，并宣布正式废弃这座核试验场。在文在寅首次访问平壤并和金正恩进行第三次会晤后，文在寅此后访美同特朗普美国总统会面时表示“朝鲜已经在内部公开表明了弃核”，也从另一个侧面体现了朝鲜弃核意志的坚定。

以上的这些重大成果，都是以平昌奥林匹克外交为起点来打开的良好局面，并且随着朝韩双方的不断释放善意，推动了两国从试探性接触-共同参加奥运会-延续对话态势-推迟军事演习-表明不进行核导试验-废弃核试验场的动态发展过程。朝鲜通过以上的行动，表明了其为实现完全、可验证、不可恢复的无核化（即CVID）而做出了大量的努力。韩国在朝鲜的整个动态发展良性过程中起到了关键的作用，不仅鼓励朝鲜做出利于半岛局势好转的弃核行动，另一方面也在努力斡旋于朝美之间，力求推动朝美首脑的对话来结束两国的敌对态势，并争取美国同意签署朝鲜半岛的停战协定。

韩国一国之力来推动半岛局势向前发展的阻力重重，美国的态度将很大程度左右朝鲜半岛的未来局势

尽管奥运外交推动了半岛局势的良性发展，但也必须冷静看到实现半岛的无核化和和平发展仍然困难重重。在韩美同盟里韩国和美国的势力是不对称的，韩国作为弱势的一方，在涉及到韩美同盟的一些重要国际事务并有可能触及到美国的利益时，韩国无法凭借一手之力来实现。如朝鲜的第三次核试验以后，美国就不断渲染朝核危机，在第四次核试验后美国更是尽力渲染朝鲜核威胁，以诱使韩国统一部署“萨德”这个使用权归驻韩美军的反导系统。可以看出，美国不仅仅是在维护盟友的军事安全和国民安保，也是在利用朝鲜半岛的核导问题来获取自身的战略利益。

尽管韩国政府多次表示“没有韩国的允许，韩半岛绝不能有战争”，文在寅也一直坚持韩国在半岛问题上发挥更大作用，但是韩国需要美国的帮助，没有了美国的扶植，韩国很难靠一己之力实现半岛局势的根本性变化。商界人士出身的特朗普就任美国总统以来，多次就驻韩美军的军费问题和韩美自由贸易协定等表达不满，实际上就是看清了韩国离不开美国的帮助，于是提醒韩国要付出更多代价来巩固韩美同盟。而更重要的是，美国在关键时刻的强硬姿态有可能使得韩国的努力付诸东流，比如平昌冬季奥运会还没有结束，美国就宣布单方面对朝鲜实施新一轮制裁，而这并不利于朝韩两国对话的顺利开展(当然美国有时也会适当的表示对南北对话的欢迎态度)；又如在朝韩首脑三次会谈后，美国还是坚持“先弃核，后补偿”的“利比亚模式”。所以，韩国并不是独自掌握着“朝韩关系发展的方向盘”，美国对朝鲜的态度将在很大程度上左右朝鲜半岛的未来局势。另外，美国特朗普政府具有许多不确定性的因素，这从特朗普在同中国等国开展的“贸易战争”等方面可以看出。特朗普并不是一个按常规出牌的总统，他可以随时“推翻自己在昨天签署的协议”，只要是利于美国利益的措施，他都会考虑采取，就算“此举会损害盟友的重大利益”。美国特朗普政府的不确定性使得朝鲜半岛问题的相关利益国无法对前景作出预料。

奥运之后的半岛局势仍然不容乐观，半岛无核化进程仍然任重道远

尽管韩国的对朝奥运外交取得了显著的成绩，朝鲜半岛的局势仍然不容乐观。首先，尽管奥运外交虽然打开了朝韩对话的大门，但是这扇门还有可能关闭。因为奥运已经结束，对话的主题已经转换到朝鲜半岛的无核化上面来，朝鲜主张的是“阶段性、同步的措施”，而美国方面则是朝鲜先实现CVID，再对朝鲜免于制裁和实现朝美关系正常化等内容。双方在这个问题上的分歧预计将使得谈判过程持久而进展缓慢。韩国尽管做出了很多努力来从中斡旋，但是朝美两国在通过什么样的过程来实现无核化这个问题上的分歧太大，要实现这个问题的圆满解决，还需要各方不断的磋商。因此，韩国通过对朝奥运外交建立起来的良好发展局势，其前景仍然不容乐观，半岛的和平进程需要更多的努力。朝韩必须要认识到奥运外交成果的临时性和脆弱性，并采取必要的措施来维护和加强。

平昌奥运外交使得各方重新回到了谈判桌前，现在面临的是如何使各方继续朝着无核化和永久和平的目标下，

通过协商来加强互信，找到各方都可以接受的可行方案。在韩国文在寅政府不懈的外交努力下，朝鲜政府已经宣布停止核导试验，拆除核试验场，并声明“任何时候都不会转让核武器或核技术”，但是朝鲜也指出“持续的制裁施压只会加深朝美的不信任”，并希望美国能做出让步措施，如解除制裁、发表“终战宣言”等等。而美国则仍然坚持朝鲜先行弃核，并表明“如果没有做到这一点，其它事情无从谈起”，以此来“达到让朝鲜去核”的目的。可见尽管有韩国的努力斡旋，朝美两国对于如何实现无核化仍旧有着很大的分歧，朝鲜半岛的无核化进程仍然任重道远。

第五章、结论

朝鲜在金正恩就任最高领导者以后一直在不断试射导弹，并进行了数次的核试验。尤其在2017年，朝鲜进行了两次核试验和多次导弹试射，极大的加剧了朝鲜半岛的紧张局势，也引发了国际社会的一致批判和制裁。2017年新上任的韩国文在寅政府一方面采取了加强韩美同盟，通过举行联合军演等方式来应对朝鲜的核导试射，另一方面也没有放弃在参选期间就提出的继承发扬“阳光政策”，文在寅先后提出了“柏林构想”、向朝鲜提供人道援助计划和朝鲜局势“驾驶员论”等具有怀柔性质的外交设想。伴随着平昌冬奥会越来越近，韩国对朝鲜加强了“奥林匹克外交”的攻势。文在寅表达了欢迎朝鲜参加平昌奥运会的立场，考虑一起举办冬奥会，还建议和朝鲜一起共同入场开幕式等；韩国各界也表达了通过平昌奥运会来缓解对抗、开展对话的意愿。文在寅于2017年末向美国提出了延期美韩军事演习的提案，释放出了对朝鲜的最积极信号，并最终与美国达成了在冬奥会期间推迟韩美军事演习的决定。韩国对朝的奥林匹克外交带来了积极的效果，2018年初金正恩在新年贺词里表示要缓和军事紧张，营造和平环境，并派遣运动员参加平昌冬奥会。此后朝韩两国在板门店举行会谈，拉开了以“平昌奥运会”为契机的朝韩对话序幕。2018年后，朝韩成功实现了三次首脑会谈，朝美首脑也成功的在新加坡举行了首次会谈。以奥运外交为契机，朝鲜半岛的局势重新回到了协商谈判的良好局面。

本文围绕韩国对朝奥运外交给朝鲜半岛局势变化带来的影响这个问题展开研究，通过回顾相关文献和奥运外交的发展历程后，分析了平昌奥运外交的重要影响。文在寅的对朝奥运外交触动了朝韩两国的民族利益共同点，开启了两国的对话和沟通，取得了许多重要外交成果，也使得文在寅政府的“阳光政策”正式拉开了序幕；同时韩国以平昌奥运会为起点，加深了朝韩两国的互信，也加强了朝鲜弃核的决心；不过半岛的局势虽然有所缓和，光靠韩国一国之力来推动局势实现良性发展还面临很大的困难，美国的态度将继续左右朝鲜半岛局势的未来发展方向；在奥运外交后期，要实现无核化并推动和平进程仍然任重道远。朝韩等国应该充分延续平昌奥运外交的良好态势来开展对话，促进朝美协商签署停战协定，通过不断的磋商来实现半岛无核化，并最终找到朝鲜半岛走向和平发展的根本之策。

【메 모】

【중국사회과학 분과】 발표 ⑧

한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공세 외교 동인

김진용 (경남대)*

Ⅰ. 머리말

2012년 말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가장 가시적인 대한국 외교 성과를 꼽는다면, 단연 한·중 수교 후 유례없이 긴밀해진 양국관계다. 그간 양국이 역대 최상의 밀월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①지리적 인접성, ②역사적 동질성, ③경제적 상호보완성, ④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서진영 2017). 2000년대 중국이 부강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미·일이 쇠퇴하며 동북아 지역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역내 주도권 장악을 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동아시아 전략 불균형을 우려했기에,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戰略的協力同伴者關係) 그 자체만으로도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1)]

하지만 중국은 2016년 1월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배치 논의 후, 일방적으로 양국 우호 관계를 파기했으며 공세적 갈등으로 확대해왔다. 그 결과 중국은 오랜 기간 쌓아뒀던 한국의 신뢰를 상실해 전략적·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을 잃을 상황에 직면했다. 급기야 중국은 2017년 3월 30일, "절대 말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 대응까지 시사했다. 실제 중국 지도부는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을 통해 중국의 전략과 안보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획 수립을 강조해왔다(Haggard 2017).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중국 지도부가 국제 정치·경제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인지함에도, 적대적 대한국 정책을 고수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인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국이기에 경제적 상호의존도(Interdependence)가 매우 높아 중국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은 자국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관점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은 양국 간 갈등 가능성을 완화한다. 국가 간 갈등 상황일지라도, 충돌 비용이 매우 높아 경제 협력이 오히려 득이 되기 때문이다(Papayoanou 1997, 113-140). 자유주의(Liberalism) 시각 역시 중국 중심의 상호의존은 아시아에서 양자 동맹의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평화적으로 다자 안보와 정치 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Snyder 2009, 10-11).[2)]

이처럼 한·중 간 협력의 실익이 있음에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추진 이후 경제 제재를 가하며 양국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또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묵인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과 미·일 동맹의 연결고리를 약화할 수 있었지만, 대한국 경제 제재를 감행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으로 집중된 경제적 상호의존이 오히려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주변국에 드러냈다. 그렇다면 한·중 갈등을 무릅쓰고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얻는 중국의 실익은 무엇일까?

현실주의자(Realist)에 따르면, 상호의존 관계에서 국가는 타국의 비용으로 자신의 힘을 팽창하려 하므로 군사 갈등 가능성을 높인다고 본다. 국가는 생존(Survival)과 힘(Power)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일 뿐, 경제 협력은 국가의 힘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부유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conan@uok.ac.kr

1)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戰略的協力同伴者關係)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사회 분야의 상호 협력은 물론이고 군사, 안보까지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2) 실제 중국은 양자 외교를 선호하지만, 지속적으로 다자 외교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강대국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자 기구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때때로 다자주의를 통해 힘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Sutter 2005, 70).

니라, 단지 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파괴를 원하는 것으로 귀결된다(Snyder 2009, 9-11). 즉 한·중 현상유지(Status Quo) 자체만으로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 중·미 간 형성됐던 세력균형을 깨고 세력전이를 가속할 수 있어, 역내 주도권 확보를 원하는 자국에 전략적 이익인 셈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악화가 중국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이 없음에도, 중국 지도부는 무엇 때문에 대한국 강압외교를 전개하는 것일까? 시진핑 지도부의 인식 오류에서 비롯된 대외정책일까?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온 중국 외교정책의 특성상 한·중 관계 공고화 단계에서 발현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일까? 과연 한국의 사드 배치가 사회주의권을 지켜야한다는 국제적 의무감으로 참전한 6.25와 베트남 화교 안전을 명목으로 일으킨 중·월 전쟁처럼 중국의 손익을 떠나 중국 공산당의 명분을 앞세우며 감행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 연구는 상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중국이 전략적·경제적 협력자였던 한국을 잃을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강압외교를 전개한 동인이 무엇인지 규명했다. 우선 2장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위협 인식을 전략적·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중국의 대한국 경제 제재가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어 3장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실질적 동인을 국가이익 침해 여부,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 약화, 중국식 규범 위배를 적용해 규명했다. 이어서 결론을 도출했다.

Ⅱ. 사드에 대한 중국의 위협 인식과 경제적 손실

1.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위협인가?

강대국은 국제 체제의 균형 유지를 위해 동맹하지만, 약소국은 자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동맹을 체결한다(Rothstein, 1988 21). 그간 한국은 북한 핵문제로 인해 안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미국과 전략적 동맹을 강화해왔다. 이런 면에서 사드 문제로 파생된 한·중 관계 악화는 느슨해진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알트펠드(Altfeld 1984, 528)의 자율성 안보 교환 이론에 따르면 약소국은 동맹을 통해 안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자국의 경제력을 증대할 수 있지만, 강대국에 대한 자율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처럼 한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안보 자율성과 그 비용을 교환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미·일이 쇠퇴하는 세력전이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아편전쟁(1840-1842년) 이전 세계 최강국의 위상 회복을 원하고 있다(Dzodin, 2017). 하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 강화를 야기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간 중국은 역내에서 한·미·일 결속 약화를 원했고,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머무는 자체만으로도 세력전이가 유지돼 동북아 지역의 주도권을 회복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 추진으로 파생된 한·중 갈등은 한·미·일 군사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또 한·중 갈등은 세력전이 측면에서 미국의 쇠퇴가 늦춰짐은 물론 중국의 부상이 저지되기 때문에 중국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사드를 매개로 한국과 갈등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은 한국과 사드 갈등이 지속되면 세력전이가 늦춰져 동북아 지역의 부상이 저지될 수 있음에도, 전략적 위협 때문에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일까?

중국의 사드 우려에 대해, 덴마크(Denmark 2017)는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라는 일차적 임무만 수행하며 사드 레이더의 대중국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이 중국 측 주장처럼 뛰어나지 않다고 반박한다. 또 미국은 이미 동아시아의 괌(Guam)에 한 기, 일본에 두 기의 사드를 배치했다. 특히 일본에 배치된 X-band 레이더는 한국의 그린 파인 레이더(Green Pine Radar)보다 정교한 모니터링 능력을 갖춰 효율적으로 방어체계가 작동되고 있다(Liu 2015, 141).

이런 사실을 중국 지도부가 인지했음에도,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민감한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 동일 권역인 괌과 일본의 사드 배치에 별다른 반응을 표출하지 않고, 오직 한국만 위협적이라는 주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실질적 전략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또 중국이 사드 레이더를

우려했다면, 여기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미국에 요구하고 논의했을 것이다(Denmark 2017).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 후, 미국은 중국의 우려를 누그러트리기 위해 지속해서 사드 레이더의 기술적 브리핑을 제안했지만, 중국은 완강히 거부해왔다. 그러다 2016년 3월에 이르러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슈임을 자인했다(PRC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6/03/30).

기실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전략 능력을 일정 정도 상쇄할 뿐이다(Wu 2013, 29-52). 이에 대해 리우(Liu 2015, 139)는 한국에 AN/TPY-2 레이더가 배치될 때 중국 해군에 억지력(Deterrent)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중국은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지상 전력으로 해상을 보호해왔다. 중국의 동해 연안은 남한으로부터 겨우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남한의 AN/TPY-2 레이더가 이 지역을 탐지해 레이더 추적 데이터를 더 빨리 전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중·일 충돌 시 중국의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처럼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아님에도, 중국 지도부가 전략적 위협으로 인지하는 근본적 이유는 사드에 대해 미국과 인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사드 자체가 중국의 억지력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다고 여겨 전술상(Tactically) 방어적일지라도, 핵전쟁 시 대응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전략상(Strategically) 공격 무기로 간주한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방어적 조치(Defensive Measure)이자,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위협 인식을 일축하고 있다(Cantelmo 2016). 특히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에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그 핵심 원리는 동맹국을 향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동맹국의 방어 능력과 통신 시설을 이용해 도전국의 도발을 단념시키는 데 있다(Clinton, 2011).

2. 사드의 기술적 위협 인식과 불용론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 후, 중국은 사드의 기술적인 탐지 능력에 대해 지속해서 반대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것을 전략적 위협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 사드가 한국에 실전 배치되지 않아 그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중국은 무엇 때문에 한국의 사드 배치를 위협으로 인식해 불용론을 제기하는 것일까?

첫째로 중국은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잠재적으로 미국 본토를 향하고 있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지할 수 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Denmark 2017). 특히 아시아 중심을 향해 있는 사드의 광범위한 X-Band 레이더가 중국의 황해(黃海), 화동(華東), 동북(東北) 일대의 중국군을 감시할 수 있어 중국의 전략이 미국에 노출됐다고 보고 있다(祁昊天 2016, 15; 张涵 2016; 張相國 2016, 55). 둘째로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미사일을 탐지하자마자 1,000km 범위의 중국군 동향 역시 수집이 가능해, 자국의 전략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Lee 2016, 35). 셋째로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작고 이동이 용이해 중국 쪽으로 레이더를 향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은 1,500km 탐지 범위의 TPY-2 레이더가 미 대륙을 향해있는 대부분의 중국 전략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으며, 평시 보하이만(渤海灣)을 포함해 모든 연해의 잠수함탄도미사일을 추적·탐지할 수 있다고 여긴다(Wu 2016).

일반적인 레이더의 원리는 고주파 전자기 파장을 방출한 후 비행체에 맞아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위치, 이동 경로, 속도 등을 탐지한다. 파장이 짧을수록 탐지 거리가 짧아져 정밀한 탐지가 가능하지만, 파장이 길면 원거리 탐지가 가능한 대신 정밀성이 떨어진다. 사드의 X-Band 레이더는 초고주파 레이더로 후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탄두와 기만체(Decoy)를 탐지해 목표 구분이 가능하다고 여겨, 중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장 큰 도전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를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확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감시할 수 있어 전시에 중국의 전략을 약화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사드가 소규모 미사일 방어체계라 할지라도 중국의 핵 억지력을 상쇄할 것으로 본다(Wu 2016). 반면에 리빈(Li Bin 2016)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대부분이 동북이 아닌 타지역에 배치됐으며, 사드 레이더가 남중국해에 있는 잠수함 핵탄두 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없다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한다.

이론상 사드 레이더가 중국 동북부를 날아가는 미사일의 앞부분을 비췄을 땐 단면이 작아 식별이 어렵지만, 뒷부분을 탐지할 땐 단면이 넓어 식별이 용이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드 레이더는 미사일의 어느 면을 비추든지 구분하기 힘든 미세한 점으로 보이므로,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드 레이더의 탐지 방향에 따라 사드가 위협적이라는 중국 측 주장은 적실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다음의 기능적 측면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사드는 탄도미사일 재도입 단계에서 탐색하고 격추되도록 설계돼 장거리 미사일 저지에 적합하다. 즉 서울-평양 거리가 194km에 불과해, 북한이 발사하는 저탄도미사일은 그 효력이 상실돼 한국 방어에 부적합하다(Lee 2016, 35; 祁昊天 2016, 18-19). 또 한국에 배치된 그린 파인(Green Pine) 레이더는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지만, 사드는 남부 일부만 보호할 수 있어 장거리(Long-Range) 레이더의 배치가 한국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Liu 2015, 141). 근본적으로 중국은 사드 레이더 사정거리가 1000-2000km며 한반도 지정학적 한계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어막으로 설계됐기에, 사드가 북핵 방어 이상의 목적을 위해 배치된다고 여긴다(Zhong 16/10/01). 둘째로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사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Zhong 16/10/09). 셋째로 지정학적으로 사드는 한국보다 일본 서쪽 연안에 배치하는 것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부합되며,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지적한다. 넷째로 미국은 아태 지역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환으로 일본, 호주에 이미 사드를 배치했으며,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춘 33대의 이지스(Aegis)함 중 1/3을 이 지역에 배치했기 때문에 사드 불용론을 주장한다(祁昊天 2016, 15). 이에 대해 치하오텐(祁昊天 2016, 18-19)은 터키의 경우 사드를 배치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동남부 일부만 방어할 수 있었다며, 사드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대신에 이지스함의 SM-3 Block 2A를 이용해 터키는 물론 유럽 전체의 미사일 방어가 가능했듯, 한국 역시 비용 면에서 사드가 불필요하다는 논리 폈다.

그렇지만 중국 지도부는 사드가 한국의 필요와 무관하게 미국의 세계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으로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3] 또 이들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억지력이 약화되고 미·중 미사일 군비 경쟁을 일으켜 아태지역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 것을 우려한다.

이런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중국 전역을 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드 종말 탐지 시스템(Terminal Monitoring System)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중국 국방부의 양위쥔(杨宇军)은 “이것은 사드 문제를 완전히 아는 이들의 매우 쉬운 기술적 구실로 볼 수 있다”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China Military Online 16/07/28). 나아가 인민해방군 소장 출신 펑광첸(彭光谦)은 사드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항 수단을 이미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중국 군사전문가 송종핑(宋忠平) 역시 중국군은 사드 레이더에 대항해 전파 방해 혹은 직접적인 에너지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상기 사실을 뒷받침한다(Denmark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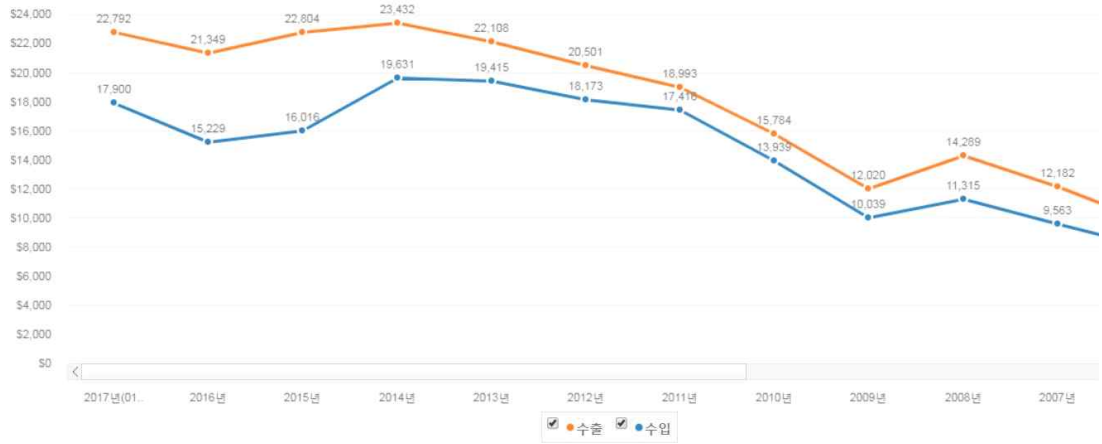
3. 중국의 대한국 제재와 경제적 손실

현대 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8.5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손실은 당해 한국의 명목 GDP의 0.5 퍼센트에 해당한다. 반면, 동시기 중국의 손실은 최대 1.1조로 추정돼 한국보다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China Daily 17/09/20; 한재진, 천용찬 2017, 7-8).

하지만 스나이더(Scott Snyder)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제재는 제한적이며, 전략적 이익 측면에서 중국에 오히려 역효과(Counterproductive)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의 손실 역시 전망했다(Snyder 2016). 중국은 한국에 편중된 중간재 수입에 의존하며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일방적인 대한국 경제 제재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자국경제 역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3) 미국의 세계 미사일 방어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략 사령부가 전 세계 미사일 방어계획, 배치, 행동을 일관되게 조정한다. 둘째로 미사일 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이 모든 미사일의 연구개발을 한다. 셋째로 지역 사령부, 특히 유럽과 태평양, 중앙 사령부가 주축이 돼 역내 미사일 방어를 책임진다(祁昊天 2016, 14).

흥미로운 사실은 한·중 사드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던 2016-2017년 사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1>을 보면, 도리어 2017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2,292억불로 전년도 21,349억 불보다 오히려 6.8% 증가했다. 이런 사실은 중국 지도부가 자국의 경제 손실을 우려해, 사드 갈등 이후 실질적 대한국 경제 제재가 미약했음을 방증한다.



<그림1> 2007-2017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단위 : 억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7. "2007-2017 중국 무역통계." 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검색일: 2018. 1. 25).

중국 지도부는 1990년대까지 경제 성장을 군사력의 기반으로 보았으며, 국가의 힘을 증대하기 위해 장기간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경제 발전에 집중했다(Sutter 2005, 69).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성취한 중국은 주변국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비공식적인 경제 제재를 시작으로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전개해 왔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 발전이 가속화된 90년대에 접어들어, 중국 지도부는 제재국에 무력 수단보다 경제적 압박을 가해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해 왔으며, 이것을 정당한 외교 수단으로 여겨왔다. 이를테면, 노르웨이(Norway)가 달라이 라마(Dalai Lama)와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자 중국은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또 중국은 일본과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에 대항해 도요타, 혼다, 닛산 불매 운동을 벌였다. 이어서 2016년 7월 중국은 남중국해(南中國海) 국제 판결에 불복하며 필리핀과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며 보복 무역 행위를 해왔다(Huang 2 Apr 2017).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대한국 경제 보복 행위는 국제 규범과 합리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상외교 이면에 자국의 의도와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비정상적인 외교정책인 셈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수용하는 한국의 특정 지방 자치 단체를 비난하고 한국에 기반을 둔 기업 및 서비스 공급자를 제재했다. 중국은 한국과 사회·경제 교류를 단절해, 특정 기업의 제품을 더는 중국 시장에 진입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Haggard 2017).

하지만 경제력을 매개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중국의 대외 정책은 다음의 이유로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첫째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시장경제 지위 획득을 원했던 중국의 계획에 장애가 될 것이다. 둘째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양날의 검이 돼 자국 역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셋째로 중국의 경제 보복 대상 국가들은 타국으로 대체 공급 업체를 모색할 것이고, 중국에 경도됐던 경제 방향 역시 재조정할 것이기에 중국의 경제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로 중국의 빈번한 경제 제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위협과 불확실성을 심어줘 중국의 투자 환경을 저해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외 정책은 타국이 중국과의 미래 관계를 재고하게 만들 것이다(Huang 2 Apr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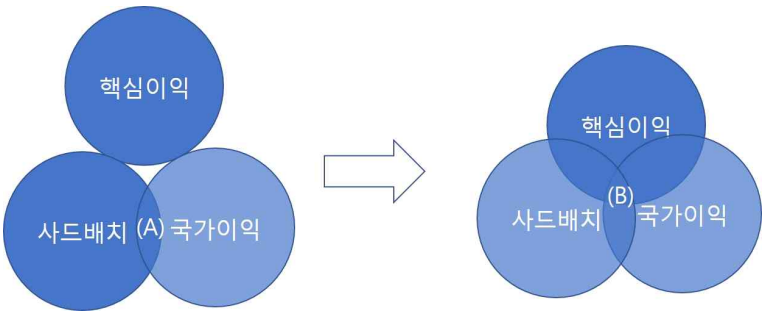
Ⅲ. 한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강압외교 동인

1. 양보할 수 없는 중국의 핵심이익(核心利益) 침해

중국 지도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얼마나 위협적으로 인지하고 있을까? 앞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주요 위협으로 들었다. 이 절은 중국이 국가이익으로 규정한 한국의 사드 배치와 핵심이익 침해의 개연성 여부를 규명하겠다.

중국은 2010년 베트남, 필리핀과 남중국해(南中國海)에서 영토분쟁을 벌이면서 이 지역을 핵심이익으로 규정했다. 이어서 중국 지도부는 일본과 분쟁 중인 댜오위다오(釣魚島) 역시 핵심이익으로 규정하면서, 핵심이익 자체를 중국 내부 문제에서 동아시아의 영유권 문제로 확장하기 시작했다(Campbell 2013, 3). 그간 중국정부는 타국과 협력을 강조할 때 민감한 문제의 회피를 전제했지만, 해양 분쟁만은 중국의 영역으로 간주해 그 민감성의 범위를 넓혀왔다(Tan 2015, 62). 중국은 과거 타이완(臺灣) 통일, 티베트 독립, 신장(新疆) 지역 인권 문제에 한정했던 핵심이익을 유연한 개념의 국제문제로 확장한 것이다(Campbell 2013, 3). 그러면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한 것일까?

실제 아래 <그림 2>를 보면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 이후,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안전이익(國家安全利益)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핵심이익에 근접한 국가이익(A)으로 규정하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표출해 왔다(Irish 16/02/12; 新華社 16/02/13).



<그림2> 사드 배치와 핵심이익의 개연성

현실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중 간 안보 딜레마를 촉발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주변국의 무장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런 현상은 역내 패권 확보를 향한 중국의 대외전략 균열로 이어져, 국가안보 위협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어샤이머(Mearsheimer 2001)의 "살아남지 않으면 번영할 수 없다"는 주장처럼, 안보는 언제나 경제 이익보다 우선하기에, 중국 지도부는 한·중 상호의존으로 파생된 경제이익을 뒤로하고 자국의 안보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지도부는 핵심이익이 아닌 국가이익으로 규정한 사드 배치 문제에 왜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표출하는 것일까? 바로 중국 핵심이익이 대한국 전략에 포함될 단초를 사드 배치로 인한 대타이완 전력 약화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 안정을 대외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핵으로 인한 한국의 사드배치가 일본, 타이완 등 인접국의 핵 억지를 향한 무장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지해, 이것이 대타이완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Nanto & Manyin 2011, 8). 동일 선상에서 미 국방부장관 매티스(James Mattis)는 2017년 초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군사 대응과 동북아 군비 경쟁이 유도될 것을 우려했다(Harrison 2017). 이에 대해 우루치앙(吴日强)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력 향상으로, 중국은 약화된 전략을 안정·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를 구축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Wu 2016). 나아가 중국은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국제체제의 힘의 균형과 안정을 훼손해, 주변국의 핵 군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긴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1).

특히 중국 지도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 자체를 미국의 군사 개입으로 인지해, 타이완 해협에 대항해 있는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약화한다고 여긴다. 이런 사실은 일찍이 2008년 미·중 외교 안보 대화에서 드러났다. 중국 외교부는 미사일 방어 기술이 타이완까지 확산되면, 자국의 타이완 방어 미사일 기술 역시 제고될 것을 우려했다(U.S. Embassy in China 2008). 이런 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타이완까지 확장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편입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종국에는 위 <그림 120>의 핵심이익(B)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국가이익으로 규정한 사드 문제에 대해, 무력 대응보다 경제 제재를 감행했다는 점도 핵심이익 규정 뒤의 행태와 유사하다. 실제 중국은 핵심이익을 무력 충돌도 감행하겠다는 개념으로 정의했지만, 1988년 3월 난사군도(南沙群島) 해역 츠과자오(赤瓜礁)에서 중·월 간 무력충돌 이후, 단 한 차례의 무력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Guan 2000, 203-204). 이에 대해 예르덴(Jerdén 2014, 87)은 중국의 공세성(Assertiveness)은 특정 담론의 간주관적 지식의 범주 내에만 존재하며, 이 담론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존스턴(Jhonston 2013, 46-48) 역시 중국이 공세적이라는 관념은 온라인 미디어와 외교정책 블로그(Blog)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터넷 기반의 언론으로 말미암아 급속히 확산된 현상으로 보고 있다.

대신 중국은 2002년 후진타오 시기부터 상대국과의 갈등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핵심이익을 제기하며 냉혹한 경제 보복을 전개한 바 있다. 2006년 프랑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와 달라이 라마(Dalai Lama) 회동을 앞두고, 중국정부는 정상회담은 물론 에어버스(AirBus) 수입 계획을 전면 철회해 프랑스에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또 중국은 2010년 일본과 댜오위다오 분쟁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해 심각한 경제 보복을 가했다. 여기서 공통점은 중국 지도부가 핵심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군사력을 이용한 물리적 공세를 취하기보다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와 유사하다.

2000년 6월 중국은 한·중 간 마늘 분쟁을 말미암아 한국의 폴리에틸렌(Polyethylene)과 휴대전화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강하게 한국 경제를 압박했다. 다행히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더불어 회원국 사이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 관리 지침에 따라야 했기에 한·중 경제 갈등은 봉합될 수 있었다(Snyder 2009, 65-67). 이런 점에서 경제발전이 가속화된 2000년대에 접어들어 중국은 국가 안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상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며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음을 알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부강한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무역 분쟁을 정치 영역으로 부각해 갈등 대상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안보문제를 거친 경제 보복으로 응수해 왔다.

2. 동아시아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중국의 패권 약화 우려

시진핑 시기에 접어들어 중국은 미국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 전략적 보증(Strategic Reassurance) 관계의 논의가 오갔지만,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이익과 가치가 상이해 양국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틀(Framework)에 이르지 못했다(Tow & Limaye 2016, 20). 그간 중국 지도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패권 확보를 광범위한 전략 목표로 삼아, 역내 동학을 주도했던 미국의 능력을 제한해 한·미 동맹 약화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동북아 지역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됐다고 여기며, 역내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한국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고 있다. 또 중국은 사드 자체를 실질적 군사 위협에 따르는 전략적 대치라기보다 중국 뒷마당에서 미국의 지속된 힘의 표출로 인지한다. 이것이 사드가 중국에 치명적인 군사 위협이 없음에도, 중국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다(Denmark 2017).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해,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크게 훼손한다고 인식한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 방어에 필요 이상으로 넓어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약화하기에 위협적으로 여긴다(PRC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ebruary 2016, 12-13; Wu 2016). 나아가 한국이 사드 배치를 매개로 미국이 구상한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체계에 동참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전환될 위험성은 중국 지도부에 중대한 안보이익 침해로 인식된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전략적으로 중국에 균형을 맞추려는 미국의 노력에 한국이 전폭적

으로 지지했음을 의미한다(Swaine 2017, 5). 더욱이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군 주둔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국은 불편함의 표시로 한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Lee 2016, 35).

그간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며 자국 중심의 지역 안정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의 기술 발전에 맞서 중국의 핵전략과 미사일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Sutter 2005, 69). 또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이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체계의 개발과 시행을 저지해 왔다(Sutter 2005, 69-70). 이런 사실은 아태 지역의 적대적 패권 점유를 막고 개방적인 지역 무역 체제를 구성하려는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과 상충된다(Green, 2015).

3. 중국식 국제질서를 어긴 한국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①미·중 간 전략적 신뢰 훼손, ②지역 긴장 가중, ③새로운 군비 경쟁을 유발로 지역 안보 침해로 집약된다(Tao Zhang, 2016). 그렇다면 그 이면에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공세적 대한국 정책을 전개하는 실질적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한·중 수교 후 양국은 '서로 다른 건 놔두고 같은 것을 추구하자'는 구존동이(求存同異)를 지향하며 최대의 발전을 맞았지만, 사드 배치 결정은 양국 관계의 변곡점이 됐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사드 자체가 중국의 역내 안보 약화를 초래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중국이 제시한 국제 질서를 한국이 어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국식 국제질서란 유교적 관념을 국제정치에 투영한 것을 의미한다. 아편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 경제의 1/3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었으며,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형성해 호혜적 관점에서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청나라 패망 후 생존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서구 열강의 국제정치 질서에 묻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더 이상 고수하기 힘들었다. 이후 2000년대 중국이 부강한 강대국으로 재부상하면서 중국인의 관념에 잠재됐던 중화사상(中華思想)이 중국식 국제 정치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국 지도부는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규정한 국제 질서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국익을 떠나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ce) 대외 정책을 구사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1979년 2월 17일 공산국가 사이에 발발한 중·월 전쟁을 들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처럼 자국의 전략적 위협이 아닌 '베트남 화교(華僑) 탄압에 대한 교훈(Lesson)'을 명목으로 베트남을 침공했다. 중국은 베트남 영토 획득 목적이 아닌 징벌이라고 공언하며 개전했다. 3월 16일까지 한 달간 수행된 중·월 전쟁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적 구실 없이 침공한 최초의 전쟁이었다(Jencks 1979, 801). 실제 중국은 1969년 3월 이데올로기 문제로 소련과 국경 분쟁을 벌인 바 있다. 결과적으로 덩샤오핑은 이 전쟁에서 패배할 줄 알면서도, 베트남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규범과 질서를 어겼다는 이유로 침공을 강행했다.

하지만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중국은 강대국과 연루된 국제 문제에 대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세력전이 이론에 따르면, 중국처럼 부상하는 강대국은 불가피하게 국제체제의 현상유지에 도전해 힘과 정치적 긴장을 조성하며, 국제 질서에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은 강대국의 위계질서 내에서 자유주의와 타협하며 부상하고 있다(Zhang 2016, 816).

그간 중국은 대외정책 측면에서 자국 중심의 국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행위자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중국적 힘의 역할로 규정해왔다(Easley & Park 2016, 667). 이런 맥락에서 중국 지도부는 북·중 관계의 현상유지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더 많다고 결론지었다(Zhu & Beauchamp-Mustafaga 2015, 37-64).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은 호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 북한을 감싸왔다. 실제 북핵 위기가 발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 포기 설득에 실패했다. 이런 북한의 행동은 미국에 중국이 우려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빌미가 돼 한·미 동맹 강화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안보 이익은 약해졌다(Xiao 2017, 87). 이처럼 중국 지도부는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존재라 여겨 감싸왔다. 중국 지도부는 김정일 사후 2012년 4월과 12월 로켓 발사를 김정은의 정권 강화 차원이라 이해했으

며, 중국이 정의하는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여겼다. 그렇지만 2013년 2월 12일, 3차 북핵 실험부터 중국은 북한이 명백히 중국식 규범을 어겼다고 여겼으며, 중국의 정치 엘리트와 인민은 분개했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이 중국의 권위를 어기고 중국이 제시해온 안정 개념을 위협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Easley & Park 2016, 656-667).

실제 2차 북핵 실험 직후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연이어 방북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3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3차 북핵실험 직후 중국 지도부는 고위급 인사의 방북 중단은 물론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중국은 2015년 10월 리우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政治局常務委員)을 북한 70주년 행사에 보내 구색만 맞췄다. 급기야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단행 직후, 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UNSC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 2270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중국은 북·중 모두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기에 상호 간 강한 연계보다 일반 관계(Normal Relationship) 유지를 원했다(Xiao 2017, 83-84).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자체가 국제 규범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유지에 장애 요소며, 한국은 오랜 기간 중국이 구상한 역내 질서의 틀을 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은 감정적인 면에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 위기 시 한국은 항상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며 양보해왔다. 하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한국에 부여했음에도, 한국은 기존 입장을 견지해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적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중국 지도부에 심어줬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얻는 손익은 아래 <표 1>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중국의 결정	이익	손실
사드 배치 용인	한·중 관계 현상유지	동북아 지역의 중국 전력 약화
사드 배치 반대	중국 규범의 국제 질서 천명	한·중 관계 악화, 동북아 지역의 중국의 영향력 약화

<표 1> 한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손익

위 <표 1>을 분석하면,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한·중 관계 악화는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역내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음에도, 중국식 국제 질서 천명을 이익으로 간주해 대한국 경제 제재를 강행했다고 판단된다.

Ⅵ. 맺음말

이 연구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어떤 동인으로 대한국 강압외교를 전개했는지 규명했다. 일국의 외교정책은 국제 체제와 국내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며 도출된다. 사무엘 킴(Samuel S. Kim)이 중국 외교정책을 어떤 가치 혹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행위자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행위와 합목적적 대외활동의 총합이라 정의한 것처럼(Kim 1998, 11), 동북아 지역의 세력전이에 따른 국제체제 변화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역동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내 정치 환경과 반응하며 중국의 대외정책으로 표출됐다.

구조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외교정책결정은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보다 객관적 구조를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6.25 참전, 중·소 분쟁은 압도적 힘의 차이가 있는 강대국을 대상으로 감행한 모험이기에 구조적 현실주의를 적용해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 1962년 중·인 전쟁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군사 우위에도, 더는 인도의 국경지대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협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시기 마오쩌둥이라는 행위자의 인식과 선택이 국제질서와 상호 작용해 대외정책으로 표출됐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대외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외교정책이 결정된다는 구조적 현실주의 관점보다 국내정치 행위자의 판단이 외교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추진에 따른 중국의 대외정책은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국제 환경 이외에 시진핑 일인의 주관적인 의도가 반영된 것임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000년대 중국이 부강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역내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미국이 '아시아의 회귀(Pivot to Asia)' 선언 후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세력전이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 상호의존 그 자체만으로도 중국 지도부에 심리적 안정감을 줬으며, 양국은 유례없는 밀월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차 북핵 위기로 파생된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가져왔고 동북아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것은 곧 역내 중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기에 중국은 한국을 탓하며 맞공세에 들어갔다. 현실주의의 기본 가정처럼 국가가 단일하고 합리적 행위자라면, 중국은 세력전이의 국제체제 수준에서 한국을 포용해 한·미·일 동맹 강화를 저지해야 하지만, 전략적으로 한국을 잃을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강경한 대한국 경제 제재를 견지하고 있다. 또 중국의 대한국 경제 제재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국의 경제 손실 역시 감수해야 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점진적으로 구축된 한·중 경제적 상호의존은 양국이 갈등에 직면했을 때, 상호 간 충돌 비용이 높아 일국만 피해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중국 지도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응해 공세적인 대한국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기능적, 기술적 불용론,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 약화 등을 제시하며 반대 의사를 공언해 왔다. 대안으로 중국은 북핵에 대응해 한국을 보호할 사드 대체재가 이미 존재하기에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사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전략적 위협보다 이것이 미국의 지속된 힘의 표출로 인지하기에 한국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그렇다면 실제 중국은 어떤 동인으로 대한국 봉쇄전략을 전개한 것일까?

우선 중국 지도부는 사드 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에 근접한 국가이익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가 사드 자체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핵심이익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바로 북핵 위기를 명분으로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묵인했을 때 타이완까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확산돼, 중국의 대타이완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그 자체로 중국식 국제질서를 어겼다고 간주해, 한·중 간 정치·경제적 실익을 뒤로하고 경제 제재로 한국에 응수했다. 한국이 강행한 사드 배치 결정이 국제질서에 위배되진 않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명백히 중국식 규범의 틀을 깬 것이라 여겼다. 사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 위기 시 한국은 항상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며 타협점을 찾아왔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한국에 부여했음에도, 한국은 기존의 입장을 견지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적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중국 지도부에 심어줘 이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마지막으로 중국 지도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으로 여겨 중국의 전략적 균형이 크게 훼손된다고 인식해 대한국 강압외교로 응수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사드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확장될 위험성을 중대한 안보이익 침해로 여겨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했다.

이처럼 중국 지도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 자체를 대타이완 전력약화, 중국식 규범 위배, 전략적 균형 훼손으로 간주해 한·중 관계 훼손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대한국 강압외교를 전개했다고 판단된다.

【참고 문헌】

서진영. 2017. "韓·中 수교 25년 회고와 전망."「문화일보」(8월 25일).
한국무역협회. 2017. "2007-2017 중국 무역통계." 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검색일: 2018. 1. 25).
한재진, 천용찬. 2017. "현안과 과제: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현대경제연구원』17-10호: 7-8.
祁昊天. 2016. "薩德入韓與美國亞太反導布局的戰術與戰略考量."「現代國際關系」7: 13-21.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1. "2010年 中國的國防."
張相國. 2016. "美在韓部署 薩德 分析."「兵器知識」4: 54-57.
Altfeld, Michael F. 1984.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7(4): 523-544.
Cantelmo, Robert. 2016. "THAAD Could Spark a Dangerous Arms Race in East Asia." The Diplomat. July 22.
China Daily. 2017. "THAAD may lead to $7.5b economic loss in 2017: South Korean media." Sep. 20.
Clinton, Hillary. 2011.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Oct. 11.

Denmark, Abragham M. 2017. "China's Fear of U.S. Missile Defense Is Disingenuous." Foreign Policy, March 20.
Dzodin, Harvey. 2017. Chinese Dream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reality. China Daily. Oct. 10.
Easley, Leif-Eric & In Young Park. 2016. "China's norms in its near abroad: understanding Beijing's North Korea polic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5(101): 651-668.
Green, Michael J. 2015. U.S. defense policy issues pertaining to the Asia-Pacific theatre. Washington. Apr. 14.
Guan, Ang Cheng. 2000. "The South China Sea Dispute Revisited."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4(2), 201-215.
Harrison, Bruce. 2017. "Mattis Pumps up THAAD, But China Likely to Keep 'Bullying' Korea."The Diplomat. Feb. 3.
Haggard, Stephan. 2017. "China. South Korea, the U.S. and THAAD." China Policy Institute: Analysis. Jan. 30.
Irish, John. 2016. "China urges U.N. action to make North Korea 'pay price'." Reuters. Feb 12.
Jencks, Harlan W. 1979. "China's Punitive War on Vietnam: A Military Assessment." Asian Survey 19(8): 801-815.
Jerdén, Björn. 2014. "The assertive China narrative: Why it is wrong and how so many still bought into it."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7(1): 47-88.
Johnston, Alastair Iain. 2013.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37(4): 7-48.
Lee, Brianni. 2017.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Militarism Leading To Political Regression."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38: 34-37.
Li, Bin. 2016. "The Security Dilemma and THAAD Deployment in the ROK." Kyunghyang Daily. Aug. 3.
Mearsheimer, John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W Norton & Company.
Papayoanou, Paul A. 1997.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balance of powe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1): 113-140.
Snyder, Scott A. 2009. China's Rise and the Two Koreas: Politics, Economics, Security. Lynne Rienner Pub.
_____. 2016. "China's Limited Retaliation Options Against the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ugust 8.
PRC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6. "Wang Yi Meets with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of ROK." Feb. 12.
_____. 2016. "Wang Yi Talks about US''s Plan to Deploy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in ROK." Feb. 13.
_____. 2016.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ong Lei''s Regular Press Conference." March 30.
China Military Online. 2016. "Defense Ministry's regular press conference." July 28.
Swaine, Michael D. 2017. "Chinese Views on South Korea's Deployment of THAAD." China Leadership Monitor 52: 1-12.
Rothstein, Robert L. 1988. Alliances and Small Pow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Tow, William T & Satu Limaye. 2016. "What's China Got to Do With It? US Alliances, Partnerships in the Asia Pacific." Asian Politics & Policy 8(11): 7-26.
U.S. Embassy in China. 2008. "U.S.-China Security Dialogue Working Lunch: Strategic Security, Missile Defense, Space, Nonproliferation, Iran." June 13. www.telegraph.co.uk/news/wikileaks-files/china-wikileaks/8299322/U.S.-CHINA-SECURITY-DIALOGUE-WORKING-LUNCH-STRATEGIC-SECURITY-MISSILE-DEFENSE-SPACE-NONPRO-IRAN.html(검색일: 2017. 12. 31)
Wu, Riqiang. 2013. "China's Anxiety About US Missile Defence: A Solution." Survival 55(5): 29-52.
_____. 2016. "South Korea's THAAD: Impact on China's Nuclear Deterrent." RSIS Commentary 192. July 27.
Xiao, Ren. 2017. "Old Wine in a New Bottle?: China's Korea Problem." Asia Policy. 23(1): 83-89.
Yi, Whan-woo. 2017. President walking tightrope between US and China. Korea Times, July 9.
Yonhap News. 2017. "Jeju Air gets China approval to fly 2 chartered flights" July 17.
Zhang, Tao. 2016. "PLA Daily: U.S., ROK must stop deployment of THAAD missile battery." China Military Online. July 29.
Zhang, Yongjin. 2016. "China and liberal hierarchies in global international society: power and negotiation for normative change." International Affairs 92(4): 795-816.
Zhong, Sheng. 2016. "Directed Against China: New Site for U.S. THAAD Missile Deployment in South Korea." People' Daily. Oct. 1.
_____. 2016. "US, ROK will pay price if persisting in THAAD deployment." People's Daily. Oct. 9.

【메 모】

【중국문화 분과】 발표 ①

왕차오(王超) 감독 연구*
— '悲劇 三部曲'의 서사적 은유를 중심으로

박민수 (부산외대)**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비극 삼부곡'의 서사적 은유
   1) <안양의 고아>의 갓난아기
   2) <낮과 밤>의 강
   3) <럭셔리 카>의 차
3. 나오는 말

【초록】

중국의 제6세대 감독 중에서 왕차오는 노동자와 사회 주변인의 삶을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영화에서 이들은 비극적인 결말로 귀결된다. 프랑스의 영화평론계에서는 그의 세 편의 영화, <안양의 고아>, <낮과 밤>, <럭셔리 카>를 '비극 삼부곡'이라 칭한다. 이는 영화에서 나타나는 비극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인물이나 내용, 주제에서 뚜렷한 유사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명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왕차오에 대한 연구는 출발한다. '비극 삼부곡'은 비극적이지만 희망을 빛을 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밝혀내면서,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영화적 은유, 즉 '갓난아기'와 '강', '차'를 통하여 현대 중국에 대한 그의 온기어린 시선을 읽어내고자 한다.

【키워드】 왕차오, 비극 삼부곡, 안양의 고아, 낮과 밤, 럭셔리 카, 아기, 江, 車

1. 들어가는 말

중국의 제6세대를 대표하는 감독 중에서 특히 張元, 婁燁, 王小帥, 賈樟柯 등의 감독들은 90년대 이후 개혁개방을 마주한 도시 서민들의 삶과 청년들의 가치관의 혼란, 당대 사회의 모순과 폐해 등을 사실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범주에서 본다면 왕차오(王超)[1]의 영화도 앞서 언급한 감독들의 영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 본 논문은 2018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로 조성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일중대학 중국학부 조교수 (parkminsoo@bufs.ac.kr)

1) 1964년 1월 南京에서 출생하였다. 1980년대에는 난징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였다. 1994년에는 北京電影學院의 成人教育學院을 졸업하였다. 『當代電影』, 『中國電影周報』에 외국영화의 평론을 발표하였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감독 陳凱歌의 조수로 일하다가 영화 <荊軻刺秦王>의 부감독을 맡았다. 1997년 단편소설 <南方>을 발표하였다. 1998년 단편소설 <去了西藏>이 『小說月報』에 옮겨 발표되었다. 1999년 중편소설 <天堂有愛>를 발표하였다. 2000년 중편소설 <안양의 고아>를 발표하였다. 2000년 말부터 2001년 초까지 자신의 처녀작인 <안양의 고아>를 촬영했다. 제54회 칸국제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되었다. 11곳의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하였다. 2002년 1월 소설 <안양의 고아>가 파리에서 불어판으로 출판되었다. 2003년 1월 영화 <안양의 고아>가 프랑스 유력 문화잡지인 『Telerama』로부터 2002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영화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소설 <去了西藏>이 파리에서 불어판으로 출판되었

있다. 그러나 왕차오를 비롯한 이들 감독들이 동일한 시공간과 인물, 주제들을 스크린에 펼쳐놓지만 감독이 지향하는 가치와 스타일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감독들은 자본주의가 펼쳐지는 현대중국의 공간을 중심에 두고, 청년들의 가치관 혼란에서 서민들의 삶을 다룬 주제로 이동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왕차오는 초기작인 <안양의 고아(安陽嬰兒)>(2001)에서부터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서민들의 삶에 대하여 주목하여왔다.

왕차오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것은 1997년 발표된 그의 처녀작, 단편소설 <남방>[2]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 <남방>은 남방에서 베이징으로 온 농민공과 어린여자애가 달린 담배 파는 과부가 베이징에서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들의 신분과 시대적 공간이며, 이들은 이후 발표한 소설들과 영화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소설 <안양의 고아>를 영화화한 <안양의 고아>에서도 소설 <남방>에서 보이는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거나, <낮과 밤>의 탄광에서 혹은 <럭셔리 카>에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들의 신분은 사회에서 가장 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직자, 매춘부, 건달, 광산 노동자 등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제6세대 감독 중에서 왕차오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핍진하게 다루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이러한 작품세계는 그가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자의 신분[3]으로 생활한 그의 이력에서 기인한다. “저의 경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노동자로 살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실직자가 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4] <안양의 고아(安陽嬰兒)>(2001)에서 <낮과 밤(日日夜夜)>(2003), <럭셔리 카(江城夏日)>(2005) 세 편 영화에 등장하는 노동자와 사회주변인들은 평소 왕차오에게 낯설지 않은 주변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갈등과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프랑스의 영화평론계에서는 세 편의 왕차오 영화를 ‘비극 삼부곡’[5]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영화에서 나타나는 비극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인물이나 내용, 주제에서 뚜렷한 유사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명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왕차오에 대한 연구는 출발한다. 왕차오의 ‘비극 삼부곡’인 영화 <안양의 고아>에서 <낮과 밤>, <럭셔리 카>에서 연속성과 유사성, 즉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서사적 은유인 ‘아기’와 ‘강’, ‘차’를 통하여 감독이 의도하는 바를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적 은유를 살펴보는 과정은 세상을 향한 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종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대 중국에 대한 그의 온기어린 시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왕차오 감독의 영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할 수 있다.

2. ‘비극 삼부곡’의 서사적 은유

1) <안양의 고아>의 갓난아기

다. 2003년 9월 <낮과 밤>을 촬영하였다. 2004년 5월 <天堂有愛>가 파리에서 불어판으로 출판되었다. 2004년 11월 <낮과 밤>이 제26회 낭트 3대륙 영화제에서 최우수 영화상, 감독상, 청년비평가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 5월 <南方>이 파리에서 불어판으로 출판되었다. 2005년 9월 <럭셔리카>를 촬영하였다. 2006년 5월 <럭셔리카>가 제59회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최우수영화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6월 제작자겸 감독으로 <重來>를 촬영하였다. 2011년에는 <天國>, 2014년에는 <幻想曲>, 2015년에는 <尋找羅麥>을 감독하였다. 이상 왕차오의 이력은 2009년 출판된 왕차오의 자서전인『退回到自由』과 『百度百科』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2) 王超,『退回到自由』, 山東人民出版社, 2009, p.41-52.

3) 程青松, 黃鷗,『我的攝影機不撒謊』, 山東畵報出版社, 2010, p.131

4) “和我本人的经历有关。我出生于工人家庭，我自己也做过工人，更亲眼目睹了许多身边的朋友下岗失业。” 王超,『退回到自由』, 山東人民出版社, 2009, p.301.

5) “是这样，法国影评界最近将这三个电影总结为是我的《悲剧三部曲》，前两部是《安阳婴儿》和《日日夜夜》。《江城夏日》一样延续了我在前两部电影中对中国当代现实及其历史和政治寓言的批判与思考。而中国当下的贫富差距，　民众与幸福的距离，他们的过去、尤其是他们的今天与社会体制的潜在冲突及矛盾，和他们是否有希望，这些我同样作为他们其中的一分子而日益感受到的沉重和尖锐使我决定拍摄这部影片。”王超,『退回到自由』, 山東人民出版社, 2009, p.305.

'비극 삼부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종일관 어둡고 건조하다. 그리고 그 결말은 비극으로 귀결된다. <안양의 고아>에서 위따강은 펑앤리에게 아이를 찾으러 온 親父 건달 리우쓰더(劉四德)를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사형을 당한다. 경찰의 매춘 단속에 도망치다 아이를 잃어버린 펑앤리는 결국 잡혀서 기차에 태워져 고향으로 강제 귀향을 당하면서 끝이 난다. <낮과 밤>에서는 탄광으로 인해 부자가 된 광성이 사부에 대한 죄책감으로 사부의 아들에게 자신이 일궈낸 탄광을 물려주고 떠난다. <럭셔리 카>에서는 오빠 리쉐친(李學勤)이 차량 절도를 시도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것을 알게 되고, 경찰을 살해한 리우허가 사형을 당하고, 말기암의 엄마가 사망하면서 끝이 난다. 어떻게 보면 당대사회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아장커 영화의 결말보다도 왕차오의 영화는 극단적이며 비극적이다.

하지만 세 편 영화의 에필로그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장면은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가운데서도 그 희망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비극 삼부곡'을 지배하는 가장 상징적인 모티브 중의 하나는 '아기'이다. <안양의 고아>에서 이야기의 전개는 '아기'로부터 시작된다. 위따강(於大崗)이 실직을 하고 늦은 저녁 첫 끼를 먹기 위해 찾은 국수집에서 버려진 '아기'를 만나게 된다. 이후 그 '아기'는 다시 라스트 시퀀스에서 나타난다. 창녀 펑앤리(馮艷麗)는 경찰의 매춘단속에 쫓기다가 사망한 남자 주인공 위따강과 마주치자 자신의 아이를 건네는 장면이다. <낮과 밤>에서는 지적장애인 아푸(阿福)와 결혼한 홍메이(红梅)가 아푸에게 탄광을 주고 떠난 광성(廣生)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자막으로 제시되면서 영화는 끝난다. "8개월 후 홍메이는 아들을 낳았고 광산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그녀는 가족사진을 광성에게 부쳤다." <럭셔리 카>에서는 도시에서의 생활을 접고 귀향한 리앤홍(李艷紅)이 산부인과에서 사형당한 건달 리우허(劉鶴)의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에서 끝이 난다.

<그림1> <안양의 고아>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는 펑앤리에서 아기를 건네받은 따강

<그림2> <낮과 밤>의 엔딩에서 자막

<그림3> <럭셔리 카>에서 출산하는 리앤홍과 기다리는 아버지

물론 이러한 에필로그의 시도는 다소 상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는 당신의 정신에서의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또는 새로운 발전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새로운 발전은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 새로운 가치관, 정신적인 힘들의 새로운 균형, 이전에 갈등하던 힘들간의 새로운 화해 등을 말한다. 당신 안에 있는 어린이는 당신 안에 있는 생장점이다."[6]라는 정신분석학적 해설과 같이 문학이나 예술의 여러 장르에서 결말에 가끔 등장하는 '아기'나 '어린아이' 등은 암울하고 모진 현실에서 내일을 기약하는 한 줄기 빛이자 희망 혹은 추상적인 가치의 긍정적 발전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왕차오가 '아기'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 즉 감독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영화가 가진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하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한다.

우리는 지아장커의 영화 <삼협호인>과 <천주정> 등을 통해 현대중국이 안고 있는 모순과 부작용을 목도한바 있다. 자본주의 유입으로 인한 도농과 빈부의 격차, 일자리를 찾아 부초처럼 표류하는 서민들, 그로인해 야기되는 가족의 해체 등은 지아장커의 영화를 통하여 재현되었다. 영화에서 그의 시선은 주변인적이며 건조

6) 에릭 애크로이드, 『심층심리학적 꿈 상징 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9, p.291.

하다. 왕차오의 영화도 그것과 닮아있다. 하지만 왕차오는 결말에서 '아기'를 등장시키면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안양의 고아>에서 펑앤리가 열차의 화물칸에 짐짝처럼 실려 강제 귀향당하는 장면에서, 캄캄한 화물칸의 조그만 창살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한동안 응시하다가 환상에서 따강에게 아기를 맡기면서 클로징크레딧이 올라가는 장면, <럭셔리 카>에서 리앤홍이 들어간 분만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분만실 앞에서 대기하던 그녀의 아빠 리치밍(李啟明)이 고개를 서서히 들면서 얼굴에 번지는 미소와 함께 클로징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이 이러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낮과 밤>에서 아푸와 결혼하면 1만원을 준다는 광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수십 명의 여성 중에서 선택된 홍메이가 '아기'를 낳고 광산의 주인이 되었다는 자막은 자식을 통한 혈연 가족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왕차오는 현실이 주는 고통과 상처를 온화한 시선으로 비틀어 현대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아기'라는 모티브는 절망의 세계에서 '희망', '꿈' 등의 미래를 제시하는 하나의 지향으로 나타나지만, '가족'의 결합이라는 가치로 완성되기도 한다. <안양의 고아>에서 '아기'는 기존 가족의 개념인 혈연주의를 벗어나서 상처를 입은 타인들이 만나서 가족을 형성해나가는, 즉 서로를 치유해가는 혹은 현실에 오염된 정신과 신체를 정화하는 하나의 매개로 작용 한다고 볼 수 있다. <안양의 고아>에서 교도소에서 "누가 따강의 가족입니까?"라며 가족을 찾는 교도원의 큰소리에 앤리가 "접니다."라고 대답하고, 수감된 따강이 앤리에게 "내가 죽어도 이 아이 박대하지 말아요. 그는 내 자식이오."라는 당부에서 보듯이 영화가 끝나갈 무렵 이 둘의 의식에는 비록 혈연으로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가족애가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양의 고아>에서 따강이 국수집에서 버려진 '아기'를 만나서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면서 유사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에는 영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주인공의 '식사'를 통하여 구축된다. 명퇴를 당하고 돈이 떨어져 하루 종일 식사를 못한 따강은, 이제는 쓸모없는 퇴직한 회사의 식권을 지인의 도움으로 돈과 바꾸게 된다. 국수집에서 버려진 아기를 만나게 되고 면을 뽑는 주인을 대신하여 아기를 안고 있다가 보자기 안에 있던 삐삐번호가 적힌 쪽지를 발견한다. "이 아이를 돌봐주시면 매달 양육비로 200원을 드립니다." 따강에게 있어 '아기'는 '양육비 200원'의 등가물이다. 처음 따강과 앤리에게 '아기'의 수탁과 위탁은 각자 생존의 방편이었지만, 이후 가족을 잃은 상실의 아픔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생존'에서 '가족의 상실'은 국수를 먹는 장면을 통해 은유된다. '아기'를 안고 나온 따강과 펑앤리의 첫 만남에서 국수를 먹는 장면과 이후 따강이 사형을 당한 뒤 동일한 장소에서 펑앤리가 '아기'를 안고 국수를 먹는 장면을 각각 4분 넘게 롱테이크로 잡아내면서 감정의 흐름을 포착하고 있다. 국수를 먹는다는 것은 실직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발버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인과 동질감을 형성하고 가족애로 나아가는 행복한 기억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족애의 확장은 <안양의 고아>에서 세 명의 유사가족이 사진관에서 찍는 사진에서 정점에 다다르며, <낮과 밤>에서도 "가족사진을 보내왔다"는 자막으로 나타난다. 지아장커의 <삼협호인>에서는 옛날의 가족사진을 클로즈업 하면서 가족의 해체를 은유한다면, 왕차오는 가족사진 찍는 장면을 보이면서 새로운 가족의 생성을 말하고 있다.

2) <낮과 밤>의 강

영화는 감독의 삶과 사회에 대한 성찰의 결과물이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아기'는 비극적인 세상에서 미래에는 희망적이길 바라는 염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영화에서는 자본주의의 욕망이 꿈틀대는 현대 중국에서 모진 삶을 살아가는 명퇴자와 술집여자, 건달 등의 주변인물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지속적으로 포착하면서 이들의 삶을 숙명으로 은유하기도 한다.

<안양의 고아>에서 말기암에 걸린 건달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 세워. 황하가 보고 싶네."라고 하고서는 황하를 하염없이 바라본다. 강은 그에게 돌아가고 싶은 어머니이자 본성으로의 회귀를, 또 한편으로는 삶에 대한 회고와 죄의 구원을 나타낸다. 건달은 황하의 강변을 벗어나자 바로 본가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안양의 고아>, <럭셔리 카>에서는 주로 '갓난아기'와 '車'에 대한 이미지가 제시되는 반면에, <낮과 밤>에서는 주로 '강'과 '물'이 프레임에 등장하고 있다

> 강: 강은 정서적 에너지 또는 성의 흐름을 상징한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거나, 또는 생활방식이나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한다.[7]

> 물: 물은 정서나 정서적 에너지를 상징한다.……물은 흔히 다산성, 성장, 특히 저수지나 잔잔한 호수의 형태를 하고 있을 경우, 잠재적인 창조력, 새로운 삶, 또는 치유를 상징한다. 특히 깊은 물은 무의식을 상징한다. 물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자신의 여성성이나, 어머니를 나타내는 여성적인 것에 대한 상징이다.[8]

'강'과 '물'이 문학과 예술에서 등장한 것은 가장 오래전의 일이기도 하거니와, 인간의 삶과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지는 물의 속성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강'을 경계로 삶과 죽음의 추상적 구도가 형성되고, '물'을 통하여 인간의 죄악이 정화되기도 하는, 이른바 가장 종교적인 상징물이기도 하다. <낮과 밤>의 첫 장면은 탄광에서 마을 장터로 들어오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장면이다. 이후 이런 장면이 몇 차례 더 나오며, 마지막으로는 광성이 배를 타고 떠나면서 탄광을 계속 응시하는 것을 롱테이크로 잡아낸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탄광은 자본주의의 유입과 함께 침입한 자본의 욕망과 윤리적 양심이 혼재되어 충돌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낮이 되어 탄광에 들어가기 전에 사부의 장비를 정성들여 챙기는 광성이, 밤이 되면 사모와 불륜을 저지르는 욕망과 양심이 충돌하는 곳이다. 또 막장에서 사고가 터져서 사부를 먼저 올라가게 했지만, 못 올라가는 사부를 잡아 내리고 자신이 올라오면서 느끼는 생존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곳이다.

이후 영화에서는 광성과 영혼이 된 사부가 나누는 대화가 두 차례에 걸쳐 나오며, 자막을 통해 한차례 더 만났다고 나온다. 사실 왕차오의 세 편의 영화에서 <낮과 밤>은 다른 두 편에 비하여 '운명'과 '죄의식'이라는 이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이 영화의 원형을 잉마르 베리만[9]의 <제7의 봉인>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한다.

> "왕차오는 중국의 감독들에게 영향이 끼친 감독중의 한사람이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이라고 생각한다. 안토니오니와 잉마르 베리만감독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현대 영화의 언어와 정신을 정립하였다. 베리만 감독은 인간이 정신적으로 받는 모든 압박들을 표현하면서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였다. 안토니오니는 냉정하게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이질화가 만들어내는 현상학적 묘사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묘사의 역량은 당대 영화의 역량이었다."[10]

> 저는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11], 오즈 야스지로[12], 잉마르 베리만의 영화팬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낸 모든 현대영

7) 에릭 애크로이드, 『심층심리학적 꿈 상징 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9, p.103.
8) 에릭 애크로이드, 『심층심리학적 꿈 상징 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9, p.207.
9) 베리만의 이름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55년에 발표한 <한여름 밤의 미소>가 칸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은 후부터다. 그는 이후 영화에서 죽음의 공포와 구원의 문제, 기독교의 가치와 인간의 욕망 등을 다루며 신이 침묵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불안하면서도 다채로운 삶을 조명해 왔다. 이 같은 삶과 죽음, 신과 인간, 존재와 구원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주제의 영화로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57년 발표한 <일곱째 봉인>부터다. <일곱째 봉인>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 신의 존재와 인간 구원을 고통스럽게 묻는 작품이다. 그리고 같은 해 발표한 <산딸기>가 베를린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하면서 베리만은 단숨에 최고 영화 작가로 추앙받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잉그마르 베리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1526&cid=43667&categoryId=43667
10) "王超認為，安東尼奧尼對中國導演的影響很大，而他就是其中之一。他認為，安東尼奧尼和伯格曼從兩個不同的維度來奠定現代電影的語言和精神。伯格曼更多的表現人在精神困惑中所受的壓力，從而對人表現一種終極關懷。而安東尼奧尼則是冷靜地對現代社會中人的異化做出現象學的描述，這種描述的力量正是當代電影的力量。" 2018년 10월 27일 검색. 『長江商報』 http://ent.163.com/07/0801/08/3KQ2A69G0003rt.html
11) 프랑스의 사진가. 라이카 사진술의 대표적 존재이며, 현대의 포토저널리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서민의 일상성을 포착하여 역사의 저변에 주목하게 하는 것과 정확한 공간처리에 따른 순간묘사의 절묘함이 작품의 특징이다. 1947년 R.캐퍼 등과 함께 매그넘포토즈를 창립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카르티에 브레송 [Henri Cartier-Bresson]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8669&cid=40942&categoryId=34413
12) 일본의 영화감독. 미조구치 겐지, 구로사와 아키라와 함께 일본영화의 3대 거장으로 꼽힌다. 서민들 사이의 관계와 의사소통, 가족간의 유대감 등을 주로 영화의 소재로 취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8554&cid=40942&categoryId=39960

> 화의 형식주의 관념은 또한 저의 영화적 신념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영화감독으로서 신념과 책임감 있게 중국의 문화정신을 영화에 담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중국의 미적 감정의 전통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13]

위의 인터뷰에서 보듯이 왕차오는 세계의 저명한 감독에 경도되어 있었으며, 특히 베리만의 가치관과 작품을 존중했다. 그의 영화에서 '아기'가 등장하면서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점이 그러하고, <낮과 밤>에서 광성과 사부의 영혼과의 대화가 베리만의 영화와 닮아있다. <제 7의 봉인>에서 죽음의 사자와 기사를 통하여 삶과 죽음, 신과 인간, 존재와 구원을 다루었다면, 왕차오는 영화의 제목인 '낮과 밤'에서도 드러나듯이 욕망과 윤리, 즉 현재 중국의 공간에서 충돌하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림4> <낮과 밤>에서 師父의 영혼과 마주한 광성

<그림5> <제 7의 봉인>에서 죽음의 사자를 만난 기사 안토니우스 블로크

<그림6> <제 7의 봉인>에서 나타나는 아기

그리고 이러한 은유는 '나귀'를 통해서 형상화되며, 나귀로 내면화되는 바보 아푸는 물질적 욕망에 전도된 어리석은 인간을 은유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물질적 욕망의 추구는 광성의 성적 욕망과 맞닿아있으며,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우언적 효과로 작동하고 있다. 영화에서 나귀를 지속적으로 안는 아푸의 행동이 인간에 대한 우언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강에서 나귀를 씻기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정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귀를 씻는 행위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세례'를 연상시키며, 이는 죽음과 부활, 혹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작업이다.

<낮과 밤>이 다른 두 편에 비하여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드러나긴 하지만 그렇게 명확하지 않는, 즉 주제의 상이함과 충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질적인 모습은 다른 영화에 비해 낮은 완성도와 연결이 된다. 사부와 광성의 호칭에서 비롯되는 상호관계에 대한 인과성이 드러나지 않고, 또 사모와 아푸가 함께 광산을 떠난 뒤 홀로 돌아온 아푸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점이다.

> 또한 강은 '길' 모티프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적지를 향해가는 '길' 모티프는 여행을 의미하며 그 여행은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아를 발견하는 암시적 목적성을 갖는다. 또한 길은 "지향성과 회귀성의 양면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성취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과관계를 내포하는 목적론적 지향성을 갖는다.[14]

3) <럭셔리 카>의 차

"1990년대 중반 중국사회의 급격한 빈부격차 과정은 다층적으로 전개되었다. ……농촌에서는 법정 의무 연령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동여성을 포함한 천만 명에 육박하는 농촌 소녀들이 중국 연해 각지 외자 혹은 합자 가공 공장으로 들어가 가장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원시 자본주의 단계의 전형적인 모습

13) 我又是布列松、小津安二郎及英格瑪·伯格曼(Ingmar Bergman)的影迷, 他們所建立起的現代電影形式觀念, 也同時是我的電影信念, 而作為一名中國導演, 我又有信心和責任為電影藝術註入中國文化的精神, 讓電影呈現傳統中國的美感。歐陽江河, 『中國獨立電影訪談錄』, 四川文藝出版社, 2018, p.27.

14) 서정인의 <강>에 나타난 공간 구조의 특징과 의미 171

이 출현했는데 그건 바로 공장 여성 노동자와 매매춘 노동자 사이에 불규칙적인 양방향 이동이었다."[15]

창녀-주변인, 존재의 불안, 매춘을 하는 이유, 경제적 궁핍함, 생존의 방식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압도한다는 점

매춘은 생존과 윤리의 충돌, 각성은 주체로서의 자아의 독립

남성에 대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코드로 작용

사회의 개인에 대한 폭력, 마지막 장면에서 잡혀 가는 것 억압과 폭력의 대상

3. 나오는 말

15) 다이진화, 『성별중국- 중국 영화와 젠더 수사학』, 도서출판 여이연, 2009, pp.140-141

【메 모】

【중국문화 분과】 발표 ②

中華人民共和國 건립 전 毛澤東의 문화 사상과 정책

김형열 (동의대)

Ⅰ. 머리말

毛澤東은 중국 공산당의 창립인 중의 한 사람이자, 내전과 항일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 속에서도 중국 사회현실에 적합한 사상과 전략을 통해 중국 공산당을 승리로 이끌며 中華人民共和國을 건립한 주역으로서, 그 역할과 영향력이 중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도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 인물이다. 중국 공산당의 창도자이자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부로 일컬어지는 마오쩌둥에 대한 연구는 중국 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며 수많은 결과물을 도출해 내었다. 이러한 연구는 毛澤東主義로 일컬어지는 그의 정치사상 또는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초기 농민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소비에트구에서의 정치활동, 장기간에 걸친 국공내전 과정 속에서 특히 대장정을 통해 수립된 그의 反封建 투쟁노선, 광범위한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反封建과 反帝國主義를 달성하고자 한 대중노선,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사회주의 공업화 노선, 급진적 좌경화 운동으로 일컬어지는 문화대혁명과 당내 정치 투쟁 등 마오쩌둥의 생애 전반에 걸쳐 연구의 주제로 설정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거의 무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마오쩌둥의 초기사상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연구 결과가 적은 편이며 그 중에서도 그의 사상에서 비마르크스주의적 요소의 영향에 대해 지적하는 연구 또한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마오쩌둥의 주요한 혁명 전략으로 손꼽을 수 있는 대중노선이 정립되는 데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사상적 경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중노선은 문화적 지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이러한 문화적 지향을 형성해 내는 것이 바로 문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오의 대중에 대한 관점은 시종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차용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그 영향성에 대해 반대하고 무시하는 대상인 농민의 혁명적 자발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의 문화 사상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며 이는 문화 정책을 통해 실천적으로 구현되면서 농민민족혁명이라는 혁명 전략으로 정립된다.

이 글에서는 마오쩌둥이 중국혁명의 주체로 상정한 인민, 특히 농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는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인민과 중국혁명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마오가 생각한 인민의 성격과 작용에 대해 파악해 보고 인민을 동원하고자 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문화 정책을 통해 인민과 문화 간에 어떠한 상호 관계를 형성시키고자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毛澤東 문화 사상의 이론적 기원 : 人民主義

마오쩌둥 문화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오는 당시 중국 사회를 잠식하고 있던 구문화, 즉 구체제의 상류층 또는 제국주의 지배세력 및 그와 연결된 買辦에 종속된 문화가 아니라, 농민·노동자와 農工 출신의 병사들을 교육하고 또 그들에 의해 향유되는 문화를 구문화를 대체할 신문화이자 진정한 문화로서 제시하였다. 이처럼 마오의 문화 사상에서 드러나는 문화 주체와 내용에 있어서의 인민성 또는 대중성은 그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중국 공산혁명의 성격을 나타내어 주는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혁명의 주체로서 농민을 자각하고 농민을 통한 민족혁명으로써 공산혁명의 임무를 완수해 낸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통적 교의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중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독특한 성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마오가 시종일관 새롭게 건설하고자 한 신중국의 신문화에서 주도적 지위를 부여한 '인민' 즉 '농민'이 혁명을 이끌 주체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의 혁명 전략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자각했던 것은 언제부터일까? 마오가 '인민'에 대해 주목하고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5·4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볼 수 있다.

마오쩌둥은 제1사범학교를 졸업하고 '勤工儉學' 운동에 협조하기 위해 1918년 8월 19일 베이징에 도착하였다.[1] 베이징에서 마오는 楊昌濟의 소개로 당시 北京大學 교수이고 도서관 主任(관장)이었던 李大釗 밑에서 도서관 助理員으로 취직하였다. 그는 베이징대학에서 '哲學會'나 '新聞學研究會'에 입회하였고, 특히 '新聞學會'의 강사였던 邵飄萍으로부터 '新聞學' 관련 업무와 지식을 습득하였다. 또 그는 邵로부터 무정부주의에 관한 것을 배웠고 무정부주의가 제창하는 많은 제안에 찬동하게 되었다.[2] 마오쩌둥의 베이징 체류 시기는 그가 마르크스주의를 접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1949년 5·4 시기를 회고하며 "10월 혁명의 한발의 포성이 우리들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져다주었다. 10월 혁명은 전 세계와 중국의 선진 지식인을 도와 무산계급의 우주관을 이용하여 국가 운명을 관찰하는 도구로 삼게 하였고 자신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 볼 수 있게 하였다."[3]고 언급한 바 있었다. 5·4 운동 기간은 중국 사상계의 큰 전환점이었다.[4] 마오쩌둥은 "5·4 운동 기간이 중국의 정치적, 지적 생활에 있어서 '부르주아'의 지배와 '프롤레타리아'의 지도 사이의 분수령이었다."[5]고 말할 정도였다. 중국 사상계가 마르크스주의로의 전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은 마오가 베이징 도서관에서 일할 때 그 주임으로 있었던 리다자오의 사상적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의 성공은 리다자오를 깊이 고무시켰고 비록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였지만 그로 하여금 마르크스주의를 레닌주의의 형태로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0월 혁명 이후 리다자오는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그와 동시에 러시아혁명사를 다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그의 농민에 대한 인식과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사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러시아 人民主義 사상이었다.[6] 러시아 인민주의(Narodnikism)는 1870년대를 절정으로 하여 1860년대와 1880년대 사이에 주로 헤르첸(Alexander Ivanovich Gertsen)과 체르니셰프스키(Nikolay Gavrilovich Chernyshevsky)의 사상적 영도 하에 전개된 러시아 특유의 사회주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인민주의 사상은 19세기 중엽 러시아의 낙후된 사회제도의 산물로서 존재하고 있던 촌락 공동체 'mir'를 중심으로 한 평등하고 무정부주의적 이상사회 건설을 지향한 유토피아 사회주의 사상이었다. 인민주의자(Narodniki)들은 광대한 농민대중이 러시아의 '인민(narod)'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였고 그들 자신도 인민의 대변자요 정수임을 자처하였다. 또한 그들은 농민을 자발적인 사회주의 성향과 혁명적 잠재력을 지닌 혁명의 주요세력으로 간주하였고, 이들 농민대중이 유지하고 있던 농민공동체(mir)를 이상화하여 그것을 새로운 사회주의적 이상사회 건설의 기반으로 보았다. 따라서 헤르첸은 1856년부터 '인민에게(v'narod)'와 '토지와 자유'라는 구호를 내걸고 많은 젊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농촌으로 가서 농민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함께 일하며 봉사하도록 고취시켰다. 이 '인민에게로'라는 구호는 급진적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켜 1870년대는 대규모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7]

러시아 인민주의의 영향은 중국사회의 실제상황과 결합되어 독특한 특색을 지닌 관점을 형성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 농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역량을 자각시켜 사회의 주요세력으로 삼고자 한 리다자오의 인민주의적 민중관 즉 농민관에서 점차 드러났다. 즉 리다자오는 러시아 사회주의 특히 인민주의의 영향을 받아 그의 「民彝與政治」와 같은 글에서 드러난 자산계급 민주사상에서 보였던 막연한 '민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중국의 인민을 대표하는 '농민'으로 눈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마르크스주의적

1) 李銳, 『毛澤東的早期革命活動』, 湖南人民出版社, 1980, p.150.
2) 李銳, 위의 책, pp.173-176 ; 蕭三, 『毛澤東同志的青少年時代和初期革命活動』, 中國青年出版社, 1980, pp.186-187.
3) 毛澤東, 「論人民民主專政」, 『毛澤東選集(이하 選集으로 略함)』, 第4卷, 人民出版社(北京), 1969, p.1360.
4) 김종원, 「5·4 운동기의 毛澤東의 사상과 활동」, 『부대사학』14, 1990.6, pp.151-153.
5)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選集』, 第2卷, 河北人民出版社, 1968, pp.623-670.
6) 김형열, 「李大釗 民主思想의 發展過程 - 民衆觀의 變遷過程과 관련하여 -」, 『중국사연구』 34, 2005.2, pp.230-231.
7) E.H.카 저, 김현일 역, 『혁명이론과 혁명운동 - 유럽혁명운동의 이데올로기적 기원』, 풀빛, 1983, pp.51-62, pp.75-86 참조.

사회주의 사상을 거치면서 그는 이후 중국적 프롤레타리아와 사회주의혁명의 중국적 실현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민중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8)]

마오쩌둥은 리다자오 밑에서 베이징대 안에 개설되었던 '마르크스주의 연구회'에 참가하여 마르크스주의 학설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리다자오 밑에서 급속하게 마르크스주의의 방향으로 성장하였다. 마오는 1919년 4월 長沙로 돌아온 후 5·4 운동의 영향을 받아 학생의 정치활동을 촉진시키는 일을 맡았다. 학생들의 정치활동에 큰 영향을 준 것이 1919년 7월 마오쩌둥에 의해 창간된 『湘江評論』이었다. 마오는 창간선언에서 "'세계혁명'을 외치는 소리가 높아지고 '인류해방'의 운동이 맹렬히 전개되면서 우리들이 이전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문제, 곧바로는 취하지 않았던 방법, 대개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걱정했던 것이 지금에서는 모두 그 옛 모습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9)]고 전제한 다음,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밥을 먹는 문제가 가장 크다. 어떠한 힘이 가장 강한가? 민중이 연합한 힘이 가장 강하다."[10)]라고 대명제를 내걸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종교, 문학, 정치, 사회, 교육, 경제, 사상의 면에서 부단하게 개혁을 추진하여 왔는데 "각종의 개혁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强權으로부터의 자유'라는 표현밖에 없을 것이다. 강권에 대항하는 근본적인 주의는 '平民主義(민주주의)'이다. 종교의 강권, 문학의 강권, 정치의 강권, 사회의 강권, 교육의 강권, 경제의 강권, 사상의 강권, 국제의 강권은 이제 완전히 존재의 여지가 없다. 평민주의의 외침소리를 드높여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11)]고 주장하며 강권의 타도를 강조하였다. 이 『湘江評論』에 실은 마오의 「민중의 대연합(民衆的大聯合)」(제2호~제4호, 1919.7.21~8.4)은 그 발상이 5·4 운동 기간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다양한 계층 간의 단합이 운동의 방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한 원동력임을 인식한 데서 연유한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민중의 대연합이 왜 이 정도로 위력이 있는 것일까? 한 나라의 민중은 뭐니 뭐니 해도 한 나라의 귀족, 자본가 및 그 외의 강권자보다도 그 수가 많기 때문이다. 귀족, 자본가 및 그 외의 강권자는 수가 적기 때문에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지키고 다수자인 평민의 공공이익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첫 번째가 지식이며 두 번째가 금전, 세 번째가 무력이다. … 우리들이 목소리를 합쳐서 외치면 역사적인 압력을 타파할 수가 있다. 더 한층 성대하게 연합하여 우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과 맞닥뜨린다면 대오를 편성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큰 목소리를 외쳐보자. 우리들인 이미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12)]

이 글에 대해 스튜어트 슈람은 "그의 글은 '인민당원'이 지니고 있을 경향이라 불러도 좋은 사상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는 농민에 특별히 관심을 보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전체로서의 중국 인민이 중요한 역사적 실체일 뿐 아니라 강력한 진보적 세력인 것을 느낀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인민당원'이었고 그 후도 그러했다. 확실히 이러한 그의 사상은 1917년의 비교적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민족주의로부터 순수한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으로 인도한 가교로 볼 수 있다. 중국 인민의 혁명적 사명에 대한 그의 신념은 그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13)]고 평가하였다. 사실 리다자오로 하여금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적 상황에 적응시키도록 했던 인민주의적 형태의 신념은 마오의 행동과 사상 속에서는 다소 불분명한 형태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마오가 지적으로 성숙해지면서 그의 사상 및 행동 속에 나타나는 인민주의적 경향은 분명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단순한 농촌 중심 혁명운동의 결과적 산물만은 아니었다. 바로 「民衆的大聯合」 속에서 마오는 중국인민을 거대한 혁명잠재력을 보유한 단일의 통합된 정치적 실체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그는 중국인민이 거대한 내재적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하였고 중요한 정치적 행동으로서 '민중의 대연합'을 주장하였다. 비록 중국 인민들이 수천 년 동안 억압받았고 정치적으로 무기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역사적 후진성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막대한 정치적 이점으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축적되었던

8) 김형열, 앞의 글, pp.231-232.
9) 毛澤東, 「湘江評論創刊宣言」, 『毛澤東集』 第1卷(毛澤東文獻資料研究會 編), 蒼蒼社, 東京, 1983, p.53 ; 『청년 모택동』(다케우치 미노루 편저, 신현승 역), 논형, 2005, p.168.
10) 毛澤東, 『毛澤東集』 第1卷, p.53.
11) 毛澤東, 『毛澤東集』 第1卷, p.54.
12) 毛澤東, 「民衆的大聯合」, 『청년 모택동』, pp.180-183.
13) Stuart Schram, *Mao Tse-tung*(Penguin Books, 1966), 『毛澤東』(石川忠雄 등 역, 紀伊國屋書店, 1968), pp.35-36.

것이 곧 큰 세력으로 폭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대중의 자발성과 인민의 내재적 잠재력에 대한 마오의 인민주의적 신뢰를 발견할 수 있다.

마오의 인민주의적 경향은 1927년의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14] 속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마오는 농민을 혁명의 대중적 기반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공산당에 유보시켰던 혁명적 창조력과 정치적 판단기준의 원천으로 간주하였다. 마오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산당이 농민의 혁명잠재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공산당의 혁명역량을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이 보고에서 마오는 농민들은 스스로의 자발성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외부적 침략과 조직상의 제약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1927년에 마오는 자발적 농민운동이 매우 거대한 혁명세력이라고 확신하였다. 1920년대 중반에 마오는 농민들의 자발적 혁명 활동 속에서 실제로 '민중의 대연합'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대연합은 마오가 1919년 혁명가로서 첫발을 내딛었을 때 이미 예견했던 것이었다. 벤자민 슈워츠는 마오의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서의 마오쩌둥 뿐 아니라 러시아의 인민주의자(Narodniki)에 의해서도 쓰였을 법한 글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의 어느 곳에서도 모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문헌 속에 나타나고 있는 농민의 독자적 혁명역할에 대한 비난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15] 1927년에 매우 명백하게 발현되었던 이와 같은 인민주의적 경향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 하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16]

Ⅲ. 延安 시기 毛澤東의 문화관과 문화 정책

마오쩌둥의 사상과 혁명 전략에서 보이는 인민주의적 경향이 실제로 러시아 인민주의 사상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결과인지 아니면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가 베이징대학의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당시 도서관 주임이었던 리다자오의 학문적 지도아래 마르크스주의를 접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의 베이징 체류기간이 8개월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사상적 감화 또는 사상적 개조 수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리다자오가 인민주의적 관점을 분명히 드러내었던 「青年與農村」(1919.2)과 「'少年中國'的'少年運動'」(1919.9)이 쓰였던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마오쩌둥 역시 '민중'의 힘에 대한 자각을 보여준 「湘江評論創刊宣言」(1919.7), 「民衆的大聯合」(1919.7-8)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양자 간의 일정한 관련성을 추론해 볼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어서 마오가 '농민'의 자발적 혁명역량을 자각하게 되었음을 보여준 1927년의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는 좀 더 분명하게 그의 인민주의적 사상 경향을 드러내어 준다. 그리고 이러한 마오의 '민중'에 대한 자각은 옌안 시기 옌안 코뮌을 실험적으로 이끌면서 내세웠던 많은 혁명 전술과 지도방침, 중국 공산주의 혁명운동의 역사적 시대구분, 문화운동과 문화정책 속에서 중심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제 마오 혁명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대중노선은 곧 대중을 사상적으로 지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문화운동과 문화정책 속에서 실질적으로 문화 사상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민중을 위한 문화를 창도하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옌안 시기 마오쩌둥의 문화관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新民主主義論」이다. 마오는 抗日民族統一戰線, 人民共和國, 人民民主主義, 民主共和國에 관해서 1935년 말부터 단편적으로 발표한 글들을 정리해서 일관된 이론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1940년 1월 「新民主主義論」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마오는 당시 중국 공산주의 혁명운동의 발전단계와 더불어 앞으로의 혁명 전략에 대해 밝히면서 신민주주의 시기의 혁명을 통해 건립하고자 하는 신문화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선언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마오쩌둥은 중국 혁명의 목적이 중화민족이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으며, 이 새로운 사회와 국가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경제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14) 毛澤東,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 『選集』 第1卷, 人民出版社(北京), 1969, pp.12-44.
15) Benjamin A. Schwartz,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Cambridge, Harvard press, 1952, p.76 ; 벤자민 슈워츠 저, 권영빈 역, 『중국공산주의운동사』, 형성사, 1983, pp.100-105.
16) 모리스 메이스너 저, 김광린 외 역, 『毛澤東思想과 마르크스주의』, 소나무, 1988, pp.140-142]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낡은 중국을 청소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하는데 중국은 3천년 이상 된 봉건사회로 그 문화는 봉건문화였으며 다시 근대 이래 반식민지적 반봉건적 성격을 띠면서 문화 또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게 되었으니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혁명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우리 공산당인은 여러 해 동안 중국의 정치혁명과 경제혁명을 위해 투쟁해 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혁명을 위해서도 투쟁해 왔다. … 우리는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며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중국을 정치적으로 자유로우며 경제적으로 번영한 중국으로 전환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낡은 문화의 지배로 인하여 우매하고 낙후된 중국을 신문화에 의한 지배를 통하여 문명화되고 선진적인 중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 중화민족의 신문화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문화영역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이다.[17]

그가 건설하고자 한 신민주주의 문화 즉 신문화의 핵심은 바로 무산계급 지도자가 인민대중을 위해 반제·반봉건적인 문화를 제창하고, 문화운동을 통해 지배계층과 지식인들의 문화가 아닌 인민대중이 쉽게 향유하는 민중문화를 창도하고 전개하는 것이었으니 여기서 보여준 신문화 건설 정책은 이는 이후 중국 공산당의 문화정책의 기본적 이론체계의 토대라 할 수 있었다. 그는 구문화와 신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신문화의 건설이야 말로 낡은 것과의 투쟁을 통한 혁명 과정이라는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일정한 문화는 관념형태에 있어서 일정한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반영이다. … 신문화는 관념형태에 있어서 신정치 및 신경제를 반영한 것이며 신정치, 신경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 새로운 정치 역량, 새로운 경제 역량, 새로운 문화 역량은 다 중국의 혁명 역량이며, 그것들은 낡은 정치, 낡은 경제, 낡은 문화를 반대한다. … 중국사회에 있어서 새 것과 낡은 것들 간의 투쟁은 곧 인민대중(여러 혁명 계급)의 새로운 세력과 제국주의 봉건계급의 낡은 세력과의 투쟁이다. 이러한 새 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이 곧 혁명과 반혁명과의 투쟁이다.[18]

마오는 신민주주의 시기 문화 혁명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서술하며 앞으로의 문화 정책은 바로 이러한 신문화 운동의 기본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중국을 지배해 온 낡은 문화는 모두 제국주의와 봉건계급에 봉사하는 제국주의문화 및 봉건주의문화였다. 전자는 민족적 자주성이 없는 노예화사상으로 나타나고, 후자는 공자를 숭상하고 사서오경을 암송하고 낡은 윤리, 낡은 사상을 정당화하는 데 나타났다. 이 낡은 문화에 대항해 온 신문화 운동은 5·4 운동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대두하였으니 신민주주의 문화는 바로 반제·반봉건적 문화이며 이는 인민대중을 반제·반봉건 투쟁으로 이끄는 혁명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 '5.4' 이전에 있어서 중국의 신문화는 구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문화이며 세계자산계급의 자본주의적 문화혁명의 일부분이었다. '5.4' 이후에 있어서의 중국의 신문화는 신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문화이며 세계무산계급의 사회주의 문화혁명의 일부분이다. '5.4' 이전에 있어서 중국의 신문화운동과 중국의 문화혁명은 자산계급이 영도한 것으로 그들은 아직 영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5.4' 이후 이 계급의 문화사상은 그들의 정치상의 그것보다도 더 낙후하여 영도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 신민주주의 문화라는 것은 인민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문화이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항일통일전선의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오직 무산계급의 문화사상, 즉 공산주의사상이 영도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어떠한 계급의 문화사상도 그것을 영도할 수 없다. 신민주주의 문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산계급이 영도하는 인민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문화이다.[19]

마오쩌둥이 정립한 문화관 즉 신민주주의 문화의 정의, 대상, 역할, 의의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발전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그가 1942년 옌안의 문화 종사자들과의 좌담회에서 한 연설인 「옌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였다. 마오쩌둥은 "문예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라는 명제를 「옌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 현실주의라는 엄격한 문

17)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選集』 第2卷, p.624.
18) 毛澤東, 위의 글, 『選集』 第2卷, pp.655-656.
19) 毛澤東, 위의 글, 『選集』 第2卷, pp.657-659.

예원칙에 따를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하였다. 이 「강화」는 문예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문예는 어떻게 인민대중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가, 문예계 통일전선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문예비평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풍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공산당 혁명노선을 전제로 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현실주의라는 문학 활동의 틀이 형성되었고 문학과 정치가 완벽한 결합을 이루어 일반적인 문예규범으로 정립되었다. 즉 사회주의 현실주의에서 가장 전면에 부각되어 있으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규범적인 원칙이 되었다.[20]

마오는 「옌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에서 "문예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한다.(文艺为人民服务, 为社会主义服务)"는 "二爲" 방침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찍이 1934년 1월 마오쩌둥은 이미 "二爲"의 기본방향을 형성하였다. 그는 광대한 중국민중이 모두 향유하는 소비에트 문화를 창조하여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공농의 소비에트문화 건설의 복무 목표는 반드시 "혁명전쟁과 계급투쟁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21] 비록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전 마오는 "二爲" 문제를 하나로 연결하여 표현하지 않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 복무한다."는 표현방식을 사용할 수도 없었지만 그는 문화란 마땅히 절대 다수의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며 인민의 해방투쟁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그는 문화 투쟁과 혁명 투쟁과의 관계에 있어서

> 우리는 중국 인민해방투쟁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문무 양 전선 즉 문화전선과 군사전선이 있습니다. 적을 패퇴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무장한 군대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군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편을 단결시키고 적을 물리치는 데 필요불가결한 일단의 군대, 즉 문화적 군대를 가져야만 합니다.[22]

라고 주장하였고 또 문화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문화예술이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 입니다. 이 문제는 본래 마르크스주의자 특히 레닌에 의해서 일찍이 해결되었습니다. 1905년에 이미 레닌은 우리의 문예는 "수천만 노동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23]

동시에 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의 관계에 대한 마오의 이론에 따르면 혁명문화는 인민대중이 신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한 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기 위해 복무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마오는 실제로 "문예는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것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실체로 파악했다.[24]

또한 마오쩌둥은 '인민대중이란 무엇인가'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 인민대중이란 무엇인가? 가장 광대한 인민은 전체 인구의 100분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병사와 도시의 소자산계급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문예는 첫째가 노동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니 이것은 혁명을 영도하는 계급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농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 그들은 혁명에서 가장 광대하고 가장 굳건한 동맹군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무장한 노동자 농민 즉 팔로군, 신사군과 기타 인민무장군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 이것은 혁명전재의 주력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도시소자산계급 노동군중과 지식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니 그들도 혁명의 동맹자이며 그들은 장기간 우리와 합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중화민족의 최대 부분이고 가장 광대한 인민대중이다.[25]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5월 2일에 진행하였던 문제의 제기에서는 사람을 적과 동맹자, 자기편의 세

20) 이태형, 「중국 문화정책의 통시적 고찰」, 『문화교류연구』 5, 2016.12, p.86
21) 毛澤東, 「中華蘇維埃共和國中央執行委員會與人民委員會對第二次全國蘇維埃代表大會的報告」, 『江西社會科學』, 1981.12.
22) 毛澤東, 『選集』 第3卷, 人民出版社(北京), 1971, p.804.
23) 毛澤東, 『選集』 第3卷, p.811.
24) 何歡, 「毛澤東文化政策思想研究」, 河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5, pp.7-8
25) 毛澤東, 『選集』 第3卷, p.812.

종류로 분류하고 문예공작의 대상을 자기편인 노동자·농민·병사와 각종 간부로 제한시켰으나 5월 23일의 강화에서는 '도시 소자산계급'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도시 소자산계급의 지식분자'를 '자기편'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이들 도시 소자산계급 지식분자들이 자기편인 노동자·농민·병사들과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도시 소자산계급 지식분자인 문예가들을 질책하는 것이 이 '문예좌담회'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 비록 '도시 소자산계급'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은 형식상일 뿐이고 문예의 대상은 바로 '노동자·농민·병사'라 할 수 있었다.[26]

그리고 그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소자산계급 지식인들로 하여금 인민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제공하는 문예의 원천을 통해 인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해 내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노동자화·농민화·병사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대중노선을 통해 중국 공산혁명을 완수하고자 한 마오쩌둥의 인민주의적 사상과 방침이 문화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그는 옌안의 문화예술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중국의 혁명적 문학가와 예술가, 발전성이 있는 문학가와 예술가는 반드시 군중 속에 들어가야 하고, 반드시 장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전심전력으로 노동자·농민·병사의 군중 속에 들어가야 하고, 불같이 뜨거운 투쟁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유일하고 가장 광대하며 가장 풍부한 원천 속으로 들어가 모든 사람, 모든 계급, 모든 군중, 모든 생동하는 생활 형식과 투쟁 형식, 모든 문학과 예술의 원시 재료를 관찰하고 체험하고 연구하고 분석한 후에야 창작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27]

이처럼 옌안 시기 마오쩌둥이 정립하고 발전한 문화관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그가 의미한 인민 또는 군중은 곧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농민과 노동자 및 병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문화 정책의 내용은 곧 농민과 노동자 및 병사를 위한 문화의 건설, 즉 문예 대중화였다. 마오는 중국의 혁명이 실질적으로 농민 혁명이며, 신민주주의 정치는 실제 농민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신민주주의는 바로 농민혁명주의였고 대중문화는 곧 농민문화를 제창하는 것이었다. 「옌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에서 마오는 문예의 대상을 노동자·농민·병사를 주체로 하는 인민대중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마오의 혁명 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신민주주의 혁명의 주체는 농민으로 문화의 중심을 농민에게 돌림으로써 농민을 통한 중국혁명이라는 다소 이단적이지만 매우 전략적인 혁명방침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마오는 중국혁명이 인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깊이 인식하였다. 문예가 인민 군중을 위해 복무해야 하며 문예의 대중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마오의 주장은 노동 일상에 지친 대중으로 하여금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주체가 되게 하는 인민혁명에 대한 문화 전선의 포현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沈文慧은 "농민에게 문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마오쩌둥 문예 사상의 논리 기초이자 기본 요구이다."[28]라고 언급하였다. 즉 마오쩌둥 문화 사상과 문화 정책의 핵심에는 바로 광대한 농민 대중을 일깨우고 동원하여 새로운 정치·경제·문화 속에서 주도적 지위를 갖도록 하려는 실천적 의미의 인민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맺음말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 중국에 전파된 러시아 인민주의 사상은 중국사회의 실제상황과 결합되어 독특한 특색을 지닌 관점을 형성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 농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역량을 자각시켜 사회의 주요세력으로 삼고자 한 리다자오의 인민주의적 민중관 즉 농민관에서 점차 드러났다. 마오쩌둥은 1918년 베이징으로 상경하여 리다자오 밑에서 베이징대 안에 개설되었던 '마르크스주의 연구회'에 참가하여 마르크스주의 학설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리다자오 밑에서 급속하게 마르크스주의의 방향으로 성장하

26) 김시준, 「'延安文藝座談會에서의 講話'에 대하여」, 『中語中文學』 제10집, 1988.10, pp.207-208.
27) 毛澤東, 『選集』 第3卷, pp.817-818.
28) 沈文慧, 「賦與農民文化權利 : 毛澤東文藝思想的基本訴求」, 『毛澤東思想研究』, 2010.5, p.27.

였고 리다자오가 수용한 러시아 인민주의 사상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게 되었다. 이는 리다자오가 인민주의적 관점을 분명히 드러내었던 글들이 쓰였던 것과 거의 같은 시기인 1919년에 마오쩌둥 역시 '민중'의 힘에 대한 자각을 보여준 「湘江評論創刊宣言」, 「民衆的大聯合」을 발표하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양자 간의 일정한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사실 리다자오로 하여금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적 상황에 적응시키도록 했던 인민주의적 형태의 신념은 마오의 행동과 사상 속에서는 다소 불분명한 형태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마오가 지적으로 성숙해지면서 그의 사상 및 행동 속에 나타나는 인민주의적 경향은 분명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단순한 농촌 중심 혁명운동의 결과적 산물만은 아니었다. 바로 「民衆的大聯合」 속에서 마오는 중국인민을 거대한 혁명잠재력을 보유한 단일의 통합된 정치적 실체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그는 중국인민이 거대한 내재적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하였고 중요한 정치적 행동으로서 '민중의 대연합'을 주장하였다. 또한 1927년에 발표한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에서는 농민을 자발적 혁명역량을 지닌 혁명주체로서 상정하였다. 마오쩌둥이 보여준 이러한 인민주의적 경향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 하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마오쩌둥 문화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성에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마오는 당시 중국 사회를 잠식하고 있던 구문화, 즉 구체제의 상류층 또는 제국주의 지배세력 및 그와 연결된 買辦에 종속된 문화가 아니라, 농민·노동자와 農工 출신의 병사들을 교육하고 또 그들에 의해 향유되는 문화를 구문화를 대체할 신문화이자 진정한 문화로서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마오의 문화 사상에서 드러나는 문화 주체와 내용에 있어서의 인민성 또는 대중성은 그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중국 공산혁명의 성격을 나타내어 주는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혁명의 주체로서 농민을 자각하고 농민을 통한 민족혁명으로써 공산혁명의 임무를 완수해 낸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통적 교의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중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독특한 성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옌안 시기 마오쩌둥이 정립하고 발전한 문화관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그가 의미한 인민 또는 군중은 곧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농민과 노동자 및 병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문화 정책의 내용은 곧 농민과 노동자 및 병사를 위한 문화의 건설, 즉 문예 대중화였다. 마오는 중국의 혁명이 실질적으로 농민 혁명이며, 신민주주의 정치는 실제 농민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신민주주의는 바로 농민혁명주의였고 대중문화는 곧 농민문화를 제창하는 것이었다.

【중국문화 분과】 발표 ③

太极拳的动作特点与中国传统文化的关系

靳晔珅(釜庆大学)

【摘要】

结合武术中的精、气、神理论归纳出太极拳的三个主要动作特点；提出动作上的“弧”模型和“圆”模型；探讨太极拳的动作本身与中国传统文化中的儒家、道家之间的关系；提出一个他们之间的一个模式图。

【关键词】 太极拳　动作特点　传统文化

太极拳作为一种健身活动，早已在国内乃至世界范围内广泛开展。如此广泛的开展是与太极拳的动作特点和其所拥有的文化内涵分不开的。

如果把太极拳看成一个文化整体的话，它大致可以分为三个层次，即表层文化、中层文化和深层文化。表层文化包括太极拳的各种招式、拳架；中层文化包括太极拳的各种拳经、口诀、心法等；深层文化则包括太极拳所反映和折射出的中国传统文化、哲学思想等。前人对这三个层次都已分别做了不同程度的研究，但还有以下两方面需要进一步探讨：

⑴目前对太极拳的表层文化即太极拳的动作特点归纳的还不够系统，对其动作特点的提炼整理还未深入进行，需要进一步探讨。

⑵目前对太极拳的表层文化与深层文化的结合方面的研究还未深入进行。以往关于太极拳文化的研究基本上停留在中国传统文化与太极拳理论、拳经、口诀的结合层次上，对其表层文化，即动作层次涉及的还不多，需要进一步探讨。

1. 太极拳的动作特点

武术运动经历了长期的发展与演变，逐渐形成了以技击为内容的套路演练形式。随着社会的发展，套路的演练逐渐具有了超功利性，在演练中，人们越来越注重武术本身在精、气、神三方面的表现力。本文试图从太极拳中提炼出其在精、气、神三个方面的特点。

1．1　太极拳中的“精”

“精”即“精华”。也就是太极拳之所以成为太极拳的内在的本质的东西。太极拳的精华就在于它是一种身肢放长的弹性螺旋运动。

1．1．1　太极拳要求身肢放长，开垮屈膝

身体重心较低，上虚下实，突出下盘功夫，稳字当先，后发制人，显示腰围大腿的正三角阳性体型。这其实包含着“恋土归根”、闭塞与稳定的中国农业民族审美意识长期的沉淀。另外太极拳架“腿之弧”在“圆档”中形成

的两腿之拱与两脚足弓的自然之拱组成了人体的拱桥结构。太极拳利用这种结构，一方面使受力归聚脚掌传布大地以提高机体的承受力；另一方面又从足弓对受力归聚的超常压迫时的反抗——弹力，以及地面给予人体的支撑反作用力，向上传布全身，使整体洋溢出一股绷劲。这个特点就折射出我们民族性格中安土乐天的生活情趣。 周易称：“安土敦乎仁，固能爱。”〈礼记)称，“不能安土，不能乐天，不能成其身。’这一民族性格在太极拳中的表象就是沉稳，就是“其跟在脚”。

1．1．2 太极拳以“弧”存有的空间包含了对方的侵犯行为，使“含胸拔背”构成“身之弧”

弧不仅能吸填外界物体进入其空间，还能在吸收的同时呈现出反射和给予。这种反应在外界成束刺激作用于弧体时，又交合会聚于一点，形成了弧对刺激的反射焦点，反射焦点的位置随着弧体的开口变化而改变。当开口减小时反射焦点接近弧顶，焦点位置后退，而对外界物体产生一种引入的运动效果；而当开口增大反射焦点远离弧顶，焦点位置前进，而对外界物体产生一种排斥的运动效果。弧开口的不断改变，使人体与外界的交流以及对自身体内的激发，处在充满生机的蓬勃运动状态中，从而使人本身笼罩上天地人交融的氛围。以上所描述的这个模型是对太极拳一些动作特点的宏观概括。

这个“弧”模型的运动机理如图1所示。

1．1．3 从太极拳的动作特点中还可以抽象概括一个“圆”模型

我们放眼望去，宇宙中的天体以及生物界细胞的生命运动，无不是以其旋转来表现它们生命相对的连续性。直线运动是有时间间隔，断续不连，开放无合，有始有终；而旋转却是持续流畅，闭合封闭，无始无终；可见旋转运动是一种比较高级的运动形式。太极拳就采用了这种“圆”的运动，这个“圆”模型可以概括以下两点：

(1)“圆”运动改变了直线终端发力的局限性，将只能一个方向发力变为多方向全过程的出劲。发力不仅仅表现出其距离的随心所欲，更反映出它发力方向的随机应变，其距离的改变同时也是方向的变化。同时，太极拳以圆运动又改变了武术运动各个动作只能在成型定势瞬间发力的局限，汇同其“不同力”、“势绵绵”的特殊技术要求使动作的整个过程均在出劲。由于太极拳要求“运动走螺旋”，在身体进行各种“圆”运动时，真气也随之形成鼓荡之势，它使机体释放的内气形成螺旋，具有很强的打击力和穿透力。•

（2）“圆”模型具有阻尼式滚轮效应。太极拳动作循圆走弧产生离心力，而离心力伴随着弧行运动的向心追求而向外辐射，形成一种离力的层面，武术界一般称之为“浑元力、浑元气”。《太极拳论》中的“以轴贯轮”就是对自身向心做弧运动，而以离心运动效果作用于对方的这种现象的总结，即自身轴动而对方轮动。通过现代高科技实验也证明，这种阻尼式滚轮效应，可将对手“引进落空”，使进攻者感到推到滚动的轮子上一样，来不及撤回就已经掉入到太极滚轮之中。太极拳运动的腰部左右旋转和步法的虚实变化，似球体的转动和轮动。其腰的轴动形成了对方水平方向的离心轮动，其重心移动形成的滚动趋势又造成了对方垂直方向的轮动而能前牵或后仆对方。这个“圆”模型的运行机制如图2所示。

1．2 在“气”的方面，太极拳表现为在大脑支配下的意气运动

太极拳是用意练意的拳，也是行气练气的拳，气受意的指挥。外部形态和外气的活动是意气显于外的表现，代表着内在的意气。这种神气外显的中心环节，主要是将内在的意识贯穿于外部动作之中，并促使在动作中表现出注意力的专一、坚强和活泼无滞。太极拳要求用意不用力。太极拳随着动作的变化意守不同的穴位，让意识流不断顺经寻穴往返移动，达到生精、化气、从而化神的境界。

1．3 从“神”的角度来看，太极拳是一种整体协调具有节奏感的恒动运动

在太极拳中存在着许多具有辨证色彩的因素，例如：虚实、阴阳、刚柔、快慢等。太极拳的所有动作都必须分清虚实。动作能分清虚实的转换，就可耐久不疲，这是最经济的一种活动。太极拳同时也是一种刚柔相济的运动。太极拳的刚，太极拳的柔，不是无弹性的柔，而是“意气风发”外显以成刚，意静气敛以成柔。神气随之，神气隐显，则柔刚变换。使太极拳的动作快慢相间，演练起来如长江、大河的波浪一样，既滔滔不绝又匀称的起伏动作。这样太极拳就成为一种有节奏的运动。

太极拳要求腰脊带头、内外相合、节节贯穿，要使“行气如九曲珠，无微不到。”太极拳以腰脊为中心，使周身九个主要运动关节依次贯串起来，达到一动全动。同时太极拳还进一步要求在练全套架子时能够做到相连不断、滔滔不绝、一气呵成。这样太极拳就成为一种整体协调的恒动运动。

2. 太极拳的动作特点与中国传统文化的关系

太极拳同中国传统文化中的儒、道、佛、医、兵等都有着不同程度的联系，儒、道两家作为中国传统文化中的主流，其与太极拳动作特点的联系也最为广泛和深入，以下本文仅从这两方面进行论述。

2．1 太极拳的动作特点与儒家思想的关系

2．1．1 从太极拳的动作特点中“精”的方面来看．反映出儒家“知行合一”的思想

当代著名哲学家张岱年先生说：“中国哲学在本质上是知行合一的。思想学说与生活实践融成一片。”这体现到武术中则表现为无论在理沦上还是技术上都强调要切合实用。太极拳的“以柔克刚”、“听劲走化”实质上就是一种信息反馈调控技术的要求和表现。王宗岳<太极拳论)就十分明显地把敌情信息放在克敌制胜的关键地位上。本文所述的“弧”模型和“圆”模型归根到底就是一种全息的信息反馈系统。从“弧”的开合与“圆”的阻尼式滚轮效应，我们可以看出太极拳舍弃了简单力量对抗的观念，从信息调控技术方面去开发整体功能的新天地。它的调控目标是人体的力学平衡，太极拳采用“听劲走化”的原则，把敌手的力量信息、意图信息及敌我相互关系信息综合起来，以调动敌手的力量，破坏敌手意图和实现自身的愿望，就充分体现了“知行合一”的思想。

2．1．2 从太极拳动作特点中“气”的方面来看．反映出儒家“天人合一”的思想

“天人合一”是由西汉董仲舒提出来的，他认为“以类合之，天人一也。”(<阴阳义))，这即是一种“宇宙伦理模式”。天与人是相互感应的，天与人的最佳状态是相互和谐的，合而为一，即天人合一。中国文化是一种围绕着生命活动进行并且具有明显身体化倾向的文化。而太极拳作为一种理论色彩特别浓的拳种自然也把这种具有身体化倾向的文化吸收进来。太极拳是用意练意的拳，也是行气练气的拳，它要求“用意不用力”。太极拳理论家陈鑫讲：“打拳皆随天机动，太极原象皆自吾身流露”。现代医学通过做人体的经络低频波的测试，也多次证明：当人们在打太极拳时，经络周期节律减弱，波峰和波谷差距缩小，但振幅增高，即经络中气血活动性和不稳定性增高。此时太极拳是以意念引导动势，如行云流水一般处于一种无机状态，这使人与天有浑然相通之妙，使人在精神上处于一种空明的“无人之境”的心态，与大自然静静地进行心灵交流，达到“天人合一”的意境。

2．1．3 从太极拳动作特点中“神”的方面来看，其与儒家中庸文化有着紧密的联系

太极拳中要求“虚灵顶劲，尾间中正”正是中庸之道的直接反映。中国文化系统是“完善型’’的，它追求的

目标是反求诸己、自我完善，在这种文化背景下，中国武术形成向自己身体内部发掘潜力以保养生命的性质，并具有身心内外整体协调的特点。儒家尚调和、主平衡的中庸精神也是一种顺从自然常规节律的精神。这使得广大中国人在潜意识里就注意与自然节奏合拍，并形成了一种对自然节奏的敏锐感受。太极拳中的“快慢”、“屈伸”等节奏都是在这种精神的熏陶下自然形成的。太极拳通过整体协调的恒动，表现出沉稳凝重之势，外示安逸之神，内宜鼓荡之韵，加之动作刚柔相济、天合相寓、虚实互换、绵绵不断，无不给人以潇洒从容，心地坦然，神态自若，情景交融的意境之美。而这种美正体现出儒家的“乐感文化”。

2．2　太极拳的动作特点与道家思想的联系

太极拳本身就有“哲拳”之称，从它的动作特点中可以看出其反映了大量的道家文化。道家崇尚水，(道德经)中讲“上善如水。水善，利万物而有静，居众人之所恶，故几于道矣。”

前文所述“弧”模型就体现了以柔克刚的道家文化精神。老子说：“天下之至柔，驰骋天下之至坚。”太极拳的“弧”模型，在对抗中，以守为攻，以屈待伸，寻找机会，相时而动。当对方进攻时，开口变小，焦点回收，积聚力量，待对方旧力已过，新力未生之际，再突然发力，焦点外放，给对方以打击。

在“圆”模型中就更加体现了道家文化的存在。滚轮效应舍己从人把对手引进落空，体现了道家以静制动，崇下尚退的精神。太极拳中的“以柔克刚”、“以静制动”、“以慢制快”均和中国道家的思维方式有着一脉相承的关系。太极拳演练以缠丝为主，生化出各种大圆、小圆，循环不息。陈鑫太极拳论中讲：“圆是周身转，不但手足”。这种圆圈理论与<道德经)将“道”解释为“一”、“朴”是道理相同的。后来周敦颐根据前人理论做(太极图说)，从而形成太极拳中圆圈理论，并具体体现在“圆”模型之中。

总之，太极拳与中国传统文化有着极其深刻的联系，其中以与儒家和道家的思想联系最为广泛和深入。关于太极拳的动作特点及其与中国传统文化的关系。

太极拳精、气、神三方面的特点在外对太极拳进行了定位，在内则与主要由儒、道文化组成的文化内涵紧密联系，从而使大极拳在层次上更加连贯和充实。

【参考文献】

1. 于化行.太极拳全书（M）. 山西科学技术出版社. 2008
2. 杨荣国.简明中国哲学史（M）. 人民出版杜. . 1975
3. 张世英.天人之际. 人民出版社（M）. 1995
4. 耿希联等.中国传统文化与太极拳理论（J）. 大庆师范学院学报. 2003
5. 谭　亿.论太极拳运动的美学特征研究（J）. 当代体育科学. 2017
6. 韩玉冰.中国武术之太极拳的运动美学探究（J）. 魅力中国. 2016

【중국문화 분과】 발표 ④

中国魏晋南北朝诗歌中的海洋意象初探

晁亚若(東西大学)·金昌庆(釜庆大学)

【目 录】

1、研究背景
2、意象理论的嬗变
3、魏晋南北朝诗歌中的海洋意象概览
4、魏晋南北朝诗歌中海洋意象的文化内蕴
5、结语

1、研究背景

首先，意象是文艺学领域一个非常重要的概念，在中西方文学理论史上的论述可谓不胜枚举。但这一概念在中西方文学理论中的含义有些许差别，西方的image最初源于心理学，指“人类已被认知的经验在心灵上的再现或记忆的‘心灵现象’”，后来用于文学艺术领域，指创作者利用各种艺术媒介传达的心灵图画。由此可以看出，西方文学理论中的意象更加侧重于“象”。而它作为我国古典文学理论中的概念，是指文人在文学创作时，将主观情感与客观物象融合在一起，实现“象”的“意”化，所谓“立象以尽意”，将自己的“情”蕴含在“形”中，是“意”“象”并重的一种文学呈现方式。笔者更倾向于中国传统文艺理论中对意象的概括，并着力从中国文学理论的视角剖析古代诗歌中的海洋意象。

在我国古典文学作品中，梅兰竹菊、雨雪风霜等自然物“象”都通过文人的“意”化，成为富有审美性的意象，而海洋作为人类生活环境中重要的构成要素和社会实践对象，也早在先秦时期就已进入了文人审美意象构造的视野之中。海洋意象以海洋物象为载体，承载着文人学者的思想感情和价值观念，并在某种程度上起着传递与延续中国人共同情感的重要作用。

另外，从世界海洋发展史上看，世界沿海各国已普遍将21世纪看作“海洋世纪”，各国对海洋资源、经济和权益的竞争日趋激烈，“海洋圈地运动”在国际上导致纷争四起，社会问题不断涌现。中国也不得不被卷入这一竞争的浪潮之中。这无疑是西方崇尚霸权、主张占有和竞争的文化传统主导世界的结果。而中国作为一个海洋大国，其自身的海洋文化传统与西方是不同的。面对海洋世界发展的不平衡、不和谐，中国需要根植于自己的文化传统，找到一条和平的、和谐的和可持续的海洋发展道路，也为世界其他国家的发展提供有益的启示和参考。鉴于此，中国古代文学作品中关于海洋意象的描写及其背后所显现出的传统智慧将无疑对中国和世界海洋文化的发展具有重要的参考与借鉴价值。

2、意象理论的嬗变

1）意象概念的多重解读

近年来，心理学、文艺学、美学领域的诸多学者都对文学意象做了不同层面不同角度的研究，但正如英国学者

所说，意象是一个“灵活得令人困惑的词语”，“任何感人的语言、暗喻、象征，任何形象都可以被称为意象。”[1] 美国艾布拉姆斯也认为意象是文学批评中“最常见、也是最含糊的术语”。即使单就文学审美意象而言，学术界仍尚存几种不同的看法。

首先是将意象等同于符号的符号美学理论。美国的著名符号美学家苏珊·朗格（Susanne·K·Langer）曾说，“艺术品作为一个整体来说，就是情感的意象。对于这种意象我们可以称之为艺术符号”，他们是“浸透着情感的表象”[2]。中国学者黄玉顺也认为“诗的意象是作为意志情感的符号存在的”[3]。这种观点虽然也认为形式化的情感与形式是合二为一的，但他们强调意象是表现情感的形式，也就把意象与我们平时所说的艺术形象相混淆了。

同时，学术界也存在一种影响更大的注重刻画思想与事物细节的意象主义意象观。英美意象主义诗派的代表人物庞德（EzraPound）提出诗歌中的意象就是“在瞬间呈现的理智与情感的复合物”,他强调意象中的“意”是指“各种根本不同观念的联合”“象”则是个别事物的明晰的细节。他认为诗歌中意象的描写要反映客观事物细节上的真实、准确和明晰。这与一些中国学者主张的“意象就是物象”的看法类似，也是重模仿，重事物真实再现的西方古典美学理论的“现代遗留”。

还有一种观点在中国现代美学理论中占主流，即主张意象是主观情感与客观物象的融合，是主体与客体的统一。这一观点也是在继承中国民族传统和借鉴西方文艺理论基础上作出的现当代阐释。如袁行霈认为，“意象是融入了主观情意的客观物象，或者是借助客观物象表现出来的主观情意。”[4]朱光潜曾说“每个诗的境界都必有‘情趣’和‘意象’两个要素。‘情趣’简称‘情’，‘意象’即是‘景’。”[5]笔者也倾向于这一观点,意象既非单纯的符号和物象，也非诗人的幻想，而是蕴含诗人丰富感情的载体。本文对海洋意象的分析就是基于集主观性与客观性为一体的意象理论。

2）汉代及以前中国意象理论的萌芽

中国古典意象理论源远流长，经过了几千年的发展历程。从上古神话始至秦朝可以说是意象理论的萌芽时期，这一时期尚未从理论角度提出审美意象理论，但《老子》、《庄子》、《周易》等经典中均有论及“意”“象”概念。

远古先民最初对于象的认识集中于物象层面，而最初由模拟物象而产生的艺术可以说可以说是文字和图画了，许慎在《说文解字》中说：“仓颉之初作书，盖依类象形，固谓之文。文者，物象之本。”象形文字对物象的摹拟是一种直接描写，这种写实的方法类似于文学文体的一种——汉赋。表意文字从本质上来看也是模拟物象的，但不是写实的方法而是运用比喻和象征。同样，《周易》中的八卦也是运用比喻、象征的方法来模拟物象的，只是《周易》中的易象和文字对物象的模拟不同，他对天地自然的模拟更为抽象，其背后也蕴含着更丰富的内在意义。《周易·系辞》中“仰则观象于天，俯则观法于地”“近取诸身，远取诸物，于是始作八卦，以通神明之德，以类万物之情。”[6]就揭示出,易象对物的模拟不仅在于表象,而且更包含着事物的本质,“德”与“情”。《周易·系辞》中还有“子曰:‘圣人立象以尽意，设卦以尽情伪’”之说，这是“意”“象”第一次共现在同一文段中，但此处的“象”显然是既实在又具有象征意义的卦象,而“意”则是宗教巫术中具有神秘主义色彩的预示义。从思维方式上看，易象虽比模拟事物表象的文字进步许多，可它自身并不具有可感性和审美性，不能引起人类情感上的共鸣，因此不能将其等同于审美意象，而只能看作审美意识和意象理论的萌芽。

其后，老子与庄子进一步在美学与哲学领域中引入了“象”的概念。《老子》中有“大音希声，大象无形”之说，意思是人可以通过对无形之“象”的想象和感悟来把握道，这里的“象”不是单纯的物象，而是与道相关的依存于现实又超越于具象之上的心灵意象。除此之外,老庄还提出了“言意之辨”的论题。老子的“知者不言,言者不

1)Roger Fowler(1987), A dictionary of modern critical term, Psychology Press. pp.92.
2) 苏珊·朗格(1983),『艺术问题』,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pp.129.
3) 黄玉顺(1993),「易经古歌的发现和开掘」,文学遗产,（5권-1）
4) 袁行霈(1996),『中国诗歌艺术研究』, 北京大学出版社. pp.189.
5) 朱光潜(1980),『诗论』, 湖南人民出版社. pp.189.
6)『周易·系辞』,

知”,庄子的“筌者所以在鱼，得鱼而忘筌；蹄者所以在兔，得兔而忘蹄；言者所以在意,得意而忘言。”这种无言之美其实是人们超越于物质之上产生的精神上的美感，是客体的物与主体的情感相交融的审美过程。这些言论都与审美层面的意象理论相通，对于后来审美意象理论的产生具有很大的启发意义。

进入汉代以后，儒学得到了极大的发展，文艺理论也进一步深入。西汉王充第一次将“意”“象”联系起来作为一个艺术审美概念提出，他在《论衡·乱龙》中说：“天子射熊，诸侯射麋，卿大夫射虎豹，士射鹿豕，示服猛也。名布为侯,示射无道诸侯也。夫画布为熊麋之象，名布为侯，礼贵意象，示义取名也”[7]。 此处的“意象”虽然是就绘画中的具体形象而言，但已经将“意象”这个词运用于艺术审美之中。此处的“象”也不是人们根据自然抽象出的卦象或者心灵之上虚无缥缈的想象，而是艺术中客观存在的“象”了。

3）魏晋南北朝及其后意象理论的发展

到了魏晋时期，随着玄学和佛学的兴起，汉代经学的独尊地位被打破，学术思想得到解放，人们对艺术和审美的追求也趋于摆脱功利主义，更加注重个人的感受。此时，文学也“从广义的学术中分化出来，成为独立的一个门类”[8]，文学体裁也有了比较细致的划分，人们也开始自觉地追求文学的审美特性。这一点凸显在文学理论上，就是南朝刘勰在《文心雕龙·神思篇》提出的意象概念：“是以陶钧文思，贵在虚静，疏淪五藏，澡雪精神，积学以储宝，酌理以富才，研阅以穷照，驯致以怿辞，然后使玄解之宰,寻声律而定墨；独照之匠，窥意象而运斤。此盖驭文之首术，谋篇之大端。”[9]其中“寻声律而定墨”是指创作的感知和表象阶段，主要强调对艺术表现中的物质形式规律的把握，“窥意象而运斤”则是说，以对艺术表现形式的感知和把握为基础，通过心灵的酝酿形成意象的过程。因此，刘勰在此处所说的“意象”就是“处于构思过程中的艺术形象，即作家意想中的形象”[10]。此外，刘勰在《神思》篇中还进一步说明了意象的构成：“神用象通，情变所孕”，“神”也就是“意”，就是“情”，意象就是由主观的思想、情感、意愿和客观的物象共同构成的，是主体和客体的有机统一。因这一概念比较确切地反映了艺术形象的特征，所以受到了很多文艺批评家的重视，如逐渐成为运用广泛的一个文学理论概念。

后世诸多学者也提出过类似的理论和观点，如唐代的司空图在《诗品·缜密》中说“意象欲生，造化已奇”，王昌龄也在《诗格》中提到：“久用精思，未契意象，力疲智竭，放安神思，心偶照境，率然而生”。他们都将“意象”运用到诗歌艺术构思中直到明清时期文学家也依旧使用“意象”论诗，如胡应麟“故事之妙，专求意象”，陆时雍“风格浑成，意象独出”，“转意象于虚圆之中”等都是诗评中的经典论述。清代王夫之更是建立了一个以诗歌审美意象为中心的美学体系，以“情”“景”关系为中心对诗歌意象的本质进行了深入的分析。提出“情不虚情，情皆可景，景不虚景,景总含情”以及“景以情合，情以景生”的理论，认为诗歌意象的意蕴具有多义性，同一个意象在不同读者眼中有不同的解读，审美意象是外在景物与内在情感的完美结合。

中国的古典审美意象论，从先秦的萌芽，到魏晋的形成，再到唐宋的发展，明清的成熟，逐步形成了有别于西方符号式意象论的独特审美理论。中国古典诗歌中的意象丰富，类型多样，都强调主观情绪与客观物象的统一，展现“物我浑融”的境界。诗人通过意象的选择和运用，赋予物象以丰富的内涵，一方面充分表达自己的思想感情，一方面也给予读者想象的空间，令读者回味无穷。下面，我们就以这种意象理论为基础，对中国魏晋南北朝诗歌的海洋意象进行审美透视。

4）海洋意象界说

那么，海洋意象具体是指什么呢？在中国古代，“海”和“洋”是两个独立的概念且两者都为多义词。“海”在《说文解字》中意为“天池也,以纳百川者。从水，每声。呼改切。”,也就是百川汇聚之处；另有《广雅·释名》中“海，晦也。主承秽浊水，黑如晦也。”的说法，这是因为古代中国科学尚不发达，人们主要生活在中原地

7) 郑尧臣 编,王充(1988),「论衡·乱龙」,『龙溪精舍丛书本』,中国书店, pp9.（5권）
8) 袁行霈(1999),『中国文学史』, 高等教育出版社. pp3.（2권）
9) 范文澜(1978),『文心雕龙注』, 人民文学出版社 pp.493.
10) 张少康(1983),『中国古代文学创作论』, 北京大学出版社. pp.65.

区，与海的接触十分有限，所以被看作是幽深晦暗的地方；段玉裁在《说文解字注》中还说：“凡地大物博者、皆得谓之海。”这一解释更为注重“海”之广阔、宏大。而“洋”的主要意义则有古代水名、海名、州名，水盛大的样子,高兴得意的样子等。由此可以看出，现代汉语中“海洋”一词的常用词义“几乎覆盖地球表面四分之三的咸水水域”与古代“海”字的字义关系更密切，但为了符合现代汉语的语法习惯,我们使用“海洋意象”一词。

上文我们大致论述了“意象”理论的发展过程，所谓诗歌“意象”就是诗人为抒情达意而创造出的富有主观意蕴的客观物象，它是创作主体的主观情意与客观物象的有机统一。[11]那么，诗歌中的“海洋意象”，我们可以界定为：诗人以与海洋相关的物象为载体，用来描写、抒情、言志、寓意的意象均为海洋意象。它是与海洋相关的物象和诗人主观精神的统一体。另外需要特别说明的是，本文的“海洋意象”不仅包括所有包含“海”字的意象，而且包括笔者在魏晋诗歌中所能考察到的与海洋生活、海洋社会有关的所有意象。

3、魏晋南北朝诗歌中的海洋意象概览

从文学理论发展的角度看，刘勰在《文心雕龙》中提出的意象理论具有跨时代的意义，可以说魏晋时期是中国古典意象理论形成的关键时期。在文学上，魏晋时期也被很多学者看作是文学开始自觉发展的时代，文学成为一门独立的学问，文章也成为“经国之大业，不朽之盛事”。在这种自觉的文学浪潮之中，魏晋时期涉及海洋的文学作品也大量涌现，据笔者的粗略统计，两汉时期经典文学作品中涉及“海”的词条有1438条，而魏晋时期经典文学作品中涉及“海”的描写有4328条，将近增加了两倍的数量。[12]在诗歌内容方面，魏晋时期的文学作品也进一步拓展，不仅包括海洋神话、海洋吟咏、海洋民俗，还包括民间传说、涉海活动、海洋资源等。具有代表性的海洋诗歌有：曹操的《步出夏门行·观沧海》，曹植的《远游篇》，谢朓的《和刘西曹望海》，谢灵运的《游赤石进帆海》，沈约的《临碣石》和刘峻的《登郁洲山望海》等[13]，文人学士们运用灵活多样的文学表现手法，从不同层面展现魏晋时期的海洋风貌，描写自己的心境和情怀。这些文学作品中的海洋意象也较前代更加丰富多样，含义也更深远。而在所有文学作品中，诗歌是意象最重要的载体之一，余光中曾说：“意象是构成诗的艺术之基本条件之一，我们似乎很难想象一首没有意象的诗,正如我们很难想象一首没有节奏的诗。”[14]事实上，诗歌创作的过程就是诗人选择特定客观事物作为意象、建构意象语言、从而使其主观情感生动形象地表达出来的过程。因此，我们从魏晋南北朝时期的文学作品中选取诗歌作为研究的基本范围，将这些诗歌中的海洋意象作为我们研究的中心问题。

1）魏晋南北朝诗歌中海洋意象的统计及结构类型

由于目前能够搜集到的纸质资料有限，因此，我们对海洋意象的统计主要利用具有

权威性和学术研究参考性的“国学智能电子书库”作为文献资料的主要来源。开发该电子书库的北京国学时代文化传播股份有限公司是中国唯一一家与著名高校合作的致力于传统文化传播的文化创意公司，2009年11月该公司获得了出版物发行企业资质，其出版的数据库也相继为中国一些大学和学术研究机构购入，作为研究性的基础数据库使用。虽然该书库中的资料也存在遗漏之处，但其可靠性和可信度足以作为我们研究的参考。

意象从结构上看，可以分为单一型意象和复合型意象。单一型海洋意象就是单纯由一种与海相关的事物构成的意象，如四海、沧海、海若等；复合型意象是指由与海有关的事物和其他事物共同构成的具有特定内涵的意象，如山海、江海等，有的也可以构成意象群，如在诗歌中常常共用以表现某种思想情感的“天与海”“月与海”“山与海”等。我们从该书库的《先秦汉魏晋南北朝诗》中，选取了魏晋南北朝时期的诗歌，经过筛选，剔除了些许无效字串。诸如“瀚海”“沙海”等表面与海有关，实则指代沙漠的意象；单纯的地名，如“昌海”等；以及看似是意

11) 黄展人、贾益民(1990),『文学理论』, 暨南大学出版社, pp.204.
12) http://www.guoxue.com/?page_id=2 北京国学时代文化传播股份有限公司，国学电子书库
13) 曲金良(2014),『中国海洋文化基础理论研究』, 海洋出版社, pp.320.
14) 余光中(1980),『掌上雨』, 台湾时报出版公司, pp.17.

象，实则是单纯的描述，与深层意义无关的意象，如“浮海”虽然有“乘桴浮于海，隐退”的含义，但在一些诗歌中只是指“浮在海面上”之意。因此，去掉这些“假性海洋意象”，我们共筛选出除意象群之外的海洋意象523个，并根据意象的基本含义将其分为七大类，即基本义泛指海的意象、基本义为海水及其存在形态的意象、基本义与海域有关的意象、基本义与海事生活有关的意象、基本义与海洋生物有关的意象、基本义与海洋景观有关的意象以及基本义与神话传说及宗教有关的意象。现分别将这七大类海洋意象列表整理如下：

<表1> 基本义泛指海的意象 [69个]

意象名	数量	基本含义
江海	32	江和海；隐退；泛指四方各地
沧海	20	大海；东海的别称；神话中的海岛名。
巨海	5	大海。
大海	3	大海。
河海	3	河与海；泛指天下
八海	1	四海四方之地。
瀛海	3	大海。
海渎	2	泛称江海。

<表2> 基本义指海水及存在形态的意象 [78个]

意象名	数量	基本含义
海水	11	海中或来自海中的水。
波	42	无波：不起波澜，比如时世安定。 惊波：惊险的巨浪。 扬波：掀起波浪，比喻动乱，情绪波动。
浪	19	沧浪：青苍色，青苍色的水，头发斑白。
横海	6	横行海上

<表3> 基本义与海域有关的意象 [150个]

意象名	数量	基本含义
四海	89	中国周边的四个海；全国各地；世界各地。
海外	15	四海之外，泛指边远之地。
海内	3	国境之内，全国。
寰海	2	海内，全国。
东海	17	海名；泛指东方的大海；东方滨海地区。
淮海	13	指以徐州为中心的淮河以北及海州一带。
北海	8	北方最远僻之地；指渤海；郡名。
南海	7	泛指南方的海；极南的地方；泛指东南亚地区；南海观音所在处。
桂海	1	古代指南方边远地区。
西海	6	传说中西方的神海；中原的西方；西方日落处；郡名；新疆博斯腾湖别称。
渤海	4	我国的内海，位于辽、冀、鲁、津之间。
青海	2	边缘荒凉之地；东方之海，也指海上仙山；碧绿的海洋。
鲲海	2	古代会稽之外海。
辽海	1	辽东，泛指辽河以东沿海地区；渤海辽东湾。

海西	2	罗马帝国；西域一带或位于我国西方的国家。
海滨	9	海边，近海之处。
海湄	4	
海畔	3	
海浦	2	
海澨	2	
海沂/沂海	4	
海曲	2	犹言"海隅"，沿海偏僻的地方，也包括沿海岛屿。
海隅/海嵎	2	海角；海边。常指僻远的地方。
海裔	2	海边，常形容边远之地。
海阴	4	古人常称下江（长江下游地区）为海，海阴可指江南广大地区。
海岱	1	海，渤海；岱，泰山；指今山东渤海至泰山之间的地区。

<表4> 基本义与海事生活有关的意象 [47个]

意象名	数量	基本含义
舟	31	船
帆 (去帆、归帆、晚帆、扬帆)	7	一只船帆；常代指船只。
渔 (渔舟、渔人、渔樵)	6	河与海；泛指天下
钓 (钓台、钓竿)	3	垂钓之处；钓竿又为古曲名。
河海	3	河与海；泛指天下
八海	1	四海四方之地。
瀛海	3	大海。
海渎	2	泛称江海。

<表5> 基本义与海洋生物有关的意象 [78个]

意象名	数量	基本含义
鱼	19	江和海；隐退；泛指四方各地
鳞	14	大海；东海的别称；神话中的海岛名。
鲙	5	大海。
鲸 石鲸	3	大海。
海树	3	又称石帆或黑珊瑚、碧珊瑚
凫 (惊凫、海凫)	10	一种海鸟。古代曾有海凫出、天下乱的传说。 现在俗称野鸭。
海鸟	2	在海岛上或海边生长、栖息的鸟类。
海鸥	2	鸟名
海鹤	1	一种海鸟，或说江鸥。
鸿 (归鸿、飞鸿)	18	鸿雁，大雁；飞鸿有时指音信或画有飞鸿的旗；
海陆	1	指山珍海味

<表6> 基本义与海洋景观有关的意象 [17个]

意象名	数量	基本含义

山海	9	山与海；喻指荒远偏僻之处；比喻高深、繁多或重大。
海岳	1	大海和高山；谓四海与五岳
海月	2	海上的月亮；海生动物名，亦称窗贝。
海气	3	海面上或江面上的雾气；海上蜃气。
海潮	1	海洋潮汐，指海水定时涨落的现象。
海运	1	海动，谓海动风起；指海洋潮汐现象。

<表7> 基本义与海洋神话传说或宗教有关的意象 [27个]

意象名	数量	基本含义
瀛洲	5	传说中的仙山；借指日本。
海若	5	传说中的海神。
穷溟	2	传说中的大海。
溟海（溟洲）	5	传说中的海名；大海；沙漠。
沧溟	2	大海；苍天，高远幽深的天空；
鹏	3	传说中的大鸟。
鹏鹍	1	比喻具有雄才大略的人。
苦海	2	佛教指尘世间的烦恼和苦难；比喻无穷的苦境。
法海	1	佛教语，比喻佛法深广如海。
浮海	1	乘桴海上，比喻隐退。

由于汉语词语具有丰富的含义，因此呈现在表格中的“基本含义”[15]我们只列举了与海洋有关的义项。但仅从列举出的义项来看，每一种意象在不同诗歌和语境中含义也存在一定差异。因此单从结构方面对海洋意象进行归类是远远不够的。而且，我们分析这一时期海洋意象的主要目的是探讨其审美内涵和价值，因此，我们有必要结合意象的表现功能再对其做更深入的探讨。

2）魏晋南北朝诗歌中海洋意象的功能类型

陈植锷先生曾根据诗歌意象表现功能的差异对诗歌意象进行过划分，即“以此一物拟指他一物”的比喻性意象，“以某一特定的物象暗示人生之某一事实”的象征性意象,还有无关乎比喻和象征，字面意义与所指合一的描述性意象。但在诗歌创作中，纯粹的描述性意象或比喻性、象征性意象几乎不存在，他们大多都是描写与比喻、象征融合在一起。因此确切地说，应是以描述性、比喻性或象征性为主的意象。我们也将魏晋诗歌中的海洋意象按照表现功能分成了这三类。[16]

描述性海洋意象大多以直观描写海洋景观为基础，根据不同的海洋风貌融入诗人不同的情感指向，从而绘出一幅幅情境迥异的审美图画。这类海洋意象在总体上占有一定的比例。而魏晋时期最具有开创意义的海洋诗歌便是曹操的《步出夏门行·观沧海》，在这首诗中，诗人写道：“东临碣石，以观沧海。水何澹澹，山岛竦峙。树木丛生，百草丰茂。秋风萧瑟，洪波涌起。日月之行，若出其中。星汉灿烂，若出其里。幸甚至哉,歌以言志。”诗人在北伐乌桓胜利后，回师途中登上碣石山，在高处观海，大海波涛汹涌、吞吐日月、包蕴万千，他通过“沧海”“山岛”“洪波”“日月”等意象既描绘大海的壮阔和气势的雄浑，又以景托志，借此景象抒发了自己“老骥伏枥，志在千里”的胸怀与抱负。

其后，曹植也在《远游篇》中描绘了想象中海上仙境的华美：“远游临四海，俯仰观洪波。大鱼若曲陵，承浪相经过。灵鳌戴方丈，神岳俨嵯峨。仙人翔其隅，李女戏其阿。……金石固易弊，日月同光华。齐年与天地，万乘

15) 1994,『汉语大词典』, 汉语大词典出版社. (释义均参考该词典)
16) 陈植锷(1990),『诗歌意象论』,中国社会科学出版社 pp. 140.

安足多！”诗人借助“四海”“洪波”“方丈”“神岳”等海洋意象建构了一个美好的海上仙境，表达出自己的歆羡之情。

谢眺在《和刘西曹望海台诗》中则着重描绘了大海的动荡不安，不可捉摸：“沧波不可望，望极与天平。往往孤山映，处处春云生。差池远雁没，飒沓群凫惊。嚣尘及簿领。弃舍出重城。临川徒可羡,结网庶时营。”诗人通过“沧波”“孤山”“远雁”“群凫”等描述大海景象和生态的意象群，表达了自己忧惧官场风波，内心孤独苦闷，想要隐退江湖的愿望。

另外，谢灵运的《登池上楼诗》前半首中也写道：“潜虬媚幽姿，飞鸿响远音。薄霄愧云浮，栖川怍渊沈。进德智所拙，退耕力不任。徇禄及穷海。卧痾对空林。……倾耳聆波澜。举目眺岖嵚。池塘生春草。园柳变鸣禽。”诗人久病初愈，登楼远眺，目之所及，景物清新可爱，官场的现实却并不如意，“以乐景写悲”往往更显悲凉，全诗通过“潜虬”“飞鸿”“波澜”“岖嵚”“春草”等意象表达了时任永嘉太守的诗人颓然失意的心绪和坚守官场还是隐退遁世的矛盾心情。

除了上述列举的诗歌外，沈约的《临碣石》、刘峻的《登郁洲山望海》以及祖珽《望海》中也有涉及宏观海洋景象描写的诗句和意象，在此不一一赘述。总之，在这些诗歌中，创作者们都将海洋作为直接观察对象，以海洋意象为媒介抒发自己或昂扬、或超脱、或矛盾、或隐逸的不同情绪和愿望。

描述型海洋意象除了包括对海洋景观的描写，还有涉及海洋生活和生物的描写。

何逊则在《答丘长史诗》中写道：“黄花发岸草。赤叶翻高树。渔舟乍回归。沙禽时独赴。”诗人在此描述了渔船归家，水鸟却独自游向远方的景象，团聚和分离形成鲜明对比，更衬托出诗人内心的离愁。

诗歌《奉和六月壬年应令诗》中描写的部分“筑山图碣岫,穿池控海潮。雷奔石鲸动水阔牵牛遥。乘鼋犹怯渡,鞭石讵成桥。岸崩下生窟,壁峭上干霄。噪蛙常独沸,游鱼或自跳。荒径横临浦,空舟斜插桡。愁鸱集古树,白鹭隐青苗。神心重丘壑,散步怀渔樵。”“海潮”的惊涛骇浪让周围的生态起了变化,堤岸、壁峭、青蛙、游鱼、空舟、白鹭，从海边,海中到海上,所有的瞬间变化都在诗中淋漓尽致地表现出来。而海上潮汐虽“惊险”,却是“胸中有丘壑”的诗人所向往的一种生活。

通过上文所分析的描述性海洋意象，我们更能体会到意象本身的复杂性，他们不仅是为了呈现诗人心中的美景，更饱含着诗人的情感和抱负。而这一点在比喻性海洋意象和象征性海洋意象中体现得更为细微和生动。下一章节，我们就着手从这两类意象中观察一下魏晋诗歌的海洋意象中所蕴含的深层意义。

4、魏晋南北朝诗歌中海洋意象的文化内蕴

1）海洋与天下意识

说到天下意识，似乎与魏晋南北朝的关系不大，因“治国平天下”一直是中国儒家思想的精神传统。但东汉末年三国纷争，国家连年战乱，即使后来各地政权相继建立，汉族统治阶级内部的权力斗争也无休无止。但也正因如此，乱世中的英雄更层出不穷，他们建功立业的理想也更为强烈。而诗歌中天下意识、家国情怀最集中的便是建安文学时期，这一时期的文人继承和发扬了汉乐府“感于哀乐，缘事而发”的传统，反映社会现实，表达建功立业的雄心壮志，也形成了“建安风骨”的优良传统。[17]其余也散见于歌功颂德和帝王诗歌中。

而从上文的海洋意象统计表上，我们可以发现，在涉及“天下”“全国”此类含义的意象中,“四海”“江海”“沧海”和“海”运用的数量最多，涉及的诗歌也最丰富。

作为“建安文学”代表之一的曹操在其名篇《短歌行（其一）》中,运用诗歌的形式,抒情的方法，借助比喻，委婉而周到地表明了自己礼贤下士的姿态和一统天下的宏大愿景。诗人以自己苦于无人才而愁绪很重为始，担忧因人生苦短不能施展抱负，也借此提醒有才之士不要浪费匆匆而过的人生，应尽快“择枝而栖”，归顺自己。他告诉犹豫不决的有识之士，无需担忧“人满为患”，因为自己对贤士的迫切需求就比山还高，比海还深。最后四句“山

17）尤雅姿(1988),『魏晋士人之思想与文化研究』，文史哲出版社.

不厌高，海不厌深。周公吐哺,天下归心。”既运用了“山”“海”意象的原义，又暗喻自己如山海一般的胸怀。画龙点睛，明确了主题。特录全诗如下：

对酒当歌，人生几何！譬如朝露，去日苦多。慨当以慷，忧思难忘。何以解忧？唯有杜康。青青子衿，悠悠我心。但为君故，沉吟至今。呦呦鹿鸣，食野之苹。我有嘉宾,鼓瑟吹笙。明明如月，何时可掇？忧从中来，不可断绝。越陌度阡，枉用相存。契阔谈讌，心念旧恩。月明星稀，乌鹊南飞。绕树三匝，何枝可依？山不厌高，海不厌深。周公吐哺，天下归心。

西晋的张华创作的《壮士篇》也运用了包括“四海”“沧海”在内的意象组合，抒发了自己的壮志凌云。他年轻时仕途一直较为顺利，在西晋历任要职，这也给原本就博学多才的他增添了几分豪气。在《壮士篇》最后四句中，诗人的豪情壮志体现得尤为鲜明：“濯鳞沧海畔。驰骋大漠中。独步圣明世。四海称英雄。”“沧海”这里特指“东海”，“大漠”则是指“蒙古大沙漠”，因此“濯鳞沧海”和“驰骋大漠”是说壮士可以驰骋东西、横行天下，也就是在“四海”均可称英雄。这首诗充分表达了诗人想要建立不世之功，不朽于人间的壮志。

在一个政权相对稳定的时期，便自然出现了为发展国家礼乐而作的燕射歌辞，这类歌辞主要是在朝廷宴饮时配乐演唱，以歌颂君王功德和国家昌盛的。如《正旦大会行礼歌（十五章）》中就多运用了“四海”“宇宙”“日月”等意象，歌颂君王统摄天下，顺应天意，国泰民安：“圣皇君四海，顺人应天期。三叶合重光，泰始开洪基。明曜参日月，功化侔四时。宇宙清且泰。黎庶咸雍熙。……惟天降命,翼仁佑圣。……百揆时序。化若神圣。四海同风。兴至仁。济民育物。拟陶钧。”《晋宗亲会歌》《灵之祥》等歌辞中也有类似歌功颂德之词：“德教加四海。敦睦被无垠。”“万国安。四海宁。”

从魏晋这些诗歌中我们可以看到，即使在这样一个崇尚个体自由的时代，也仍然有许多为天下发展的忧心，为巩固国家昌盛的努力。中国魏晋时的文人也没有摆脱“为天地立心，为生民立命，为往圣继绝学，为万世开太平”的天下意识，只是这种倾向被更为显著的生命意识和个体觉醒遮盖了。

2）海洋与精神超越

在中国文学发展的长河中，比起魏晋诗歌中的天下意识，我们更为看重的也许是魏晋士人个体生命意识的觉醒和对自我的超越。他们从老庄哲学与玄学中获得了出走的勇气，他们逐渐偏离了两汉的经学人生，舍凝重而取潇洒，轻名教而贵自然，弃礼法而就性情。他们与儒家的求仕途争高下的道路渐行渐远，终背道而驰，卸下了重负，自由地徜徉于天地之间。

魏晋士人对自然物象的关照不仅在于外在的形式，而是更多地把他们作为情怀的寄托和精神家园，在与自然亲近的过程中获得审美享受，在忘情的游乐中获得超然的心境,在物我两忘的审美境界中领悟道的真谛。

嵇康，作为魏晋玄学的代表，“竹林七贤”之一，在玄言诗中也表现出自己深刻的人生体验和超越的生命意识。如在《四言赠兄秀才入军诗（十八）》中，他写道：

流俗难悟，逐物不还。至人远鉴，归之自然。万物为一，四海同宅。与彼共之，予何所惜。生若浮寄，暂见忽终。世故纷纭，弃之八戎。泽雉虽饥，不愿园林。安能服御,劳形苦心。身贵名贱，荣辱何在。贵得肆志，纵心无悔。

整首诗从“归之自然”“万物为一”“四海同宅”出发，告诉哥哥即使从军，实体空间距离上相隔甚远，但却共有世间万物，无需惋惜。后半部分更是强调身体、生命之贵重，不可委曲求全，只求“纵心无悔”，获得逍遥人生的自由和乐趣。

谢朓在《始之宣城郡诗》中也写道：“解剑北宫朝。息驾南川涘。宁希广平咏。聊慕华阴市。弃置宛洛游。多谢金门里。招招漾轻楫。行行趋岩趾。江海虽未从。山林於此始。”表达了自己想要辞官回归“山林”，“江海”此处是指隐居，隐居虽尚未开始，但当下就可以“招招漾轻楫”向着心中的自由生活出发。

陶渊明作为田园诗的代表诗人，在其诗歌中也始终贯穿着摆脱官场牢笼，在自然中回归本性，达到与自然合一

的精神境界之语。在他的组诗《饮酒》中也将海与生命超越联系起来：“在昔曾远游，直至东海隅。道路回且长，风波阻中途。此行谁使然，似为饥所驱。倾身营一饱。少许便有馀。恐此非名计。息驾归闲居。”这首诗与上文两首不同之处在于，诗人没有着笔描绘某一自然景观，而是直接用象征的手法表现自己弃官场而求性情的过程。这里的远游“东海隅”，道路中遭遇的“风波”象征着诗人在官场上的坎坷遭遇，身心俱疲后舍“名”而归隐。

魏晋士人这种质朴又深远的超越意趣进一步丰富了中国文学的审美文化和超越哲学,使自然与人在魏晋时期达到了空前的和谐，使人们找到了一条在自然本真中寻求自我精神家园的道路。

3）海洋与感物伤怀

魏晋南北朝是一个文学自觉的时代，这一点在理论和创作上都有所体现，这一时期的文学理论都具有极强的认知性，但文学创作却是感性的。 “晋人虽超，未能忘情，所谓‘情之所钟，正在吾辈’（王戎语）！是哀乐过人，不同流俗。”他们“向外发现了自然，向内发现了自己的深情。”[18]魏晋士人们逐渐形成了一定的审美习惯与心理定势,即以悲为美,以感伤为美。这种感伤之美反映在海洋意象上便是离别与海之永恒的对立,守候与海滨燕雀往来之对比。“海·月·云”与“海·山”这两组意象在表现“深情离别”主题中应用较为广泛。

〈1〉海·月·云

诗人吴均便常用“海”“月”与“云”意象，一同表现离别与思念之情。如《赠鲍舂陵别诗》：“落叶思纷纷，蝉声犹可闻。水中千丈月，山上万重云。海鸿来倏去，林花合复分。所忧别离意,白露下沾裙。”诗中的“落叶”“蝉声”“千丈月”“万重云”等意象，都象征着离别的愁绪，而“海鸿”的来去，“林花”的合分更象征着一年年过去，却不能相见的忧虑之情。虽然没有细致入微地详细描写，诗人却通过这种勾勒事物线条，直抒胸臆的方式写出了浓浓的离别之情。

另外，吴均在《送吕外兵诗》中也运用了类似的意象表达送别友人时的惜别之情。“白云浮海际，明月落河滨。送君长太息，徒使泪沾巾。”无论是“白云”“海”“明月”“河滨”等静态意象，还是“浮”“落”“太息”等动态描写，都象征着送君千里终须一别的感伤。

〈2〉海·山

鲍照在《代别鹤操》中，首先营造了一个爱之仙境，将在“沧海”一同徘徊的“双鹤”比作一对恩爱眷侣，在无拘无束的广阔天地间携手长鸣、遨游于“三山”（相传为仙人居住的蓬莱、方丈、瀛洲三座仙山）之间。后文却笔锋一转，他们因“悲风”和“云雾”而离散，爱而不得但心存彼此。这种爱与悲都是别人不可能理解的。这首诗取“沧海”和“三山”的仙境之义，将“双鹤”拟人化，还将海边的“悲风”和山间的“云雾”比作拆散爱情的“恶势力”，通过前后一喜一悲的对照，使得爱情分离的痛苦更显悲凉。

特录全诗如下：

双鹤俱起时，徘徊沧海间。长弄若天汉，轻躯似云悬。幽客时结侣，提携游三山。青缴凌瑶台。丹罗笼紫烟。海上悲风急。三山多云雾。散乱一相失。惊孤不得住。缅然日月驰。远矣绝音仪。有愿而不遂。无怨以生离。鹿鸣在深草。蝉鸣隐高枝。心自有所存。旁人那得知。

诗人鲍照在他的另一个作品《绍古辞七首》中,也运用了由海洋意象与“山”“云”等意象组成的意象群来综合表达情感的方式：

瑟瑟凉海风，竦竦寒山木。纷纷羁思盈，慊慊夜弦促。访言山海路，千里歌别鹤。弦绝空咨嗟。形音谁赏录。辛苦

18）宗白华(1981),『美学散步』,上海世纪出版股份有限公司.

异人状。美貌改如玉。徒畜巧言鸟。不解心款曲。

孤鸿散江屿，连翩遵渚飞。含嘶衡桂浦，驰顾河朔畿。攒攒劲秋木，昭昭净冬晖。窗前涤欢爵。帐里缝舞衣。芳岁犹自可。日夜望君归。

恁楹玩夜月，回眺出谷云。还山路已远，往海不及群。徘徊清淮汭，顾慕广江濆。物情乖喜歇。守操古难闻。三越丰少姿。容态倾动君。

这首诗也将“别鹤”比喻为离散的夫妻，而“海风”“寒山”加剧了家中人对羁旅夫君的思念，作者又把“山海”喻为荒远偏僻的羁旅之地，分别之后再也无人真正理解自己的弦中之意。

5. 结语

“意象”作为古典美学和现代美学中的一个重要的学术范畴，经历了漫长的发展演化，并在形成中不断地被赋予新的内涵,而文学理论和文学实践互相影响,共同推进着学术的进程。魏晋时期作为意象理论发展的关键时期，文学整体上也摆脱了经学和史学的束缚，进入了“自觉”的时代。有关海洋的书写也迈入一个崭新的时期，不仅开始出现专门描绘海洋景观、海洋生活的诗歌，在文化意蕴方面也有所拓展。笔者在对海洋意象统计分类的过程中对海洋意象做了初步探究，按照结构对海洋意象分类不是完全科学的，为了探究意象背后的文化含义，我们也从表现功能的角度对海洋意象做了分析，大概可以分为描述性、比喻性和象征性海洋意象三类。但这三类意象各有交叉，同一意象也具有多义性，因此，我们又结合意象的文化内涵做了进一步分析。魏晋士人们通过海洋意象以及与海洋共同构成的意象群主要表达出三种审美内涵：天下意识、精神超越和感物伤怀。其实，意象作为美的一种显现方式，不仅是语言艺术，更是一种文化，它的生成带有浓厚的文化底蕴，意象的研究是一个极具开放性和张立性的空间，今后的研究中我们会结合时代因素，个体因素对海洋意象作更加深入的研究。

【参考文献】

1. 专著

陈植愕(1990),『诗歌意象论』,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冯友兰(1996),『中国哲学简史』,北京大学出版社.
李越(2006),『中国古代海洋诗歌选』, 北京,海洋出版社.
柳和勇(2006),『中国海洋文化资料和研究丛书』,海洋出版社.
季岸先(2010),『中国古代海洋意象史辑』, 中国海洋大学出版社.
庞德(1987),『二十世纪文学评论』, 上海译文出版社,第208页.
曲金良(2014),『中国海洋文化基础理论研究』,海洋出版社.
汪裕雄(1993),『审美意象学』, 辽宁教育出版社.
王立(1995),『中国文学主题学——意象的主题史研究』, 中州古籍出版社.
夏之放(1993),『文学意象论』, 汕头大学出版社.
叶朗(2008),『意象』, 北京大学出版社.
尤雅姿(1988),『魏晋士人之思想与文化研究』, 文史哲出版社.
袁行霈(1996),『中国诗歌艺术研究』, 北京大学出版社.
张少康(1982),『中国古代文学创作论』, 北京大学出版社.
赵君尧(2009),『天问·惊世——中国古代海洋文学』, 海洋出版社.
周均平(2003),『美学探索』, 济南,山东文艺出版社.

舟欲行(2005),『海洋文学』, 北京科学技术出版社.
祝菊贤(2000),『魏晋南朝诗歌意象论』,陕西师范大学出版社.
宗白华(1981),『美学散步』,上海世纪出版股份有限公司.
Sapir,E,(1921).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2. 期刊论文

최형록(2009),「중국고전시가에 나타는 물[水]과 사유의 상관성 연구」, 중국학연구(06).
김준연;하주연(2015),「어문학부(語文學部):송사(宋詞)에 보이는' 물' 이미지 연구 - ' 비', ' 강물', ' 눈물' 이미지를 중심으로」,중국학보, 2015, 71: 123-146.
김명구(2004),「詩論〈杜十娘怒沈百寶箱〉之 ' 水' 意象중국어문논총」, 26:249-265.
김진 (2016), 「 최치원(崔致遠) 한시(漢詩) 이미지 일고- 바다 이미지를 중심으로 」,The Studies in Korea Literature ,52: 187-220.
王立(2004),「海意象与中西方民族海洋观中的文化精神」,中国古代社会与思想文化研究论集(01).
马平平(2016),「20世纪前中国和英美小说海洋意象研究述论」,扬州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04).
季岸先(2013),「刍议《庄子》海洋意象及其当代教育价值」,中国海洋社会学研究(01).
李强华(2011),「先秦海洋文化中的超越意识——以《庄子》为中心的考察」,前沿（02）.
尚光一(2010),「论唐诗中海洋意象的抒情价值」,华夏文化（03）.
尚光一(2014),「2014生态美学视角下的海洋文化表征——以唐诗海洋意象为例」, 福建省社会主义学院学报(01).
尚光一(2011),「唐人的海洋心态与唐诗的海洋意象」,南阳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02).
柳和勇(2002),「中国海洋文学历史发展简论」,浙江海洋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01)
王玉玲(2015),「探究《诗经》《楚辞》中的海洋文化因素」,广东技术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05）.
赵君尧(2008),「先秦海洋文学时代特征探微」,职大学报(02).

3. 学位论文

刘怡(2017),「先秦文学作品中海洋意象的美学研究」,山东师范大学.
尚光一(2008),「唐诗中的海洋意象与唐人的海洋意识」,中国海洋大学.
付亚庶(2005),「论先秦文学的水意象」,东北师范大学.
陈刚(2011),「唐前蓬莱神话流变考」,华中师范大学.
赵天一(2012),「中国古典意象史论」,西南大学.
刘芳(2007),「诗歌意象语言研究」,上海师范大学.

【중국문화 분과】 발표 ⑤

魯認『錦溪日記』에 나타난 韓·中 士人들의 역사인식

朴永煥 (동국대)*

1. 들어가면서

魯認(1566-1622), 字는 公識, 號는 錦溪。조선 명종21년(1566)전라남도 나주시 하의리에서 출생하였다. 일찍이 李珥의 문하인 南塘金光運에게 사사 받았으며, 선조15年, 17세에 진사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 목사 권율장군 밑에서 모의사(募義使)가 되어 공을 세운적도 있다. 1597년 8월 정유재란 와중에 남원에서 포로가 된 노인魯認은 일본으로 압송된다. 사쓰마薩摩州의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아래에서 18개월의 포로생활 이후, 중국 상인으로 위장한, 복건성에서 파견한 임진혁 등 관원들의 도움을 얻어 1599년 3월28일 중국 복건성 하문으로 탈출에 성공한다. 장주漳州, 천주泉州, 흥화興化를 거쳐 복건의 수도인 복주福州에서 3개월 가량 생활하면서 명나라 조정의 귀국 명령을 기다렸다. 그는 일본에서의 탈출에서부터 중국 복건지역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남겼는데 이를『錦溪日記』라고 한다. 이 일기에는 1599년 2월22일부터 6월27일까지 약 4개월간의 생활기록을 서술하고 있다

20세기 초반부터 소중화의식은 망국의 근원으로 인식되며 민족주의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중화주의적 세계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해왔다. 이에 대해 최완수, 정옥자를 필두로 하여, 김문식, 최근의 우경섭에 이르기까지 조선중화주의의 담론을 제기하였다. 특히 우경섭은 17세기말 조선중화주의 개창자인 송시열을 중심으로 조선중화주의로 성립되기까지의 문화적 화이론의 정치사상적 과정을 검토한 바가 있으며[1], 17-18세기 병자호란과 명청교체 이후의 조선중화주의에 대해 조선후기 유학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조선중화주의에 대한 담론, 혹은 그에 대한 비판을 떠나서 16세기말 조선과 명나라 사인들의 역사인식과 불교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魯認『錦溪日記』의 기록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금계일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중화의식은 명청교체 이전, 17세기 송시열로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로서 당시 조선 사대부의 소중화 의식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금계일기』에 기록한 魯認의 중국관과 역사인식, 소중화에 대한 인식 및 불교관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사인들과의 관점에 대한 차이도 비교해본다.[2]

2. 기자동래설과 소중화의 내면

사마천『史記』에 의하면,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여 기자가 중국의 예악제도를 가지고 한반도 북부로 건너와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3]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자조선"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기자조선"의 주장을 일부 중국사학계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일종의

* 東國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北京語言大學 客座教授

1) 우경섭,『조선 중화주의 성립과 동아시아』,유니스토리, 22쪽.

2) 이번 논문 작성에 있어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노인의『금계일기』에 나타난 불교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추후 보충할 계획이다.

3) 司馬遷,『史記』, 〈宋微子世家〉 : "於是武王乃封箕子於朝鮮而不臣也。"

중화의식의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의 사대부와 명나라의 사인들은 “기자조선”의 존재나 혹은 “기자동래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자조선”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華夷의 世界觀” 및 “慕華思想”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기자에 대한 존숭은 고구려때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4]“임진왜란 이후 기자숭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기자릉의 보수와 확장, 견관치제遣官致祭, 자손현양子孫顯揚, 유적보호, 서원건립 등이 여러 차례 거듭되었다.”[5] 기자에 대한 숭배는 사림세력의 집권과 함께 크게 선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실상 16세기에 이르러 魯認을 비롯한 조선사대부들이 “기자조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조선문명과 중화문명의 동원성을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논거로 보인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16세기 이래 도학사상이 뿌리를 내리며 기자사상과 기자정신에 대한 현양운동이 성행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尹斗壽(1533-1601)의『箕子志』와 이를 바탕으로 이이가 보충과 정리를 하여 만든『箕子實記』(一卷, 1580)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이는 기자를 중국문화를 조선에 이식한 교화의 군주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맹 혹은 정주에 비견되는 ‘동방의 성현’차원으로 승화시켰으며, 기자를 왕도이념의 지주로서 새롭게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기자가 洪範九疇로써 彝倫을 밝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6]

다시 말해서 기자를 동방에서 왕도정치의 유일한 구현자로 높이 추앙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기자를 이전의 모화慕華의 상징으로 인식하였던 것에 탈피하여 사상적이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인식을 더욱 심화시킨 것[7] 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기자사상의 선양은 조선문인들에게 소중화사상에 대한 인식을 갖추게 하였다. 기자를 왕도정치의 구현자로 높이 추앙하는 이이의 주장은 그의 문하인 노인에게도 어느 정도 계승되었던 듯하다.[8]『금계일기』를 보면, 노인은 복건문인들과의 대화에서 기자의 교화뿐만 아니라, 기자의 예치와 치적, 때때로 홍범과 팔조를 언급하며, 소중화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자동래설에 근거한 화이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은 야만의 “夷”가 아니라, “華”에 속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4월11일 조식 이후, 노인 등은 처음 복주군문에 들어가 대사마를 알현하였다. 노인이 예를 차린 후에 왜정의 정세를 담은 내용과 지금까지 이곳에 온 경과를 보고하면서 수도인 북경으로 보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희망을 표현하였다. 대사마가 상세히 살핀 이후 노인의 충심을 찬양하며 일월을 꿰뚫었다고 찬양하며 조정에 상소를 올려 호송하도록 하겠다고 응낙하였다.[9] 이후 호좌영이 노인을 찾아서 그에게 조선의 예의와 풍속 방면에 대해 질문을 한다.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호좌영(呼坐營)이 □□□ 나를 부르므로 나도 이인교(二人轎)를 구해서 타고 그의 관아로 갔다. ……곁에 있던 아객 세 사람이 글로 써 보이기를,“귀국의 풍교와 혼인하고 장사하는 예의를 듣기 원합니다.”하므로,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온갖 교화는 기자(箕子)의 팔정(八政)의 교화에 따르되 관례(冠禮)와 혼례(婚禮)·상례(喪禮)와 제례(祭禮)는 다만 주회암(朱晦庵)의『가례』를 따릅니다.”하니, 좌우에서 감탄하며 다시 대접을 더 공손히 했다. 또 아객들이 모두 상(相)을 보려고 하여, 나는 대략 본 대로 대답하기를,“무릇 상을 보는 것은, 다만 부귀(富貴)·빈천(貧賤)과 수요(壽夭)를 볼 뿐이며, 그 부절(符節)이 합하듯 하는 신묘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하니, 그들은,“그 말이 신묘합니다.”하였다. [10]

여기에서 언급한 세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당시 호좌영등의 중국 사대부들은 조선풍속과 관혼상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다. 동시에 복건성은 주자의 고향이기도 하기에 당연히『朱子家禮』에 대해서 대단히 경앙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둘째, 노인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의 풍속과 교화는 모두 기자의 팔정지교에

4)『舊唐書』卷220,「東夷列傳」,<高麗>: “俗多淫祠, 祀靈星及日, 箕子, 可汗等神。”
5) 최영성,『한국유학통사』중, 심산출판사, 2006년, 214쪽,
6) 최영성,『한국유학통사』중, 심산출판사, 2006년, 214-215쪽,
7) 한영우,『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270쪽. 앞의 책 215쪽 재인용.
8) 노인은 14세에 栗谷의 문인인 南塘 金光運에게 학문을 배웠다.『금계일기』,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1999년, 180쪽.
9)『錦溪日記』四月十一日。
10)『錦溪日記』四月十一日。

근거한 것이며, 조선의 예의범절과 관혼상제는 모두『朱子家禮』에 따른다는 것이다. 조선문명의 기원을 "기자동래설"에 두는 그의 역사인식과 성리학적 예와 규범을 철저히 반영한 『朱子家禮』를 핵심적인 지위에 두고 있는 전형적인 16세기 조선사대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셋째, 당시 조선이나 명나라를 막론하고 사대부들이 모두 관상을 즐겨보았다는 풍속이 있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노인은 복건 布政司인 徐即登의 안배아래 5월12일부터 7월16일까지 약 2개월여간 兩賢祠書院에서 생활하였다. 따라서 그는 당시 복건성의 수재들과 조선과 명, 양국의 학문과 문화에 대한 각종 문제에 대해 상호 토론할 기회가 주어졌다. 예를 들면 양국의 과거제도 및 학술사상[11], 사회제도에 대한 비교 이외, 명나라의 수재들도 조선의 풍속과 민속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5월13일 양현사서원 강당에서 진행한 참배 이후, 명의 여러 수재들은 노인에게 조선의 풍속과 교화에 대해 가르침을 청하였다. 5월13일의 일기 기록을 보자.

> 이윽고 여럿이 강당에 모여 참배하므로 나도 참석하여 배알하니, 여러 수재들이 강당 안에 앉아서 나에게 써서 보이기를, "귀국의 풍교(風敎)와 혼례·상례·제례 등의 예법에 대하여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하므로, 나는 써서 보이기를, "풍교는 오로지 기자(箕子)의 팔정(八政)의 가르침을 따르고, 혼례와 상례는 한결같이 회암(晦菴)의 『가례(家禮)』를 따릅니다."하니, 그때 한 수재가 미소를 지으면서 방으로 들어가 『大明一統志』를 가지고 와서 <四夷風土記> 중의 조선기(朝鮮記)를 찾아 펼치면서 나더러 보라고 한다. 내가 자세하게 보니, "조선 사람은 부모가 죽으면 골짜기에다 장사지내거나 물에다 장사지내거나 옹기에 넣어 장사지내며, 부처를 숭배하고 무당을 좋아하며, 문밖에서 신을 벗고 땅바닥에 앉으며, 대낮에 시정(市井)에서 남녀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으며, 술을 잘 권하여 마시게 한다."고 씌어 있다.[12]

이 기록을 통해서 16세기말 당시 복건성 사인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의 풍습과 교화는 오로지 기자(箕子)의 팔정(八政)을 따르고, 혼례와 상례 등 일상생활의 예의범절은 주희의 『朱子家禮』를 따른다는 노인의 주장에 대해 한 수재가 『大明一統志』에 근거하여 노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당시 조선이 추구하던 주자학 중심의 학술사상과 『朱子家禮』위주의 관혼상제를 복건지역의 문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계곡장, 옹기장, 수장, 불교를 신봉하고, 巫術을 좋아하는 등등의 기록을 통해서 조선시대 장례의 후진성과 당시 사회 풍속이 낙후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大明一統志』의 이런 기록은 고려와 조선초기까지의 기록으로 보이는데,"문밖에서 신을 벗고 땅바닥에 앉으며, 대낮에 시정(市井)에서 남녀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으며, 술을 잘 권하여 마시게 한다."는 내용은 유교의 예악제도를 벗어난 고려시대의 자유분방한 시정에 대한 묘사다. 예학을 강조하던 성리학적 가치관과 규범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았던 시기로 추정된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점이 매우 흥미롭다. 명나라 수재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노인의 재반박도 매우 흥미롭다.

> 내가 다 보고나서 써서 대답했다. "……이 『대명일통지』는 태고의 역사로서 외국의 풍속에 대하여 범연히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번방(藩邦)이지만, 단군(檀君)은 요(堯)와 함께 즉위하여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고, 내부(內附)하였으므로 주(周) 나라 무왕(武王)이 특히 기자(箕子)를 봉하니, 의관·문물·예악·법도가 한결같이 중국 제도를 존중하여 오도(吾道)가 동쪽으로 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진(秦) 나라 때는 요동(遼東)에 예속되고 한(漢) 나라 때는 군현(郡縣)으로 봉해졌으며, 진(晉) 나라 때부터는 각기 강역(疆域)을 나누어 스스로 성교(聲敎)를 실천했으나 직분(職分)을 공손하게 닦아 정성으로 사대(事大)하였으므로 중국 본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삼강오륜과 예의염치가 삼대(三代)의 위와 비교할 수 있으니, 이것 때문에 소중화(小中華)라는 이름으로 일컫게 된 것입니다." [13]

태고의 역사란 고려시대의 역사를 포함한 것으로 조선이전의 역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大明

11) 朴永煥, 「魯認『錦溪日記』裡記載的閩文化-以學術思想、書院文化以及科舉制度為中心」, 『中國語文學』, 第61輯, 2012.12, pp.207-228 참고.
12) 『錦溪日記』 五月十三日。
13) 『錦溪日記』 五月十三日。

一統志』의 기록이 조선왕조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인은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역사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내부(內附)", "요동군에 예속", "군현(郡縣)으로 봉해진 것(한사군 설치)" 등을 통해 일찍이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던 역사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논점은 첫째, 단군을 요임금과 같은 반열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조선이 번방이지만, 역사적으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똑같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의관・문물・예악・법도가 동쪽으로 온 지 오래 되었다는 것은 "기자동래설"에 근거하여 조선과 중국 문명의 동원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위진남북조시대 이래, 조선의 삼국시대부터 각기 강역(疆域)을 나누어 스스로 성교(聲敎)를 실천했다는 것은 조선이 독립된 자주국으로서 위치를 유지하면서 사대로서 중국과 서로 화합을 해왔으며,"중국과 다른 점이 없다(與諸夏無異)"며 문명의 동등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이 소중화(小中華)가 될 수 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는 "삼강오륜과 예의염치가 삼대(三代)의 위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문명의 시원과 수준에 있어 조선과 중국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檀君과 堯의 병립, 조선문물과 예악제도의 중화와의 동일성, 고로 조선은 중화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조선이 소중화를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慕華思想"과 "欽華思想"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의 유구성과 문명의 동원성과 동등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강오륜과 예의염치"때문에 조선이 소중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송대 이래 동아시아의 사상적인 전통으로서 화이론이 가진 특징을 철저히 계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송대 춘추학의 대표자인 호안국은 화이론의 구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중국이 중국인 까닭은 예의 때문이다. 그것을 잃으면 오랑캐가 되고, 또 다시 잃으면 금수가 되어 사람들이 멸할 것이다.[14]
>
> 사람이 금수와 다른 이유, 중국이 오랑캐보다 귀한 이유는 단지 부자지친과 군신지의를 가졌다는 것뿐이다.[15]

호안국은 화이론의 핵심은 바로 "예의"의 존재여부에 있다는 것이다. 조선문인들이 철저하게 숭배한 주자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 위진의 선비들은 광탕하게 바뀌어 부허함을 숭상하나 예법이 없었다. 예법이 사라지니 오랑캐와 다른 점이 없었다.[16]
>
> 오랑캐에게는 비록 임금이 있으나, 예의가 없으므로 중화에 임금이 없음보다 못한 것이다. 무릇 예가 아니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며, 나라가 있되 예가 없으면 망하는 것이 낫다. 만약 중화에 예가 없다면, 곧 오랑캐보다 못한 것이다.[17]

"예법"과 "예의"의 존재여부가 화이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은 설명을 통해서 조선이 소중화일 수밖에 없는 이유, 조선의 예악제도, 예의, 예법 및 문명과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즉 "대체로 우리나라 문헌에는 문과와 무과 외에, 또 따로 효렴과(孝廉科)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서재에서나 마을의 서당에서나 나라의 학교에서나 글을 읽는 소리가 사방의 국경에까지 들립니다. 무릇 자식이 태어난 지 8세가 되면, 먼저 『효경(孝經)』과 『심경(心經)』을 가르친 뒤에 다음으로 사서(四書)와 육경(六經)을 가르쳐 모두 명경과(明經科)로써 학업을 삼습니다." [18] 교육을 중시하는 조선의 풍조, 이에 따라 효성과 심성과 관계된 예의교육을 철저히 실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효에 대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이 삼년상(三年喪)은 귀천이 없이 한결같이 지킵니다. 비록 종[奴]같이 천한 사람도 부모상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막(廬幕)에 거처하며,

14) 『春秋胡氏傳』卷12, 僖公中 23年11月。
15) 『春秋胡氏傳』卷23, 襄公下30年10月。
16) 『論孟精義』卷1, 下。
17) 『論孟精義』卷2, 上。
18) 『錦溪日記』五月十三日。

곡할 때는 죽을 먹으면서 3년을 보내다가 애통한 나머지 야위어 절로 죽은 자도 있습니다." 19)라며 조선에서는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부모의 상은 반드시 3년상의 상례를 행해야 한다며 조선이 '예의"와 "예법"을 중요시 하는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이 능히 "소중화"의 호칭을 얻는 관건은 바로 효에 대한 교육, 과거제도, 삼강오륜, 예의염치, 교육중시 유교와 성리학적인 가치 등 방면에 있어서 중국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6세기말 조선이 소중화라는 의식을 가진 이유이자, 동시에 이것은 소중화의 중요한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흠화사상과는 다른 것이며, 스스로의 문명과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17세기 주자학을 광신했던 송시열 등의 중화의식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20)

흥미로운 점은 노인이 강조한 소중화가 될 수밖에 없는 조선문명의 두 가지 핵심, 즉 "기자의 교화"과 『주자가례』의 성리학적 예와 규범에 대한 설명에 대해 복건 사인들은 조선문명의 기원이 "기자의 교화"와 관계가 있음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고 있지만, 『주자가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비록 주자의 고향이고 학문적으로 주자의 학문을 따르고 있지만21), 관혼상제의 측면에서 복건지역에는 『주자가례』가 조선처럼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다른 수재들이 서로 돌아다보면서 비로소 말하기를, "귀국의 문헌이 믿음직스러움은 천하사람이 다 아는 것이오. 그러나 법을 지키고 예를 앎이, 어찌 이렇게까지 지극한 줄을 알았겠는가? 『주자가례』는 중국에서도 모두가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대강(大江) 남쪽에서 활용하는 자가 제법 많소. 귀국에서는 종같이 천한 사람도 모두 그것을 따른다 하니, 모두가 기자(箕子)의 유교(遺敎) 때문일 것이오."하였다.

『주자가례』의 규범이 주로 장강 이남에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명나라 사인들은 조선의 문물을 언급하면서 주자학과 『주자가례』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는 면도 있겠지만, 명나라 민간에서 양명학의 유행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5월16일, 당대 복건지역 도학(주자학)의 일인자로 지칭되는 포정사 서즉등과 행한 대화에서도 조선의 문명은 "기자동래"의 은덕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노인은 기자의 정치적인 치적을 중심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나는 대답하기를, "주(周) 나라 무왕(武王)이 기자를 신하의 처우로 조선에 봉한 일과 팔조(八條)의 가르침은 홍범(洪範)에 기록되어 있으니, 번거롭게 아뢸 필요는 없고, 다만 기자가 평양에 도읍하여 백성들에게 오륜(五倫)을 가르쳤는데, 상례(喪禮)가 가장 엄하여 삼년상은 귀천의 구별이 없이 한결같으며, 또한 정전법(井田法)은 먼저 서울 근처에다 시행했으므로, 논두렁과 밭둑이 종횡으로 만들어 진 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집니다. 기자의 영당(影堂)은 평양성 안에 있고, 능은 평양성 서문 밖 5리쯤에 있으며, 능지기 2명이 지금까지 능을 지키며 제사를 지냅니다. 만일 기자의 교화가 아니었다면 조선이 어찌 오랑캐 풍속을 면해서 중국과 다름이 없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혼례와 상례는 한결같이 삼대(三代)의 유풍(遺風)을 따르므로, 기자묘(箕子廟)의 제사도 천백 세가 지나도록 변함이 없습니다. 광악이 써서 보이기를,"귀국의 문헌은 과연 그 유래하는 바가 오래군. 기자의 은덕이 어찌 하나의 조선에만 끼쳤겠는가?"

노인은 기자가 동래한 사실보다 천하를 다스리는 법인 왕도정치를 구현하는데 주요한 요체가 되는 홍범과 팔정에 대한 언급, 동시에 기자의 정치적인 치적, 즉 五倫과 喪禮를 가르친 예치와 정전법의 업적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조선이 중국문명과의 동등성과 동원성, "중국과 다름이 없다(與諸夏無異)"는 것이기에 자연적으로 소중화일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자숭배의 이면에는 왜

19) 『錦溪日記』五月十三日。

20) 철저한 친명사대주의자로 평가받던 송시열도 중화의식을 강조하였지만, 명나라의 정치제도 전반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며 명나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 박절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명나라 학자들의 예학에 대해서도 주자의 본뜻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혹평을 가하였다. 우경섭, 『조선 중화주의 성립과 동아시아』,유니스토리, 33쪽.

21) 특히 포정사 서즉등은 당시 이재(견라)의 제자로 당시 복건지역 도학의 일인자로 평가받았다. 『錦溪日記』五月十日 : "晴。早去軍門, 以待各衙諸相之會。進呈做文, 則布政以下, 皆見而嘆之。右布政徐卽登(此相, 乃見羅先生李材門人)而當代第一道學。"

란과 호란으로 실추한 국가의 위엄을 기자의 동래로 인한 문화적 우월감으로 회복시켜보려는 자존적인 심리의 표현으로도 보는 시각도 있다.[22] 5월25일, 노인은 양현사서원에서 개최한 강회에 참석하였다. 당시 강회를 마치고 서즉등이 행인사행인(行人司行人)인 이여규(李汝珪)에게 노인이 시를 잘 짓는다며 소개를 하자, 이여규는 노인이 시를 잘 짓는 이유가 기자의 은덕 때문이라는 설명에서도 당시 복건지역의 사대부들의 조선에 대한 "기자동래설"중심의 역사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23]

3. 나오면서

모든 역사 기록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 『錦溪日記』는 조선 최초 복건지역의 문화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면에서 역사문화적, 학술사상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 16세기 후반의 중국 복건성의 학술,역사,문화를 이해하는 단서이자, 당시 조선 사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 및 중국 사인의 조선에 대한 인식, 한중 사인들의 역사관, 불교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5세기말에 만들어진 최부의 『표해록』에 보면 "중화의 체제를 따른다(一遵華制)", "아국과 대국이 하나의 집안(我國與大國爲一家)"이라는 언급은 있지만, "소중화"라는 세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 세기가 지난 뒤인 16세기 후반, 노인의『錦溪日記』에는 "소중화"란 세 글자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는 15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송시열의 주자학에 광신했던 중화의식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 『금계일기』 속의 소중화의 관념과 인식은 이전의 단순한 모화사상, 흠화사상과는 다르다. 16세기에 이르러 성리학(주자학)이 조선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유행한 모화사상과 더불어 숭명의식의 제고가 시작된 것과도 관계가 있다.

먼저, 노인이 강조한 소중화사상의 내면을 살펴보자. 노인은 조선과 중화 문명의 동원성과 동등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선문명의 기원을 기자동래설에 두고 있다.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성리학적 예와 규범을 철저히 반영한 『朱子家禮』가 관혼상제를 실천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檀君과 堯의 병립, 조선문물과 예악제도의 중화와의 동일성을 강조하면서 문명의 시원과 역사의 유구성에 있어 조선은 중화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16세기 조선사대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둘째, 노인은 조선이 소중화(小中華)가 될 수 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로 삼강오륜과 예의염치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송대 이래 동아시아의 사상적인 전통으로서 호안국과 주자의 화이론이 강조하는 특징, 다시 말해서 "예법"과 "예의"의 존재여부가 화이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이 소중화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조선의 예악제도, 예의, 예법 및 문명과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부연설명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노인은 기자가 동래한 사실보다 천하를 다스리는 법인 왕도정치를 구현하는데 주요한 요체가 되는 홍범과 팔정에 대한 언급, 동시에 기자의 정치적인 치적, 즉 五倫과 喪禮를 가르친 예치와 정전법의 업적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기자를 왕도이념의 지주로 부각시킨 율곡이이의 견해를 계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중국사인들의 조선관에 대해 살펴보자. 노인이 강조한 조선이 소중화가 될 수밖에 없는 조선문명의 두 가지 핵심, 즉 "기자의 교화"과 『주자가례』의 성리학적 예와 규범에 대한 설명에 대해 복건 사인들은 조선문명의 기원이 "기자의 교화"와 관계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고 있지만, 『주자가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비록 주자의 고향이고 학문적으로 주자의 학문을 따르고 있지만, 관혼상제의 측면에서 복건지역에는 『주자가례』가 조선처럼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시에 조선사회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22) 최영성, 『한국유학통사』중, 심산출판사, 2006년, 215-216쪽,

23) 『錦溪日記』 五月二十五日 : "서 종사가 말하기를, '그는 글과 시를 잘 짓습니다.'하였다. 이 행인이 또 말하기를, '그 쪽 나라의 풍습이 시를 좋아하기 때문이겠지요. 수재의 자식은 수재가 되고, 무관의 자식은 무변(武弁)을 쓰고, 음관(蔭官)의 자식은 음관이 되고, 재상의 자식은 재상이 되고, 간신(諫臣)의 자식은 간원(諫院)으로 들어가는 법이니, 한번 기자(箕子)가 동쪽으로 감으로부터 문풍(文風)에 바탕이 있게 된 것이오.'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복건 사인들의 조선에 대한 관점은 『大明一統志』로 대변된다. 당시 조선에서는 계곡장, 옹기장, 수장, 불교를 신봉하고, 巫術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장례의 후진성과 당시 사회 풍속의 낙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조선이 추구하던 주자학 중심의 학술사상과 『朱子家禮』위주의 관혼상제를 복건지역의 문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大明一統志』에는“문밖에서 신을 벗고 땅바닥에 앉으며, 대낮에 시정(市井)에서 남녀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으며, 술을 잘 권하여 마시게 한다.”는 내용이다. 오늘날 우리 생활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성리학적 규범과 예학이 뿌리내리기 이전의 고려시대의 자유분방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시정에 대한 묘사로 보인다.

【메 모】

【중국문화 분과】 발표 ⑥

중국 초국경 유수(留守)청소년의 문제에 관한 연구
— 칭다오 라이시시의 재한 노무자의 자녀를 중심으로

위하* · 장소박 · 왕연초*****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선행연구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4. 연구의 이론적 배경
5. 연구목적
6.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중국은 개혁개방과 함께 경제발전을 국가 이념으로 전력을 다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많은 농촌 청장년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농촌에는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게 되어 특수한 미성년자 집단인 유수아동(留守儿童)이 형성되었다. 중국에서 '유수아동'은 최초로 上官子木(1993)[1] 이 제시된 용어이다. 그 당시에는 부모는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함으로서 국내에 남는 아이들을 가리켰다. 오늘 날에 통상적으로 부모가 외지에 가서 일하고 고향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사이트에서 유수아동에 대한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한다. '留守儿童是指父母双方外出务工或一方外出务工另一方无监护能力、不满十六周岁的未成年人'[2]。즉, 부모는 모두 다 혹은 한 부모가 타 지역으로 노무를 가게 되어, 고향에 남은 부모의 한 쪽 혹은 조부모, 기타 친척의 감독, 보호를 받게 된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유수아동이라고도 한다.

지난 80년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이 실행하고 중국농민이 농촌에서 나와 도시로 이동하여 90년대 초에 대규모의 '民工潮'를 형성하였다. 농촌 인구의 대량 유출은 농촌 가정과 시회의 관계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양육 패턴, 교육방식도 같이 바꾸었다. 이에 따라 유수아동은 사회의 주목을 받고 하나의 논제를 되었다. 중국에서 유수아동 문제는 점차 주목받고 있지만, 최초의 '유수아동'이 가리킨 부모가 국외에 나간 아동, 즉, '양 유수아동(洋留守儿童)'에 대하여 비교적 관심이 적다. 중국에서 비교적 개방적인 지역에서 이런 아동들이 많이 살고 있다[3]. '洋留守儿童'이라는 용어는 쟁의가 있는 부분이며 주로 아동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여부에 따라 '洋留守儿童'에 속하는 문제에 머물고 있다. 본 논문은 부모가 한국에서 노무를 하고 있는 칭다오 라이시시의 유수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자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아동과 구별하기 위해 '초국경 유수아동(跨境留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박사과정
**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석사과정
***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석사과정

1) 1993년, 上官子木은『父母必读』의 <隔代抚养与留守儿童>에서 처음으로 '留守儿童'이라는 용어를 제시되었다.
2) www. gov.cn 中国政府网, <国务院关于加强农村留守儿童关爱保护工作的意见>, 2016. 02. 14
3) 福州市政协의 공식사이트에 의하면 2012년에 福州시에서만 미국국적을 가진 아동은 거의 만 명이 생활하고 있다. http://zx.fuzhou.gov.cn/. 2012-01-05.

2. 선행연구

유수아동('left-behind' children)의 형성은 경제화, 세계화 등 배경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 이민의 각도에서 서양사회를 고찰하여 유럽에서도 농촌인구가 대규모적으로 이동한 시기가 있었지만 중국과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바로 이민들이 정착지에서 평등하게 취업이아 교육을 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같은 사회지위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부모와 분리된 상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가의 노동유동과정에서 농촌의 이민들이 어쩔 수 없이 취업, 주거 및 자녀의 교육 등 문제에서 장애물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즉, 정착지에서 존재한 제도적 장벽이 유수아동을 만들어 냈다.

2.1 해외의 연구 방향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해외에서 유수아동의 수는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주로 카리브 해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많이 급증하고 있다. Smith, A, Lalonde, R.N, & Johnson, S(2004)는 아시아에서 중국 외에 유수아동 많은 국가는 필리핀(대략 800만 명)이라고 하였다.[4] Bryant J(2005)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필리핀에서는 부모의 해외노무로 인해 300-600만 명이 있고[5], 인도네시아는 100만 명, 멕시코는 1/3의 아동이 유수경험이 있다고 하였다(罗天竺, 2014).[6] 생활의 측면은 Bauer E, Thompson P(2005)는 부모의 송금이 유수아동의 생활수준을 많이 향상시켰다고 하지만, 더 많은 연구는 아동의 생활환경이 부모와의 이별에 따라 변화하여 가정의 조직적과 기능적의 무질서를 초래함으로 아동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하였다[7]. Shahid Iqbal, Faiza Iqbal, Riaz Ahmed Mozmi(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이주가 남겨진 가족에게 특히 배우자와 자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8] 학자들이 주로 생활, 교육, 의료 건강 등 측면에서 부모의 떠남이 아동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였다.

2.2 중국의 연구방향 및 유수아동의 형성 원인 분석

周福林, 段成荣(2006)의 연구에 의하여 '유수아동'이라는 용어는 1994 년에 나타난 용어이지만 그 뒤에 5년 동안에 유수아동의 문제는 사회의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1994년 ~ 2000년, 유수아동과 관련된 연구 및 신문기사는 불과 5편 밖에 안 된다. 2002년 이후에 점차 많아지고, 2004년 이후에 비로소 관련된 연구 및 기사들이 대폭 증가하였다. 2004년에 찾을 있는 관련된 논문이 30편, 2005년에는 86편이나 되었다. 학계에서 유수아동을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였다.[9]

가. 부모는 모두 부재, 조부모에 의해 양육
나. 부모는 모두 부재, 혼자서 생활
다. 부모는 모두 부재, 다른 친속에 의해 양육

4) Smith, A, Lalonde, R.N, & Johnson, S(2004). Serial migr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experiences of the children of Caribbean immigrants[J].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0: 107-122.
5) Bryant J(2005). Children of international migrants indonesia, Thailand and the Philippinrs: A review of evidence and policies [J]. Innocent Working Paper.
6) 현미나(2017), 재인용. p23.
7) Audrey M. Pottinger(2005), Children's experience of loss by parental migration in inner city Jamaica[J].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4). pp485-496.
8) Shahid Iqbal, Faiza Iqbal, Riaz Ahmed Mozmi(2014), Does Male International Migration Effects the Families Left behind Evidence from Gujrat Pakistan. *Ope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2 No.6*
9) 段成荣, 周福林(2005),「我国留守儿童状况研究」, 人口研究 (29권-1)

라. 부모 한 쪽만 부재, 한 부모에 의해 양육

일부의 학자는 중국 전국인구조사 등 자료를 통하여 유수아동의 전체적 상황을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예컨대, 段成荣, 周福林(2005)은 2000년 제5차 전국인구조사의 자료를 추출하여 전국 유수아동의 규모, 구조, 지역분포, 교육상황 등에 대해서 추정하였다. 이 외에 지금까지 유수아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아래와 같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현장조사를 통해 유수아동의 생활환경, 학업, 심리건강, 사회도덕, 안전 등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나. 조사는 주로 인구의 유동이 비교적 많은 성(省)에 하고, 주로 경제 발전이 아주 낙후된 농촌지역 및 서부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다. 연구대상은 모두 부모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유수아동이다.
라. 대상은 연령이 주로 취학연령에 속한 아동, 미취학 아동 및 유수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으로 적고,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한다.

중국식 사회주의는 도심으로의 인구 유입 및 경제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동반하였다. 중국의 사회에서 노동의 유동으로 형성된 유수아동 집단은 사회의 각 계층에서 존재하지만 농촌의 저소득가정에서 더욱 보편적으로 존재 하여, 빈곤 그리고 빈곤으로 가져온 자원의 결여는 유수아동을 형성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며 중국 특유의 유수아동 집단 형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段成荣, 周福林(2005)이 2000년 제5차 인구조사의 수치에 의해서 중국의 유수아동이 2,289.2 만 명으로 전체 아동의 8. 05%를 차지하는 연구결과를 내렸다. 2016년 중국 국무원이 불완전한 통계함에 의하여 중국의 유수아동은 약 6,000만 명이 있다고 하였다[10]. 유수아동문제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장기지속 되어 사회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도 있다.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순환되어 다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유수아동의 교육문제를 형성된 원인에 대하여, 주로 4 가지의 관점이 있다.
가. 인구의 유동. 이런 관점은 주로 유수아동에 대한 조기 연구에서 나타난다. 유수아동을 형성된 원인은 농촌인구의 유동이다. 예컨대, 李金涛(2003)가 유수아동 현상은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는 관정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나. 가정교육의 결합. 부모의 빈자리는 유수아동 교육문제를 일으킨 진정한 근원이라는 관점이다. 汪明(2007)은 유수아동의 문제는 아동에 대한 보호권의 책임문제라고 보았다.
다. 제도의 문제. 吴霓(2004), 范先佐(2005) 등 학자들은 유수아동 문제를 형성된 근본적원인은 교육체제 및 기타 사회제도의 불합리에 있다고 본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이동 할 수 없는 원인은 주로 경제적 지출, 학교의 수납, 정부의 지지 및 학생의 적응 능력 등 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라. 농촌의 학교교육. 吴理财(2005)는 유수아동문제는 농촌의 기초교육의 많은 문제들과 얽히고 있으며, 특히 농촌의 기초교육에 대한 투자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段成荣, 杨舸(2008)은 '농촌 유수아동이 교육을 받는 문제에 관하여 더 많은 문제는 농촌 교육의 문제에 있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문헌은 단순히 농촌 인구는 생존 때문에 이동을 한다는 것이며, 이동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하고 아동들이 유수하게 하는 심층 원인을 체계적으로 살펴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서 생산의 세 가지 요소-토지, 노동과 자본 등 측면에서 이론을 분석하여, 노동자의 이동을 설명하며 사회학 및 교육사회학의 측면에서 유수청소년의 사회적응에서 심리행태와 문제행동에 대해 살펴보며 이 집단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초국경 유수아동집단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0) www. gov.cn 中国政府网, 위와 같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은 칭다오에 속하는 라이시시(莱西市)의 있는 초국경 유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라이시시는 종합실력의 100 개의 중소형 도시에 들어간[11] 만큼 진정한 산둥성(山东省) 경제권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다. 자이앙산진(姜山镇) 중심으로 산업단지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 통계국 및 지방 통계부문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이앙산진의 농촌 일인당 가처분 소득은 2016년에 19,870위안에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으로 전국 일인당 가처분 소득 12,363위안보다 월등히 높다.[12] 이 지역 유수아동의 부모는 중국내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미미하고, 해외이동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이시시 유수청소년을 선택한 이유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며, 중국의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서 이런 유수아동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 경제가 상당히 발달한 지역적 특징.

나. 부모와의 분리기간이 국내 유수아동보다 길어지고 있음.

다. 지역경제는 한국기업에 많이 의지하며, 부모는 대부분이 한국에서 노무.

3.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아동교육 및 보호하는 차원으로 지금 중국사회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수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초국경적 유수청소년들은 장시간 부모와 떨어져 있음으로 개인의 성장과 학습, 자립적 생활, 심리건강 등 측면에서 완전가족의 청소년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 심리, 사고방식이 강화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초국경적 유수청소년들의 문제 발생원인은 일반유수아동과 달리 외적 요인을 찾아보고자 외에 각 층면의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려 한다. 경제 발달한 농촌지역에서 노동력의 이동원인이 단순히 임금의 격차 때문이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 지방정부 경제의 성장만 치중하고, 교육에 대한 소홀, 토지의 유실, 사회풍토 등과 많은 관련이 있다.

3.2 연구방법

교육이 발생하는 장면에 따라 교육의 형식은 가정교육,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으로 구분한다.[13] 가정교육은 인생의 시발점으로 아이들이 사회화하는 관건이다. 학교교육은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소양 및 지식을 획득하는 중요한 장소이며, 주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사회교육이 가정교육 및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아이들의 학습 및 생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다. 한 사회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세 형식의 교육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가정, 학교, 사회 세 가지 측면에서 라이시시 지이앙산진(姜山镇)에 위치한 지이앙산진중심중학교(姜山镇中心中学)의 만12세~16세의 초국경 유수청소년을 관찰하고, 이 단계에 속하는 아이들에 미치는 영향

11) 중소형도시경제발전위원회와 중소형도시발전전략연구원이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소 등 싱크탱크 조직과 같이 중국의 중소형도시 발전지수연구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이다. 단계적 연구성과는 人民日报, 光明日报, 新华社의 <中国中小城市发展报告>에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외로 발포한다. https://baike.baidu.com/, 2018. 10. 7 검색.

12) 莱西政务网 http://www.laixi.gov.cn

13) 이종각(2009),『새로운 교육사회사총론』, 동문사. p43.

을 문화, 경제학, 사회학과 교육사회학의 측면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며, 그 조사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조사와 더불어 기존의 연구 성과 및 미디어, 홈페이지 자료를 가능한 많이 활용하여,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한다.

가. 현장조사

본 연구 먼저 현장조사는 라이시시 지이앙산진에 진행 할 것이다. 라이시시는 칭다오시에 속하고 자오동반도(胶东半岛)의 중부에 있으며, 칭다오, 웨이팡(潍坊), 옌타이(烟台), 웨이하이(威海) 네 개의 도시의 중간에서 위치하고 옛날부터 '칭다오의 뒷마당'이라는 칭호가 있다. 자오동반도의 교통 중심이며 지역안에 칭다오-룽청(荣成) 철도, 룽커우(龙口)-칭다오 고속도로, 동삼(同三)고속도로가 남북을 관통하였다. 지이앙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민영경제 산업단지, 북쪽으로 람보석(蓝宝石)산업단지, 우수한 품질의 과일시법단지, 금령(金岭)산업단지, 만자(万紫)화혜단지 총 6개의 산업단지가 204국도에 따라 '六园一城一长廊'이 새롭게 구성하였다. 지이앙산진은 라이시시의 최초로 한국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이며, 현재에도 이 지역 중심으로 산업단지들에서 여러 한국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정부공식사이트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의 재정수입의 80%가 공업단지에 의존하고 있다. 농촌인구의 수입은 대부분이 공업단지에 취업 혹은 출국 노무에 의하였으며, 지이앙산진이 한국에 노동력 수출함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지역특징 뿐만 아라, 지역의 문화, 사람들의 의식형태, 학교의 교육환경, 지방정부의 경제와 토지정책 등 측면도 같이 조사함으로서 이 지역에서 초국경 유수아동집단의 형성 및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다.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한다. 한 가지는 라이시시 지이앙산진에 위치한 지이앙산진중심중학교에서 유수청소년에게 배포, 회수한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수청소년에게 존재한 문제를 파악한다.

다른 한 가지는 한국에서 노무를 하고 있는 유수아동 부모에게 배포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출국노무의 동기, 영향요소 등 문제에 대한 조사한다.

다. 면담조사

일부 유수청소년이 조부모의 보호를 받고 생활하고 있으며, 나이가 있는 노인에게 설문조사보다 면담조사가 더욱 편하고 부담이 많이 느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면담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라. 문헌연구

중국 유수아동에 관한 단행본이나 논문을 검토하여 부모가 국내에서 이동하는 일반유수아동의 문제 및 형성요인을 살펴본다. 더불어 미디어, 홈페이지 자료를 가능한 많이 활용하여 관한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4. 연구의 이론적 배경

'교육은 아동을 생물적 존재로부터 사회적 존재로 사회화시키는 것이다(에밀 뒤르케임[14])'. 학교교육은 장차 사회인이 될 사람에게 기초적인 준비교육을 시키고, 사회교육은 현실적인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가 자신의 생활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자발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즉, 경험 그 차체가 곧 학습내용이며, 학습내용은 그대로 현실생활에 적용한다.[15] 거의 모든 인간행동의 학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고,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매우 많다.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또한 사회적인 성격의 것이며 교육의 방법도 그 사회의 사회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교육은 사회에 대하여 3 가지 관계를 갖고 있다[16].

가. 기본적 관계(교육의 사회적 본질): 교육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속성을 지녔다.

14) Emile Durkheim(1858.4.15 -1917.11.15),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교육자.
15) 박준영(2009),『교육학개론』, 경성대학교출판부. pp.44-45.
16) 이종각(2009), p.40. 306.

나. 수동적 관계: 교육이 사회(정치, 경제, 문화,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다. 능동적 관계: 교육도 사회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교육을 사회와의 관련하에서 교육과 사회의 수동적 관계의 측면에서 사회가 유수청소년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고 한다.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세 개가 있다.

가. 교육평등이론[17)]

오늘 날 교육사회를 이끌고 있는 핵심규범은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이다. 교육평등은 교육의 여러 측면과 관련되어 있으며 4단계로 발전되어 왔다(Coleman, 1968; 김신일, 1993:257-287).

가.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즉,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다.
나.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일체의 제도적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다.
다. 교육조건의 평등. 콜만(Coleman, 1966)이 '교육기회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평등만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다. 즉,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라. 교육결과의 평등. 교육결과 즉 학업성취의 평등을 위한 열등한 학생 집단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을 제공한다.

고버트(David Gorbutt, 1972)가 제안하는 신교육사회학이라는 용어는 영국에서 평등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발생된 교육 분석의 시각과 영역이다. 교육과 사회 불평등에 관한 연구에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에 비중을 두어 전체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임이 밝혀졌다.

지난 90년대에 하나의 개년으로 제시된 '三农(农业, 农村, 农民)'문제는 지금까지 중국 현재의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이 중에서 '农民工[18)]'의 문제는 특히 심각한다. '农民工'문제이 교육영역에서 파생되어 형성된 유수아동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 하는 난제로 그의 최종의 근원은 '불평등'이다. 중국의 경제학자 厉以宁이 이렇게 말했다. '모든 불평등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 까? 그 근원은 교육의 불평등에 있다. 교육이 불평등하면, 취업이 불평등하게 되고, 취업의 불평등은 생활이 불평등하게 되었다. 생활이 불평등이 되면 다음 세대의 불평들을 만들었다.'[19)]

나. 구조주의론(structurism)

사회는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이며 또 개인들은 전체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갖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조(structure)라고 가정한다. 구조라 그 조직에 소속한 사람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규범적 질서를 비롯하여 상호 권력관계, 구성원의 행동을 조정하는 체계라 말할 수 있다. 구조주의 방법의 주요한 특징은 연구대상을 체계(system), 즉 고립되어 있는 특수한 사실보다는 일련의 사실 사이의 상호관계로 본다.[20)]

사회에서 서로 다른 조직 혹은 체계들이 독립적으로 또한 서로 연관되어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상호 작용을 한다. 아동들은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이에 영향을 받아 점차 자신이 속하는 사회문화를 학습하고 개성과 인격을 양성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된다.

다. 지능의 환경결정론

유전적 요인보다는 가정과 학교에서 갖는 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개인·집단 간의 지능 차이를 초래한다. 이는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이 학습능력의 차이를 낳고 그것은 다시 학업성취의 차이를 낳으며, 심지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연계된다.

17) 이종각(2009), pp.386-389, 409-411.
18) 호적은 농촌에 있고, 도시에서 비농업활동을 하는 노동자.
19) 厉以宁이 2003년 12월 29일, 香江论坛. 출처: <中国专家谈三农问题>, http://club.kdnet.net/dispbbs.asp?id=390086&boardid=1, 凯迪社区.
20) 정철수, 한남제, 박종우(1989), pp.33.

5. 연구목적

현재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유수아동문제는 중국사회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문제이지만, 유수아동단체는 나타난 시간이 아직 짧고, 지금까지 연구를 증가하고 있지만, 이 연구들이 아직 분산적 되어 있어 체계성도 없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수아동과 그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아직 불명료한 상태이다. 마치 '중국 농촌 유수아동문제 좌담회(中国农村留守儿童问题研究座谈会)'[21]에서 내렸던 결론과 같이 '유수아동의 전체 상황이 모호하고, 다만 개인의 사례를 설명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통계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중국 유수아동의 전체 상황을 설명하는 상관 통계수치가 많이 없다.' 이 좌담회를 열린 뒤에 유수아동문제를 주목하게 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주로 심리학, 인구학, 교육학 등 분야에서 연구하여 관련 분야의 학술지에 등재하였다. 이 외에 신문, 잡지에서 유수아동에 관한 보도 혹은 기록 등 더욱 셀 수 없었다. 그러나 유수아동의 대한 장기적 추적 연구, 유수아동들이 처하는 농촌사회의 구조에 관한 연구 및 농촌의 고유한 촌락문화, 가족제도, 지역사회 등 요소가 아동에 가져온 영향이 있는 여부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 중국정부, 학계는 적극적으로 유수아동문제를 중요시하고 많은 정책을 공포하여 일정한 성과가 조금 보였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가 크게 없었다. 유수아동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이 아직도 매우 심각한다. 그리고 경제의 발전, 빈부의 차이로 청장년 노동력의 유실, 중국사회체제 등 원인으로 유수아동문제가 결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각해질 우려도 있다. 표면적 문제를 연구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또한 유수아동의 문제는 이미 학술연구의 범주에서 벗어나, 교육의 평등, 그리고 농촌의 아동, 청소녀의 건강한 미래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주목점이 비교적 발달한 농촌 지역에서 유수아동을 형성된 원인을 살펴보고, 지금 학계에서 주목된 일반 유수아동과 비교하면서 사회, 경제, 지역문화, 국가의 정책, 사회풍토 등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유수아동문제의 해소함에 조금만 힘을 보탤 수 있음으로 그 목적으로 한다.

6. 나가는 말

지금까지 유수아동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유수아동의 사회화과정 혹은 심신의 발전, 안전, 부모의 빈자리에 의해 가정교육의 단층, 정서적 측면 등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 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에서 유수아동들이 나타난 주요 '문제'들은 '초국경 유수청소년'집단에서도 같이 나타나는 문제인가? 아니면 모든 청소년이 공통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문제인가? 만약에 전자이면 부모와 떨어져서 가져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후자이면, 본 연구는 '부모와 분리'라는 요소 외에 기타의 변수를 찾아, 유수아동의 문제행동을 형성한 원인을 탐색하려고 한다.

부모와의 분리는 아동의 발전에 대한 틀림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기본권리를 박탈하게 하는 요인이 그들의 부모에서 찾으면 안 된고, 사회제도 및 구조, 혹은 더 깊은 측면에서 이를 주도하는 주체를 찾아야 한다.

유수아동에게, 그들이 생활하는 가정의 경제조건, 교육방식 등 내재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지방의 지리적 특징,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요수들이 유수아동이 내부에서 다른 지역의 유수아동과 차이를 촉진시켰다. 이로 인하여 초국경 유수청소년이 또한 이 많은 요소들 인해 학습, 생활, 감정, 요구 및 꿈과 희망 등 측면에서 다원적 특성을 보일 수 도 있다. 우리는 유수아동 문제를 연구할 때 이 집단의 내부 차이에 대해 또한 적극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1) 2004년 5월 31일, 중국교육부의 주취로 '中国农村留守儿童问题研究' 좌담회를 열었으며 전문적으로 유수아동의 문제를 연구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종각(2009),『새로운 교육사회사총론』, 동문사.
박준영(2009),『교육학개론』, 경성대학교출판부.
정철수, 한남제, 박종우(1989),『사회학개론』, 법문사
陈旭 책임 편집(2013),『留守儿童的社会性发展问题与社会支持系统』, 人民出版社
嘉勇宏(2013),『人口流动中的教育难题－中国农村留守儿童教育问题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任运昌(2013),『农村留守儿童政策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申继亮, 刘霞 책임 편집(2015),『留守儿童与流动儿童心理研究』, 北京师范大学出版社
赵俊超(2012),『中国留守儿童调查』, 人民出版社
<학술지>
段成荣, 赖秒华, 秦敏(2017), <21世纪以来我国农村留守儿童变动趋势研究>, 实证调研
段成荣, 杨舸(2008), <我国留守儿童状况研究>, 人口研究(05).
段成荣, 吴丽丽(2009), <我国农村留守儿童最新状况与分析>, 重庆工商大学校报
段成荣 周福林(2005), <我国留守儿童状况研究>, 人口研究 (29권-1)
范先佐(2005), <农村"留守儿童"教育面临的问题与对策>, 国家教育行政学院学报 (07)
李静, 刘畅, 侯福妍, 李扬(2017), <我国留守儿童发展研究综述>, 高校社科动态 (01)
李金涛(2003), <农村留守孩现象亟待关注>, 中国改革 (农村版) (06)
刘霞, 范兴华, 申继亮(2007), <初中留守儿童社会支持与问题行为的关系>, 心理发展与教育 (03)
上官子木(1993), <隔代抚养与留守儿童>, 父母必读(11)
吴霓 (2004) , <农村留守儿童问题调研报告>, 教育研究 (10)
吴理财(2005), <地方财政约束下的农村基础教育问题-湖北京山县"留守孩子"问题调查引起的思考>, 人文杂志(05)
谢新华, 张虹(2012), <国外移民留守儿童研究及其启示>, 山东省团校学报 (01)
杨国才, 朱金磊(2013), <国内外留守儿童问题研究述评与展望>, 云南师范大学学报(45-05)
叶敬忠, 孟祥丹(2010), <外出务工父母视角的留守儿童>, 中国农村经济
周福林, 段成荣(2006), <留守儿童研究综述>」, 人口学刊 (03)
Audrey M. Pottinger(2005), Children's experience of loss by parental migration in inner - city Jamaica[J]. American J ournal of Orthopsychiatry. 75(4). pp485-496.
Bryant J(2005). Children of international migrants indonesia, Thailand and the Philippinrs: A review of evidence and p olicies[J]. Innocent Working Paper.
Shahid Iqbal, Faiza Iqbal, Riaz Ahmed Mozmi(2014), Does Male International Migration Effects the Families Left behi nd Evidence from Gujrat Pakistan. Ope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2 No.6
Smith, A, Lalonde, R.N, & Johnson, S(2004). Serial migr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r etrospective analysis of the experiences of the children of Caribbean immigrants[J]. Cultural Diversity and Eth nic Minority Psychology, 10: 107-122.
<학위논문>
현미나(2017),「중국 조선족 유수아동(留守兒童)의 심리행태와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GE XIAOTONG(2018),「중국 유수아동(留守兒童)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张君玲(2008),「我国农村留守儿童的心理问题研究」, 中南民族大学, 석사
赵富才(2009),「农村留守儿童问题研究」, 中国海洋大学, 박사
<웹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青岛市统计局 http://www.stats-qd.gov.cn/
莱西政务网 http://www.laixi.gov.cn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http://www.mofcom.gov.cn/
中华人民共和国政府网 http://www.gov.cn

【중국문화 분과】 발표 ⑦

显灵传说与清代赴台移民社会
— 以开漳圣王为例

王 梓(东国大学)

在台湾的开张圣王传说故事中，有许多跟创立庙宇、助战、止争等相关的故事，与大陆流传的传说故事不太相同。大陆流传的开漳圣王故事，大多数和陈元光平定漳州，以及漳州宗族的历史有关系。而台湾的开漳圣王故事，与福建漳州籍移民前往台湾垦殖的历史密切相关，其显灵的传说，也带有非常明显的时代和地域特征。因此，本文试图通过分析开漳圣王的传说文本，探讨清代台湾的信仰与社会。

福建地区，早在明代就有不少闽南居民渡过海峡，迁居台湾。明郑时期，随着郑成功退守台湾，又有许多闽南籍兵士落籍台湾。清代平定台湾之后，尽管朝廷一再禁止内地移民前往台湾，但禁令如一纸空文，如蓝鼎元所言“前此台湾只府志百余里，凤山、诸罗皆毒恶瘴地，令其邑者，尚不敢至。今则南尽鯫，北穷淡水、鸡笼川以上千五百里，人民趋之若鹜。前此大山之麓，人不敢近，易为野番嗜杀。今则群入深山，杂垦番地，虽杀不畏。甚至傀儡内山、台湾山后，蛤仔难崇爻、卑南觅等社，亦有汉人敢至其地，与之贸易，生聚日繁，渐开渐远，虽屡禁不能使止也。”[1]清代前期，尤其在康熙中叶以后，大量的大陆移民迁往台湾。伴随着移民的进程，陈元光信仰亦传入台湾，并有所发展。

一、漳籍移民与台湾开漳圣王信仰的信仰与传说

前往台湾垦殖的大陆移民，往往会将自己家乡所崇祀神灵的神像随身携带，如泉州人往往崇祀广泽尊王、粤人（客家人）祭祀三山国王。而赴台的漳州移民，则大多带有开漳圣王之神像。在台垦殖定居之后，便立庙祭祀，因此台湾的很多地区，皆有开漳圣王之信仰。

1、漳籍移民分布与开漳圣王信仰

迁往台湾的移民之中，以漳泉居多。以《忠公派口族出居志》为例，其中记载“三十四世祖庆璋公出居台湾，三十五世祖際廷珪公出居台湾，三十六世祖运坎公出居台湾，三十六世祖运接公出居台湾，三十六世祖运房所公同出居台湾，三十六世祖运奉市公同出居淡水，三十五世祖際令公出居淡水，三十六世祖运洁公出居淡水，三十六世祖运都公出居淡水，三十六世祖运素公出居淡水，三十六世祖运铜公出居淡水。”[2]福建沿海地区，尤在闽南地区的族谱中，类似的记载屡见不鲜。依据日据时期台湾汉族祖籍调查，光绪二十九年（1903）：“操用漳州语者：一百二十万人。操用泉州语者：一百一十万人。操用客家语者：五十万人。操用其他汉语者，四万人。”[3]其中漳籍人士约占台湾总人口的42%。漳籍人士赴台之时，往往会携带开漳圣王之像，以祈求平安。正如日人铃木清一在述及台湾习俗时所言“漳州人移民台湾时，很多人都把威惠圣王神像移来台湾，在各地建‘开漳圣王庙’供奉，信徒都是漳州人。又因为开漳圣王是陈姓的祖先，所以姓陈的特别崇拜。”[4]

1)（清）蓝鼎元：《平台纪略》，清文渊阁四库全书本，第18页。
2)（清）陈祯祥：《颍川陈氏族谱集成·忠公派口族出居志》，载陈之平主编《闽台族谱汇刊》，广西师范大学出版社，2009年，第10册，第44-54页。
3) 高贤治：《台湾三百年史》，众文图书公司，1978年，第165页。

据台湾的各府县厅志记载：

“圣王庙，一在桃仔园街，嘉庆十八年简岳等捐建。一在桃仔园埔顶，乾隆五十六年王建等鸠建，道光四年江世流等重修。

惠济宫，在芝兰堡。芝山独峙，上祀开漳圣王。

福仁宫，在大姑嵌。祀开漳圣王。5)

“灵惠庙，在厅治西后街，俗号圣王庙，祀唐奉诏平蛮开漳左卫将军敕封灵惠王陈元光。旧在中街，道光辛卯漳人移建于此。”6)

“威惠王庙，漳人祀之，渡台悉奉香火．乾隆二十六年，建庙于县城西。一在西门，陈姓合建，曰小圣王庙，一在沙连保社寮。”7)

“陈圣王庙号广福宫，在县城西南。前漳邑士民公建。

沙东宫，在林屹埔横街尾庙内，并祀开漳圣王。

圣王庙在社寮街（距邑三十七里）。祀开漳圣王陈元光。”8)

“陈圣王庙在打猫街内，坐北向南，咸丰六年，众街民人公置。”9)

“开漳圣王庙（祀陈圣王），在竹巷庄（大竹），县西里许，屋二十三间，嘉庆六年张元音募建，光绪七年商民通裕号董修。一在旧城内（兴隆），县西十五里，屋六间，创建莫考。今已倾圮。”10)

从中可见，台湾南部，东部，北部和东北部俱有开漳圣王庙的存在。从台湾漳籍人口分布上看，依据民国十五年日本台湾总督府的调查，在台的漳籍人士的分布如下：

地区	漳籍人口	所占比重
台北	284600	39.2%
新竹	106500	18.3%
台中	361100	42.2%
台南	423800	42.0%
高雄	129300	26.4%
台东	1000	20.4%
花莲	4600	26.9%
澎湖	8600	12.7%

*资料来源：《第二次台湾国势调查结果表》台湾总督官房临时国势调查部，1927年。

台湾漳籍人口的主要分布与开漳圣王庙的分布趋势较为一致。主要分布在从今天的宜兰、台北到高雄，中央山脉以西的地区。从开漳圣王庙的分布上看，依据台湾省文献委员会编撰《重修台湾通志》中的调查，台湾地区开漳圣王庙的数量呈现出由北向南递减的趋势。其中，以台北地区最多，占全台开漳圣王庙宇的50%以上。这一分布与其聚落形态有关，台北地区的聚落以单一籍贯为主，存在许多单一籍贯的村落，相比之下中部和南部的聚落较多呈现杂居的形态。

以宜兰地区为例，其地开发略晚于台湾西部地区。嘉庆元年（1796），漳、泉、粤三籍入垦。据台湾知府杨廷理《议开台湾后山噶玛兰即蛤仔难节略》言“名为三籍合垦，其实漳人十居其九，泉、粤不过合居其一。所开溪北（即西势）地亩，领单时，漳已得十分之九，泉、粤合得亦不过一分。” 11) 嘉庆十五年（1810）的户口调查显示

4)（台）铃木清一郎著，高贤治等编译：《台湾旧惯习俗信仰》，众文图书公司，1981年再版，第346页。
5)（清）陈培桂纂辑：同治《淡水厅志》卷六《典礼志・祠庙》，清同治十年（1871）刊本，第377页。
6)（清）柯培元撰：道光《噶玛兰志略》卷七《寺观志》，清咸丰二年（1852）续修本，第602页。
7)（清）周玺撰：道光《彰化县志》卷五《祀典志・祠庙》，清道光十六年（1836）刻本，第532页。
8)（清）倪赞元编纂：光绪《云林县采访册・斗六堡・祠庙寺观》，载《台湾文献丛刊》，第37册，第160页。
9)（清）佚名：光绪《嘉义管内采访册・打猫南堡・祠庙》，载《台湾文献丛刊》，第58册，第30页。
10)（清）卢德嘉编纂：光绪《凤山县采访册》丁部《规制・祠庙・开漳圣王庙》，载《台湾文献丛刊》，第73册，第176页。

“漳人四万二千五百余丁、泉人二百五十余丁、粤人一百四十余丁。”[12]宜兰地区的漳籍人士占到总人口的99%，并且在土地占有方面，兰阳溪以北的兰阳平原几乎为漳州人所占有。同年闽浙总督方维甸《奏请噶玛兰收入版图状》亦称“浊水溪故道之北，尽为漳人，开垦十有八七；故道之南系泉人、粤人开垦。”[13]道光时任台湾兵备道的姚莹在《筹议噶玛兰定制升台澎道》亦言“盖缘兰民三籍，漳居十之七、八，泉仅十分之二，粤则不及其一。又三貂正道，进兰头围、西势一带，尽属漳人。”[14]民国十五年（1926）《第二次台湾国势调查结果表》亦记录时漳籍人口133100人，漳籍以外仅14300人。这一现象反映在开漳圣王的信仰方面即是宜兰地区的开漳圣王庙在全台式最多了，据《台湾开漳圣王庙团发展协会会员宫庙名录》，全台88座会员宫庙中，宜兰地区即有22座，占总数的四分之一。

台湾的开漳圣王信仰如台北士林芝山岩惠济宫《惠济宫碑记》所言：

> 盖闻一庙存节义，百代肃蒸尝，此典由来久矣。矧我圣王义自固始，震于江东，神柳为营。当年特彰韬略，风声所树。昔日感化壬黎，开疆辟地久矣，福霞漳之民社矣。迄于今世，日远年湮，姓字未尝标于青史，而声赫灵濯，精英犹复钟于芝兰，知神光普照，百族呵护，长蒙幸恩，泽覃敷千秋，食报宜厚。盖其庇民护国，惠我无疆，所以民和年丰，享祀勿替也。爰有吴德崇出焉，诚敬为怀，竭力建庙。幸逢黄文欣慷慨向义，舍山献基，而我众等亦乐志捐资，鸠手青黄之宝，虔心庆祝。肃哉！[15]

乾隆五十一年（1785），因台湾林爽文叛乱，芝兰街的漳州居民遭受波及，死伤甚多，尸骸暴露于员山仔顶，后该地业主黄文欣地建庙，后漳人吴德崇以开漳圣王事迹与漳籍移民垦殖台湾类似，故倡议建庙，乡人亦乐捐成其事。庙宇落成于乾隆五十七年（1790），成为该地区漳民祈报之所，香火旺盛。诚如所言，因传说中陈元光开漳所面临之境况与漳州移民开垦台湾时所遇相似，且其又是家乡之神，保佑漳民。故漳州渡台之移民大都携带有开漳圣王的神像，并于此建庙。

故而，台湾的开漳圣王庙之分布，受到两种因素之影响，其一为漳籍移民垦殖之方向和漳人人口总数，如台湾中西部的彰化、云嘉地区及台北、宜兰地区。其二即地方聚落中同籍聚居的比重，在台北和宜兰地区，聚落中漳籍人口比例较高，多为单一籍贯的村落，故此两地开漳圣王信仰十分兴盛。而中部地区同籍聚居比例相对较低，尽管漳籍人口数目亦较多，但开漳圣王信仰的兴盛程度略逊于台北、宜兰地区。

2、台湾开发与圣王传说

开漳圣王的故事，也随着漳籍移民在台湾的垦殖而不断被塑造出来。其中包括庙宇的建立、开漳圣王显灵等传说。关于开漳圣王庙的建立，一些宫庙是因拾到漂泊而来的香火而创置，如嘉庆二十五年（1820），村民在野柳外海发现一只满载建材的船，船上仅有神像一尊而无人。后村民将之拖回，经鉴定此乃开漳圣王之神像，故以船上建材为之立庙。[16]然而多数的宫庙之建立，都与漳州移民赴台有关，以碧山岩开漳圣王庙为例：

> 康熙末年，漳州府人士黄某携眷配戴开漳圣王香火渡海来台垦荒。行至碧山之尖顶，忽闻嗡嗡之声不绝于耳，停步视之，其声自身前一块石下小洞，认为此处是安座圣王难得一见之“蜂穴”吉地，遂将随身佩戴香火悬挂于石洞中膜拜后离去。[17]

此庙的建立即是与漳籍移民路经此地，认为此为吉地，故于此立庙。而庙宇的周边，即成为漳籍移民之聚落。碧山岩的开漳圣王庙宇也成为内湖地区漳籍移民联系的中心，并由湾仔、石潭，内沟仔、十四份、十四份陂内、火炭坑，港墘、山脚、洲仔，枧头、新陂尾、白石湖，顶番仔陂、下番仔陂五大角轮流祭祀。开漳圣王成为漳州移民

11）（清）柯培元撰：道光《噶玛兰志略》卷七《奏疏》，清咸丰二年（1852）续修本，第867页。
12）（清）柯培元撰：道光《噶玛兰志略》卷七《杂志上》，清咸丰二年（1852）续修本，第773页。
13）（清）柯培元撰：道光《噶玛兰志略》卷七《奏疏》，清咸丰二年（1852）续修本，第777页。
14）（清）柯培元撰：道光《噶玛兰志略》卷七《奏疏》，清咸丰二年（1852）续修本，第826页。
15）（清）道光二十五年（1845）《惠济宫碑记》，碑存台北惠济宫。
16）台北野柳保安宫《野柳保安宫简介》。
17）内湖碧山岩开漳圣王庙《台北市内湖区碧山岩开漳圣王庙简介》，1986年。

在台湾垦殖的保护神，现在还流传着有关开漳圣王显灵，保护内湖居民免受土匪劫掠的故事：

> 乾隆十六年（1751）碧山尖顶山下一带，土匪猖撅，聚众劫舍，掳人勒索，蛮横无比。某日黄昏，匪徒又在山下聚集，计议行劫，忽见尖顶山头金光万道，锋芒四射，战鼓齐鸣，宛如万马奔腾，匪众闻见丧胆。斯时悬挂圣王香火之石块巨响一声分裂为三，中块乃开漳圣王化身，而两边石块即为李、马将军仍立在原地不动外，周围散石一直滚落山下匪徒聚集处，匪众纷纷弃械鼠窜，此后遂无土匪为非作歹。[18]

有学者认为，这一则故事史实所记载的乃是乾隆五十一年（1785），林爽文之乱的情形。只是时间上和叙事略有不同。据同治《淡水厅志》载：乾隆五十二年（1787），（闽安协副将徐鼎士）遣琇、龙章、易□□同义民首黄朝阳、黄日勉等分路追杀,贼奔踞甘林陂、白石湖……（师）进兵攻之，贼踞高巅，下矢石如雨。师退札山麓。数攻之，贼大窘，并众力拒。同知徐梦麟招安之，于是先后来降。[19]遭到官军征缴的史实，经过民众的篡改，成为了开漳圣王保护内湖民众的历史记忆。又如新北市新店地区大坪顶太平宫，有传说云：

> 文山堡赤涂炭庄有一古庙供开漳圣王，系乾隆初年大坪林庄、永丰庄、安坑众等鸠资公建，故号曰“林丰安”，当日三庄凑成十股奉圣王为主，垦辟安坑一带山田。其处蕃。每欲进耕必请示圣王。如有许杯准去，虽入深履险，安然无恙，否则辄遭蕃害，屡试屡验。[20]

除此之外，芝山岩惠济宫有传说载附近村庄的作物连遭虫害，居民无计可施，便只能求助于开漳圣王。后见农田间出现点点火光，不久后虫害便消失了。附近滴雅、三角埔的居民听说后亦来此祈祷，皆有灵验。开漳圣王的传说是漳州民众开垦台湾时期集体记忆的留存，其中即包括了民众对于神灵、信仰的认知，也包含了漳籍移民在开垦台湾过程中遇到的寇乱、天灾、汉番冲突等等困难。同时，大量相关的传说故事也反映出在克服垦殖困难的时候，漳籍民众主要依靠以开漳圣王信仰为标志的漳籍村落组织的支持。

开漳圣王，作为漳籍移民崇信的神灵，伴随着漳籍移民开垦台湾的过程，在漳籍移民分布较多的北部、西部和西南部地区被漳人所崇拜。其信仰的内容，也随着台湾垦殖的需要，而被打上鲜明的烙印。在开垦初期，漳籍移民遇到的叛乱、天灾以及其与生番之冲突，都在开漳圣王的故事中体现出来。然而开漳圣王信仰的兴盛，不仅仅与漳州移民的崇信与屡屡显灵的神迹的塑造有关，其发展更与台湾社会的特殊的聚落结构与历史经历息息相关。

二、 圣王显灵：地缘认同与分类械斗

垦殖台湾过程中，各籍移民携带自己信奉的神灵渡台，故而台湾的民间信仰在清代中期十分兴盛，正如嘉庆十六年（1811）《盐水港街新旧港郊联合规约书》中所记载的那样“赏观一乡一社之间，有田庐居民之处必有神焉!以主其它必有人焉!以着其地。神佑人，人祀神，依古然矣!”[21]神灵在台湾的开垦和社会生活中扮演了十分重要的作用。

1、漳籍移民的聚落组织与圣王信仰

赴台之移民，大都只身前往，或与亲属二三为伴或与同乡公渡台湾。极少有举族迁徙之例。故而台湾早期的发展中，宗族力量并不强大，与内地漳泉地区宗族在村落生活中占据中心地位的情况形成了鲜明的反差。《台湾府

18）内湖碧山岩开漳圣王庙《台北市内湖区碧山岩开漳圣王庙简介》，1986年。

19）（清）陈培桂纂辑：同治《淡水厅志》卷十四《兵燹》，同治十年（1871）刻本，第845页。

20）《议修庙宇》，《台湾日日新报》，1899年11月29日。转引自简有庆《台北地区开漳圣王的信仰与传说初探》，《闽台文化交流》，2011年，第2期。

21）（清）嘉庆十六年（1811）《盐水港街新旧港郊联合规约书》，载《台湾文献丛刊》第117册《台湾私法人事编》，第264页。

志》即载“隶斯籍者，非有数世高、曾之土著也；有室、有家，父而子、子而孙，即为真土著矣。以故宗族之亲少、洽比之侣多，此亦四海兄弟之意。”[22]尽管府志中言“此四海兄弟之意”，然而在台湾的开发过程中，并非总能见到来自不同地方、不同族群的人共同开垦的场面。

由于赴台的移民以漳州、泉州、广东客家地区潮、嘉等州的人居多，因此同乡之人，出于共同的语言和信仰，往往聚居。如《诸罗县志》所言“土著既鲜，流寓者无期功强近之亲，同乡井如骨肉矣。疾病相扶、死丧相助，棺敛埋葬，邻里皆躬亲之。贫无归，则集众捐囊襄事，虽悭者亦畏讥议。诗云：‘凡民有丧，匍匐救之’。此风较内地犹厚。”[23]在宗族缺席的情况之下，乡族成为联系移民的重要纽带。在台湾，“除郡城、县城及港口镇集各处，俱为五方杂处之区，其余村庄，原系自分籍贯，各为一庄居住。”[24]尤其是在台湾北部的台北宜兰一带，居民来自单一祖籍地的聚落更是广泛存在。

如上文所述，“一乡一社之间，有田庐居民之处必有神焉”。而这些由单一祖籍移民构成的聚落，常常建庙祀奉祖籍地的神灵。《台湾纪事》载“闽、粤各有土俗，自寓台后又别成异俗。各立私庙，如漳有开漳圣王、泉有龙山寺、潮有三山国王之类。”[25]以漳籍移民为主的村落主要祭祀开漳圣王。此类开漳圣王庙，通常为漳籍聚落之核心，日人伊能嘉矩在《台湾文化志》引《八罩澳纲垵乡公约》“是体天理、人情之至意，存化民、善俗之深心，非好创为异说也，天地神人共鉴厥成焉。”[26]凡一乡之乡老集会，公约订立，试行调处，规定制裁，均在神祠之内举行。显示出此类庙宇在聚落中扮演类似地方自治组织的角色，与闽南单姓村落中的宗族之职能相类。大多数的庙宇还有庙产，其作为村落之公有财产，用于祭祀、游神、修葺寺庙和修建桥梁、渡口等公共设施等方面。

同一时期的闽南庙宇，则大多为宗族之附属。如漳浦地区60余座庙宇，大多为陈氏宗族所管理，其余庙宇则多为陈元光部将的后代掌管。可见这些开漳圣王庙大多为宗族的私产，鲜有在多姓村中作为聚落中心的公共庙宇。台湾地区的开漳圣王庙，则显示出庙宇、村落、漳籍人士三者的结合。开漳圣王庙既是漳籍人士信仰的中心，又是村庄公共活动的中心与村落事务处理的地点。因此宫庙势力发展，与漳人势力扩张往往呈现出一致性的特征。以南投竹山武德宫（社寮开漳圣王庙）为例，庙中所存嘉庆二十四年（1819）《开漳圣王油香碑》载：

> 施主水沙连社通事社丁首黄林旺等，有本社界内清水沟西势山场，自丹芳坑起、至涝水仔坑止；东至清水溪，西至山巅，凡水流归一带山面、溪洲、清水口、牛埔厝、顶寮止，乌涂起，顶厝止。施落圣王庙，以为油香之资。随即给垦，交僧执掌，永远抽收，以为庙祀之费。勒石存据。[27]

捐地之人黄林旺，为郭百年案主犯之一。关于这一事件，姚莹在《东槎纪略》中有详细记载。嘉庆十九年（1814），水沙连丁首黄林旺勾结嘉义、彰化的陈大用、郭百年以及台湾府门丁黄里仁，假借已故生番头目的名义，以“积欠番饷，番食无资”为由，请求将祖遗的水里、埔里二社土地让给汉人耕种。得到知府允诺后，郭百年等人进入原属于番人的水里社、沈鹿等地垦殖，番人势弱，不敢反抗。后又帅众侵入埔里，番人不服，与之对峙数月。郭百年冒充官员，称若番人进山取鹿茸为贡物，就让汉人退兵。又在番人进山之际入社大肆焚杀，夺去其地。自此以后“众番无归，走依眉社、赤崁而居”，“二十四社自是大衰。”[28]这一事件直到嘉庆二十一年（1816）才为台湾总兵武隆阿知悉，然而处罚仅仅是郭百年受到杖刑，并立碑禁止汉人进入水沙连地区。

嘉、道年间，竹山地区土地几乎已经开垦完毕，因此，这一地区的汉人开始积极向生番居住的地区拓殖。依据《竹山郡管内概况》记载，从康熙年间开始拓殖这一区域的主要是漳籍移民。以漳州人为主的汉人从斗六门，经林圯铺、社寮、集集、头社、鱼池等地向埔里方向垦殖。尽管官府在“集集、乌溪二口，各立禁碑。”但仍无法阻止汉人拓殖的脚步。此座开漳圣王庙，于乾隆六十年（1795）割香于漳州府诏安县，从最初的简陋小庙，随着漳人垦殖和势力的扩张，逐渐成为这一地区的信仰及活动中心。社寮武德宫庙中并祀妈祖，至今每年农历二月十五日，社

22)（清）蒋毓英修，高拱乾增补：康熙《台湾府志》卷七《风土志》，清康熙三十五年（1696）刻补本，第591页。
23)（清）周钟瑄、陈梦林纂修：康熙《诸罗县志》卷八《风俗志·汉俗·杂俗》，清康熙五十六年（1717）序刊本，第447页。
24)（清）《钦定平定台湾纪略》卷五十《乾隆五十三年（1788）正月初四日至十一日》，清文渊阁四库全书本，第806页。
25)（清）吴子光：《台湾纪事》卷二，附录三《台俗》，载台湾文献丛刊，第36册，第99页。
26)（日）伊能嘉矩：《台湾文化志》，转引自戴炎辉《清代台湾之乡治》，联经出版事业公司，1979年，第181页。
27)（清）嘉庆二十四年（1819）《开漳圣王油香碑》，碑存台湾南投竹山武德宫。
28)（清）姚莹：《东槎纪略》卷一《埔里社纪略》，载《台湾文献丛刊》，第7册，第33页。

寮十庄居民聚集此地，迎接神灵并依次游行：大公、后埔仔、田中央仔、狮尾窟、水车、溪洲仔、山脚、水底寮、他里温九庄。社寮十庄对于开漳圣王庙的祭祀，形成了区域性的祭祀圈，十庄居民以祭祀的仪式来表达其村落的社会联系。换而言之，开漳圣王庙通过宗教仪式，构成为区域性村落组织的中心。

除了漳州人信仰开漳圣王外，一部分同安人亦有开漳圣王之信仰。如道光二十五年（1845）《台郡银同祖庙碑》所载：

> 岁道光乙巳，皎亭李君游台归，以台郡城银同祖庙告成，请予为文以记之，乃告予曰：“郡城故有‘同营会馆’，岁久而圮，仅存隙地。辛丑，戍弁陈青山倡议劝捐重建，职员陈邦英、高兴邦等协董其事。易其朝向，扩其地基，辟为前后两楹，翼以护室。中堂塑天妃暨吴真人、陈圣王神像。凡同人之来郡者，寓焉；及试期，士子寓者尤伙。颜其额曰：‘银同祖庙’，实则‘银同会馆’也。”[29]

同安与漳州相邻，语言文化较为相似，且交往密切，民间素有“金漳银同”之称。庙中祀天妃、吴真人（吴夲）和开漳陈圣王。如文中所言，额曰“银同祖庙”，实则“银同会馆”，为在台同安人之会馆，为同乡人提供各种帮助，同时也是同安人士交流活动之中心。祖庙中所祀开漳陈圣王塑像，实为漳、同人士交往之纽带，与漳、同人士认同之象征。开垦台湾过程中，漳州人与同安人往往联系密切，相互支持，互为同盟。有时甚至在分类械斗中也保持一致立场。

2、分类械斗与圣王叙事

移民的开拓使台湾地区的开漳圣王信仰往往发展成为统合漳人聚落之纽带和地域社会的中心。故而形成了如姚莹在《答李信斋论台湾治事书》中所言“漳人党漳，泉人党泉，粤人党粤”[30]的局面。又“泉、漳之民，性极拙而易怒。拙则闲于利益，而无远图。易怒，则不可讥，不可讥则少屈抑，而发之暴矣。”[31]正因为台湾居民有同乡聚居，“各分气类”的特点，又“拙而易怒”，故而稍有嫌隙，即成械斗。如上文所述，赴台移民多以信仰为中心组织成以同乡为主的地域集团，因此地区的冲突往往表现为分类械斗，即不同族群之间的斗争，诸如“福客斗”、“漳泉拼”等等。

康熙六十年（1721）闽人朱一贵倡乱，粤族就在讨伐乱贼的名义下组织“六堆义民”，与闽人械斗。并将死难者奉祀于忠义亭。乾隆四十七年（1782）彰化县漳、泉民众因赌博起衅，致彰化、诸罗二县漳、泉相拼。嘉庆十一年（1806）鹿港理番同知黄嘉训募乡勇防守鹿港以防蔡迁寇扰。不料所募乡勇多漳人，而鹿港多半为泉人，故械斗又起，漳人以讨伐之名，屠杀泉人。道光六年（1826）彰化县粤人李通，因偷了闽人黄文渊的一只猪，而引发闽粤械斗。……此类械斗不甚枚举。为了加强族群内部的团结，以便对付其他移民团体，各族群都请出家乡之神，加以祭拜，如漳人祀“开漳圣王”，泉人多祀“广泽尊王”，客家人祀奉“三山国王”。故而在台湾的诸多民间信仰，都形成了各自有关械斗的传说。如大甲沙鹿庄南势坑的福兴宫庙宇，祀奉泉州人王勋，据说漳泉之战时，王勋奋勇击退漳州人的进攻。泉州人感念恩德，故捐资立庙供奉。[32]

台湾的开漳圣王信仰亦是如此，以芝山岩惠济宫为例，附近流传着两个传说：

> 芝山岩南侧山下有一巨石，传闻是开漳圣王的御马，士林漳州人与艋舺泉州三邑人发生械斗，圣王即骑此马立于漳州人的头阵，因此士林漳州人屡战屡胜。后泉州人派遣一人趁黑夜以刀刺进石马侧腹，石马不支死亡，此后开漳圣王不再骑乘此马助战。[33]

29）黄典权：《台湾南部碑文集成》甲、记（下）《台郡银同祖庙碑》。
30）（清）姚莹：《东溟文集》卷四《答李信斋论台湾治事书》，清中复堂全集本，第51页。
31）（清）谢金銮：《蛤子难纪略（附）泉漳治法论》，见丁日健《治台必告录》卷二，台湾文献丛刊第十七种，台湾银行经济研究室编印，1959年，第98页。
32）（日）铃木清一郎著，高贤治等编译：《台湾旧惯习俗信仰》，众文图书公司，1981年再版，第328页。
33）（日）林川夫编：《民俗台湾》第一集，武陵出版有限公司，1995年，第242页。

芝山岩惠济宫每月朔、望皆会高挂天灯，而艋舺就会发生火灾，后艋舺人发现是芝山地理的关系，在三邑人大庙龙山寺前设置莲花池以镇火灾。后芝山岩惠济宫改建时，艋舺人买通地理师将庙基放低，自此艋舺不再发生火灾因。[34]

考其中所述，乃咸丰三年（1853）发生在台北艋舺（今台北市万华区）的“顶下郊拼”。争斗的双方为泉州晋江、南安、惠安“三邑人”为主的顶郊人与泉州同安人、漳州人为主的下郊人。同安由于与漳州相邻，文化相近，在此次械斗中与漳人相党，所谓“属泉而附漳”。据军机处台湾镇总兵邵连科所奏：“三年七月间,淡水偶值风台，厅属三角涌庄安溪泉人，假以艰食为名，截抢漳人米石。署同知张启煊会营查拏，匪首刘沫必等自知罪重，遂造谣漳人欲与泉人为难，构成漳泉分类。于是泉之安溪、晋江、南安、惠安合为一类与漳人及素不相协之同安人寻斗。粤人又复阴助泉之四县，以攻漳同。自竹堑以至三貂岭十三保地方，攻焚抢掳，日寻十戈，残毁村庄大小七百九十余处。而新庄最为繁盛之区，店舍民房不下五六千户，概成灰烬，并填塞内外港道，拆毁各处水圳，掘人坟墓，拒杀兵丁，靡恶不为。”[35]同治《淡水厅志》亦载“咸丰三年八月，漳、泉四县分类械斗，三角涌匪徒倡乱，毁八甲新庄。”[36]这次械斗的结果是漳、同为主的下郊人战败，逃亡大稻埕。有关这次械斗的历史记忆，却以故事的形式流传下来。

二则传说的开始都是漳州人得到神助或是占据有利的地理位置，并在与三邑人的斗争中占据优势。后三邑人发现了其中的秘密，想出各种方法对抗漳州人。如暗中派人刺杀石马，买通地理师放低惠济宫庙基。既隐含了“顶下郊拼”失败之结果，又无损神灵之威信。此外漳人的叙事中显示出自身享受神灵庇佑和占据地区优势的自我认知，同时也强调敌人本不占优势，却利用阴谋诡计暗算漳州人。这种意识的构建，不仅仅有利于移民团体内部凝聚，同时也构建了对手卑劣形象的刻板印象，为械斗中的杀戮洗脱罪名，淡化自身的罪恶感。例如北海岸地区基隆奠济宫传说，咸丰年间分类械斗时，开漳圣王派遣神兵助战，保护漳人，陷泉人于海鏖杀之。[37]“顶下郊拼”中泉州人焚烧民户“拒杀兵丁”的行为与漳人“陷泉人于海鏖杀之”如出一辙。双溪柑脚威惠庙传说：

道光三十年（1850）双溪平林、柑脚之漳州人移垦越过中心仑推进安溪人垦地阔獭，双方迭起摩擦。安溪人亦越过中心仑进人双溪头盘山坑、中坑、下坑争垦，并奉其乡土神保仪大夫，以号召团结准备攻占柑脚。漳人遂向下游平林圣王公会告急求援，形成“人与人战，神与神战”之势，凡有行动，泉人请示尪公，漳人请示圣王公。战斗中曾见开漳圣王化芒草为利刀，与尪公拼斗，尪公伤右脸而退却，自兹未见泉人来犯。[38]

所谓“尪公没头壳，圣王公没手骨。”[39]人与人战、神与神战的情形显示出械斗双方利益冲突，隐藏在神圣的外衣之下。械斗中对于神灵的崇拜消解了民众对于械斗方式的质疑，认为对于丑恶敌人的攻击和杀戮是正确的、无罪的，其来自于神灵的启示。并在神圣气质之下强化自身的认同与同籍村落联盟的构建，妖魔化其他族群的形象并固化这一认识。

纵观清代中叶至日据时期台湾历史，大小械斗不甚枚举，其源自台湾特殊的移民结构与不同族群之间的文化差异，与同籍聚居的地域组织。移民团体之间的冲突，形成了民间对于族群争斗的集体记忆，通过神灵故事表现出来。神灵助战的传说又进一步强化了族群意识和对外族的妖魔化认知。两者相互作用，构成了清代台湾根深蒂固的族群观念，并导致屡禁不止的分类械斗。加之神圣外衣笼罩下的械斗行为，洗脱了仇杀的罪恶感，致使在有关械斗的记录中，常常可以看见十分极端的杀戮和摧毁村庄的行为，较闽南之械斗，具有更大的破坏力，可谓有过之而无不及。

3、马舍人叙事与同安籍移民

马仁，作为陈元光的部属，随着征台的将领和移民进入台湾。然而与开漳陈圣王不同，马舍公信仰并没有打上

34)（日）林川夫编：《民俗台湾》第一集，武陵出版有限公司，1995年，第244页。
35) 中国第一历史档案馆藏：《军机处录副》，咸丰六年（1856）七月二十一日，邵连科等奏折。转引自孔立《咸丰三年台湾北部“顶下郊拼”》，台湾研究集刊，1988，第1期。
36)（清）陈培桂纂辑：同治《淡水厅志》卷十四《兵燹》，清同治十年（1871）刊本，第860页。
37) 陈世一：《寻找河流的生命力：基隆河中游暖暖、七堵段历史与地理巡礼》，基隆市立文化中心，1997年，第74-78页。
38) 唐羽：《双溪乡志》卷之九《胜迹志・丛谈》，双溪公所，2001年，第769-770。
39) 陈世一：《寻找河流的生命力：基隆河中游暖暖、七堵段历史与地理巡礼》，基隆市立文化中心，1997年，第74-78页。

鲜明的族群标志。在台漳人、泉人皆有信仰。然而随着台湾族群意识的强化与不同族群之间的分裂，马仁在台湾的信仰也逐渐发展成为漳州、泉州两个系统。

如芝山岩惠济宫对马仁的描述为：

> 辅顺将军姓马名仁，为开漳圣王的先锋官，允文允武，英勇善战。且精通医术，漳州兵变，陈圣王奉旨平乱，马仁为先锋官，百战百胜，收复漳州，不幸又逢时疫，马仁义诊出药，普救众生，时疫赖似平息，而后救封为“辅顺将军”。40)

漳州人对于马舍公的崇拜与描述，与漳州地区并没有太大差别。大多将之作为开漳圣王的陪祀，供奉于开漳圣王的宫庙之中。或以其在平台一役中显灵，而为部分驻守台湾的将士所信奉，其传入与崇祀与漳浦蓝氏家族有关。此外还有以其精通医术，又英勇善战，被漳人单独立庙祭祀。但是无论作为陪祀还是主神，漳人庙宇中对于辅顺将军的描述基本一致，即其名为马仁，为陈圣王之部将。

漳州人之外的台湾马舍公信仰，却发展出了不同的叙事，如有认为是东汉马援，北宋杨文广部将马恩，宋仁宗镇殿大将军马殷，宋人马福……等数种说法。在马舍公的信徒中，有许多是来自同安的移民，如台北“三重四角舍人公会”祀马舍公，即来自同安仁德里的林氏宗亲的神明会，又如台北五股乡同安陈氏，崇祀辅顺将军舍人公，台北庄氏舍人公会，台北“三重五角舍人公会”王氏宗亲会等等。在台湾同安移民的描述中，马舍公不再是开漳圣王陈元光的部将，以台北的西亭陈氏为例，其所祀马舍公是保护自己宗族的押渡官。然而有关他事迹的说法，西亭陈氏不同的村庄则流传着不同的故事：

> 一说是安禄山造反，陈族由河南迁居闽南，舍人公即是保护迁闽百姓的武官。
>
> 另一说则称是蒙古灭亡宋朝之后，唯恐汉人反抗，便拆散汉人亲属，押往落后地方开垦。而马舍人即是其中的一位押运官。可是在陈族祖先遭遇盗寇之际，马舍人不但没有弃之不管，反而保护陈氏族人的安全，教授武艺抵御土匪。41)

故事采集的时间大致在日据时期，从居住较近的陈氏族人的表述分歧上看，有关马舍公保护陈氏宗族的故事尚未形成一致的叙述并固定下来，故其形成时间应当较晚，流传的范围也局限在一个较小的区域内。可见此时台北的同安籍各姓氏宗族自我认识的构建尚未完成，然而其形成不同于漳州人所信奉的马仁马舍公的叙述，显示出尽管有着“属泉而附漳”的历史，然而族群的分野依旧存在。台北士林街菁礐庄开漳圣王庙有传说：

> 阳明山上于咸丰年间发生漳泉械斗，双方都梦见开漳圣王带领数万神兵，谓若不停战和好，则派兵马剿灭。后同安人自行撤退，坪顶、菁礐两庄的漳州人每天都对天祭拜，后以一块石头作为朝拜的对象，后以木头造金身奉祀奉。42)

传说中明确的提到漳泉械斗，漳州与同安人的对立。然而，和其他助战的传说不同，开漳圣王并非助漳人进攻泉州人，而是托梦双方，下令停战和好，后同安人自行撤退，避免冲突升级。从中不难发现，漳、同关系之微妙，不同于漳人与泉州三邑人之间显著的对立关系。同安籍移民的对于马舍公信仰的构建，与其在漳泉对立中的尴尬处境不无关系。崇信马舍公的同安籍宗族，脱离开漳圣王的信仰体系，构建出了独立的神灵叙述，与台湾的同安籍移民的发展和自我认同不无关系。

结论

从流传在台湾的开漳圣王传说故事中，不难看出：清代国家与宗族，对于台湾的开漳圣王信仰影响甚微，取而

40）施百炼：《芝山岩之古迹与传说》芝山岩惠济宫，1988年，第4-5页。
41）陈清富编撰：《舍人公与辅顺将军传记的研究》，陈氏舍人公管理委员会，1996年，第6-10页。
42）李瑞宗：《阳明山国家公园原住民史迹调查与耆老口述历史记录》之《十八份、顶湖座谈会，菁礐、山猪湖座谈会》，1997年，第83-84页。

代之的，则是赴台移民对于开漳圣王信仰的建构。首先即体现在漳籍移民与庙宇的分布上，漳籍移民较多且聚居比例越高的地区，开漳圣王信仰也就愈加兴盛。其中以宜兰地区为最，台北次之，漳籍移民多但村落同籍人士聚居比例低的中部地区又次之，继而是漳人较少的南部地区，而台湾东部地区，由于较少漳人垦殖，故仅零星的小范围信仰。移民的影响不仅仅体现在地域分布之上，由于赴台之人多与同乡聚居，形成了许多由单一祖籍群体构成的村落，作为漳人的共同信仰，开漳圣王庙宇往往成为某一村落的中心，或几个漳人村落联系的纽带，形成了共同的祭祀圈和区域共同体。在不同的移民团体之间出现冲突和械斗之时，开漳圣王又凸显出强化族群凝聚力的作用，一方面强调神灵的启示与助战，一方面妖魔化外族形象，进而强化漳籍移民的族群认同与族群的排他性。除了开漳圣王以外，其部将马仁，虽然不作为族群之象征，然其在台湾的发展呈现出脱离开漳圣王信仰系统的现象，也显示出不同地域族群自我认同方面的分野。上述的种种变化，都体现出陈元光信仰在台湾的发展显示出明显的族群认同的特征。除此之外，台湾的开漳圣王叙事与国家、宗族的精英对于陈元光身份及神迹的塑造不同，后者有着明显的精英特征，依照国家的正统观念和礼制附会神灵的行迹，而前者则显示出较为强烈的非精英色彩，尤其体现在其显灵的故事上，相对完整的保存下漳籍移民在台湾垦殖时的群体记忆。在国家和宗族精英力量相对薄弱的台湾，民间文化有充分的表达空间，也正因如此，台湾地区的开漳圣王信仰形成了不同于闽南地区的信仰建构，体现出浓厚祖籍认同之特质。

【메 모】

【메 모】

【메 모】